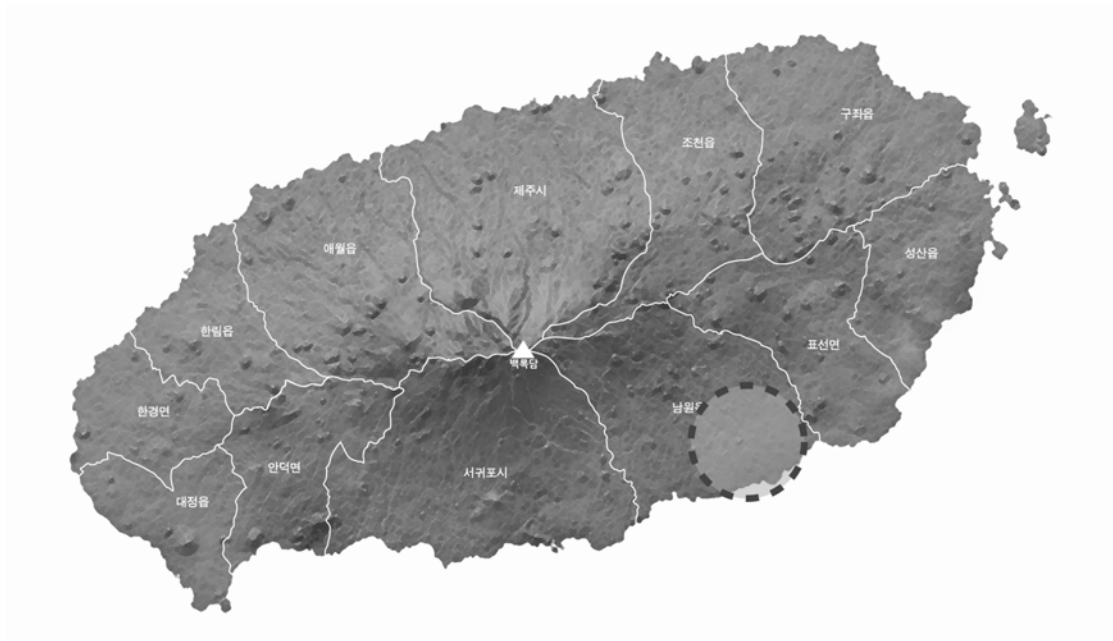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359-01

# 2016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김미진  
조사지점: 남원읍태흥리

# 30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6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2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 3차년도(2016)        |         |
|-------------------|---------|
| 조사 지점             | 조사자     |
| 25. 제주시 노형동       | 안민희     |
| 26. 조천읍 신촌리       | 안민희     |
| 27. 우도면           | 김승연     |
| 28. 성산읍 은평리       | 김순자     |
| 29. 표선면 세화리       | 최연미     |
| 30. 남원읍 태흥리       | 김미진     |
| 31. 서귀포시 토평리      | 김보향     |
| 32. 안덕면 덕수리       | 김순자     |
| 33. 대정읍 인성리       | 김미진     |
| 34. 한경면 신창리       | 김보향     |
| 35. 한림읍 옹포리       | 신우봉     |
| 36. 애월읍 구엄리       | 김성용     |
| 37. 제주어 구술 채록 질문지 | 강영봉·김순자 |

2016년 12월 30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2016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30

목 차

|                       |     |
|-----------------------|-----|
| 제1장 사업 개요             |     |
| 1.1. 사업 목적 .....      | 7   |
| 1.2. 사업 기간 .....      | 7   |
| 1.3. 조사 참여자 .....     | 7   |
|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 | 9   |
| 1.5. 기대 효과 .....      | 10  |
| 제2장 남원읍 태흥리 조사 내용     |     |
| 2.1. 제보자 .....        | 11  |
| 2.2. 조사 기간 .....      | 11  |
| 2.3. 조사 항목과 내용 .....  | 11  |
| 2.4. 전사 .....         | 13  |
| 2.5. 장비 .....         | 13  |
| 제3장 전사 자료             |     |
| 제1절 구술                |     |
| 1. 조사 마을 .....        | 14  |
| 3. 밭일 .....           | 44  |
| 5. 바다일 .....          | 141 |
| 7. 식생활 .....          | 209 |
| 2. 제보자 일생 .....       | 21  |
| 4. 들일 .....           | 114 |
| 6. 의생활 .....          | 174 |
| 제2절 어휘                |     |
| 1. 인체 .....           | 283 |
| 3. 친족 .....           | 296 |
| 5. 음식 .....           | 305 |
| 7. 생업 .....           | 319 |
| 9. 민속 .....           | 334 |
| 11. 자연 .....          | 337 |
| 13. 식물 .....          | 355 |
| 2. 육아 .....           | 289 |
| 4. 의복 .....           | 300 |
| 6. 가옥 .....           | 314 |
| 8. 수와 단위 .....        | 331 |
| 10. 신앙 .....          | 337 |
| 12. 동물 .....          | 345 |



# 제1장 사업 개요

##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 1.3. 조사 참여자

###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3차년도-2016>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성용(귀일중학교 교감)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 1차년도(2014)  |           | 2차년도(2015)   |           |
|-------------|-----------|--------------|-----------|
| 조사 지점       | 조사자       | 조사 지점        | 조사자       |
| 1. 제주시 도련1동 | 김순자       | 13. 제주시 외도동  | 김순자       |
| 2. 조천읍 선흘리  | 김미진       | 14. 조천읍 함덕리  | 김미진       |
| 3. 구좌읍 송당리  | 김선희       | 15. 구좌읍 한동리  | 김보향       |
| 4. 성산읍 고성리  | 김승연       | 16. 성산읍 삼달1리 | 김미진 · 김선희 |
| 5. 표선면 표선리  | 허영선 · 김순자 | 17. 표선읍 성읍1리 | 김순자       |
| 6. 남원읍 남원리  | 김보향       | 18. 남원읍 수망리  | 최연미       |
| 7. 서귀포시 보목리 | 최연미       | 19. 서귀포시 하원리 | 김승연       |
| 8. 안덕면 동광리  | 김성용       | 20. 안덕면 대평리  | 김성용       |
| 9. 대정읍 구역리  | 이완국       | 21. 대정읍 신도리  | 신우봉       |
| 10. 한경면 고산리 | 신우봉       | 22. 한경면 청수리  | 안민희       |
| 11. 한림읍 월령리 | 안민희       | 23. 한림읍 대림리  | 오창명       |
| 12. 애월읍 봉성리 | 오창명       | 24. 애월읍 고내리  | 김보향       |

| 3차년도(2016)        |           |
|-------------------|-----------|
| 조사 지점             | 조사자       |
| 25. 제주시 노형동       | 안민희       |
| 26. 조천읍 신촌리       | 안민희       |
| 27. 우도면           | 김승연       |
| 28. 성산읍 온평리       | 김순자       |
| 29. 표선면 세화리       | 최연미       |
| 30. 남원읍 태흥리       | 김미진       |
| 31. 서귀포시 토평리      | 김보향       |
| 32. 안덕면 덕수리       | 김순자       |
| 33. 대정읍 인성리       | 김미진       |
| 34. 한경면 신창리       | 김보향       |
| 35. 한림읍 옹포리       | 신우봉       |
| 36. 애월읍 구엄리       | 김성용       |
| 37. 제주어 구술 채록 질문지 | 강영봉 · 김순자 |

##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제2장 남원읍 태흥리 조사 내용

### 2.1. 제보자

오윤생(1932년생, 여)  
 오봉남(1923년생, 남)  
 정평택(1938년생, 여)  
 송만자(1940년생, 여)

2.2. 조사 기간: 2016. 3. 21.~12. 31.

###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 조사 내용     | 파일명             | 제보자 | 시간       | 전사 |
|-----------|-----------------|-----|----------|----|
| 1. 조사 마을  | 태흥구술(1. 조사마을)   | 오윤생 | 00:18:00 | ○  |
| 2. 제보자 일생 | 태흥구술(2. 제보자 일생) | 오윤생 | 01:07:42 | ○  |
| 3. 밭일     | 태흥구술(3. 밭일1)    | 오윤생 | 01:20:49 | ○  |
|           | 태흥구술(3. 밭일2)    | 오윤생 | 00:40:06 | ○  |
|           | 태흥구술(3. 밭일3)    | 오윤생 | 00:45:00 | ○  |
| 4. 들일     | 태흥구술(4. 들일)     | 오윤생 | 00:58:22 | ○  |
| 5. 바다일    | 태흥구술(5. 바다일)    | 오윤생 | 01:17:38 | ○  |
| 6. 의생활    | 태흥구술(6. 의생활1)   | 오윤생 | 00:01:12 | ○  |
|           | 태흥구술(6. 의생활2)   | 오윤생 | 01:19:36 | ○  |
| 7. 식생활    | 태흥구술(7. 식생활1)   | 오윤생 | 01:22:31 | ○  |
|           | 태흥구술(7. 식생활2)   | 오윤생 | 00:37:08 | ○  |

|          |                         |     |          |   |
|----------|-------------------------|-----|----------|---|
|          | 태흥구술(7. 식생활3)           | 오윤생 | 00:30:29 | ○ |
| 8. 주생활   | 태흥구술(8. 주생활1)           | 오윤생 | 00:56:11 | × |
|          | 태흥구술(8. 주생활2)           | 오윤생 | 00:42:29 | × |
| 9. 신앙    | 태흥구술(9. 신앙)             | 오윤생 | 00:07:38 | × |
| 10. 세시풍속 | 태흥구술(10. 세시풍속1)         | 오윤생 | 00:33:40 | × |
|          | 태흥구술(10. 세시풍속2)         | 오윤생 | 00:17:11 | × |
|          | 태흥구술(10. 세시풍속3)         | 오윤생 | 00:21:33 | × |
| 11. 놀이   | 태흥구술(11. 놀이1)           | 오윤생 | 00:06:19 | × |
|          | 태흥구술(11. 놀이2)           | 오윤생 | 00:19:49 | × |
|          | 태흥구술(11. 놀이3)           | 오윤생 | 00:13:24 | × |
| 12. 통과례  | 태흥구술(12. 통과례1)          | 오윤생 | 01:03:47 | × |
|          | 태흥구술(12. 통과례2)          | 오윤생 | 01:33:37 | × |
|          | 태흥구술(12. 통과례3)          | 오윤생 | 00:31:54 | × |
| 13. 민간요법 | 태흥구술(13 민간요법, 14 경험담 등) | 오윤생 | 00:54:55 | × |
| 14. 경험담  | 태흥구술(13 민간요법, 14 경험담 등) |     |          |   |

<표 2> 어휘 채록 내용

| 조사 내용 | 파일명          | 제보자               | 시간       | 정리 |
|-------|--------------|-------------------|----------|----|
| 1. 인체 | 태흥어휘(1. 인체1) | 송만자 외<br>태흥2리 노인당 | 00:21:01 | ○  |
|       | 태흥어휘(1. 인체2) | 송만자 외<br>태흥2리 노인당 | 00:42:53 | ○  |
| 2. 육아 | 태흥어휘(2. 육아1) | 송만자 외<br>태흥2리 노인당 | 00:23:43 | ○  |
|       | 태흥어휘(2. 육아2) | 송만자 외<br>태흥2리 노인당 | 00:37:22 | ○  |
| 3. 친족 | 태흥어휘(3. 친족)  | 정평택               | 00:37:28 | ○  |
| 4. 의복 | 태흥어휘(4. 의복1) | 오윤생 외<br>태흥3리 노인당 | 00:43:23 | ○  |
|       | 태흥어휘(4. 의복2) | 오윤생 외<br>태흥3리 노인당 | 00:10:15 | ○  |
| 5. 음식 | 태흥어휘(5. 음식1) | 오윤생 외<br>태흥3리 노인당 | 00:12:14 | ○  |
|       | 태흥어휘(5. 음식2) | 오윤생               | 00:10:09 | ○  |
|       | 태흥어휘(5. 음식3) | 오윤생               | 01:06:14 | ○  |
|       | 태흥어휘(5. 음식4) | 오윤생               | 00:23:07 | ○  |
| 6. 가옥 | 태흥어휘(6. 가옥)  | 오윤생               | 00:53:33 | ○  |
| 7. 생업 | 태흥어휘(7. 생업1) | 오윤생               | 00:44:33 | ○  |

|          |                    |     |          |   |
|----------|--------------------|-----|----------|---|
|          | 태흥어휘(7. 생업2)       | 오윤생 | 01:14:40 | ○ |
|          | 태흥어휘(7. 생업3)       | 오봉남 | 01:25:59 | ○ |
| 8. 수와 단위 | 태흥어휘(8. 수와 단위)     | 오윤생 | 00:23:05 | ○ |
| 9. 민속    | 태흥어휘(9. 민속 10. 신앙) | 오윤생 | 00:31:17 | ○ |
| 10. 신앙   | 태흥어휘(9. 민속 10. 신앙) |     |          | ○ |
| 11. 자연   | 태흥어휘(11. 자연1)      | 오윤생 | 00:15:52 | ○ |
|          | 태흥어휘(11. 자연2)      | 오윤생 | 01:12:11 | ○ |
| 12. 동물   | 태흥어휘(12. 동물)       | 오윤생 | 01:32:56 | ○ |
| 13. 식물   | 태흥어휘(13. 식물)       | 오윤생 | 01:20:06 | ○ |

<\_>는 다른 항목의 조사가 하나의 파일 저장된 경우이다.

##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이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 제3장 전사 자료

### 제1절 구술

(@ 김미진, # 오윤생)

#### 1. 조사 마을

101001 @ 이 마을은 언제쯤에 만들어전마씨?

101001 # 이 마을?

101001 @ 응.

101001 # 우리 옥안보난 이디 마을이 이서부난 어느 때쯤 만든 건 몰른디 이 마을이 사름이 이디 멧 가위 엇어났어.

101001 @ 응.

101001 # 흔 우리 어틸 때에 기자 여남은 가위 이서신가? 요 아래 멧 가위 이섯고 요 신작로엔 우리 이모네 사느디 집 흔 가오, 두 가오, 세 가오. 신작로 우쪽에 집이 세 가오 이서나고 일로 알르렌 멧 가오 이서난지 몰르크라.

101001 @ 경혜신디 언제부터 영 사름 많이 살앗수과?

101001 # 이 시국으로 후에.

101001 @ 아.

101001 # 이 시국으로 후에 이디 성담 다완에 살아가는 것이 츠츠츠츠 이디서 난 이디서 큰 사름이 이디만 집 짓으멍 살앗주 어디 외지에 사름은 엇어났어. 경헌디 이젠 외지에서 육지서 하영 오고 이디.

101001 @ 기지예.

101001 # 육지 사름덜이 하영 왕 살아. 경허난 집이 불어난거주. 그자 이디서 낭 이디서 큰 사름 그자 이디 집 짓으멍 살곡, 집 짓으멍 살곡 허난 핫주.

101002 @ 이 마을엔 주로 무신 성씨가 하?

101002 # 이 마을에.

101002 @ 김씨, 이씨 영허는.

101002 # 이 마을에는 김씨가 흐쓸 할 거라. 그다음 오씨가 하고.

101002 @ 오씨가 하고.

101002 # 김씨 오씨가 하주. 강가도 멧 안뵈고.

101002 @ 응.

101002 # 최씨엔 현 건 엇고.

101002 @ 응.

101002 # 육지서 온 사름 건

101002 @ 육지서 온 사름은 말고게.

101002 # 흔 사름 건 육지서 온 사름 최씨가 엇고 이딘. 강가허고 김씨가 하주.

101002 @ 김씨허고 오씨.

101002 # 오씨.

101003 @ 이 동네 사름들은 주로 무신 일 허멍 살아났수과?

101003 # 옛날에 이디 사름덜은이 어둑아근에 그자.

101003 @ 밧 허고.

101003 # 밧 농사허는 거. 그자 저.

101003 @ 바당에.

101003 # 바당에 강 고기 잡는거 그거. 나 원 이디 사름덜 무시거 허는 걸 못봤어. 경헌디 올로 우트레, 저 우트레 또 올라가민 건 김칩이라고 딱 흔 집 가족만. 흔 가족만 건 김 참서 김 참서허영 어디 가도 이제 우리 저디 하르방 정도는 태흥3리 장밧디 김칩허민 장밧 김칩이엔 허민 그 집 막 벌어졌어. 아덜이 다섯 성제, 으답 오누이 딱 그 가족만 살았어. 즈손덜이 막 벌어지난. 그디 살단 이 시국엔 남원이도 강 살아불곡. 어디 태흥리 저 2리도 강 살아불곡. 그 퍼기가 엇어. 이디 요디 김정봉이엔 현 사름 하나만 이디 잇주. 그디 흔 가족만 잇주 남원으로 저 태흥 2리로 다 가부난 원 그딘 딱 흔 가족만 저 우이 살아났어. 우에.

101003 @ 주로 옛날엔 밧일 보리, 조.

101003 # 원 그거. 이디션 밧농스 어디 논이 시카, 그자. 그자 조, 보리 여름농스 모를, 콩 그자 그거 주로. 산뒤. 원 그거주.

101003 @ 경허단. 이제 미깡나난 미깡예

101003 # 미깡 나난 이젠 미깡덜 나부난에 뭐 막 스몏 하우스 미깡이여 무스거여 허난 막 부제가 뵈주. 그전인 경 부제로 사는 사름도 엇엇고. 요 장밧퍼기 떨어불민 원 부제로 사는 사름도 엇고. 벅똥 이녁 밥 먹어.

101003 @ 이딘 바당 가까우난 바당일도 하영 허고예

101003 # 바당에 해너덜 물질 잘허는 사름은 해너덜 바당에 살고.

101003 @ 꿩기 나끄레도 다니고.

101003 # 꿩기 나끄레 배도 배가 멧 개 엇어. 배 두 척. 배 두 척 행 그자. 사름이 하지 안허난. 그거 헨 텅기단 이제 이 개뭇디 배도 엇고, 이제. 배 부리는 사름도 엇고.

101003 @ 개맛은 갯궂이 개맛?

101003 # 개맛이엔 현 건 이 배 매는 게 개맛.

101003 @ 축항?

101003 # 응 축항 안네가 개맛. 옛날엔 개맛. 요즘은 축항, 축항해도 연날엔 개맛. 이 배 매는 것이 개맛이라났어. 게난 개맛 개맛 허는 게 옛날말. 이젠 축항.

101003 @ 예.

101003 # 축항 영 허주만은 옛날은 축항 말이 엇어. 개맛. 배 매는 디가 개맛.

101004 @ 이 마을 주변에 산이나 바다, 내, 내창?

101004 # 아, 내창은 이서.

101004 @ 이름 무신거봐?

101004 # 도네기통.

101004 @ 도네기통?

101004 # 응. 도네기통, 도네기통. 율로 신흥리광 이 3리 사이에 이서. 그디가 도네기통, 도네기통 허멍 그디 물통이 이서났어, 아래.

101004 @ 아, 물통?

101004 # 하시 아래 물 이서근에 그 물 우리가 질어 먹어났어. 요것도 조금엔 물이 덤부랑허게 골라 잇고 물끼엔 물 짝 싸불민 물이 브따비어.

101004 @ 아.

101004 # 들고 나고 허는 물이라. 물 짝 브따비어 엇엇당 물이 어느 정도 들민 물이 나와 이 물이. 갯곳 이 바당물이나 똑ㄴ따. 개민 으물 나민 그 도네기통, 도네기통 허멍 그 하시 아래 물이 이선 먹어났어. 질멍덜.

101004 @ 아.

101004 # 계신디 이젠 문 각처 수도 무더부난 그거주. 경 안허민 그디가 이 신작로 아랫 사름은 이디 갯물을 먹고, 신작로 우에 사는 사름은 그디 간 물 질어당 먹고 헤났어. 저 도네기통이엔 현디.

101004 @ 이디 갯물은 이름 엇수과?

101004 # 갯물 이름 엇어. 개맛물, 개맛물 허단 저거 축항 만들멍 막 파부난.

101004 @ 개맛물?

101004 # 응 개맛물. 배 매는 개맛된디 물이 이서서이. 그 물 이제 놔뒀시민 완전 이디 발전웨실 거여.

101004 @ 주로 물 질레 가는 건 도네기통허고 개맛물.

101004 # 겐디 시국 난 후젠 이 도네기통물 안 먹어봤어. 이디 물만 먹엇주. 경 허단 이제 수도 나부난 수도물 먹고 경헤난.

101004 @ 이 앞이 바당 이름은 무시거엔 험니까?

101004 # 이 앞이 바당 일름 엇어.

101004 @ 그믐 이동네 일름은? 옛날 일름/

101004 # 옛날 일름은 이디ㄴ라 저 덕독케.

101004 @ 덕독케.

101004 # 산것이엔도 곧고 덕독케엔도 곧고.

101004 @ 산것이엔도 곧고.

101004 # 응, 산것.

101004 @ 이 앞이 바당도 일름이 잇지 안허여? 이디 이쪽엔 무시 바당 무시 바당 이런 거 엇어?

101004 # 아, 이디는 바당 일름 요디 여가 흐나 시난 양당수.

101004 @ 양당수?



101004 # 응. 또 저 동녘펜인 산것.

101004 @ 동녘펜인 산것.

101004 # 아, 동녘펜인 산것.

101004 @ 바당 이름이?

101004 # 응 바당 이름이.

101004 @ 동네 이름도 산것인디.

101004 # 응, 옛날은 산것, 산것 그 바당 낡 글로 산것이엔 힘 시작허난 그 바당  
 이름 낡에 산것, 산것 해낯어. 산것이엔 현 딘 저 웃동네라. 저 우에.

101004 @ 응.

101004 # 그디ㄴ라. 점지는 할망이 흐나 살아나난 산것 할망, 산것 할망 헛주. 그  
 할망을 좇젠허난 산것할망. 또 요 우트렌 올라가민 장밋퍼기라고. 흐 퍼기만 사난,  
 장밋퍼기.

101004 @ 장밋퍼기?

101004 # 응. 그딤 이녁 가족만 사난.

101004 @ 아까 김씨, 김참판?

101004 # 김침이 흐 퍼기만 사난에 장밋퍼기, 장밋퍼기 허멍 옛날에. 그 막 올르  
 령 그딤이 막 부제침이난 제지내는 집도 따로, 조그만허게 요 방보다 흐쉴 크게 헤  
 영 기와 올령. 지에, 제층집이라고.

101004 @ 지금도 이수과?

101004 # 이젠 틀엇지. 요 어느 땐가 틀어 작년인가 어느 땐 틀엇어, 그집. 가르  
 각산 가부난 그디 오란 제를 안 지내난 지네 밧 헤떡젠 허난 틀어빋지게. 완전 그  
 땐 김참서엔 허민 제주도 안내선 물론 사름이 엇어. 하르방이 김참서 이제 어디 우  
 리보단 흐쉴 우이 사름은 아무디 김참서 그 하르방 즈손덜 허민 즈손덜은 몰라도  
 김참서엔 허민 물론 디가 엇어이. 이 산앞인 다 알아.

101004 @ 응. 이 마을에 유명한 기관이나 이런 건 뭐 이서낫수과?

101004 # 엇어, 엇어. 그 짐베끼 유명난디가 원 그디서 문 옛날은 이제ㄴ뜨민 서  
 귀 해견이민 해견이민 그때 뭇 복으로 해견산디 몰라. 해견이여, 서귀여, 뭇 그거베  
 끼 난 몰르크라.

101004 @ 거 무신말? 해견.

101004 # 해견이엔 현 것도 이, 이제 ㄴ뜨민 읍사무소여 큰, 높은 직원이라이. 해  
 견.

101004 @ 그런 사름이 살아낫다고?

101004 # 응.

101005 @ 남원읍사무소는 남원에 잇고 태흥리에 이신 건 뭇라, 태흥리사무소베  
 끼 엇인철이과?

101005 # 태흥린 리사무소베뀐 엇어. 이디 이사무소 싯듯 태흥리도 리사무소베끼  
 엇고.

101005 @ 태흥 1리, 2리, 3리 노인회관 있고. 다 따로 있고예?

101005 # 응 따로따로 다.

101005 @ 사무손 하나 아니?

101005 # 우리 태흥 3리도 사무실 있고.

101005 @ 아 따로 따로 사무실도.

101005 # 저 2리도 있고, 저 1리도 있고. 따로따로.

101005 @ 학교는 2리에 하나 있고예?

101005 # 2리에 하나 있고. 태흥마을에 하나. 그건 하나 있고.

101005 @ 응.

101005 # 부락마다 틀려. 이 리사무소는. 부락마다 다 틀려. 이년부락마다.

101005 @ 2리가 켈 크지예?

101005 # 응. 2리가 커. 1리보단도 2리가 커. 경헌디 이 사름 살아가는 건 저 태흥 1리 사름보단 2리 사름덜이 헝뎀 몰려.

101005 @ 무사?

101005 # 어떻헌 사 살아가는 게 물리는 생이야. 우린 몰르는데 영 앓앙 곤는 거 보민. 아니 태흥1리 사름덜이

101005 @ 잘 살아?

101005 # 잘 살고. 좀 2리 사름덜은 헝썰 몰려. 몰린다는 것은 몰려, 몰르다 허는 거주.

101005 @ 헝뎀 몰려?

101005 # 응 몰르다 허는 거.

101005 @ 요망진게 1리 사름덜이 요망져?

101005 # 응 1리 사름덜이 더 으망지다허는 거주.

101006 @ 이디 태흥 3리에는 접 같은 거 이서났수과?

101006 # 접은 기자 아무 것도 엇이난 쓸접도 해나고 돈접도 해나고 그거.

101006 @ 그냥 친헌 사름끼리? 마을 전체 허지 안허고.

101006 # 아니 마을 전체 안허고, 우리 멧 사름이 쓸접허자 허민 쓸접. 쓸접이엔 현 건 이제 곤썰이 나룩썰 접이 아니고 엇날 산뒤썰이라도 어디 우리 접 안네 누게 큰일이 낫다 허민 썰 헝 뉘썰 다 모다다 놔. 이레. 경행 모되근에 이제 멧 말 해근에 아져가는 거라. 계난 그것이 쓸접.

101006 @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게 아니고?

101006 # 아니. 그 집이 누게 잔치가 허나, 누게 죽영 대소상을 허나 허민 썰을 헤여가는 거. 접으로.

101006 @ 응. 접으로.

101006 # 썰 받앙 헤여가는거. 곤썰을.

101006 @ 접은 그믐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게 아니고 일 잇을 때?

101006 # 아니, 아니. 돈은 키우는 접 이서. 겨민 헝 들에 얼마씩 내는 거. 겨민

그것에 낫사도 골앗주만은 이자가 경 하노난 그땐 돈 키움덜이 막 쉬와. 돈 커 가는 게 원원 지금 물애기 낱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로 돈이 커. 딱 겨난 애기덜 돈 얼마씩 혜영 돈 키우자 허민 애기덜 돈혜영 멧 사름이 접혜영 키우민 그 돈을 누게가 접돈 빚져간다.

101006 @ 응.

101006 # 빚져가민 스펀이민 얼마라. 만원이민 스펀이민 스천원 나오는 거 아니? 겨난 그것이 따시 발련에 따시 또 혜영 패지 걸어놓민 2년 만 돼민 딱 오그라져부는 거. 만원 이민 이만원 십만원이민 이십만원 돼부는거. 그때 돈 빚진 사름덜은이 이자 칠리지 못헿 물지 못헿 망헌 사름덜이 하. 경헌 접이주 이젠 접 엇어. 아무 접도 엇어. 이제 친목 그 중간에 친목, 친목 허단 친목도 이젠 엇어지고.

101007 @ 이 마을에는 어떤 풍습 같은 거 이수과?

101007 # 그런 풍습 엇어. 나 익은 후젠 풍습 몰라.

101008 @ 이 마을에서 하영 나는 거?

101008 # 하영 나는 거 엇어. 옛날엔 바당에 거나 그자 툄, 메역, 우미 경허단 이젠 그런 툄도 엇고 하영 나는 거엔 혜사 그거나 베끼 바당에서 나는 거나 베핀 낫 되서 나는 거 하영 나는 거 엇어. 이젠 미짱 나난 이거 미짱이 스못 이집이도 하다 저집이도 하다 헷주. 그전인 이 마을에서 나오는 게 엇어. 아무것도.

101008 @ 어떤 디는 뭐 메밀 하영 허고 어떤 디는 뭐예.

101008 # 그건 게 부제침덜게. 부제침.

101008 @ 이 동넛 주로 하는 거는. 요즘엔 미짱이고 옛날엔.

101008 # 옛날은 나 지금 곤는 게 그거라. 참서네 집이라고 그디가 원체 부제침, 부제고 딱 그 집이서만 그딘 온갓 용서 다 혜낫어. 콩, 모믄, 산뉘, 뉘 조, 경혜영 허민 그 하르방 참서 하르방 산 땐 옛날 아무것도 엇인 때도 하르방 나신 딱 강 보민 밥헿 옛날 낫사밭, 낫사밭에 밥 거렁 가지게 툄 더꺼근에 밥상 출려가낫젠 허주게.

101008 @ 응.

101008 # 김 참서, 김 참서 허멍 막 울러난 하르방이라. 거기 하르방이. 이 즈손덜이 다 망혜가난 거주.

101009 @ 태흥 3리의 자랑은 무신건고? 자랑거리.

101009 # 자랑거리 엇다, 이디.

101009 @ 무사?

101009 # 나 생각으론 원 자랑거리 엇어 이디. 뉘 헿 자랑허는 게 엇어.

101009 @ 자랑헿 만헌 거 엇어?

101009 # 엇어. 이 세대덜 낱 따시 낱 커가민 뉘 자랑헿 것이 시카. 지금은 어디 튀어나게 자랑헿 게 엇어.

101010 @ 태흥리는 1리, 2리, 3리 다 바당에 부땡 이수과? 다 바당 이수과?

101010 # 응. 다 바다. 1리도 바당, 2리도 바당, 경허민 이제 1리2리 바당도 이

제 갈라져. 다 1리만 1리만 허고 2리 2리 3리 3리만.

101010 @ 어촌젠 어디가 셸니까?

101010 # 어촌계 세고 안 세는 건 어촌계장에 매는 거. 계장이 세. 이디 어촌계 계장이 셸덴 허여. 어떻헐 바당 때문에 득탄에 어디 서귀포 군청에 갓덴 헤신가, 도청에 갓덴 간 말허는디 이디 어촌계장만이 말허는 사름이 엇어라 허는 거라.

101010 @ 이디 3리. 3리 어촌계장이 요망지구나.

101010 # 배운 건 엇어도 잘도 여망져. 어디 가도 말을 짝 곶을 말은 딱딱 곶아. 목에 칼이 들어가도 나 곶을 말은 곶아야 웬다. 배운 건 엇어, 중학교베끼 못나완. 계도 어촌계장헐 어떻헐 3리, 2리 싸움이 낮어. 이 어촌계장끼리 바당난 싸움이 나 난 서귀포로 군청으로 강 허난 딱딱 말 곶아가난 누게 대답을 못헤라 허는 거라.

101010 @ 응.

101010 # 또 맞임도 허고 흐나도 틀린 게 엇이 험도 허고게 경헐 헤부난. 이제 그 어촌계 계난 십 년을 헤여 먹엇어. 오래도 헛어, 어촌계장. 삼 년인가 스 년인가 베끼 못헐덴 허는디 십 년 헤시난 오래 뉘엇주.

101010 @ 태흥리 마을 운동회 험니까? 체육대회 이런거. 태흥리 전체 1리, 2리, 3리 합청?

101010 # 응 잇당 혼 번씩 허여. 멧 년에 혼 삼 년에 혼 번. 체육대회 헐덴 헤도 이젠 우리 늑어부난 가지 안허난 어떻사 허는지 몰라. 가민 이디서도 잇다근에 막 이것저것 쟁기헐 게 한덴. 뭐 게이트볼도 잇지, 뭐 활 쏘는 것도 잇지, 달리기도 잇지, 또 율유는 거 잇지, 또 뉘니 영 드리치는 거?

101010 @ 투호.

101010 # 그런 것도 허지.

101010 @ 할머니 뉘 헤납디가?

101010 # 아이고 난 아파부난 그런디 못 가뵈. 이거 경 나오곤디 멧 년 안뉘연. 막을 체육대회 흐곤디가 멧 년 안뉘연. 막 게이트볼덜 허는 거라. 어떻헐 그뉘 헐리도 오그라지지 안허고 꼬짜 곶을 뉘디 게이트볼 허레 오랜허곤 가난에 영 흐줄 구부룻 허영 영 헤나민 일어사젠 허민 허리가 느시 폐우질 못허여. 아이고 허리 폐왕 험서게, 그거 허리 곶영 못험니다. 허리 폐웁서, 폐웁서. 허릴 폐와져사 폐우주. 겨난 아이고 나 허리 아팡 못허켄 헐 겐 설러분 거. 험시민 막 헤점직 헐디.

101010 @ 예.

101010 # 윈 어디 아프진 안허나 헤도 곶을 때도 여상허고 헤도 영 곶어나민 일어사젠 허민 허리가 경 폐우질 못허는 거라. 그추룩허난 게이트볼 허레 가난 삼촌 허리 폐왕 험서게, 폐왕 험서. 야 허리 폐우질 못허는 곶 어떻 폐우렌 험디게 경허명 헤났어. 겨난 난 쟁기 허는디 계난 그자 혼 번인가 두 번인가 구경도 가난. 그루 후젠 윈 아이고 나 아이 가켜. 경헐 구경도 안 가오고. 겨고 이 막을 쟁기 흐곤디 멧 년 안뉘고. 혼 삼 년, 스 년. 이년에 혼 번씩이나.

## 2. 제보자 일생

102001 @ 처음부터 할머니 태어나근에 자라, 어렸을 때 자랐던 애기부터 게민.

102001 # 어릴 때 살았던 애기 요작이 어젠가 그지젠가 헛거든. 우리가 그 먹을 거 었어근에 땅 판 묻은 거 그런 거 다허고.

102001 @ 다시 곁아봐, 다시.

102001 # 그 땅 파근에게 먹을 것이 었이민 이디 일본 시대난 오랑 밧디강 딱 농스 허면은 곁 밧딜로 강 조사허는 거라. 아 요만 허민 멧 가마니, 보리민 멧 가마니, 조민 멧 가마니다, 영 혜영 이제 직어 가고 감저 논 거 허민 요것이 멧 췁 낫다 허민 그거 파민 요샌 비료나 잇지 비료 었이 멘밧디 강 고구마 놔 봐야 막 훑엇젠 해도 최고 훑은 거 요만이베끼 아니.

102001 @ 예.

102001 # 즐거리만 즐거리만. 그거 허영 이제 문 썰렌 허는 거라. 썰렌 허민 이제 빼떼기 멧 가마니 바찌라 허당 보민 우린 먹을 거 하나도 었어. 경허단 보민 똑 이제 이북식이라. 경행 바찌불민 양팡 다 올양 뒤어방 아무것도 었이민 그땐 이제 오랜 혜영 가민 무시거 좁쓸이고 보리쓸이고 흥 빵을 주민 그걸 오랑 밥해 먹을 저르 었어. 그자 무신 히여뜩헌 저런 놈물 그쁜 거 푸십새 농명 죽 췁은에 죽지 아니 할 정도.

102001 @ 응.

102001 # 겨민 우리 아버지 살 때 보민 못 좃어다근에 영 향아리 솟 곁듯 영 솟, 지금 솟 곁어근에 알로 남불 때어. 남불 때민 요놈의 못이 흐루즈물양 불 땡 익는 거민 허주만은 오늘 아침이 때민 오늘 저물양 불 습곡 널 저물양 오늘 밤이 널 모리 아침사 요것이 못이 먹어져. 막 물 냉경 또 농곡, 또 농곡 허명 막 물 냉겨불고 냉겨불고 허명 이 못을 솟아농민 막 독헤여. 경허민 물을 멧 번 냉경 습곡 습곡 허당 보민 오늘 아침인 널 모리 이 시간 뒤어야 그걸 먹어. 게민 그거 혜낭 요새추룩 보리가 기계방에서 그는 거민 싹 곁아불민 보미라도 깨끗허주만은이 그 물방에 허난 거칠거칠헤여. 경허민 그 보릿그루 정그래서 영 벌러난거 꺼끌. 이제 그뜨민 도 새기나 주주.

102001 @ 주도 안할 거.

102001 # 도저히 사름 못 먹을 거여 그런 거. 게노민 그거 버물여근에 그 못에 버불영 그걸 먹은 거라. 죽지 말젠.

102001 @ 응.

102001 # 그거 먹고 경허엿당 봐도 아이고야 아무집인 솟 싯언 어팍저. 건 아무것도 었이난 못도 못 먹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었이난 이젠 솟을 싯언 어팍다허는 거라. 솟 싯언 어편. 경헨에 ‘아이고야 아무집인 솟 싯언 어팍젠 험저. 어떻게 하니? 이젠 그집인 식구 다 죽엇저, 죽엇저.’ 옛날 경세났어. 경허당 보민 멧 질민 하나 살

곡 붓영 죽었저, 굽영 죽었저 헨디가 천지라. 이 굽어가민 몸이 붓어.

102001 @ 아.

102001 # 붓어이. 게민 아무 집인 야 막 붓엇젠 헤라. 아무 집이 굽엇젠 헤라 죽엇젠 헤라 붓언 죽엇젠 헤라, 굽언 죽엇젠 헤라 이 소문이 막 나났어.

102001 @ 계난 할머닌 몇 번째 딸?

102001 # 나가 쉐 큰 딸.

102001 @ 우에 오라방 잇고?

102001 # 오빠 둘.

102001 @ 오빠 둘허고.

102001 # 언니덜 두 개 죽어불고 매 우이 언니덜 두개 죽어불고 글로 후에 오빠덜 둘, 그 위에 그 아래 난 것이 딸이 세 성제 난 거라. 세 성제 나고 또 그 밑에도 이섯주만은 우리 아버지가 오십 전에 돌아가셔비서.

102001 @ 아.

102001 # 계난 나가 열흔 살에 돌아가셔비서. 열흔 살에 그 제국시대에 막 한창 제국시대 일본놈 시대라. 경허난 옛날엔 어려운 시절에도이

102001 @ 예

102001 # 삭망 보름 삭망 츠후루 삭망허곡 땃밥 거러놓고 경헛어. 겨난 우리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불고 우리 큰 오빠 일본드레, 북해도드레 보내불곡 허난 갈디 올 디 엇어이. 갈디 올디 엇어난 튜빗막이엔 현 거 옛날, 옛날 어른덜 튜빗막이엔 허민 알아이. 튜빗막이엔 현 거 올로 요만은 헤근에 그것에 들똥 좃어다 농곡, 풀검질 비어다 농곡, 듬북 헤다 농곡 재어 농명 튜비 모두는 거라.

102001 @ 응. 튜빗막.

102001 # 튜비 걸름. 왜 그덜 살아시넨 허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부난 옛날에 우리 오라바니네도 공부를 못헌거라. 옛날엔 그땐 더 어루운 때주. 공부를 못허난 이제 바다에 강 배 사근에게 어부질을 허젠 배 사젠 현 거라이. 겨난 아버지 돌아가셔불고 이젠 돈 엇어난 늪이집이 간 그 때에 스백원.

102001 @ 배 값이?

102001 # 응. 옛날에 스백 원이라 스천 원도 아니고 스백 원. 스백 원 아니 스천 원 아니 스천 원 아니라.

102001 @ 응.

102001 # 스백 원이라신가, 원 스천 원이라신가 하이튼 빗져단에 배 사레 성산폴 걸언 갈겨난 스월 제 먹어근에게 가젠 딱 동서 짜난에 들은때난 요런 대방, 문대방 배연 돌리가 요쪽에 눅고 요쪽에 눈 거라. 누원에 이제 옛날에 제가 딱 열두시 뉘민 지냈어.

102001 @ 예. 예.

102001 # 경허난 제 과제, 제 헤먹영 제 과제 곳에 걸언 성산폴 가젠 헤여신디 딱 수중에 돈은 수중에 세연 난 ㄱ짜 영 머력을 허영 누워신디 제 과제허연 밥 먹

언에 가젠 나사난 영 보난 돈이 엇인 거라.

102001 @ 아이고.

102001 # 우리도 막 큰 집 허연 영 안팎거리허고 밧도 잇꼭 헤낫어.

102001 @ 응.

102001 # 이젠 돈이 엇인 거라. 아이고 것도 이상허다. 초저냐이 요디 보게띠에 딱 수정세연 이 보게띠에 딱 낱에 이디 누워신디 이것이 이상헌일. 게난 어디 화장 실에나 화장실에도 안 탕겨수다. 것도 이상허다. 흐디 눈 사름이 뺏아빈 걸 뺏고렌 아니 헤부난 우린 그것이 돈을 여변 막 법에 고소헌다, 무시거 헌다 허난 요샌 영 창 살았저. 그땐 무사 경 두드려.

102001 @ 응.

102001 # 게나 저나 매로. 여분 사름도 아저간 사름도. 아저가고렌 헤비시민 뭇 델 맞이고 혈 건디 아저가고렌 아니허고 거난 누게 서나시넨. 사름은 딱 이 사름 흔 사름베핀 엇엇고 어디 나가오지도 아니헌디 돈을 엇수넨 허난. 게 흐디 신 사름 만 아저간 걸로 생각, 우리도 아저간 걸로 생각 헛주게. 경허난 그 돈 여먹어부난 아저간 놈은 안 아저가고렌 허지, 우린 돈은 엇지 허난. 이젠 돈 임제는 이제 돈을 경정 허단보난 일년이 다돼는 거야. 징역살아, 매 맞악 허멍 걸어놔, 법에 걸어놔 현 게 엇날은 어떻 흔 일 년 넘어가는 거라. 이젠 돈 좇일 집이선 돈만 내놓렌 바 싹헤 가난 이젠. 집을 다 풀아비서.

102001 @ 아.

102001 # 집 풀아비난에 갈 디가 엇인 거라, 이젠이.

102001 @ 아까 돈 가져간 사름은 누게?

102001 # 그 사름네 이제 다 죽언 원 씨아덜이 엇어. 원 씨멜죽허영 원.

102001 @ 주렌허지.

102001 # 주렌허지. 몰르니까. 아저간 중을 몰르니까 싸움이 나는 거라.

102001 @ 계속 안 가져갓덴.

102001 # 아저가지 안 가져가고렌 오리발 딱 내미난 경 뭇 맞아도 절대 아니 보 고렌만 허는 거라.

102001 @ 아.

102001 # 경허민 우린, 우리 오라바니허고 우리 어무니 나가불민 우린 어린 거난 영 앗아근에 마루에 요추룩 앗앙 문 더경 앗앙 밥 먹노렌 허민 그 돈 아저간 집이 서는 지넬 돈 안 아저간 걸 아저갓젠 허멍 이놈으 새끼 죽여불켤 허멍 돌멩이 아정 오랑 막 문을 마치는 거라.

102001 @ 아이고 아이고.

102001 # 막 마치멍 이놈으새끼 돌멩이로 못앙 문 죽여불켤 허멍 우린 뒤에강 곱 아근에 발발발발 떨고.

102001 @ 오라방 멧 슬 때?

102001 # 그때가 스물 흔 슬 때라. 게난 어린 때지게.

102001 @ 할머니 멧 살이라.

102001 # 그때가 스물 혼 슬 때난에 나가 혼 우리 큰오빠난에.

102001 @ 멧 슬 차이?

102001 # 그 중간에, 중간에 이서나곡 허난 여러 나 차이라.

102001 @ 계난 할머니 막 어릴 때구나예.

102001 # 응. 나가 혼 열, 열 혼 슬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2001 @ 열두, 열세 살?

102001 # 열두 슬, 열세 슬 썸에 경허난 막 죽여볼켄 허멍 그추룩 허민 우린 곱양 돌아댕기곡 허는 게 막 망헌 거라. 그때 우리가. 막 망헌 집 내놔불고 집광 집터 내놔불곡 허난 갈 디 엇이난 우리가 이젠 어디 집도 안 빌려주곡 그뻐. 겨난 우리가 이제 동넛 사름이라도 아니헌 도둑질을 헤여 갖젠 지네 먹어된 거짓말 헛젠 우리신드레 허는 거라이. 겐 내중에 내중에, 살고 살고, 오래 살아가난 나이 들어간에 우리가 이젠 처암에 우리 신흥리 살아났어. 신흥리 살단 이제 이딜 넘어 와신디 우리 오라바니가 그때에 경헤연 그 때 맞이멍 헤연 이젠 살지 못헨 집도 엇고 우린 갈디 올디 엇이 텡겨가곡 허난 이제 제국시대난 북해도레 보내분 거라, 우리 큰오라바닐.

102001 @ 아.

102001 # 북해도레 보내불고 우리 죽은오라바닌 마르공선이렌 허멍 저 모실포 그때 일 헐 때 그 늬의 대표로 그레 보내불고. 겨난 딸만 세 개 들안 우리 어머니가 살았어.

102001 @ 아이고 막 고생헤시큰게예.

102001 # 요만은 헌 막살이헨 사노렌 허난에 이젠 우리 이모님이 요 이디 살았어 이. 이모님이 살아시난 혼변은 막 기자 어디 간 늬의 텡빋막 첨 빌언 경헨 사노렌 허난에 우리 이모님이 밤인 오란에 옛날엔 영 멩텡이가 이섯어. 멩텡이가 시난에 윈 아무 말도 안허고 멩텡이레 옛날엔 머력슛, 머력슛 허멍 머력에 앓진 큰 슛을 쥔 우선권이라이. 사름 ㄱ뜨민 큰아들모냥으로.

102001 @ 응

102001 # 계난 머력에 앓진 슛을 톡허게 윈 오렌 말도 가렌 말도 안허고 톡허게 멩텡이레 ㄴ 지언에 오멍, 나오멍 허는 소리가 ‘나 조름에 오구적허곤 오고 실프건 말라.’ 우리 이모님이.

102001 @ 응.

102001 # 계난 우리 어머니가 잇단 ‘오라 가게. 이모님 조름에 가게.’허연 경헨 이디 오란 살아가는게 어떻어멍 헤가는게 오빠네가 흐꿈 성공을 헌거라이. 성공헨 살아가고 또 해방도 ㄹ어가고 허난. 이디 완 살안에 멧 년 안 사난 우리 큰오라바니 일름이 윤섹이라.

102001 @ 응.

102001 # 아이고 윤섹. 신흥리 사름덜이 아이고 ‘윤섹아 요 나조케이. 나 이제사



알았저. 느네 고생헌 거 이제사 알았저.’ 신흥리 사름덜이 경허여. ‘건 무신 말이파, 무신 말이파?’허난 ‘아이고, 야야, 느 이제사 고생헌 거, 느네 고생헌 거 나 알아지키여, 알아지키여.’ 그것이 도둑놈이 그때 나타나는 거.

102001 @ 아.

102001 # 혼 십년 후에라나난. 그것이 곱게 살아시민. 이 집이도 강 도둑질핵, 저 집이도 강도둑질핵 헨 거라, 그게.

102001 @ 아이고.

102001 # 경헤가난 신흥리 사름덜토 우리 ㄱ라만 애크 사름.

102001 @ 응, 잡앗텐예.

102001 # 잡앗다고 너네도 인간이넨 허멍 우릴 경 따돌림헿 저런 것덜 다 죽어비산다, 씨멜죽 시겨사 헨다 허단에 혼 십년이 넘고 우리 이디 오란 살아불고 허난 그것이 늬의 걸 자파리 아니헤시민.

102001 @ 몰라실 건디.

102001 # 우리가 몰라실 건디. 이집이도 강 뉘. 옛날엔 미녕, 쓸이 경 귀헤났어. 쓸도 헤단 놔두난 퍼가비엇저. 미녕도 놔두난 아저단 폴아먹어빋저. 멩지도 짤 놔두난 도둑질헤가빋저. 이젠 그것이 경헤가는 게 나타난 거라이. 나타나난 그뻬 이디 잇다근에 신흥리 가민 ‘아이고, 요 나 조케덜야.’ 그자 동네사름이라도 봐지민 ‘아이고 요 나조케덜야. 나 이젠 느네 심정 알았저. 아이고 췌 엇이이. 췌 엇이이. 경헿 우리가 인정을 받은 거.

102001 @ 하하하.

102001 # 게난 오래만 살았시민 인정 받는 거라이. 이제도 막 옛날 어른덜 잇당 혼 멧 개 살았어. 살민 가민 ‘아이고, 는 누겐디?’, ‘나 아무사름 누이우다.’ 허민 ‘아이고, 요 나 조케야, 아이고 요 나 조케야, 아이고, 게메이 느네덜 고운 믱음 먹언 놔두난 이젠 느네덜 펜안허영이, 펜안허영이’ 경굴야 이제도. 아이고 우리 경허멍 잘도 고생헌 살안. 삶이 삶 아니로 살안.

102002 @ 응. 어무니 아부진 주로 농사지어난?

102002 # 응 농스. 우리 옛날에서 농사만 지엇주. 우리 아버지 오십 안 난 마흔 아홉에 돌아가셔도 이제 ㄱ따근에 공부나 헤시민 막 큰 사름은 안뉘어도 그자 보통으로 이제 멘에 가민 어디 옷자리에 앗는 사름 그정도는 뉘여. 이 동네에 어디 강 우리 아버지 산 때, 어린 때라도 보민 누게 강 싸우나 또 어디 강 무신 일을 잘못 뉘나 허민 우리 큰오라바니 일름이 윤섹이라.

102002 @ 응.

102002 # 야 윤섹이 아버지 이레 오라보게 헿 가민 야 원 아무거 아멩아멩 헿저. 아이고 그걸 해결 못허쿠가 허여 가민 우리 아버지가.

102002 @ 딱딱 해결해줘.

102002 # 말로만 요건 영허고 영허민 뉘지 안허쿠다 영영 헤사 뉘쿠다. 거 무시거 경 낡 서로 짹곶 튼곶 헿 거 이수과? 아무거 암허곶 아무거 암헤영 서로 좋게

시리 협서. 경혜영 싸운 화해 다 부찌꼭 또 물론 것 강 무식해도 입팔로라도 다 이  
해시기명 경헨 헤낫어. 경허민 아이고 우리 아버지ㄴ라 아이고 윤색이 아버지 산  
뎌, 윤색이 아버지 산 때 그 사름만이 현 사름도 옛엉, 옛엉. 경혜낫어.

102002 @ 응.

102002 # 건디 우리 큰 오라바님도 무식헤여이. 아무것도 몰라. 우리도 어린 때  
학교 못허난. 헤도 이디 왕 살아도 우리 조케 일름이 큰 조케 일름이 오생이라.

102002 @ 응.

102002 # 어디 싸왕 누계가 무시거 헤도 ‘야 오생이 어른 이레 와봐.’ 영 허민.

102002 @ 아버지 닐앗구나예.

102002 # 응 겨민 우이 어른덜도 ‘야 오생이 어른 이레 오라보라.’ 영허민 간 무  
시거엔 글으쿠과? 야 원 아무디 아명아명헨에 아명헬저 영허민 ‘아이고 삼춘네 그  
거 못허쿠과? 영영허영 화해 부찌꼭서. 거 좋게시리 허주 싸우민 뵙니까?’ 경혜영  
가민 아이고 가게, 가게 허영 싸운 사름끼린 안 가젠 허주.

102002 @ 예.

102002 # ‘에이, 가게게. 나 말 들엉 가게 가게’, 가민 ‘야, 술 혼 잔 이레 반양  
오라’ 허민 술 혼 잔 먹으멍 영허고 정허꼭 허민 영허민 뵈다게 느네덜 거 무시거  
헬 거. 동네서 서로 아침, 저녁 나가고 들어오도 뵈리꼭 헬디 거 눈 흘긱흘긱헬 거  
시냐? 이디서 손 잡으라, 손 잡으라. 경허영 화시켜볼꼭 경혜낫어.

102002 @ 응. 큰 오라버닌 돌아가션, 경헨.

102002 # 성제가 다 돌아가시고 옛어. 우리 딸 만 세 개 살앗어, 이제. 딸만 세  
개.

102002 @ 아.

102002 # 겨난 난 우리 어머니 뭉이, 아버지 뭉이, 오빠덜 뭉이 경헨 나가 오래  
사는 거라 이거.

102002 @ 무신 아직 오래 산 것도 아니지, 구십도 안뵈신디.

102002 # 구십은 안뵈주만은이 우리 어무니도 예순일곱에 막 어릴, 예순일곱에  
돌아가섯어. 겨고 우리 큰오라바니도 제우 칠십을 등것어. 우리 죽은오라바닌 또 칠  
십 못등건 어머니 돌아가신 나 육십일곱에.

102002 @ 아, 좀 빨리 돌아가시는구나.

102002 # 경허난 나가 아이고 이 딸덜은 어멍 뭉이, 아버지 뭉이 영 오래 살암구  
나. 이거주. 멍이 즐라. 우리 아버지 때부떠도.

102002 @ 집안 유전 뵈는 게 잇더라고마씨.

102002 # 응 경사헨 것산디. 우리 경허단 보난 방상에도 어디가 어딘 중 이젠 방  
상도 몰라. 원래 우리 할으버지네 고향은 원래 본 고향은 한남리라이.

102002 @ 응.

102002 # 한남리서 어뎡헨 느려와시닌허민 우리 두린 때 곤는 거 보민 우리 할으  
바지네가 얘기를 못 키우난 타류계성을 헤런 허는 거라. 옛날은이 타류계성, 타류계

성 허명 한남리서 이 신흥릴 느려온 거라.

102002 @ 아.

102002 # 신흥리 느려오란에 아길 서오누일 키왔다 허는 걸라. 아덜 하나 딸 성제.

102002 @ 한남리선 하나도 안 나신디?

102002 # 응. 아니 나긴 나신디 키우질 못허난.

102002 @ 아, 죽어붙어 아파근에.

102002 # 응, 아프멍 죽어부난. 계난 타류계성. 요샌 약 좋은 때난 무사 못사느냐? 옛날엔 허주만은 요새사 약 좋아부난.

102002 @ 타류계성은 거난 늬의 동네 강 살렌 헌 말이라?

102002 # 응. 내 넘어강, 늬의 동네, 모른 동네 강 살라 이거여. 계난 한남리서 신흥리 느려오젠 허민 멀엇주게, 옛날엔 걸영 텅기고 헐 때난. 계난 그디서 이디 느려오란 살앙 딸 성제 아덜 하나 서오누이 키운거. 우리도 할마니 할으며지 얼굴 몰라. 어무니 곧는 것만 들엇주.

102003 @ 어무니 고향은 어디파?

102003 # 신흥2리 저 여우내. 절로 이디 오당 보민 알아지주.

102003 @ 여우내?

102003 # 응, 그디. 견디 우리 이모님은 또 백다섯 난 돌아가섯어.

102003 @ 아, 어머니쪽이 그래도 좀예.

102003 # 응. 우리 이모님도 또 우리 외삼촌.

102003 @ 어머니보다 우에 밀에?

102003 # 응, 우에.

102003 @ 아 어머니보다 우에.

102003 # 또 우리 외삼촌이 어릴 때 돌아가셔불고. 우리 외할으며지도 젊을 때 돌아가셔불고 허난 우리 이모님이 난 아버지 몫이 동생 몫이 살암저. 서오누이 난 서오누이 다 죽어비신디. 어무니도 죽어불곡 아버지도 돌아, 젊을 때 돌아가셔불곡 서오누이 다 죽어비영 나 하나 남아신디 이거 백 다섯이난 나 그 몫이 살암젠 허멍 느랑 곱아났어. 돌아가시건디 혼 이십년, 경베끼 안웁.

102004 @ 할머니 어렸을 때는 무신거 허멍 놀아난 마씨? 놀기도 헛지예, 일도 헛주만은.

102004 # 놀기는 우리 지들커 허레 가면 벗들이영 가면 베틀락, 베틀락허곡 돌생기 봉가당 이놈으 공기. 옛날엔 지들커 허레이 솔잎 견으레 웃드르 올라가주. 이 헤벤 엇이민 저 웃드르드레 소남밧되 솔잎 견으레 벗들이영 가민 솔잎 견영 문딱 질며 놔두고 헤팅은에 돌생기 좃어당 공기해났어이 공기.

102004 @ 응.

102004 # 경행 오민 오래 살아불민 어멍안티 옥듣고.

102004 @ 무사 영 오래 걸려시넨.

102004 # 오래 걸려시넨 허멍 옥듣곡 또 옛날에 풀늑물 케레, 풀늑물 케당 솥앙 먹고. 또 봄 나가민 풀마농이, 풀마농도 케레 가고, 겨민 그 늑으 풀마농 케레 갓당 뺑이 잇잖아, 새왓디. 뺑이 뺑아근에 서로 앓앙 뺑이치기 허당보민 세월 가는 중 몰라. 케민 오랑 어멍안티 옥듣고.

102004 @ 응.

102004 # 아정 기어나라, 떠나라 허멍 얻어 옥듣고 경허멍 살안 아이고 두린 때. 학교가 무시겨니 아이고. 학교허영 살아시민 나가 이 정체 안뒤엇주.

102004 @ 무신 옛날사 다 경행 살앗주 무신 학교 땡긴 사름이 얼마 엇지 안헤여?

102004 # 엇어.

102004 @ 아까도 글안게예.

102004 # 엇이난. 나가 이거 부끄러운 말이라도 아기덜 난에 학교엘 땡기는 거라. 학교에 땡기단 우리 큰딸이 허는 소리가. 화곽살 난에 영영 숫자를 난 빼기 허고 더하기 허고 허단에 ‘엄마’허곤 ‘무사?’, 엄마 이거 알아지, 이거 땡 켜 허난 나 몰르키여 영허난 ‘어무니 무신 학교 나완?’ 허곤디 ‘엄마이 옛날에 부엌대 나왔저.’

102004 @ 부엌대.

102004 # 응. 옛날에이 부엌대 나왔저 영허난 ‘엄마, 계난 대학ㄱ장 나와도 이거 몰라.’

102004 @ 하하하

102004 # 대학ㄱ장 나와도 이걸 몰란 경허여. 기여게 난이 어멍은 풍언 아니나게? 대학ㄱ장 나와도 이거 몰른다, 나 경. 경허영 잇다근에 영 일이삼스라도 영 베리는 것이 가네들 허는 거 영 보멍 요거 땡 개, 여거 땡 개 쓰는 거 땡다근엔에 허민 영 보민 아 저거 오늘은 메틀이로구나, 아 저거 메틀이구나 알앗주, 그전인 판판 몰란. 막 완전 무식허여, 우리. 원 우리가.

102004 @ 경해도 사는 건 지혜롭게 살암수게.

102004 # 사는 거엔 현 건 기자 밥 헤여 먹고 기자 노동일 허는 거 뺑.

102004 @ 그게 중요헌 거지.

102004 # 원 그거 뺑이주.

102004 @ 대학 나오민 땡힙니까?

102004 # 어디가근에 무신요 어디가근에 늑 그추록 강 요 부녀회 강 회장을 혼뻐 땡겨봐시카, 땡 어디 강 글쓰는 디 강 허다못헤 반장질을 혼뻐 요 땡겨봐시카 아무 것도 안헛어. 그자 고망서 홈파먹는 거 뺑.

102004 @ 경해도 잘 살암수게 아이덜도 잘 키우고.

102004 # 겨난 어든 땡 고만이 앓앙 생각허민 어땡헛 이거 혼 세상을 살아져신고. 가갓자 흐나 몰르게 어땡헛 살아져신고. 이 육지레 테레비레 보민 육지 할망덜 칠십 넘은 후제사덜 막 공부들 헛잖아이.

102004 @ 예.

102004 # 이딘 무사 그런 것도 잊어신고 허는 거라. 아이 그 우리 칠십대에만 그런 걸 헤여시민은 나도 칠십대에 헤 시민 좀 배웠지 그런거라도. 늙이 웃던 말던. 나 일본 간 오란 보난에 죽은년 시집이 가보난 널 저 시험 볼 거라부난 나 시에 감저 헤여. 게곤 우리 죽은똥 ‘야 저사름 무시거엔 험니? 시험볼거엔 험니?’허난 ‘어머니 나이든 사름덜 이제사양 공부 못헌 사름 공부허렌 허난 널 시험보는 날이난 감수게.’ 오십넘은 사람이 이제도 학교 못헌 사름이 이서 나시냐?허난 예게 이시난에 저사름 학꿀 못허난 나이 한 사름덜 학교 허렌허난 널 시험보레 가는 게 그거우웬.

102004 @ 시에는 이신디 제주시에는.

102004 # 응 이서나신디 이디만 잊인 거라.

102004 @ 지금도 이신디. 지금도에 우리 글 ㄹ리치레 가주마씨, 할머니들. 그민 예 나이든신 할머니들 앞양예 영 글쓰고 막 영헤.

102004 # 오게. 이젠 경허난 경헤시민 허주만은 이제사 이젠 널 널인가 모린가 이젠 저세상 갈 날이 브더부난.

102004 @ 모르주, 백술까지 살지.

102004 # 아이고 백술ㄱ장 살아도 백술ㄱ장 살아가민 치매 걸리고 잊어불곡 안웨여. 백술ㄱ장 흠치. 백술ㄱ장은 뭐 백술 살아봐야 뭐 이제 혼 십년, 십년 혼쓸 넘어 살민 백술이라. 경허난.

102005 @ 아까도 곶아신디예 일본시대에 공출헤난 말 그거 혼번 더 곶아줍서.

102005 # 그거를. 그거게 잇다근에 감저 고구만 논 거이 이젠, 옛날은 감저엔 헛주만은 요즘은 고구마, 고구마허잖아이. 겨난.

102005 @ 옛날말로 감저 그냥.

102005 # 감저. 옛날말로 감저난 그걸 놓면 그건 요거 꿩수만 알앗주, 요 밧디서 멧 가마니 날 건 몰르지.

102005 @ 예

102005 # 경허민 그거 허영 파다근에 이제 옛날엔 비료도 엇곡 아무 걸름도 엇이 감절 놔놓민 ㄱ사 곶앗주만은 요만이 현 게 큰 거라이. 요멘씩 씨걸름 닳은 걸 헤다근에 허민 그걸 문 썰어근에 멧 가메니 바찌라 헐 거 아니?

102005 @ 빼떼기에.

102005 # 응 빼떼기로 바찌고. 어느거 빼떼기허고 씨허고 헐 거 남을 거니? 우린. 우리 먹곡 겨민 ㄱ슬때나 우리 실피 청 먹겐허멍 막 청 먹주게. 게고 저고 우리 이걸로 때 살양 때와근에 이제 빼떼기 헤영 내놔불민 그걸로 꺾이난 신 뎨 먹어야 텔 거 아니? 우리가. 신 뎨 푸수 쳐와근에 우리가 밥헿 먹젠 말양 감저로 때 살겐 허멍 경허멍 그걸로 감저로 때 살앗어이. 때 살멍 그거 빼떼기 허민 멧 가멩니 바찌라 허민 바찌불민 아무것도 엇어. 조도 허민 멧 가멩이 바찌라, 보리도 허민 멧 가멩이 바찌라, 바찌당 보민 아무것도 엇어. 겨민 어제도 곶앗주만은 양팡을 오랑 막 뒤여.

102005 @ 예.

102005 # 황덜을. 어디 지네 먹을 걸 넘겨뵈 죽영 무껌시카부뵈 딱 오랑 뒤어  
뵈근에 엇이뵈 그뵈 박시기 아정 오렌 허는 거라. 그것 가뵈 얼마 주뵈 그거 오라  
근에 그거 죽건 죽으라 허는 거라 그 사람덜은. 굽영 죽건 죽으라 허는 거라. 겨뵈  
수정 엇인 사름은 게도 그거 오랑 풀테죽 쭈고 겨난 우리 아버지네가 그 쫄을 곱졌  
다근에 그것에 보텡 밥은 안헤여. 죽만 쭈어. 그자 이 느물 헤다냥 느물 그자 무지  
려 놓고 온갓 푸십세 농뵈 그자 헤영 죽쭈어이. 또 우리 아바지 젊은 때라도 저 농  
숫일만 허난 드르에 가뵈 그저 거시기 마뵈리.

102005 @ 아, 마뵈리.

102005 # 응 마뵈리 그런거 파다근에 그걸 막 곱아. 곱양 요거 칭 앓지뵈 완전  
물 올라뵈고 허뵈 이제 저 감저 고구마 칭 앓지뵈듯이 전분 모양으로 막 맛이서, 그  
거. 깨끗하고. 겨뵈 그런거 쭈 케 다근영에 쭈범뵈, 뵈 헤당 뵈 그거 쫄양 그거. 톨  
이젠 이 바당에 톨이 엇어. 바당에 톨 헤다근에 톨은 이거 쫄에 냥 밥허뵈 맛이서,  
복삭헌게. 이제도 육지서 보난.

102005 @ 예, 톨밥.

102005 # 톨밥헌게. 그추록 헨 이제는 옛날에는 그거 막 쫄아근에 숫디서 오래  
뵈두뵈 복삭 틈자뵈 질기지 안헿 폭삭폭삭헤여. 게뵈 그것에 쫄이 얼마나 들어가?  
흔 방울 냥 그자 그것에 그자 흐쫄 쫄 비춤만 헿주. 경허당 보뵈이 이 초식만 먹어  
가뵈 막 붓어, 사름덜이.

102005 @ 아.

102005 # 이 쫄기가 엇어가뵈이 쫄방울이 들어가야 붓지 안허주. 경 붓어가뵈 톨  
보리, 톨보리 비어다근에 쫄아근에 그 물 먹어. 붓지 못허게.

102005 @ 톨보린 어떤거 마씨?

102005 # 보리 갈양 뵈두뵈 영 톨 나잖아, 보리가 나잖아. 겨뵈 영 우트레 보리  
가 영 커사 필거 아니게. 겨난 그거 피기 전에. 그거 헤당 쫄아근에 그 물은 먹으  
뵈.

102005 @ 아. 피기 전이.

102005 # 응. 그건 허뵈 붓지 안허여. 그 물은 먹으뵈 것도이 곡석이라. 곡석이라  
붓지 안허여, 옛날에. 겨뵈 어디 집은 붓엄저. 엇어부난 숫 잇언 어뵈저. 경헌 말이  
막 하낫어, 옛날에.

102005 @ 공출은 주로 감저 빼뵈기하고.

102005 # 감저 빼뵈기나, 보리나, 조나 그자 사시사철 농스헌 건 다 바썰야 뵈.

102005 @ 아.

102005 # 바썰야 뵈. 아니바썰 살아지고? 겨뵈 허단에 이젠 막 헤방이 뵈라 허난  
이제 이뵈 자유라이. 이뵈 벼슨 건 이뵈만 먹는 거주. 이뵈 벼슨 건 이뵈만 먹어신  
디 그 공십이 끝냥 흔 이뵈쭈 이서가난 그자 어뵈헿 뒤에서 수군수군 영 앓이뵈 남  
즈덜이 영 앓이뵈 수군수군 허당 사름 오라가뵈 혹허게 일어사뵈고.

102005 @ 응.

102006 # 영 허당 또 수군수군 허당 지네말 들엄직한 사름은 손 영 꼬딱혜영. 가민 무사 불림수겐 허민 이제 산에 갈 사름이라, 영 보난이. 산에 올르렌 허는 거라, 이제사 보난. 수군수군허는 게. 산에 올라근앵에 우리가 공산당 쪽을 물어야 펜안헌다. 이제 그거라 이제사 눈치가 보난.

102006 @ 응

102006 # 경혜영 이제 응원대, 응원대 허멍 군인덜이 이디 민짜 올라났어. 말젠 보난 그것이 응원대가 아니고 우리쪽이 아니고 그것이 공산당 쪽이라이. 영보난 내중엔 보난. 그 군인덜이 이디 완 민짜 텡기단에 내중엔 보난. 그 군인덜이 이디 완 민짜 텡기단에 내중엔 민짜 산에 올라분 거라. 이 뜨랑섬에 산에 올르민 얼마나 오래 살아? 아이고. 산에 올라분거라. 산에 올르곡 텡기다근에 우리도 사름덜이 어디 저디 봐지민 심어다냥 지네쪽 안들민 뚜드려불곡 밤인 느려오랑 먹을 거 내어 노렌. 이 우리 헤벤이난 헛주 옷드른이 죄 엇은 사름 많이 죽엇어. 반이상이라 죄 엇은 사름. 왜냐허든 밤이 오랑 산에서 느려오랑 먹을 거 내어노라. 먹을 거 안 내놓민 죽여불지 또 이젠 이추룩 허카부덴 안행 이녁집이엔 그디 앓양 살당 보민 또 이쪽에서 가민 산쪽 물엄젠 이제 답달허멍 심어다 냥 말 잘 못허민 그뎨 무주건 죽여불 때라, 게난.

102006 @ 아이고 침.

102006 # 무주건 죽여불 때난 이펜이 안 오람젠 산에 올람쟁 심어당 답달허당 보민 죽여불곡, 또 산에선 오랑 먹을 거 안 내놓젠 답달허여근에 먹을 거 안 내놓민 쫓렁 죽여불고. 우리 사돈 이제 우리 죽은 올케 어멍 아방네도 죄 엇이 다 죽엇어. 산에서 죽여 불언.

102006 @ 아이고.

102006 # 산에서 오랑 죽이젠 허난 아이고 날랑. 어멍이 날랑 죽이나대나 우리 아덜은 살려드라. 우리 아덜랑. 경허단 보난 할망 문저 팍 죽어뵈에 그 조름에 아덜을 죽여분거라.

102006 @ 아까 할머니 곱으레 텡겨난 말도 혼번 더 곱아줍서.

102006 # 우리 곱으레 텡겨난 거. 어둑어가민 해가 저레 강 어슬어슬 해가민이 신작로, 그뎨 우에 살 때난 해 쫓턱이 저가민 허벽 정 오는 거라. 물 질레 오는 추룩 행. 허벽 저근에 물구덕 소곱더레 이 검은 포 톡허게 개영뇌근에 물 질레 느려오는 추룩행 느려오랑 이디 오랑 앓앗다근에 막 어둑아가민 성창더레 느려가는 거라. 갯것 바위더레. 솔솔 느려가민 이 검은 포따리 썩 왁왁 어둑으민 영 물가에덜 강 앓아. 이 검은 바위, 물바위에 가민 돌이 거멍허여이. 거멍허민 그 트멍에 강 앓아불민 몰라.

102006 @ 거멍헌 포 쓰고 영 허민예?

102006 # 검은포 썩 영 앓아불민 몰르주게.

102006 @ 밤인 그디 강 곱으는 거라?

102006 # 응 경 곱앗당 붉아가민 또 올라오는 거라. 붉아가민 올라오민 낮인 그

것덜 올라가분난.

102006 @ 응.

102006 # 올라가분난 낮인 집이서 일허고 밥 행 먹고. 경허민 밥을 인척 행 먹어. 이제 산에서 내려오기 전이. 곱으레 가불젠.

102006 @ 응.

102006 # 경행 그거 행 먹어근에 가불민 오랑 뺑 엇이민 가불고. 또 우리 곱으레 가기 전에는 이거 중간으로 곱아졌저. 쳇번은 그추룩허난 감절 고구말 파서이. 밧디 고구말 판 오젠허난에 산에서 내려오란 이젠 아싯날 오난 산엿 사름덜이 오난 요디 하시가 있어. 우리 요 싯흥리광 태흥리 골메 하시가 있어. 게난 그것이 일본 시대에 논 하시난 남드릴 논 거라이.

102006 @ 응.

102006 # 남드리 이추룩 놔놔 이디 자갈을 끈 거난 요놈으 것덜, 산에 것덜이 밤인 오랑 그거 자갈 박박박박 끊어비뵤 차 못텡기게 그디 불을 탁 부썬부는 거라. 갱헤뵤 가불민 우린 이디 살당 그것덜 오랑 산에서 오랑 그 하시 문 그거 자갈 끊어 내려뵤 가불민 또 우린 강 그걸 문 자갈 메와. 경 메우노렌 허민 지서에서 오랑 검사허여. 지서드레 연락이 가명 아이고 영행 드리 문 파비엇수다. 영행 이디서 연락헤 가명 그디 강 또 자갈 지어다 뵤 흥번은 감저 파노렌 허난 완에 그 사름덜 이제 문 죽어비엇어. 우리 사는 사름덜은 죽으렌 험텐. 건 뵤말이넨 허난 산에서 와근 앵에 그 다리 판 거를 왜 고썬 놓느냐? 어 우리가 파신디 당신네가 고썬 놓느냐? 아 게민 어떻허렌 허는디 우린 죽을 꺼 아니넨. 게민 당신넨 살고 우린 죽느냐 이제 경헌 거라. 경행 간게 만든 경 곱아뵤 갓단에 또 흥 시간 후엔 또 온 거라. 오란 영영 손영영 우리가 고썬젠 허지 맙서. 우리 문 고썬뵤수다. 다리 고썬뵤시메 산에서 와갓젠 곱지 맙서. 이제 경헌 막아분 거라. 경헌 우리가 경허명 살앗어.

102006 @ 하시가 뵤?

102006 # 다리, 다리.

102006 @ 다리가 하시?

102006 # 어, 연날에 연날에 일본말로 하시라 이거 다리가 아니고. 한국말론 다린디 일본말론 하시 이거.

102006 @ 응.

102006 # 연날에 이거 일본 사름덜이 이건 이 다릴 논 거라, 이거. 우리 어릴 때 이거 제국시대에 이 다리 논 거. 이 다리가 엇영 허민 저디 올라가젠 허민 이쪽, 저쪽 이만은 뵤 이추룩 흥 디라. 영 허여져 불민 겨울엔 차 오민 눈 오민 올라가지 못헤근에 차가 올라가질 못헤뵤. 경 눈 녹아가민 이제 사름덜 막 빌영 가근에 찰 밀령 올라가곡 이펜드레도 그거 저펜드레도 그거 이 내고랑창이 영 양펜으로 영 뵤 디라. 경헌 디라. 저거 다리 논 게. 요 싯흥리 다리 논 게. 이제 다리 놓난 그거주. 겨난 일본 시대에 저것이 논 겨난 일본시대 말론 하시라. 일본말로 하시 우리 여깃 말론 다리지.



102006 @ 난 짓가락이 하신가 헨.

102006 # 아니, 아니. 일본말로 하시 저거. 겨난 우리 잇당 그 일본말 부짱 하시 다리 하시다리 허는 거주. 겨난 일본말론 저거 하시. 저거 일본시대에 저거 논 거주 게. 그추룩 허영 파불민 우린 스똥. 경헿 파비똥 가곡 밤인 그거 오랑 파곡 사름 게 나저나 우리 부락 게나저나 올라글렌 막 밤인 오랑 등기곡 허민 그 전이 곱으레 안 텡겿어이. 안 텡겿 집이만 ㄱ만이 뉘시민 오랑 일름 다 알아.

102006 @ 예.

102006 # 윤색인. 우리 큰 오라바니 일름이 윤색이고 윤나주. 윤색인 어디 가수과? 윤난 어디 가수과? 딸은 어디 가수과? 경허민 가네들 뉘 고기 나끄레 갖주. 그자 경헿 설러부는 거라. 밤인 고기 나끄레 간 엇어. 썰어도 고기 나끄레 갖수과? 영허민.

102006 @ 브름 썰어도?

102006 @ 응 게 브름 썰어도 가주게 어떻헤여. 살젠허민 고길 나까 오라사 우린 그거 밥, 우린 그것이 밥벌이난 헿 수가 엇어. 경헤영 태풍이나 안 불민 가야주. 겨민 우린 또 우리 어머니넨 영 방에 눕고 우린 검은 포 탁 씨근에 정헿 양팡에 강 곱아비어,밤이. 겨민 딸은 어디 갖수과? 경허명 다 들어. 경허민 몰라 가네도 어디 가신디 놀레 가신가 몰라. 경허민 놀레 가민 밤 오랜디 안 읍니까 허당 딱 헿 시로 두시 뉘가민 썩 올라 가비어. 겨민 우린 영 신작로 도로변 바위에 살주, 허민 산에서 느려오민 어떻허느냐민 요것이 옛사도 아니허여이 왓샤라 요거 소리덜이 막 기 십 좋게 뉘 이거라 왓샤, 왓샤, 왓샤

102006 @ 어어어

102006 # 막 신작로로 동드레 갖다 서르레 갖다 문 난리라 이거 옛사도 아니고 왓샤, 왓샤, 왓샤.

102006 @ 하하하하.

102006 # ㄱ만이 곱양 베리민 막 경허명 막 동드레 들악, 서르레 들악 허당 헿 시만 뉘가민 썩 올라가비어. 아이고 사는게 삶 아니. 겹나.

102006 @ 아까 오라방 곱아난 것도.

102006 # 오라바니 곱아난 건 모믈팻아래, 낮인 가민 아침 붉아가민 그 사름덜 올라가는 대로 올라강 조름에 강 모믈팻 아래 강 솔솔 기어들영 한가운디 강 곱앗당 또 어둑어가민 그 사름덜 느려옴 전이 또 느려오랑 배 탕 바당에 나가비어. 배 탕 바당에 나가불고 쉼날은 가지 못허민 또 우리광 ㄱ치 바닷가에 영 옆에 검은덕에 강 곱아. 경헤영 살고. 우리 조케 하나 아싯날 저녁이 낱고 뉘날 그 피 잘잘허는 피 찰찰허는 거 안아아정 곱으레 텡겿어.

102006 @ 아 애기 나근에?

102006 # 응, 우리 친정 올케가 딸을 낱신디 오늘 저녁 나고 널 저녁은 그걸 안아아정 그 핏덩어리걸 안아아정 강 경헤도 요놈으 애기가 객소릴 안헿 거라. 객소릴 안허여.

102006 @ 울어시민 걸러실건디.

102006 # 울어시민 걸림이라도 허주만은 객소틸 안혜영 계도 콤에 콤영 그 피 잘 잘 나는 걸 콤에 콤언 그 성장간 곱아났어. 아이고. 원원 어이가 었어. 경허멍 허단에 이디서가 이 태흥리 사름 운 떼엇젠 허여. 청년덜이 싹 흥번은 모이라 허는 거라. 청년덜이 남은 이 태흥 전체가 흥밭디레 모이렌 헨 모연 어멍헐 거냐고 우리가 산드렐 올를 거냐, 아니든 우리가 이쪽을 등길거냐 허민 흥나 사름이 잇당 생각해 보렌, 산에 가면 멧 년이나 곱양 살아지넌, 이거 흥루이틀이민 쫓날 일도 아니고 멧 년사 끌를 디 몰른디 누가 양석은 헤다주민 먹고 누게가 먹을 걸 당혜주민 산엔 강 오래 사느냐 경해도 우리 이쪽은 가면은 낮인 기도 나상댕기명 농슬 헤먹을 수 잇지 안허냐, 산엔 가민 낮이 활동 못헐 건디 어멍헤근에 누게 먹을 걸 당혜쥬 사느냐 영허난, 계건 우리라근에 이쪽으로 우리 가자. 경헨 이젠 남월지서드레 이 태흥 전체 청년덜 왓각 담아든거라.

102006 @ 오.

102006 # 잡으켄, 우린 이쪽도 저쪽도 안 부뜨주만은 우리 아무드르도 흥쪽을 부떠사 살거난 우리 이쪽드레 등기켄 허난 그때는 이젠 철창이엔 흥 거 잇어이. 철창은 그루후제 철창이 나고 그때는 왕대 요만은 진 거 허여근에 고편이 꼬짜 붓앗어. 그거 흥나 쥬영 영헌 질레 목 사렌허민 그것덜안티 얻어 지주, 살아져? 그것덜은 철창헿 이만씩 진 칼,

102006 @ 오.

102006 # 칼 이만씩 진거 양펜 놀 든진 거 진진헌 것덜 아정 뎅기고 이디선 대막 대기 흥나 그거 고편이 붓은거 무신걸 허여. 계난 이디서 둘리 죽어실 거라. 그거 맞안. 흥나 사름은 습격웨난, 원체 쉰 사름이라, 그 사름. 어느 운동 때 씨름판에 가도 정 오라보질 안헌 사름인디 세 번7장은 이겨내고 네 번채라가난 힘이 둘리난 얻어 죽은 거라이. 죽엇어. 죽고 흥나 사름은 그 철창 아진 요 질레에 보초 삼으로 사시난 그것덜 오란 박아부난 죽고. 둘리 경헨 죽언. 그루후젠 이제 이 성 다음을 시작을 허는 거라.

102006 @ 아.

102006 # 성담 다우는 거. 성담 다와근에 우리도 이디 살단 이 가름에. 겨민 이만인 흥 방에 두 살림, 세 살림 다 간 살앗어. 막 문 흥밭디 성담 요만은 싸 놔근에 그안에 문 담아들렌 허난 어디 갈 거라. 그 안네 담아들어서 일로 질로 영 보초 사명 저 군인 덜이영 오랑 보초 사근에 흥 아진 사름덜 문 보초 살 거 아니? 계난 그 안네 담아 들어노난 이집이민 흥 댓 살림 살앗어. 어느절에 이 방 출리곡, 듯은 디 출리곡.

102006 @ 쟁 낮인 강 일허고? 밧디 강?

102006 # 밧디 못 가.

102006 @ 아, 밧디도 못 가.

102006 # 밧디 못 가. 밧디 못 강 그디 강 담아정 살명 이젠 눈 팡팡 온 디 성담

을 영 성 돌렁 살젠허난 눈이 팡팡 오는디 돌을 짙는 거라이, 돌. 돌 해근에 요 저 푸지게라고 새혜영 영 여퍼근에 요만은 무시걸로 영 여평 다와근에 요레 특허게 뉘. 베 허나 요레 놓곡 허민 돌 흔 병텅이 요레 놓민 그거 영행 손으로 받았 정 강 그 답답는디 강 놓민 성담을 막 높으게 싸낫어. 사름 못 들어오게. 막 높으게 싸민 초숫막을 요만이 허나 짓고 또 저만이 강 허나 짓곡 초숫막을 트멍트멍 짓어. 경허민 우리도 보초 사레 텅겨낫어.

102006 @ 아, 여자도?

102006 # 응 여자도 처녀 때 강 그자 그 초숫막에 강 지켜근에 불 츠는 거, 불침번. 강은에 영 허민 절로 순찰 영 오라가명 사름이 보초 사시냐, 보숫막에 올라강 보초 사시냐 순찰을 막 돌주, 순경덜이영 군인덜이영. 경허민 돌아가명이 우리도 영 막 짓영 우이 올라가. 올라가민 어들로 인기척 소리 나민 신홀 헤사고 혈거 아니. 경행 혈 거난 빙허게 이젠 성 싸 놔근에 초숫막 막이엔 허영 짓어근에 그디 강 올라 아저근에 땅 보는 거라. 흔 사름이 굴메들멍 흔 시간씩. 오래 앓이민 좋아분덴. 흔 시간씩. 흔 시간 앓이민 강 아래 아래 불 추멍 앓곡 우이 올라강 앓곡. 게민 줄지 못허게 시리 그자 흔 시간 넘어 앓아가민 좋아분덴 경허당 보민 십격 든텐. 폭도덜 오랑 십격 든텐. 십격, 십격 해낫어. 폭도덜 오라근에 담아지는게 십격이라. 그계.

102006 @ 아, 건 십격.

102006 # 응, 어디 십격 들엇저 허여가민 이 폭도덜 오라근에 싸움 부뜨는 거 십격이라. 옛날에. 십격 들엇저, 아무디 십격 들엇저. 건디 이제 경허멍 살아가는 게 옥귀엔 현디 저 의귀이.

102006 @ 예.

102006 # 그디 학교집 허나만 내비뉘에 싹 내려와비서. 산에 올라가지 안헌 사름은 다 이제 이쪽더레 문 느려온 거라. 느려오난 그디 학꾼 오난 군인덜이 육지서 하영 들어왔어이 그디. 저 군인덜 오랑 산디 그디ㄴ라 뉘엔 굴아낫저만은. 군인덜 산는디 ㄴ라 그때 뉘엔 굴아낫저만은. 오래난 잊어비서. 그디 오랑 군인덜 산텐 허난 산에서 십격이 온 거 아니? 그 군인덜이 마침 육지서 군인 막 온 때난 옥귀ㅁ을 이제 십격 오랑 싸움을 부뜨는 거라이. 아이고 이젠 우린 이제 이디서 다 살았저. 그자 보민 불이 벌경허는 거라. 총 총 놀아뎡기멍 팡팡팡 놀아뎡기멍 이 헤벤이서 뵈려도 이추룩 남이 옛인 때난 그때.

102006 @ 응.

102006 # 총소리로 윈윈 귀가 쟁쟁허고 아이고 이젠 다 살았저. 저 군인덜 다 살았저. 다 살았저. 군인덜 다 죽엄저, 다 죽엄저 허단 보난 흔 흔 시쯤에 시작헌 것이 흔 세 시ㄱ장 흔 세 시간을 허엿어. 건디 세 시간 넘어가난 꺾꺾허연 시난에 그뎨 요샌 전화도 엿주, 그뎨이. 연락이 온 거라이. 이제 남원 지서드레 연락오란 문 딱 올라오렌. 남원읍 사름덜 다 올라오렌헨 젊은 사름덜 남제덜은 다 간거라. 간 보난 경헤도 이디서 군인이 하난 산에서 경 느려와봐도이 그디서 온사름이 하영 죽고

육지서 군인 둘리 죽었어. 육지서 온 군인 둘리 이디서.

102006 @ 예, 예.

102006 # 경헨 그때 십격 들언에 그때 혼 번 이디서 전쟁 부떠났어. 옥귀서, 옥귀먹을서.

102006 @ 아, 옥귀서.

102006 # 응. 전쟁 부편에 경헨 이디서 우리 큰 오라바니네도 가고 문딱 간 보난 그디 사름덜 죽은 사름덜 어떻헤넨, 아이고 사름덜 하영 죽언. 하영 죽언. 보난 먹을 걸 엇이난 감저 친 거, 고구마 친 거 멧 개 요런 항고에 항고엔 헌거 영 저 벤 또 닳은 거 친 든 거 있어. 그런 거에 허난 조팝 게싹헌 조팝 혼 직 담아진 것도 잇고 고구마 멧 개 저 담아진 것도 잇고 경 안헌 건 기냥 오란 배고파사 신디 총질 혈 나위도 엇이난 죽어진 거주. 보난 팡팡 가죽만 부편 윈 아무것도 엇인 사름덜도 와십디텐. 막 하영 죽언. 계난 의귀리 가민 어느 내 고랑챙이사 앓당사 담아비신디 기자 혼 구텡이에 막 담아놔근에 그자 흑 치데경 내밧젠 허주게.

102006 @ 아이고.

102006 # 그때 막 하영 죽어났어. 어딿 사름사 죽어신디 몰라. 그때 이 응원대, 응원대 허멍 육지서덜 하영 들어오란 저 산에 살아나부난 어딿 사름사 어떻 죽어신디도 몰르고.

102006 @ 할머니넨 누게 경헨 죽진 안허연?

102006 # 아 우리 므슬은 죽은 사름 엇어. 경헤도.

102006 @ 다행이여예.

102006 # 그 옥귀서 전쟁 부편에 경헨 경 싸운 때도 세 시간을 경 싸움 부편 헤도 이 우리 제죽 사름은 하나 죽은 사름 엇엇어. 육지서 딱 앞뒗침이서 군인을 오고렌. 막 그사름이 경 울언, 군인 하나가. 무사 울엄덴 허난 앞뒗침이서 꺾꺾나완 이때꺾장 돼신디 지는 살고 지광 꺾꺾 온 사름 하나 앞뒗침이서 죽으난 어떻 강 이 부모를 만날 거냐? 나는 살았지만은 이 부모를 어떻 강 만남 말을 헐 거냐 헨 막 그땐 군인 하나 경 울어났젠 허메.

102006 @ 이북에서 온 사름?

102006 # 아니 이북에서 온 사름이 아니고 이 우리 우리 남한 사름덜.

102006 @ 아 남한 사름덜.

102006 # 응, 이북에서 온 사름사 죽던지 말던지.

102006 @ 하하하.

102006 # 겨난 이디도 경 허단허단 버쳐가난 이디서 딱 돌아가멍 해안감시 딱 헤노난 산에서 어디 나갈 수 가 엇인 거라이. 벨 디로 와지게 허나 해안 감시 딱 헤노난 어디서 배가 들어오나 나가젠 헤도 조사, 들어오라도 조사. 요 퀘기 나끄레 혼 날 가도 조사헤노난 어디서 들어올 사름이 엇어. 겨난 어디서가 어떻 살단덜사 죽어신디 살아신디 몰라. 겐 말제라가난 하나 하나 이제 산에서 오래 못 살암직헿 굶영 죽어질 사름은 손 들르멍 느려온 사름덜은 어떻어떻 살고. 이쪽 부뜨멍 살고 경

안현 사람은 산에서 죽어. 어디 이북 사람도 어떻게 죽어신디 살아신디.

102006 @ 게메.

102006 # 굶던 죽은 사람도 하실 거여. 산에서. 경허난 우리 생각이주이. 산에 강 살, 우리가 이디서 경 첩 산에 강 살면 우리가 누게가 먹을 걸 당행 사느냐 허는 말이 맞아이. 산에 강 살민 낮에 활동을 못헤노난 밤이 영 보민 이디서 보민 폭도 덜 살 때 영 보민 요 산꼭대기로 불이 켈롱허여이. 거 연.

102006 @ 응. 연락.

102006 # 서로 연락불이라이. 연락불. 우리가 이디 잇다허는 연락불이라. 영 보민 이젠 이거 방풍낭이영 튀영 이디 남이 하부난 거주, 그전인 산에 흰허게 봐져. 영 나사민 요 산에서 불이 켈록허민 또 저착 산에서 불이 켈록, 또 저 산에서 허민 울로 불 켈록. 그거 연락허는 거 밤이. 경헤낮어. 경허명 살단, 살단살단 버쳐 가난 이젠 다 손 들르명 느려오는 거 아니. 경헨 느려오란 살앗주 경 안헤시민 흠치 어떻게 살아 삶을.

102006 @ 게메.

102006 # 낮이 활동을 헤사주. 낮이 활동 못허는 거 살아져? 겨난 우리 태흥리 사람 운 떼엇젠 허여. 전부 이 태흥리 사람덜, 젊은 사람덜 싹 모이라고, 모연에 이젠 어떻게 거넨. 산엘 올른다 저사람덜 말을 들영 산엘 올른다 허민 우리가 혼쪽을 아무디라도 밀어야 쥔 겨난 우린 이쪽도 못 부뜨고 산쪽도 못 부뜨난 어떻게 거냐고. 산엘 가면 흐루이틀에 꺾나는 것도 아니고 일년사 쥔디 이년사 쥔디 허민 누게가 먹을 걸 당헤주느냐, 누게가 먹을 걸 당헤정 우리가 먹고 사느냐, 활동을 못헐 건디 어떻게 거냐, 뜨랑섬이고. 경허난에 우리 경 말아근에 우리라근에 이쪽드레 부떠불자. 우리 남쪽을 부떠야 살지, 산에 삶은 메틀이나 강 살 거냐 경헤노난 우리 태흥리 사람은 하나도 안 죽엇젠 허여. 고생도 덜허고.

102007 @ 할머니 멧 살에 결혼 험디가?

102007 # 나 스무살에.

102007 @ 스무살에?

102007 # 사삼이영 다 꺾냥?

102007 # 사삼, 응, 꺾날 무렵에 보초살 때 우리 이디 영 성 다와근에 보초사명 헐 때.

102007 @ 아.

102007 # 게 결혼허난 어릴 때 결혼헤부난에 그자.

102007 @ 스무살은 어린 것도 아니주워, 옛날은.

102007 # 경헤도 요새로 생각허민 어렸주게.

102007 @ 요새 생각허민 어렸지.

102007 # 어렸주게. 요새 배운 사람이라이 열댓 술만 나가도 옛날 서른 난 사람 보단도 옥아, 요셋 아이덜. 가명 말명 그자 시집가노렌 뿐 헛주무신 살아보도 못허고.

102007 @ 할머니 계난 할아버지영 중매 결혼헐? 누게가 중신 사권?

102007 # 중매헐주, 중매. 옛날엔이 서로 연애가 엇엇어. 우리 시집갈 ㄹ리엔. 연애도 엇고 남즈가 줌구짐도 몰르고 여즈가 줌구짐을 몰랐어. 경혜신디 나이도 어렸고 또 시집간 보난 또 신랑이엔 헤도 이녁보단 두나이 아래랏고.

102007 @ 할머니 보다 두살 밑에?

102007 # 겨난 새서방 ㄹ슴도 어렸고, 나도 어리곡 허난 그자 어떻 사름 알앙 원 시지부지허게 그자 원 그냥 싸와보지도 안허고 드툼도 안헤보고 그자 가민 가는가 오민 오는가 헐 설러분거 원. 그자 아이 가난 안 가는 건가 헐.

102007 @ 누게가 중신 산에 이집이 시집가라 경헐수과?

102007 # 아, 중매헌 어른덜은 다 죽어부난. 이젠 옛날은 어른덜 늙은 하르방덜 어디 새각시 잇저, 어디 신랑ㄹ슴 좋다, 시집보내라, 구허레 왔저, 경허민 거 중매상 허민 새서방 얼굴도 안보고 새서방은 새각시 얼굴도 안보고 그자 가는 거엔 갖추. 경헐 가면 잘 사는 사름도 잇고 대개 못살앙 나오는 사름이 하. 새서방이 어려 불고.

102007 @ 할머니 계난 애기 아방은 이디 태흥리 사름?

102007 # 아니여.

102007 @ 계민?

102007 # 난 두 번 차라부난에.

102007 @ 할머니 두 번채?

102007 # 저 소섬 사름이여.

102007 @ 처음 결혼한 게, 아니민 나중에 결혼한 게.

102007 # 나중에 간 게.

102007 @ 나중에 간 게. 처음 사름은?

102007 # 처음은 이 태흥리 안네.

102007 @ 응. 기구나.

102007 # 살명 말명 허단 설러빋주 무신.

102007 @ 처음에 결혼헌 거 애기도 엇고?

102007 # 기자 애기도 엇고 기자 가명 말명 허단에 기자.

102007 @ 무사 설러불언?

102007 # 어떻사 헤져신디 뭐 무신. 기자 시집이민 시집인가만 생각헐주 무신 그거, 이거 나 살 건가 생각도 안헐고 그자 시지부지허게 그자 아니 가, 아니 와도 아니 왓젠 안 헐 거, 가도 감젠 안 헐 거 허단 기자 어떻어떻 허단 설러졌어. 싸와보도 안허고 원원.

102007 @ 계민 두 번젠 멧 살에 결혼헌 거짜?

102007 # 결혼 안헐어.

102007 @ 계민.

102007 # 결혼 안헐 그자 나만 이레 저레 살단에 큰어멍 이신 디라 저디. 큰어멍

이신 디 강 애기덜만 서오누이 난 거주.

102007 @ 애기덜 세 개.

102007 # 애기덜만 서오누이 낳주.

102007 @ 아덜 하나 딸 두 개?

102007 # 응.

102008 @ 결혼할 때 사주같은 것도 보지예?

102008 # 옛날은 사주 봤어. 옛날엔 저 사주 뺑은에 좋다 곳다. 막 종텐 혜영 간 것도 못 살아.

102008 @ 하하하, 사주가 중요헌 게 아니?

102008 # 요즘은 사주 그런 걸 안 봤주만은 옛날엔 날 택일이 메틀날이여 뵤 사주가 어떻 허다, 난 날 난 시 다 들었어이. 멧 시에 난 거, 메틀날 난 거. 쟁 다 들 영 강 그디강 문 대조허여이. 새서방칩이 걸 놓고 그거 영 허민 이 사주허고 이 사주가 좋다, 경혜영 결혼헛주만은 결혼혜 봐도 못사는 사름이 핫주, 잘 사는 사름 이 서서?

102008 @ 할머니 결혼혜도 이디 태흥리 계속 살안?

102008 # 응. 태흥리 살안.

102008 @ 어디 안 가고? 다른 디 강 안 살고? 아까 소섬 강 안 살고?

102008 # 아니 그냥 이디서 그자 가명 오명 그자 애기만 빌언 난 거지. 그디 간 안 살안.

102008 @ 할아버지도 이디 안 살안?

102008 # 이디 안 살안. 이디 안 살안 그자 갖다 왔다. 갖다 왔다 허단 죽어불고 하르방.

102009 @ 옛날에 할머니 헐 때 결혼할 때 무신 거 가정가? 시집갈 때 무신거 가져갑디가?

102009 # 우리 갈 때 무신거 아정 가는 거 엇엇어. 이불베끼.

102009 @ 이불, 이불은 가정 가네예?

102009 # 이불 그자 이녁 더끌 것만 행 갖주. 시어명 나시가 무시거고 시아방 나시가 무시거고 아무것도 안혜여. 경허단 흐뎡 이서가난에 시아방 나시 이불을 혜여 가는 거라 흐나이. 이녁 더끌 거 허곡 잘 사는 사름은 시아방 나시 이불을 흐나 혜 감저 허단 또 그루후제 나가난 이불이 아니고 옷으로 혜 가는 거라이. 촛촛 살아가 난 옷으로 혜가단 이젠.

102009 @ 돈으로.

102009 # 돈으로.

102009 @ 경해도 베개는, 베개는 허지예?

102009 # 베개 두 개 혜여 가.

102009 @ 베개 두 개 허여?

102009 # 그자 이불 이녁 더끌 거 흐나허고 그자 원체 잘 사는 사름은 어떻허다

가다오다 이녁 더끌 이불을 두 겹 헤영 가이.

102009 @ 이불 두 개.

102009 # 경 안현 사람은 똑 기자 이불 하나하고 기자 베개 두 개, 기자 그거. 겨난 나 아이고 이거 둘리 더끌 겨난애, 둘리 벨 겨난 베개는 두 개 허는 거. 옛날에 이거 시집 가명 말명 게.

102009 @ 방석 같은 건 안해?

102009 # 방석 옛날애 기자 자부동 하나 이녁 깔앙 앓는 거뿐이주, 절대 자부동은 앓엇고.

102009 @ 요강, 요강. 요강은 가져간덴 곱아라.

102009 # 요강은 옛날엔 똬게가 이서이. 가메. 가메에 허민 먼 디 시집 가. 요즘은 차로 확하게 가불주만은 옛날애 이디서 마뜨민 새각실 막 먼디 강 해와. 이디서 저 어디니, 재기 곤젠 허민 서구포쪽. 또 이디서 마뜨민 어디 성산포쪽, 신산이쪽 경 막 먼 디 강 허민 가메 테왕 오젠 허민 새각시가게 아침밥 먹곡 경정허다보민 물 테왕 오당보민 중간에서 소벤을 보구적 허지. 경허민 그거 소벤 보젠 그 요강을 행 간다 이거야.

102009 @ 아, 가메 안네.

102009 # 가메 안네 앓앙 누리지 못허민 가메 안네서 소벤을 보라 이거여. 경행 그 요강을 헤영 뎡것젠 허주 그루후제 이 차 남 시작 허난 그런 거 안헤여. 그런 거 안헤여.

102009 @ 잘사는 집인 퀘도 행 갓젠 곱아라.

102009 # 우리 어릴 때는 퀘도 아무 것도 앓엇단 츠츠 육아가난 저 잘사는 집이 이녁대로 켈 짜서, 사는 게 아니고. 나무 오려근엥애 옛날 나 어제도 곱앗주만은 영영 밀력 등격허는 걸로 남 오레영 퀘를 짜이, 하나. 옷 놀 퀘를 하나 짱 보내신디. 그루후제라 가난애 이젠 퀘가 나오는 거라이. 퀘 나오라가난 이제 퀘를 두 개 허민 퀘 흔 바리 행 감저, 흔 바리 행 감저 허는 게 퀘 두 개라.

102009 @ 아 퀘 두 개가 흔 바리.

102009 # 응 퀘 두 겹 헤영 가나고 경헤가는 게 또 시아방 나시 무신 이불 헤연 감저 허는 말이 또 나났어이. 경헤가민 흐쉴 사는 집인 이녁 더끌 것도 이불 두 개, 시어멍네 나시 더끌 거 흔 채허민 이불을 세 채 똬 가는 거라. 경헤도 앓인 사람은 세 채랑 말앙 이불 두 채 보짜 행 가이. 퀘도 하나. 경헨 가단 츠츠 헤 가단 이눔으 단스가 나옴 시작 허난 단스여 찬장이여 헤여는 거주. 그루후젠 우리 어린 뎡이 퀘 헤영 가는 집이가 어찌허다가 막 산다 허는 집이 그 널덜 오령 널 오령 게민 마쿠슬낭 마주목낭, 마주목, 마주목 헤여. 마쿠슬낭. 그런 남 잇당 집이서덜 키운 사람덜 그런 거 베어근애 그거 오령 퀘 짱. 퀘도 그런 건 크게 짜지도 못헤여. 조그만허게 짜근애 그자.

102009 @ 그게 좋은 퀘파? 그 낭으로 현 게?

102009 # 응 그거 좋은 퀘. 그거 마주목퀘, 마주목퀘 허명. 마주막으로 뎡 거엔



허명 그 머쿠슬낭 궤가 경 좋아. 좋넨 옛날 어른덜. 야 마주막으로이 궤 짠 거 얼마나 좋느니, 좋느니. 그거주. 그거 이녁대로 남덜 싸근에 스뭇. 잇당 부제침이 딸덜 풀젠허민 그 남 쌍 궤 짜명 문 밥헝 맥이명 집이서 문 궤 짱.

102011 @ 결혼허민 어디 머치 시어명이영 머치 살아. 시어명, 시아방이여. 딱로 살아?

102011 # 부제침인 가면은 혼 일년 은 머치 살아. 웨나허른 시집 가면 강 시집이 만 요새엔 가나안가나 시집이강 살아빚주만은 옛날은 허민이 딱 여름 나가민 친정에만 살아. 혼 일 년을. 친정에만 친정에만 살단.

102011 @ 시집가도?

102011 # 응 시집가도. 친정에만 사는 사름 하. 겨민 친정에 살다근에 봄 낭 보리 빌 때 오랑 혼 이틀, 여름 검질 멜 때 혼 이틀, 그자 보리왓 검질 멜 때 혼 이틀 겨민 친정에만 살주. 시집이 베랑 아니와. 아니와근에 혼 일년이나 이년이나 살아가민 시집이서가 이제 집을 짓영 내어놓나, 집 못 짓으면 늬의 밧거리라도 빌어근에 딱로 살림을 내놔비어, 경해가민. 경헝 허민 살주 경 시어명네광 오랑 막 계해영 오래 살지 안헤여. 그자 시어명네, 시집왓다 뿐이주 그자 갓다왓다 그자 가민 친정에 하영 살당.

102011 @ 시집 갓젠 뿐이구나예?

102011 # 응, 갓젠 뿐이주 그자 친정에 하영 살당 시어명네가, 시아방네라도 집을 이신 집이 부제침인 집 짓영 딱로 살림 내 놓고, 또 경안헌집인 헤 늬의 집이 밧거리 빌어근에 빌어근에 내 놔, 살림 내놔볼곡 경헝주. 경헌 뎨 그자 머치 살아볼고 경 안허민 그자 갓다왓다 기자 혼 들에 혼 번 시집이 오나 마나, 두 들에 혼 번 오나 마나 경헤여. 오라도 그자 아싯날 오랑 뒷날 가불고 시집이엔 헤영 오랑 요 이틀 사흘이나 안 살앙 가. 살 수가 엇주게. 오라근에 시동기간덜도 한한허곡 방이라도 여라개민 요 방 두 개 오라근에 문 담아놓곡 허민 옛날엔 애기 날 대로 하영 난 또 큰 메뉴리쯤 와근에 수정이 박삭박삭헤노민 그디 왕 접지젠 허여?

102011 @ 허허허.

102011 # 겨난 가부는 겨주.

102013 @ 뭐 이수게. 시어명이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도 막 시키곡 험니께. 할머니도 경 헤반?

102013 # 우리 역은 후젠이 경 시집살이 시켜나지 안헝저. 그전에 시집살이주이. 우리 역아가난 시국이 촛촛 달라가난 경 시집살이 시키명 시어명안티 경 눈치보곡 무시거 허명 경 살젠을 안헝어. 옛날 어른덜이 무신 쓸 얼마 놓라, 밥허젠 허민 무신 물 얼마 놓라 경허명 막 시집살이 시켰저 헤도 우리 역은 후젠이 경허는 거 못 봤어.

102014 @ 아이덜은 다 시집장게 갓주예?

102014 # 나?

102014 @ 응.

102014 # 문딱 손지덜 다 봤주.

102014 @ 손지덜도 시집장계 갓수과? 큰손지 시집간?

102014 # 큰딸에 손지덜은 두 개다 시집 장계 간 손지덜 보고 딸은.

102014 @ 그민 증손지, 할머니.

102014 # 응 나에엔 증손지 텔 거주. 증손지 텔 거. 아덜은 안직은 두려.

102014 @ 응 아이덜 어리고.

102014 # 안직은 어려불고. 겨난.

102012 @ 큰딸이 쥬 우에?

102012 # 오, 큰딸이 쥬 우에난 두 개 다 풀안 손지덜 봐불고.

102012 @ 아이고. 별써?

102012 # 아직 다른 것들은 원.

102012 @ 큰딸은 멧 슬인디 별써 손지 본 철이과?

102012 # 오십다섯.

102012 @ 빨리 헛저 경해도. 오십다섯에 손지 이시민. 젊은 할머니네.

102012 # 젊은 할망이주. 가이가 게 혼 시집, 가이가 혼 스물 셋에 아기 나신가  
넛에 나신가 현 거라. 그것덜도 재기 시집장계 간.

102012 @ 겨난.

102012 # 우리 외손지 헛난 지집아인 키도 막 크고 몸피가 이만은 헤여. 겐디 야  
이가 걸음이 굿여. 썩발이라. 썩발이라근에 걸젠허민 이디가 부벼근에 걸음이 좋질  
안헤여. 아이고 저거 똑 딸이 느 사위 못험직허다. 어디 저거 누게 봉가가키냐? 얼  
굴 영 앳인 때 얼굴은 보민 완전 미인이라이, 얼굴은. 얼굴은 고와. 키도 막 크고  
경허민 야 자이 원 누게 봉가가카이. 얼굴 영 앳인 때 얼굴 뿡은 잘도 이쁘디 걸음  
이 황당헤부난 저거 누게 봉가가카이 허멍 아이 경해도 제법 찍시 사름 이션.

102012 @ 하하하.

102012 # 가이가 혼 스물일곱에 시집 가신가. 아기 나서.

102012 @ 손녀딸, 외손지.

102012 # 응 외손지.

102012 @ 가이가 쥬 우에과?

102012 # 가이가 우에. 그다음 아덜 풀안 또 손지고. 겐디 경헌 경해도 또 신랑  
을 잘 만났어. 어평사 착헌 아이산디.

102012 @ 손지 사위?

102012 # 경 착헤여, 아이.

102012 @ 할머니가 착허게 사난 자손덜이 잘 되는 거지.

102012 # 거 무슨 우리 즈손이라, 양칩이 즈손이주.

102012 @ 경해도게.

102012 # 외손진디.

102012 @ 외손지도게.

102012 # 외손지만씩 헛 거.

102012 @ 경해도 아덜이영 딸덜 다 잘 살고예. 할머니 이제.

102012 # 큰딸은 막 고생헬저게.

102012 @ 요변이 왔던 게 족은딸짜?

102012 # 건 둘째.

102012 @ 딸 세 개짜?

102012 # 세 개.

102012 @ 요변이 와난 게 둘째딸.

101001 # 태흥 3리 여기. 옛날엔 이 이 동네이 집도 멧 가우 엇어나서이. 이 일대 돈 헤떡어난 밋이고 요 동녘집 요거 헛나 잇고 요쪽에 요집 하나, 요 우녘편이 집하나 멧 집 엇어나서. 지금 요디 법당집, 옛날집 그 동서집 또 저편더레 가는 집. 이 삼 리헛짜 헛 스무가호 이서시카? 저 우이 올라가민 장밋이라고 헛 디 그디 가민 이제 이 태흥리 안네서는 이 남원읍에서는 김참서집이엔 허민 모르는 디가 엇어. 그디는 저우에 그디 가민 헛 가족만이라 그딘 하르방이 애기가 헛 일곱오누인가 아들만 다섯인가 난 손지들이영 막 벌어진난 그자 그디 헛 가족만 살았주, 일로 이렌 이디 사람 멧 개 엇어난 이제사 육지서도 들어오고 외리서도 들어오꼭 헤가난 영 가호가 이섯주 이디도 요 집 헛나 잇고 요거 집 헛나 잇고 또 저쪽에 가민 집 두 가워 저레가민 헛 일루이레 헛 스무 가위가 서신가 경헛 살아나서 이디 옛날에.

101001 @ 그른 더 막 옛날에는 태흥리 어떻헤근에 생겨신고, 들어난말 이수가?

101001 # 들어난 말 엇어. 우리가 나가 왜냐허른 체암날 때 우리가 체암 나쁜 신흥리서 낳거든. 저짜 마을에서, 저짜 마을에서 난 시국에 어떻어평 헤가난 잘 안웨난 아버지도 어린 때 돌아가셔 불고 우린 아무것도 엇이 옛날에 춤말로 감저도 그려나서이. 제국때라부난. 또 큰오빠는 아버지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헛 오십 안난 돌아가섯어이. 난 어머니 혼자 다섯 오누이를 키운 거라 근디 큰오빠가 그때 헛 스물헛 슬이던가 딱 북해도더레 보내부는 거라 아무도 엇이난. 겨난 나우이 오빠가 둘 이신디 우리 작은오빠는 또 우리가 아무것도 엇덴 또 못사는 사름이엔 또 저 모실포 마루공선이렌 헤서이 옛날에이.

102001 @ 뭐 허는디?

102001 # 마루공선이 이거 제국시대 헤난 거라 일본시대에. 계난 그디 비행장 만 들젠 일꾼으로 그레 보내부는 거라

102001 @ 비행장 만드는디?

102001 # 응, 그딜 보내분 거라 보내부난 우리 어머니가 오남매 들양 살명 침 동녕허다시피 헛 살았지.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땅이 엇이난 우리 짝세. 땅 쪼끔헛 거 이서도 옛날엔 비료도 엇지, 아무것도 엇어노난 그냥 보리씨 앓땅 뿌려도 옛날에 보리씨 헛 닷말쭝 뿌려도 그냥 어디 자갈밧디 기름팻도 아니고 아무것도 자갈밧 영 동산밧디 뿌렁 나두민 그거 비료헤여사 걸름을 헤여사 보리가 나올 거 아니, 옛날엔이 경 걸름이 엇어서이.

### 3. 밭일

103001 @ 계민 밭일 허는 거 무신거 이서마썸? 옛날 무신거 무신거 행 먹어난?

103001 # 옛날? 우리가 헤먹는 거 여기서 허는 거 보리, 조, 밀, 겨울에는 보리농스, 밀농스 요거 두 가지 여름농스는 콩, 나룩, 나룩이엔 해도 논나룩 아니라. 옛날엔 산디 산디해나서이. 산디, 모물, 콩 그거. 고구마 요거 네 가지라, 여름농스는이. 그 저 콩허고, 나룩하고 조, 고구마 메밀 요것만 헤먹엇어이, 옛날에. 모물농스나 이 저 요샌 이 나룩, 나룩허주만은 옛날엔 나룩이렌 안해서이 우리.

103001 @ 옛날 글아난 말로?

103001 # 산디

103001 @ 경 글아줍서.

103001 # 산디.

#### 보리농사

103002 @ 계민 보리부터 허게예. 저 보리허젠허민 무신거 무신거 미리 준비행 놔둬사 웨는 거 이수짜?

103002 # 미릇 준비허는 건 보리갈 때 보리 보리씨허고 밀씨허고 요거라 요거 두개 두가지 베핀 안 같아.

103002 @ 보리부터예, 그믐 보리영 밀이여 ㄹ치 허는 거?

103002 # 응 ㄹ치.

103002 @ 아.

103004 # ㄹ치허는 거.

103004 @ 그 씨는 어떻 준비헤 놔두는 거짜, 언제 헤근예?

103004 # 보리도 이 철에 딸라근예 철이 일르면 음력으로 스월 그믐에 보리농서가 헤여 들이, 거두와 들이고 또 경 아니민 늦으면 음력 5월달 나사 보리농서를 거두와 들이는 거 밀이나 보라나 ㄹ치ㄹ치 거두와 들여. 겨민 보리 거두어낭 곳엔 밀이 쥔 흐끔 늦으면 밀농서는 보리헤난 곳에 그 조름에 ㄹ치 부짱 헤들이고 경행 헤동 그거 헤둬사 그 다음엔 고구마 일찍 놔야돼여. 일찍 놓민 고구마 놔동 그 다음엔 조, 아 산디가 제일 먼저로구나. 보리 비어놔되근예 제일 먼저 산디 불령 그 다음 이따근예 조 저, 조 불리고 고구마 ㄹ치ㄹ치 헤여. 경허고 또 메물은 또 조팠디 검질 초불 맹, 혼 사십일 이따근예 메물 같아 막 늦게 같아 그건.

103003 @ 계민 보리에 걸름은 어떻게 마련헤마썸?

103003 # 걸름은.

103003 @ 보리걸름은?

103003 # 보리걸름은이 옛날엔이 저 뭐해서 이 영 도새기 가해서 통시 만들어 등

글썽하게 담 다왕 통시 만들엉 돼지를 질봐서이. 겨민 돼야지 질룰 때에 돛걸름, 돛걸름헤여 돼지걸름이엔 안헤여.

103003 @ 응 돛걸름.

103003 # 돛걸름이엔 헤근에 보리헝 먹어나민 보리찝 그 통시러레 담아놓고 몰라 웃드르션 어떤가 우리 해변엔 이 바당 썸민 바당에서 감태, 듬북 그거 헤되나근에 보리쩍 혼 직 놓고 그 듬북 혼 직 놓곡 그 색이는 거라이. 색여근에 이젠 조그슬 문딱 헤뿔 걸름밭 헤사허컬 헐 때는 그 걸름을 막 파내어. 파내영 마당에 걸름 싸치와뿔근에 그거 다 파내영 또 이젠 소를, 술 이끄나, 물을 이끄나 헤근에 그 걸름을 막 불리는 거라이, 밧 불리듯이 막 불리민 이 놈이 걸름이 끈닥끈닥헤여. 겨민 그것에 보리씨 확확 뿌렁 또 불르곡 보리씨 뿌렁 또 불르곡 헤냥 끈닥끈닥헤민 또 돼싸냥 보리씨 빼영 또 그 쉼 이꺼근에 쉼로 불리곡 또 돼싸냥 불리곡허민 이것이 똑 저 떡 달룬 거추룩 끈닥끈닥헤여.

103003 @ 예

103003 # 게민 이젠 혼 밧더레 모여놔이. 모여근에 일로 모이고 일로 모이고 허민 이추룩 막 무룩허게 막 모여냥 옛날에 멥탱이렌 헝 거 이서이. 멥탱이, 걸름멥탱이엔 헝 저 나룩쩍으로 짜, 그걸. 바구니모냥으로 빙 둘러 게민 그것에 담아냥 쉼 잇는 집이는 쉼에 시경 강 비우고 우리ㄴ찌 쉼 잇인 사름은 그것에 담으멍 지영, 지영 강 밧되 강 문 비어놔이. 비어놔근에 이젠 밧 갈젠허민 그걸 문저 밧 갈기 전에 손으로 탁탁탁 영 털어. 그 보리씨 서꺼진 걸

103003 @ 아.

103003 # 탁탁탁 뿌렁놔두민 이젠 쉼로 민작 갈아놔. 갈아놓민 그것이 걸름이라이.

103003 @예.

103003 # 이젠 또 곰베곰베허멍 질게 조룩 들져근에 이만은 질게 이 망치 모양으로 만들어근에 그걸로 가근에 그 걸름 멥탱이 나온 거 후 등겨당 두드렁 막아.

103003 @ 아, 밧 갈아난 다음에?

103003 # 응 간 다음에 그걸 보리씨를 후으로 더퍼줘야 보리가 날 거 아니?

103003 @ 예.

103003 # 그거 문딱 헝 더퍼주영 그 보리나게 시리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가. 경헝 산 거라.

103005 @ 그 보리씨 허는 거 멧 월에 언제쯤 허는 거파?

103005 # 보리 비면은 보리 장만하민 그 씨를 낫다근에.

103005 @ 거난 씨 빼는 건 언제 빼는 거라?

103005 # 그씨가 게메 그 걸름에 혼디 빼는 거.

103004 @ 그 걸름에? 언제쯤에 밧 갈고 허는 거 언제쯤에 멧 월에?

103004 # 그것이 멧 월에 허느냐 하면은 철이 일른 때는 10월 초에.

103004 @ 이제 이제 막 헐 때파?

103004 # 음력 아니야, 음력 시월.

103004 @ 음력 시월.

103004 # 지금 음력으로 구월 아니야. 계난 올리 ㄹ튼 해에는 음력 시월 들 구물어야돼.

103004 @ 아.

103004 # 철이 늦게 계난 음력 시월 초에 헐 때가 잇고 음력 시월 구물면 음력 동짓들 초 부짱 헐 때가 잇고. 그놈으 걸름이 경해여. 요즘은 보리씨도 그냥 싹싹 갖당 뿌리고 비료 뿌리고 험주만은.

103004 @ 계난.

103004 # 옛날엔 보리가이 경해노면 이 밭이 좋은 밭디는 가름팍이엔 험거는 이 집 앳인 울왓이 가름밭이라이. 경헌디는 쫘 어떻사헌디 쫘 보리를 갈민 좋고 경 먼 드르엔 강 갈민 갈양놔도 생이 듣는 거 다 웨려져. 계민 보리씨 닷 말을 갈아도 보리 스물 말 베피 못허는 거라..

103004 @ 아까 무신거 뭐해부러 다 생이가 어떻?

103004 # 생이 듣는 걸 다 웨려 보리나면. 보리가 이렇게 커야 못 웨리는데 보리가 영허민 나들나들허잖아.

103004 @ 경허난 생이 듣는 게 다 보여?

103004 # 계민 아이고 아무밭디 보린이 생이 듣는 거 다 보인다. 보리가 안웨니까.

103004 @ 아 경 곤는 말이구나예.

103003 # 걸름을 못허난 이 보리밥도 배부른 밥 먹기 시작할 때는 우리 시국 낫난에 박정희 대통령 나서이 박정희 대통령 난 후제는 어디사 간 비료를 봉강와신디 비료 봉가당 이젠 걸 이제 돈 쥘 우리가 사는 거라. 쫘짜는 못해와도 돈 쥘 사도 그 보리밥을 비료 앳당 뿌려놔두민 보리 갈앗당 그 비료 뿌려놔두민 보리가 이만 싹 높으는 거라이. 겨난 보리 헐 말 나던디 열 말씩 나가는 거라.

103003 @ 비료허난.

103003 # 응, 비료허난이 그 옛날엔 보리 갈양만 내불민 나민 난 대로 그대로 앳인냥 허민 보리 고고리 한 해 보리 방울로 세민 열 방울도. 보리고고리 요맨씩 허민 열 방울 돌아진 세 방울 돌아지는 거 험주만은 그 비료 앳단 뿌리난 보리고고리가 요맨씩 훑고 보리 무신 열말 나던디 스물 말도 낫저, 서른 말도 낫저 허는 거라. 그 비료 험 시작 허난. 경허난 우리가 배부른 밥을 먹엇주, 그전인 굶영만 굶영만 살앗어. 어떻 굶으명 산 중 알아.

103003 @ 그 보리 할 때 걸름 험 밭디 헐 때 가는 건 누게가 갈아?

103003 # 남저들.

103003 @ 남저들이 밭 갈아줘?

103003 # 소 메와근에.

103003 @ 쉼 메왕?

103003 # 응, 남자들이 같지 여자들은 안 같아, 못 같아.

103003 @ 쉘 옛인 집이 어떻게?

103003 # 쉘 옛인 집인 늬이 쉘 강 빌어.

103003 @ 늬의 쉘 강 빌어근에?

103003 # 빌고 또 밧 갈 사름도 옛이민 쉘 지픈다허는 건 쉘영 사름이여 그치왕 밧 갈아도라 허는 거라이 쉘 지평 갈아 줍서.

103003 @ 아, 쉘 지평 갈아줍서?

103003 # 어, 쉘 지평 갈아줍서 허는 건 쉘도 잇고 밧갈 사름도 신 집이라이. 겨민 그 이녀쉘 가져왕 밧 갈아줍서, 쉘 지평 갈아줍서 경허곡 경 안 현 사름은 쉘도 또로 빌고 밧갈 사름 또로 빌고 헤사뉘여.

103003 @ 그럼 그 돈은 어떻게사 뉘여?

103003 # 돈 못 물면 일도 강 헤여주고.

103003 @ 아.

103003 # 일로 대충 못헤주면은.

103003 @ 보리라도?

103003 # 그냥 돈으로 안네고 대충은 옛날엔 돈으로 받지 안혀, 일.

103003 @ 아 일로?

103003 # 일로 부제집들은 쉘 잇고 사름 잇고현 사름들은 또 쉘걸름 헤다놓고 다 헤놓면은 므시 신 집인 보리가 좋아이 쉘걸름헤 쉘 또꼬냥에 그 출 줘나고 쉘똥 사 놓고 쉘오줌 싸논 게 이게 걸름이라이. 겨민 그것이 어느 때 쉘걸름 푸냐면 여름에 그 쉘 여라개 질화난 딴 그거 또 통시레 퍼다놔.

103003 @ 아.

103003 # 퍼다놔당 그 걸름 다 썩으민 또 허곡 또 걸름 또로 치왕가근에 밧디 강 막 뿌리는 거라. 뿌려놔 그 우에 또 보리 보리씨에 그 걸름에 서끈 걸 또 헤놓민 보리가 부젓칩이 보린 좋아.

103003 @ 이중으로?

103003 # 응, 이중으로 좋아. 게민 부제칩 보린 강보면은 게난 부자칩허고 잇는 집허고 그거라. 가난뱅이허고. 게난 옛인 사름이 향시 일이 차불 수가 옛어서. 아무리 부지런헤 봐도 일을 차불 수가 옛어.

103003 @ 게메.

103003 # 경허난 .

103006 @ 보리 종류는 옛날에 요새 말고 옛날에 보리종류는 뭐뭐 이서나수과?

103006 # 옛날에 걸보리라고이, 걸보리 그거이 두 뉘 곱아야 쓸 혼 뉘 안 나. 걸보리라고 저 겁덕이가 두쩍고 보리 고고리가 영허민 요센 두줄 보리가 영갈민 양펜으로 울로 허고 울로 씨를 부뜨는디 옛날엔 딱 네 개라, 요것이 보리가. 경헌디 보리 보리방울이 쫄랑쫄랑쫄랑허여. 경허민 두 뉘 곱아도 쓸 혼 뉘 안 나와.

103006 @ 아고고, 어떻게.

103003 # 경해도 그걸로 산 거라. 경허단에 어땡헨 이 줄보리, 줄보리 허멍 영 두 가달로 허는 보리씨가 나오난 그거 감 시작허난 그건 씨가 저불고 그건 우리 어릴 때, 우리 두린 때 갈아난 보리고 우리 역은 후엔 이 두줄 보리가 나온거라이. 게난 요거는 쓸흔 돼나, 두 돼글민 흔 돼나 쓸이.

103006 @ 두 돼 글양 한 돼만 나민 뒤희레 글암수과?

103006 # 그것이.

103006 @ 흔 말도 아니고?

103006 # 두 돼 글민 쓸 흔 돼 나민 열 말 글민 쓸이 닷 말이라이.

103003 @ 응.

103003 # 경해도 그거 허난 먹는 거 경허고 그거 갈아도 비료 안 난 때는 수확이 얼마 안 나. 크질 못허난 먹질 못허난 우리 이제 저 어디 아이덜 굶어근에 몰르듯 그거라이 먹을 거 엇영 백이지 못허난. 백동산이 앓다근에 그 걸름 흔 방울 도새기 걸름 행 씨만 못허게 돌아나지 못허게 버물여당 앓당 허민 보리가 크질 못허는 거라이. 경헌디 이 비료 남 시작 허난 우리가 배부른 밥을 먹은 거라.

103006 @ 게난 줄보리허고 곁보리허고 또 무신거?

103006 # 이젠 곁보리 안허여, 슬오리.

103006 @ 아 슬오리. 아까 줄보리허고 슬오린 틀린 거?

103006 # 틀린 거. 쓸보리엔 현 거는이 장만허면 그건 장만허면 쓸ㄴ치 나와이.

103003 @ 아.

103003 # 쓸ㄴ치 나와근에 글아도 껍데기가 얼마 엇어, 그 슬보리엔 현 건.

103006 @ 옛날 글아난 말론 슬오리 아니?

103006 # 응, 슬오리.

103006 @ 옛날 글아난 말은 슬오리?

103006 # 옛날 글아난 말은 슬오리렌 허주만은 요즘은 쓸보리엔 허주만은 옛날은 슬오리, 그거는 서 말 글민 쓸이 두 말은 나와. 그건 껍데기가 알루난 얼마 아니난, 경허난 그건 슬오리고 또 줄보리는 두 돼 글아야 쓸 흔 말, 저 흔 돼 베피 안나오고, 또 그전이 우리 두린 때 현 건 곁보리엔 현 거는 두 돼 글양 쓸 흔돼 안 나.

103006 @ 게난 두 돼 가근에 뿌려신디 한 돼베피 안 나와?

103006 # 밧디 뿌리는 거는 흔 돼 뿌리면은 밧이 좋은 밧은 흔 돼 뿌령 놔두면 보리가 열 말도 나올 적, 닷 말도 나올 적허주만은, 우리는 흔 돼 뿌령 놔두면은 잘 허민 쓸 잘허민 보리 서 돼썸 나올 거여.

103006 @ 게난.

103006 # 서 말 뿌린 것이 서 말 뿌령 보리가 열 말 나오민 얼마나 나오는 거냐?

103006 @ 세 배.

103006 # 세 배베피 안 됩저.

103006 @ 세 배 흐끔 더.

103006 # 겨난 이 보리씨는 이 즘질지 아니기 때문에 씨가 많이 들어.



103006 @ 아.

103006 # 씨가 많이 들어, 겨난.

103006 @ 계난 두 웨를 빼어도 혼 웨베끼 안 난덴 현 말이파?

103006 # 아 계난 쓸 글면.

103006 @ 아 쌀을 갈면은?

103006 # 글면은 껍떡 베껴불면 두 웨 글민 혼 웨 베끼 안 나오는 거고 씨 뿌리는 건 우리가 씨를 닷 말이면 저 대승 멧 웨 웨는 거냐? 우린 여깃 말론 대승 녀 웨가 혼 말이거든.

103006 @ 대승 녀 웨가 혼 말?

103006 # 혼 말, 여기서는. 육지 사름덜은 대승으로 헤근에 열 개가 혼 말인디 우린 대승 두 웨해사 혼 말.

103006 @ 녀 웨가?

103006 # 녀 웨가 혼 말, 응.

103006 @ 계난 녀 웨 뿌리민?

103006 # 녀 웨.

103006 @ 혼 말 뿌리민.

103006 # 녀 웨허민 혼 말 아니?

103006 @ 예.

103006 # 겨난 이거 닷말이민 멧 웨 웅거냐고?

103006 @ 닷 말이민 오사 이십.

103006 # 닷 말이민 스무 웨, 스무 웨이.

103006 @ 응, 스무 웨.

103006 # 그거 뿌려근에 닷 말 뿌령 놔뒤도 보리가 갈민 스무 말이 안 나온다 이겨여, 스무 말이 안 나와. 궂인 밧디 현 거.

103006 @ 스무 말이 안 나와.

103006 # 스무 말이 안 나와.

103006 @ 닷 말 뿌령?

103006 # 닷 말 뿌령 같아도 스무 말이 안 나와.

103006 @ 스무 말이 안 나온다고.

103006 # 왜냐허믄 단순히 그 웨야지 질러난 도새기 걸름 혼 방울행 강 그거 뿌령 씨만 못 돌아나게 밧디 강 뿌리는 거지. 걸름을 엇이니까 사름도 먹어져야 저 저 술진는 거 아니? 겨난 먹을 것이 엇이난, 기운넬 것이 엇이난 보리가 나면은 요 만씩 헤듬서라 그냥 앗앙만 고장 패는 거지. 나 놓긴 헤도 크질 못허는 거라. 계난 보리가 수확이 얼마 안 나는 거라이. 뭘 말인지 알겠지?

103006 @ 알아지크라 예예.

103006 # 경허단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나가난에 어디서 강 비료를 구해와신디 비료를 해당 주난 비료 혼 포만 행 가민 보리씨 닷 말 간 거 싹 뿌령 놔두민 보리

가 이만큼 올라오는 거라이.

103006 @ 응 경혜근에 멧 말이나 나오는 거라?

103006 # 경허민 보리 미신 서른 말이민 두 섬. 혼 보리가 혼 가멩이에 열 말씩 들어근에 그것이 혼 열 가마니 나왔젠 말도 잇고.

103006 @ 응, 열 말씩.

103006 # 닷 말 간 것이 열 가마니.

103006 @ 열 가마니민.

103006 # 열 가마니민 어떻 뉘는 거라. 보리가 그 비료힘 시작허난 배 이상, 배가 미시거라이, 나오는 거라이. 단 보리 두 가멩이, 세 가멩이 나던 밧디 보리 열 가멩이가 나가민 어떻 나오는 거라이.

103007 @ 옛날에 할무니 보리밧도 블라나수과? 밧로 블라난?

103007 # 응.

103007 @ 믱쉬혜근에?

103007 # 믱시허는 거는 걸름 내어 내어냥.

103007 @ 응, 응.

103007 # 씨감자근에 헐 거.

103007 @ 그때 허는 거고?

103007 # 도야지 걸름 내어냥 그것에 씨 뿌령 막 블르민 우리 떡 달루듯이 달와지는 거라이, 이거 .

103007 @ 그건 믱시허고 그냥 보리밧은?

103007 # 보리밧은 안 블라.

103007 @ 안 블라?

103007 # 안 블라근에 보리 난 후제 혼 정월, 이월 나면은 보리 저 꼬작꼬작 대사기 전에 저 밧 둥근다고 밧 지피 블르렌 그거 흥쓸 블라난 거 그거.

103007 @ 아 그건 사름이 블르는 거?

103007 # 응 사름이 블라사.

103007 @ 근데 보리 영 싹 난거 블라블민 안 뉘 거 아니 예?

103007 # 계난 싹을 블라주는 거

103007 @ 싹을 발라야 뉘어?

103007 # 계난 대사기 전에

103007 @ 응

103007 # 부력 사기 전에 그 밧 든든히 부뜨라고

103007 @ 아

103007 # 밧이 든든이 부터주라고 저 이 제국시대 넘어가난 밧을이 고퉁으로 영골 쳐와근에 고퉁드레 씨 뿌려근에 보릴 간 거라이. 거민 요것이 고퉁이라이. 이거 이거추룩 요건 또 파니른 요 영헌 고퉁에 보리가 잇는 거라.

103007 @ 예.

.103007 # 사름덜 쪽 ㄱ치 상 일로 일로만 불르는 거라. 보리만 쭈욱. 그 전이 이저 제국시대 갈아근에 파니 둥그렁헌건 못 불르고.

103007 @ 아.

103007 # 게민 요걸 왜 불르느냐 허민 뿌리 돈돈히 부뜨렌 경행 블라주는 거 이거.

103007 @ 아.

103007 # 경허당 이젠 안 블라.

103007 @ 거난, 처음에는 씨, 저 보리씨 빨 때 걸름헌 거 그냥 영영 뺐 다음에 밧을 갈아신디, 나중엔 고랑 팡 거기다.

103007 # 또 좁아놔, 이젠 내중에는.

103007 @ 좁아놔? 나중에는?

103007 # 지금도 역시 지금은.

103007 @ 지금도 경혜?

103007 # 지금은 또 지금은이 걸름이 좋아노난 그냥 씨 뿌려근에 갡운기로 닥닥 닥닥 두드려.

103007 @ 미시걸로 두드려?

103007 # 갡운기로

103007 @ 경운기?

103007 # 이딘 보통 안 가난 거주. 저 대정쪽더레 가민 보리 갈아이. 지금도 잇당 툼툼이 보리 간 밧이 이서. 보릴 어떻 갈암넌허민 씨 작작 빼어놔 갡운기로 닥닥 두드려.

103007 @ 응.

103007 # 두드리민 기냥 보리 나가민 비료 삭삭 뿌려볼민 보리가 기냥 웬다 이거여.

103007 @ 어.

103007 # 이젠.

103007 @ 이제는.

103007 # 사름이 역아서 우리 옛날에 두린 때야, 두린 때 어리석을 때.

103007 @ 게난예.

103007 # 헤보멍 헤보멍 허는 거야. 이거 경허난 이 대정쪽더렌 가민 씨 작작 뿌리고 걸름 뿌리곡 헤나근에 비료 뿌리곡 씨 뿌리고 갡운기로 닥닥 갈앗당 보리 나민 또 비료도 허고 경혜민 보릴 헤먹는다. 옛날엔 어리석기가 그추룩 어리석게 살앗어.

103007 @ 몰란게, 몰란예. 넘허는 거 봐사 아는다.

103007 # 겨고 씨를 옛날엔 갈앙 뿌려놓면 비료가 엇어놓난 이 보리도 사름이나 곡석이나 먹어야 클 거 아니? 먹을 게, 빨아 먹을 게 엇이난 크질 못허는 거라. 그냥 앗땅 뿌리민 경허난 옛날 어른들 그 뉘야지 걸름. 뉘야지 걸름 허멍 도새기 질

룬 디 보리짚 앓다 놓고 바당에 가근에 저 바당 푸십새 해당 놓고 이제 그걸 도새  
기가 막 블르민 걸름이 썩는 거라이.

103003 @ 아까 바당 무신거?

103003 # 바당 듬북.

103003 @ 그거ㄴ라 뭐렌 굴아서? 푸신 ?

103003 # 요새 저 우리는 듬북, 듬북해도 또 요기말광 제주시 말광 틀려.

103003 @ 응, 틀려.

103007 # 제주시 가민 뭇망이엔 허메.

103007 @ 응, 뭇망.

103007 # 뭇망이엔 허고 이기 여기서는 듬북, 듬북.

103003 @ 아니 거난 듬북을 무신거엔 굴안게 만든? 푸신게? 바당에 푸신게?

103003 # 풀, 바당에 풀.

103003 @ 아까 뭐예 굴읍디가?

103003 # 바당에 풀이엔 현 건 듬북.

103003 @ 아. 갖다근에 걸름에?

103003 # 우린 푸십새엔도 허고 바당.

103003 @ 푸십새. 아까 계난 푸십새 무신거라 계난?

103003 # 바당풀이엔도 곤고, 푸십새엔도 곤고 여라가지라 바당에 것도이.

103003 @ 거나 똑 ㄴ튼 걸 블르민 거 마씨?

103003 # 응 바당 푸십새라도 해당 드리쳐야 걸름이 돼지, 옛날 어른들은.

103003 @ 아, 푸십새가 듬북 얘기하는 거?

103003 # 듬북 얘기.

103003 @ 아.

103003 # 거난 듬북이렌 말 미쳐 안 굴을 땀 아이고 거 바당에 푸십새라도 흐나  
썩 올른 거 봉가당 그리 드리치지.

103003 @ 어.

103003 # 영 곤는 거, 경 곤는 거.

103003 @ 그거는 듬북 말고 다른 것도 다 포함해서 곤는 말 아니고 듬북만 곤는  
말? 아니지예?

103003 # 다 포함해서.

103003 @ 다 포함해서 계난 바다풀을 다 포함해서 곤는 말?

103003 # 응 다 포함해서 푸십새.

103003 @ 푸십새.

103003 # 푸십새라도 해당근에 동시에 호쉴 들이민 그 보리짚 썩을 거 아냐?

103003 @ 응.

103003 # 옛날 어른들은, 옛날 어른들은 보리짚 썩어 안 썩어 현 마. 거 보리짚  
썩은 게 걸름이라이. 경허난에 그 듬북 나 곤듯이 듬북 해당 놓고 보리짚 해당 놓

고 문짝 보리짚 썩으면 그거 이제 마당더래 그걸 퍼다놔.

103003 @ 예.

103003 # 퍼다놔근에 막 불르민 우리 떡 달루듯이 달화지는 거주. 영 막 밀어정 달화정 허민 그것이 병텡이가 지는 거라이. 경허민 보리씨를 뿌려. 보리씨를 뿌려 놓면은 보리씨를 뿌려 또 불르고, 또 불르고 해놓민, 경허민 이것이 병텡이 저근에 우리 아저 텡김도 존 거, 게난.

103008 @ 보리밭디 할무니 검질은 매?

103008 # 검질은 매여.

103008 @ 어떻게, 언제쯤에 매는 거짜?

103008 # 검질 그거 흔 정월 구물어가민 매민 2월초77장 매어.

103008 @ 아, 막 추울 때?

103008 # 추워.

103008 @ 추울 때?

103008 # 눈 오랑.

103008 @ 손도 막.

103008 # 막 손도 실렵고 가민 과짜 정애가 사이.

103008 @ 응.

103008 # 우리 언 때 곳에 사근에 가민 불어져가민 물 잘잘 안허나? 듯날 아침이 바삭 노릇 썬 때 밧디 보민 이레 과재기 뭐 사잖아, 헤영헌 거 그거77라 정애산다, 정혜산다 허는 거라. 이디서는, 모관서는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정애가 과짜 샷저허 명 그거가 검질 매젠허민 장갑이 있나, 뭐가 있나. 요샌 방석도 깔앙 앓고 장갑도 찌고 헛주만은 장갑도 안 찌고 방석도 안 깔고 경허민 수건은 뒷에 요샌 저런 모저 잇잖아이. 수건 영행 씨근에 영도 안 써, 영행 썩 울로 강 졸라매근에 그 수건 쓰고.

103008 @ 맨손으로예.

103008 # 맨손으로 그 검질을 맏어. 경허명도 살앗네, 이젠 호강이야.

103009 @ 게난 보리밭 검질 매기 힘들지예, 막 축고 허난 힘들어시켜예?

103009 # 힘들어. 겨민 어떤 사름은 보리왓 검질 깨끗이 매고 어떤 사름은 흐끔 아니 맏다근에 드룻 누물이란 거 잇어. 그런 거나 느즉혜가민 그런 거나 캐고 또 보리왓디 보민 대우리엔 헌 거, 보리 닳은 거 이서. 그런 거나 강 뽑주. 어떤 사름은 검질 안 맏 내부는 사름도 이서. 경허민 보리 비영 보민 누물도 들고, 대우리도 들고.

103008 @ 응.

103008 # 깨끗이 매는 사름은 매고 얼곡게 그냥 매지 못허민 기냥 내부는 거.

103009 @ 보리밭디 하영 나는 검질은 대우리? 아까.

103009 # 대우리.

103009 @ 어.

103008 # 드룻 녹물.

103009 @ 드룻 녹물 두 가지가 제일 하영 나?

103009 # 두 가지가 제일 하. 경허민, 대우리는 검질 맬 때 잘 몰랑 못 매어. 보리나 대우리나 ㄱ따불민. 겨민 보리 비어가민 것도 ㄱ치 비민 땀 잘잘허멍 집이 강 문 뽑아.

103009 @무사?

103009 # 뽑아 베야지. 그건이 곶아지도 안 해여. 대우리엔 현 건 쫄랑쫄랑현 건 더 곶아지지도 안해여. 경현 때문에 그거 막 더워도 보리 필 때 강 문딱 뽑아, 이젠. 103008 @ 아.

103008 # 그거 뽑젠해도 힘들어, 옛날엔.

103008 @ 겨민 검질은 보리밭디 검질은 멧 번이나 매는 거?

103008 # 현 번.

103008 @ 아까 그 겨울에?

103008 # 현 번 매민 돼는 거.

103008 @ 아. 아까 대우리 뽑는 건 검질 매는 거 아니?

103008 # 그건 검질 맬 때 대우린지 보린지 몰라.

103008 @ 경허난 현 번 더?

103008 # 우리는 대우릴 알아근에 요건 대우리다, 요거 보리다, 요거 잘 베풀 매라 허민 아이들쫄은 가민 보리고 대우리고 몰라.

103008 @ 보리 뽑아 불어. 보리도 잇당 뽑아 불고 겨난 그걸 문딱 못 뽑주게. 그걸 이놈이 보리씨에다가 그 대우리 들어 놓민이 대우리 뽑음이 일이라. 더움은 무사 바람 더움광.

103008 @ 대우린 게난 멧 월에 뽑는 거짜?

103008 # 그건은 보리 핀 후제에 ㄱ치 피는 겨난 현 보리ㄱ슬이 오월들에 허젠 허민 스월들에 매여.

103008 @ 더울 때구나.

103008 # 대우리도 비어사 알양 뽑주.

103008 @ 어느게 보린지, 대우린지?

103008 # 보린지 대우린지 모르난 피어사 허는 때문에 경허난 보리보다 먼저 피엄시문 그 말쑈 피어, 이놈으 대우리라.

103008 @ 그문 대우리 뽑는 것까지 허문 두 번이네?

103008 # 두 번.

103008 @ 보리밭디 검질은 대우리 뽑는 거 허문 두 번예?

103010 @ 음, 게민 이제 보리가 다 익언예, 게민 이제 어떻헤사 돼어?

103010 # 익으민 비고.

103010 @ 미신걸로 강?

103010 # 호미로.

103010 @ 어떻 비어?

103010 # 아 호미로 굽어도 비곡 예휴. 보리 빌 때이 굽어도 비곡, 앳앙도 비곡, 우리ㄴ치 젊은 사름덜은 앳앙 비어가민 젊은 사름이 앳앙만 비업덴 헨. 우리 허리 아과근에 앳앙만 비주게. 경헤민 보리 비는 게 힘들어 호미로 굽어근에 지금 육지 나룩 비듯이 굽영만 비네이. 경헌디 우리 허리 아프민 앳앙 비어. 겨민 또고냥의 옷 이 문 혈어 앳앙만 비어 농난 방식이 시나, 뉘허나, 지금 호미덜 잇잖아. 호미로 그 자 영영 비어.

103010 @ 비영 그레 영 놆?

103010 # 경 낫당 날 좋면.

103010 @ 어떻 무꺼?

103010 # 모두와 농멍.

103010 @ 날 좋면 햇빛에 물러근에?

103010 # 햇빛에이. 나 곤건 들어. 햇빛에 보리를 요만 넓게 심어이. 요만은 넓게 심영 쪽 비어가민 일로 쪽허게 놆가. 코똥케. 이녁 빈 것만씩 쪽 놆가민 흐루 벳 나민 그걸 벳 마쳐근에 물리와. 물류민 영 요렇게 모되놓는 사름 딱로 잇고 무끄는 사름 딱로 잇어. 이녁냥으로 사름 엇인 사름은 이녁만 강 무끄곡 모두농멍 무끄주만은 수정이 여라이 신딘 보리 강 모두라, 무끄게. 헤영 확확 날 존 때 무꺼분 사름은 허고 경 안헌 사름은 적져농민 보리 나불당 보민 먹을 것도 엇어, 나불민 보리 나불민. 적정 나불민.

103010 @ 싹 나불민?

103010 # 싹 나불민 먹을 것 엇어. 겨난 그 마친 때 보리ㄴ슬 허기가 힘들어. 밤이 강 비오람직 허민 밤이 강 무경 져어도 무꺼근에 데며야 돼어. 나지 못허게. 경헌 때문에 쥬 보리ㄴ슬헨 때가 어려와. 조ㄴ슬 보담도. 조ㄴ슬헨 때는 날이 좋으난 확확 비영 조는 비멍 무꺼.

103010 @ 비멍 바로? 물리지 안헿?

103010 # 응, 물류지 안헿 비멍 바로 비멍 무꺼불고, 요눔이 보린 물류아사돼어, 물류아사.

103010 @ 경허당 비 와불민예.

103010 @ 경허당 비 마쳐농민 문 나불고, 이 보리는 나민 먹을 것이 엇어. 골 나 비어근에 바싹. 경헌 때문에 쥬 보리ㄴ슬헨이 어려와.

103010 @ 게민 아까 무신걸로 무꺼. 옛날에 끈도 엇고?

103010 # 아, 보리 이거이.

103010 @ 보리냥으로?

103010 # 보리남으로 영 코똥케 영 모다다 농민 이거 흐 줌 팍 심어근에 보리 고고리 영 데왕 탁허게 놆 영 벌이민 영 벌영 보리남텨이 영헿 영농민 그것에 언주민 틀어근에.

103010 @ 보리냥으로 그냥?

103010 # 응 그냥.

103010 @ 다른 거 뭐 헤다근에 허는 거 아니고? 보리남으로 그냥?

103010 # 아니 보리남으로.

103010 @ 보리남으로.

103010 # 보리남으로 그냥, 보리남 영 보리 영 그냥 이추룩 질주. 보리가 이만씩 지난.

103010 @ 예, 예.

103010 # 확 모다다 놓민 그거 흔 줌 심어근에 그걸로 영 고고리 영 두 번도 안 헤여, 흔 번 영 오그령 툭 뇌근에 영 별경 딱 무꺼비어.

103010 @ 게민 그거 물려냥 다 무끄민 그거 늘어사주예?

103010 # 응, 늘어야 돼.

103010 @ 어떻 늘어 그건?

103010 # 늘 때는 뱅허게 이거이 임시 재기 장만허젠 허는 사름은 기냥 툭툭툭툭 앓다근에 그자 쪽허게 이거 츠레로 이추룩 탁탁 데며이, 조근조근 조근조근.

103010 @ 누는 거 아니고?

103010 # 늘지 안행 데며근에. 비만 못 맞게 데명 우이 노람지 잇잖아.

103010 @ 예 예.

103010 # 노람지 모르지?

103010 @ 알아, 알아. 새로 짠 거.

103010 # 알아?

103010 @ 그걸 해당 더퍼?

103010 # 응.

103010 # 경허고 재기 못헤근에 아져오지나 못허민 밧 먼디 사름은 둥글랑허게 늘어이.

103010 @ 밧디서?

103010 # 응, 밧디서 둥글랑허게 늘어. 위에 노람지 더평 비 들게 말앗다근에 늡 다 행 천천히 바레기도 한글헤가고. 또 기계도 흐쉴 맞췌 메틀날 보리 뚜들겨주켜 허민 그뻘 시꺼오는 거라, 마차로 시꺼다근에. 그뻘 두드리는 거라, 기계 빌영.

103010 @ 아.

103010 # 그전이는이 클 헤뇌근에 보릴 영 흘타서이. 흘타근에 흘탕 뇌두민 기계로 오랑 두드리단 또 이젠 흐쉴 서가난 이젠 남차 두드리는 기계가 나온 거라이. 아, 그뻘 또 수월허는 거라.

103011 @ 계난예 클 이거 안헤도 되는 거?

103011 # 안헤도 그자 보리만 앓당 내불민 낭차 착착 메기명 흔 헤민 두드려 우리 열댓 가뻤이 스무 남은 가뻤이헌 건 그자 그저 멧 시간 확허민 그추룩 나와? 그전에 옛날 요런 것도 안 난 때는이 기계 안 난 때는.

103011 @ 거난 어떻 헤낫수과?



103011 # 클로 영영 홀타이.  
103011 @ 그 클을 무신거렌 곶아?  
103011 # 보리클, 보리클허메. 그런 거 요추룩 쉼돈은 거에 낱 보리 탁탁 홀타 홀트민 도깨로 두드렸네.  
103011 @ 도깨로?  
103011 # 응.  
103011 @뵈디서? 아님 집이 시경와?  
103011 # 집이 시경당 .  
103011 @마당에서?  
103011 # 마당에 헤영 그 마당질허젠 허민 땅 곳게, 고스민 못허여 게난 보리짚 이고 미시거고 듬뿍 낱앙 겨울에 땅을 못 곳게헤여이, 마당질허젠허민, 보리마당질 허젠허민.  
103010 @ 예.  
103010 # 땅 고사근에 부글부글헤불민 보리두드리민 문 흑이 들어가 거난 이 마 당에서 흑땅에서 보릴 두드리는 거여, 흑땅에서.  
103011 @ 뵈 안 낱아근에?  
103011 # 응 뵈 안 낱앙 흑땅에서 보릴 두드리젠허민 땅 고사불민 안된땡 듬뿍 검질을 낱아. 낱앙 눈이 와도 땅이 곳질 안헤여 그걸로이 뜻앙. 경헤나민 봄나민 싹 허게 그거 걷어근에 쉼어뒤근에 흑땅에 보릴 낱 두드리는 거여, 흑땅에, 흑땅에서. 도끼 알지? 이제 성읍리 가민 도깨 이서.  
103011 @ 예, 예, 도끼 알아. 처가뵈? 뵈 사름이 사근에 합니까?  
103011 # 식구 한 사름은 셋도 사고 넷도 사고 식구 엇인 사름은 혼자만도 허고 둘만도 허고 아이고 보리.  
103011 @ 여기서 두드리민 저기서 두드리고?  
103011 # 경헛주만은 마주 영 상헤신디 수정엇인 사름은 이녁 혼자만 두드리고, 돌아가뵈 뵈뵈  
103011 @ 아.  
103011 # 영 영 돌아가뵈 두드리고. 어렵게 살림 사는 거여 .  
103011 @ 게난 헤낭 뵈싸근에 또 두드리고?  
103011 # 경헤사 그 ㄴ스락 막 거꺼지도룩 ㄴ스락 거꺼지두룩 그 도깨로 두드리 는 거야.  
103011 @ 두드려나민 그거 보리낱 영 걷어부러?  
103011 # 보리낱은 기계로 홀트거든 이레 클에 낱 보리낱은 미룻 행 즐랑 데메불 고. 요 보리만 두드리는 거.  
103011 @ 고고리만 고고리만 두드리는 거?  
103011 # 알암신게, 고고리 두드리는 거.  
103012 @ 나도 이런 거 계속. 고고리만 두드리민 어뵈 뵈? 그 보리쌀만 털어지

는 거?

103012 # 보리쌀만 털어지는 거

103012 @ 고고리 영 다시 걸어볼어?

103012 # 케민 이제 강 브름, 브름 잇인 뎨 못 불리고 영 브름나는 거 보멍 브름 나는데 강 문 불려, ㄱ스락 ㄱ스락 딱 불려. 불리민 솔박으로 영 잘잘잘 불려, 불려 근에 ㄱ스락은 ㄱ스락만 보리쌀은 보리쌀만 헤낱 야 어떻게 어렵게 살았는지 그거 행 바삭 들리왕, 들리왕 또 쓸 내떡젠 허민 그거 또 보리는 물 적셔사 ㄱ네, 겁적 안 벗어.

103012 @ 물 적정 놔둬사헤여?

103012 # 물 적저근에 중간으로 우리 역은 후제에 이 저 기계가 낭 보리 가는 기계가 나왔주. 그전에는 몰ㄱ레, 몰ㄱ레 이제 성읍리도 가민 몰ㄱ레 나올 때도 잇어. 그것에 낱 알로 비치락으로 즐고 한가운데로 영 느림고 알로 우트레 올리곡 허멍 물 적저낱 그것에 멧 번사 둥그리는지 몰라이.

103012 @ 그 쉼, 아니 돌 이만이 큰돌 예? 놀령 예?

103012 # 이 펜으로 돌리 밀리곡, 저 펜으로 돌리 밀리곡 너이가 양펜으로 밀려사 그제 영 돌맹이가 돌아가멍 거 밀어정 곱아지는 거.

103012 @ 꺾데기 벗겨지는 거?

103012 # 응, 꺾데기 벗겨지는 거 영 돌아가멍. 일로 영행 영 밀리고 또 율로도 영 밀리민 양펜으로 너이가 밀리민 게벼와근에 뱅뱅뱅 돌아가는낱 그걸로 눌러지멍 꺾데기가 벗겨지는 거.

103012 @ 아. 케민 그거 저 흔 번만 헤민 다 벗겨져?

103012 # 흔 번만 헤민 벗겨지는데 다 못 벗겨. 또 두불 들리와근에 집이 오랑 그거 체 영 불리민 체 영 문딱 불려나거든. 불려나민 또 바삭 들령 딱시 강 물 버물영 또 곱아. 두불 곱아,

103012 @ 두불 곱아.

103012 # 두불 곱앙 오랑 들리우민 또 쓸을 어떻 벌령 먹느냐 허민 영영 들르는 거 잇잖아이.

103012 @ 거 무신거렌 곱아?

103012 # 정ㄱ레.

103012 @ 정ㄱ레에.

103012 # 정고레에서 영영 허민.

103012 @ 또 곱아?

103012 # 응, 곱아가민 쓸이 벌러지멍 나와. 경 벌러지민 나오주, 그냥 통. 요즘 은 기계에 강 ㄱ난 벌르지 안행 그냥 쓸이거든.

103012 @ 예.

103012 # 옛날엔 경 안헤민 못 먹어, 벌르지 안허민. 꺾데기가 잘 못 벗기난 거 민 밥헤근에 보리밥은 불 와랑와랑 습아가민 옛날엔 가마솥이라이. 그런 가마솥디

서 밥행 볶음혜가민 보리채가 바삭하게 부껴.

103012 @ 아. 채가?

103012 # 응, 채가 나와 또. 경해도 경 잘 베끼노렌해도 경해도 그걸 배부르게 못 먹네, 그 밥도.

103012 @ 게메예.

103012 # 아이고, 우리 어린 댐이 나가 혼 일곱 여덟 살똥 때가 제국시대라이. 제국시대에 이거 중간으로 곱으난했주 하나로 근젠허민 막 멀어 시간 멀어.

103012 @ 무슨 시간

103012 # 시간이 오래여, 하나로 근젠허면 우리 체암부터 살아온 말을 근젠 허민.

103012 @ 아니 보리헌 얘기만.

103012 # 보리 해난 얘긴 지금 헌 거.

103012 @ 옛날에 보리 해난 것도 그거 아니?

103012 # 옛날에 해난 거 옛날부터 허는 풍습이 그거.

103012 @ 게난예.

103012 @ 두린 때부터 해난 영 홀트는 기젠 어디서 강 봉가와신디 보리 비어오민 이걸 박박 탁하게 놔근에 영 등기민 고고리만 이레 고고리만 나오지, 나오지. 남뎡인 따로허민 그걸 도깨로 두드리는 거라. 마주상 이제 성읍리가민 잇잖아.

103012 @ 허영.

103012 # 그걸로 두드령 두드려근에 그 마스락 엇게 다 두드리젠 허민 막 잘도 오래여, 잘도 오래여.

103013 @ 그믐 보리로 또 밥도 헤먹고, 또 무신거 헤먹습니까?

103013 # 밥헤 먹고게 밥이나베끼 밥만 헤 먹주.

103013 @ 개역도 헤 먹지?

103013 # 개역 보끈 거.

103013 @ 개역헤 먹지예? 보리로

103013 # 개역도 다 알암신게

103013 @ 다 알주마썸게.

103013 # 경허난게.

103013 @ 나이가. 근디 어떻 옛날에 어떻해난지 모르주.

103013 # 어떻 해나명 말명 지금 근는 게 그거라.

103013 @ 개역은 나야 간식으로 먹엇주만은 할무니넨 그게 밥 아니?

103013 # 밥으로 먹고 것도 부자칩이나 강 보민 개역헤 낱 거 밥으로 먹질 안허고 그건 간식으로 먹어. 누게 여름에 막 더운 일 허다근에 요샌 냉장고나 잇주, 냉장고 엇어도 시원하게시리 개역 혼 사발 요거 먹어보라 허는 게 그제 인서. 그거지. 때로 먹으민 때로 먹주. 경 요새추룩 간식이 어디서?

103013 @ 게난예.

103013 # 땃밥도 제대로 배불게 못 먹엉 다닐 때난.

103013 @ 게난 보리로는 떡은 안허여?

103013 # 떡해도이 옛날 보리론 떡 못헤여.

103013 @ 떡은 못헤여?

103013 # 그 줄보리 난 후제는이 줄보리 난 후제는 그거 곶앙 등개떡 등개떡허명.

103013 @ 등개떡? 건 어떤 거짜?

103013 # 등개떡이엔 허멍 그거 작작 밀어근에 인절미 ㄱ튼 거 삭삭 베영 솟디서 확 솥앙 보리개역에 싹 무쳐, 보리개역 무쳐.

103013 @ 거난, 쌀도 보리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103013 # 보리ㄱ루 곶아.

103013 @ 보리 개역?

103013 # 무치는 건 보리 보까근에 ㄱ튼 거, 개역.

103013 @ 그개 등개떡?

103013 # 응 등개떡.

103013 @ 응. 그개 등개떡.

103013 # 경 등개떡 헤근에 솥아근에 내어보근에 그자 보리개역 삭삭하게 미치민 그것이 경 요샌 등개떡헤 먹으렌 허민 먹지도 안헤

103013 @보지도 안헤낫수다

103013 # 보도 안허고 헤봐도 먹지도 안헤, 요즘 그런 거 헤봐도 아이덜 헤놓민 밥도 헤봐근에 옛날 보리밥 먹당 보리밥 조밥 헤먹당 졸밥이나 졸밥 먹어가난 세 살난 애기가 그걸 안 보난 그 우리 옛날 헤먹어난 걸 안보난 좁쌀 놓고 보리쌀 놓고 밥을 허난 영 밥 웨리단 수꾸락으로 영영 이거 뭇 밥이냐? 엄마 이거 뭇밥, 뭇밥 ?흐 번 별미로 또 보리쌀에 좁쌀에 서건 밥을 허젠 허난 애기는 이뻐 밥 먹으렌 수꾸락 주난 영 웨려뵘 거멍허지, 수꾸락을 영영 케우리멍 엄마 이거 뭇 밥? 이거 뭇 밥? 허멍 수꾸락으로 영영 케우리려 부는 거라, 아이고.

103014 @ 게민 보리는 보리낭도 놔뵘당 쓰고.

103014 # 쓰고.

103014 @ 보리도 놔뵘당 쓰잖아 예?

103014 # 보리 나문 보리낭 헤뵘당 동시에 담앙 뵘당 걸로 걸름허는 게 나 ㄱ잖아.

103014 @예 아까 또?

103014 # 동시에 담앙 갓긱디 강 듬복 ㄱ튼 거 헤다 놓민 지둘르멍 그걸로 걸름을.

103014 @ 걸름헐 때 쓰고 또 아까 또 마당에도 깔고?

103014 # 마당에도 깔고.

103014 @ 또 뭇헐 때 씽니까? 보리낭은?

103014 # 보리낭 그거뿐이지, 뭐뭐 뭐헤멍 쓰나 마당에도 깎아근에 땅 갖게 말앙 마당에 깎아주는 거 또 통시들에 담아놔근에 그거 헤다낭 걸름허는 거, 그거 두 가지야.

103014 @ 거뿐?

103014 # 응.

103014 @ 불은 안 습아, 보리낭은?

103014 # 불도 습지. 불도 습지만은 이 걸름 모습젠허면은.

103014 @ 거기에 더 많이 써 예?

103014 # 그것이 이 다른 푸십새헤다 농민이 재기 썩지를 못헤이, 그거는.

103014 @ 아.

103014 # 이 보리남만이 재기 썩지를 못헤, 삭지를 안허여.

103014 @ 경허난.

103014 # 보리남은 놔근에 저디 강 바당에 가근에 듬북 저다 농민 재기 삭아이 . 삭고 이 드르에 강 풀 비어당 농민 삭지를 안허여. 고사리ㄴ튼 건 삭아이. 고사리는 삭주만은 고사리 아닌 풀은 삭지를 안허는 따문, 경허는 거야

103014 @ 그른 보리 흘타난 거예, 불리고 남은 그거 무신거?

103014 # 그건 ㄴ스락.

103014 @ ㄴ스락은 무신거 헤?

103014 # ㄴ스락은 옛날에 이런 방 때민 굴묵이엔 현 거 잇잖아이. 영 어디 그거.

103014 @ 굴묵 지드는 거?

103014 # 굴묵 지드는 거

103014 @ 그걸로 ㄴ시락 모아놏당?

103014 # ㄴ시락 모아놏당 그거.

103014 @ ㄴ시락은 뭐에 어디 모아놏뵈? 어디 담아?

103014 # 아니 그건 담지 안헤여. 그거는 나무 저 그차당 저 둥글락허게시리 박아이.

103014 @ 예.

103014 # 박앙 이젠 새로 영 줄비는 거라..

103014 @ 응.

103014 # 줄 비영 이제 엷는 거라 엷는 거 엷어.

103014 @ 아.

103014 # 이추룩 세와낭이 요축 세왕 뱅뱅 엷어 엷어, 엷어농민 그 안터레.

103014 @ ㄴ스락 담아놏?

103014 # ㄴ스락 담앙 영 옆디레 보리 남텡이 세와근에 놀아나지 못허게 영 세와가명 그 안터레 ㄴ스락 담아놏.

103014 @ 그건 일름이 뭐짜?

103014 # 그거 이름 무신거, ㄹ스락이민 ㄹ스락.  
103014 @ ㄹ스락 통 이런 건 엇어?  
103014 # 그런 건 엇어.  
103014 @ 무신거에 담으라 ㄹ시락 영 안허여?  
103014 # 안허여 저래 저 거시기 통 멘들양은에 ㄹ시락 담아놓라 영허주. 저 통  
멘드락 ㄹ스락 담아노라  
103014 @ 통은 어디다 멘들어놔?  
103014 # 그자 영 남은 아무 구석이나 담구석이라도 ㅎ쌀 영 트멍 난드레 영헌  
거 남 허당 딱딱 세와근에 줄로 영 얹어놔근에 옆드레 또 영 보리짬 세우멍.  
103014 @ 예.  
103014 # 세우멍 ㄹ스락 돌아나지 못허게 세우멍 그레 담아놔 노람지행 영 우로  
더평.  
103014 @ 위에 더경?  
103014 @ 더꿏당 옆으로 강 빼멍덜 불살랏주.  
103014 @ 그믐 아까 보리 물 ㄹ레에 강 곱아난 그 꺾테기는?  
103014 # 그건 도야지 주고.  
103014 @ 그건 일름 뭐라?  
103014 # 그건 보리채.  
103014 @ 보리채.  
103014 # 응, 도야지 주는 거, 보리채 도야지 주는 거.  
103014 @ 버리는 게 하나도 없구나, 다 써.  
103014 # 엇어.  
103014 @ 다 쓸 때가 잇어예.  
103014 # 다 써이 보리 남텡이는 동시에 담아놔당 썩영 걸름허고 보릿 ㄹ스락은  
영헌 어디 구석에 강 영 뱅허게 동글랑허게시리 만들양 담아놔당 곱목 살르고 보리  
쓸 내난 꺾테기는 뵤야지 주고.  
103014 @ 보리채예, 아까예.  
103014 # 응 보리채.  
103013 @ 어제 얘기할 때 보리채하고 물 ㄹ레나 정 ㄹ레 곱아난 보리 가루 그거  
무신 거옐 곱안게 만든.  
103013 # 그건 그냥 보릿 ㄹ루옐 곱아. 보릿 ㄹ루  
103013 @ 보릿 ㄹ루옐 곱라? 보릿 ㄹ루는 그걸로 뵤행 먹어?  
103013 # 그건 그걸로이 엇인 때난 그거 잘 곱영 못 먹나. 범벅, 고구마 놓고헤  
근에 범벅, 범벅.  
103013 @ 아. 그 보리 ㄹ루를?  
103013 # 응, ㄹ루를 막 또 줌진 체를 쳐. 줌진 체로 쳐낭 꺾테기는 뵤지 주고.  
내불 거 엇어. 뵤지 주고. ㄹ루는 허민 고구마에 놔 범벅도 행 먹고, 못 솟은 거 잇

잖아아, 못.

103013 @ 못, 못.

103013 # 이젠 못 엇어 옛날 드르에 못 좃어당 삶앙 그것에서 또 버무령 범벅헿 먹어. 우리 굽을 때난 경헿 먹영 살앗어. 범벅을 헤 먹영 그런 거 헤먹고 내불 거 벨로 엇어.

103014 @ 보린 다 씨예.

103014 # 다 쓸모 이서, 아무것도 쓸모 이서, 조도 불려나민 조칩은 쉼주고 쓸 내냥 쓸 꺾테긴 웨야지 주고, 쓸은 우리가 먹고.

103015 @ 게민 보리, 보리농사 지으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옛날에 헿난 거 중에 보리헿 때 힘들어난 거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엇수과?

103015 # 힘드는 거, 보리갈 때, 우리 어릴 때 보리갈 땀 아까 말헿지 이 걸름 내고.

103015 @ 그게 제일 힘들어?

103015 # 쉼 힘들어. 걸름 내영 이녁신디 소도 몰도 엇이민 늬이 쉼 가근에 빌어와사 그 걸름을 막 불려. 이 집 짓영 흑질 허는 거 봐신가?

103015 @ 예, 예.

103015 # 믱쉬헿다근에 흑 다리는 거, 똑 그 녀시라 그 흑 불르는 거 봤지, 믱쉬덜허당 그 녀시라 걸름 불르는 것도이.

103015 @ 걸름허는것도예?

103015 # 응 걸름 불리는 것도 그와 똑 마찬가지로 틀리지 아녀. 걸름 막 내냥 그 걸로 헿 블라가민 씨부령 또 불르고 씨 뿌령 또 불르고 헿냥 끈작끈작 블라지민 웨싸냐, 쉼스랑으로 웨싸냥.

103015 @ 그게 너무 힘들엇지예?

103015 # 응 또 웨싸냥 또 소로 불랑허민 우리 떡 달룬 거 모양으로 끈작끈작허거든. 씨가 안 들어나게. 끈작끈작허민 그땀 이제 그걸 다 모다나 혼 밧디로 수랑허게 모다났당 그 멧탱이 그 옛날 돛걸름착, 돛걸름착허멍 멧탱이가 즐망즐망허게 즐아이. 게민 그거 빌어다근에 바레기 이신 사름은 바레기로 시꺼가고 소 잇는 사름은 소로 시꺼. 우린 소 몰도 엇이난 등때기로 지어, 지영 밧디 지어다 농멍 보리 간 거라, 그게 쉼 힘들언.

103015 @ 쉼 힘들언. 아까 바레긴 무신거?

103015 # 몰 바레기라고 지금 거 실건디 텔레비에 나오는다.

103015 @ 구르마?

103015 # 구르마

103015 @ 아. 바레기가 구르마 구르마.

103015 # 일본말이라 바레긴.

103014 @ 아.

103014 # 구르마는 우리 한국말이고 바레기는 일본말이라.

103014 @ 기구나.

103014 # 이거 일본서 바레기, 바레기 해나난 우리가 바레기. 그 일본시대에 살 아나부난, 그 소리가 나온 거주, 구르마.

103015 @ 할무니 그리고 아까 보리, 발로 블라주젠 허민 정에 산덴 해수게?

103015 # 응 정에 사.

103015 @ 정애는 얼음처럼 되는 거?

103015 # 얼음처럼 땅이 비 오라난 땀 바짝 밤이 추우민 얼음ㄴ치 과짝허게 사 메.

103015 @ 성애를 얘기하는 것구나.

103015 # 과짝허게 사면 그것이 뱃 나가문 그것이 질질질 녹아이. 녹으민 흑이 찢득찢득 띠어정.

103015 @ 그리고 할무니 보리 저 무꾼 거 흔 못, 두 못 헉니께?

103015 # 흔 못, 두 못.

103015 @ 그거를 췌에 시꺼근에 허민 흔 밧디 허민 멧 못이 흔 바리파?

103015 # 보리는 스무 단이 흔 바리라이.

103015 @ 스무 단이 흔 바리?

103015 # 응 조는 여섯 단이 흔 바리고.

103015 @ 조는 여섯 단이 흔 바리고.

103015 # 여섯단이 흔 바리고.

103015 @ 그른, 흔 바리는 췌가 흔 번 시끄는 게 흔 바리지예? 이쪽에 열 개 이쪽에 열 개 그게 흔 바리?

103015 # 그게 흔 바리 조는 췌에 시끄면 요쪽에 석 단, 요쪽에 석 단 그게 흔 바리.

103015 @ 그것베피 못 시꺼?

103015 # 응 그게 베피 못 시꺼. 그거 흔 바리라 출은 서른 단 시끄고.

103015 @ 출은 서른 단?

103015 # 응, 출은 서른 단 시꺼. 그게 흔 바리라 출은 무슨 즐지 안허나, 요만씩 그건 서른 단 시꺼.

### 조농사

103016 @ 이번에는 조 헐 거라예. 보리 다 걷어나민 조 헤사주예?

103016 # 응.

103016 @ 조 허젠 허민 조 미리 준비헤야 되는 거 뭐파?

103016 # 조씨는 얼마 안들어, 미릿 준비허는 건 씨베피 안 들어. 미릿 준비헷당 밧 갈아근에게 요즘은 경 불리지 안헷주. 이 믱쉬덜이 들 열 개씩 열다섯 개씩 막 불려. 초불 막 다려낭 그 우터레 또 씨뿌렁 줍씨는 얼마 안들어 흔 천 평쯤 허민 흔 뒤쯤 줍씨는 흔 뒤 막 즐잖아.



103016 @ 맞아.

103016 # 흔 돼 쫘 허민 천평 뿌리당도 남아. 경허민 그거 뿌려근에 허민 그거 뿌령 또 그걸 막 ㅁ쉬로 다려. 이젠 안 다령 영 쫘음만 헤도 돼는 걸 어리석게끔 했지이.

103018 @ 옛날 땅이 안 좋아 나난 경헌 거 아니?

103018 # 어떻게 헤신디 경허난 그 ㅁ쉴 들젠허민 앞이 딱 ㅁ쉬덜이 다 알아, 앞에 사름 ㅎ나 딱 사민 그사름 영 담 엠에 강 영 돌아오라 가민 들도 ㅁ치 돌아 사름광. 겨민 또고냥에 들리가 사, 들 열 개가 허면 또고냥에 들어사 옆에 ‘어러러러’ 소리가 들 모는 소리, ‘어러러러’ 영 헤가민 쫘허게 앞에 산 사름 조름에 쫘 가메. 이끄지 안헤도 가메. 들이 올로 흔 사름 사고 올로 흔 사름 어러러허민 기자 일로 앞으로 가근에 영 담 엠으로 강 돌아가민 똑 두 사름 조름에 다 돌아, 이거 말 모 른 중생이라도? 따라.

103017 @ 조밭디도 걸름 허여?

103017 # 조밭디도 이젠 비료 뿌리메.

103017 @ 그건 이제고 옛날엔?

103017 # 옛날엔 헐 거 엇어, 비료가 잇나 뭐 얼마 엇어.

103017 @ 게난예. 조밭엔 걸름 안헤여예.

103019 @ 조는 허젠 허민 멧 월달쫘에 허는 거짜? 씨 뿌리는 게?

103019 # 씨부려근에 허는 거는 유월절, 음력 유월도 돼고, 오월들도 돼고 절기 보멍 허는 거. 절기 들어오는 거 보멍. 유월절이 유월에 들영은 유월 유월초에 조를 불리고 또 오월들에 들영은 오월에 허고 경허메. 게난 이 유월 유월절이 유월달 나 야 들주 오월달에 들진 안허여, 게도 오월 초에, 그름에 들 때가 이서.

103019 @ 예

103019 # 게민 오월 그름에 농서가 다 ㅁ쉴 때가 이서. 유월절 냉기지 안 헤.

103019 @ 유월절은 음력으로 며칠?

103019 # 음력으로 유월에 들 때 잇고, 오월에 들 때 잇고 헤여 이거 유월절은 들고나고 허는 때문에 몰라.

103019 @ 게민, 유월절 돼민 준비허는 거?

103019 # 오월달에

103019 @ 오월달에 보리헝 유월달 들민 그때 조 뿌리는 거? 조씨?

103019 # 이 철에 따라서 보리 ㅁ슬도 오월들에 헐 때 잇고 또 철이 일르면은 이 건 양력으로 세지 못헤, 음력으로 베끼 응, 게난 음력으로 철이 일르면은 스월 그름 어가민 보리가 ㅁ슬이 거저 돼고 ㄴ으면은 또 오월들에 보리가 헤여이. 보리ㅁ슬헤 텡 진작에 허민 영방 유월절이 유월들에 들 때가 잇고 오월들에 들 때가 이서. 게 민 오월들 들때는 소월들에 보리고슬이 드는 거라이. 겨민, 스월달에 헤텡 오월들 나민 농서를 다헤. 또 유월들에 유월절이 들게 돼민 보리ㅁ슬이 ㄴ어지는 거라. 오 월들 나는 거라이, 게민 오월달에 보리ㅁ슬 헤텡 유월에 농서를 다허는 거.

103019 @ 거난 일단 조허젠 허민 그때 보리헤난 다음에 조허는 거예?

103019 # 응, 조 불리는 거.

103019 @ 계민 줍씨는 막 줍진 거난 영 아무나 빠민 혼 군데 막 헤불지 안허여?

103019 # 계난 아무나 못 빠어, 줍씨는. 영 빠는 거 보민 영 그자 영영 뿌리는 거 아니라 영 심영 영 돌리면은 이 손이 영허질 안행 영 돌아가메. 영 줍씨 혼 줍 심영 영허민 일로 저만씩 막 뿌려. 경행 어떤 사름은 줍씨 벨 줄 몰랑 영 영 헤불 민 가는디 무드록.

103019 @ 계난.

103019 # 안 가는 디 안 가고 경헌 때문에 줍씨 빠는 사름은 영 گل렁 헤여. 잘 빠는 사름은 혼 줍 심어근에 확 영허민 이 손이 영 돌아가. 기운 내영 확 뿌리멍 영허민 줍씨가 절로 이레끼장 막 불려오라.

103019 @ 계민 줍씨 흐끔 빠어 도라행 누구 사름 빌영 헤?

103019 # 응 남저들 빌어.

103019 @ 아.

103019 # 건디, 우리도 줍씨를 뿌려방 ‘줍씨를 어떻 뿌릅니까?’ 허민 줍씨를 영 심으렌헤여, 심어근에 ‘나 뿌리는 거 보라이’ 영헤여, 그 어른들이. 나 뿌리는 거 보라이 영헤근에 기운내영 확 영 돌르민 ‘나 허듯 헤보라’ 행 헤보민 헤지긴 헤 것도.

103019 @ 어.

103019 # 이젠 못허주. 젊은 때는 힘이 시난 앗앙 확 영 둘러불민 줍씨가 삭허게 나가. 볼끈 심어불민 안웨고.

103019 @ 계메.

103019 # 흘레기 줍씨 영, 흘레기 심영 영허민 그자 요 손 거림으로 삭 나가.

103019 @ 보통 그 씨 잘 빠는 사름덜은 남자 어른덜이파?

103019 # 남저 어른덜.

103019 @ 여자 어른덜 아니고?

103019 # 아니 여저도 빠긴 빠주만은 여저 빠는 건이 어떻행 잘 못 빠는 사름들이 이서 여저덜은.

103019 @ 힘이 잇어야 돼는구나예?

103019 # 응, 힘이 이서사.

103019 @ 멀리까지예.

103019 # 응 멀리 빠젠허민 영 줍씨 영 심영 이걸 볼끈 심지 안행 흐쉴 흘레기 심으민 이 고평으로 줍씨가 나오거든, 기운내 확 뿌리민. 경허민 일로 저만은 뿌려져

103019 @ 씨 뿌리는 사름고라 굳는 말 이수과?

103019 # 아니, 엇어.

103019 @ 엇어.

103019 # 씨뿌리는 사름ㄴ라

103019 @ 뭐 씨와치 그런말 안해?

103019 # 아니.

103019 @ 안해난 예?

103019 # 그런 말은 안하고 기자 씨앗이렌 헌 건 우리 줍시키고, 보리씨고 아정 텅 이는 거 씨앗이주, 그런거.

103019 @ 아니, 씨와치?

103019 # 아니.

103019 @그런말 안써예?

103019 # 씨와치렌 헌 말은 엇어.

103021 @그럼 조밭디 검질은 어떻 맵니까?

103021 # 검질은 초불 매고.

103021 @ 뭣 번이나 매어?

103021 # 두 번.

103021 @ 초불은 어떻?

103021 # 초불은이 조가 나근에 요만이만 켕, 요만이만 크민 조가 켕 씨 뿌려도 흔 바위 두 개 세 개 막 줍게 갓주. 검질 탁 영 심으민 요디 조남텅이 하나 요디 조남텅이 낡 영 매비어.

103021 @ 나머진 다 매부러?

103021 # 나머진 다 매어. 경허민 영 줍 줍게 영허민 씨가 좇이민 고고리가 즐 아이. 겨민 영 심어근에 검질 확 심영 박 잡아당겨불민 요디 하나 요디 하나 이서. 경해불민 하나 하나만 성 두 개, 세 개 포 세우지만 말민 조고리가 피어가민 훑어. 고고리가.

103021 @ 응.

103021 # 경 안행 줄바로 안 맵 아까와근에 요만씩 요만씩 맵 내분 사름은 헤가 민 요만씩베끼 안허여.

103021 @ 아.

103021 # 견디, 고고리 준게 왜 하영 안 나느냐허민 줄레가 하. 줄레엔 헌 거 여 물 못 든 거.

103021 @ 아. 줄레가 하.

103021 # 여물 못든 거ㄴ라 줄레, 줄레엔 허주게. 거난, 고고리가 즐민 그게 하고 이 고고리 영행 등그스름 허민 고고리가 나민 이만큼씩 줄랑줄랑허여. 겨민 그것엔 이 경 줄레가.

103021 @ 줄레가 엇어.

103021 # 하지 안허여. 경헌 때문에 검질을 매젠허민 씨 드물게 세우라, 씨 드물 게 세우라.

103021 @ 드물게 세우라.

103021 # 응, 드물게 세우라. 포 사게 말라.

103021 @ 포 사게 말라? 포 사는 건 뭐?

103021# 포 사는 건 씨 영 두 개 부튼 거 내부는 거.

103021 @ 포 사게 말앙.

103021 # 포 지게 말라고, 겨난. 경 검질을 매는 거 그거. 경허민 초불 땀 땀 요만씩 똑 요만이헌 때 강 매여이. 지러기 요만이헌 때 강 매영 딱 혼 십오일만 이서 가민 조가 요만이 높아가. 어이에 커비어. 십어오일만, 검질 매영 십오일만, 게민 요만이 헤가민 또 두 불 강 매민 탁 올라사 불민 검질 못 매, 따신. 두 불도 부지런히 매사 두 불 매주. 경 안허민 두 불도 못 매여. 여름 뜻아노난 재기 커불어.

103021 @ 금방 커불어.

103021 # 금방 금방. 게민 두 번만 매민 따신 안 매도 뉘.

103021 @ 조 빼어나근에 비 하영 와불민 어떻게?

103021 # 비 하영 오랑 꺾어온 맞되는 꺾영 엇이민 조가 요만씩 커가민 그거 매당 또 싱경 그 트멍드레 싱그는 사이 비 하영 온 때 꺾어부는 맞이 이서. 줍씨 꺾어 불영. 게민 조 나민 또 매당 그레 싱거.

103021 @ 응.

103021 # 싱그멍 헤떡엇어. 싱그지 안허민게 비어부난게 작 꺾어불민게 겨난 그 트멍드레 허당 싱거 또 매멍덜.

103028 @ 막 마가지 헤산다 마가지 헤산다 허던데 마가지는 뭐?

103028 # 마가지가 아니고 마걸이.

103028 @ 아, 그건 무신거?

103028 # 마 걸어갈 때 큰비가 혼변 와, 와당탕 와당탕 베락 천둥허민 요즘 그런 비 엇어. 마거지 비가 엇어. 옛날엔이 마가 치민 오월 장마엔 헤근에 오월들 나가민 마가 짐 시작허민 똑 혼 들을 치는 거라, 장마. 게난 옛날 어른덜 곤는 거 들어이, 나 곤는 말. 미신 저 왯웁이렌 현 건 안개라이.

103028 @ 예

103028 # 그거 일레, 산산이엔 현 건 ㄱ랑비 존존허게 오는 비, 그거 일레.

103028 @ 응.

103028 # 쉼이시엔 현건 요새 오는 훙은 비, 큰 비 오잖아.

103028 @ 응.

103028 # 그것이 일레. 울렁쉬엔 현 건 바당이 울렁울렁허는 거, 그것이 일레라이.

103028 @ 응.

103028 # 그거 일레 경허민 일뤼, 일뤼 두 일뤼 허당보민 혼덜이 뉘다 이거여.

103028 @ 응, 맞아.

103028 # 게민 혼 덜 뉘민 마가 걸나 이거라. 마 걸젠 허민 베락 천둥허멍 와당탕 와당탕허멍 비가 온다 이거여.

103028 @ 응.

103028 # 경행 천둥해 가민 마견이 천둥햐저, 마견이 천둥햐저.  
103028 @ 마견이 천둥햐저?  
103028 # 옛날 할망덜 계난 야 왁웁인 뉘파 허민 우리 두린 때 왁웁이가 뉘파 허민 안개비 쥌쥌헌 비, 비도 아니고 안개만 확확 지는 거, 그것이.  
103028 @ 왁웁이?  
103028 # 응 왁웁이. 또 산산이는 뉘파 허민?  
103028 @ 산산이.  
103028 # 쥌쥌헌 비.  
103028 @ 가랑비.  
103028 # 응, 가랑비ㄴ라 산산이.  
103028 @ 응.  
103028 # 쉐이쉬엔 현 건 훑은 비.  
103028 @ 훑은 비.  
103028 # 응, 다락다락 오는 거. 그거 쉐이쉬.  
103028 @ 울렁쉬는 천둥?  
103028 # 울렁쉬는 바당에서 울렁울렁.  
103028 @ 아, 바당에서 절이 울렁울렁허는 거?  
103028 # 울렁울렁허는 거, 건들마.  
103028 @ 브름 불어근에?  
103028 # 응, 브름 불명 절만 울렁울렁허민 그거 울렁쉬. 또.  
103028 @ 이게 다해야 마가 걷는 거?  
103028 # 응, 또 건들마가 이서이.  
103028 @ 그건 뉘파?  
103028 # 건들마엔 현 건 마브름 불명 이 구름이 팔팔팔팔 느는 거.  
103028 @ 마브름 불명?  
103028 # 마브름 불명 구름이 팔팔팔팔 느는 거. 경혜사 마가 다 건너 이거여.  
103028 @ 아.  
103028 # 옛날 어른덜 곤는 게 요거 다섯가지 혜사.  
103028 @ 다섯 개 건들마까지 혜야 마가 다 걷는다고?  
103028 # 응, 경혜사 마견이가. 이젠 마 다 걷엇저.  
103028 @ 다섯 개 순서대로 다예?  
103028 # 응, 우리도 어린때 막 이걸 들어봘어, 할머니덜안티 ‘양 왁웁이가 뉘파?’ 허민 ‘안개비가 왁웁이지. 안개 팍허게 지는 게 왁웁이라’. 계민 ‘양 계민 산산이는 뉘?’허민, ‘산산이 쥌진 비 오는 것이 산산이주게’, 영허명 ‘허주게’ 영허명 또 옥허는 사름은 옥허여. 걸 몰람서 허명.  
103028 @ 몰람덴예.  
103028 # 경허민 ‘쌨이쉬엔 현 건 뉘라?’ 허민 훑은 비 오는 거. 계민 울렁쉬는?

‘바당에서 절소리가 울렁울렁나잖아’, 경허명 또 옥듣고 경허당 또 ‘건들마 왁저’ 허민 ‘건들마가 뭐짜?’ 허민 ‘에고 이놈으 새끼덜’ 옛날 할망덜 ‘아이고 이놈으 새끼 고자 것도 몰라?’ 영허민 ‘몰르난 들엄수께’ 영허민. 브름, 마브름 거칠거칠허명 구름 팍팍 누는 것이, 그것이 건들마 아니냐? 거각장 다 헤나사 이젠 마가 걷었다 요거 다섯 가지. 옛날 어른덜도 잘 지움은 지왔어이.

103028 @ 예, 이름 잘 지왔저.

103028 # 잘 지운 거라이. 겨난 나 막 웃어저.

103028 @ 진짜.

103028 # 옛날 어른덜도.

103028 @ 처음 들으멍, 할무니한티

103028 # 나도 두린 때는 그걸 막 우습게 생각헐당 고만히 헤보민 이것이.

103028 @ 맞아.

103028 # 맞구나, 옛날 어른덜 하여튼 어둠텐 헤도 공부 안허고 헤도 머리는 잘 썼어. 나 생각으로만 머리는 잘 썼어이 경 골아져, 안허지 안행.

103023 @ 아까 조 검질 다 맺고 이젠 조 다 익언예. 조 비레 간, 어떻게 비어사 돼어 이건?

103023 # 빔도 보리 비듯이 비어. 이건 틀리지 안헤여. 호미 아정 강 박박박박 비명 거문 기자 코똥코똥 놔.

103023 @ 경행 그디서 흙치 무꺼예? 미신걸로 무꺼 이건?

103023 # 조는 것도 그거라 조도 흔 줌.

103023 @ 아, 조남으로?

103023 # 조남 확 심어근에 조 ㄱ고리 뱅허게 돌랑 특벼근에 영 걷어치민 흔 단 이라이. 게민 무끄는 거 깨 따로 안허여.

103023 @ 깨 따로 안허여?

103023 # 응 조남뎡이로 무꺼.

103023 @ 베영 무경 그다음?

103023 # 조가이 아니 웬 밧디 이 동산밧디나 허민 조ㄱ고리가 요만씩헌 밧이 이서어. 경헌 밧딘 조 빌 나위 엇이민 영 뽑아. 게민 뽑아 놓민 조ㄱ고린 엇고 남뎡이 만 팍 퍼지는 거라. 경헌 건 무끌 나위 엇이민 새 비어다근에 깨.

103023 @ 아.

103023 # 새 비어당 깨 틀영 무꺼, 그거는. 게민 여물도 얼마 안 나 그건. 이 등 채기만 핫주 고고리도 요만씩헤부난 등채기가. 여물이 엇어

103023 @ 여물이 엇어.

103023 # 그런 거야, 조 좋은 밧디 기자 탁허게 깨 틀영 그걸로 확허게시리 그냥 무꺼.

103023 @ 무경 밧디 놀영 놔듭니까? 집이 시경 읍니까?

103023 # 아, 므쉬 엇영 시오지 못헌 사름은 임시라도 놀어, 비오카부덴

103023 @ 밧되서?

103023 # 응 밧이서 놀영. 임시라도 놀어야 경허당. 요즘은 경 안해도 옛날엔 짐벵이, 짐벵이 허멍이 겨울만 나가민 산으로 비가 자꾸 와, 주젯비가.

103023 @ 짐벵이?

103023 # 짐벵이라고 허여, 눈비 오는 것이.

103023 @ 아, 짐벵이가 눈 비오는 거 시월달에?

103023 # 응 시월들에. 요즘은 널모레 시월이라도 그런 거 엇어. 옛날 님지 안허영. 시월들만 나가민 눈 부청 눈도 반, 비도 반헤여, 그것이 짐벵이라이. 좌르륵 좌르륵 흥 주제 좌르륵 헤블민 그거 넘어갓당 또 맨도롱허게 벳 낫당 또 산더레 벵민 또 시커멍헌 구름이 올라와 가민 ‘아이고 또 짐벵이 느리켜’, 또 흥쓸 시민 눈에 부청 좌르륵허게 느리꼭 경허여. 비눈. 그게 짐벵이라. 경헌디 요즘은 그런 것이 엇어.

103023 @ 아, 경행 조를 다 밧되다 놀러 놔두는 거?

103023 # 경허다근에 그 비 흥 주제 와블민 젓으카부덴 데메근에 확허게 노람지로 돌렛당 시꺼오고 므쉬 신 사름덜은 그때그때 시꺼와 불고.

103023 @ 아 시꺼와 불고.

103023 # 므쉬 엇인 사름덜은 이녁냥으로 강 지어와사 텔 거난 미쳐 지어오지 못허민 밧이 멀곡허민 지어오지 못헛지. 요센 차도 잇고, 차 이시난 차로 확확 차로 멩겨불엄주. 옛날엔 걸영 막 멀리 걸어가근에 이디서 ㄱ뜨민 어디, 어디만이 걸어가코?

103023 @ 서귀포.

103023 # 아니, 아니 이디만이 ㄱ뜨민.

103023 @ 물영아리?

103023 # 아니, 아니. 물영아리ㄱ장은 안 간다. 농서 짓는 건 요 저 의귀리로 이알르게 이 해벤 사름은 의귀리로 알르레. 알르레 허고 경행 허주만은 경해도 멀어, 지영 멩기첸허민 우리 이 3리 사름은 멀어사 요 여우내로 이 알르레.

103023 @ 여우낸 어디?

103023 # 신흥 2리 저 위에. 그디가 여우내 신흥2리가.

101010 @ 이디 태흥린 옛날 이름 무싯거파?

101010 # 옛날 이름 이디 옛날 우리 두린 때 곧는말은 이디ㄱ라 덕독개.

101010 @ 덕독개?

101010 # 옛날엔 우리 두린 때 보난 덕독개, 덕독개 그 다음, 그 다음 또 흥쓸 우리 역안보난 이디ㄱ라 산것

101010 @ 산것?

101010 # 산것, 산것 헤낫어. 지금도 바당에 산것 바당이엔 이서 저디가. 겨난, 그 바당이름을 낵 산것. 겐디 이젠 태흥3리엔 지왓주만은 이젠 태흥3리야 이디가.

101010 @ 예, 이딘 태흥3리에?

101010 # 그디는 산것 그 전이는 덕독개 무싯 검은코지 허멍 헤낫주만은.

103023 @ 조 집이 정 오거나 시경 오민 집이서 이제?

103023 # 집이 와도 놀어.

103023 @ 집이 와도 놀어.

103023 # 미처 못허민 보리는 기계낵 영영 홀트주만은.

103023 @ 조는 어떻허여?

103024 # 조는 이제 베끗디 앳앙 명석 퍼와, 명석 퍼왕 앳앙 좇어. 고고리만, 고고리만 좇엉 호미 이렇게 블랑 앳앙 고고리만 꼬차냐. 영영. 영영 좇어 심엉 혼 줌 반뜩 요레 고고리만 오게 요레 남뎡이만 오게 행 호미 요디 낵 짹허게 그차근에 남뎡이 저레 놓고 이레 멩뎡이레 답아냐. 경 답아낵 비나 왓직 허민 안트레 집안트레 막 데멧당 날 좋민 막 두드려 것도 도깨로.

103024 @ 도깨로.

103024 # 응 마당에 낵 두드려 것도. 겨난 마당이 흑땅이라도이 이 곡석 낵 두드려 나민 이 흑이 뺨직뺨직해, 다려져.

103024 @ 세맨헌 것추룩.

103024 # 경혜영 허난 그디서 조도 두드려근에 흑 안 들엉 좋아 더덜더덜햐시민 못허여. 막 이 봄이나 가을이나 들엉 그 도깨로 막 도깨질허멍 이 땅을 두드려 놓난 땅이 뺨질뺨질헤여, 막. 경허난 조노 놉근에 땅에서 두드령 헤도 흑 안 들어가고 보리도 흑 안 들어가고 경허는 거여.

103024 @ 조도 도깨로 두드려. 마깨로도 두르립니까? 조는.

103024 # 마깨론 그거 허당 보민 할망덜 앳이민 도깨질 못허는 할망덜 앳앙 마깨질 행 또 독독 명석에 낵 영 두드리는 거. 쪼끔 젊은사름덜은 그거 경허젠 안헤여, 도깨로 마당 확확 췌어뎡 도깨로, 도깨로 두드리는 게 쉽고게.

103024 @ 금방 뵤고예.

103024 # 응, 금방 뵤어 것도 브름, 브름헤영 막 불려. 아이고 미시것도 헤떡젠허민 또 불려사. 붕뎡이여, 붕뎡이여 허멍 것도 채 나민 영긴채 도새기 주고 줌진 거 영 줌진 건 행 도새기 주고 영긴 건 췌 주고. 췌 쥐 조쩍도 췌 주고.

103025 @ 게민 줌쌀도 물방에 강 곱아야 뵤여?

103025 # 응 물방에 강 곱아야 헤여.

103025 @ 이건 물에 킷당 안허고?

103025 # 아니 아니. 건 물른 차 가근에 바싹 물령 강 그디서 초불 곱앙 저 초불이엔 헌 건 곱아근에 문 채 갈라뵤 또 경행 두 번차 낵 곱아불민 영 불령보민 생조가 하나토 옛이 췌만 나와이. 경 두불 ㄱ는 거라 이거. 초불 곱아근에 혼 번 곱앙

103025 @ 불령.

103025 # 불령 채에 불려뵤 게뵤 따시 두 번낵 곱민 채 문딱 벗어정 옛어. 경행이젠 하름방여 하름방여 허멍 정미소가 나난 곱아 떡주. 그 옛날엔 돌ㄱ레잇잖아, 저 성읍리 그것에서 곱앙.

103025 @ 돌ㄱ레 아니?



103025 # 그거 몰ㄴ래, 몰ㄴ래헤여.

103025 @ 몰ㄴ래는 집집마다 잇는 건 아니잖아예?

103025 # 아니, 아니랑 혼 부락에 혼나 두 개썸 놓민 나 먼저 강 글젠허민 아싯  
날강 누게 안 놓은 때 가근에 박세기에 조를 거리나 아무거라도 강 툃허게 그레냥  
어퍼, 어평 놔두민 간 츠레로 곺아.

103025 @ 아.

103025 # 간 츠레로 겨민 누게가 쉐 먼저 어퍼시넌 허민 가민 먼저 어픈 사름이  
먼저 곺아나민 그 뒤에 간 사름 그 뒤에 간 사름 경헤여.

103025 @ 그른 몰ㄴ래에 갈레 갈때는 뉘뉘 가정가? 곡석만 가정가민 뉘어?

103025 # 뉘 안 가정 가. 곡석허고 푸는체.

103025 @ 아 푸는체.

103025 # 영영 경헝 체 갈를 거.

103025 @ 거기서 헝 체 갈를 거?

103025 # 체 갈라사 두볼 ㄴ는 거 아냐.

103025 @ 체 갈르는 게 영영허는 거.

103025 # 영 보민 텔레비전 나잖아. 영영 푸는 거이, 영영 허는 거.

103025 @ 그계 체 갈르는 거?

103025 # 응, 그거 체 갈라뉘 초볼 곺앙 체 갈라뉘이네 또 두볼 ㄴ는 거.

103025 @ 그거 그디서 흙치 다 허는 거? 집이 왓당 허는 거 아니고?

103025 # 아니 집이 왓당 허는 거 아니고 이진 물 아이 드는 거난 그디서 다 흙  
치 곺앙 나오는 거.

103025 @ 혹시 뉘 몰ㄴ래에서 쓰는 비치락이나 이런 것도 이수과?

103025 # 비치락 지금도 이디 쓰는 거.

103025 @ 툃 ㄴ뉘 거?

103025 # 툃 ㄴ뉘 거.

103025 @ 그걸 혹시 ㄴ렛비차락 이렇게 안헤?

103025 # 안헤, 안헤. 이디 우리 산방 씨는 비치락 그자 그런 거 아정 강 영영  
썰어 올리고. 또 안목에 거 ㄴ립곡 허는 거 그거, 그 비치락은 틀리지 안헌 거.

103025 @ 틀리지 안헌 거예. 그거 사름으로도 밀리주만은 쉘나 몰로도 밀려?

103025 # 응, 몰도 앞으로 영 메와근에 몰로 등겨. 몰 이신 사름은 몰로 등기민  
사름 여라이 안이 가도 몰 혼나만 메우면 혼 돌리는 곺고 이 우리추륙 아무것도 엇  
인 사름은 서로 수눌어어. 너이가 수누는 거라. 혼 사름씩 혼 사름씩 너이가 허민  
일로 돌리 허민 일로 돌리 일로 돌리 헐사 걸 등기고 밀리곡 허주 경 안허민 못헤  
여 겨난 우리 ㄴ쉬 엇인 사름은 서로서로 수눌어.

103025 @ 아. 수눌어.

103025 # 수눌어근에 허곡 ㄴ쉬 신 사름은 쉘나 몰이나 이신 사름은 그 쉘 아정  
강 메와도 뉘고 몰 아정 강 메와도 뉘고.

103025 @ 계민 조는 그디 강 저 두불헤근에 곶앙 오민?  
103025 # 흙치 곶앙 와.  
103025 @ 이디서 정그레로 안헤도 웨어?  
103025 # 안허는 거 거, 아무것도 파썩 물령 강 그디서 행 오민 끓이고.  
103025 @ 끓이라예.  
103025 # 보리는 물그레 강 두 번 곶아오고 이디서 또 정그레서 벌르곡 헤사 세 변을 헤사 먹는 거. 보리그추룩 막 공들어, 먹젠허민.  
103025 @ 계난예. 조가 경헤도 좀 쉽다예.  
103025 # 조가 쉬와.  
103026 @ 계민 조로는 무신거 무신거 행 먹는 거파?  
103026 # 조로 기자 밥이나 행먹고.  
103026 @ 밥도 행 먹고.  
103026 # 밥행 먹고, 옛날에 큰일 나민 물 컷다근에 저 물그레 강 곶앙 쓸 물컷 당 그루 내영 그루 내민 친떡 치는 거.  
103026 @ 아. 조로 친떡 치는 거?  
103026 # 풋 새에 놓멍, 친떡 옛날엔 그 친떡도 치젠허민이 집이서 시리에 행 쳐 요즘은 공장에강 빠 오람주만은 집이서 시리에 막 쳐. 경허민 어떤 집이 부저칩인 쓸 스무 말에치 헛다, 혼섬에치 혼섬은 열닷말그라 혼섬이라 혼 섬에치 헛져, 스무 말에치 헛져 헛다 옛날엔.  
103026 @ 조는 친떡 말고 따른 떡은 안헛니까?  
103026 # 다른 떡 안허여.  
103026 @ 보통 조는 친떡?  
103026 # 응, 친떡. 저 좁쌀 잇잖아, 좁쌀도이. 그건은 두 가지 헤여 오메기도 헤 먹고.  
103026 @ 아 차조.  
103026 # 응 차조는  
103026 @ 희린 조?  
103026 # 응 희린 조. 그거은 인절미도 헤먹고, 오메기도 영 동그려근에, 옛날에 술도 헤놓고 걸로.  
103026 @ 아 걸로 술도 허고?  
103026 # 응, 걸로 막걸리 만들어놓민 막걸리도 만들어 먹고 저 인절미도 헤먹고, 인절미도 싹 밀어근에 고루헤근에 싹허게 청 내놔근에 싹싹 밀민 풋쉬 미치민.  
103026 @ 풋쉬 미치민?  
103026 # 풋쉬 미치민 막 맞아서, 그거 그걸로 막걸리도 허고. 차조 차조허멍 그 걸로.  
103028 @ 조는 무신 종류 무신 종류 이신 거파? 좁쌀은  
103028 # 좁쌀 이름은 이서 이름은 이서도 다 그쁜 거 뭐 박애시리니 뭐 무시리

니 또 저.

103028 @ 개발시리.

103028 # 개발시리.

103028 @ 강돌와리? 엇어?

103028 # 강돌와리엔 현 말은 못 들었어. 그거는 우리 못 들은 그자.

103028 @ 개발시리 또?

103028 # 개발시리허고 무신 무시리 저 것그라 미신 조엔 오래부난 잊어비었저. 것도 두 가지라, 두 가진디 박애시리.

103028 @ 어떤 건 희린조고 어떤 건 모인조파?

103028 # 흐린조는이 요 콧쟁이가 까려. 노린조 콧쟁이가 가리고 검은조는 콧쟁이가 안 가려. 검은흐린조는 건 우리 그냥 평균조나 그트는디 노랑현 흐린조는 요 콧쟁이가 가릿가릿해여, 가려. 콧쟁이가 좁쌀이. 경허고 털이 복삭허고 조크구리에 다가 고고리에 털이 복삭허고 콧쟁이가 흐썰 가리와.

103028 @ 가리는 건 어떻게는 거?

103028 # 어떻게는 것산디 그 조가 가려, 흐린존디. 이 모인조는 가리는 거 엇고 흐린조 노랑현 건 콧쟁이가 가려, 터럭이 복삭허고.

103028 @ 터럭이 복삭해여.

103028 # 가리고 터럭이 복삭허고. 검은 흐린조는 그거 엇고 고고리가 꺼멍허고 그건. 알아져.

103028 @ 거른 모인조는?

103028 # 모인조는 그런 거 엇어, 그런거 엇어.

103028 @ 모인조는 이름이 엇어?

103028 # 이름이 백시리엔 현 건 콧쟁이 몽틀락현 거, 고고리가 몽클몽클현 건 요건 백시리.

103028 @ 건 모인조?

103028 # 모인조. 박애시리엔 현 건 고고리가 요만씩 쏠랑쏠랑현 거 대축고고리 모양으로 쏠랑쏠랑현 거. 그거 박애시리 그거.

103028 @ 그게 모인조 두 개가?

103028 # 응, 두 개가 모인조.

103028 @ 희린조가 좋은 거지예?

103028 # 희린조가게 좁쌀이니까.

103028 @ 차조난예?

103028 # 응, 차조난. 그걸 오메기도 해 먹고 술도 해놓고 막걸리 해놓고, 옛날엔 그걸로 막걸리나 술이나 해놓민 그렇게 맛있어. 이제도 차좁쌀로 막걸리 해 놓 거 그렇게 맛있 쟈 현다, 텔레비 보민.

103028 @게민 밧디 흐린조 잘웨는 밧이 잇고 안웨는 밧이?

103028 # 아 흐린조는이 아무 밧디나 안웨여. 건 밧이라야.

103028 @ 건 밭은 어떻게 거?

103028 # 밭이 좋은디.

103028 @ 아, 좋은 밭에.

103028 # 땅도 들고 좋은 밭디 이젠이 비료 나부난 좋은 밭 굿은 밭 엇어. 비료 만허민 뒤 자갈밭이라도 앓당 들이치민 코똥허여. 옛날엔 자갈밭디 그런 딴 안 뉘여, 조가. 땅 든 디라사.

103028 @ 땅 든 디라사?

103028 # 가름밭, 가름밭허멍 이 걸름 하영 아저 뎅기고, 이 믰쉬 지르는 사름덜 쉘걸름 들걸름 하영 아저 뎅경 우жат디 쉘도 매고 들도 매놓민 쉘오쭈 들오쭈이 건 거라이. 경헤난디 우жат디만 그런디만 그 흐린조는 불려. 잘 밭 나무령 잘 안뉘는 따 문에.

103028 @ 거난 안 좋은 밭디 모인조 허는 거구나예?

103028 # 안 좋은 밭디는 모인조, 좋은 밭디는 흐린조.

103028 @ 오, 아까 조도, 조 혈 때 할무니, 보리혈 때추록 힘든 게 무신거라 조 는?

103028 # 조는이 보리혈 때ㄴ치 힘들어 뉘지 안허여. 날이 건더러워니까. 박박 비어근에 그자 건 비 무꺼. 몰르지 안헤도 비 무꺼근영에 그자 앓아오지 못허민 탁 탁 데멧다근에 영 노람지 들럿당 트멍에 나는 대로 지어당 집이도 오민 재기허민, 못허민 곡석을 그 고고리를 못 툷으민 또 데메. 집이서도. 데명낫당 트멍에 혼 단씩 뉘으멍 트멍 나는 대로 툷아 이제, 그 고고리 툷음라이. 고고리만 요디 호미 요 발 로 불르곡 고고리 영영 좃어근에 좃영 딱 그창 고고리만 딱로 놓고 남텡인 남텡이 대로 딱로 놓고 그거.

103028 @ 그거 밭 불리는 게 흐끔 힘들어나신가?

103028 # 밭 불리는 게 힘들어.

103028 @ 조혈 뎅예?

103028 # 밭 불리는 거.

103028 @ 집이 쉘 엇이민예 또 예.

103028 # 늻의 믰쉬 문딱 빌어야허고

103028 @ 계난예.

103028 # 또 밭 불리는 딴 이녁 사름 엇이민 그디 강 도왕 들 또꼬냥에 상 몰아 주어사 허고.

103028 @ 거난 그게 조허는 딴 힘들다예.

103028 # 그것이 힘들어. 믰쉬 엇인 게 힘들어.

103028 @ 계난예.

103028 # 제일 힘든 게 믰쉬 엇인 거.

103028 @ 믰쉬 엇인 거예.

103028 # 제일 힘든 것도 보리갈 때 힘든 거, 걸름 내는 거 힘들어. 남저덜 헤영

남저덜도 잇고 소나 물이나 이신 사름은 허고, 소도 몰도 엇인 사름은 그거 문 퍼  
냉 늪이 쉼나 물이나 비나해사 그거 허곡 허젠 허민 그게 힘들어. 그거 문 골채로  
통시에 거 막 퍼내젠 허민 흐루 종일 퍼내. 아침 세백이부터 해영. 아이고 그것이  
힘들어.

103028 @ 그것이 힘들어예.

103028 # 요즘은 뉘야지도 집이서 안 질황 문 절로 농장으로 강 질파불고 집이서  
도새기 질루는 사름 엇어.

103028 @ 냄새 냥.

103028 # 요즘 막 이거 우리 고만이 앓아근에 밥을 영 출려놓민, 야 우리 이 밥  
먹는 게 엇날 임금덜 먹는 밥.

103028 @ 임금덜.

103028 # 응, 임금이나 먹주. 우리 쓸 혼 망울 구경해 보지 못허여.

103028 @ 계난예.

103028 # 나룩도 어디 시니? 이디서 그 산뒤 산뒤 나룩이엔 안행 산뒤엔 해근에  
여기서. 이 물에 가는 게 나룩이고 우린 물 엇인 디 돌 울레 강 영헌디 맨 땅에 강  
빠영 놔두민 그거허민 그것도 허민 나룩 닥지 안행 산뒤 붉은 게 하. 경허민 그거  
희게 멘들젠 허민 물그레에 가근에 혼 다섯 붉은 글아야 돼어. 경해사 해영케 만들  
야. 그 복대기 그 빨경헌 복대길 다 벳기젠 허민 그게 힘들어.

103028 @ 산뒤는 그게 힘들구나예.

103028 # 그게 힘들영이 해먹을 일 한 사름은 막 성가셔.

### 콩농사

103029 @ 콩은 허젠 허민 미룻 준비해야 되는 거 무신거?

103029 # 콩도 미룻 준비허는 거 엇어, 콩도. 콩이나 조나 미룻 준비허는 거 엇  
어. 씨만 행 놔두면 씨가 미룻 준비되는 거지. 무신 걸름을 허나 뭐허나 허지 안허  
여. 요즘은 비료가 이서부난 그자 콩 나민 비료만 뿌리민 되는 거난.

103029 @ 비료 엇일 때?

103029 # 비료 엇일 때도 그자 싱경만 내부는 거. 엇날에는 싱그지 안행 막 글아  
서어. 씨 작작 빼어근에 소로 영 같아. 같민 가근에 영 덩기다근에 콩 난 거 시민  
밭로 꼭꼭허게 쥘러. 경행 갈앙 내빳주만은 요즘은 콩 많이 허는 사름은 엇주만은  
싱거근에 심어 심어 꼭꼭허게. 저 대정쪽드레는 가민 콩을 씨 빼영 이제도 경운기  
로 글아. 이디서는 쪼끔쪼끔허는 거난에 콩잎 툫아 먹켜, 뭐허켜 허명 쪼끔 싱그는  
거지, 저 대정쪽드레 강 보민 콩이 혼 오천 평씩 막 글아이, 대정드레. 혼 삼천 평,  
오천 평 우리도 콩 거끄레 그전인 느랑 다넛주. 허리 아파 가난 콩 꺼끄레 못난.

103029 @ 이 동넨 경 하영은 안 허여?

103029 # 안허여, 이딘 안허여. 이 동넨 콩 가는 디 엇어. 이 동넨 죽으나사나 미  
깡만 해노난.

103029 @ 건 이제사 미깡냥 나난이고 미깡냥 나기 전이?

103029 # 나기 전인 이녁 먹을 거만씩 쪼끔쪼끔 헛주. 경 허지 안허여. 이녁 먹을 거만씩 빼영 쪼끔쪼끔 곁아근에 갠운기로 두드령 내불민 이제 저 대정더레 강보난 그자 혼 오친 평 허는 사름, 삼천 평 허는 사름허민 그 콩을 막 씨로 빼영 갠운기로 탁탁 두드령 내비어, 경행 내비어.

103030 @ 게른 경운기로 허기 전이 옛날 거 곁아취사 텔 거예.

103030 # 옛날 거는 기냥 씨 빼어, 이디서도 씨 비영 쉼로 영 곁아.

103030 @ 초근초근허게예. 콩은 언제허는 거파? 언제 뿌리는 거파?

103030 # 콩도 조광 ㄱ따이. 조광 ㄱ따. 유월절 전이만이 허민 뉘.

103030 @ 아, 유월절 전이.

103030 # 유월절전이.

103030 @ 보리 해낭.

103030 # 보리 해낭 곳에 보리 해낭 곳에. 그자 조 불릴 때 조팻 엠더레도 막 뿌리고 조팻 엠에도 뿌렷다근에 헤먹고 조빌 때 나민 ㄱ치 거꺼 먹고 그자 조 불릴 때 조 할때 흐쉴 문저만 갈민 뉘는 거, 이거 콩은.

103032 @ 게민 콩은 아까 옛날 해낭 식은, 빼영 곁아?

103032 # 응 빼영 곁아. 줍씨 빼듯 영 빼어.

103032 @ 응 경행.

103032 # 빼어근에 쉼로 곁아.

103032 @ 다시 흑 영 안 더꺼취도 뉘어?

103032 # 뉘여, 안 더꺼취도 뉘어.

103032 @ 아, 다 더꺼져.

103032 # 그냥 더꺼정 뉘어, 경허난 콩은 뉘 간단헤여 그거.

103031 @ 콩밭디도 걸름 헤사헤여?

103031 # 요즘은 비료 나난 비료허지.

103031 @ 옛날엔?

103031 # 옛날엔 비료 엇인 뉘 안헤여.

103031 @ 아무것도 안 헤여.

103031 # 안허민 콩 영허민 콩낭 하나에 콩 열 가지 콩 열 개씩은 돌아져. 콩각지 열 개씩은 돌아정 이서. 콩각지가 콩이 좇이 빼민 콩낭이 요만씩베끼 안허여, 경허난.

103031 @ 보통은 멧 개허민.

103031 # 겨민 콩 혼 말씩 가는 사름이 이서. 혼 말이민 너 뉘라이. 겨민 이녁 장콩베핀 안뉘. 풀 거 엇어, 이녁 장콩만.

103031 @ 뉘장허는 거?

103031 # 응 뉘장허는 거, 이녁 장콩허는 거. 요즘은 우린이 뉘장을 안허영 사 먹는다 옛날엔 다 이녁 집집만씩 장을 등강 먹어.

103032 @ 계난예 콩씨는 어떻 뺨니까?

103032 # 콩씨도 이거 이추록 좁씨 빼듯 영.

103032 @ 콩은 막 훑은디도?

103032 # 훑어도 겨민 열앙, 콩 혼 말 곱아. 혼 그것이 혼 혼 말 갈젠 허민 혼 보리씨 두 말지기 경 곱아. 이걸 빼어, 콩씨도 하영 들어. 두 말지기 갈젠 허민 콩 씨 혼 두 돼, 석 돼나 들어. 경 빼영 곱아, 겨민 그거 허민 요샌 비료 나노난 좁게 갈민 안 돼여. 비료가 나부난 옛날엔 막 좁게 곱아. 비료 엇어부난 건디 요샌 드물 게 갈지. 비료만 헤노민게 이만이 커부난 콩이 좇이 난디 열매가 안 열아.

103032 @ 너무 가까이 하면.

103032 # 응, 콩이 이만큼씩 드물어야 돼주. 요추록헤근에 비료나 헤노민 콩이 이만큼 커볼주. 열매가 안 돌아져, 겨난 콩은 드물어야.

103032 @ 드물어야.

103032 # 드문 드문허게 이서근에 비료나 헤노민 콩이. 겨고이 콩각지는 물 느리 렌 헤서이 콩이 마짓는 헤 비 좇은 헤는 콩이 잘 돼고.

103032 @ 비가?

103032 # 응 좇인 헤 콩은 잘 돼여, ㄱ문 헤에 콩은 안 돼여. 올리 콩 안 돼서 ㄱ물아부난.

103032 @ 아 여름에 ㄱ물아부난.

103032 # 콩이 여름을 못 들엇어.

103032 @ 아까 마 짓는다고 마씨?

103032 # 여름비가 많이 와줘야 콩은, 마!

103032 @ 마.

103032 # 마. 비 즈주 오민 마쳤덴 헤메. 경허난 콩에는 비가 좇이 와주면은 콩 이 잘 돼고 ㄱ물면은 콩이 안 돼여, 콩이 안 돼여.

103033 @ 콩밭디 검질은 어떻 뺨니까?

103033 # 콩밭디 검질은 혼 불 매민 돼여.

103033 @ 혼 불 언제 매는 거라?

103033 # 그건 콩이 뽀쪽뽀쪽 낭 혼 입, 두 입 나올 때 매불민 콩입 탁 더꺼져불 민 검질이 안 나, 콩입, 안 나.

103033 @ 거믄 콩밭디 검질은 혼 번만 매는 거구나예.

103033 # 응, 혼 번 매는 거.

103033 @ 아까 조팠디.

103033 # 건 두 불 매여.

103034 @ 조팠디 하영 나는 검질 이름은 뭐파?

103034 # 제완지.

103034 @ 제완지? 조팠디?

103034 # 응, 제완지 제일 하영 나.

103034 @ 또.

103034 # 그 다음 저 거시기 그것ㄴ라 무신 풀이엔 허느니.

103034 @ ㄴ라조?

103034 # ㄴ라조는 하영 안 나는다. 그 득풀.

103034 @ 득풀?

103034 # 영 마주헤져 가민 영 빨강헌 풀 이서. 그건 영 굵음만 허민 웨, 굵음만 허민.

103034 @ 제완지는 막 힘들어?

103034 # 제완지 막 힘들어. 그것도 씨 엇이 매민 허민허고 그거는 이제 하늬 나가민 막 줄 받으면 커볼주게 경헌 때문에 그걸 잘 매야 웨어.

103034 @ 콩밭디 검질은 게민?

103034 # 콩밭디 검질은 경 자주 안 매도 웨어. 혼 번만 매민 콩잎파리가 탁 더 퍼져.

103034 @ 콩밭디 거난 콩밭디 하영 나는 검질은 어떤 검질이 하영나 콩밭디?

103034 # 콩밭디 하영 나는 검질이나 조팍디 검질이나 꼭 ㄴ따.

103034 @ 둘다 여름에 매는 거난?

103034 # 응 여름에 거난 꼭 ㄴ든 검질 콩밭디엔 틀린 검질 안 나.

103034 @ 똑 ㄴ든 거.

103034 # 똑 ㄴ든 검질.

103034 @ 아까 제완지도 혹시 밑에 흐끔 별경헌 제완지도 잇고 그냥 허영헌 제완지도 이수과?

103034 # 별경헌 제완지는 모혜제완지라고이.

103034 @ 무신거?

103034 # 모혜제완지.

103034 @ 모혜제완지.

103034 # 모혜제완지라고 줄이 질게 안 받아, 우트레만 꾸짝 올라, 매기 쉬와 이거.

103034 @ 그건 매기 쉬와?

103034 # 매기 쉬와.

103034 @ 모혜제완지.

103034 # 모혜제완지라고 이름이 틀려.

103034 @ 이름이 틀리구나예.

103034 # 이제 줄 받는 건 춤제완지라고.

103034 @ 아 춤제완지!

103034 # 그건 이제 하늬브름만 나가민 어디 십디가 줄 받으면 돌아 제완지가.

103034 @ 줄 받는 거 이건 위로 크는 거

103034 # 모혜제완지엔 현 건이 굵텡이가 빨경빨경 꼬작꼬작 올라가 거민 그거



막 매기 쉬와 그거는 씨 주우기가 쉽는다 이놈의 줄번는 제완진 하나라도 떨어지면 조 강알에 보민 이레저레 막 줄 번으명 이 하늬 나가민 막 이건 이제사 줄 번으명 크는 거. 그거.

103034 @ 또 다른 췌비름 이런 것도 이수게.

103034 # 췌비름은이 생전 안 죽는 거여, 췌비름허고 빈네풀허고는 이건 담양 무신 비닐에나 담양 탁 어퍼낫당 썩임 베끼 절대 벳디 매 낱 죽질 안허는 거여.

103034 @ 맹 영 놔두민 또 살아불어?

103034 # 안 죽어, 안 죽어. 그냥 살아. 암만 영헌 돌 위에 놔둬도이 안 죽영그대로 살아와. 췌비름이엔 현 건. 이거 야가지 질긴 거. 겨난이 씨 지우지 못허여. 겨난 게나저나 나민 비니루 까풀에 담양 어퍼놔둬야 돼여. 어퍼야. 그전이 이 비료 까풀 안 난 때는 베명 치와, 그걸. 치와 어디 흔펜 구석에 강 놔. 데메여 경해야 썩주 경 안허민 안 돼여. 고니풀허고 이 췌비름은 영 생전 죽지 안허는 거.

103034 @ 고니풀?

103034 # 고니풀이엔 현 거 이서 고니풀이도 이거 안 죽는 거라이 흔 털을 이 돌 위에 놔둬도 안 죽어, 고니풀허고 췌비름허고.

103034 @ 고니풀허고 췌비름허고.

103034 # 절대 죽지 안허영 건 그자 어디 모다낱 돌로 지둘라도 죽지 안허여, 썩임베끼.

103034 @ 그것도 여름 검질이지예?

103034 # 여름 검질, 여름 검질이주. 겨울 검질은 그런 거 엇어. 겨울 검질은 난 다허는 거 보리왔디 난다 허는 거 저거 고치풀엔 현 거, 별경현 풀 이서.

103034 @ 고치풀?

103034 # 응, 고치풀 별경현 거, 거 보리 안웨민 막 그런 풀만 과제기 나. 별경허여, 여름도 열민 별경허고 그거 겨울풀은 그거라, 그것가 나고 대우리 보리왔디.

103034 @ 보리왔디 대우리허고예.

103034 # 대우리허고 그거.

103034 @ 그거고.

103034 # 드룻늬물 그자 그거.

103035 @ 드룻늬물 아까예, 그거. 계민 이제 콩 다 익언.

103035 # 콩 다 익어근예.

103035 @ 거믄 어떻힐 거 콩 다 익으민?

103035 # 콩은, 콩도 강 꺼거 이젠. 이건이 영 호미 대영 호미대로 영 비진 못헤 영 호미 대민 딱 이게 자치민 이게 꺼거져. 콩은 딱딱 꺼끄민 그것도 무꺼당 집이서 두드려.

103035 @ 계난 콩은 콩대, 콩 그것만 따는 게 아니고 밑으로 호미로 베는 거 이거는?

103035 # 아, 비는 거 열매가 이 위에 열고이 아렌 콩대가 요만이 올라오민 이디

대가 이서.

103035 @ 그거 다 베는 거?

103035 # 게난 호미로 비어.

103035 @ 다 비었?

103035 # 비영 무꺼근엥에 집이 시꺼당 옛날엔 하영 안허는 거난 집이 시꺼당 마당에서 두드려 것도,

103035 @ 건 안 들려?

103035 # 무사 안 들려.

103035 @ 어디서 들려? 집이 가져왕?

103035 # 아, 집이 가정오나 밧되서 비어낱 벧 나민 혼 이틀 벧 마치민 바삭이 몰라이. 겨민 그거 혜당 집이서 비 맞게 말앙 데멧당 조 ㄱ슬 문딱 혜놓고 문 혜낱 그걸 또 도깨로 두드려, 두드려근에 씨 갈라사 이제 흐쫂씩, 흐쫂 시멍 말멍 새들 나가민 숲아 콩을. 숲아사 미릇혜 묵은혜 장 듨을 거 아니.

103035 @ 장 담가는 건 흐끔 잇당허고예, 보리 그거 영 타지 안허고 밑으로 영 다 베영 밧되서 무껍 집이 실렁 오는 거라예.

103035 # 집이 실러다근에 옛날엔.

103035 @ 이것도 흘테로 허여?

103035 # 흘테로 흘트는 거라.

103035 @ 아 보리. 콩도?

103035 # 콩은 아니고, 콩은 두드리고.

103035 @ 그냥 두드리고.

103035 # 낭차 낱 두드려.

103035 @ 거믄 탁탁 떨어져예.

103035 # 탁탁 떨어져, 게민 두드려 가민 콩, 이 딱딱 깨어지멍 깍지가 딱딱 벌러지멍 문 털어져, 털어지민 그거 씨 갈라근에 그냥 브름에 낱 잘잘잘 불려가민 깍지메기는 저래 불려 불고 여물은 이레 이서.

103035 @ 깍지메기는 뭐?

103035 # 거 콩깍지게.

103035 @ 아 콩깍지, 그게 깍지메기?

103035 # 응 깍지메기.

103035 @ 깍지메기.

103035 # 콩깍지엔도 허고 콩깍지메기엔도 허고 그자.

103035 @ 옛날 곶아난 말.

103035 # 옛날 곶은 말이 그거라

103035 @ 콩 깍지메기.

103035 # 응, 응. 깍지메기덜 불려사 웰 거 아냐? 영행 브름에 브름에 낱 영 불려사 웨여. 솔박으로 거렁 영 그것이 콩은 브름 쉼사 잘잘잘 불려 가주.

103035 @ 무거워부난.  
103035 # 응, 무거워부난 경 안허민 그놈이 그 껍질이 불리질 안허여 브름 썰사.  
103037 @ 그 깎지는 무신거 험니까?  
103037 # 그것도 줌진 거는 불 살르고 훑은 거 때여, 불 때여. 솟강알에.  
103037 @ 불 때여 그냥?  
103037 # 불 때여.  
103037 @ 건 쉼 안 맥여?  
103037 # 쉼 안 맥여, 쉼 안 맥영 그자 줌진 건 해당 굴묵, 그거 때고 훑은 건 부엌에서 불 숨고.  
103037 @ 불 짓고, 그 콩대?  
103037 # 콩대가 그거 불 때는 게.  
103037 @ 아. 불 때는 게 콩대는 불 때고?  
103037 # 줌진 거 영 깎지메기는 굴묵 살르고.  
103037 @ 굴묵 짓고.  
103035 @ 이거는 콩은 영 무끄젠 허민?  
103035 # 그건 깨, 저 새 비어당 깨 틀어야.  
103035 @ 깨 틀어야 돼어.  
103035 # 그건 깨 틀어사 무꺼.  
103035 @ 계난예 콩낭으로 무끄지 못허난예.  
103035 # 건 콩낭으로 절대 못 무끄지.  
103035 @ 계난 이것도 흔 바리민 얼만이라?  
103035 # 콩도 석 단이 흔 바리.  
103035 @ 아, 석 단이 흔 바리.  
103035 # 콩 이렇게 막 크게 무끈다. 석 단이 흔 바리.  
103035 @ 그니까 석 단이 흔 바리.  
103035 # 흔 짝에 석 단씩 시끄민.  
103035 @ 아. 여섯 단이 흔 바리.  
103035 # 응.  
103035 @ 흔 짝에 석 단씩.  
103035 #응, 경행 흔 바리.  
103038 @ 콩 농사할 때 재미난 일이나 힘든 일이나 기억나는 거?  
103038 # 콩 헐 때 힘들고 아니 힘들고 헐 거 었어. 꺼끌 때 그자 콩 꺼끌 때 그런 때 헐 힘든 거, 힘든 거 아니엔 말은 못 허여. 콩 비어다 낱 두드릴 때도 힘들고 꺼끌 때도 힘들고.  
103038 @ 콩 꺼끄는 게 밀으로 비는 거.  
103038 # 영 호미해영 영 심영.  
103038 @ 그걸 거끈텐 곧는구나예.

103038 # 콩은 영 거꺼져 비지 못허여. 호미 영 텡 영 눅지민 딱딱 꺼거져.

103038 @ 거난.

103038 # 콩 꺼끄는 거, 콩 꺼끄는 거 콩 비는 거엔 말은 안허여. 우리 대정을 가보민 아이고 오늘은 콩 꺼끌 철이우다 영허주. 콩 빈덴 말 안 고아. 콩 꺼끌 철이 우다 이진이 호미 텡 영 자치민 딱 거꺼져, 남텡이가. 겨난 콩 거꺼.

103036 @ 게난 콩 꺼끄는 거예. 그른 콩은 주로 무신거 무신거 행 먹는 거파? 아까 장 담그고.

103036 # 장 담그고 두부해 먹고.

103036 @ 두부도 해먹고.

103036 # 콩늑물 놔 먹고.

103036 @ 아 콩나물도 해먹고.

103036 # 그루후젠 몰라, 우리 해 먹는 건 콩늑물, 두부, 웬장 그거 해 먹는 거.

103036 @ 콩ㄱ루 고아근예.

103036 # 콩ㄱ루 고아근예 콩죽 썬 먹는 거, 그거, 콩죽 썬 먹는 거.

103036 @ 콩죽 썬 먹고.

103036 # 그거 네 가지. 우리 허는 건 그거뿐.

103036 @ 콩국도 끌려 먹지 안허여?

103036 # 콩국도 끌려 먹고, 콩죽도 썬 먹고, 두부도 만들고, 콩 장도 담아먹고 그거.

103036 @ 제일 큰 게 장 담그는 거.

103036 # 장 담그는 게 제일 우선이야.

103036 @ 게난예, 콩도 종류가 여러 개 잇지예.

103036 # 파란콩, 또 팔월베엔 해연 거 그거 잇고 콩늑물 놔 먹는 줌진 거 잇고.

103036 @ 그거 무신콩이엔 고아?

103036 # 저 그자 팔월베.

103036 @ 팔월베.

103036 # 콩늑물 놔 먹는 건 팔월베. 또 그냥 퍼렁헌 콩도 잇고 그건 장 듬아 먹는 거, 퍼렁헌 콩이나 노랑헌 콩이나 거 장 듬아 먹고, 콩늑물 놔 먹고 흐쓸 줌질다 허는 거 뿐이주. 즐다허는 거 뿐이지, 콩늑물 놔 먹는 거 흐쓸 즐다 허는 거 뿐이주. 팔월베라고 그건 흐쓸 일러이. 그건 이른 콩이여 일칙허는 거. 이 퍼렁허는 거 이제 이로후제 허는 거고 팔월베는 일찍 허는 게 팔월베. 게민 그 콩은 콩방울이 줌질아, 즐민 그걸로 콩늑물 대충 콩늑물 놔 먹어.

103036 @ 아 콩늑물 놔 먹어.

103036 # 대충 콩늑물 놔 먹고, 걸로 장도 듬아 먹어. 숯아 장도 담고 허는디 장 맛이 이 푸린콩만이 맛이 엇다허는 거라. 그거. 푸린콩은 장을 듬으면 숯아 영 대겨 보면은 이 푸린콩은 끈닥헌 징이 잇고 이 팔월베는 조팝 모양으로 케사케삭허여. 게민 맛이 엇다는 거여.

103036 @ 콩은 두 종류베찌 엇수과?

103036 # 두 종류베찌 엇어. 이제 약 콩이엔 현 콩 까망한 콩 잇네.

103036 @ 이제는.

103036 # 이젠 그거, 그거, 그거 나난 헛주. 그전이는 이 제주도에서는 푸린콩허고 그 팔월베 노란 거 허고.

103036 @ 어제 오다근에 그거 담에 막 현 거.

103036 # 건 돛비 밥에 서꺼 먹는 거.

103036 @ 그것도 콩 아니?

103036 # 것도 콩 종륄, 콩 종륄디 돛비엔 근주, 콩이엔 안 곶아.

103036 @ 돛비엔 근주, 콩이엔 안 곶아.

103036 # 콩이엔 안 곶아. 그건 돛비.

103036 @ 건 돛비.

103036 # 또 이젠 정월 낭 싱거근엿에 이 봄이 헤먹는 거. 시장에 강 보민 잇지 두불콩이라고 별경현 거 그거, 그건 두불콩, 두불콩 헤여.

103036 @ 그건 밥에 낵 먹는 거?

103036 # 밥에 낵 먹는 거 그건. 건 밥에만 놔 먹주 뉘. 솟아 떡 쉬나 허고 밥에 낵.

103036 @ 떡 쉬에 놔?

103036 # 응 떡 쉬에도 퉁령 솟아근에 곶민 떡쉬에도 놓고 떡 쉬도 허고 밥에 놔 먹고 그건. 경허는 거.

103036 @ 돛비도 마찬가지로? 돛비는 밥에만 낵 먹어?

103036 # 두부?

103036 @ 아니, 아니.

103036 # 돛비, 밥에만 놔, 밥에도 놓고 것도 떡 쉬도 허여.

103036 @ 아 것도 떡 쉬 헤져?

103036 # 응 떡 쉬도 헤여.

103036 @ 거난 장 담그는 것만 안 뉘는 거구나예?

103036 # 이 장 돛아 먹는 콩만 이제 그거 장 돛꼭 두부허고 콩나물 그거, 그거 허꼭 이제 돛비광 두불콩은 떡 쉬도 허꼭 밥에도 놔 먹고 경허는 거. 죽도 끌러 먹고.

103036 @ 죽도 끌러먹고 예.

### 밭벼 농사

103039 @ 자 이젠 산뒤헤 보게예. 산뒤, 산뒤는 허젠 허민 미룻 준비헤야 뉘는 거 이수과?

103039 # 미룻 준비헤야 뉘는 거 씨나 베찌 더 이서? 준비헐 거 엇어. 흐쉴 인쩍 곶아, 그계. 보리 ㄱ슬 꾀 나가민 우선 늦은 보리 허기 전에부터 이젠 ㄱ저 곶아이.

혼 다른 농서로 허민 혼 스무날 차이 잇게 곶아.  
 103040 @ 조허는 거 보다?  
 103040 # 응 켈 인쩍? 여름농서 중에는.  
 103040 @ 산뒤가?  
 103040 # 그 산뒤가 제일 인쩍 같아.  
 103040 @ 그건 어떻게 가는 거파?  
 103040 # 것도 씨 빼여.  
 103040 @ 씨 빼여?  
 103040 # 응, 씨 빼여근엔에 곶아.  
 103040 @ 아 밧디 강 씨 빼영 췌로 밧 갈양 그민 곳?  
 103040 # 곳, 것도.  
 103040 @ 영 더퍼주거나 영 안헤도 웨어?  
 103040 # 안 헤여. 건 더프나 마나 그자 씨 작작 빼여근에 밧 초불 곶아놧다근에  
 혼불 갈아이. 먼저 갈양 그냥 놧다근에 그 위에 강 씨 빼영 두불 갈아 불민 걸로  
 막아져 불민 곳.  
 103040 @ 아 혼불 곶아놧 씨 빼영 두불 가는 거?  
 103040 # 두불 가는 거. 그거 경 헤불민 걸로 곳.  
 103040 @ 아까 산뒤 말고 다른 것도 경험니까? 산뒤만 두불 가는 거파?  
 103040 # 산뒤만 두불 같고, 조도이 조 불리는 것도 초불 갈양 잇당 두불 갈명  
 씨 빼명 그건 므쉬로 다려, 다려줘야지 조는.  
 103040 @ 조는. 응. 계난 조도 두번은, 두 번 가는 거구나예?  
 103040 # 두 번 가는 거.  
 103040 @ 계른 밧 갈양.  
 103040 # 가는 건 두 번. 산뒤도 두 번 같고, 조도 두 번 같고.  
 103041 @ 계민 산뒤밧디도 걸름 헤사헤여?  
 103041 # 요즘은 비료 나난 무신 걸름이 엇어.  
 103041 @ 옛날에, 옛날에.  
 103041 # 옛날에 무신 걸름이 이서? 엇어.  
 103041 @ 걸름 안헤여?  
 103041 # 걸름 뭐 걸름 허젠 허민 헐 게 이서야주.  
 103041 @ 헐 게 이서사주예?  
 103041 # 아무 걸름도 엇지. 뭐가 걸름 잇나 그 보리는 씨만 뿌리민 안 웨니까  
 그 걸름 모두와 가지고 동시에 낱 그거 내여근에 것에 보리씨만 뿌리면 안 웨니까  
 그거는. 그것이 이제 완전 비료 종류라 그것이 경허듯이 헤먹는 거.  
 103041 @ 그거 무사 오줌도 오줌향에 담앗당 것도 걸름 헌덴 헨게만은.  
 103041 # 그것도 보리왓디 강 주어이, 보리왓디만 강 주어.  
 103041 @ 보리왓디만 걸름 허는 거구나예.

103041 # 보리왔디 허고 이제 이 누물팠디.

103041 @ 누물팠디.

103041 # 옛날에 김치해 먹젠 허민 비료가 엇이난 그거 해당 쥐. 그것이 걸름이라 누물팠디, 보리밧디.

103041 @ 산뒤밧디도 걸름은 엇어예?

103041 # 엇어. 요새 비료 나난 그자 비료 작작 빼엄주. 옛날엔 비료 엇인 땀.

103041 @ 계난.

103041 # 보리밧디 허고 누물팠디나 오줌 주주. 보리, 아무 걸름도 엇인 거, 조도 걸름 엇고 요새 비료 나난.

103044 @ 그믐 산뒤밧디 나는 검질은?

103044 # 산뒤밧디 나는 검질은 조밧디 검질이나 마찬가지로.

103044 @ 마찬가지로.

103044 # 응, 마찬가지로.

103044 @ 여름 검질이나 다 똑ㄹ데.

103043 @ 산뒤밧디 검질은 몇 번이나 매삽니까?

103043 # 세 번 매야 돼어.

103043 @ 아, 이진 세 번이나 매사허여?

103043 # 인짱 갈아부난 인짱 갈아부난 조 불리기 전에 산뒤가 낭 뽀쪽뽀쪽 낭 요만씩 커가민 우선 검질 매여 가명 조도 불려 가명. 경 헤가명 조밧디 매 가민 또 ㄹ치 두불 매여, 세불 매여.

103043 @ 세불이나 매야 돼어?

103043 # 응, 검질 짓으면 세불 검질 엇인 밧디 두 번. 이거 산뒤엔 현 것도이 제법 손 하영 들어.

103043 @ 계난 손 하영 드는 거여예?

103043 # 세 번 매줘야 돼고.

103045 @ 응. 계민 이제 다 익으면 이것도 베어살 거 아니예?

103045 # 이것도 비어사 호미로.

103045 @ 호미로예?

103045 # 응.

103045 @ 베영 그 다음엔?

103045 # 그 다음엔, 이것도 산뒤가 이제 노프면은 그냥 그걸로 무끄고 산뒤가 어디 저 자갈 한 밧디나 영 브른 밧디 허민 요만씩 즐민 다른 거 해당 깨 틀영 무꺼, 영 진밧디는.

103045 @ 그걸로 그냥예.

103045 # 그걸로 그냥 무끄고. 이제 나룩 비는 거 봐. 나룩도 그걸로 비어근에 그냥 행 무끄잖아, 그추룩허는 거.

103045 @ 계민 그것도 이제 집이 시경와살 거 아니?

103045 # 집이 다 시꺼와야.

103045 @ 밧디서 저 도깨질허는 건 아니지예?

103067 # 메밀.

103067 @ 메밀은 밧디서 도깨질 허여?

103067 # 그 옛날에 명석이엔 허민 알 건가?

103067 @ 예.

103067 # 명석 흥 여남은 개 아저당 탁 퍼와근에 집이 못 시꺼오민 흥솔허민 모  
를 마당질 감저 허민 놉덜 막 하영 빌어놉 흥밧디 서이썸 세와와근엔예. 서이썸 이  
민 양펜이 으섯사름 아니?

103067 @ 예.

103067 # 게민 일로 줍아 놓고 일로 줍아 놓고. 모물은 처암인 탁 단 풀어놉 헤  
놉 그 다음인 일로도 줍아놓고 절로도 줍아놓고 모물단 탁 풀어놉 줍으멍 데껴사  
헤여. 탁 풀어놓지 못허영. 게난 모물로 안아당 탁 와근엔예 쪼끔쪼끔 줍으멍 영영  
넬리민 그거 보멍 도깨질헤영. 이땅 하영 허는 사름은 시꺼오지 못허민 밧디 명석  
시경 가근에 놉 여라이 행 강 두드려와, 모물 하영 간 사름은.

103067 @ 모물만 경허고 나머진 다 집이 가정왕 집이서 도깨질허는 거구나예.

103067 # 집이 이서. 모물은 모물도 하지 안헌 건 집이 다 시꺼와. 다 시꺼오랑  
집이서 두드리는다 밧 먼 디나 같고 부제침이덜 모물 하영 간 집인.

103067 @ 밧디서.

103067 # 요즘은 메탁기 시난 그걸로 탁탁 두드림주만은 경 안허민 경허민 놉덜  
빌어가민 흥밧디 서이썸 서이썸 남저덜 서이썸 상 여섯 사름허고 줍아 놓는 사름  
딱시허고.

103067 @ 그 줍아놓는 사름 이름 무신거렌 곤는 거 옛수과?

103067 # 곤는 거 옛어. 문 줍아 놓는 거 그자 날라 오멍 줍아 놓는 거. 데끼민  
그자 태작기로 두드림만 헐 거.

103045 @ 게민 산뒤로 다시 돌아와서예, 산뒤 시경 오젠 허민 이것도 산뒤는 흥  
바리가 멧 못이라?

103045 # 산뒤?

103045 @ 산뒤가 산뒤 안 곱앗어? 흥 바리가 멧 못이나 돼는 건고?

103045 # 산뒤도 하여튼 가을 봄 농서는 헤도 가을 농서는 다 으섯 못이라.

103045 @ 이것도 요섯 못?

103045 # 모물도 으섯 못, 산뒤도 으섯 못, 콩도 으섯 못, 조도 으섯 못이라.

103045 @ 여섯 못이 흥 바리, 그른 이것도 쉼 시경오나 사름이 정오나 옛날엔  
헛주예?

103045 # 응, 응.

103045 @ 갹 집이 앗앙 왕 집이서 도깨질을 허는 거예, 마당질예. 마당질이엔 헤  
마씨?



103045 # 산뒤도 그 산뒤엔 현 것도 이 보리 홀트는 것에서 홀탕 두드려 산뒤도.  
103045 @ 아 산뒤도 홀탕 두드려?  
103045 # 응 산뒤 홀탕 두드려, 홀탕 두드려, 그냥 도깨질로 안히고 그건 홀타냥 두드려,  
103045 @ 그 홀트는 건 무신거엔 골아?  
103045 # 이디 보리 홀트는 거 옛날.  
103045 @ 똑ㄴ튼 거에?  
103045 # 응 똑 ㄴ튼 거에 그 보리클 그냥 그냥 산뒤도 그걸로.  
103045 @ 산뒤클 따로 보리클 따로 안해?  
103045 # 안해. 보리클이나 산뒤클이나 똑ㄴ타, 그걸로 홀타.  
103045 @ 홀타근에 그 다음엔.  
103045 # 홀탕 두드려.  
103045 @ 그 다음엔 마당질행 도깨로 두드려.  
103045 # 고스락 이서부난. 산뒤가 고스락 잇잖아게.  
103045 @ 게민 두드려난 다음에 이제 산뒤쌀 허젠 허민, 쌀 멘들젠 허민 또 물 ㄴ레 갈 거 아니파예.  
103045 # 물 ㄴ레 가사주.  
103045 @ 그건 물러근에? 가져근에 강 물 ㄴ레 강.  
103045 # 그건 물러근에 물 안 해근에 그냥 가는 거.  
103045 @ 아 물린 다음에 그냥 가근에.  
103045 # 이건 그냥 ㄴ는 거 물 안히고. 보리만 물 적정 ㄴ는 거.  
103045 @ 그른 그디 가정가근에 이제 몇 번을 해? 아까 세 번을 해산다고?  
103045 # 세 번, 네 번이나 햄서사 네 번이나 골아야 그 쫄이 별경헌 쫄이 잇네 이. 게민 네 번 골아 가야 그 빨경헌 복데기가 벗어비어. 경 안허민 쫄이 별경허여. 게민 밥도 허민 별경허고 암만 씻어봐도 그 복데기 안 벗어불민 밥이 별경헤여이. 겨난 그 별경헌 복데기 벗기젠 허민 네 불을 골아야 돼어.  
103045 @ 게난 그디서 혼불 곶양 푸는체 행 허당 또 곶양.  
103045 # 또 푸는체로 평 또 곶곡 또 곶곡.  
103045 @ 하루 종일 안 돼켜.  
103045 # 그거 네 번을 해야 돼어. 경 안허민 쪼끔씩허젠 허민 방에에 오랑 쪼.  
103045 @ 아, ㄴ레로 가는 게 아니고?  
103045 # ㄴ레에서 곶다근에 ㄴ레가 다른 사름덜 오랑 곶젠허민 그거 여라 불 곶젠 허민 다른 사름도 해야 될 거 아니? 경허민 세 불만 곶민 집이 정와, 오민 먹을 만씩 방에서 쪼.  
103045 @ 방에에서 쪼.  
103045 # 방에서 쪼당 보민 그것이 홀민데기 벗어져.  
103045 @ 이건 정 ㄴ레에서 ㄴ는 거 아니?

103045 # 아니.

103045 @ 이건 방에서 지는거. 산뒤는.

103045 # 산뒤는 썸시면은 복대기가 벗어, 그거. 물 아이 놔근에.

103045 @ 물 안 낳예.

103045 # 겨도 붉은 복대기가 벗어.

103045 @ 그 물그레에 갈레 가기 전이예 그 산뒤는 잘 물려사주예.

103045 # 물려사 잘 물리와사.

103045 @ 밧 이디 마당에라도.

103045 # 마당에 널영 명석에 널영 물리와사.

103045 @ 응 날레 널영예 .

103045 # 벧이 바삭 나면은 이 그슬 벧디는 이틀만 물리민 바삭하고 겨울에 잇당 눈 오고 무시거 현 땀 아멩 벧 나봐도 동지선들엔 사흘 물리고, 나흘 물리곡 헤사. 경혜사 허곡 이 그슬 벧딘 이틀만 물리민 바삭 몰라. 지금 벧디는. 벧만 나민. 겨울에 눈 오고 무시거 오고 허민 헤가 쫄르잖아이. 겨민 마당도 몰라야 뉘고 겨민 널당 보민 시간이 엇어. 물릴 시간이. 겨난 사흘 나흘 너는 거야. 경허는 거지, 지금은 벧만 나민게 해도 질고.

103047 @ 계민 이 그 산뒤도 꺾데기가 이실 거 아니파예? 건 뉘엔 곶아 산뒤?

103047 # 산뒤채.

103047 @ 산뒤채. 그다음엔 산뒤낭, 남.

103047 # 남은이 옛날 어른들은 그걸로 명석 좃곡.

103047 @ 산뒤남으로?

103047 # 응 산뒤남으로 명석 좃고 멩탱이, 곡석 놓는 거 잇잖아, 그런 거.

103047 @ 그런 거 산뒤남으로 짓는 거구나.

103047 # 산뒤남으로, 산뒤남으로 행 그 노 꼬아근엿에 명석도 좃고 이제 영헌디 멩탱이도 좃고.

103047 @ 멩탱이도 좃곡. 초신도?

103047 # 옛날에 신도 삼양 신고.

103047 @ 그걸로 허는 거파, 산뒤로?

103047 # 산뒤 저 이 신 영 허젠 허민 요디 깝 잇잖아. 줌진 거. 그거는이 어웁이 부럭 사가는 거 잇잖아. 그거 뽑아당. 그거 막 세지 안헌 때 뽑아당 막 널영 물리wai. 물리민 그 소곱에 박씩허게 나부민 그거 빼기뉘 그것이 두 번차 꺾질허영 줌질이 깝 바삭 물렸당 걸로 영영 보며 노 꼬는 거 그추룩이 보병 영 보병 똑허게 오그령 코 내영 신 삼을 땀 영 낳허민 신으로 노로 영 또 이걸 꿰어와. 꿰어와근에 몽클락허민 남께기 똑똑똑허게시리 신 뿐으로 요추룩허게 만들앙 또 요찍 두척이 뿐으로 흐나 만들앙 또 뒤에 박곡행 영 놔근에 닥닥닥 두드리민 신이 과짝, 신이 과짝 사. 각이 요것이 신각 신각허주게.

103047 @ 예.

103047 # 그것이 과짜 사민 그뎨 신허는 거.  
103047 @ 거난 그 어웁 속에 허는 거 굳는 말은 엇수과?  
103047 # 그것이 신깍 내는 거.  
103047 @ 신깍 내는 거.  
103047 # 신깍 내는. 곶으민 알 거여. 옛날 어른덜. 신깍이 뵈이꽈 허민 초신 삼을 때 요디 영 그 미, 그것ㄴ라 미, 미 허주.  
103047 @ 아 미.  
103047 # 응. 미엔 허여. 그걸로 노 꼬아근에 늘 헤영,  
103047 @ 응.  
103047 # 늘 헤영 허리에 차근에 올로 행 돌아멩 요레 무시거 또 돌아메곡 행 산뒤쪽으로 영영 좃어가이. 멩석 좃듯 좃으멍 요레 요건 신깍이민 영 옆더레 톡허게 놔근에 또 영허곡. 겨민 그 신깍이엔 현 거 요만이베끼 안 질어이, 요만이베끼.  
103047 @ 어웁으로 만든 거.  
103047 # 응, 어웁으로 만든 거.  
103047 @ 게난 산뒤찝으론 혈 게 많다예?  
103047 # 응 산뒤찝으로 신도 삼고 맥도 즐고 멩석도 즐고. 옛날에. 다 경행 살아서  
103047 @ 산뒤채는 무신거헤?  
103047 # 산뒤채는 그 까난 채는 그자 저레 앓다냥 군불 살라불고 저 거시기 방떼어불곡. 그 찝은 이제 산뒤찝은 우리 신 삼고, 멩석 좃고 그자 그런거.  
103046 @ 산뒤 찝도 허당 보민 ㄴ루 나와 흐끔?  
103046 # 보미.  
103046 @ 보미. 그건 보미?  
103046 # 응, 건 보미, 보미허주게.  
103046 @ 그건 무신거 행떡어?  
103046 # 그건 먹지 못허여.  
103046 @ 거믄 뭐하는 거?  
103046 # 도야지 주주.  
103046 @ 아  
103046 # 그건 도야지채레 가주 먹지 못허여, 보미는 못 먹어.  
103046 @ 보미는 산뒤에 것만 보미엔 곶아?  
103046 # 응 산뒤촨에 것만.  
103046 @ 아 산뒤촨에 건 보미.  
103046 # 겁적 벗겨비뵈 그다음 ㄴ루 닳은 거 나와 빨경헌 거 벗겨노민 ㄴ루라이.  
103046 @ 그건 도새기 주는 거.  
103046 # 도새기 주는 거 건. 먹지 못허여, 그거 산뒤 보미는 먹지 못허여.

103046 @ 먹지 못해여.

103046 # 쓸에 거라도 그건 못 먹어.

103048 @ 계민 산뒤힐 때 재미난 일이나 뭐 경험 기억나는 거.

103048 # 기억나는 거 그 산뒤로 헤여근에 밥도 헤영먹고, 물에 컷당 그루 뺏앙 떡도 헤먹고 그거지 뭐.

103046 @ 산뒤는 주로 밥허고 떡허고예?

103046 # 밥허고 떡헤 먹는 거 그거.

103046 @ 근데 밥은 특별한 때만 헤먹는 거 아니?

103046 # 특별헌 때, 제서 때.

103046 @ 계난예.

103046 # 어디서 웨방서 손님 말지 못헌 손님 온 때.

103046 @ 멩질땐?

103046 # 멩질 때, 계때.

103046 @ 상에 올리는 거.

103046 # 상에 올리는 거 멩질 때허고 제서때 허꼭 그거 허민 우리 일반으로 그런 쓸 혼 번 못 먹어봐. 손님이나 말지못헿 손님이나 오민 것도 맨쓸만 낡 못헤여 쥐어. 좁쓸에 서경 반반 서꺼근에.

103046 @ 그거 반반 서꺼 건 뭐렌 곶아?

103046 # 그거 반지기.

103046 @ 반지기.

103046 # 반지기 밥헤영 막 것도 특별헌 손님 오랑 생각 허노렌 헤사 그거헿 놔.

103046 @ 거난 반지긴 저 산뒤허고 좁쓸 서끄는 거파?

103046 # 응 좁쓸.

103046 @ 산뒤허고 보리 서끄는 건 아니고?

103046 # 보리쓸은 서끄젠 허민 겨울에 보리쓸이 엇어. 양도 먹을 게 엇어. 경허 난 겨울엔 보리, 좁쓸, 여름엔 보리밥 그거라. 부제침인 가민 여름에도 보리밥에 좁쓸을 서끄민 보리밥이 차르르허지 안헿 펼펼허지. 엇인 사름은 어느 저르에 그거 여름에 7장 낫당 먹을 쓸이 엇이민 여름에 맨보리밥만 헤노민 갈갈갈갈 씨방울로 다 세어져. 경헌 거 우리 살아온 게 그런거.

103048 @ 계난예. 산뒤, 산뒤힐 때 막 힘든거 무신거가 힘든 거라?

103048 # 힘든 거 기자 벨로 조나 산뒤나 경 막 힘든 건 엇어.

103048 @ 방에 지는 거?

103048 # 밧되서 헤을 때, 방에 지는 거 그게 힘들어, 쓸 내먹는 게 쥬 힘들어.

103048 @ 계난예 쓸 내 먹는 게 힘든 거 님아.

103048 # 쓸 내먹는 게 이게 몰 7레 강 두 번, 세 번 곶양오면 쓸이 벌경헤여이 요샌 나룩쓸 님지 안헿. 벌경헤민 그걸 헤영케 그 붉은 겁데기 벳기젠 허민 방에에 서 두 번, 세 번을 지어사 돼어.

103048 @ 그게 켈 힘들크라예.

103048 # 보미 나민 그 보민 또 쳐동 또 낡 지영 또 보미 나민 경 흔 서너 번 방에서 막 찌당 보민 손도 다 붕물고 손이 다 붕물어. 게민 나 어머니 손 붕물언 손 붕물언 허민 그것에서 손 붕물엄시넨 또 욱 들고. 경허명 그거 막 멧 번 저근에 게 난 멧질 때, 제사 때 그거주. 그냥 일반으로 우리 쓸밥을 흔 번 못 먹어본 거 이젠 이추룩 나룩밥을 반찬 엇다 뒤허다헤도, 흠치.

### 고구마 농사

103049 @ 그다음엔 감저, 감저 농사.

103049 # 고구마, 고구마 농사할 때가 제일 힘들어, 더워.

103049 @ 이제 고구마에 곱읍까, 옛날말로 곱아사주.

103049 # 옛날 말로 감저.

103049 @ 감저예?

103049 # 감저 요즘은 지슬감저엔 ㄹ라 감자엔 햐주만은 옛날엔 지슬.

103049 @ 건 지슬.

103049 # 지슬.

103049 @ 이건 감저.

103049 # 고구마 ㄹ란 감저, 경 곱아낫주게.

103049 @ 고구마 농사허젠 허민 이것도 미룻 준비헤야 허는 거 이수과?

103049 # 고구마는.

103049 @ 감저는이엔 허게예, 감저는.

103050 # 감저는 이월들만 나면이 양력 이월들이 나면은 모중 저, 젓 ㄹ라 무신 모중이엔 허느니, 이 구텡이 팡 놓는 게 이서. 구텡이 파근에 요 산방만이 구텡이 파근에 그레 막 검질이고 뒤 감저꿀 낫당 감저꿀이고 막 담아낡, 그 우터레 흑 더 평 그레 원상이라이. 원상 감저, 원상 감저헤여. 경허민 그걸 경 ㅸㅸ허게 헤여근에 막 감저꿀이고 무시거고 막 담아나근에 그 우트레 흑 흑썰 더평 감저 툃툃 낡 감저 막아지게 흑 더평나두민 울랑울랑 알로이 더운 짐이 올라오는 거라. 겨민 고구마순, 감저순이 문저 나와이. 감저순이 문저 나오민 맨 먼저 그차당 놓는 거, 원상 감저라고. 그건 원상, 원상허고 경 안현 감전 이 노지에 감저 모중을 놓면 얼영 재기 나질 안허메이. 겨난 감저가 유월절 브더가민 울랑울랑 더워가사 그 감저꿀이 커근에 감저 놓는 거, 그거. 겨꼭 이 원상이엔 현 건 어디 듯은 담 엠에 강 구더기 팡 요만이 낡 그거 행 인척 놔사 서파먹을 거 아냐, 인척 놔야.

103050 @ 그건 찰랑으녕 가정왕.

103050 # 찰라당 그 꿀 요만씩 요만씩만 크민 찰라당 놓는 거야.

103050 @ 밧디 강.

103050 # 밧디 강 심는 거. 겨민 그거 켈 인척 보리 ㄹ슬 허기 전에 그걸 놓는 거라. 감저는 인척 놓민 인척 드는 겨난 건 그자 보리 ㄹ슬 허기 전이 흐뎡 서떡젠이

옛날엔 서먹음, 서먹음허는 게 이 팔월 나가민 먹을 것이 떨어지난 감저 먼저 파먹 어이. 감저를 뭇 사니까 점심 때도 감저 청 먹고 어떤 때 저녁 때도 밥은 조끔허고 감저 청 그걸로 때 살곡 경헤노민. 겨노난 그걸 이제 먼저 인척 파먹나 허는 게 서 파먹는 거라이. 인척 파 먹나 허는게 감저 서파먹나, 서파먹나 허는 거라이. 옛날엔 아이고 감저 서먹젠 허민 서파먹젠 허민 일찍놔야, 일찍놔야, 허는 게 그거 게민 요 만은 허게시리. 핫튼 요 산방만허게 땅 지프게 팡 그레 막 감저풀이고 뭐 검질이고 막 담아놔 이만 담아놔 이만은 노프게 놔근에 흑 더평 그 우터레 감저 나민 일로 거시기 풀이 썩어가는 거라이. 썩영 더운 짐이 울랑울랑 헤가민 감저가 재기 낭 재 기 크는 거 요새 ㄴ치 비료 이서시민 무사 어려와.

103050 @ 게메예.

103050 # 비료 옛인 때난 그 기운으로 감저순이 요만이만 헤가민 우선 그차당 놔.

103050 @ 요만이헤도 강 놔 불어?

103050 # 응.

103050 @ 또 순 또 나와?

103050 # 또 나와. 또 요만이 만허민 요만씩 내비팅 그치민 올로 딱시 순 나와.

103050 @ 그것도 강 또 싱겨?

103050 # 경행 놓는 거. 겨난 옛날엔 먼저 파먹나 허는 게 서파먹는 거 팔월, 음 력 팔월만 나가민 파다 먹어 하여튼.

103050 @ 아.

103050 # 겨민 감저 그자 요거만씩 똑 요거만씩은 허게 든 때 막 파당 먹어 그걸 로 때 사니까.

103050 @ 게난 아까 혼, 보리 비기 전이.

103050 # 응, 보리 비기 전이 그거 놔.

103050 @ 거 놔야 돼는 거예?

103050 # 일찍 놓는 거.

103050 @ 감저풀 놓는덴 헤여?

103050 # 응 감저 싱겨사 허주, 감저풀 놓나 헨 말은 안허여.

103050 @ 아 감저 싱근다.

103050 # 응 감저 싱근다 아이고 재기 싱겨야 할 건디 그거주. 감저풀 싱근덴도 안헤여. 그자 아이고 빨리 감저 놔야 할건디, 감저 놔야 할 건디.

103050 @ 감저 놔야할 건디 영 허는구나예.

103050 # 모종 놓는 거는 감저 모종 놔야 웬다 허고 모종 놔야 웬다 허고 풀 낭 싱그는 건 감저 싱겨야.

103050 @ 싱겨야 웰 건디 이렇게.

103050 # 싱겨야 웬다 허고 경 말허는 거.

103051 @ 감저밭디 걸름은 안허지예?

103051 # 감저밧디 걸름 무사 요샌 비료 나난 허주.

103051 @ 요새 말고 옛날에.

103051 # 옛날엔 뭐 걸름할 거 있어. 이 중간에는 저 바당에 듬북, 듬북 해당 영  
끌아근에.

103051 @ 감저밧디?

103051 # 응, 감저밧디 끌앙 낱 그 우터레 곶아낱 그 우터레 감저 싱거. 옛날에  
중간에, 중간에 멧 년 그추룩해서. 흔 경해도 흔 십 년 경해실 거라.

103051 @ 감저 줄기를 싱그는 거 아니?

103051 # 줄 싱그는 거.

103051 @ 건디 무사 듬북 놔근에 그 우트레 해?

103051 # 감저 놓는 밧은 초불 갈아이 흔 번. 생밧으로 안놔뵤 곶아놓민 이디가  
고랑이 이서이. 계난 감저 싱그기 전에 이 고랑더레 끌앙 일로 갈곡, 일로 갈곡 허  
민 요디가 파니 뵤는 거라이. 요추룩이. 파니 뵤민 그 곶아는 우트레 영허민 듬북  
요 고랑에 갈앙 일로 갈곡 일로 갈민 이것이 더퍼지는 거라, 흑으로. 듬북이 더퍼지  
민 그 우터레 감저 싱거 놔두민 요디가 걸름 뵤영 그것이 빨아 먹으멍 듬북물 빨아  
먹으멍 크다 이거주. 경헌 거지.

103054 @ 감저밧디도 검질 매살 건가?

103054 # 검질 매사, 흔 불 매어사, 감저밧디 흔 불 매어사, 감저꿀 더프기 전이  
흔 번만 매민 감저꿀 변영 딱 더퍼정 검질 안 나.

103054 @ 밧디 땅이 감저꿀로 다.

103054 # 다 더퍼져 불민 검질이 안 나. 경허난 초불 흑뵤 감저꿀 어우러지기 전  
이 흔 불 매사 뵤어.

103054 @ 감저밧디 나는 검질은 이수과?

103054 # ㄹ뵤 거 다 여름 검질.

103054 @ 다 여름 검질.

103054 # 여름 검질은 다 ㄹ따.

103054 # 응.

103054 @ 건디 감저밧디는 초불 매젠 해도 흔엇이 경 조밧ㄹ치 하영 나질 안허  
난 검질이. 흑뵤 셔 가민 꿀이 탁 더퍼져불민 검질이 엇주게.

103055 @ 이번엔 감저. 이젠 파사주예.

103055 # 감진 파다근에.

103055 @ 파젠허민 먼저 줄을.

103055 # 줄 걸어낱.

103055 @ 줄 어떻 걸어?

103055 # 호미로 아정.

103055 @ 호미로 아정강.

103055 # 감저꿀 걷기 잘도 힘드는 거.

103055 @ 아이고, 어떻게근에.

103055 # 호미로 착착착 두 파니, 세 파닐 심엉, 요것도 감저 논 거고, 요것도 논 거고, 요것도 놓민 이 넓일 심어야. 심엉 일로 고랑치고, 일로 고랑치곡 행 그 감저 풀 영 등기명 호미로 영 영 그치명 따시 감저풀 몽크려봐 또. 몽크려 놓지 안허민 일로 저레 걷어가질 못헤여. 일로영 착허게 이거 감저풀이민 영 심엉 영영영영 헤가곡 또 일로 심엉 영영영 헤오랑 일로 또 그치명 몽크렝 그것이 켈 힘들어.

103055 @ 감저헐 때는 아.

103055 # 감저 팔 때가 그것이 힘들어.

103055 @ 줄 걷는 거.

103055 # 줄 걷는 게 힘들어. 막 허리 그차지고 누게 풀만 걷어줘시민 생각이 들어.

103055 @ 아.

103055 # 경헝 그거 풀 걷어놔 그거 파민 또 이젠 마다리에 담는 건 기자 감저공장 요새 감저공장 날 때는 그디서 마다리 주민 앓당 죽 폐와놔 그레 탁탁허게 행 내불민 헤영 내불, 저 혼 줄 파똥 또 서로가 마주 들르명 그거 마다리레 비우명 담양 내불민 시꺼가는 건 지네 냥으로 시꺼가는 거난 존디 풀 걷음이 이거 힘들어이. 어떻게 힘들어. 아이고 누게 감저풀만 걷어줘시민.

103055 @ 응.

103056 # 공장드레 들일 건 들이고 우리 먹을 건 따시 땅 파. 등글허게 땅 파. 옆드레 검질 딱 영 흑, 감저드레 흑 가게 말양 검질 다 세와. 등그렇게 구멍이 팡. 경헝 그레 감저 앓당 놔근에 묻엇당 우리가 또 겨울엔 먹곡 씨 놔두곡 경헤여. 경허민 우로 고망 요만이만 뜰라근에 요만이 뜰라근에 놔둬서라 또 그 세로 주쟁이 차는 거 알지?

103056 @ 예.

103056 # 그거 창 툭허게 물 안들게 더꺼. 비 왓직 현 땀.

103056 @ 느람지 먼저 더끄고.

103056 # 응. 느람지 더꺼놔.

103056 @ 주쟁이 차고?

103056 # 주쟁이 창 툭 더껏당 날 존 땀 강 흐뎡 영 베스룩이 열아쥬 짐 나불게 열아주고. 또 비 오람직이나 눈 왓직이나 허민 강 거 더퍼근에 비 못들게 허곡 경헝다근에 거 씨 놓는 거. 씨 가냥 허기 켈 어려와.

103056 @ 썩어 불어?

103056 # 썩어불어. 경허당 봐도 어덜론가 얼어도 썩어불고 너미 뜻아도 썩어불고 씨 놔두는 게 이게 켈 힘들어. 다른 씨 닦지 안헝 고구마씨가 켈 어루와 힘들어. 경허난 경헝 씨 낫다근에.

103056 @ 그게 감저, 감저눌?

103056 # 응 감저눌, 감저눌이엔도 곧고 감저구멍이엔도 곧곡 헤.



103056 @ 감저구덩이.

103056 # 응, 감저구덩이. 구덩이 강 돌아봐살 걸. 감저구덩이 돌아봐살 걸. 비 들업냐, 눈 들업냐 그거주. 강 영 해방 너미 뜻앙 짐이 팡팡해가도 그거 열아줘야고 또 얼민 더껴주고. 그 씨 놈이 젤 어려와. 감저 씨 놈이, 씨 놈이 젤 어려와. 그거라 그거.

103055 @ 감저 파는 건 어떻 파는 거파?

103055 # 아 파는 건 꿀갱이로 영영 땅 근으멍 감저만 빠 놓는 거. 땅 근으멍.

103055 @ 아, 땅 근으멍.

103059 # 응, 꿀갱이로 그자. 아이고 옛날엔이 장갑이 이시카, 이 손에 감저 고름이 일로 이레 돈 부떠.

103059 @ 안 지와지는 거예.

103059 # 안 지와정 허민 석유, 불싸는 석유

103059 @ 석유. 아.

103059 # 그거 손드레 탁탁 놓민 문짝 벗어이. 감저고름이 벗긴 벗는디 손이 다 케여. 독헌ㄱ라. 손이 다 벌러져. 감저고름은 잘 벗는디.

@ 석유가 독헌 거라예.

103059 # 응, 독헌 거난 그 감저고름이 경 부뻬당도 그거 싹 벗어져 그것이. 거민 그걸로 벗영 그걸로 허영 베경 비누로 손 싹꼭 경허노렌 헤도 손이 딱딱 벌러져.

103059 @ 공장에서 감저 받아가기 전이는.

103059 # 감저 받아가기 전인 그렇게 많이 안 낫어.

103059 @ 아.

103059 # 이녀 먹을 거. 먹을 거 씨 놈두고 그자 혼 구덩이 혼 세 개 쫘. 헤영 팡 묻으민 혼 구덩이는 씨 놈두고 두 구덩이 건 우리 파멍 청 먹고. 걸 때로 사니까. 정심 저녁 어뎜 땐 저녁 밥 쪼금 실 땐 감저 처근에 그자 그 밥 흐뎜 신 것에 감저 청 먹영 저녁 땐 어질영 설러불고. 정심 땐 주로 감저만 청 먹고 옛날에.

103057 @ 감저는 절간혜근에 험니께, 빼떼기.

103057 # 응 빼떼기.

103057 @ 빼떼기 허는 건 어떻?

103057 # 빼떼기도 이 감저공장 나기 전이 빼떼기 허멍 풀았어. 풀아근에게 것도 잘 물리와 지면 일등품에 가곡 경 안허민 썩어불민 삼등에도 가곡 이등에도 가곡 허민 돈이 멧 폰 안뎜여. 경해도 그걸 헤영 풀아사 비료 값이라도 허젠허민 그걸 푼는 거고. 또 이 전분공장 남 시작허난 빼떼기 설러비뎜 그자 전분공장드레 그냥.

103057 @ 한꺼번에.

103057 # 한꺼번에 들여부는 거지. 마다리만 앓다주민 그디 담양 내불민 지네냥으로 건 시꺼가는 거.

103057 @ 빼떼기헐 땐 어떻 헤낫수과?

103057 # 빼떼기, 이거 돌르는 거.

103057 @ 기계예?

103057 # 응 기계 영.

103057 @ 밧딤서?

103057 # 밧딤서 영 돌르는 기계 이서. 감저 써는 기계, 감저 써는 기계 허멍 지 영 가근앵에 그디 감저 담아낱 흐나씩 들이치멍 영영영영 기계 손으로. 경헌디 것도 풀 아괘이. 썰 아괘 글체에 담아나민 작허게 어디 테역밧디 썸 감저 앓다낱 허민 그거 널영. 감저 빼떼기 헐 때가 또 힘들영. 써는 게 힘드는 게 아니고 돌류는 게 힘들어.

103057 @ 비 와불카부덴.

103057 # 비 와불카부덴. 비 왁직 허민 밤이 강 그놈 다 모두와. 또 날 좋아가민 널어 경허당 봐도 썸여불 때가 하. 시커멍케 썸여불 때. 어떻헤영 감저 빼떼기 흐루 이틀에 끌리지 안헤여. 사흘만 벳브름이 나민 브름 불멍 벳이 나민 사흘만 허민 썸지 안허는디 이거 썰영 널 날 종카부덴 오늘 썰민 널은 비와불민 모되놓민 썸어부는 거. 시커멍케.

103057 @ 아이고.

103057 # 썰 감저빼떼기 헐 때가 어려와. 게난 밤이 헤, 경허민 밤이 줌 못 자. 비 왁직 현 댐 어디 테역밧디나 간 댐 박박 연주기 종주만은 감저 그르에 흑밧디 널어 논 건 흐나로 강 좃어야 돼여. 흐나로.

103057 @ 아.

103057 # 경허민 비왁직 현 댐 줌 못 장 초저냐이 강 그것 강 막 좃어, 좃어. 게도 들 신 때는 괜찮아. 들 엇인 댐 줌도 못헤여. 들 엇인 때. 감저 빼떼기 헐 때가 썰 어려와.

103057 @ 응. 감저 빼떼기 옛날부터 행 먹어났수과?

103057 # 응 옛날부터.

103057 @ 그 감저 써는 기계 엇일 댐 어떻헤났수과? 그때도 감저 빼떼기 헤났수과?

103057 # 감저 빼떼기 써는 기계가 이거 제국시대부터 나는 거라이. 제국시대에 감저 빼떼기길 허라 헐 이 기계가 제국시대에 나온 거라. 경허난 그때부터 기계는 이서근에 우리 두린 때 보민 그 감저 썰어근에 빼떼기 행 물리왕 걸 공출허렌 허는 거라이. 공출허민 이제 그 제국시대에 우리가 감저 헤영 바찌렌 그걸 멧 가맹이 헤영 바찌렌 허민 걸 바찌 놔두난 요디 들어가는 디 요 태흥리 일로 들어가는 입구에 어디 크게 옛날 창고엔 헤사 초집이라. 크게 창고 짓언에 문 받으면 제국시대 받으면다 잔뜩 데면에 해방은 댐난 누게가 그걸 돌보지 안헐 내부난 해방 댐 누게 임제 엇이난 흐 번은 이 법에서 나상 그것들 앓당 먹을 사름은 앓당 먹으렌 헐 간 보난 문뜩 썸어부난 먹을 게 이서.

103057 @ 아이고 죽헌 거.

103057 # 경해도 아저오는 사름은 아저단 우리도 아저와신디 우리 어머니가 물에 킨 막 울봐도 먹지 못헤여. 튼내 난 먹지 못헤여. 켜 먼 도새기덜 쥐빋주. 먼 돼야 지 질룰 때난 도새기덜 쥐빋주. 겨난 이거 감저 우리 역안 보난 이거 감저 써는 기계가 난 거라. 일본서 온 거엔 허멍 경헨 그거 감저 빼떼기를 허는 건디 테역빋디 년 때는 감 손으로 삭 허게시리 영영 허민 모뎀기기 쉽는다 정헨 감저 그르에 썰영 흑빋디 년 건 하나로 좃어야 돼어. 하나로. 흑 부뜨지 안허게 허젠 하나로 좃어야 돼어.

103057 @ 영 좃으는 게 아니고 영 좃어?

103057 # 응, 그거야 툃툃툃 좃으는 거.

103057 @ 툃툃툃 좃어.

103057 # 응, 좃어근에 그자 무신 마다리나 무스거 이스민 툃툃 좃어당.

103057 @ 답아.

103057 # 답아당 혼 빋디레 비우곡 비우곡 허민 경헨 거주게. 게난 우리가 쥔 힘 든 게 농스 저근에 감저 빼떼기 썰 때 그때가 힘들어.

103059 @ 감저는 감저꿀 걷을 때도 힘들고, 씨 가냥허는 것도 힘들고.

103059 # 그것이 쥔 감저가 씨 가냥 허는 거 힘들고 또 꿀 놓는 건 힘들지 안헌디 모중 놓고 꿀 걷는거, 빼떼기 허는 거 그것이 쥔 힘들어.

103059 @ 감저는 성가시다예.

103059 # 잘도 성가셔. 경헨디 그 빼떼기 아년에 감저 낱 파근에 공장드레 들일 때 그뎀 줌 한글허여. 비가 오고 아무겘 허고 파근에 그자 마다리레 담양 내불민 지네냥으로 시꺼 가는 거.

103057 @ 감저는 쫄 엇일 때 밥으로도 떡곡 또 무신거 헿 먹는 거꽈?

103057 # 쥔도 먹고 그자 이 보릿ㄴ루고 무시거고 낱 범벅, 범벅도 헿 먹고 원 그거. 주로.

103057 @ 이건 떡은 안헤 먹는 거꽈?

103057 # 떡은 못 헿 먹어. 감저 빼떼기, 빼떼기 ㄴ룬 떡헿 먹어.

103057 @ 어, 겨난.

103057 # 빼떼기 ㄴ룬 영 돌레떡도 헿 먹고 친떡도 처 먹고.

103057 @ 아, 이겘로 친떡 헤저마씨?

103057 # 응, 친떡 헤어.

103057 @ 오.

103057 # 감저 ㄴ루에다가 또 감저 낱 버물여근에 시리에 낱 친떡도 처 먹고.

103057 @ 건 무신 떡이엔 허여, 감저 친떡?

103057 # 응, 감저 친떡. 경헨영 친떡도 처 떡곡 임시 우리 혼빨 헿 떡구정 헌 건 돌레떡 만들영 이녀냥으로 돌레떡 만들양 숲양 그자 그겘로 먹고.

103057 @ 돌레떡은 영영 줍양 둥글락허게 만드는 거예? 넵작허게예?

103057 # 응. 경헨 그것도 먹고. 감저 ㄴ루도 여라가지 헿 먹어. 떡도 헿 먹고.

103058 @ 계난 예. 감저 꿀이 전이 걷은 감저꿀은 뭐 허는 거파?

103058 # 감저꿀은 므쉬 신 사름은 므쉬덜 문 앓다줘. 우리가 므쉬 엇이난 봄 낭 쉼 빌영 밧 갈젠허민 감저꿀 문 물리왕, 감저꿀 물리와 놉근에 문 무꺼농곡 행 감저꿀 시꺼 갑서, 쉼 신 집이.

103058 @ 아.

103058 # 경행 그거 쫓다근에 므쉬 출로 들어가는 거난. 그거 헛다근에 그것에 지 쉼 빌어다근에 밧 빌영 같아. 경허는 거 감저꿀은.

103058 @ 그민 이것도 물리와사 허는 거?

103058 # 물리와사.

103058 @ 밧디서?

103058 # 밧디서 막 파썩 물리와근에 문 놀영 놉두는 거난 물류지 안허민 놀민 썩어불주게. 겨난 므쉬 썩은 거 안 먹어, 겨난. 썩 파썩 물리와근에 무경 ‘감저꿀 물린 무꺼놉시메 시꺼 갑서’ 허민 시꺼가. 므쉬 신 사름덜.

103058 @ 감저꿀은 밧디 놀영 내부는 거파? 집이 안 가져오고?

103058 # 밧디 아니 놉 그디서 무경 내불민 시꺼 가는 사름 쉼 신 사름 집이 시꺼가. 집이 시꺼가야 겨울에 눈 온 때도 빠 주곡, 빵 쉼 주곡 허주. 비온 때나 어디 밧드레 빠레 와져.

103058 @ 계난예.

103058 # 겨난 집이 그거 다 므쉬 신 사름 쥐불민 가져가민 그거 쫓당 봄 나민 쉼도 빌곡.

103058 @ 응. 그 값으로.

103058 # 밧도 빌영 갈곡 경허는 거. 이 조남뎡이도 그렇고 감저꿀도 그렇고 므쉬 신 사름 다 도렌 허여.

103058 @ 아 맥이젠?

103058 # 응 맥이젠. 조남뎡이도 이거 조남뎡이 이 쉼 먹는 것이 우리 지금 이저 나륙밥 먹듯 맛이 좋덴 허는 거라.

103058 @ 아 소가 좋아하는구나예.

103058 # 응 감저꿀광 이제 조남뎡이.

103058 @ 아, 소가 쉼 좋아하는 거이.

103058 # 쉼 좋아허는 것이 그거엔 허주. 경허난 조남뎡이나 감저꿀이나 아져가렌 허민 막 좋아허여. 남저덜이. 아이고 이거 쉼 먹영 좋겐

103058 @ 고맙덴예.

103058 # 고맙덴 헤여.

103058 @ 쉼출보다 그게 더 좋아.

103058 # 그냥 이저 산에 강 비어오는 잡출보단 그게 좋은 거. 그게 좋은 거.

103058 @ 응 맛좋구나.

103058 # 경허민 산에 강 비어온 출은 하루 두번, 두 번 주민 요거 조칩은 하루

줘. 조남탱이는 하루 한 번 줘.

103058 @ 아 한 번만. 응

103058 # 감저꿀도 하루 한 번 줘.

103058 @ 아껴근에.

103058 # 응 아껴근에. 경해게. 소 이신 사름덜은 경해여.

### 기타 농사

103067 @ 그다음에는 메밀. 메밀이엔 곱읍니까? 옛날엔 뭐엔 곱아났수과?

103067 # 옛날엔 모를.

103067 @ 모를. 모를 해난 거.

103067 # 모를 남탱이 그든 거는 동시에 담아놔. 짓도 걸름허젠. 모를 남탱인 통시에 담아놔.

103067 @ 모를은 언제 씨 빼는 거과?

103067 # 모를은 요거 씨 빼지 안허여. 요건이 불경에 다가. 불 습아난 불경에 머물영 출구덕에 영 뿌러멩 줘아놔.

103067 @ 아.

103067 # 이젠 씨 작 뿌령 빼영 이 저 비료 시난에 씨 작허게 뿌려근앵에 경운기로 탁탁 두드령 내부는디 옛날엔 요추록 골로 같아이. 밧을 초불 갈앙 낫다근에 이 건 초불 검질 조팍디 초불 검질 매어난 후제사 흐쓸허민 늦인 애기 나민 요건 모를 농스 경허듯이.

103067 @ 어.

103067 # 건 다 농스해난 곳에 맨 막곳에라 이건. 밧디 조팍디 검질 매다근에 흔 칠될 초에나 돼 가민 이리 가근에 이건 흔 너이라. 골만 영 자르르르 허게 긋어 가는 거난. 쉼 아정 강 세백이 가근에 붉기 전이 들 신 때 밤이 곱 긋어. 더우카분덴. 겨민 아정강 부경 시꺼다 낫당 불경에 확확 서경. 옛날 비료 엇일 때. 불경에 서꺼근에 이놈으 출구덕 담앙 매어근에 줘아놓는 거주게. 요 고랑드레.

103067 @ 응 고랑드레.

103067 # 줘아놔.

103067 @ 그 다음엔?

103067 # 줘아놓민 그걸로 쫓. 경행 쫓어불민 쫓.

103067 @ 뭘로 쫓어.

103067 # 쫓는 거는 꼬슬퀴 꼬슬퀴허멍 나무이파리 녀짜허게 만들어근에 영 뿌러멩 이레도 쫓곡 이레도 쫓곡 허민 쫓어가민 막아져. 흑 막아정 허민 그걸로 쫓.

103067 @ 게민 쫓? 쉽다예

103067 # 응, 그거 모를 카는 거 쉬와. 경행 갈아근에 그 모를은. 가는 거 이제도 뭐 씨 빼어근에 이젠 경운기로 확확 두드령 나가민 비료 확허게 헤불민 좋는다.

103067 @ 꼬슬퀴로 쫓는 건 모를만 허는 거과, 아니민 다른 것도 경 꼬슬퀴로

끗는 거봐?

103067 # 꼬슬퀴로 끄는 건 모를베끼 벨로 끄는 거 엇어. 모물은 이거 영 고랑에  
줍아놓민 그걸 끄영 영 이것이 영 파니 지러기민 영 끄어비사 흑이 이레 더퍼지는  
거. 흑 더뜨는 거 그진. 꼬슬퀴로 끄는 건. 흑 더퍼주는 거, 모물에.

103067 @ 모멸 흠뻑씩 나가민 이것도 검질 매 쥐살 거 아니?

103067 # 아니, 검질 안 매어. 모를팻디 검질 안 매어. 검질 엇어. 늦어근엿에 갈  
아부는 따문에 검질 안 나. 시기가 늦어가난. 검질 나는 때가 다 잇는 거라. 모를팻  
된 검질 엇어.

103067 @ 갹 끄 피영 헤양허게 요즘 막 피어십디다. 모멸끗.

103067 # 어 이제 모를끗 막 피엇어. 이제 흠뻑 시민 그 모를끗 피영 열아가멍  
모를끗 채 아이 가분 때 비어, 모를도. 비멍 보민 모를끗 늦인 건 헤뜍헤뜍 꽃두메  
기 잇어이. 굽으론 모를 열앙 잇고.

103067 @ 어.

위에는 끄 핀 거 잇고 경 현 때 비어. 그자 조 비어난 끄에민 확확 비어. 모를 비  
젠허민 옛날엔 눈 인척 오난이, 요즘은 눈 인척 아니와도 옛날엔 모를 비젠 허민  
짐벙이 작작. 짐벙이 짐벙이허여. 눈에 비에 서꺼진 거. 그거 작작 맞이멍 모를 비  
어. 맨 막끗데 비주.

103067 @ 아.

103067 # 막끗데 농스 헐 때도 막끗데 허는디 비는 것도 막끗데 비어.

103067 @ 거난 예.

103067 # 게난 모를께 헤양 현 말이 맞다게.

103067 @ 예, 흠뻑 접수다. 흠뻑 지나멘.

103067 # 이제 지나 갈 때. 이거. 음력으로 구월이난에 이제.

103067 @ 구월 초부터 모멸끗 피엇저 피엇저 헨게만은 요번이도 보난 아직도 피  
영 이십디다.

103067 # 구월 뤼난 이제 흐 들.

103067 @ 모를 비영 그 다음에 어떻 허여?

103067 # 그때 모를 비영 지금 나가 곤는 게 아니 인척이. 모를 마당질을 모를을  
조금만 현 사름은 집이 시꺼오고, 원체 부젯칩이덜 하영 간 사름은 멍석 흐 으남은  
개 시경 가, 밧디. 시경가고 눅 빌곡 행 가근에 멍석 폐와냥 와작작와작작 흐 밧디  
서이씩 사고 경행 으섯 사름. 또 날라오는 사름 흐 사름. 또 이레, 이레 강 줍아 놓  
는 사름 두 사름. 경허믄 흐 여남은 사름 들어.

103067 @ 응.

103067 # 경허민 옛날엔 요샌 마다리 낫저. 옛날엔 가멩이에 맥에 경허민 이제  
맥으로 담아냥 그것도 절복행 또 췌에 시경와.

103067 @ 다 거기서 도깨질 헤난 걸 마다리에 담은 걸 시경와?

103067 # 응, 불리멍 불리멍 담아근에 여물만 담앙 믱쉬 신 사름덜 질메 지왕 갓

당 멩텅이에 딱딱 무끄멍 시껍와.

103067 @ 경 안행 흐뵀 현 사름은 집이 가정왕 집이서 마당질 허는 거지예?

103067 # 아, 집이서 두드리고, 집이서 두드리고.

103067 @ 거민 그 보리냥, 보리냥 아니구나, 모멸냥은 뭐 허는 거짜?

103067 # 모멸냥 경허난 그거 시꺼다근에 통시레 답아.

103067 @ 걸름으로.

103067 # 걸름으로. 모물 풍뎡이덜은 풍뎡이, 풍뎡이허멍 그 모물 불려나민 이파리 부서진거 돼야지 주고.

103067 @ 아 건 돼야지 주고.

103067 # 구진 물에 컷다근에 돼야지 주민 잘먹어, 그거.

103067 @ 아, 모멸 붕뎡이?

103067 # 응 붕뎡이, 붕뎡이 허여. 그거.

103067 @ 모멸 붕뎡이 건 돼야지 주고예?

103067 # 조풍뎡이, 모물풍뎡이 거 문 도야지 먹어.

103067 @ 아, 조풍뎡이 모물풍뎡이.

103067 # 응 풍뎡이, 풍뎡이 허주게. 꺼풀.

103067 @ 이거는 꺼풀.

103067 # 응. 모물 뚜뜨려난 거나 조 두드려 난 거나 이제 이거 불령 깍드레 나간 거 막 훑은 거 말안 이거 모물 풍뎡이 영허멍 앗당 도야지 주곡. 또 조 불려나도 조풍뎡이 도야지 주고.

103067 @ 응.

103067 # 경허는 거. 문 도야지 옛날 도야지 질룰 때 그거 주멍.

103067 @ 게민 그거 헤근에 모멸썰은 어떻 장만허는 거짜?

103067 # 모물썰 정ㄱ레에 곶아.

103067 @ 아, 몰ㄱ레 안 가는 거 이건.

103067 # 아니, 아니 건 몰ㄱ레서 안 곶아. 정ㄱ레 놔근에 초불은 영 곶아냥 이젠 그 잠, 영 곶망난 디 영 옷착에 무시거 쪼쪼한 거 잇지.

103067 @ 응.

103067 # 그것에 딱시 뜸 놔근에 흐뵀 높으듯 허게 낡 영허민 혼 모물 세 불, 네 불이나 검퍼사 다 돼어.

103067 @ 아, 모물도 여러 번 헤야 돼는구나예?

103067 # 응, 검퍼는 거 여러번. 경헤영 초불 검평 체로 청 썰 내왕 또 우이 거 혼 불 검평 또 썰 내와앗앙 또 거피고 네 불이나 거퍼사 돼어. 거민 초불썰은이 허민 흐뵀 곶어이. 떡 지저도 검영 허메. 두불, 세불, 네불 헤가민 그놈으 거 ㄱ루 곶아도 헤양허고 빙을 지저도 곶와이. 초불 썰은 곶지 안헤 검영 별경헌 게.

103067 @ 이거 모물썰 헐 때 저 뭐 꺾데기?

103067 # 꺾데기 훑은 훑은헌 꺾데기 초불 곶아난 훑은 꺾데기는 베개 만들어.

베개 소꿉에.

103067 @ 모멸채.

103067 # 모멸채.

103067 @ 그 다음엔.

103067 # 그 다음엔 즈질아 불민 그냥 불 살좌불주, 불 살좌비어.

103067 @ 아, 그른 ㄱ루 나온 건 이건.

103067 # ㄱ루 나온 건 느쟁이가이 느쟁이, 느쟁이 허멍 그거는 뭐 범벅도 감저  
에 낱 범벅헿 먹어불고.

103067 @ 느쟁이 범벅.

103067 # 응 건 느쟁이 범벅 헿 먹어불고. 또 좍쓸 밥 헿 먹을 때 설게 현 팬  
그거 느쟁이 확 서끄민 밥이 복삭허여이. 게민 그거 밥에도 서경 먹고.

103067 @ 아.

103067 # 경 쓸 ㄱ루는 쓸은 낫당 제스때 묵도 허고 빙도 지지고.

103067 @ 묵도 허고 빙도 지지고.

103067 # 그거.

103067 @ 모멸은 묵허고 빙 지지고 베피 엇수과? 떡도 허는가 이거.

103067 # 떡도 허여. 친떡도 처.

103067 @ 모멸로도 친떡 처마씨?

103067 # 무수에 서경.

103067 @ 무수에 서경?

103067 # 응 무수 즈질이 썰영 서경 친떡 치민 복삭헌 게 맛있어.

103067 @ 모멸친떡 응.

103067 # 겨고 썩 잇잖아.

103067 @ 예.

103067 # 봄 나가민 썩 케어당이네 범벅헤 먹고. 메밀 ㄱ루 낱.

103067 @ 메밀 ㄱ루 낱. 이젠 쓸 ㄱ루 낱 썩떡.

103067 # 응 썩떡게. 쓸 글아근에 썩떡도 헤 먹고.

103067 @ 썩허고 메밀헤근에.

103067 # 빙 지정 먹고 묵 썩고 그거.

103067 @ 모멸은예?

103067 # 모멸 ㄱ루도 여라가지여. 만두도 즈양 먹고.

103067 @ 만두도 즈양 먹고.

103067 # 만두도 이 저 제물 때 옛날엔이 제물 떡 큰일 밧디 돈으로 부주 안헤영  
떡을 헤 가주게. 경허민 저 재료를 많이 들이지 말젠 허면 빙 지지고 손쉽게 헿 허  
젠 허면 그자 ㄱ루 빙빙 몰양 만두 즈야.

103067 @ 만둔 어떻게 꺼짜?

103067 # 만뒤엔 현 거 이디 만두 푸는 거 잇잖아이. 그추룩 영 동글랑허게 영



밀어놔근에 압지룽이 밀어놔 사발로 영 동글랑허게 뜨잖아. 뜨민 그레 무시거 감저  
친 거나 아니민 무수채나 속드레 영 낡 마주 톡 낡 영여영 접아불민 똑 접아져.

103067 @ 아 조개 송펜추룩?

103067 # 응 조개 송펜 ㄹ추룩. 원 그거 크민 만두고 족게 허민 조개 송펜이고.

103067 @ 계민 만두 속에는 아까.

103067 # 만두 속에도게 뭐 담지 안허여.

103067 @ 뭐 담아수과 아까, 감저?

103067 # 감저 청도 즈질이 채로 썰어근에 무수채나. 경행 담아근에 그 모플 만  
두는.

103067 @ 모플 만두는 이렇게 만드는 거.

103067 # 그거지.

103067 @ 밖에 쉬 무치고 영은 안헤?

103067 # 쉬무치는 거?

103067 @ 만두엔 안 무쳐?

103067 # 무사 안 무쳐? 풋쉬 무치고 경안허민 부떠.

103067 @ 아 거니까.

103067 # 풋쉬 무쳐.

103067 @ 풋쉬 무쳐 베꿏디?

103067 # 응, 풋쉬고, 개역이고 무쳐.

103067 @ 아 개역도 무쳐도 돼여?

103067 # 응 개역도. 이걸 부뜨지만 못허게 놓는 거라. 조근조근 놓민 부떠부네.

103067 @ 응.

103067 # 겨난.

103067 @ 이 모멸만뒤는, 모멸만뒤?

103067 # 모멸만두.

103067 @ 모멸만두는 어디 가져가는 거파? 언제 행 먹는 거파?

103067 # 그건이 집이서 제스헤 먹젠 헤도 그거 행 먹는 사름은 행 먹고. 또 어  
디 큰일 밧디 제물떡 헤가는 거.

103067 @ 아 제물떡.

103067 # 옛날은이 돈부지가 엇어. 제물떡으로만.

103067 @ 제사 때도 허고 제물떡으로도 허고.

103067 # 제스 때도 제물 들어오는 거 보민 만두 즈앙 들어와이. 우리는 이디서  
는 빙 지정 내놓는디 어디 저 딸덜이나 누게 오는 거 보민 제물떡 행 오는 거 보민  
그걸로 만두 즈앙 와.

103067 @ 빙 대신에 허는 거파?

103067 # 응 빙 대신에. 딸덜이나 어디 영 방상이나 혼 디 쪼끔 생각허는 사름은  
만두 즈앙 꼭꼭 만두 즈앙 혼 고령이엔 헨 거 차룽 쪼그만헨 차룽 이서. 그걸로 하

나.

103067 @ 혼 고령, 고령.

103067 # 응 고령으로 하나 그거 혜영 와.

103067 @ 재물로.

103067 # 응 재물로.

103067 @ 재물로는 게민 어디 상나거나 영헌디 재물로 갈 때는 만두 말고는 다른 건 안해?

103067 # 빙.

103067 @ 아, 빙?

103067 # 응, 빙은 지지젠 허민 막. 옛날에 우리 어머니넌 상제 하나에 하나씩 주젠허민 댓 상제 주젠허민 초저녁이 앗앙 붉도록 지지. 아이고 난 나 조라와, 아이고 못허कु다게 못허कु다. 조라왕. 요새추룩이.

103067 @ 빙에는 무수?

103067 # 무수채. 요새 2추룩 큰 판이 시민.

103067 @ 후라이판이라도 시민.

103067 # 그거 시민 혼 판에 두 개 세 개 지지거든. 요놈으 솟두쟁이엔 하나 넘어 못 허는 거라이.

103067 @ 영 옴폭혜부난.

103067 # 게메 알로 불 때어근에 낭불 때영. 아이고 어머니게 나 이거 조라왕 못허कु다게 못허कु다. 붉도록 초저녁이 앗앙 다섯 고령을 혜영 내놓젠 허민 붉도록 상제 한 집쯤은.

103069 @ 이디선 상웨떡은 안헐니까?

103069 # 이제 상웨 안헌다. 옛날에.

103069 @ 옛날에 그니까.

103069 # 집이서 혜 먹을 때만 상웨허주, 어디 재물떡으로 못 혜 가.

103069 @ 아, 재물떡으론 안혜여.

103069 # 못 혜여. 못혜여. 그거 허젠 허민 얼마를 금을 들이렌. 금이 하영 들어.

103069 @ 금이 하영 들어.

103069 # 겐디이 일뤼 여드레 가는 할망덜은 그거 행 가. 상웨 행 가.

103069 @ 당에?

103069 # 응, 당에 갈 때.

103069 @ 일뤼당, 여드렛 당?

103069 # 응 경헌디 갈 땐 혼 고령만 허는 거난이 밀쿠루 곱아. 건 밀로 혜여. 모들론 안웨지. 밀쿠루 곱아근앵에 쉰다리 혜 낫당 박삭허게 쉰다리가 시큼허게 케민 그것에 버물영 놔두민이. 겐디 요새 빵떡보다 그것이 맛있어. 그 빵떡이.

103069 @ 아.

103069 # 그 밀쿠루로 상웨. 상웨사 빵떡이엔 안헐 상웨, 상웨 헛주. 그거 피운

것이 맛있어났어. 요새 빵 보다.

103069 @ 상웨 안네는 쉬 안 놓니까?

103069 # 안놔.

103069 @ 아 그냥 그것만.

103069 # 그것만 행 동그려근에 놔두민 딱뚝한 디 놔두민 북삭허게 피민 처. 경행 우리 어머니네 허는 거 보민 일뤼당에 가젠허민 그거.

103069 @ 아까 옛날에 이디서 밀도 헤낫젠 허멍마씨.

103069 # 밀게. 밀을 헤사 상웰 허는 거. 밀상웨.

103069 @ 밀은 어떻 헤근에 허는 거짜?

103069 # 밀도 그거이 밀도 보리추룩 두드려사 까지는 거. 홀탕. 밀도 그 기계로 영 홀타. 보리 홀트는 것에서 홀타근에 도깨로 두드려사. 것도 마스락이 잇는 거라이. 경혜부난 경행 두드리당 보민 밀이 쫄이 나와. 쫄만 나오면 그거 불령 그 쫄 낫다근에 그 상웨떡을 행 먹젠허민 이눔으 밀도이 물 적저근에 물 마레 강 굴 건 하영 안나온다.

103069 @ 하영 안행 조금씩만.

103069 # 조금씩 허는 거난 물 적정 방에서 지는 거라. 방에서 두어불 지영 그 겁데기 벗어퓌 그뻐 정 마레 영영행 마는 것에서 마루 킬양 그거 빵떡 행 일뤼 여드레 가는 거나 허주. 어디 하영 가는 건 못헤여.

103069 @ 밀은 언제 씨 뿌리는 거마씨?

103069 # 밀도 보리광 마찌.

103069 @ 아, 보리영 마치?

103069 # 딱 보리광 마찌. 헤들 댐 흐쫄 보리보단 늦게 비고 갈 댐 보리나 마찌 같아.

103069 @ 아 이건 겨울에 겨울 농시구나예?

103069 # 응 겨울 농스, 겨울 농스 그건. 보리광 꼭 마찌 가는 디 흐쫄 익음이 더더. 겨난 보리 문딱 비어난 후제 말째사 비어.

103069 @ 비는 거.

103069 # 흐쫄 늦어.

103069 @ 밀낭은 무신거 험니까?

103069 # 밀낭은 그자 보리남텡이광 마찌 그자 통시레 담아부는 거.

103069 @ 아 패랭이도 이걸로 멘들아?

103069 # 패랭이. 그 밀남텡이 홀타나면 이 그 밀남텡이 속에 질어. 요만큼씩 질어. 모작으로 똑 끊영 영 빠민 이만큼씩 질어. 질민 그것이 또 요 꼬깁이 마는 꼬깁이로 율로 속 쫄렁 잇고.

103069 @ 아, 경허민 길어지는 거라?

103069 # 응. 또 문 헤여가민 쪽허민 율로 영영 짜, 손으로.

103069 @ 아.

103069 # 영혜영 요거 영 농곡 영 허곡 행 짜. 빙허게 경 막 걸게 짜놔근에 이제 우리냥으로 이제 패랭일 만들어 가는 거라. 처음에 꼭두메기부터 먼저. 꼭두메기부터 뱅뱅 혜영 요디 들어가는 거 혜냥 또 너부지는 흐쌀 영 그걸 안트레 가는 거 쪽 요영 재우명 부찌곡 베꿏디렌 영 늘좌가명 부찌곡 경행 패랭이 멘들양 쓰고.

103069 @ 아, 밀냥으로.

103069 # 응 밀냥으로. 것이 질겨. 보리냥 보다. 경행 허는 거.

103069 @ 밀냥은 그거 말고, 걸름허는 거 말고 쓸데기는 없는 거?

103069 # 쓸데기 엇어. 보리냥이영 그찌 그자 통시레 답아부는 거.

103069 @ 밀도 겨울 농시난 저 보리영 비슷허게 검지도.

103069 # 응 검질도 그찌 매고 보리 갈 때 그찌 같고. 빌 때만 보리보다 흐쌀 늦게 비어. 흐쌀 늦게 비는 거.

103069 @ 밀은 막 하영은 안 허고예?

103069 # 하영 안허여. 쪼끔쪼끔. 혜떡을 일 한 사름이나.

103069 @ 상웨떡 멘드는 거베끼 밀은 쓸 일 엇인가?

103069 # 쓸 일 엇어. 무신 빙을 지저져 뭇 혜여. 빙도 못 짓고 그자 상웨떡 혜영 먹고 그자 묵 지지는 거.

103069 @ 밀로도 묵 지집니까?

103069 # 묵 지저. 묵은 지저.

103069 @ 묵은 지저?

103069 # 응. 묵 지저근에 그자 거. 묵 지지는 거 허고 상웨 피우는 거 허고.

103069 @ 상웨 피우는 거 허고예.

103069 # 기자 옛날엔 그걸로 행 그레에 검퍼근에 영 두 개씩 벌러지게 거핀덴 혜여. 그거는 거핀덴 정그레서 검평허민 그거 컷당 접지랑 풀, 옷에 풀 맥이는 거.

103069 @ 아 옷에 풀 맥이는 거.

103069 # 응. 그거 접지랑 쭈영 옷에 풀허는 거. 옛날엔 미녕옷만 입어시난 풀 아니허민 못 입지. 경허난 그것에 흰 옷덜 입영 광목옷, 미녕옷 그것에 흰 옷 입어 노난 케나저나 그거 컷다근에 즈늘민 막 접지라근에 접지랑 걸로 풀 쭈근에 풀 허는 거. 풀허는 거. 상웨떡 만드는 거. 기자 떡도이 묵은 지저져. 알롭게 정기 못 지지고 묵은 지저. 걸로 묵 지저 먹는 거.

103060 @ 이 동네는 수박이나 참웨 이런 거는 안헤낫지예?

103060 # 안헤난, 허는 사름 엇어 이디.

103062 @ 고치는?

103062 # 고치는 싱거. 많인 안 싱그는디 이녁 먹을 건 다 싱거.

103062 @ 먹을 것만.

103062 # 응 먹을 것만 싱거.

103062 @ 고치힐 때 특별히 다른 농사영 다른 거 잇수과?

103062 # 다른 농스 무신거 이디 사름덜은 미깡허고, 그자. 고치 이녁 먹는 거

허고 콩도 이 검은 콩ㄴ쁜 거 콩 이파리 툃아 먹젠 쫄쫄쫄 많은 안헤여.

103063 @ 아니 옛날에 헤난 거예. 배추도 옛날에 갈앙 먹어낫잖아예, 배추는 어  
명행 갈앙, ㄴ물, ㄴ물은 어떻 갈아근에 허는 거파?

103063 # 옛날 배추. 갈아도이 이 중간으로 이레 비료 난 후제는 심어이 모종 낫  
당. 심을 때도 잇고 또 경 안행 그냥 씨베영 갈앙 그자 소파. 소파. 소팡 다박다박  
헌 거 웨엄직 헌 것더레만 비료 톡톡 행 놔두민 씨만 존 거헤당 허민 퍼기 안아.  
퍼기 안으멍 그냥 걸로 김치행 먹고.

103063 @ 퍼기 안아가 뭐.

103063 # 퍼기엔 헌 거 이제 요렇게 영 퍼기지잖아.

103063 @ 속 앓이는 거?

103063 # 응 속 아지는거. 것ㄴ라 퍼기. 혼 퍼기.

103063 @ 혼 퍼기. 옛날 ㄴ물덜은 영 속 안 앓고 영 퍼데기처럼.

103063 # 퍼데기도 잇고. 저 당배추엔 헌 거이 속은 영 요 색 배추ㄴ추룩 웅크려  
지진 안헤여. 웅크려지진 안헤도 요영 헤지멍 부드러와. 그거 당배추 당배추 헌 거.

103063 @ 당배추.

103063 # 당배추엔 헌 것이 영 속은 안 앓아도 그것이 부드러왕 허민 그거 케다  
근에 쫄물에 죽어둬서라.

103063 @ 짐치?

103063 # 짐치행 먹엇지.

103063 @ 그건 밧디 하영 가는 이디 어디 우영에나.

103063 # 응 이녁 먹을 만큼씩. 많이 갈앙 누게 폰나 누게 주나 안허고 이녁 먹  
을 만씩.

103063 @ 우영이나 아니민 밧디 예염예?

103063 # 흥끔씩. 이녁 먹을 만씩만.

103064 @ 늣베도?

103064 # 늣베도 그렇고.

103064 @ 늣베영 배추는 씨는 어명행 받는 거파?

103064 # 씨도 그냥이 배추씨도 갈앙 먹당 멧 개 내불민 씨가 올라와이. 올라오  
민 그거 털영 또 같고. 무수도 매어먹당 내불민 씨 올라오민 그거 밧앙 갈곡. 겨난  
요즘은 다 사단 햅주만은 그전이 다 이녁대로 씨 받으멍.

103064 @ 씨 받는 늣베나 ㄴ물은 무신 거엔 굳는 말 이수과?

103064 # 엇어.

103064 @ 무신 ㄴ물 무신 무수 영.

103063 # 소매추 당배추 요거베끼 엇엇저.

103063 @ 소매추, 당배추?

103063 # 소매치엔 헌 건 이 퍼기 안 안아.

103063 @ 퍼기 안 안는 거.

103063 # 응, 끌여 먹음만 허는 거. 국만 끌여 먹는 거고. 당배치엔 현 건 배추가 속은 안 앓아도 배치가 헤영허여이. 헤영허고 얼랑얼랑허고 소비치엔 현 건 흐쓸 감시롱 헤여. 배치 이파리가 빼닥빼닥허고.

103063 @ 빼닥빼닥허고?

103063 # 계난 그건 국 끌여 먹는 거고 당배치엔 현 건 김치 담가 먹는 거고.

103063 @ 응.

103064 # 옛날에 무신 단지무수엔 현 거 몽클랑몽클랑현 것그라 단지무수, 단지 무수헤여 이. 그거허고 쉼뿔무수는 우트레 꾸작꾸작 올라 간 거.

103064 @ 쉼뿔무수?

103064 # 응 우트레 꾸작꾸작 올르는 건 쉼뿔무수라. 쉼뿔무치 영 질잖아게.

103064 @ 아.

103064 # 그건 쉼뿔무수. 또 몽클락 현 건 단지무수. 그거 두 가지, 우리 헐 때. 이젠 문 무수고 무시거고 문 사명 떡곡 배추도 사명 떡곡 해도 옛날엔 사나지 안헐 저.

103064 @ 이제 무사 열무집치, 열무집치 험니께 그 열무집치는?

103064 # 옛날엔 그거 엇엇어. 이디션 그거 엇언.

103064 @ 츠마긴 무신거파 그문?

103064 # 츠마기엔 현 거 체암에 열무 무수 나올 때 쟈헐헐 때.

103064 @ 아 무수 처음 나올 때, 쟈헐헐 때. 그거 소끄멍은에.

103064 # 응 쟈헐헐 때. 소파 먹을 때. 츠마기 츠마기.

103064 @ 그걸로 헝 츠마기허는 거.

103064 # 응 츠마기츠마기 허는 거.

103064 @ 그게 열무는 아니지예? 이제 열무영은 트난 거지예?

103064 # 몰라 그 누물이 흐쓸 틀린 건가? 것도 춤누물은 춤누물이다. 지금 무수 닦은 누물이다 그게. 무수 닦으면서도 요새 나는 그 저 요새 나는

103064 @ 열무.

103064 # 열무 그씨가 그썬 거라. 츠마기엔 현 게 말만 틀렸지. 그것이 왜냐면이 누물 색제가 보민 요새에 누물광 그거 그따. 츠마기, 츠마기 해도 열무나 마찬가지로 그것도 막 그냥 뽑으멍덜 우리 이디서는 그거 뽑아근에 기냥 어디 플레도 안 가고 이녀 먹을 거 조끔 해주만은 시르레 강 보민 그거 그뎌 콘테나 헝 강 막 시장에 강 폭는 거 보민 츠마기 츠마기허멍 폭는 거 이제 열무 그거라. 마찬가지로.

103064 @ 아까 춤나물이엔 헤신디 춤나물은 무신거?

103064 # 춤나물 그거라.

103064 @ 그게 뭇디?

103064 # 꺾사 곶은 거.

103064 @ 무수?

103064 # 무수.

103064 @ 무수 밑에 하양현 건 무수고, 우에.  
103064 # 우트레 이파리 나온 건 찰늬물.  
103064 @ 이파리는 찰늬물. 아. 이파리는 찰늬물. 밑에 하양현 건 무수.  
103064 # 처암 갈 때 찰늬물 갈아사컬, 찰늬물 갈아사컬 혜영 갈앙 뽕아먹을 땐 그걸 무수이파리엔 안행 찰늬물 찰늬물허당 무수 커가민 무수 이파리.  
103064 @ 아 나중에는.  
103064 # 무수가 커가민.  
103064 @ 어릴 때.  
103064 # 어릴 땐 찰늬물 무수 커가민 무수 이파리.  
103064 @ 무수 이파리.  
103064 # 아이고 혼 가지로 멧 가질 곶암시냐게.  
103065 @ 게메. 지슬도 갈아났지예?  
103065 # 지슬은, 요샌 감저, 감저해도 옛날엔 지슬. 조금 조금 율로 요만씩 갈앙 이녁 먹을 만이.  
103065 @ 먹을 만이.  
103065 # 먹을 만이 옛날에 그자 그거 혜영 썬 먹고 그거행 그자 반찬이나 흐뭇 이녁 먹을 거. 이젠 계란 그것도 벨로 안헤. 벨로 안헤여. 가을 것도 안허고 옛날엔 봄 것만 행은에 가을 거 안헤여.  
103065 @ 이젠 두불 허잖아예?  
103065 # 이젠 두불. 가을 거허고 봄에도 허고 두 불.  
103065 @ 감전 무신거 행 먹읍니까? 아, 지슬은 지슬.  
103065 # 지슬, 아 그냥 쟁도 먹고 그걸로 해근에 푹푹 썰어근에 뭐 찌개 할 때 찌개에도 낵 ㄴ찌 행 먹고. 또 그것만 채로 썰영 또 양념 농곡 보강. 경행.  
103065 @ 이제나 똑같네.  
103065 # 이제나 꼭ㄴ따. 게민 그거 무신 반찬해 먹젠 허민 딱딱허게 훑게 썰영 놔두고, ㄴ찌 찌개해 먹는다.  
103065 @ 떡도 헤먹읍니까? 지슬로 떡은 안행 먹어?  
103065 # 지슬로 나 떡 행 먹는 거 못 봤어. 켜디 저 육지 아줌마덜 곶는 거 보민 지슬 그 봄지슬 알맹이 탁 향아리 물 농곡 담양 놔두민 것이 막 썬나 허는 거라. 썬으민 막 젓어근에 건데기 건져똥 놔두민 드르륵 칭이 앓는 거라. 칭 앓이민 그거 또 딸라똥근에 물 놔근에 그걸 막 또 즈진 채로 걸렁 제라헌 칭만 앓져근에 혼 두 불만 율라더근에 떡허민 그렇게 맛있덴.  
103065 @ 아니, 썬은 내 안나?  
103065 # 율라비엄거든. 물에 낵 율라근에 또 그거 곶라앓이민 물 딸라똥 따시 새물 낵 막 젓영 또 놔두민 우러나명 또 곶라앓이민 두번 세번만 율라불민 막 좋넌.  
103065 @ 제주도에선 그런 거 안헤났지예?

103065 # 제주도에선 안헤여.

103065 @ 우리 옛날엔 그런 거 안헤낫지예?

103065 # 안헤봤어. 지금도 제주도엔 안헌다. 육지 사름덜이나 그거 허지. 우리가 지슬을 옛날엔 지슬, 지슬헛주. 요즘 감저엔 헤도. 그 초랭이덜은 먹을 나위 엇이민 내불엇저.

103065 @ 초랭이가 뭐?

103065 # 쥌쥌헛 거 쥌랭이, 쥌랭이.

103065 @ 쥌랭이, 응.

103065 # 내부난 이디 육지사름덜이 완 살명 이걸 무사 내비엄수젠 허는 거라. 거 뭐 헛 거니 쥌쥌헛 거. 나 경허난 아이고 저거 담아다 썩이민 청 앓정 먹는다. 아이고 그까지 거 행 누게.

103065 @ 아. 그렇게 말헛.

103065 # 경헤낫저.

103066 @ 피도 헤낫수과? 피.

103066 # 피는이 저 저리왓이라고이 테역밧 간 거. 그거 처암에 갈아놓민 피 씨를 그디 앓당 뿌리는 거라. 그런 밧디베피 안 웅덴 허멍. 아니 영 헛 밧디 갈민 것도 막 좋는다 어떻헌 산디 저리왓, 저리왓 허멍 그 테역밧 처암 간 때엔 그 병덩이 강 탁탁 풀루와근에 그 피씨를 뿌리는 거라. 피씨 뿌렁 낫당 그 피 허민, 이눔으거 쥌 내왕 먹기가 경 어렵다.

103066 @ 산뒤보다 더 힘들어?

103066 # 아이고. 초불 굴곡 두불 굴곡 들꺾레 강 굴곡 두불 굴곡 세불 곱아가사 쥌이 나오는 거라이. 경허민 이거 혼 댛 불 곱아사 쥌 내왕 먹어.

103066 @ 아.

103066 # 쥌 제라허게 막 내와 먹젠 허민 경허민 막 어루와. 게난 방에서도 지언에 체 내와튀 또 지고 또 지고. 막 쥌 내와 먹젠 허민 댛 번 저사.

103066 @ 꺾데기 벗겨지는 게 힘든 거?

103066 # 응 꺾데기 벗기는 게 경 힘들어. 쥌디 밥은 헤 놓민 맛있어이.

103066 @ 아.

103066 # 메밀쥌에다가 그거 서경 밥 헤놓민 밥은 맛있어. 복삭헌 게. 경허는디 쥌 내 먹기가 경 힘들다 그게.

103066 @ 어떤 데서는 밑에서 불때어근에 딱뚝허게 헤근에 꺾데기 벗긴덴 헛 게만은 그렇게 안해?

103066 # 몰라, 우리 이 제주에서는. 요즘은 이 기계방이 나난 기계에서 꺾는 거는 쥌 내우기가 쉽주만은 옛날은 이 들꺾레서 곱젠허민 경 쥌 내기가 힘들어라.

103066 @ 아까 할머니 저리왓이엔 헤신디 저리왓은 무신거?

103066 # 저리왓이엔 헛 거 테역밧 가는 거. 쥌 두 개 메왕 갈아.

103066 @ 아 쥌 두 개 메왕 가는 거.



103066 # 요샌이 트랙타 시난 탁탁 쉰 밧이라도 강 다 갈주만은 옛날은 그런 기계가 옛이난 밧갈췌 막 쉰 밧갈췌덜 두 개 메와근에 사름으로 쟁기로 갈췌 허민 췌 두 개 메왕 갈아. 그 췌 밧을.

103066 @ 그개 저리왓.

103066 # 그개 저리왓이라. 경행 갈아놓민 그거 병덩이 풀췌 허민 그냥 병덩이 풀어져? 저 느 곴으민 알건가. 췌이엔 현 거 이서. 그런 거 아정강 이 췌이가 요영 뵈끔치로 막 두드려 그 테역 병에. 두드려사 풀주.

103066 @ 테역병에?

103066 # 응. 게민 풀와. 풀와사 그디 그거 풀와 흥 번 또 모를이나 경 피농스나 헤나사 것이 풀어정 탄 농스 헤먹주. 경 안허민 헤 먹지 못헤여. 경허난 그거 허췌 허민 힘들어. 저리왓, 저리왓 허멍. 아이고 아무집이 저리왓 험췌, 저리왓 갈암췌 헤라 허민 그걸 어떻 풀를 거니 허민 췌스렁 아정 가는 사름 췌스렁, 췌이덜 아정 가는 사름. 막 그 테역 풀루췌 허민 소리덜 허멍 막 풀와.

103066 @ 아.

103066 # 이젠 기계로 탁탁 풀와주만은 그때 손으로 막 풀루췌 허민. 게민 저리왓 갈아와근에 저걸 어떻행 헤 먹을 거넌 허멍.

103066 @ 저리왓 흥 다른 농사허기 진이 피를 잠깐 허는 거구나예?

103066 # 응 췌 먼저 필 들이쳐. 그 테역 병에 막 풀와낭 피씨 들이쳐 피 갈아냥 그 다음은 저 어디 산촌엔 가민 췌도 같고. 췌도 같고. 우리 두린 때 보민 우리 어머니네 췌 좇으레 강 오키여, 췌 좇으레 강 오키여 허민 아 췌은 어디 강 좇어 올거파 허당 보민 아이고 저 웃드르 저리왓 간디 췌 갈앙 내부느네 허멍

103066 @ 아.

103069 # 게민 강 소망인 날은 흥 말은 좇어 오는 거라. 췌을. 깐 거. 집이 오랑 짱 보민 흥 말을 좇어 오는 거라. 큰 마다리에 가근엔에 저 좇어 아정 정 오랑 집이 오랑 막 벳디 물렁 영영 부비고. 여물 나와. 야 소망인 날은 흥 말을 좇어 오는 거라.

103069 @ 췌은 게난 농사로 짓는 게 아니구나예?

103069 # 이 옛날 어른덜은 저 웃드르 밧덜은 농스로 짓는 게 아니고 그자 그 저리왓 갈멍 췌췌 그냥 뿌렁 내부는 췌이라. 게민 거듭지 못행 내불민 좇으레 강 오는 거.

103069 @ 췌은 게난 집이서 농사로는 안 허는 거파?

103069 # 무사 농스 허는 사름은, 집이 밧 이신 사름은 췌도 갈아.

103069 @ 아. 먹을 만이만?

103069 # 응. 먹을 만이. 겨민 무신 췌 서 말 헤 먹엇저. 너 말 헤먹엇저. 너 말 이라야 흥 말이 관뵈로 네 개난 너 말. 집이 큰일 신 사름덜.

103069 @ 쉬?

103069 # 쉬힐 거. 그거. 그거주 무신 췌으로 콩늬물도 놔 먹는 거 아니고 밥에

서꺼 먹는 거 큰일 때 잔치 때 밥에 서꺼 먹고, 떡쉬히고 그자 그거. 밧 이신 사름  
덜 기자.

103069 @ 오늘 농스헌 일은 다 글아진 철인가?

103069 # 다 못글아실 거여. 강 따시 오라근에 또 튼내명 또 곤곡 허주. 흥번에  
나 튼내지도 못허켜.

103069 @ 농사 짓는 거 이거 말고 다른 농사 지어난 거 이수과, 흑시?

103069 # 농사 겨난 거 난 몰르켜. 옛날엔 어떻사 헤신지. 나 역은 후젠 콩 보리  
그자 감저 그거. 지금 헤 먹는 거 고구마 이젠 농사 안지난 것도 몰라.

103069 @ 미짱은 언제부터 헛수과? 할머니 멧 살때 썸부터 이디 미짱냥 싱겨수  
과? 흥뽀 빨리 헛주 이딘예?

103069 # 미짱 이디가 젤 빨리 헤신디 이것이 흥 우리 큰딸이 오십 으섯이난에  
흥 오십 으섯이난 흥 오십년 웨엇구나. 조금조금 시작헌 건 오십년. 심기 시작헌 거  
오십 년. 흥 멧 년 새에 막 불어비서. 나 일본 간 오란 보난 막 불어비선게. 또 하  
우스 허곤딘 이거 멧 년 안웨고. 나가 안 허난 몰르주 하우스 영 불어나건딘 흥 십  
년? 십년 썸 웬.

103069 @ 오십년 전이 미짱냥 이디서 흥나씩 흥나씩 싱그기 시작헛구나예?

103069 # 흥나씩 흥나씩 싱것어.

103069 @ 경행 이제 다른 농사 안허고 다 미짱밭으로만 이젠예.

103069 # 이레는 흥 오십년 웨고 저 신하효드레는 흥 육십년 넘엇어.

103069 @ 아, 신하효가 더 먼저 헛수과?

103069 # 젤 먼저 헌 게 그디서 싱건 흥 십년 넘어가사 이레 싱것어. 겨난 젤 저  
신하효가 옛날 완전 촌이라났어이. 게단 이 미짱을 험 시작허난 부자가 와락 웨부  
는 거라. 도시가 웨어분 거. 겐 그디서 미짱에 돈을 삼 시작 헤가난 썸썸 썸썸 썸  
헤 오는 게 경 웨불언.

103069 @ 이제 미짱베끼 안허주예?

103069 # 이젠 미짱베핀 안헤여. 다른 농스 베랑 허는 험 밧도 엇고. 미짱 농스  
다 헤부난. 이레 험 농스가 엇어.

#### 4. 들일

##### 소 기르기

104001 @ 소는 어떻게 기릅니까?

104001 # 소를 어떻게 길르느냐고?

104001 @ 응.

104001 # 요즘은 저 목장에 낵 질릿주만은 옛날엔 쉼막이라고 영 밧거리가 따로  
잇어이.

104001 @ 응.

104001 # 영 헛간, 헛간 허멍 기자 영 둘레로 담 싸 뇌근에 칸.

104001 @ 응.

104001 # 두 칸만 만드아근에 요쪽에 사름이 사용허고.

104001 @ 응.

104001 # 요쪽으론 이젠 영 남 세와 지등.

104001 @ 응.

104001 # 세와근에 그디 쉼 녹대로 걸려 메영.

104001 @ 응.

104001 # 겨울엔 돈딱 메영.

104001 @ 예.

104001 # 쉼 두 개고 세 개고 혼 사름 질루는 사름도 잇고 세 개, 네 개 질루는 사름도 잇고.

104001 @ 예.

104001 # 혼 새끼 뇌 놓고 혼 댓 개 질루는 사름도 잇고 허민 쉼 다 메여.

104001 @ 예.

104001 # 녹대 이만씩 질게 행 멧당 하루 혼 번 물 맥이레 가이.

104001 @ 응.

104001 # 물을 맥여 줘야 돼난. 이젠 집이서 물 줍주만은 옛날엔 그 소들을 멧 쉼 어멍 집이서. 막 풀어놔 짝 갯갯디 강 맥영 오젠 허민 물때 맞칭 가젠 허민 막 이 집 저 집 막 물때 맞칭 쉼덜 풀어 놓고 허민 싹꼭 난리라. 서로 쉼레더 부뜨고.

104001 @ 하하.

104001 # 게민 우린 므스왕 쉼 못 몰앙 멧겨.

104001 @ 응.

104001 # 서로 쉼레 부떠 놓민 사름이 죽고 살고 몰르게 막 풀어 놓민, ㄱ만이 멧다근에 혼쉴허민 막에 멧단 쉼 들러퀴듯 현다 허듯이 이건 멧당 풀어 놓민 쉼지 들르멍 듣는 게 일이고.

104002 @ 하하. 쉼도 털이나 털 색깔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까? 혹시 빨 모양에 따라서도?

104002 # 아니, 쉼 일름 이제사 쉼 일름 불르주 그자 암쉼민 암쉼, 밧갈쉼민 밧갈쉼.

104002 @ 응.

104002 # 그자 그거. 그자 쉼 일름은 혼 가지.

104002 @ 응.

104002 # 우리 집인 암쉼. 그자 밧갈쉼. 밧 가는 거는 밧갈쉼.

104002 @ 응.

104002 # 새끼 나고 암쉼 그자.

104002 @ 빨도 무사 영 쉼 빨도 있고 영 쉼 빨도 있지 안헤예, 쉼?  
104002 # 어, 쉼 빨도 영 곱닥허게 돈을 쉼가 있고 흐쓸 영 오그릇허게 돈을 빨도 있고.  
104002 @ 어.  
104002 # 건디 그 빨을 이름을 오그라젓저 폐와젓저 헨 말도 아녀.  
104002 @ 예.  
104002 # 쉼가 영 또 나이도 들어가민 빨이 요쪽 흐쓸 오그라져 가. 이것이어.  
104002 @ 아.  
104002 # 처음 나올 땐 곧장 나오는다 나이가 들영 오래여가민 쉼빨도 흐쓸 오그라지더라. 뱅허게.  
104002 @ 아.  
104002 # 경 오그라져. 밧갈쉼, 암쉼 그거주.  
104003 @ 쉼는 주로 뭐 헸 때 쓰는 것과?  
104003 # 소.  
104003 @ 밧 가는 거로?  
104003 # 밧 가는 거.  
104003 @ 어.  
104003 # 봄 나민 밧을 두불 갈아이. 초불 갈앙 풀 쉼여 낱.  
104003 @ 응.  
104003 # 또 두불 갈아사 농서 짓주. 경허난 밧갈쉼 매집이 엇어어.  
104003 @ 응.  
104003 # 매집이 엇어놓난 쉼 미릇부터 밧취야 뉼여. 겨울에부터 이제 우리 밧갈 거 얼마 갈 거난 얼마 갈아 줍쉼 헤영 다른 디 거 마트지 말앙 우리 것부터 먼저 맡아줍서 딱 절단을 허여.  
104003 @ 응.  
104003 # 경허영 쉼 빌젠 허민이 조 비어나민, 조코고리 툷아나민 그 조남뎡이어.  
104003 @ 응.  
104003 # 조남뎡이어도 앓당 쉼 줍쉼 앓당 주곡.  
104003 @ 응.  
104003 # 또 고구마 놔나민 고구마 줄.  
104003 @ 응.  
104003 # 그거 들류와근에 쉼고 들이고 줍쉼 그것도 주고. 경허민 그거 공짜 아녀. 밧이라도 흐루 갈아 주믄 허여.  
104003 @ 음.  
104003 # 그거 민 앓다 주곡 허멍 우리 밧 말앙 헤 줍서, 우리 농서 다 헤 줍서 허민 알앗저 허여근에 미릇에 그 촛로 미릇 술 쓰는 거라. 경허민 초불 갈 밧은 이

제 농서 보리 농서 안 현 밭. 그냥 겨울에 아무 농서도 안 현 밭은 초불 갈았다근에 또 농서 부찌고 경허는 때문에.

104003 @ 응.

104003 # 이제 보리 갈아난 밭 ㄱ튼 건 초불에 그냥 씨 빼여근에 초불 갈아가멍 씨 빼영 그냥 졸 불리고. 경 안 현 건 초불 갈아 낫단 두불 또 흐쓸 갈아근에 씨 빼여근에 경허는 거. 경허부난 쉼 부자칩이나 쉼 여라 개 메주 보통은 그냥 하나.

104003 @ 응.

# 암췌 하나 메는 사람 밭갈췌 하나 메는 사람 주로 경허여.

104003 @ 겐 주로 밭 가는 디 쓰는 거우다예?

104003 # 으, 밭 가는 디 쓰는 거.

104003 @ 밭 불르기도 허고예?

104003 # 응. 우리 ㄱ튼 사름은 췌 잇영. 벨 디도 잇고 출왓도 잇고 경허난.

104003 @ 응.

104003 # 경허난 이 출 한 사람덜 췌 여남은 개씩 질루는 사름은 부제칩이라이. 부제칩이민 팔월 낭 저 웃드르 여, 이디서 여제렌 헤도 몰르주. 저 일로 가단 보민 교래리 ㄱ디레 가가민 츠남밧디 잇잖여. 그 근방 저 그 오름덜 신 근방 그레 강 막 출을 허민, 문 이 출 비어나민 돌생기 다 좇어벼 혼 췌더레. 좇어덩 허민 낫, 호미로 안 비영 그 낫으로 영영 후리는 거.

104003 @ 응.

104003 # 허민 그 사름덜 다섯도 비고 열 사름도 비고 허민 가민 혼 딜로 꼭거치 사민 혼 사름 낫 영 허민 ㄱ찌, ㄱ찌 영 후려.

104003 @ 응.

104003 # 열 사름이민 열 사름이 ㄱ찌. 경허민 소리덜 내놔근에 막. 뵐, 뵐 소리 산지 소리덜 내놔근에 낫질 헐 땀 영 헤 가민 막 듣기 좋다. 보기도 좋고.

104003 @ 응.

104003 # 낫질 허는 것이. 게민 낫 열 사름. 열 사름 비민 무끄는 것도 열 사름 들어.

104003 @ 응.

104003 # 무끄는 사름도 열 사름.

104003 @ 예.

104003 # 게민 거 아싯날 비민 널 흐루 벧 맞췌사 모린 강 무꺼.

104003 @ 응.

104003 # 경허민 그거 문 무꺼당 요즘은 바레기 시난 중간에 바레기로 시켜 왓주 만은. 췌에 물에 질메, ㄱ사 거튼 건 질메 지왕 것에 허영 췌 여남은 개씩 행 막 시 경 느려오고.

104003 @ 응.

104003 # 출 경허나서. 경허단 중간으로 이렌 그 들바레기가 잇어낫어이. 게난

그 바레기로 시끄민 바레기 하나에 열 바리도 시끄고 경허난. 바레기도 시끄명 느리고 허난.

104003 @ 응.

104003 # 이 소소헌 사름, 부제칩덜이나 경허주 경 안 헌 사름은 소 하나 질루는 사름. 원 우린 원 쉐 질봐보지 안 허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때 소도 질루고 물도 질랐주만은 우리 두린 때라부난 그땐 어땡헌 주 모르고.

104004 @ 으, 소는 처음부터 밧 잘 가는 게 아니잖아예?

104004 # 아이고.

104004 @ 질 들이젠 허민 어땡허여?

104004 # 질 들이젠 허민이 큰 돌 ㄹ레, 아니 큰 돌이 아니고 우리 저 영영 ㄹ는.

104004 @ 응.

104004 # ㄹ레 잇지이. 그런 거 허영 두 개씩 메웁고 또 그 우터레 큰 돌 지들루고 허영 그거 꺾어근에 앞으로 상 이꺼. 밧 가는 걸로 또고냥에서 사름이 사곡 헤근에 이꺼. ㄹ리치젠.

104004 @ 응.

104004 # 경허민 이거이 흐쓸허민 새송애기 ㄹ르치듯 허단이 막 들러켜이.

104004 @ 하하하.

104004 # 막 드러눠 불고.

104004 @ 응.

104004 # 드러눠 불민 막 두드리멍. 또 요 소소히 두드리민 일어나지도 안 허여. 막 두드려 가민 저거 하나 못 전더 가민 일어나.

104004 @ 응.

104004 # 일어나젠 허민 막 빠드글락 빠드글락 거리멍 등기지 말렌 막 일어나젠. 경해도 빠드글락 거리멍. 경헤영 똑 흐루만 강 헤 오민 이틀차 가민 쭈글쭈글 허여.

104004 @ 응.

104004 # 쭈글쭈글 허민 이틀 찬 가민 멩에엔 헌 거 메웁고 장기 메웁고 허영 갈젠허민 체암인 사름이 이꺼이.

104004 @ 응.

104004 # 이꺼근에 똑 질 발봐 쥐사 돼여 그긴. 질 발랑 옆더레 이거 영 쪽 가젠 허민 우터레 올라사젠 허민 쑥 허게 머리 밀려주고 저펜더레 가젠 허민 영 등겨 주곡 허영 강 영 멩에 돌아올 땐 영 혼 이틀은 이꺼 쥐 사름이. 경허민 혼 이틀 허민 사홀찬 쉐가 영 사름 안 이꺼도 구짜 가단 옆더레 흐뎡 베씩 허민 옆이 줄 쪼금 밧가는 사름이 조롬에 산 영 등기민 또 고랑더레 똑 사고. 또 바우레 올라가민 요쪽 등기민 또 요 고랑더레 산 걸곡 경허여.

104004 @ 아.

104004 # 막 ㄹ르칠 땐 힘들어. 또 물도 ㄹ르치젠 허민 막 물들은 뒷발질 막 와

들랑 와들랑 들라퀴멍 거고.  
104004 @ 하하하.  
104004 # 경해도 경 헤영 ㄹ리치멍.  
104004 @ 응.  
104004 # 물도 탕 탕기고 물 바레기도 메우고 경했주.  
104005 @ 췌도 나이가 이십니게?  
104005 # 췌 나이가 잇주.  
104005 @ 혼 살 췌 췌는 뭐 곤는 말 잇지예?  
104005 # 췌 송애기.  
104005 @ 예, 췌 송애기.  
104005 # 또 흐췌 역아가민 부랭이. 역앙 밧 갈아가민 그뻐 밧갈췌.  
104005 @ 아.  
104005 # 그거.  
104005 @ 게민 멧 설 췌민 밧 가는 거라?  
104005 # 올리 나민 새해 혼 해 키워 또 새헐 밧 감.  
104005 @ 세 설 나민?  
104005 # 으, 세 설 나민 밧 감 배와.  
104005 @ 으, 그 곤는 말 잇수과, 금승, 다간 영 허는 말?  
104005 # 다간, 다간이엔 현 거 흐췌 역으민 다간이엔 허고.  
104005 @ 응.  
104005 # 금송애기엔 현 건 금방 낭 오래지 안 현 거. 사름 거트민 어린 애기덜.  
이건 금송애기 췌그만현 거 금송애기여.  
104005 @ 아, 아.  
104005 # 또 흐췌 역아가민 이건 일 년이 넘어가민 이건 다간 흐췌 역아가민, 흐  
췌 커가민 요건 부랭이.  
104005 @ 아.  
104005 # 게민 소는 혼 세 설만 나가민 밧을 갈아.  
104005 @ 응.  
104005 # 밧을 갈아. ㄹ르쳐근에 밧을 갈아.  
104005 @ 예.  
104005 # 물이나 췌나. 물도 세 설만 췌 가민 ㄹ리쳐. 무시거 췌는 거, 짐 시끄는  
거.  
104005 @ 아.  
104005 # 물은 짐 시끄고. 물은 밧은 못 갈아, 밧은. 물은 밧 못 갈앙 췌로만 갈  
앙 그자. 짐 시끄는 거. 그것덜 ㄹ리쳐 짐 시끄고.  
104006 @ 아까 잠대 얘기 해나신디 잠대 일름덜 막 잇어났수께, 벳 보섭 이런  
거 알아지쿠과?

104006 # 이름이 아니고.

104006 @ 어.

104006 # 뱃이엔 현 거는 영 녀작헌 거고.

104006 @ 응.

104006 # 보섭이엔 현 거는 영 녀작헌 거 놔 냐.

104006 @ 응.

104006 # 또 요레 똑 요 손바닥 보단 흐쓸 녀고 요만이 녀은 거 똑 요만인 현 거라.

104006 @ 응.

104006 # 게민 그 뱃은 영 녀작헌 건디 이 땅을 영 그 쫓그만 현 걸로 밧을 영 꼭 찢렁 영 갈아가민.

104006 @ 응.

104006 # 흑이 영 양펜더레 갈라지는 거.

104006 @ 아.

104006 # 영 녀작헌 거 이만은 녀은 거. 게민 영 그 봉웃지레 요축 죽은 거 꼭 허게 끼와근에 요걸로 밧 영 갈명 흑 영 올라와가민 녀작헌 거 흑 양펜더레 영 갈라지는 거.

104006 @ 응.

104006 # 경혜불민 이디 흑이 이펜더레 허고 이펜더레 가 불민 이거 고티랑.

104006 @ 이디 잡는 건 무신 거렌 곤고.

104006 # 쟁깃머령.

104006 @ 머력?

104006 # 으, 쟁깃떡.

104006 @ 응.

104006 # 이거 손잡이가 쟁깃떡.

104006 @ 으, 응.

104006 # 그거.

104006 @ 또 다른 건?

104006 # 다른 건.

104006 @ 잘 몰르크라.

104006 # 즈세히 몰라. 나가, 나가 췌가 질황 나가 밧 갈아 봐시민 이거 뵈이여, 뵈이여 허지만은.

104006 @ 아까 잘 알안게마씨.

104006 # 요디 허는 거 밧 갈 때 요디 허는 거. 요디 냐.

104006 @ 응.

104008 # 요건 명에.

104008 @ 응.



104008 # 율로 요 이디 야가지 요건 줄라 무꺼사 멩에레 췌 등기는 거라. 기운 내영. 계난 요건 접제기.

104008 @ 응, 접제기.

104008 # 멩에에 접제기. 우이 건 멩에.

104008 @ 응.

104008 # 영 즐 허는 건 벳줄.

104008 @ 벳줄.

104008 # 영 심영 똥고망에 상 요레 가가민 율로 등기고 또 요펜더레 가가민 율로 등기곡

104008 @ 응.

104008 # 또 말 안 들영, 제기 안 걸어가민 탁 후려.

104008 @ 예.

104008 # 허 허멍 탁 따리민 그 때 즐줄 즐 허게 나가. 경허주게.

104007 @ 아까. 질메 짐 지울 때, 질메도 짐 지울 때 이름이 잇어나신게?

104007 # 질메 지울 때 이 또꼬냥에 가는 거는.

104007 @ 응.

104007 # 고들게. 고들겐디 또 요 앞으로 췌 질메 지와 낭 고들게 거 헤 낭 율로 딱 제와사.

104007 @ 베로예?

104007 # 으, 베로 행 딱 제와사 질메 지민 영영행 몽글몽글 행 벗어지지 안 허는 게 그건 오랑, 오랑. 율로 영 즐라메는 건 오랑.

104007 @ 오랑.

104007 # 베 요펜으로 질메 지와 나근에 요펜 질메더레 딱 등겨근에 요펜까지레 이 베더레 등겨 딱 제와사 췌 질메 짐을 시끄민 영영 허민 벗어지지 안 허여.

104007 @ 응.

104007 # 오랑 그거. 췌 질메 오랑. 그거 허고 이 또꼬냥더레 끼우는 건 고들게. 그거, 그거베긴 몰라. 또 질메에 그거베긴 잇임도 허고.

104009 @ 목장, 옛날에 목장 헤근에 췌덜 막 올려놔수게?

104009 # 으, 지금 췌 올리듯이.

104009 @ 으, 그 목장은 어떻게 마을에서 공동으로 허는 거지예?

104009 # 공동으로. 공동으로 저 췌 목장에 강 마장, 마장 헤여이. 췌 마장에 올려사 허컬 봄 나가민 농사 마딱 저 나민 경허민 그디서 누게누게 췌 저 마장에 올릴 사름덜은 영 담 다와나근에 헐 거난 마장에 올릴 사름덜은 아무나대고 목장에 담 추리레 가게.

104009 @ 응.

104009 # 담을 높으게 싸 놔사 소가 어드레 나가지 안 허주게. 요새 다 췌 말목 밖으난 험주만은 옛날엔 담을 든든하게 다와사.

104009 @ 응.

104009 # 다왕 쉼 어드레 넘어가지 못허게. 다와근에 그 안에 가근에 마장마장 허멍 쉼 서른 사름이민 서른 사름, 열 사름이민 열 사름 그디 강 쉼 올렛당 혼 덜에 혼 번 담 터져시냐 강 막 돌아봐. 경허당 봐도 이 부랭이 같은 건 이 암쉼 소리 만 나민 그 담을 어떻사 넘어 가는디 넘어 가불민 쉼 좃지 못행덜 막.

104009 @ 하하하.

104009 # 화륙 허주. 경허영 허난 마장이엔 허여 마장 옛날엔. 게민 마장헨 허민 쉼 혼 열 머리도 가고 스무 머리도 가곡 허민 그 사름덜 수정이 다 가민, 혼 덜에 혼 번 담 추리레 가. 우리 마장 담 추리레 가게 행 강.

104009 @ 응.

104009 # 그 쉼도 돌아보고 또 담도 커져시민 높으게 다웁고 헤사 쉼가 기어나지 못 할 거. 경헨 허곡, 경 허단 봐도 어떻헨 튀어 낭 막 쉼 이어벤 막 농서철 브더가 민 난리라 쉼 좃지 못 행.

104010 @ 쉼 질를 때 쉼 힘든 건 어떤 게 힘든 거마씨?

104010 # 쉼 힘든 거 출 헤오는 게 힘든 거.

104010 @ 출 헤 오는 거. 쉼 맥일 출?

104010 # 으, 쉼 맥일 출 헤오는 게 쉼 힘들어근에 허곡 팔월 나가민 쉼 마장에 올렛당 ㄱ슬 들어가민 또 내려와 와.

104010 @ 응.

104010 # 내려 오민 이제 쉼 신 사름덜 서로가 도름 짓는 거엔 허는 건 우리가 만일에 얘기 어멍이 쉼 잇고 나가 쉼 잇곡 또 옆집이 쉼 잇곡 허민 쉼 다섯 개민 다섯 꺾 합쳐 놓민 혼 사름씩 돌아가명. 돌아가명 저레 내놔 ㄱ짜.

104010 @ 응.

104010 # 어디 먼 디 돌아나지 못 허게. ㄱ꾸단에 조 비어나민 조 비어난 조꾸루. 조 무경 다 시꺼간 줄 알민 그 밧디 가근에 막 맥여. 조 비어나민 그디 검질 잇이난 풀덜 잇이난 그 풀 맥이젠 막 그레 몰아가고. 도름 짓음이엔 현 게.

104010 @ 도름 짓은덴 허여.

104010 # 으, 돌아가명 쉼 ㄱ꾸는게 도름 짓영.

104010 @ 음.

104010 # 쉼 열이면 열 사름이 혼디레 뇌근에 흐루 혼 사름씩 강. 흐루 혼 사름씩 강 경 쉼 ㄱ짜난.

104010 @ 아.

104010 # 돌아나지 못 허게 ㄱ꾸는 거주게. 어드레 돌아나지 못 허게. 겐 어둑어 가민, 이런 때 후제사 몰양 들어와. 집이 일 행 들어올 만 헤가사. 게민 이놈의 쉼 들이 돌아오라가민 이녁 만씩 집 좃양 기여들어.

104010 @ 집 알아근에.

104010 # 으, 집 알양 굳작 마귀 알양 기여 들고.

104010 @ 응.

104010 # 사름보단 더 영리허여. 오민 기자 오랑 지 마귀더레 톡톡 들어사민 집 이 싯당 사름덜 문. 그 빨러레 녹대 걸러메여 또. 경 안허민 밤이 돌아나 불카부덴.

### 말 기르기

104011 @ 게민 이번에 말예, 말은 어떻게 기릅니까?

104011 # 들은이 배랑 걸러 메영 집이서 질름 버릇 안 허여.

104011 @ 응.

104011 # 그자 이 담 다왕 어디 올왔디라도. 담 다와근에 빙 허게 들 다섯 개민 다섯 개 영 질루젠 허민. 출은 쥐이. 출은 해당 낮당 영 풀어 낱 주는디 배랑 걸러 메영 질름 버릇을 안 허여 들은. 기자 영 담 다왕 올왔디 허나 영 낱 내불고. 게민 바령밭, 바령밭 허는 게 그거라이. 물덜은 낱 질와나민 물 오줌 싸고 똥 오줌 싸고 허민 그것이 거는 거라. 옛날은. 게민 큰 밧덜 동네 므쉬덜, 므쉬 한 집인 동네 므쉬덜도 저 부쩍컨 부찌라 허민 그레 도롬 짓영 놔 불주. 낱 내불민 겨울에 거기서 출 주곡 그 밧디 살명 오줌 싸고 똥 싸고 헤나민 바령밭, 바령밭 허여 그계.

104011 @ 음.

104011 # 바령밭디 곡석은 잘 뒤여근에 스몫 흥얼흥얼 조도 불리민 막 잘 뒤고 허난. 아이고 이 바령밭디 곡석도 좋아라. 경허주. 그건 바령 들임이라고. 바령, 바령 허여.

104011 @ 예.

104011 # 그 들덜만 질와난 밧이. 게민 바령밭디 아무 디 올리 바령 들염서라 경 허영.

104011 @ 아까 다섯 집이 므치 돌아가명.

104011 # 도롬 짓음.

104011 @ 도롬 짓음?

104011 # 응. 도롬 짓어근에 쉼 므꾸레 가.

104011 @ 음.

104011 # 오늘은 느네 강 므꾸민 또 닐은 요펜 집이서 강 므꾸고. 또 판 집이서 강 므꾸고 그 쉼 임제마다 돌아가명.

104011 @ 예.

104011 # 그거 경허난 도롬 짓엇젠 허는 거. 돌아가명 므꾸는 게.

104012 @ 그 다음에 말 종류는 어떤 종류, 어떤 종류 잇어마씨? 말도 색깔에 따라 크기에 따라 다릅니께. 색깔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잇수과?

104012 # 색깔에 따라 부르는 말은 엇어. 웅매민 웅매 저, 웅매에 현 건 수컷 므랑 웅매 즈매엔 현 건 암컷 므라 즈매.

104012 @ 응.

104012 # 색 따라근에 무시거여 무시거여 부르는 이름 그런 건 우리 안 들어봣

어.

104013 @ 말은 주로 어떻게 할 때 사용하든 거 마씨?

104013 # 젤 어떻게 할 때 사용하느냐 허면 물은 출 비여 낱 날라올 때 사용하고 저 밧 블릴 때. 옛날엔 조를 좁씨 빼여 낱 막 다려. 다려사 이 조가 흥글어불지 안 헌 덴 조 남뎡이 나가민 흥걸어 불지 안 헌덴 막 씨 빼여낱 막 텡텡 다려.

104013 @ 으, 음.

104013 # 경허민 ㄱ문 때썸은 강 검질 메젠 허민 검질 메기가 굿어이. 텡텡헤 노 난.

104013 @ 어.

104013 # 경해도 좁씨 돌아나지 안 허게 그걸 막 블러. 게난 그런 때 필요헌 거.

104013 @ 응.

104013 # 경허민 테우리, 테우리 허멍 그뎡 물 임제가 물 으라개 헤영 허민 그 테우리 나시 밥 허젠 허민 고기 구워 놓고 옛날 그 곤밥 곤밥 허멍 쓸밥 허여 놓고 고기 구워 놓고.

104013 @ 응.

104013 # 경허영 앓아가.

104013 @ 아.

104013 # 테우리영 허멍.

104013 @ 물 봐주는 사름?

104013 # 물 임제가 테우리라.

104013 @ 물 임제가 테우리라?

104013 # 응. 게민 열 집이고 스무 집이고 가민 하루 혼 번은 그 밥을 얻어 먹 주. 켜 그 전인 밧딜 헤 가이. 테우리 나시 밥이엔 행 가민 하르방이 영 받앙 앓앙 밥을 영 이레저레 문 케우려.

104013 @ 응.

104013 # 경허영 케우려 두곡 영 반찬 같은 거나 뵈이라도 행 가면 문 튼으멍 케우려덩 밥을 먹어신디.

104013 @ 응.

104013 # 오래영 신식 뵈난 것도 밧되서 안 헤영 집일 꼭 헤 가. 집이.

104013 @ 응.

104013 # 게건 아이구 이젠 벨식 다 나. 영허난 무사 말이과. 허난, 게도 밧되 강 허민 그 믱쉬 보는 아이덜도 그 곤밥 혼직 얻어 먹을 거 아니냐. 허지만은 이제 집 이 아저가 불민 믱쉬 보는 사름은 입이 보영헌다.

104013 @ 입이 보영허여?

104013 # 으, 아무 것도 안 주난 입이 보영헌다 허는 거주.

104013 @ 하하.

104013 # 옛날 곤밥, 곤밥 허멍 밥이 쓸밥이 그렇게 어려왔어.

104014 @ 응. 말도 나이에 따라서 이름, 불리는 이름 잇인가마씨?  
104014 # 아니.  
104014 @ 엇어?  
104014 # 나이에 따라 불리는 이름은.  
104014 @ 금승, 다간 영 허는 거 엇어?  
104014 # 저 어린 것ㄴ라 불리는 건 요건 금승 뎡생이.  
104014 @ 아, 금승 뎡생이.  
104014 # 응. 두린 거엔 행 금승 뎡생이엔 허주, 역아 불민 금승이엔 뉘, 뉘 엇어. 쉐는 다간, 무슨 부랭이.  
104014 @ 응.  
104014 # 요건 암송애기, 요건 부랭이엔 현 건 슷송애기ㄴ라 부랭이.  
104014 @ 예.  
104014 # 또 흐쫂 크민 밧갈쉐 그거주. 뉘은 처음 두린 때 이거 금승, 금승 허주.  
104014 @ 아.  
104014 # 역아 불민 무신 말, 무신 말 이름이 엇어. 요샌 다 이름 지웁주 옛날엔 이름이 엇어 그개.  
104014 @ 뉘 잇인 집은 하지 안 허지예?  
104014 # 하지 안 허여.  
104014 @ 뉘 잇인 집은 막 부제칩이과?  
104014 # 막 부제칩덜이나 불 헤영 이녁 농서허고 늡의 거 흐쫂 헤 쫂주, 뉘 기자 경해도 흐 두 개, 서너 개 잇는 집도 잇어, 쫂금 사는 집은. 두 개, 흐 세 개쫂 잇인 사름은 서로덜 뉘 족은 사름덜끼리 어우려.  
104014 @ 응.  
104014 # 어우렁 다섯 개고 으섯 개고 어우렁 이녁 농서덜 허당, 농서 허당 흐쫂 남은 사름덜 거 우리 것도 흐쫂 불러 쫂서 허민 강 불러주고 경 허는 거.  
104014 @ 응.  
104014 # 어우렁도 허고 어울지 안 현 집도 잇고. 대개 두 집 세 집 어울명덜.  
104014 @ 뉘은 탕 어디 가기도 허지예?  
104014 # 응.  
104015 @ 옛날에 뉘 탕 다녀났지예, 어디 가젠, 멀리 가젠 허민예?  
104015 # 멀리 가젠 허민 뉘 탕. 안장 지왕 슬랑슬랑 허게시리. 요새 이 저, 이디서 거시기 가근에 뉘 테우는 건 보민 소리 나는 것에, 방울 소리 나는 것이 엇어이. 경현디 뉘 뒤에 방울 돌아메여.  
104015 @ 아.  
104015 # 게민 뉘 탕 가가민 이 방울 소리가 슬랑슬랑슬랑 나. 게민 어디 뉘 탕 왁신가 뉘 방울 소리 남저 경허명.  
104015 @ 응.

104015 # 겨고 집이서도 어디 웨방 갈 때 물 탕다근에 들어오라가민 예고 물방울 소리 나는 거 보난 오는 거 닻다. 아방 오는 거 닻다. 경 허주.

104015 @ 응.

104015 # 쪼그만 현 집인, 그 탕 다니는 말은 쪼그만 집인 질뤼 하나. 하나 질뤼 당 봄 나민 그것에 어우령 밧 불리고. 경 허영.

## 떡이

104016 @ 소 허고 뭇 허고 먹는 건 무신 거 무신 거 맥입니까?

104016 # 뭇 허고 소 허고 먹이는 건 틀리지 안 허여.

104016 @ 응.

104016 # 그자 뭇 맥이는 것도 소 맥이는 궤치 조척이고 감저꿀이고 뭇 똑궤치 먹어.

104016 @ 아. 출 허고 그 곡척 대들.

104016 # 곡척 대도 궤치 먹어, 아무 거라도 조척이고 뭇 감저꿀이고 그런 거 궤치 먹는 디.

104017 @ 게민 출은 허젠 허민 어떻게근에 험니까?

104017 # 출케 궤사 나 궤듯이 낮꾼덜 빌영 가근에.

104017 @ 어디 가근에?

104017 # 저 옷드르더레. 이 출왓은 브든 디 엇어 막 옷드리드레 가근에 저.

104017 @ 녁의 출왓 허민 안 돼지 안 헤 자기 거 잇어야 돼여?

104017 # 자기 거 잇어사. 녁의 출왓은 사사, 출을 사사.

104017 @ 아, 출을 사사.

104017 # 으, 녁의 출왓은 허젠 허민 출은 사사 비어 올 거. 경 안 허민 이녁 부 제침덜은 이녁 출왓덜이 잇어 옷드르 가민.

104017 @ 응.

104017 # 이제 출케덜 낫다근에 돈덜 하영 삼젠 허는 게 그거라. 고지 가근에 막 출케 낫다근에 돈 하영 삼젠.

104017 @ 출케?

104017 # 출케, 출케 헤여.

104017 @ 출케가 무신 거?

104017 # 출 비여난 디.

104017 @ 출 그릇가 출케.

104017 # 경허민 이제 그것들 낫다근에 출 비여난 밧들 낫다근에. 요즘은 췌, 췌 뭇은 안 질루난, 가인으로 안 질루난.

104017 @ 예, 예.

104017 # 이젠 이 동네에 소나 뭇이나 질루는 사름 엇어 우리 동네도.

104017 @ 으, 집이서 안 질루지.

104017 # 으, 집이서 안 질렝 문 허영 해불민 농설 안 지난 요즘은 계난 췌 물 질루는 사름이 엇이난 그 췌 질룰 때 막 웃드르 가근에 출 비는 출밭도 사고. 또 초집 해여근에 집 일젠 허민 새 비는 밧도 사고.

104017 @ 응.

104017 # 부제칩이덜은 다 경 허여.

104018 @ 예, 게민 출꾼, 출 비는 사름 빌영.

104018 # 빌영, 게민 낫 질 허는 사름은 비민 우린 즘호미로 강 비는 사름 세 곱 주는 거라이.

104018 @ 돈을?

104018 # 으, 돈을.

104018 @ 일당을?

104018 # 으, 그 출 비는 일당을 경 세 곱 주는 거라. 세 곱 비주게. 우린 흐루즈 물양 강 이 호미로 영영 비는 건, 서른 단 세 마리민 멧 단이나, 서른 단 썩 세 바리, 세 개민? 육십, 백 단.

104018 @ 으, 구십 개.

104018 # 그거베끼 못 비여.

104018 @ 응.

104018 # 출 백 단 그거베끼 못 비여. 이 즘 호미로 가민 밧디 굿은 디만 비메, 낫 못 비는 디. 이 밧이 존 단 낫으로 거려 불민 영 현 트명 돌 트명 거튼 단 앗아 근에 호미로 베끼 못 비난 우리 세 곱 받아.

104018 @ 응.

104018 # 경허민 낫 해나민 그런 디 강 비여. 그런 디 강 비여. 무끄는 건 여자도 무꺼. 또 무끄는 품은 여자가 무꺼도 저 낫 비는 사름 혼 사름 품 쥐 무끄는 사름.

104018 @ 아. 무끄는 게 힘들어?

104018 # 힘들어. 힘드는 따문에. 무끄는 건 곱어사만 허거든. 경헨에 곱영, 낫덜로 비여 논 거민 이제 헤씩허민 이걸 뽕뽕영 영 헤다 낭 강알 트명더레 꼭 접정 게 영영 풀어, 풀영 허고 허는 따문에 곱영 허는 따문에 막 못 전더.

104018 @ 응.

104018 # 경허난 낫질 허는 사름 품 쥐, 무끄는 건.

104018 @ 아.

104018 # 건디 이 호미질 영영 앗앙 빈 건 얼마 안 쥐.

104018 @ 응.

104018 # 또 출도 멧 단 못 비고게.

104019 @ 게민 그 출 시경 오젠 허민 췌, 췌 등에?

104019 # 으, 췌 등에 지와.

104019 @ 혼 바리, 혼 쪽에 얼마?

104019 # 흔 쪽에 열 다섯 개씩.

104019 @ 흔 쪽에 열 다섯 개씩 허민 그계 서른 개가 흔 바리?

104019 # 으, 서른 단이 흔 바리.

104019 @ 서른 단이 흔 바리?

104019 # 출은 서른 단이 흔 바리, 조는 으섯 단이 흔 바리.

104019 @ 응.

104019 # 이거 석 단 넘영 못 시끄주. 또 지는 것도 얼마 못 저.

104019 @응.

104019 # 조나 이따근에 이 가름밭디 막 좋은 디 고고리가 이만씩 훑주게. 지러기가 이만씩 허여. 또 막 곳은 밧디 고고린 요만씩 허여. 베롱베롱 그축허난. 경헤도 석단, 흔 짝에 석단 넘영은 못 시꺼.

104019 @ 게민 그거 집이 가정 오민 어떻게?

104019 # 집이 가정 오민, 집이 오랑 부러근에 문 흔 밧더레 명석 뇌근에 그 털 어지카부텐 문 명석 폐와 낱 그레 조근조근 푸멍 줄 사령 또 낱 또 시끄레 가고 경허주게. 것가 시꺼가고 시꺼오고. 집이 강 흔 사름 잇다근에 거 오민 푸멍 기자, 우선 짐 느려 놓멍 데며가멍 흔 사름만 늘지도 못 허난.

104019 @ 아.

104019 # 게민 또 시끄레 강 또 시경 오고. 시끄는 사름은 돌리.

104019 @ 음.

104019 # 집이 오랑 푸는 사름은 하나도 푸고.

104019 @ 게민 그 바레기 나나 한 번에 하영 시꺼시켜예?

104019 # 으, 바레기 난 후제 췌레 짐 안 시꺼난.

104019 @ 게난예, 췌로 멧 번 왓다갓다 헐 거예?

104019 # 으, 멧 번 왓다갓다 헐 거 바레기로 강 흔 췌 하나 흔 열 번 가 오는 거민 흔 번에 강 시꺼 왕.

104019 @ 으, 게난.

104019 # 게난 글후제 췌덜토 얼마 안 질환. 집이서 그냥 밧 가는 거 하나씩만 질뤄. 이젠 낱 밧 허난 췌 질루는 사름도, 물 질루는 사름도 하나도 엇어. 경허난.

104019 @ 필요가 엇이난예, 이젠예?

104019 # 필요가 엇주.

104020 @ 게민 그 곡석 대는, 뭐 먹는 거 췌나 물 맥이는 그 곡석 대는?

104020 # 조, 조 남땡이는 소나 물이나 먹고 감저, 이 고구마 줄도 소나 물이나 먹는다 산디에 현 거 잇지이, 산디찍이나 믱물찍이나 현 건 이건 안 먹어.

104020 @ 보리낭도 안 먹을 거 아니?

104020 # 보리낭도 안 먹고. 보리낭도 안 먹으난 보리낭은 통세에 담아낱 걸름허고.

104020 @ 응.



104020 # 또 이거 저 산디찍은 허민 겨울에 멍석 접기, 멩탱이 접기 그것에 들어가 불고.

104020 @ 응.

104020 # 믱물찝도 안 먹으면 이거 통시레 담아놔. 믱물찝 허고 저 보리찝은 통시에 담아 놔. 도세기 질루는 디. 겐 걸로 걸름 만들어.

104021 @ 아. 출 비는 게 쥬 힘들었어?

104021 # 어, 출 비는 게 쥬 힘들어.

104021 @ 할무니 헤난 거, 출 빌 때 헤난 거 재미난 말 잇이민 곱아줍서.

104021 # 재미난 말 엇어, 우린 출 무끄레만 텅기고.

104021 @ 응.

104021 # 출 무끄레 강 재미나게 곱은 건 출 무끄멍 출 무경 내치민 또 흐 밧디레 모다다 놔사 늘 거주, 누난 출 날르다근에 점심 때 웨난 야 왕 점심덜 먹어불라. 점심 출리난. ㄹ만 십서 영 거평치 신 디가 잇어이, 허난.

104021 @ 거평치가 뭐?

104021 # 거평치가 영 곱렁이.

104021 @ 응.

104021 # 게난 영 높은 디 산에 왕 점심 먹어 불라 허난에, 아이 ㄹ만십서 요 곱렁지 거 멧 단 행 무경 강 먹게, 어떻 더운 디레 따시 느려옵니까 허멍. 게난 출 날르단 하르방이 점심 출렁 놔 두난 쉼 오랑 문막 먹어 불 거 아니?

104021 @ 응.

104021 # 먹어 부난 야 느네덜 밥 먹어 불라 혈 때 먹지 소 다 들러 먹어 부난 오널 점심 곱렁 어떻 혈 거니, 허난, 아이고 내 붓서게. 원 우리 재미난 거 엇주만 하르방 막 저들멍 겐 늬의 고구마 파단 군 거라.

104021 @ 응.

104021 # 밧디 고구마 심은 거 지난 파단 썩 이거라도 하나씩 먹으라. 배 곱팡 오널 저물양 어떻 헨 살 거니. 멀어부난 짐이 점심 먹으레 못 오지. 곱렁 텅기고 혈 때난. 이디서 저 산 바레지는 디 잇잖아, 그디서 곱렁 이디 가곡 오단 보민 어둑어 불걸.

104021 @ 맞아.

104021 # 겨난 점심 곱렁. 우리 원 그때 흐 번 무시거 헤낫주. 출 무끄는 것에 재미나고 거시기 현 건 엇어. 못 전디난이.

104021 @ 응.

104021 # 그거 다 무껴사지 날라다 놓민 늘어사지.

104021 @ 응.

104021 # 경허단 보민 손 빨른 사름 가민 ㄹ치 ㄹ치 제기 헤영 오고. 손이나 흐 쫄 뜬 사름은 가민 어둑아, 어둑아. 열 사름 빈 거 흐 다섯 사름 가민 어둑아 벼. 낫으로 열 사름 빈 거 다섯 사름 가민 그거 무끄고 날라다 놓고 흐 밧디. 날라다

놓고 무끄고 헤사. 겨고 또 그거 물 안 들게 놓고 경허단 보민 어둑아 부는 거라. 무꿈만 허는 건 낮 전 다 무끄는 디 낮 전 무꺼 낱 낮 후젠 그거 먼 혼 밧디 날라 다 뇌야지. 또 놀어야 허지이. 놀민 이제 또 옆이서 줄 비영 그거 먼 엷어 똥 브름 불민 똥싸 불카부덴 돌 허명 다 똥 지들랑. 출 열 사름 빈 거민 혼 놀에 다 놀지도 못 허여. 두 놀이나 경 놀어가고 허단 보민 왁왁 어둑아. 겨민 출 무끄는 사름은 똑 낱질 허는 사름과 그치 품 주고 경 허여.

104021 @ 음.

104021 # 즈호미로 빈 것만 품 안 주주.

104021 @ 예.

104021 # 경 무신 출 힘에 재미나고 무시거 허곤 엷어.

104021 @ 게민 기억에 남는 거?

104021 # 원 기억에 남는 거 그거, 우리 출 무끄령 뎅기는 거. 밤이 출 무끄레 가젠 허민 걸어 뎅기는 때문에 이디서 걸어근에 가민, 그뎨 흐꿈 걸음 쟈 때라이. 두 시간이로 가 저시카.

104021 @ 응.

104021 # 아침, 그만 시라. 네 시에 나상 걸으민 네 시, 다섯 시, 두 시간 받은 걸어야 가쥬네.

104021 @ 여섯 시 넘영예? 동틀 때 똥민.

104021 # 경허난 이디서 밤이 나상 걸어, 밤이.

104021 @ 응.

104021 # 돌 신 때 경해도 걸기가 좋는디 돌 엷인 뎨 진짜. 이추룩 세멘 질이라도 현 거민 허주만은. 경 안 허영 기자 가단 보민 울탕 불탕 허민 발 뒤창, 엷더지 곡 아이고 침. 경허민 뎨어 주인은. 주인은 그디서 뎨어. 쓸 아정 가고. 그디 가민 어디 저 디 물 봉강 가근에 그 물 강 떠다 놓고. 허벽 아정 강 물 질어다 낱당 그디서 밥 허여. 뎨어근에 밤 뎨어. 경허민 우리 일꾼덜만 올라갓다 느려왔다 헐 거 주.

104021 @ 뎨이는 게 그디 사는 거?

104021 # 사는 거. 흐룻밤이나 이틀밤이나 그디 살아. 쓸 아지고 똥 반찬이사 뎨 장 녹물 그것만 행 가민 이디서 무시거 먹을 거 온 때랑 승키 행 읍서. 승키 헤여 오라 허는 게 녹물이나 헤영 솥양 그거 아정 올라가민 그디서 먼 밥 행 쥬.

104021 @ 응.

104021 # 쓸은 먼 미릿 아정 올라갓다근에.

104021 @ 응.

104021 # 경 어떻헨 그디서 밤을 뎨냐 허면 출 아시날 강 비여근에 그거 무꺼근 에 답 싸듯 싸 출을. 경 집 짓영 그 안에 누워.

104021 @ 하하.

104021 # 출단 아래 누워.

104021 @ 아, 출단 아래.

104021 # 경험 누웠단 뒷날 아침이 이젠 솟 아정 갖다근에 솟디서 불 슴으멍 밥 허영. 경 밥 허영 내 불민 우린 이디서 가멍 뒤 뒤 아정 오라 허민 기자 똥장에 누물 슴은 거나 시민 아정 강. 겐 그거 뒤 반찬 아무 것도 엇어. 똥장에 누물 슴은 거라. 그거, 옛날에 경험 살안.

104021 @ 예.

104021 # 이제랑 잘 들어봐 어떻험 살아시?

104021 @ 게메예. 걸어 가렌 헤도 버청 못 가쿠다 이제.

104021 # 아이구, 이젠 걸영 땡기렌 허민 못 걸어.

104021 @ 게난.

104021 # 견디 ㄱ만이 생각해 보민 이디서 네 시에 나사민, 네 시 전이라. 세 시 쯤 나사서. 나상 가면 요 신흥, 신흥 혼 2리쯤 가근에 허면은 그때ㄱ장, 하여튼 다섯 시ㄱ장 가야 똤 거난에.

104021 @ 응.

104021 # 이디서 세 시에 나상 가진 거 닢다. 경험 그디 가민 다섯 시 반으로 으섯 시 똤엇어. 경험 그디 강 밥 헤 낫이민 그 밥 먹영 출 팔아가민 무끄지도 못허고 강 인칙 무꺼사 그 출을 다 날라다 놓민 늘어똤 올 거난 막 인칙 가.

104021 @ 출이 과는 건 어떻 험 거?

104021 # 과는 건 몰라 부는 거. 과상허게 들른 거.

104021 @ 거민 잘 못 무경?

104021 # 잘 못 무경. 축축헌 때 가사 출이 꼭꼭 무꺼지주 거난.

104021 @ 게민 또 들러사 허여, 그거?

104021 # 아니 다 들른 출이라.

104021 @ 아.

104021 # 오늘 비민 널 하루 물류와.

104021 @ 하루 물류왓당 무끄는 거?

104021 # 어, 하루 물류왕 뒷날 무경 경허는 거주. 경허민 그거 터불지 안 허주. 물류지 안 허영 그냥 무꺼 놓민 터.

104021 @ 곰팡이 피어.

104021 # 으, 곰팡이 퍼. 경헤 불민 ㄱ쉬덜 잘 먹주게.

104021 @ 아.

104021 # 그걸 물류와근에 바삭 물류왕 무꺼사 곰팡이 안 피여근에.

104021 @ 너미 몰라도 안 똤고?

104021 # 으, 너미 몰라도 안 똤고. 게난 오늘 빈 거 널 아침이 가면 널 하루 살양 모레 아침이 가면 아침 빈 것서부터 츄츄츄 무꺼 가.

104021 @ 아.

## 멜감

104022 # 이번엔 지틀커 헤난 거예?

104022 @ 지틀커는 보통 어떤 거 어떤 거로 지틀커 헤낫수과?

104022 # 우리?

104022 @ 응.

104022 # 대부분은 검질도 비어당 진주만은 솔입 걷으레.

104022 @ 응.

104022 # 솔입 걷고 또 나무가 엷인 때난 나무 헤다근에 잇당 이 제서 때나 불땡 헤 먹젠 허민 이디서 저 여우네 우이 츠남밭이엔 현 디 잇어, 츠남밭.

104022 @ 응.

104022 # 일로 가다 보민 어들로 감신가 몰라. 이딜로 가민 교래로 가, 아니?

104022 @ 교래리로 가. 물령아리 지나근에 교래리로 지나근에.

104022 # 아, 물령아리 지낭?

104022 @ 예, 예.

104022 # 계난 그 물령아리 앞더레 그디 가민 츠남이 잇어이. 그디 강 츠남 강져 와. 겨울에.

104022 @ 아.

104022 # 이 솟 묻으멍 가쟁이덜 탁탁 끈영 내 분 거.

104022 @ 아.

104022 # 그거 물론 것 강 지어다근에. 그거 흐, 흐루 흐 번베끼 강 못 정 오거 든.

104022 @ 그럼 주로 나무 허고 솔입 허고?

104022 # 으, 솔입 허고.

104022 @ 그 다음에?

104022 # 팔월 나민 그자 검질.

104022 @ 검질허고?

104022 # 어, 그거.

104023 @ 쉼똥 말똥도?

104023 # 쉼똥 말똥은 이 풀 말똥이엔 헤근에 봄이 좇은 말똥은 걸름허렌 통시더레 좇어당 비우고.

104023 @ 응.

104023 # 또 이 가을에 좇는 건 하늬바람 불민 막 물름이 쉬워이. 경허민 그거 좇어다근에 물류왕 굴묵 떼기.

104023 @ 아.

104023 # 막 그걸로 굴묵 떼민 방이 뜻아이.

104023 @ 아, 쉼똥 허고 말똥 좇으레 많이 가낫수과?

104023 # 아이고, 새백이 강 보민 어느 동안에 쟈 사를 잇어. 봄음 전이 강 보민,

덜 환헌쫘은 강 보민 므쉬덜 영 가뵤 길루는 디가 있어. 어느 때사 왕 좃어 간디 몰라. 윈 경헨 들똥 구덕, 들똥 구덕 허멍 구덕, 거 혼 얼마 들 건고, 커 구덕 영 뿌 러메는 거. 그걸로 가근에 어떤 때 소망일민 혼 구덕 좃어 오고 경 안 허민 혼나, 혼나토 못 허영 그냥 돌아올 때 잇고.

104023 @ 응.

104023 # 간 켜 사름은 어느 동안에 강 좃어 와. 게민 그거 좃어당 들류와. 널영 내 불민 혼 이틀 내 불민 바싹 들르민 담양 어드레 데뻬다근에 데멍 뉘 더경. 느람 쉬 행 더꺃다근에 그거 파 내멍 겨울에 굴목 살르민 경 구들이 듯아.

104024 @ 응. 술입 걸으레 가난 말 곶아줍서.

104024 # 술입 걸으렌 글쟁이 이추록 헨 거, 췌로 영 만든 거.

104024 @ 응.

104024 # 영 만들양, 우리 손가락은 다섯 개주만은 여섯 개, 일곱 개 뉘어이.

104024 @ 예.

104024 # 그걸로 강 소낭 밧디 강 막 술입 걸어. 술입 걸어근에 그거 짹어 놔 뒤 근에 이젠. 그거 지영 제기 와 불민 어멍 욱 들지 안 헨 건디이. 강 베뉘락 허고 무시거 허고 공기 허고 허단 보민 세월 가는 중 몰랑 집이 오민 ㄴ자, 술입 요거 걸 으멍 ㄴ자 살아사 허멍 막 욱 들곡.

104024 @ 하하.

104024 # 경허영.

104024 @ 술입은 저 그거 글쟁이로 굶은 다음에 어멍 헤영 잘?

104024 # 영 툃툃툃툃 혼똥씩 툃툃 받치멍 영영 허멍 툃 허게 안아 놓고, 안아 놓고 허멍 질게 놔근에 저 베 꺃뎡이 심영 등겨 오멍 몰아.

104024 @ 아, 몰아?

104024 # 어. 질게, 저만이 질게 놓민.

104024 @ 응.

104024 # 저 베 꺃뎡이로 강 영 상 베 영 등기곡 일로 영영 블랑 영 헤 오라 가 곡 꺃꺃 블랑 영영 블르민 벵허게 몰아져.

104024 @ 아.

104024 # 경헨 들양 짹어 낡 글쟁이로 또시 영, 술입은 툃툃 받치민 문 기여 들 여.

104024 @ 아.

104024 # 툃 받칭 정 와.

104024 @ 켜 혼 짐 행 오는 거라?

104024 # 경헤영 혼 짐. 혼 짐 헤영 어가라 올 건디.

104024 @ 하하하.

104024 # 두름이 설황?

104024 @ 무시거 구름이?

104024 # 두름이 설좌, 두려.

104024 @ 두름이 설좌?

104024 # 응. 두릴 때가, 계난 두름이 섭다 허는 게 그거주. 두린 때라 놓난 어멍  
욕허고 무시거 허고, 욱 들어 놔도 그걸 잊어버.

104024 @ 맞아.

104024 # 이녁 자파리 허멍 느가 이기느니 나가 이기느냐 허멍 나 멧 번 이겼저,  
느 멧 번 져저 허멍 거 무시거 놓지도 안 허는 거주만은 장난으로 경 허단 집이 오  
른 욱 들엇주게 어멍신디. ㄴ자 뭐 해신디 허멍.

104025 @ 응. 낭 허는 거는?

104025 # 나무 거는 거는 가면이 남 이걸 영 ㅋ똥허게 가쟁이 툽툽 꺾으멍 영 췌  
멍 허영 ㅋ똥케 낱 툽 낱 무꺼.

104025 @ 응.

104025 # 무끄고 무끄고 해근에 그걸 양펜으로 이만이 이거 지레기 허게시리 영  
지러기 허영 딱 이녁 지어 올 만큼 지영 흔 겨울 들어근에 마딱 겨울 놓서 다 해  
두고 ㄴ슬 다 장만해 두고 허영 동지 선달 놀아가민 그디 가, 나무 지레.

104025 @ 응.

104025 # 강 흔 멧 짐 지어 오면 흔 댓 번 지어 오면 이 해 먹을 때에 붙은 때  
여, 그걸로. 그거 안 허민 검질베끼 엇이난. 그거 헛다근에 잇당 고사리 숲을 때 제  
서 때 멧질 때 그런 때 쓰젠. 경허젠 남을 강 해와.

104025 @응.

104025 # 해 오민 그걸 애껴근에 아무 때나 불 안 슴앙 툽 해 먹을 때 돼사 걸로  
고사리도 슴아야 허지 고사리 슴어나고 또 목도 췌 나고 그디 문 해 나민 불 막 왕  
강허게 지잖아.

104025 @ 응.

104025 # 그거 담아다 낱 고기도 굵고 쟁 해서 옛날에.

104025 @ 그 낱은 아무 낱이나 그차와도 돼여.

104025 # 아무 낱이나 돼여, 아무 낱이나. 켜디 그건, 그 딴 가민 그 츄남덜 슴  
허젠 이만큼 슴진 건이 슴 만들젠 문 그차 불민 가쟁이 내 부는 게 하.

104025 @ 아.

104025 # 경허민 그 가쟁이 바싹 들른 거 쟁헨 좆으민 바싹 들른 거난 게벼움도  
허여이.

104025 @ 응.

104025 # 지어 오라 그거. 계고 츄남 붙은 슴아 나민 불이라도 불망굴이 오래  
가.

104025 @ 아.

104025 # 오래가. 이 소낭 거튼 건 활활활 부떠부는다.

104025 @ 응.

104025 # 불 부뜨는 것도 제기 부떠 불고 꺼지는 것도 제기.  
104025 @ 응.  
104025 # 불망굴도 제기 삭아지는데 촛남은 솟 만드는 것이, 경허난 촛남 솟이  
엔. 불이 제기 삭아지질 안 허여이.  
104025 @ 응.  
104025 # 경허난 그걸로 혜단 불 숨어나민 그거 담아 낵 퀘기도 굽꼭 했주.  
104026 @ 전 번이도 혼 번 곱아주긴 혜신디 솟 허는 건 어뎡 허는 것과?  
104026 # 솟은이 막 구뎡이 저 산에 강 보민, 고사리 꺾으레 이젠 경 엇어도 우  
리 그 전이 강 보민 구뎡이가 막 지프게 파 이만큼, 막 지프게 파 낵. 남 요만씩 쫓  
르메, 그 솟남 촛남. 우리 훌목보담 슬진 거.  
104026 @ 응.  
104026 # 또 ㄱ늘아야 우리 훌목이라. 요만씩 질게 혜 낵 솟 그, 솟 묻나, 묻나  
허는 거 말만 들엇주 그걸 문딱 제여 놓넨.  
104026 @ 구뎡이에.  
104026 # 으, 구뎡이에 제여 ㄴ근에 이젠 이 앞으로 굴뚝 내고 저 두우로 내 나  
갈 디, 경 안 허민 불이 꺼 부난 내 나갈 공기 트고 앞으로 불 때는 공기 터근에  
경허영 흑 씨와 나근에 흑으로 막 묻어.  
104026 @ 응.  
104026 # 묻어근에 흑 탁 덮어근에 일로 불 탁 터 놓민 우이 것도 카고 아래 것  
도 카고 경혜 가민 거저 불 부떠는 줄 알아가민 우로 강 끈끈끈끈 흑을 블라줘.  
104026 @ 응.  
104026 # 블랑 딱 블라 불민 그 불이 꺼지는 거주게. 경허영 불 꺼지민 그날 처  
녁 불 다 꺼져신가 행 뒷날ㄱ장 불 잇넨 허멍 하루, 오닐 강 불 꺾다근에, 오닐 저  
물아 갈 때 불 끄민 내일 하루 살앙 모리사 강 그걸 파. 솟 파레, 솟 파레 허멍. 솟  
파는 디 혼디 따라 가고, 경허영 우리 어무니네 강 보민 그 구뎡이 영 혜싸놓민.  
104026 @ 예.  
104026 # 불 다 부뎡 칸 것도 잇고 솟 잘 뎡 거 다 칸 왕생이 솟이 뎡고 경 안  
헌 건 솟 안 뎡근에 덜 칸 것이 하.  
104026 @ 응.  
104026 # 경허민 또 다른 것에 또.  
104026 @ 한 번 더?  
104026 # 으, 혼 번 더. 우린 그런 거 판 묻는 것도 안 보고 솟 멘드는 걸 안 봤  
주. 곤는 거 들은 거뿐이라 이진.  
104026 @ 응.  
104026 # 곤는 거 말 들은 거 뿐이라. 경허민 고사리 꺾으레 강 보민 산 터카부  
뎡 허단 보민 그것이 솟 구워난 구뎡이.  
104026 @ 응.

104026 # 이거, 이거 뭐 해난 디과 물으민 슷 물어난 슷 구텡이이 아니냐 경허여.

104026 @ 응.

104026 # 움막움막 들어간 디가 잇어. 겐디 요즘은 그런 거 잇어, 슷 안 묻엉.

104026 @ 예.

104026 # 경허영 그 전인 이 남 해도 장이 사났어이.

104026 @ 예.

104026 # 저 가지리 사름덜 슷 플레이.

104026 @ 응.

104026 # 저 어웁 해다근에 영 여장, 여장 톡 허게시리 해 낡 슷 잘리 만들앙 요만씩 만들앙.

104026 @ 응.

104026 # 것에 행 슷 정 오랑 세 포씩 정 오랑 허민 혼 포에 그때 돈 무신 이십 원씩 헤신가, 삼십 원씩 헤신가. 경헨. 이 가지리 사름덜은 가지리 성읍리 옛날엔 슷만 묻으레 허난 슷만 물어근에 겨울 들민 슷 플레 막 오라.

104026 @ 응.

104026 # 매 집이 오랑 슷 사렌 곧고. 옛날엔 슷이 어려울 때난.

104026 @ 응.

104026 # 게민 츄남 슷 사민 헤 먹을 때는 그것이 불 오래, 질기게 가난게.

104026 @ 응.

104026 # 겨난 슷 삼서, 슷 삼서 허영 슷 플레 오민 혼 포 사는 사름 두 포 사는 사름 경허여. 웃드리 사름덜이 대개 슷 플레 하영 오라난. 그건 알아져.

104026 @ 응.

104027 # 지들커 허는 거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104027 @ 기억에 남는 거 무신 그 냥 지레 땡겨난 거, 술입 걸으레 땡겨난 거 그거. 녹물 캐레, 이땅 봄 나민 드룻 녹물 캐러 땡기다근에 마농 캐러 땡기당 그거. 그 두리난 장난이주게. 그 무신 먹어 볼 것도 잇인 거라 땡이엔 현 건이.

104027 @ 하하하.

104027 # 땡이 행 땡이치기 허단 오고. 경헤난 거 원 그거라. 재미난 거 잇어 우리 두린 때 살아봐도 옛날이라부난, 어렵게 살아부난.

104027 @ 지들커 중에서는 어떤 거 허는 게 쥘 힘들어 게민?

104027 # 풀 검질 비는 게 힘들어. 풀 검질이엔 현 건이 팔 월 나민 이 에염에, 질레에 검질이 덩방허여. 게민 그것 강 막 비여근에, 비영 물려근에 집이 왕 눌엇다 근에 겨울에, 봄 나가민 이제 오월 장마 때가 제일 지들커 어렵주게.

104027 @ 응.

104027 # 마는 팍팍 지고 불 숨아사 밥은 행 먹을 겨난.

104027 @ 응.



104027 # 그때 오월 장마에 지들커엔 허멍 솔입 걷어당 잔뜩 데며. 데며근에 물 안 들게 데미고. 글후제 그자 풀김질도 비어당 데명 낫당 그것도 짚고 기자 남도 지어당 짚고 경허멍 살안. 우린 그거 겨울에. 이 소 믱쉬 하영 질루는, 소 하영 질루는 사름은 그 출 헤다근에 그 쉼 맥이민 반도 안 먹어이.

104027 @ 응.

104027 # 케민 그 쉼 머력에 김질 확확 건정 짚으민 불을 때민 우리 거치 지들커 허렌 안 텡겨.

104027 @ 쉼 먹단 남은 거?

104027 # 으, 쉼 먹당 남아, 하영 남아.

104027 @ 응.

104027 # 고사리도 안 먹고 그디 어웁 든 것도 안 먹고, 곤 것만 골려 먹영 내불민 그거 언주어뒤근에 불 솜양, 부제침이 지들커 허레 안 텡기지. 우리 거치 엇인 쉼 엇인 사름덜.

104027 @ 아까 무신 거 쉼 머력에?

104027 # 쉼 머력.

104027 @ 머력은 무신 거?

104027 # 쉼 멘 머력에, 이 쉼 메민 그 머력.

104027 @ 머력이 쉼 멘 옆에, 앞에?

104027 # 앞에.

104027 @ 앞에.

104027 # 이것이 쉼 메면 출을 이 앞으로 쥐사 먹을 거 아니 경허민 먹고정 현 것만 쉼 풀만 골렝 먹지 고사리 안 골려 먹지 그디 어웁 든 것도 안 골려 먹지 허민 그 어웁 든 거영 고사리영 영영 주둥이 영영 허멍 거 맛 존 것만 골렝 먹영 밀렝 내 불메. 그거, 그거 언주어당 짚어. 부제침이 사름덜.

104027 @ 응.

104027 # 그거 언취당 짚는 때문에 짚을커 허레 텡기는 거 뭐 몰라. 부제침이 사름덜은. 게고 조롭으론 쉼똥 걸름 그 똥 싸 논 거, 아무날은 저 쉼 걸름 터사 혈커, 터사 혈커 현 건, 현 메틀 현 댓새 쉼 먹어가고 일론 똥 싸 가민 이디가 쉼똥이 이 만은 헤 가민 그거 문 통시더레 터 놔. 케민 놉 빌어근에 부제침이덜은 그거 문 통시레 터 낫다근에 썩영 보리 같고 경헛주.

## 사냥

104028 @ 이번엔 사냥허는 거예. 아까 흐뎡م 돌아쨌신디 사냥은 주로 무신 거, 사농?

104028 # 사농게.

104028 @ 사농혈 때는?

104028 # 사농혈 때는 우리가 영, 우린 개도 안 질루고 사농혈 사름도 엇곡 허난

아니 허주만은이, 이땅 영 들에 땡기당 보면은 개 들양 가는 거라이. 그 꿩 사농허젠 들양 가면은 ㄱ만히 보면 동산에 강 갠, 개가 말 잘 알아들어. 개가 막 가근에 어드레 강 땡기당 그 새끼 낳젠 앓은 것덜 영영 막 코, 흐쓸 허민 개코엔 허지 안 허여. 막 내 맞취근에 강 땡기당 보민 꿩 신 디 갈 거 아니. 허민 꿩은 불써 늑는 거라 늑는 거.

104028 @ 응.

104028 # 저디 먼 동산에 앓당 사름은 늑다 허여. 꿩 늑덴.

104028 @ 응.

104028 # 늑다, 늑다, 늑다 헤 가민 그거 베리멍 막 개가 행편엇이 돌아이. 게민 꿩도 풍언은 풍언이라. 높은 낭에 강 앓아 불민 그 아래 강 개가 아멩 들러꿔도 못 물 건디 개가 저 꺾더레 나무에 높은 나무에 앓아도 개가 가민 또 노랭 돌아. 놀아. 개가 흐쓸 허민 꿩이 놀당도 지치민 앓더레 돌아온다 허는 게 그거라이. 놀당 버치민 알러레 아무 디라도 탁 앓으민 그땡 강 무는 거라.

104028 @ 응.

104028 # 개가 그 꿩 흐나 놀민 그 꿩 물어 움 때꺼지 막 쫓아. 나무에 앓아도 가. 나무에 앓앙 막 헤가민 그 꿩이 그 나무에 앓앗당 그냥 ㄱ만이 앓아시민 안 물 건디 또 놀아. 놀당 보민 지치민 어디 나무인지 어드렌지 몰랑 알러레 앓을 거 아니? 게민 그때 무는 거라. 게민 늑다 허민 그 개가 기자 그 늑다 소리 들으멍 어느 ㄱ장이라도 돌아. 그 개가. 경 들당 그 꿩을 물어 와. 사농 잘 허는 거는 경 행 물 꼭 경 안 허는 건 기자 어디 강 땡기당 흐나, 흐루 흐나 못 봉가오는 게 일이고. 경 허민 개도 영 보당 아 요건 개 사농이나 잘 험직 허다. 개도 보면은.

104028 @ 예.

104028 # 요건 어진 게 어떻 사농도 못 허켜.

104028 @ 하하.

104028 # 겨고 흐쓸 영 허당 개가 든든헌 건 베리면 아 이건 사농이안 잘 험직 허다.

104029 @ 주로 그믐 꿩을 주로, 사농 허면 주로 꿩이과?

104029 # 꿩인디 꿩 허고 노리.

104030 @ 아, 노리도 험니까?

104030 # 으, 옛날엔 노리도 허연. 게민 노리 허고 이 저 꿩은이 옛날에 막 높은 자리만 쓴덴 헌다. 꿩도 어렵고 노리도 어렵고 허난 높은 제 혈 때만 그런 때만 쓴덴 허여 이진. 만일에 우리가 개인으로 잇당 어디 토신제 혈 때 산제 지낼 때 그런 때.

104030 @ 예.

104030 # 딱 헤 낫당 그런 때 계속으로.

104030 @ 노루는 어떻게 잡아? 노루도 개로?

104030 # 개로. 암만 노리가 똥덴 헤도 얼마 못 뛰는 거라. 개로 잡아.

104030 @ 아. 총 쏘아근에 잡아?  
104030 # 총 안 쏘아. 개. 저 옛날엔 총 잊어났어.  
104030 @ 무장 개로.  
104030 # 개로 기자 펄 사농 노리 사농 헌디 경헌디 노리가 멧 개 경 잡아져게. 노리 멧 개 못 잡아 막 겨울 들영 굶영 해변이 느려 온 거나. 존존헌 것덜 기자 뛰지 못 허는 것덜 그런 거나.  
104031 @ 혹시 지달이도? 잡아근에 허는 사름 잊어났수과?  
104031 # 지달이는 그거 약초로 어디 코 낵 어디 지달이 고망 좇아근에 건 뵈에 사 먹는 건지 약으로 먹넌 허멍.  
104031 @ 응.  
104031 # 지달이, 지달인 이 땅 팡 땅 속에 막 소곱더레만 기여 들주게. 경허민 그거 나오는 디 강 코 낵다근에 어떻 헨 걸려근에 헨나 잡아.  
104031 @ 예.  
104031 # 뵈에는 쓰는 디 약 쓴덴 헤났어 그거.  
104032 @ 응. 족제비도 헤?  
104032 # 으, 족제빈 코도 놓고 테기 낵도 잡고 개가 잘 물어 저건.  
104032 @ 응.  
104032 # 개도 잘 물고 집이 옛날 집인 막 족제비 하난 코 낵 잡아.  
104032 @ 응.  
104032 # 그 가족만 폴아.  
104032 @ 아, 족제비는?  
104032 # 으, 족제빈 슬은 데껴불고 가족만 들령 폴민.  
104032 @ 응.  
104032 # 영 보민 옛날 목수건, 목두리 목두리 허멍.  
104032 @ 응.  
104032 # 족제비 가족으로 영 목에 거는 거이.  
104032 @ 그거.  
104032 # 주로 그거 헤영 텡겨근에.  
104032 @ 이제도 그거 허는 사름덜 이십니께.  
104032 # 아이고 이제도 그거 허민야, 족제비 가족 헿 목두리.  
104032 @ 예, 비싼 거.  
104032 # 비싸 그거.  
104032 @ 아까 무신 코 말고 무신 거엔 곶아신디.  
104032 # 코말고?  
104032 @ 테기, 테기. 테긴 어떻헨 허는 건지?  
104032 # 이거 테기엔 헿 거는이 저 테기도.  
104032 @ 무신 거 잡을 때?

104032 # 생이 잡을 때이, 생이 잡을 때는 테기엔 현 거는 영 그물로 동글랑허게 이. 동글랑허게 행 그물로 영 현 디가 낚다근에 그걸 또 그물만 헤저. 그물 헤영 대에 끼와근에 영 질게이.

104032 @ 응.

104032 # 요만은 질게 헤영 그디 강 영 세우는 거라. 이것이 안 세우민 톡 누워 베이.

104032 @ 응.

104032 # 누우민 울로 줄 영 등기다근에 울로 헨에 톡 허게 뽑아근에.

104032 @ 응.

104032 # 뽑앙 요 앞더레 먹을 거 놔 두민 생이나 꿩이나 오랑 그거 톡톡 좇아 먹노렌 허민 그디 뽑은 거 톡 건드려 불민 탁 지여 부는 거라.

104032 @ 어.

104032 # 지민 이젠 어디 나가도 들어오도 못 행 이시민 강 봉가오는 거. 테기엔 허는 거.

104033 @ 사농허는 사름이나 주위에 잇어낫수과? 뭐 아버지가 허거나 오빠가 허거나 아니민 삼촌이 허거나?

104033 # 게 그거 사농. 우리 집인 그런 사름 엇어.

104033 @ 옆집이는?

104033 # 옆집이도 이 동넨 그런 사름 엇어. 웃드르 7타시민 잇엇주만은 이 동넨 옛날에 경 사농 텡겨난 사름 엇어.

104033 @ 게민 주변에, 이 동넨 사농 텡기는 사름 엇구나예?

104033 # 으, 이 동넨 엇어. 어디 웃드르더레나. 경허고 이 중간으로 우리 연세 쉰 사름, 우리 우로 우터레 쉰 사름이라도 사농 헤난 사름 엇어.

104033 @ 아.

104033 # 글로 후렌 우리가 어린 때 본 거난. 어릴 때 나이든 사름 허는 거 봤주, 이따근에 이 새 집 짓어근에 성주풀이 헐 때 그거 허는 사름 엇어. 그 성주풀이 헐 때 무신 어디 가근에. 아, 성주풀이가 아니고, 성주풀이는 집에서 허는 거고, 누계가 아파근에이.

104033 @ 응.

104033 # 아팡 산, 산으로 가라 허는 사름은 이건 옛나에 그 부모덜이 개 질좌근에 사농 헤난 사름덜.

104033 @ 아.

104033 # 그런 사름덜은 허민 야인 산신으로 가라, 산신으로 강 산신 놀이를 해주라 허는 거라.

104033 @ 응.

104033 # 산신 놀이를 어떻 허느냐 허민 톡 행 가근에 톡 행 혼 사름은 막 돌아 들으민 혼 사름은 논다 돌아난다, 돌아난다. 워리 머머머머 돌아난다 허멍 개 불르

는 문 헤어. 경허영 그거 산신 놀이 해 주는 거.

104033 @ 아.

104033 # 경허영.

104033 @ 누가 아프면?

104033 # 아프면 거. 썩 사농 해 나고 뭐 해난 사름은.

104033 @ 조상이?

104033 # 조상이. 경헨 아 이 집인 초상님 때부터 썩 사농 땡겨났구나 허민 그거 허젠 산으로 가근에 옛날엔 곳 허젠 허민 개 불르는 소리 어리 머머 허주.

104033 @ 응.

104033 # 그 썩 사농 땡기는 사름더레 썩 논다 해 뒤근에 워리 머머머머 허멍 영 ㄱ르쳐 줘, 개가 어떻 눈치 빠르지.

104033 @ 어.

104033 # 계난 그 썩 사농 해나근에 허면 그 집인 가민 산신 놀이 해사켜 헌 건 계민 산으로 가근에 그 개 불르는 소리.

104033 @ 응.

104033 # 썩 느는 소리. 경 헤근에 문 산신 놀이 허는 거. 득, 장득 하나 아정 가근에.

104033 @ 응.

104033 # 어드레 논다. 개 어드레 불르라, 문 개 불르는 소리 문 내고.

104033 @ 응.

104033 # 어드레 썩 놀암저 허는 것도 다 허고.

104033 @ 응.

104033 # 경헨 산신 놀이 허는 거.

104033 @ 예.

104033 # 경 안 허민 안 헤어.

104033 @ 응.

## 5. 바다일

105001 @ 바당일은 어떤 거 어떤 거 해낫수와 옛날에 무신거 무신거 이서?

105001 # 메역허고게 옛날엔 메역 고동, 생복, 해숨 바다에 거 주로 그거야. 썰 목은 저 메역, 툄 그거.

105001 @ 그계 썰.

105001 # 썰 목이라이. 툄도 허민 이녁만썩 못헤먹영 다 금헷다근에 공동으로강 막 이 것이 조합에 가입허영 사름덜이 다 조합에 가입허영 허민 어촌계에 가입헌 사름덜은 그 툄도 허고, 메역이고 툄이고 다 가입헌 사름은 허고 경 안헌 사름 못

허게 허여이.

105001 @ 응.

105001 # 경허민 그 메역도 헤영 먹젠허민 딱 양력, 음력으로 혼 삼월 달이민 양력으로 혼 스월 둘 텔 건가.

105001 @ 응.

105001 # 경허민 메역 허체허젠 허민이 이디서 이 신흥리광 우리 이 태흥리광 굽이 이서. 이 바당곰도. 딱 굽을 놔근에 메역허치나 허젠허민 상즘수, 상즘수엔 헌 건 켈 물질 잘허는 사름 특허게 물질허는 사름, 저 펜이서 들 이 펜 바당에서 들헤영 딱 가근에 ㅋ스지내어.

105001 @ 아 고사 지내어.

105001 # 응 메역 첫번으로 허체허젠허민 이 바당 굽으로 강 이 신흥리 굽광 태흥리 굽에 강 딱 저 우리 알아듣게 허젠 허민 기도허는 거라이.

105001 @ 예, 기주마씨.

105001 # ㅋ스엔 헌 게 기도허는 거라이. 경헤영 딱 헤영 오라근에 메역허체허여.

105001 @ 무신거 올려. 고사할 때.

105001 # 응 올려.

105001 @ 떡이영 고기영?

105001 # 떡허고 고기허고 술허고 경 강 올려. 쫘금쫘금 많인 아녀.

105001 @ 바당에서?

105001 # 응 바당에 가근에. 오늘 우리 생각이민 오늘 이거 우리 태흥 전체 다 이제 메역 허체헴시난 해녀들 무신 사고 엇이 일엇이 무사히 지내즘서 허는 식이라이.

105001 @ 예.

105001 # 경행 강 ㅋ스 지내는 거라이. 경허민 그때 딱 메역허체 허민 옛날엔 메역도 자유대로 못헤여이. 웨방손님 글리젠 허민 어든 날은 메역 허체 못허여. 웨방서 딱 메역 허체 아무날 험다 허민 어디 강 오랑 곱앗당이라도 해녀덜 물에 들레 싹 물르레 강 들어불민 그 조름엔 어들로 강 트멍에 강 헤영 돌아도 몰라. 경헌 때문에 그것덜 좇아근앵에.

105001 @ 못허게?

105001 # 못허게 막젠 허민 감시 놓고 난릴 데싸. 옛날에.

105001 @ 하하하.

105001 # 또 경허고 우리도 어릴 때에 물질 배와올 때에 물질 배우레 가민 챗번은 어릴 때난 내비어이. 요만은 헌 디 강 지퍼근에 메역 요만씩 헌 거 툷앙 오민게 그때 혼 열두 슬쫘, 혼 슬쫘 헌 때난 저 두렁박이엔 헌 거, 똑 요만인 헌 거라이. 요만이 행 강 지영 하울락 하울락허민 막 지펫젠 헛자 울로 요레라.

105001 @ 예.

105001 # 경헌 때는 내비어. 혼 일 년은 내빚당. 그 물질이 흐쓸 익숙어 강 조금 베꿏디레 나강 지픈 디레 히는 중 알아가민 그땐 메역 못허게 막 감시덜 놔.

105001 @ 응.

105001 # 이제 품 쥐근에 감시덜 놓민 메역 헤영 또 우린 메역 그거 흐끔 헤영 오랑 돈사 정 어들로 영 물에 영 웨리당 영 막 꺷들로 웨려 막 슬피당 감시 안 오는 중 알민 메역 조금 헤영 오랑 돌 알르레 막 묻어비어.

105001 @ 곱짐으로?

105001 # 응 곱져. 곱정 오랑 막 그 감시허는 사름덜 오랑 막 테왁 문 들러보고 문 해봐근에 아니허민 이젠 가비어이. 가불 땐 이제 그것 강 슬째기 담양 오랑 그거 물렁 그거 폴아근에 그땐 조끔허영 그거 풀민 요시 광목, 이런 옷곰이 많이 이섯주만은 옛날은 미녕, 짠 거 그런 거 상 몸빼헤영 입고.

105001 @ 미역 풀양?

105001 # 응 메역 폴아근에 그 신도 상 신고. 경헤낫저 우리 옛날에.

105001 @ 메역이 값을 하영 쥐낫수과?

105001 # 메역은 옛날에 갑 하영 쥘. 이젠 메역 갑 안주난 이젠 이딘 메역 헐 거로 생각 아녀. 내비팅 그자 이 고동, 생복 그것만 헤도.

105001 @ 옛날에 메역 공동으로 허민.

105001 # 공동으로 메역 아녀, 공동으로.

105001 @ 공동으로 아니? 해녀들만 가근에.

105001 # 그자 해녀덜만 이녁만씩 헤지는 대로.

105001 @ 즘수, 즘네?

105001 # 이젠 해녀엔 끈주, 그땐 즘수, 즘수 헤낫어.

105001 @ 즘수에.

105001 # 즘수덜 가민 상즘수, 중즘수, 하 요거이. 세 질 네 질에 가는 거라이. 경허민 이녁 헤 지는 대로 헤여 메역은. 경 금헛당 허민 기자 하영 헤지는 사름 하영 허고 족영 헤지는 사름, 족아도 이녁씩 하도 이녁씩 그거 같르지 안허는 거난. 경 못허는 사름만 해롭는 거주. 금헛당 허젠 허민.

105001 @ 아.

105001 # 경허멍 헤영 그 메역을 폴아시멍 그걸로 생활 헤영 옷도 미녕도 사당 행 입꼭 또 흐쓸 서가난 광목 그런 시마지 꺷든 거 그런 거 사난 우리가 헤단 옷헛 입으멍 살아신디. 요즘은 또 이젠 메역은 이건 원 먹을 걸로 안 알아.

105001 @ 계난예.

105001 # 먹을 걸로 안 알아. 이따근에 혼 정월 날 체음 메역 날 때 고동 잡으레 뎡기멍 쪼금 어틸 때 요만씩 헐 때 헤영 오민 그 때 맛있덴 흐끔 먹는 거 뿐.

105001 @ 아까 상즘수, 하즘수 허민 어떻헌 사름이 상즘수?

105001 # 지픈디 강 히고 하영 즘물아 내는 게 상즘수. 힘도 빨리고 막 지픈디 강 영 보민 우리 영 혼 번 조름에 영 따라강 못허는 사름덜 영 따라강 보민 이 우

이서 물창 못보게 하여. 가물가물하여. 영 우로 베리민 사름이 물창 영 히어댕기는 게 가물가물하게 뵈려. 경 지픈디서 히고.

105001 @ 숨도 오래 참아?

105001 # 응 숨을 오래 참아야 지픈 디 가는거. 거난 옛날 눈은이 요새 이추록 큰 눈이 아니라이.

105001 @ 안경추록?

105001 # 올로 요만인 현 거라.

105001 @ 이런 거 아니 안경추록?

105001 # 똑 그추록 허영 올로 요만씩 허영 요영. 영허민이 지픈디레 숨벼가민 이 머리 땡기는 사름 이 눈이 바짝 부떠노민 이디 머리가 딱 증겨비영 경허민 지픈 디 못하는 사름 이서. 거난 요새 이 안경이 영 크난에 덜허느디 옛날엔 쪼끄만 현 거 요만은 현 거 경허민 머리가 잔뜩 등겨불민 지픈디 못가는 사름이 이서.

105002 @ 듬북하고 감태는 어떻게 헤난마씨?

105002 # 듬북도이 바당도 다 시계에 딸르는ㄴ라. 옛날은 듬북을 막 질어. 우리 질로 현 질씩 허민 음력 정월이 정월 멩질만 넘영 물끼 나민 물싸, 물끼엔 현 건 물싸는게 물끼라이. 조금은 물 안 싸근에 그자 들민 든 대로 ㄴ만이 잇고 또 물끼 엔 현 건 물이 싹 내려가불어.

105002 @ 예.

105002 # 내려가민 이디 물이 숨빱헛던 물이 싹 내려가민 여기가 달라이. 경허난 듬북이엔 현 건 우리 발로 현 발씩 넘어. 경허민 그걸 막 비어. 비영 땡겨다놔근에 이제 감저 모종 놓는 거야. 모종. 고구마 모종.

105002 @ 어제 곶아난 거.

105002 # 응 어제 곶아난 거 그추록허영 밧 갈아놔 곶아근에 그 우트레 또시 흑 더퍼놔근에 고구마 심어서 모종 낭 커근에 또 그거 꿀 그차다 놓고 경허는 거.

105002 @ 거난 그건 감저 걸름허젠 허는 거구나.

105002 # 응 감저 걸름허젠 그거는 허는 거고. 이 웨야지 질루는 디 허는 거는 보리 갈 때 쓰는 거고.

105002 @ 어쨌거나 듬북은 걸름허는 용으로예?

105002 # 응 걸름허는 거.

105002 @ 그것도 개인이 강 행 오는 거 공동으로 허는 거.

105002 # 어 그건 이녁냥으로 개인으로 강도 히고 바당이 막 파도가 처근앵에 태 풍이 불면 올라와이. 먼 디 것이 궂디 건 아니 메어져도 먼 디 건 그 듬북은 먼 디 건 올라오는 건 보민 슬그랑허지 안 허영 는질는질는질 허여이. 경해도 그거 올라 오민 그거는 반으로 강 갈라. 이녁 반만씩 가근에 현 반에 멧 사름헤영 강 갈랑 그 거 들르민 들른 대로 갈라 이제이.

105002 @ 아.

105002 # 모되놓명 하고 죽고 간에 모뿤 열마씩 영 영 눈 짐작헤근에 모되놔 그



거 갈라당 데멋다근에 그것도 감저 모종도 놓고 또 모종 낱 모종 경 싱글 때 또 고 구마 들렌 그런 디도 강 끌고 경 헛는디 이젠 그런 이 듬복이 안 나, 이제, 이 바당에. 어떤 일인지 원. 이디도 이 앞이 바당 막 가까운 단디 이 정월만 낱 물싸가민 듬복이 바짝허민 사름 걸러근에 어디 걸어댕기질 못헤신디 하나도 엇어. 이젠.

105002 @ 이젠예.

105002 # 경헤노난 듬복이 잘 안 나노난 고동도 알르레 느려가비언 벨로 엇고 생복이나 그전잉 저 오분제기, 오분제기 허멍 이 굿딜로 강 요렇게 요영헌디 강 손 쥘러보민 요만씩헌 오분제기가 이서이. 그런거 엇어 이제.

105002 @ 계난예, 먹을 게 엇이난.

105002 # 먹을 거 엇이난. 풀이 엇이난 풀 안 나노난. 풀 나사 그것도 먹영 사는 건디 풀이 하나토 엇어. 조개풀, 조개풀 허멍 강 보민 요만씩 헌 거 다박다박헌 풀이 민짜 나. 경허민 그 민짜 난 트멍에 요추룩 돌 알 강 영 문직으민 준 것도 있고 훑은 것도 있고 많이 떼당 먹어신디 이젠 오분제기 헉나 봉그젠 허민 하늘에 벨 따기라이.

105002 @ 양식헤부난.

105002 # 원 양식헤부난 산디 원원 오분제기 하나 구경을 못헤어. 이제.

105002 @ 감태는 마씨?

105002 # 감태는 메역ㄴ치 더박더박허여이. 막 질진 안헌 거지. 다박다박다박허멍도 퍼기가 안야. 느물 퍼기 모양으로 영 밧닥헌 거. 그거 요즘은 올리난 옛날엔 즈물안도 풀앗주만은이 요즘은 즈물지 안헤영 그냥 풍패, 올린 거 썬영 올린 거 그거허영 풀야. 것도 흔 칭에 요즘 십만 원이라이.

105002 @ 감태?

105002 # 응, 거난 요번이 감태허는 할망은 흔 이백만 원 산 사름도 있고, 흔 삼백 산 사름도 있고.

105002 @ 흔 가마니에 얼마 영헤?

105002 # 칭으로 떠. 흔 칭에 얼마허는 거.

105002 @ 흔 칭은 얼마이 헌 거? 멧 키로나.

105002 # 흔 칭은 육십키로.

105002 @ 아, 육십키로가 흔 칭. 갹 칭에 얼마.

105002 # 경 흔 칭에 얼마. 올리 막 감태가이 놀 하영 안 불어노난 올라오질 안헌 거라이. 갹단 요새사 쪼금 올라온 거. 경허난 감태 시월이 종안 경 막 하영 버슬 업서. 이제 오늘도 막 어제도 간 보난 축항에 간 보난 헨 널어선게.

105002 @ 감텐 무신 거행 먹는 거?

105002 # 건 이디서 몰라. 어디 뭐 약.

105002 @ 뭐에 쓰는 거?

105002 # 뭐에사 쓰는디 우린 받아가는 거난 몰라. 뭐에 쓰는 건디 뭐 옛날에는 요즘은 몰라도 옛날에 무신 아까쟁기도 만든다 무신 화장품에도 들어간다 그런 말

이 이서신디.

105002 @ 먹는 건 아니?

105002 # 먹는 건 아니. 화장품에도 들어가곡 뭐 아까쟁기에도 들어가곡 약초로 만 문 들어가는 거 그건. 약초에 들어가는 거.

105002 @ 감태는 공동이 허는 거 개인이 허는 거.

105002 # 개인이 이걸 이녁만씩.

105002 @ 옛날에도 이녁만씩.

105002 # 옛날에도 감태는 공동으로 안허여. 이녁만씩 해지는 대로.

105002 @ 듬북만.

105002 # 응 듬북만 이저 ㄴ찌 해낱 갈르든지 어떻 허주이. 감태는 이녁만씩.

105002 @ 이녁만씩.

105002 # 감태도 옛날에 돈 하영 갈 땀 이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해낱어이. 헛단 이젠 그거 안허여. 그거 해놔봐야 뭐 얼마 돼지도 안허고 자꾸 올르지도 안허곡 허는 거난.

105003 @ 고동허고 게는 어떻 행 잡으는 거마씨? 쟁이, 쟁이?

105003 # 고동은 감태가 잘 나야 고동이 하는 거라 것도. 먹을 거 이성이. 이디서 ㄴ뜨민 막 멀어. 가는 거. 이디서 글아도 몰라. 이디서 보민 사름이 아득아득 사름은 못 뵈리고 테왁만 아득아득 뵈려져이. 경헌디 막 멀리 내려강은에 지픈디 강허민 감태가 이렇게 시민 감태 이렇게 헤쓰민 그 아래 고동이 이서. 거 좃어오는 거.

105003 @ 고동은 소라?

105003 # 응, 소라.

105003 @ 아.

105003 # 소라 보고 옛날은 요즘은 중간은 소라 중간엔 고동 옛날엔 구쟁기, 구쟁기 해낱어.

105003 @ 아, 구쟁기엔도 해난.

105003 # 응 옛날은 아이고 구쟁기 하영 잡아서라.

105003 @ 더 옛날이 구쟁기?

105003 # 응 더 옛날이 구쟁기. 그다음 말제라가난에 고동, 또 아이고 고동, 고동 허단 이젠 소라.

105003 @ 이젠 소라. 응.

105003 # 이름이 세 가지라이. 이 고동.

105003 @ 게메예, 그것도예.

105003 # 것도 이름이 세 가지라. 옛날엔 구쟁기, 구쟁기 허단. 그다음은 고동, 이제라 가난 소라, 그거.

105003 @ 그건 줌수들만 강은에 허는 거구나예, ㄴ된 엇어예?

105003 # ㄴ되 엇어. 요 작년ㄴ장은 ㄴ되, 그전에는 ㄴ되 하낱어이. ㄴ되 향 물싸

민 물싸민 저 바구니 우리 잇잖아 요만은 현 바구니 영 차는 거. 그것에 창 가근에  
준 건 강 이시민 과당 먹어신디 이젠 그것이 엇어. 고동이 올라오지 안혀여. 먹을  
것이 엇으난 산디 이 푸십새가 엇으난 산디 고동도 굿디 먹을 풀이 이서야 올라오  
는 거주. 계난 이제 고동 잡는 거 보민 싹 아래 느려가.

105003 @ 그른 이거 구쟁기 말고 보말 닦은 거 이수께.

105003 # 보말 닦은 거 보말이지.

105004 @ 보말도 여러 개 잇지예. 이름이. 무신 보말, 무신보말 이수과?

105004 # 보말도 잇고, 춤ㄴ메기도 잇고, 수두리도 잇고, 문닫개도 잇고 여러 가  
지라.

105004 @ 문닫개?

105004 # 응.

105004 @ 또?

105004 # 그거베편이. 문닫개 저 거시기 수두리,

105004 @ 춤ㄴ메기.

105004 # 응 춤ㄴ메기 또 저, 보말,

105004 @ 보말.

105004 # 수두리.

105004 @ 수두리.

105004 # 문닫개.

105004 @ 문닫개.

105004 # 그거, 네 가지.

105004 @ 네 개.

105004 # 응 네 개. 문닫개는 해당 베랑 누게 잡아가젠도 안 헤여. 겐디 먹젠 잡  
아오민이 흐쓸 요거 씽쓰롱헌 맛이 서, 무쳐놓민. 그것이 맛이 좋앙 막 잡아부난 것  
도 엇어, 이제. 그건이 풀지도 아녀. 이녁대로 잡아당 이녁 먹는 거. 겨민 그것도 체  
암엔 문닫개난 쓰덴 누게 안 먹단 이젠이 그걸 무쳐놓민 씽쓰롱헌 맛으로 맛이 나  
와근에 무쳐놓민 그걸 먹어놓난 계속 잡아놓민 우리 강 이제 문닫개 잡아도 나 흔  
때 반찬헐 거 못 헤영 와.

105004 @ 응. 춤ㄴ메긴 어떤 거파?

105004 # 춤ㄴ메긴 준준헌 거.

105004 @ 준준헌 거.

105004 # 그건 젤로이 먹어도 설사도 안 나고 견디 여물이 얼마 안돼여. 좇어놓  
긴 좇어 놔봐도 요멘씩 현 거라부난. 경헌 거라부난.

105004 @ 그냥 보말은?

105004 # 그냥 보말은 흙어이. 요만큼씩. 요만씩 현 거 흙으민 것도 키로에 여라  
근에 여물만 뺀 거이 삼만삼천원이라이. 이디서 우리 푸는 거. 저딘 강 얼마사 받는  
디 몰라도. 받아가는 게 삼만삼천 원씩 경 받아. 경허민 소망인 사름은 흐루 가근에

흔 이키로 잡앙 오는 사름 일키로 잡앙 오는 사름, 우리 ㄴ쁜 사름은 가면 흔 오백 쫘 좃어 오고.

105004 @ 수두리는 어떤 거라?

105004 # 수두리도 똑 보말 닳은 건디 요것이 잘 열지를 못헤는 거라. 잘못 숲아 뎡기민 요 대가리만 나와. 또꼬냥에 건 ㄴ딱 그차져불어. 대가리만 나오민 얼마 웨 질 안헤여. 요것이. 것도 맞은 잇는디 보말이나 꼭 ㄴ쁜 건디 요 수두리는 잘못허민 이 대가리만 꼬차져근에 대가리만 나와. 게난 수두리는 영허민 보말은 멘질락허고 수두리는 영영헌고 꼬쟁이가 쫘짱헤여. 경허난이 이것이 잘 안 나와이. ㄴ메기 일름 도 여라 가지주.

105004 @ 게난예, 메옹이도 잇지안허여.

105004 # 춤 ㄴ메기, 나 ㄴ건 들어봐이. 춤 ㄴ메기, 보말, 수두리, 문닫개, 또, 메옹 기.

105004 @ 메옹기도 이서?

105004 # 메옹기엔 현 거 훑은 거.

105004 @ 아 이건 훑은 거.

105004 # 훑은 거, 또 마타슬이엔 현 건 요만씩 현 거.

105004 @ 아, 마타슬.

105004 # 요만씩 마타슬이엔 현 거 까망현 거 요만씩 현거 스랑스랑 현 거.. 건 장마에 가민 흔 밧디 막 메와져이, 장마에. 마타슬이엔 현 거.

105004 @ 마타슬.

105004 # 경허난 마타슬, 마타슬 허는 거. 이 장마 때 가민 영헌 돌 아래 가민 요것이 영헌디 그자 민짱 메와져. 경허민 그런 거 좃어당 열아떡젠 좃어오주 거 풀 진 못헤여. 누게 사가는 사름도 엇고.

105004 @ 마타슬, 또 다른 것도 잇수과?

105004 # 다른 거 이제 쉐다슬이엔 현 거 훑은 거 메옹기. 건 지픈디 가 잇어. 메옹기엔 현 거 그거이 메옹기엔도 ㄴ곡 쉐다슬이엔도 ㄴ곡.

105004 @ 아 ㄴ쁜 거.

105004 # 응 ㄴ쁜 건디 훑으난 건. 이만큼씩 훑어, 그건. 여물도 훑고.

105004 @ 아.

105004 # 겐디 그건 잘 이녁 잡아당 먹음이나 베피 베랑 사가진 아너.

105004 @ 이거 말고도 바당에 가근에 이거 ㄴ메기 잡으레 강 허는 거 뭐이수과? 뭐 잡읍니까?

105004 # 뭐 잡을 거 그런거. ㄴ메기허고 그자 춤 ㄴ메기 문닫개, 수두리, 보말 그 거나 베피 잇당 땅개비엔 현 거 벨망이.

105004 @ 그건 무신거?

105004 # 벨망이엔 현 거 잇어. 땅개비 땅개비허멍 납작납작허멍 검은 돌에 부뜨 는 게 이서.

105004 @ 응, 땅개비?

105004 # 응. 그런 건 이녀 먹젠 조금 헤영 오주 그거 풀젠도 못허고 이녀 먹젠 그거 역벌이명 돈 줄 거 ㄱ메기나 하나이나 잡주. 그거 해당 먹젠 안허여. 그건 여 물도 얼마 안허난 놀아진 사름이나 강 흐쉴 해당 먹주, 그거. 배랑 누게 떼어오는 사름도 엇고.

105004 @ 군벗은?

105004 # 응 군벗은 이거 해당 그건 폴아. 게도 잘 튼넙신게. 난 이디 앓양 살아도 튼내지 못헤영.

105004 @ 이거 옛날엔 안 먹어났수게.

105004 # 아이고, 옛날에 먹어 이거. 옛날부터 먹어. 군벗도 헤다근에 군벗 강 떼어다근에 물 팔팔 끌릴 때에 뭇 망사리에 낵 폭 등그는 거라 이건이.

105004 @ 흐뭇 질기지 안헤?

105004 # 폭 등가근엔에 확 건정 더운 물에 폭 등강 확 건저비사주, 오래 숲아불민 질겨.

105004 @ 아, 오래 숲양 질긴 거구나.

105004 # 오래 숲으민 질경 물 팔팔 끌인 디 무신 망사에 폭 등가근에 군벗이 죽음만 허면 죽음만 허면 확 건저내어근에 무시걸로 영 작작작작 영 그 망사리에 낵 영영 밀어. 밀멍 밀어근엔에 영 물에 낵 행구곡 행구곡 헤영 여물만 영 건지민 헤영케 벗어이. 그땐 무청 먹어. 그건 힘들어 먹젠 허민.

105004 @ 손이 하영 가는구나예.

105004 # 응 손이 하영 들어. 게난 잡아놓민 받아가긴 받아가는데 것도 갑도 얼마 안주고. 누게 경 힘들영 허지도 안허여. 이녀 먹을 거나 강 헤옴베끼.

105005 @ 또 쟁이.

105005 # 쟁이는이 저 그것이 약재라고 잡는 사름은 막 하영 잡양 키로에 팔천 원씩 헨 작년에도 혼 이십키로도 잡양 풀고, 주문와사 거는. 약 딸려 먹는 거라부난.

105005 @ 옛날엔 안 잡아났수과?

105005 # 옛날엔 잡아도 이녀대로 잡아당 뽕양 죽 쭈어 먹기, 국 끌려 먹기 헛주. 요새추록 약 빠는 디 강 그거 딸렁 빠근엔에 약으로 먹어보진 안헛어.

105005 @ 쟁이도 여러 종류 이수과?

105005 # 여러 종류 잇어.

105005 @ 어떤 어떤 거 이수과?

105005 # 전복 쟁이엔 헨 건 거멍헨 게 훤은 거 발도 이 아강발 영 접지는 거 그것도 훤고, 또 똥쟁이엔 헨 것이 또 잇어이. 건 막 우에 ㄱ른뵓 꿀메 잇어, 물꿀메. 경헌디 그건 가죽이 뽕랑뽕랑뽕랑허여. 뽕랑뽕랑허고 쟁이도 원 곱도 안허고 뷔림에도 경허난 똥쟁이, 똥쟁이 허는 거지.

105005 @ 이것도 먹는 거?

105005 # 어, 것도 먹긴 먹어도이 그놈으 거 심도 못허여, 재영.

105005 @ 아. 재영.

105005 # 그거 막 재영 심지도 못하고 그거 지금 약 빠먹나 허는 쟁이는 아래 강 돌 일러도 잡꼭 이 물때나 물 싸민 영 뜻은 때 썸은 가민 영헌디 막 나와이. 나오민 어떻헝 심젠허민 쟁이가 어떻게 빨르는지 몰라. 경허민 흐루 강 잘 잡는 사름은 혼 오키로, 경 안허 사름은 혼 삼키로 쟁 강 좇어와, 것도. 좇어단 막 푸는 사름은 폴아.

105005 @ 건 잡는 법이 잇는 게 아니고 그냥 심어지민 잡는 거?

105005 # 응 심는 건 그자 골쟁이로 어디 돌구멍에 영헌디 박아지민 골쟁이로 굵 노렌 허민 것이 화북허게 나와이. 나오민 그거 심영.

105005 @ 그냥 손으로?

105005 # 손으로 심는 거.

105005 @ 응.

105005 # 게당 어떻 손 쥘져불민 막.

105005 @게니까.

105005 # 손을 쥘지민 요놈이 죽아도이 피가 나게 줍아. 내불지 안허영.

105005 @ 응.

105005 # 경헝 쟁이만 톡허게 발 털영 톡허게 헤도 요놈으 털어져도 혼동안 접진 냥 이서, 요것이. 쟁이도 여라종류주.

105005 @ 여러 종류예

105005 # 그것은 무신 전복 쟁이.

105005 @ 전복쟁이, 똥쟁이.

105005 # 똥쟁이. 또 무신 풋쟁이엔 현 건 빨긋빨긋현 거 요만씩 현 거 존존현 쟁이. 그건 누게 좇어가지도 안허여. 이녁이나 먹젠 좇어오주.

105005 @ 응. 그.

105005 # 맛도 엇고.

105005 @ 맛도 엇고. 그 ㄹ메기 속에 들어가근에 사는 거 이수게. 쟁이.

105005 # 건 게들메기.

105005 @ 게들메기.

105005 # 응. 건 게들메기.

105005 @ 응

105005 # 흐쫄허민 게들메기 ㄹ찌 늪이 집이 강 들어앗암젠 허여. 거 어디 빈 딱 살만 이시민 어디 강 텅기당 그 빈 딱살 속에 움막 기어드는 거. 게들메기 거.

105005 @ 응, 그다음에.

105005 # 고동도 그런거 게들메기엔 현 거이 고동도 잡앙 왕 보민, 그 고동 게들메기 훑어.

105005 @ 아.

105005 # 흙어근에 그 안네 빈 고동 껍데기 시민 움막 기어들어근에 사름 봐지민 발발발발 막 돌아 그거. 계도 건 베랑 누게 좃어오지도 안허고 먹지도 베랑 안허고.

105005 @ 이제 푼는 거추룩 큰 쟁인 제주도 엇어났어예?

105005 # 이제 그추룩헌 쟁이 이디서 안 나와.

105005 @ 안나와예.

105005 # 이추룩 수랑수랑 이만씩헌 쟁이 그런 거 안 나와, 이 제주.

105005 @ 제주도는예

105005 # 응, 그런 건 안 나와.

105006 @ 햇불로, 불 무사 영 찍이나 이런 걸로 햇불 만들앙 퀘기 잡아낫수과?

105006 # 퀘기 잡지를 안허고 그런 건 우리 밤ㄹ메기, 밤ㄹ메기허멍 조금에 물싸민 저 물 싸면은 그 햇불 영 들렁 강 보민 그 고메기가 과제기 나이. 보말이엔 헌 거이.

105006 @ 응.

105006 # 과제기 나민 옛날엔 강 그것 강 썰어다근에 옛날엔 그런 ㄹ메기 잡앙 푼는 사름도 엇고 사는 사름도 엇어났어. 계난 이녁 먹젠 이녁 먹젠 낮이 일허다근에 ㄹ메기 잡으레 못 간 사름덜은 햇불 쌍 가근에 요즘 전기불이민 전기 후라이라도 영 들렁 거주만은 검질로 무껍 회 쌍 영 들르민 ㄹ메기 과작헤시민 영 썰어.

105006 @ 아.

105006 # 썰어당 그자 이녁 먹는 거, 옛날에. 겻주만은 그런 ㄹ메기가 엇어. 하도 잡아놓난.

105006 @ 그건 아까 언제 가는 거 조금에?

105006 # 조금에 물 흐쓸 들도 싸도 아니힐 때. 그런 때 강. 들도 싸도 안허는 거 닳아도 조금에도 쪼끔 물이 느려불어이. 경헌 땀 강 햇불 드르민 발 요만이만 적지민 난 거 좃어오지게.

105006 @ 조금은 계난 음력으로 메칠 쫘 뒤는 거마씨?

105006 # 음력으로 들 발황 막 보름이면은 보름 물이 켈 그날 흐루 잘 싸는 거.

105006 @ 응.

105006 # 또 그거 구물어 가민 이제 츄츄츄츄 물이 떨어져 가이. 싸가는 게. 떨 엇당 그것이 막 구물어. 들이 막 구물면은 물이 싹당 또 초승 나가면은 또 물이 츄츄츄 들어. 흐 들이민 그믐 물끼, 보름 물끼 두 물끼라, 물끼가이.

105006 @ 응.

105006 # 그믐 물끼엔 헌 건 들이 구물면은 막 그믐 날은 물이 ㅼ씩 싸는 거. 또 보름날 뒤민 물이 바짝 싸는 거. 또 보름 넘어사가민 츄츄츄츄 물이 떨어정 조금 들어 가는 거.

105006 @ 응.

105006 # 겨민 스무사흘 한 췌기. 옛날 말로 스무 사흘 한췌기. 스무사흘 뒤민 들도 싸도 안허는 거라이.

105006 @ 아, 스무사흘은 혼 조기.  
105006 # 응. 음력으로 스무사흘이 한 조금.  
105006 @ 음력으로 스무사흘이 한 조금.  
105006 # 응, 또 음력으로 초여드레가 한 조금. 팔일.  
105006 @ 팔일이 한 조금.  
105006 # 응 혼 들에 두 번이라.  
105006 @ 이게 젤 물 안 싸는 거?  
105006 # 응 그것이 한 조금 날이 물 젤 안 싸는 거. 들도 싸도 안허는 거 이거.  
105006 @ 십오일하고 그름이 물 젤 많이 싸는 거예?  
105006 # 응, 보름날이 젤 최고 싸는 거, 그름날이 최고 싸는 거. 젤 물 잘 싸는 날이 그름날, 보름날.  
105006 @ 응. 이거 혼물, 두물 영 험니까?  
105006 # 응. 보름이민 일곱물.  
105006 @ 보름이 일곱물. 그다음에.  
105006 # 또 그름이 일곱물.  
105006 @ 그름이 일곱물. 물 안싸는 날은 멧 물이라?  
105006 # 스무사흘날. 한조금이라고 그때가 젤 물 안싸는 거. 스무사흘이. 또 초여드레. 그디가 물 윈 안 싸는 거.  
105006 @ 응. 그 때는 멧물이엔은 안 글아?  
105006 # 혼물 두물 아해영 오늘은 아끈췌기 넬은 한췌기.  
105006 @ 아끈췌기 뉘짜?  
105006 # 일렛날은 물이 쪼끔 싸네. 그때허곡 요거. 한조기날은 물 들도 싸도 안헌 날이라.  
105006 @ 거난 아끈췌기는 한조금 바로 전날?  
105006 # 응 전날. 게난 요거 이틀은 물 들도 싸도 안허는 날.  
105006 @ 이 날은 뉘 못잡겠구나예?  
105006 # 응. 게난 서물 날부떠 이 해녀들 물에 들어도. 서물날부떠 허민 이제 초여드레가 한조기 아흐레날, 열흘, 열흐루부떠는 물질을 시작허는 거라. 서물날부떠, 열흐룻날 부떠.  
105006 @ 열흐룻날부터. 그게 서물, 그때부터 물질 시작허는 거.  
105006 # 응.  
105006 @ 팔일이 한물이구나게. 구일이 두물, 아 아니네.  
105006 # 아니, 구일이 혼물.  
105006 @ 구일이 혼물. 십일이 두물.  
105006 # 두물.  
105006 @ 십일일이 세물.  
105006 # 응.



105006 @ 십이일, 십삼일, 십사일, 삼사오륙칠 거믄 보름이 일곱물예.  
105006 # 응 보름이 일곱물.  
105006 @ 십육일은?  
105006 # 또 혼 물끼는 스물사흘이 한 조금이라이.  
105006 @ 응. 스물사흘이 한 조금.  
105006 # 스무나흘이 혼물, 스무닷새가 두물. 스무엿새민 서물.  
105006 @ 아, 스물 사흘이 한 조금이난 스무나흘이 혼물 이십오일이 두물 이십육일이 서물예.  
105006 # 응, 경행 세영 딱 보름 뉘민 일곱물이라이.  
105006 @ 보름 뉘민 일곱물예.  
105006 # 응 십오일 뉘민 일곱물.  
105007 @ 예. 게민 아 옛날에 원담이엔 현 것도 해근에 꿩기 잡아낫수과?  
105007 # 아 원담이엔 현 건이 바당에 강 영 늙은 하르방덜 그자 고기 못 나끄민 강 영 둘러났어. 담을 다와서이. 노프게도 안 다와. 요만은 다우민 물끼에 고기가 들어오민 나가질 못허는 거라이. 건디 그것도 어느 때 들어오느냐면 그 원에도 아무때나 고기 안 들어. 옛날엔 멜을 잘 들어. 멜 들엉 그 멜 조름 쪼차오는 게 그 원 다왕 놔두민 그 멜 조름 쪼창 들어온 뉘 고기들 하영 잡아. 원 다왔다근에.  
105007 @ 원 다왔다근에.  
105007 # 원이엔 현 거 그거. 원담 다왕, 원담 다왕, 거 고기 잡는 하르방덜이 이디도 옛날 하르방 이션 죽어빚주만은 그 하르방 우리 두릴 때 보민 원담 다우레간. 원담 다왕 뉘헐 거짜 허민 우리 몰르민 고기 들어오민 잡을 거 아냐 허멍 이디도 요 저디 산것이엔 현디 느랑 원담 다와났어. 하르방이 경허단 이젠 안허부난 그것도 막 헤짜져부난 어디 원담 다와난 것도 몰르고 경.  
105007 @ 게난예.  
105007 # 응, 갱헛당 고기들 들어오민 잇다근에 하영은 못 봉가도 멧개씩. 잇당 멜 조름에 들어온 뉘 하영 봉그고 멜 아니 든 뉘 어떻허당 하르방이 영 가다오다 물끼에 강 보민 잇당 멧 개씩 봉가와.  
105007 @ 그건 어떻 손으로 잡아, 채로 건져?  
105007 # 거시기 구물 헤여근에 영. 그것ㄴ라 족바디, 족바디 행 영  
105007 @ 족바디?  
105007 # 응. 남 영 오그령 뱅동글랑허게 허영 스랑허게 허영 그물 헤영 걸로 멘들아. 멘들양 강 영.  
105007 @ 거려?  
105007 # 거려. 거려. 게안허민 손으론 못 심지.  
105007 @ 게난 손으로 못 심지. 족바디?  
105007 # 응, 족바디 그게.  
105007 @ 멜은 어떻 잡아낫수과?

105007 # 멜도 그런 걸로. 족바디엔 현 건 나무나 경아니민 대 왕대 잇잖아이.  
왕델 영 큰 왕대허여근에 영 벌르는 거라이.

105007 @ 응.

105007 # 벌렁 벳디 놔두민 이것이 반쯤은 몰르민 흘랑흘랑허여이 대가이.

105007 @ 응.

105007 # 흘랑흘랑허민 그 델를 오그리는 거라. 뱅허게 오그령 요영 오그령 올론  
영 벌리고 올론 오그령 흔 밧디레 즐라 무끄는 거라. 영 질게 손잡이에.

105007 @ 예.

105007 # 꺽 것에 구물허영 강 그걸로 가근에 그것도 요영현 디 또 노 하나 허영  
올로 즐라 무끄고 요레 똥기는 거 헤여이. 영 몰알로 강 고길 거리민 이 노를 영  
등겨사 영 올라올 거 아니?

105007 @ 예.

105007 # 경헤영 그걸로 강 멜도 거리고 고기도 올라오민 그걸로 강 영 거리고  
경허는 거. 것이 족사들.

105007 @ 족바디 아니고?

105007 # 족바디엔도 곤고 우린 옛날엔 족사들. 사들이엔 곶아난.

105007 @ 족사들?

105007 # 응, 우리 두린 때 아이고 족사들 아전 간덜 막 거렵시네. 족바들엔 안  
행 족사들 아정 강 멜 거렵저, 무신 고기도 간 거려왔저, 그거라.

105009 @ 응, 옛날에 멜은 그냥 들어오는 거 흐끔씩만 거리는 거꽈? 저 조천드  
렌 막 하영 들어와났덴 헨 게 만은.

105009 # 옛날은 배로 헤여근에 이 조천드레 어드레 헛주만은 이딘 들어온 멜 베  
편 배로 멜 거릴 디가 엇어. 이딘 문 여파당이라부난.

105009 @ 무신 바당?

105009 # 여 바당이라부난 여 하부난.

105009 @ 아 여가 하부난.

105009 # 응, 몰래가 해야 똤는데 그전이 저 표선인 가민 멜 거려났어. 그 몰래  
판으로 멜 강 등겨와. 막 멜 등기는 소리가 웨여근에 들을만 허여.

105009 @ 아, 남원인 그게 바당이.

105009 # 이디 바당이 문 여라농난이 어디 곳되라도 모살 판데기가 엇어 이디.  
경헤노난.

105009 @ 계난 멜을 못허는구나예?

105009 # 조천쪽드레 어딘이 바당이 몰래 바당이 하거든. 겨난 이디도 저 표선이  
가민 그 몰래 바당에 옛날에 멜 거려났어, 그디서

105009 @ 배로 행 몰앙예?

105009 # 몰앙 와근앵에 곳되 오랑 막 등겨근에 멜덜 거려났어. 이딘 그런 거 엇  
어

105009 @ 이딘 그런 거 잊어예.

105009 # 어떻허다근에 멜 굿디 들어오라근에 허민 그런 거나 봉가당 먹고. 경허민 멜 들어왔젠 허민 물싸가민 돌고망에 문 박아진 거 돌 일르멍 우리 좇어와난.

105009 @ 돌 일르멍 무신걸 좇어?

105009 # 그 멜.

105009 @ 멜을.

105009 # 응. 물끼썸은 물 숨빡헌디 물 싸불민 멜이 다 나가지 못헿 막 돌고망마다 영헌 요만씩 헌 물통마다 나가지 못헿 들어온 게 잊어. 겨민 그거 막 좇어.

105009 @ 아, 아까 원에 강 허는 게 아니고 그냥 바당에도 막.

105009 # 원에 허는 건 그 원 단 사름이 경 므음대로 못 잡게 허메.

105009 @ 아, 그냥 흐뎡 영 물 골르디 가근에.

105009 # 응, 골르는 디 그 원 안 다운 디 강 흐뎡씩 돌 트멍에도 접저지곡 영헌 쫓꼬만헌 동글락 동글락헌 통에도 멧개씩 허고 허민 그런거 봉가낫주, 원 다운디선 105009 우리 못허여.

105009 @ 아.

105009 # 원 다운 임제가 이서부난.

105010 @ 퀘기는 어떻헿 나간마씨? 건 남자덜 허는 건가?

105010 # 응, 건 남저덜 허는 거. 여저덜은 그런 고기 안나까봐서, 여기. 이제난 여저덜도 막 춤대헿 강 고기 나끄지. 옛날엔 그런 거 잊어.

105010 @ 퀘기 나끄는 건 남저덜만.

105010 # 남저덜만.

105011 @ 낚시대 가튼 거 해근에 헤여.

105011 # 낚시대로 아녕 술. 막 질 혼, 혼 서른 발씩 헿 가근에 그놈으 이디서 미녕실로 헿 노 어디 강 사드근에 그걸 막 감 밍기는 거라이. 감 밍겨놓민 이 술이 빠닥헤여. 물랑물랑허질 안허고.

105011 @ 감 밍기는 건 뭐?

105011 # 그 술이.

105011 @ 뭐 맥이는 거?

105011 # 감물을 맥이는 거라.

105011 @ 아, 술에.

105011 # 응 고깃술에 감물을 맥이면 이 그 고깃술이 빠닥빠닥 세는 거라이. 세민 그거 아정장 멀리 가근에 배 탕 가민 갈치 그거 나까오는 거. 그거 허주, 이 굿디 고기는 춤대 요만씩 헌 걸로 무시거 쟈쟈헌 거, 요만씩헌 퀘기 그런 거베피 안올라오주.

105011 @ 낚시대는 춤대 허는 거는 대낭으로 허는 거지예?

105011 # 대낭으로 헤영 이디서만 허고, 그 술 경허민 이건 혼 스십 발 허여이. 갈치 나까오는 거 옛날에. 혼 사십 발 허여근에 술 빠짝허게 허젠 허민 감 밍기민

감이 바짝바짝 세잖아이.

105011 @ 감은 선 걸로?

105011 # 응, 선 거. 선 걸로 허민 감 들여놓민.

105011 @ 옷에 물들이는 거추룩예?

105011 # 응. 바짝바짝 세여이. 세민 그거 사령 가근엥에 막 술 막 놀려근에 배저래.

105011 @ 가운데 중간중간에 낚시 바놓을 끼우는 거라.

105011 # 아니 낚쟁이 하나에 낚시 두 개 걸어 매어.

105011 @ 아 그 술에 낚시 두 개.

105011 # 경혜영 막 널리 흘려근에 놔뒀. 흐꼬 배 나가명 흘렝 다 흘려지민 ㄱ만 이 앞앗다근에 술을 등기면 어떻허당 갈치 들어올 때는 많이 나짱 오고 경 아니민 흐나 두개 나짱 오는 사름. 경 아니민 편쩍 못 나짱 오는 사름 경허여.

105011 @ 그건 춤대 엇이 그냥 허는 거 아니?

105011 # 춤대 엇이 허는 거. 춤대 엇이 그건 허는 거. 요즘은 갈치도이 푸는 춤대들 잇잖아이.

105011 @ 예.

105011 # 그런 거 행 강 갈치도 나짱 오고, 고등에도 나까 오고, 다 햄주만은 옛날엔 그런 것이 엇엇어.

105011 @ 응. 게민 낚시, 보통 낚시 줄은 아까 그추룩 헤근에 미녕으로 아까?

105011 # 미녕실로 헤영.

105011 @ 미녕실로 감 밍쟁예?

105011 # 경혜영 감 밍쟁은에 바짝바짝 세계 헤사 경헤사.

105011 @ 옛날에, 지금은 낚시줄 나이롱 줄 햄주만은 옛날은 그걸로 헛구나예?

105011 # 그런 것이 그것이 엇어. 그런 것이 엇어.

105011 @ 낚시 바놓은 어떻 멘드는 거?

105011 # 바놓은 간 어디사 간 멘드는디, 거는 사와.

105011 @ 사와.

105011 # 갈치 낚시는 질어. 이만큼 현 거 요영 오그라진 거. 이만큼 질어. 갈치 나끄는 빵들은이 이만은 허여. 커.

105011 @ 아.

105011 # 또 어랭이 빵들은 요만씩 베끼 안허고. 어랭이 나끄는 거.

105011 @ 어랭이 빵들은.

105011 # 즐아.

105011 @ 즐아. 응.

105011 # 요만씩 현 거 이디 대 저 잇잖아, 수리대. 그거 행강 허는 거난 영 그것에 즐라맹 놔뒀도 고기가 물민 고기가 쫙쫙쫙허민 등기는 거라 이디서이. 막 게민 옛날엔 저 웃드르선이 어랭이 나끄레 이디 물끼 나가민 막 하영 와.

105011 @ 아.

105011 # 막하영 와. 옛날에 고기가 어려우난 걸로 멧질도 헤 먹고 체스도 헤먹고 어랭이 나까단.

105011 @ 주로 어랭이만 나까? 다른 건 안 나까져.

105011 # 어랭이, 어랭이 나끄고 것에 소망일영 우럭도 올라오민 우럭도 나끄고. 경허는.

105012 @ 작살로 고기 잡으는 거는?

105012 # 건 해녀덜.

105012 @ 옛날에도 해난?

105012 # 요즘은 그런 거 벨로 엇어. 허긴 해도 하지 아녀. 그전인 보민 해녀들마다 그 작살 아정 땡겨. 대 이만은 현 거 흐나 헤여근에 고무줄 딱 즐라 매영 고기 저만이 봐지민 고무줄을 싹 늦춰. 고무줄 늦창 강 고기 발라 강 작살 영 대영 고무줄 출라 내불민 그때는 그 고기가 맞는 거라. 소망일민. 경행 고기 쏘는 거, 그 거. 작살로 쏘는 거.

105012 @ 아, 옛날에 작살로 해녀들 고기 잡아낫구나예.

105012 # 해녀들 물에 들레 가멍. 완전 옛날에 그거 엇어나고 요 중간에.

105012 @ 중간에.

105012 # 완전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서서? 겨난 중간에 그거 낭 고기 쏘아 가난 아이고 요즘은이 해녀들 다 고기 쏘아오랑 먹고. 돈에 뵈에 드느니, 드느니? 해도 또 요즘은 또 그거 쏘는 사름은 쏘고 고동만 줍젠허지.

105013 @ 퀘깃배는 어떤 종류 이서마씨, 퀘기 잡으레 가는 배.

105013 # 퀘기 잡으레 가는 건 지금은 먼 발동기잖아이.

105013 @ 옛날에.

105013 # 옛날엔 풍선배라고이.

105013 @ 응.

105013 # 사름이 경허난 옛날엔 바당에서 많이 죽어이 사람이. 브름 불민 이 뱃돛이엔 현 건이 천이라 영. 천에다가 영 대 세와근에 그것에 고망 딸라근에 그 풍선에 영 뱃돛, 뱃돛허멍 그것에 브름이 부떠사 배가 짹짹 나가주게. 잇당 이 테레비 보민 잇잖아.

105013 @ 예, 이서마씨.

105013 # 그추룩 현 거라.

105013 @ 돛단배.

105013 # 그런 거라. 뱃돛, 뱃돛허는 게.

105013 @ 뱃돛? 돛?

105013 # 아니 돛이 아니고 돛.

105013 @ 아 뱃돛. 응.

105013 # 게민 그거 들앙 먼 바당에 강 고기 나까근에 그 생성들 나강 오젠허당

보민 브름이나 불민 오지 못행 바당에서 죽는 사름 하, 옛날에.

105023 @ 뱃뚫은 계난 하나만 달아?

105023 # 두 개.

105023 @ 두 개.

105023 # 앞이 죽은 거 뒤엔 큰 거 행 두 개 돌아나서.

105023 @ 앞이 죽은 거 하나 뒤에 큰 거 하나 해근에 두 개. 응. 계민 이런 돛단 배는 무신거엔 글아?

105023 # 풍선.

105023 @ 풍선. 이런 배 말고 다른 뱃 잇어? 돛 잇인 거.

105023 # 돛 잇인 건 요새 뽕메나 아니곡 발동기나 아니민 그런 배 잇어.

105022 @ 테우 이런 건?

105022 # 테우?

105022 @ 떼배? 그냥 낭 영 싸근에.

105022 # 아 그건 테우.

105022 @ 응. 테우.

105022 # 응, 그건 낭만 이추룩헌 낭 요추룩 놔. 요추룩. 조근조근조근 낭 일로 고망 딸라근에 요 고망 흐쓸 딸르고 요레 고망 딱를곡 헤영 요레 남 영 낭 요영행 똑 행 마께로 두드렁 요추룩 행 췌왕이.

105022 @ 응.

105022 # 경행 올론 가민 베로 막 췌와비아. 양펜 끄을. 췌왕 허민 요로 이젠 네 라고이 또 그디 무시거 고망 딸라근에 진진헌 낭 고망 딸르곡 허영 툃 허게 끼왕 젓는 거 이거라 이거. 네 젓는 거.

105022 @ 영 젓어.

105022 # 영영 젓어. 경헤영 저 바당에 강 자리나 거려오곡 어랭이나 나끄게 텅 김베편 어디 강 고기 나끄레 못 가는 배.

105013 @ 멀리 가는 건 풍선.

105013 # 멀리 가는 거 아니. 그거 브름만 불었다 허민 올라와보지 못허는 거난 조금 나가 이레 쪼끔 나강 어랭이 나끄는 거. 옛날에 자리 거리레 요레 흐쓸 나강 거리는 거.

105013 @ 응.

105013 # 경해도 옛날도 자리 거리레 갓당도 어평행 갈브름이나 세계 불민 올라와보지 못헤영 죽은 사름이 하. 바당에 강 죽은 사름이 하.

105013 @ 계난예.

105013 # 요즘은 기젓배난 뭐 브름 세고 아무걸 허고 태풍만 아니 불면은 바당에 가거든. 옛날엔 뭐 원체 날이나 불민 가고 경 안허민 못가고.

105014 @ 응. 즘수들이 강 바당에 강 행 오는 것들은 주로 뽕뽕뽕 마씨, 옛날에.

105014 # 옛날엔 기자 고통허고.

105014 @ 고통.  
105014 # 생복.  
105014 @ 생복.  
105014 # 원 그거주. 무시거 메역혈 때 메역철 나민 메역.  
105014 @ 메역.  
105014 # 원 그거주. 무시거 헤영 오는 거 엇어. 소망일영 생복이나 잡는 사름 지픈디 강 쉬는 사름 생복. 그거. 그거나 헝 옛날엔 생복, 고통, 그거 메역 그것만 헤연 살앗주. 무시거 벨로 혈 것 엇어, 해녀덜. 요즘도 마찬가지로 고통 그자.  
105014 @ 응. 생복은 것도 재수 존 사름이 강 허는 거주예?  
105014 # 응 재수 좋양 눈에 비추민 허고 경 안허민 것도 우리ㄴ튼 사름은 생복 하나 잡아보지 못헤여서.  
105014 @ 하하하.  
105014 # 것도이 머정이 이신 사름이라야 생복도 보이주 경 안허민 안 보여.  
105014 @ 머정이 무신거?  
105014 # 머정이엔 헝 건 어떤 사름은 가면은 ㄴ치ㄴ치 강 우리가 요디가근에 돌을 일러도 요펜 사름은 잘 보이는 거라이.  
105014 @ 응.  
105014 # 이펜 사름 하나도 못 잡는 사름이 이서.  
105014 @ 맞아, 맞아.  
105014 # 겨난 이것이 머정이 잇다엇다 허는 것이 그거야.  
105014 @ 아.  
105014 # 재수가 좋고 굿는 것이. 어쁜 사름은 재수가 좋양 물에 감만 허민 생복을 잡고.  
105014 @ 계난.  
105014 # 어쁜 사름은 암만 ㄴ찌 강 물에 들어도 생복 하나 구경을 못허는 사름이 이서. 겨난 것ㄴ라 머정이라고.  
105014 @ 머정이라고 곤느구나예. 머정 잇텐?  
105014 # 응 머정 이신 사름은 생복을 잘 잡고 엇인 사름은 못잡나 그거지.  
105015 @ 응. 즘수들이 물질허레 갈 때 무신거 무신거 가정가?  
105015 # 지금은?  
105015 @ 아니 옛날에.  
105015 # 옛날에 무신거 가정갈 거 엇어.  
105015 @ 구덕에.  
105015 # 구덕에 그냥 검질 담양 가근에.  
105015 @ 검질 담양.  
105015 # 그걸 왜 검질 담양 요즘은이 이 고무웃이 나난 겨울이고 여르이고 고무웃 딱 입영 가면 이젠 저 수도가 잇곡 전기가 시난 탁허레 보일라 터근에 해녀들

강 와도 호강이라이. 보일라 탁 텅 더운물 나민 옷 삭 벗어똥 더운물 작작 치데기  
명 모욕을 허지만은 옛날은 요 속곳이엔 현 거 잇어이. 속곳이엔 현 거 올로 요만  
은 현 거 입영 적삼도 엇어, 이디 그자 맨 독지에. 눈이 오고 아무걸 허고. 아무것  
도 안 입영 그냥. 그 눈 팡팡와도 그것만 입영 강 그 고동 멧 개 강 좃어 아정 오  
민 막 얼영 닥닥 털어이. 얼민. 털민 그 불 숨아, 츠젠.

105015 @ 응.

105015 # 구덕에다가 이제 검질을 혼 구덕씩 담양 느려가.

105015 @ 응.

105015 # 게민 우리가 열이민 열사름이 구덕을 혼 구덕씩 담양 가민 흐뎡씩 지드  
명 그 불 츠는 거라. 불 숨양. 츠와사 집이 오주. 경안허민 얼영 오질 못허난게.

105015 @ 응.

105015 # 요즘은이 해녀들 보일라 터어노난 강 더운 물에 모욕 삭 허민 몸이 삭  
삭 풀어점지.

105015 @ 예.

105015 # 그거 아니. 옛날엔 물점삼을 입으카. 물적삼이 무시거라 구경도 못허곡  
그자 물웃 흐나 요거 속곳이엔 행 올로 요레현 거 메친 멘 거 흐나만 입영 눈 팡팡  
와도 해숨 난텐 눈 잘 온 뎨 해숨이 나이.

105015 @ 아.

105015 # 눈 아니 온 때는 해숨도 잘 안나. 눈 막 많이 온 뎨, 야 올리 해숨 잘  
나켜, 눈 하영 오랑. 경.

105015 @ 응.

105015 # 눈 하영 오는 헨 해숨이 잘나. 그 몰래 판에 가면. 경허민 그 해숨 잡  
젠덜 막 강 얼영 닥닥닥닥 허멍 강 오민 아이고 얼어근에. 눈이 팡팡팡팡 오는디.

105015 @ 구덕에 검질 놓고 또.

105015 # 테왁놓고.

105015 @ 테왁놓고.

105015 # 경혜영 정 가는 거. 베로.

105015 @ 이건 테왁이고 밑에 건.

105015 # 밑에 건 구덕에.

105015 @ 망사리?

105015 # 응. 테왁에 돌아매는 거.

105015 @ 테왁에 돌아매는 건 망사리엔 굴아?

105015 # 그건 망사리. 망사리행 돌아매사게 그디강 뭐 잡아근에 그레 들어쳐 아  
정오주. 물에 가면.

105015 @ 응. 그거 가지고.

105015 # 테왁은 우리가, 테왁은 우리가 지평 밀령 의지허는 거, 우리가. 테왁 엇  
영은 휘질 못허난 그거 지퍼근에 테왁 행 그 망사리에 요만은 허게 혜영 남 오그려



이.

105015 @ 응.

105015 # 남 오그령 요만은 혜영은에 그 망사릴 돌아매는 거라.

105015 @ 응.

105015 # 돌아매곡 테왁 돌아매민 영 그 대영 심으민 그 테왁이 영 등등 뜨난 그 거 의지가 막 크는 거라. 그거 밀려근에 이디도 가곡 저디도 가곡 험주. 경 안허민 이 툐 손에는 얼마 못 텅겨. 얼마 못 텅경 와, 지청.

105015 @ 그다음은 호미나 무신거 들렁 가야할 거 아니?

105015 # 메역혈 땀 호미.

105015 @ 메역혈 땀 호미.

105015 # 그 줌은 이제 골쟁이 다.

105015 @ 아.

105015 # 쪼그만헌 골쟁이 헉나 앓양 강.

105015 @ 거 무신 골쟁이엔 허여?

105015 # 무신 골쟁이 요즘 그자 골쟁이 허주, 무신 골쟁이가 엇어. 골쟁이는.

105015 @ 아. 바당에서 쓰는 골쟁이 따론 안 나와?

105015 # 아니 나와.

105015 @ 옛날에도 똑 같애?

105015 # 똑ㄴ태. 요즘 골쟁인 저 옛날은 검질 때는 골쟁이 그냥 아전 텅겨신디 요즘은 바당에 아정 텅기는 거 이디 검질 안 매난 동글랑허게 기자 동글랑허게 요만은 허게 영 오그려 진거. 그거.

105015 @ 거 뭐엔 곤는 말은 엇고?

105015 # 뭐엔 곤는 말 엇어. 골쟁이. 골쟁이란 그걸로 강 고통이라도 이영헌 트멍에 이시민 손으로 못 빠내민 그거 오여내는 거.

105015 @ 생복 영 허는 거.

105015 # 빗창.

105015 @ 빗창예. 것도 가정 가살 거 아니. 이신 사름?

105015 # 이신 사름은 가정 가주.

105015 @ 물질허레 줌수들 갈 때 구덕에.

105015 # 다 가정 가.

105015 @ 구덕에 거난 눈도에.

105015 # 눈도 놓고, 빗창 놓고, 메역혈 땀 호미도 놓고 또 헛물혈 땀 골쟁이도 놓고 빗창도 놓고 경혜영 가고 그거주. 무시거 벨 다른 거 아정 텅기는 건 엇어. 가민 빗창은 그 생복이나 하나씩 떼젠 허민 물에 들레 갈 땀 요 구불에 창 가.

105015 @ 구불에?

105015 # 응 구불에, 이디 창 가.

105015 @ 그디가 구불에?

105015 # 이디가 이디 허리에.  
105015 @ 준등어?  
105015 # 응 준등어 영혜영 이디 곶을 우리가 메잖아이.  
105015 @ 응.  
105015 # 이 곶 멘 것 덜에 뺑허게 혼번 감양 이디 창 가.  
105015 @ 빗창을?  
105015 # 응. 창 강 생복 봐지민 영 심영 확 빠네지. 경 안허민 빠네지 못해.  
105016 @ 응. 계난 옛날 물질에 비허민 이젯 물질은 막.  
105016 # 아이고 막 한글허는 거. 막 한글헌 물질. 옛날 닻지 안혜영. 요즘은 뉘 고무옷 하나만 입영 물에 들영 눈 광광은 디레 세 시간이고 네 시간이고 이녁 살고 싶은 대로 살앙와. 기자.  
105017 @ 고무옷은 언제쯤 나수과? 할머니도 고무옷 입어봐?  
105017 # 안 입어봐.  
105017 @ 안 입어봐.  
105017 # 고무옷 나건 디가 혼 고무옷 나건디가 혼 삼십년.  
105017 @ 응, 삼십년. 응.  
105017 # 그 정도. 혼 삼십오 년으로 삼십 년 새로 그거. 겨난 요시 물질은 바다에 강 살고싶은 대로 살앙 오주만은 이거 고무옷 나건 디가 삼십오년.  
105017 @ 옛날에.  
105017 # 삼십오년. 삼십오년 웹서.  
105017 @ 겨난 처음에는 아까 속곳만 입영예. 속곳은 그냥 속곳이엔 곶아, 뉘 큰 말 엇어.  
105017 # 속곳이엔 곶아.  
105017 @ 그냥 속곳이엔 곶아.  
105017 # 속곳이엔 허고 물웃.  
105017 @ 물웃.  
105017 # 응 물웃. 물에 들어 갈 때만 즈지 입으난 물웃. 그자 곶기 좋덴 물웃 이레 앓아오라 영허고 경 안헌 댄 속곳.  
105017 @ 속곳. 아까 물적삼도.  
105017 # 물적삼, 치레허는 사름은 물적삼행 입어이.  
105017 @ 아.  
105017 # 물적삼 행 입는 사름 댄 아니라. 그냥 물적삼이 어디서? 그냥 맨차 그 속곳 하나만 입영 듣는 거주. 그 눈 와도.  
105017 @ 계난.  
105017 # 경허명 물질허엇어, 옛날에.  
105017 @ 그 물웃은 멩지로, 아니 멩지엔 곶아점저, 미녕으로 헤진 거?  
105017 # 미녕으로. 미녕으로 허주. 멩지로 어디

105017 @ 계난예. 미녕으로 헤근에 계민 요기허고 요기까지 헤지는 거.  
105017 # 미녕으로 허는디 일로만 영 짝 체여근에 이디 문 단추 돌아이.  
105017 @ 무신 단추?  
105017 # 아무 단추라도이 저 모작 므쳐근에,  
105017 @ 응.  
105017 # 모작 문 므쳐. 그 속곳 만들양 입젠 허민이 질게 천행 막 질게 허영 ㄱ  
는ㄱ는허게 허영 그거 막 감청. 그거 문 모작을 못쳐. 들베기, 들메기 허명  
105017 @ 들베기?  
105017 # 응. 들메기, 들메기 허메.  
105017 @ 아 들메기.  
105017 # 그 모작을 들메기엔 허명 그걸 문 므쳐근에 요디 두개 들고고 요 아래  
오민 세개 돌아. 일로 슬 베려지카부텐. 그거 올로 요레 세개 들고 그다음 일로 곱  
헤여근에 딱 무꺼.  
105017 @ 아, 여기 곱 무끄곡.  
105017 # 응, 경헤영 이디 메곡 헤사 물에 강 숨빌 때 안 벗어지주. 경안허민 이  
디 안 메민 벗어져비어.  
105017 @ 이딴 하나만 이짝은 안 허고.  
105017 # 아니 하나만. 하나 메도 웨여. 벗어지지 안혀. 경안허민 그거 안 메민  
물에 물기운이 세나 물알로 숨비영 영 갈 땀 이것이 벗어져비어. 옷이 벗어져비여  
경허난 벗어지지 못허게 허젠 그거 메는 거. 메친 메친 허명.  
105017 @ 이게 메친? 메는 끈?  
105017 # 끈ㄱ라 메친.  
105017 @ 응. 쟁 그거 입다근에 고무옷 바로 난 건가 그 사이에 또.  
105017 # 그거 입단에 바로 고무옷이 나가난에 처암은 우잇것만 나났어이.  
105017 @ 고무옷이 우에 것만?  
105017 # 응. 우에 것만 나오단에 츠츠츠 이제 아랫 것이 나옴 시작허난 이젠  
씩허게 아랫거영 전부다 나난 기자 고무옷만 입어. 고무옷 입젠허민 아래 얇은 내  
의 입어사 입어져. 경 안허민 몸에 무뎡 잘 입지 못허여. 고무옷 입는 건이 바짝 몸  
에 부뜨레 헤놓곡 허난 둘리 안 들민 고무옷은 못 입어. 둘리가 수눌명 입어 이거.  
105017 @ 아.  
105017 # 알로 알 바지는 입어놓민 이 우잇옷도 모가진 끼와놓민 알르로 느리우  
지 못허지. 아랫거 우이로 막 올리지 못허지 경허난 둘리가 서로 수눌명 입어. 옛날  
옷은 그자 이녁만씩 입영 입어지는 대로 들앗주만은 요즘은 경 못헤여.  
105017 @ 계민 큰눈 이거 큰 건 언제 난 거라 이거.  
105017 # 큰 거 나건 딴 막 오래서.  
105017 @ 아, 건 오래연.  
105017 # 건 흔 오십년도 넘어. 오십년 돈돈이 뵈주, 큰 눈은. 큰눈 나건딴 흔 오

십년도 넘었고.

105017 @ 예.

105017 # 큰눈 나건던 혼 육십년 똥고. 우리 어릴 때에 큰눈, 큰눈 허난 저 큰눈 허영 무시거 헐 거 저거 무시거 헐 거, 무시거 헐 거 허단 보난 하나 두 개 씩 시작허난 것이 펜헤영 체음엔 숨 못 쉬영 죽나 무시거 헐다 허멍덜 막 헤났어. 경허멍 허단 이젠 큰눈 베와놓난덜 다 그건디 체음엔 요멘씩헌 눈 썩 요만은 헌 눈. 저 큰눈 쓰난 못 베리는 것이 었어. 흰헌게.

105015 @ 테왁은 어떻 멘드는 거봐?

105015 # 옛날엔 콧.

105015 @ 응.

105015 # 콧 잇잖아. 콧. 옛날 이런 집이 아니라. 초집이라 옛날엔이.

105015 @ 초집.

105015 # 초집이난 초집에덜 돈 사젠 돈이 어려운 때는 콧을 싱거, 매집이. 콧 싱경 걸름이나 잘 허면 콧이 이만큼 크는 것이 이서이.

105015 @ 예.

105015 # 해너들은 어느 집이 막 콧 큰 거 이서라 이서라 허민 미룻 강 막 부탁 허여. 부탁허민 그 콧을 오래 익여사 뉘여.

105015 @ 아.

105015 # 오래오래 익이민 낭그치 썩썩헤지고 흐뎡 덜 익이민 흘랑흘랑허영 까져 불어이.

105015 @ 아.

105015 # 물에만 살아노난 까져.

105015 @ 예.

105015 # 쟈디 말 잘 익여근엔에 그거 허민 고망을 톱 이 둘레 고망 파지. 이보단 더 널르겐 안 파. 이 둘레 고망을 파면 그 고망 파근에 낭계기로 소곱에 거 파 내지 못헿 툃툃툃툃 썩어. 썩으멍 놔두민 그것이 썩어이. 썩어불민 그 알맹이 씨는 안 빠지고 그 저 알맹이는 썩으멍 물로 문 빠져비어. 빠져불민 그뎡 바싹 물러근에 그 고망 연 거 영헿 내불민 브름 들멍 물르민 뼈꼭이 헤다근에 그레 맞게 딱 끼와.

105015 @ 뭘로 만드는 거라?

105015 # 고망을 막아, 뼈꼭이 헤다근에.

105015 @ 뭘로 멘들아 진 거 그건.

105015 # 뼈꼭이, 뼈꼭이. 옛날 뼈꼭이엔 헌 거 이서. 이런 거시기가 말고.

105015 @ 고무로 뉘 거?

105015 # 고무로 뉘 것도 아니라. 그런 게.

105015 @ 낭으로 뉘 거?

105015 # 들랑들랑헌 게 이제 그뜨민 이 저 플라스틱 닳은 거라이. 그랑그랑 헌 거, 그런 거 동글랑허게 들랑 꼭허게 막아불민 물만 안 들민 요샌 뼈꼭이로 저거

테왁을 만들어 놓민 이만씩 컷주만은 요만은 현 거 지평 막 먼 디깡장 강 메역을 허민 테왁이 움막옴막 기어들엉 베리지 못허게 허는 사름이 하. 계난 옛날에 콕으로 테왁 현 거.

105015 @ 응, 그민 밑에 망사리에 그물은?

105015 # 그물은 이디서이 팔될 이때 나민 이제 어웁이가 경 쫓 피지 안허나이. 겨민 막 어웁 빠레 가. 그 부레기 빠레.

105015 @ 아.

105015 # 부레기가 요만씩 베려져, 벨라저근에 그 저 부레기 막 새불지 안현 거. 그것 강 막 빵 와.

105015 @ 어웁 쫓 피기 전이.

105015 # 응 쫓 막 피어불기 전에. 새어, 그것이 새어근에 그 어웁 부레기가 벨룩벨룩 나올 정도 뉘가민 가근에 막 빠오민, 아이고 이디서 물러근에 그거 막 물리젠 허민 오래 가. 물리우민 그 부레기가 이디서 물리멍 탁 벌어지민 그 부레기 문 북삭북삭헌 거 문 빼비어.

105015 @ 응.

105015 # 빼어튀이네 그 꺾테기를 물리왔다근에 그거 물 켕. 즈늘민 이제 마개를 막 두드리는 거라이. 두드렁 북삭허게 두드렁 이제. 아이고, 그 노 꼬젠 허민 막 성가셔. 이제. 그놈을 앓앙 문 즈질게 또 깨는 거라이. 막 즐게 깨영 허민 그걸로 막 노 잇영 혼 팔십 발, 상즘수덜은 팔십발을 쫓는 거라.

105015 @ 응.

105015 # 그걸 헤영 망사리 못이는 거라. 이녁대로.

105015 @ 아.

105015 # 거 아무나 못지도 못헤근에.

105015 @ 계난.

105015 # 계난 어디 가근에 아이고 망사리 코 놉줍서, 망사리 코 놉줍서 헤영, 망사리 코 놉 빌영 오면 이녁 대로 영 잳아오당 딱시 굴룬 코 하나 놓곡, 두 개 놓곡 허멍 벌루멍 그걸 망사릴 만드야신디 이젠 뉘 나이롱 하난 그런 나이롱 확 그차당 햄주 무신.

105015 @ 계난예.

105015 # 옛날앵 그 미, 것ㄴ라 미, 미 헤 낫어.

105015 @ 미. 응. 미로예.

105015 # 미 빠다근에 아이고 이제 미 이제 해당 미 빠당 놉뒤사, 미 빠당 놉뒤사 허멍. 걸로 노 꼬양 신도 삼양 신고 망사리 노도 허고. 또 쉼, 소 질루는 사름이 머력에 쉼 메는 거. 질기거든 그게. 그게 질겨. 다른 이 쫓 노보다.

105015 @ 응.

105015 # 질기난 이제 쉼 녹대.

105015 @ 녹대.

105015 # 녹대엔 현 거 이 집이 멜 때 허는 거. 그런 거 허고. 경허민 팔뻔 나가민 산에 미 빠레 가겐 허멍덜 막 점심 싸 아지고 그것덜 막 강 빠. 빵 오랑 집이 오랑 그거 물림이 흐루 이틀에 물라져. 이추룩 뱃 나는 디 흐 열흘씩 물리왕 그거 막 북삭허게 피어불민 거 속속 빼어비튀은에 경행 빼워튀 이젠 그거 이제 그 속배 설 물리운 걸로 옛날엔 성냥이 엇어이.

105015 @ 응.

105015 # 성냥 엇이민 하르방덜 또 이제 끄을 강 걷어와. 끄 잊지이?

105015 @ 예, 예.

105015 # 그거 걷어당 끄도 이제 영 췌어. 그냥 통차 안 돌랑 짝 췌영 물리왕 이제 그놈을 이제 영 놔근에 찍으로 영 몰아, 몰아. 물멍 이걸 일로 탱겨이. 탱경 화싱불, 화싱불 허멍 드러 드러에 갈 땐 성냥 엇인 때난 그것에 불 부짱 영 불 부짱 가민 흐루 저물양 그거 밧디 놔둬서 담배불 부찌고.

105015 @ 끄으로? 미로 안허고?

105015 # 미로.

105015 @ 미로예.

105015 # 미 부레기, 부레기 북삭헌 거 잊잖아. 그거 허영 조근조근 놓멍 끄으로 감아.

105015 @ 아, 끄으로 감아.

105015 # 응 뱅뱅 감아근에 끄쟁이로 불 부짱 가민 흐루 종일 부떠 그것이.

105015 @ 경행 걸로 담뱃불 부찌는 거.

105015 # 걸로 담뱃불 강. 톡허게 밧 머력에 강 놔두민 기자 그것이 부떠 가. 흐 요만이만 현 거민 흐루 저물양 부떠.

105015 @ 아까 어디 놔둔다고 밧 머레기?

105015 # 밧 머력에, 밧 머력에. 하르방덜 밧 갈레 갈 때 뭘 출 비레 갈 때 무신 일허레 갈 땐 밧담 엠에 강 놓지, 영 담 에엠에.

105015 @ 그게 밧 머력에?

105015 # 응 머력에.

105015 @ 응.

105015 # 경허민 그디 놔둬서라 담배 먹구짱 허민 그디강 그것에 강 부짱와.

105015 @ 그 이름이 화싱불?

105015 # 화싱불.

105015 @ 화싱?

105015 # 응. 화싱. 화싱 흐쫄허민 화싱 무껍, 화싱 무껍 허여. 경허민 것이 화싱 불이라. 알 거여. 옛날 하르방덜 다 알아.

105015 @ 예, 예, 들어난.

105015 # 경헤여 가단에 중간에 또 뭇사 현디 우리 아버지네, 아 우리 아버지넨 돌아가셔불고 우리 오라바니네가 담뱃불을 부짱 무시거 잇당 영영 두드러이. 두들

민 펠록펠록허다근에 요 남 썩은 것덜에 불이 켜찍허게 가민 내가 풍풍풍 나. 그뎨 또 그걸로 담배 부쥌.

105015 @ 건 무신 거엔 굴아? 부돌?

105015 # 불썩.

105015 @ 이건 부돌, 부쇄.

105015 # 요영 두드리는 건 부돌.

105015 @ 쉼는 부쇄 아니?

105015 # 불썩, 불썩.

105015 @ 불썩은 부치는 거예.

105015 # 응 영 두드리는 거 쉼디 이건 저 부돌이라, 부돌. 두드리는 건 몰라 나. 그자 부돌이엔 말만 들엇주.

105015 @ 응.

105015 # 부돌 혜영 요추룩 낡 툯툯 두드리민 불이 켜찍켜찍허당 거 불썩드레 툯 가민 내가 풍풍 나민 그뎨 담배 부썩곡.

105015 @ 불썩은 무신 걸로 멘든 거라?

105015 # 쉼로.

105015 @ 불썩. 불 부트는 거. 내 나는거.

105015 # 건 남토막 썩은 거.

105015 @ 아.

105015 # 남토막 썩은 거 헤다근에 바썩 들리와. 남토막 북삭헌 거 썩은 것 강 봉가다근에 바썩 들리와이. 들리왕 나두민 그것이 북삭허여. 북삭허민 그드레 요영 헤근에 툯툯 두드령 영 브찌 심영 툯툯 두드령 불이 펠록허멍 그레 가민 내가 풍풍 허게 나는 거라이. 경허멍 사는 거 나가 봤어. 어렵게 어렵게 옛날, 얼마나 어려와 시민.

105015 @ 성냥 엇이난예.

105015 # 성냥 엇이난.

105018 @ 툯은 어떻 허영 험니까? 툯.

105018 # 툯

105018 @ 응, 툯 이디도 툯 하영 헤낫지예?

105018 # 응, 툯 우린 조합원으로 공동으로 강 막 비어.

105018 @ 아 툯은 공동으로 허는 거?

105018 # 공동으로 막 이 조합원들만 강 막 비영. 문 지어내영 들류민 받아갈 때 가 이서. 받아가는 사름이 이서. 겐디 이젠 툯도 안 나.

105018 @ 게난예.

105018 # 툯도 우리가 먹젠 흔 발 비오젠 헤도 툯이 엇어. 원 경 툯 나던디 툯 나민 우리 질로 흔 질 넘는 툯이 이서났어. 질어. 겨민 탁탁 이 저 바지게로 질 때 바지게로 걸쳐근에 지어나신디, 툯이엔 현 거 엇영 이제 새들 흔 또 새들 나가민

톨이 나게 뵈 거라이 이거이. 나가. 요멘씩허민 ㄴ새 아정강 문딱 비어와비어. ㄴ새 로 강.

105018 @ 이제?

105018 # 이녁만씩 먹젠덜. 게민 톨이 엇어. 톨이 나질 안허여. 톨 빨리도 엇고.

105018 @ 옛날엔 공동으로 해근에 해낫수과?

105018 # 공동으로 이 앞드레 문딱 톨밭이라낫어. 민짜 톨 나근에 경헤나신디 이젠 원 승키 먹을 것도 못헤여와. 나질 안헤영.

105018 @ 경허민 그거 다 공동으로 강 가치 해근에 또 ㄴ치 나뉘?

105018 # ㄴ치 나뉘 돈만 갈랑 먹는 거.

105018 @ 다 똑같이.

105018 # 응 똑ㄴ치. 똑ㄴ치 허영.

105018 @ 하영헌 사름은 하영 안허고.

105018 # 아니, 아니 이건 공동으로 허는 거난.

105018 @ 아.

105018 # 비는 사름, 지어내는 사름 헤영 ㄴ찌 강 들릴 때도 지어오곡 들릅곡 다 해근에 집이 아저들엿당 풀 뎨 거 문 ㄴ치 다듬양 ㄴ치 풀아근에 돈으로 갈르는 거.

105018 @ 응.

105018 # 조합원은.

105019 @ 우미도 해 낫수과?

105019 # 우미도 멧주만은 우민 공동으로 안헿 이녁만씩. 이제도 우미 받아가. 이제도 우미 메명 받아가.

105019 @ 건 어떻 허는 거짜?

105019 # 건 기자 메영 들릅만 허민 받아가.

105019 @ 응.

105019 # 이디서 숲아 먹을 사름들은 발레여. 그거 물 적지명. 물 가근에 민물에 강 톨톡 적저근에 알루렁이 널영 놔두민 파씩 물르민 또 물 적정 또 널고 흔 서너 불 헤가민 헤영케 발아. 발아불민 그뎨 숲아근에 저 묵 쭈듯 묵 놔두듯 그 물 걸렁 놔두민 토랑토랑 얼려. 게민 그뎨 먹는 거.

105019 @ 여름에 우리 냉국헿 먹는예.

105019 # 응, 그거.

105019 @ 그 우미는 바당 지픈디 가사 이서, 아니민.

105019 # 아니, 그건 야픈디.

105019 @ 아 야픈디 이서마씨?

105019 # 야픈 디 물 막 싸불민 그자 발 요만인 적정 가근에 메는 디도 잇고 또 물 싸불민 발 안 적저도 메는 디도 잇고. 우민 막 굿디 나느 거.

105019 @ 응.



105019 # 지핀디도 나긴 나근에 지핀 디도 나곡 야핀 디도 나주만은 요새 지핀디 강 경.

105020 @ 행복하고 소라는, 행복하고 고통은 공동으로 허는 거 아니고 다 개인으로 허는 거지예?

105020 # 개인으로.

105020 @ 줌수들이예

105020 # 해녀들 이녀 해지는 게 혼이라. 하영 허민 하영 받을 거. 죽영 허민 죽영할 거. 계난 막 상군덜은 어뜬 댜 가민 흐루 가민 혼 구십키로도 잡아오는 사람도 있고.

105020 @ 응.

105020 # 또 우리ㄴ찌 못허는 사람은 혼 삼키로, 혼 오키로 경 잡앙 나오는 사람도 있고. 경허여.

105021 @ 행복도 암커잇고 수커 이수과?

105021 # 응.

105021 @ 어떻 구분허여?

105021 # 암침복은 술이 영 베쪽허게 튀어난 게 여물이 크고.

105021 @ 응.

105021 # 수침복은 흐쓸 납시룩 헤여. 여물이 잣지 못헤영 흐쓸 납시룩헤여. 크기는 헤도.

105021 @ 거민 어떤 게 좋아. 암커가 좋아, 수커가 좋아?

105021 # 그거는 우리 몰라. 암커 좋나, 수커 좋나 허는 말은 안 곺아났어.

105021 @ 어느 게 무게가 하영 나가?

105021 # 무게 하영 남은 꼭 ㄴ뜬 거시기에는 암컷이 더 나가는디 경 꼭 ㄴ뜬게 경 큰 것이 저 죽글른 것이 이서? 그자 어떻허당 요즘은 옛날 님지 안행 행복 보기가 이거 하늘에 벨 따기라.

105021 @ 영 뒤에 고망 뽕뽕 딸라져 이십니께. 그거 무신 거엔 곺는 말 이수과?

105021 # 건 미시거 곺는 말 엇어. 그자 행복 닥살에 고망이주. 그거 영 뽕뽕뽕 뽕 뽕 허 거. 행복 닥살에도 있고 조개에도 그 고망이 있고.

105021 @ 조개?

105021 # 응. 오분제기가.

105021 @ 아, 오분제기가 조개.

105021 # 응 오분제기가 조갠디 딱, 딱 행복이나 ㄴ따. 이 작살에 고망 딸라지는 거.

105021 @ 숫자가 틀려?

105021 # 숫자 틀리지 아녀. 고망 숫잔 틀리지 아녀.

105021 @ 계민 어떻 구분헤, 행복인지 오분제긴지.

105021 # 아 행복 닥살은 흐쓸 엉겨이. 두들두들허게 죽아도 행복 닥살은 이 등

땡이가 두들두들허게 엉기고 또 조개는 이 닥살이 멘짜헤여. 멘짜헤여. 고망도 즐고. 암만 생복도 요만은 현 거 허곡 또 조개 큰 거 허곡 헤도 이 조개 고망이 좋아. 멘지락허고 꺾쟁이가 멘지락허고 고망도 즐곡. 생복 닥살은 족아도 요디가 두들두들 현 게이. 요만이만 현 것도 요만이 현 것도 닥살이 틀려.

105021 @ 전복 쪼끌락현 건 무시거엔 곧는 거 이수과?

105021 # 전복 쪼끌락 헤도 곧는 말 엇어.

105021 @ 어린 전복. 곧는 말 엇어.

105021 # 곧는 말 엇어. 조개는 오분제기, 오분제기 허주만은 생복은 준 거 큰 거 헤도 따로 곧는 말은 엇어. 다른 일름은 엇어. 크다 족다 허는 것만.

105021 @ 소라는?

105021 # 소라도 큰 거 족은 거 헤도 경 곧는 말 틀리지 안허고. 준 거 훙은 거 그거 뿐이주. 크다 족다 허는 거 뿐이주.

105021 @ 전복 꺾데긴 무신거엔 곶아?

105021 # 전복 꺾데기 뭐엔 안 곧는다.

105021 @ 꺾데기 곧는 말 엇어?

105021 # 엇어.

105021 @ 전복에도 영 보민 이빨도 흐뎡 들어근에 잇고.

105021 # 게웃, 소곱엿 거 게웃이엔 허여. 영 배설ㄱ라.

105021 @ 아, 배설ㄱ라 게웃.

105021 # 원 그거주 뒤 생복닥살 어떻허다, 생복 어떻허다 허는 말은 엇어. 기자 게웃만 잇고.

105021 @ 아, 게웃만 잇고.

105021 # 조개도 조개도 그렇고 게웃이엔 현 건 요영헌디 사름ㄱ트민 창자라. 창자. 게웃이엔 현 게.

105021 @ 응. 창지. 게웃. 밑에 퍼렁 현 거.

105021 # 응 퍼렁현 거. 영 떼영 보민 퍼렁.

105021 @ 어떤 건 퍼렁허고 어떤 건 하양헤라.

105021 # 슬진 놈은 흐쓸 헤영허고 준 놈은 흐쓸 검고 경헤. 생복도 잇당 흐쓸 검은 게 잇긴 슬져도 검은 게 잇긴 잇는디 경헤도 대게 보민 슬진 건 희고 흐쓸 줄다 허는 건 흐쓸 검고 경헤여.

105021 @ 고동은 고동도 꺾데기 잇고 안에 들어간 거 이수게.

105021 # 꺾데기 또 잇어. 뚜쟁이.

105021 @ 뚜쟁인 무신거엔 곶아 그냥 뚜쟁이?

105021 # 그자 뚜쟁이. 건 일름 틀리지 안헤여. 고동 닥살. 꺾데기 그자 경허주.

105021 @ 이거 우에 잇는 건 고동 닥살. 그다음에 요건 고동 뚜쟁이.

105021 # 응 뚜쟁이. 딱지, 딱지 허메. 뚜쟁이엔 안헤.

105021 @ 아 딱지.

105021 # 딱지 떼불라. 영.  
105021 @ 딱지 떼불라. 안에 영 가민 살 잇고 똥 이신디 그 사이에 흐뎡 씹니께.  
그건 무신 거엔 곺아.  
105021 # 그 안네 또 요영 감아진 거 보민 그디 놀개 닳은 거 잇지.  
105021 @ 응.  
105021 # 얹은 거이. 게웁.  
105021 @ 그것이 게웁?  
105021 # 응 그것이 게웁. 그거 써. 그거 게웁 다듬아 불라. 쓴다 영. 또 먹음도  
곺고. 그거 안 다듬아불민. 경허난 그것이 게웁.  
105021 @ 아까 전북에는 게웁이고.  
105021 # 전북도 그것이 게웁이엔 허고 고통에도 그 영 납작헌 거 이서 곺메. 경  
허민 그 게웁 떼어불라. 경 안허민 쓴다. 그거 먹으민 건 써, 맛이 엇어.  
105021 @ 응. 거기도 무신 그거 말고 다른 이름은 엇어?  
105021 # 다른 이름은 엇어. 고통 깍이나 베피 무시거.  
105021 @ 고통깍은 무시거라?  
105021 # 똥.  
105021 @ 아 똥이 깍?  
105021 # 응. 똥ㄴ라 깍. 고통 깍.  
105021 @ 또 다르게 곺는 건 엇고.  
105021 # 다르게 곺는 건 엇어.  
105021 @ 그다음에.  
105021 # 집이 강 툰 내보명 전화로라도 잇어분 거 잇건 나가 곺아줄 거.  
105024 @ 하하하. 아까 흑시 돛. 배 돛단 거 예, 이거는 돛인디 세우는 낭은 무  
신거.  
105024 # 대.  
105024 @ 그냥 대?  
105024 # 돛대.  
105024 @ 건 돛대. 그 다음 배에도 앞쪽은 뭇엔 곺고 뒤흐엔 뭇엔 곺고 허는 이  
름 이수과?  
105024 # 앞쪽엔 곺물, 뒤흐에는 이물. 곺물쪽 이물쪽.  
105024 @ 아. 곺물쪽 이물쪽 허고예.  
105024 # 곺물이엔 헌 건 이 뒤흐이라. 앞이는 이물.  
105024 @ 응. 그거 말곤 또 그디서 불르는 일름 엇인가?  
105024 # 그거말안 나 배 안 부러나난 몰라. 그것 말안 곺물 이물 헌 것만 알지.  
105024 @ 곺물 이물 헌 것만예. 사공도 배 젓는 사름은 사공이렌 곺아 네 젓는  
사름?  
105024 # 네 젓는 사름이 사공.

105024 @ 사공은 돛단배 허는 디도 돛배에도 사공 이서사주예?

105024 # 사공이명 말명 사공이엔 허는 건 이거 저 육지 가민 뱃 물질 허는 사름 잇잖아이. 뱃 물질 허민 그 물질 가민 해녀덜 물에 들어근에 물건 헤 내는 거 마타 근에 배드레 올려주곡 네 젓어주곡 그것이 사공이라이.

105024 @ 아.

105024 # 것이 뱃사공.

105024 @ 그건 배 하나에 혼 사름만 타?

105024 # 아니 여라 사름. 이제 돈을 하영 버슬구정 허민 어느 배엔 뱃 사름 시 쪼다, 어느 배엔 뱃 사름 갖다 이거지. 그거 배 임제가 돈을 하영 버슬구정 허민 여 라사름 시경 강 물건 헤 내는 양 그걸 다 이제 뺏겨줘. 먼 디 강 물건. 이디선 경 안헌디 육지서는 먼 디 가근앵에 물질 헤 오거든. 배 탕 강. 겨난 그디 그거 허는 것이 부름씨 허는 사름이 사공이라. 그거 물건 헤영 올려 놔 주곡. 또 이디 오민 또 누리와 주곡 허는 게 그게 사공.

105024 @ 내도 영 쪼젠 허민예.

105024 # 소리허지게. 이옛사 허멍.

105024 @ 아. 이옛사, 이옛사 응.

105024 # 이 여저덜도 우린 뱃물질 안헤도, 뱃물질 헤난 사름덜 소리 내방 허민 들엄직이 허기도 헤여.

105024 @ 배 방향 조정허젠 허민 영 뺏기는 것도 이수과?

105024 # 아니 이 풍선엔 그런 거 엇어.

105024 @ 그런 거 엇어.

105024 # 배영 어디 강 돌리젠 허민 배 여라이 네 젓당이라도 더러 놔뒤근에 배 네로 어떻 영 조정허영 돌리주 어디 심영 등기는 것이 엇어.

105024 @ 응. 그른 배 이제 멈춰야 뉘켜 헤근에 영 밑에 뭐 털어칩니께.

105024 # 닷.

105024 @ 닷.

105024 # 건 막 들어오라근앵에 막 멈춰 갈 땐 먼 딜로 닷 쥐가멍 쑥 들어오랑 또 가까운디레 오민 또 곳디 축항에 정헌디 돌 쭈쭈쭈착 시민 그레 닷줄 혹 데끼민 그디서 메여.

105024 @ 아 그디서 메영예.

105024 # 먼 디서 허는 건 뒷닷, 뒷닷.

105024 @ 뒷닷? 뒷닷은 어떻헌 거라?

105024 # 배 이레 영 오잖아이. 영 오라가민 요 앞이 닷은 막 이디 들어오랑 곳 디레 무끄고. 요건 뒤에서부터 배 멈추게 흐꼬 들이치는 거.

105024 @ 아 물에 들이치는 거.

105024 # 그게 뒷닷. 경허는 거.

105024 @ 할머니 그 즘수가 물질허레 가민 테왁도 막 여러 갠디 내 거 어떻 알

아? 나 테왁인 거 어땜 알아.

105024 # 원 폐적도 안허곡 해도 다 알아.

105024 @ 막 터가불지 안허여? 무꺼?

105024 # 무끄지 안해도 이녁 테왁 다 알아근에 이거 테왁을 딱 이디 놔뵤 숨비면 나왕 봐도 이녁 테왁 흰허게 알아. 어디 멀리 안 가는 거난. 이디서 이디서 숨비영 이디서 나오는 거난 흰허게 알아. 다 이녁 테왁만씩 좇앙.

105024 @ 이디 테왁 낫당 물속에 들어갓당 나오민 떠내려 가불지 안해?

105024 # 떠내려 경 안 떠내려가. 요즘은 이 물 가부난에 떠나 가는디 이녁만씩 막. 닷배라고이 배 매여근에 아래 돌을 강 무경. 막 먼 바당에 가민 물이 짹허게 느려가주. 들물 썰물헤여이. 물이 들어올 때는 절로 이레 물이 영 오라가고 썰물은 일로 저 베끗되레 막 내쳐불어. 경헌 따문 해녀덜 그 먼 바당에 가민 숨비영 나왕 보민 테왁이 꺾어 가부는 거라. 게민 그걸 닷배라고이 배 매어근에 돌에 강 딱 물아래 강 무꺼뵤 물질헤여.

105024 @ 물아래.

105024 # 물아래 강 무꺼뵤.

105024 @ 건 이제사 허는 거?

105024 # 건 이제사, 닷배, 닷배허멍.

105024 @ 아 옛날엔 경 안해낫구나.

105024 # 옛날에 경 옛날에 어디 강 경. 고무옷 입어사 얼게 살주. 경안행 커승 커승 강 들영 나오는디 닷배 무끄곡 경 멀리 가도 못허고 얼영. 요즘은 고동 잡으레 이디서 가민 테왁 못뵤릴 디 강 막 멀리 가.

105024 @ 응.

105024 # 게난 저 먼 바당에 가노난이 그 닷배들 이디서 몬 헤영 가. 멧 밭, 여남은 밭씩 현 거 헤영 가. 물 아래 들어가근에 돌아래 배 매어뵤근에 물질 허는 거 아니.

105024 @ 응.

105024 # 옛날엔 메역 흥끔씩 허는 거난 경 얼어부난 멀리 가지도 안허고.

105015 @ 테왁허고 망사리 혈 때 망사리 요 위에 낭은 무신 거엔 글아?

105015 # 어음

105015 @ 어음?

105015 # 응 테왁 어음.

105015 @ 테왁 어음. 테왁허고 망사린 뵤로 영 무꺼살 거 아니?

105015 # 테왁 어음헤여나근에 그레 노로 헤근에 테왁 동글락 현 거 요거 동글락 현 거민이 울로 헤영 요레 강 흔 밧디 테왁 어음더레 돌아메고.

105015 @ 응.

105015 # 또 울로 헤여근에 테왁 어음더레 두 밧디 무꺼사 뵤어.

105015 @ 두 밧디?

105015 # 응, 혼 밧디는 요영 넘게 매고 혼 밧디는 줄 요추룩헌 줄 혼 밧디만 딱  
달아 매민 웨는 거. 경혜사 허주 요것이 테왁 어음 지금 어음이엔 허는 거 아니.

105015 @ 예, 예.

105015 # 요 굽텡이로 요렌 영 넘게 매어이. 경 잔뜩 이 저 테왁 움직거리지 안허  
게 매고 또 노 혼나 울로 요레 메는 건 혼쓸 질게 헤영 강 메어근에 그냥 테왁 혼  
쓸 흥글흥글 헤도 어떻 안허게 경헝. 다 경헤도 이녁 테왁은 꽤적 안헤도 다 알아.

105015 @ 게메 어떻 알앙?

105015 # 경헤도 다 원 물에 들영 나민 이녁 망사리 문 좇아. 물아래 강 막 이디  
서 테왁 이디 잇고, 이디 잇고 부찌부찌 이서도 숨비영 강 메역헝 나왕 이녁 테왁  
영 베령 흰헤여. 아저 멩기는 거 흰허영 좇아.

## 6. 의생활

106001 @ 옷감의 종류에는 어떤 게 이서마씨?

106001 # 옛날은 베하고 미녕, 멩지베끼 엇엇어. 옛날엔. 이 광목이엔 현 건 구경  
못헤난거.

106001 @ 응.

106001 # 요새난 다우다니 인주니 저런 거 나왔주. 우리 두린 땀 그런 거 하나  
엇언.

106001 @ 그런 거 하나도 엇어난예.

### 명주

106002 @ 그믐 먼저 멩지 허는 거예.

106002 # 멩지허는 건 누에 질루는 거라이. 누에 질랑 멩지 빠는거. 건디 요 누  
에 베렝인이 이디 먹을 거 아무것도 엇어도 요디 놓민 논 대로 그대로 이디서만 안  
네서만 돌주. 베껏되로 원 나가지 안허메.

106002 @ 기어가지 안헤마씨?

106002 # 원 기어나지 안헤여.

106002 @ 아.

106002 # 겨민 이 채룽이라고 영 저 울로 요영 요만씩헌 차룽에 놉. 이만씩 진  
것에 경 놓민 줌박이라고 칭칭칭칭 올려놉.

106002 @ 응.

106002 # 놀 디가 비잡으면은 칭칭칭칭 영 올려놉. 올려놓민 그 안에서만 뱅뱅  
돌주. 절대 이 누에엔 현 건 베껏되레 나감 버릇이 안허는 거라.

106006 @ 누에 질되난 말예. 아까 누에 차룽에 헤근에.

106006 # 차룽에 헤근에 옛날 어른덜이 이 차룽에 허민이 줌방메, 줌방메 요거고

치룩이 칭칭이 칭칭이 영 노프게 영 남 여러 밧디 세와근에 칭칭이 놓는 거라이. 겨민 이거 아무 것에나 못 놔. 대차롱 대로 만든 차롱 영 이만은 질게 하고 요만은 넓게 해근에 누엘 질르면 요놈으 버랭이가 다른 버랭이들은 움직움직 나가불잖아. 절대 나간 버릇은 엇어. 경 바위 엇어도. 그 안에서만 막 감돌아. 겨민 다 먹은 거 닷으민 영 뽕있 툇아다근에 이젠 그냥 주는 거라. 탁 허게. 어릴 때는, 막 어릴 때는 요놈으 버랭이가 웨리지 못허여이. 쟈쟈 요만씩 헌건디 경허민 뽕남을 툇아당 막 즈질게 썰영 칼로 썰영 영 놔두민 그거 먹으멍 어땡 어땡 커이. 겨민 딱 일주일 이민 밥 딱 멈추는 거라. 안 먹어. 이놈으 것이. 것이 즈 자는 시간이라이. 하룻밤 하루. 딱 즈 자는 시간.

106006 @ 경 해근에.

106006 # 겨민 그것이 즈 자는 시간이라이. 일주일에 혼 번이. 딱 경 허민 밥도 주민 안 먹곡 딱 사름ㄴ치룩 고개 요렇게 헤여.

106006 @ 이렇게?

106006 # 어, 경허민 이놈으 것이 흐루밤, 오늘 아침부터 기민 널 아침이민 이거 딱시 밥 주민 먹는 거라. 이거. 이거 누에 밥이라이. 우리 밥이엔 허여. 뽕남 주는 게.

106006 @ 뽕남 주는 거?

106006 # 밥 주민 그땐 먹어. 먹어근에 그땐 그게 커가민 그것이 흘 벗는 거라.

106006 @ 흘?

106006 # 어. 붓 벗어불어사 크는 거라. 우리 ㄴ트민 옷이 족아가민 벗영 새 옷 입듯이 것이 그 붓을 벗어비사 몸뚱어리가 크게 나올 거 아니. 몸뚱어리 커가민 그 붓이 아메도 벗을 거 아니라이. 경허민 그거 깨나민 그 붓도 벗어불곡 허민 츄츄 훑어지는 거라이.

106006 @ 응.

106006 # 훑으민 또 일주일 동안은 쥐가민 요만씩은 헤가이. 무쿨무쿨허게 훑어 가. 게민 똑 일주일에 혼 번씩 요거 사 주만 살면은 오 주찬 올리는 거라. 무시거 영 행 무시거 저 옛날엔 뭐 올릴 거 엇이난에 이 누에도 영 올릴 때 뉘면 막 어디 레 영 고개 치명 막 웨려. 막 돌아멩겨. 게가민 새 잇잖아. 이 집 비는 새. 거 헤다 근에 요만씩 문착문착 쫄라. 쫄랑 노 꼬아근앵에 그 옆드레 쩍정 확 떼우민 요것이 요치룩 영 앙상헤져이.

106006 @ 예.

106006 # 앙상허민 요레 즈아냥 내불민 요디서 막 집을 짓는 거라. 그 누에가. 집짓으민 내중에 그거 실 빼영 멩지허는 거여 그게. 그거 실 빼여. 이제 저 어디니 지금도 험서. 누에 질르는 거 나완게 저 안동? 안동이 어디라, 흐쫄 허른 안동 패 쉼 쉼는 것에.

106006 @ 육지, 육지.

106006 # 안동패라이 쉼 육지 안동이렌헌디 그디 누에 질남서 혼 번 텔레비에 나

완게 그냥. 막 훑어근에 막 훑은 때 썸은 돌아나진 안 해도 그냥 남썸 이만씩 너분  
거 그땐 기냥 한밥 먹은 땐 기자 기냥 이파리 툇아당 썰지 안 행 그냥 탁 탁 탁 풀  
영 그냥 내벼. 내불민 막 커. 그 자리에서 잘 먹은 놈은 제기 올르콧 이 집도 고양  
짓어. 못 먹은 놈은 어땡행 줄고 것도. 제기 집도 안 짓고 집짓는 것이 어려워. 기  
운이 었는ㄴ라. 게난 이것을 잘 맥여야 웨어. 경허민 그자 금방 쥘 놈두민 이 남썸  
가까 먹는 소리가 영 들으민 와상와상와상 소리 나이.

106006 @ 예

106006 # 먹는 소리도 와상와상 허콧. 이 놈으 누에를 질룰 때에 그 한밤 막 먹  
어갈 때에. 담뱃 먹어나 여기서 고기 굽는 내가 나나, 안 웨 이거 그땐. 물 잘잘잘  
잘 허멍 누에가 죽어가. 물 찰찰찰찰 허멍 누렁헌 물 나가멍 누에가 죽어. 게난 이  
거 잘도 정성해사 웨는 거. 옆에서 담배 못 먹고 어디 저디서 고기 굽는 내 건허게  
나게 말앙 고기도 먹고. 경해사 웨어.

106006 @ 아까 한밤 먹을 때. 한밤이 무신거?

106006 # 한밤이렌 헌 거는 누에 올룰 때 낭 먹는 거. 그땐 부지런히 먹고 부지  
런히 주콧 해사웨어.

106006 @ 아.

106006 # 막 부지런히 먹엉 입 혼시 안 노령 먹엉 다 먹어가민 또 앗앙 드리콧  
다 먹어가민 또 주콧해영 다 먹엉 일주일만 웨가민 막 올르젠 막 그땐 주땡이 영  
허영 영.

106006 @ 하하하.

106006 # 겨민 그거 영 발접형 영 영 앙치랑허게 헌 디레 툇툇툇 좁아냥 내불민  
돌아나지도 안 허콧 그자 막 그디서 막 집을 짓어이. 집 짓으민 그걸로 실 빼는 거  
여.

106006 @ 건 어땡행 실 빼는 거콧?

106006 # 그것이 어땡사 짓어가는디 베콧딜로 짓음 시작행 안에 짓어가민 어땡  
짓으는중 몰라. 그자 영 웨리븐 고개 그자 그자 이거라 이거. 고깁 그자. 입으로 실  
을 내우는 거라이, 입으로. 게민 고깁 그자 영 웨리븐 이거라 이거. 고개 영영 허멍  
그자 영영영영 허멍 그자 집 짓영 그 안에 들어 앗이민 또 요놈으게 어느 때 타느  
냐 허민 그 누에 올령 딱 날짜 뵡 일주일만 웨민 이놈으 걸 그것이 누에 고치라.  
누에 고치, 누에 고치 허븐 또 그 놈을 따 놈. 따 놓민 이제 초불 짓은 거 이렇게  
벳겨붙어이.

106006 @ 곁에 거?

106006 # 응. 곁에 거 벳겨붙어뵡 소콧에 켱켱 헌 건만 낫다근에 허민 열흘만 넘  
어가민 또 소콧에서 나비가 웅 나와비여. 나비 웨영 나와불민 그 실 못 빼내메 그  
거.

106006 @ 그른 어땡해?

106006 # 그걸 쥘라져 불민이 나비 니빨이 어땡 사나운디 일로 굽기 딸라불민 실



이 찢라져근에 실이 부트질 안 해근에 허민 실 못 빼는 거라. 겨민.

106006 @ 실빠젠 허민?

106006 # 실을 빠젠 허민 이놈으 거 솟디냥 숲으멍 실을 빼는 거라이. 솟디 낱  
젓으멍 빼영 영 허민 이디 젓가락 대막대기로 젓가락 두 개 해영 질게 행 팔팔 끊  
이는 물에 낱 그자 젓어. 영 젓으멍 영 빼여근에 허민 요자기 물르렌 안 곺안?

106006 @ 예.

106006 @ 그런 거 낱 영영영영 해가민 실을 막 빼여지는 거라이. 그걸로 빼영  
그걸로 멍지 짜는 거. 경허난 그 누에로 멍지 짜는 건디.

106006 @ 이런 거?

106006 # 응 이거주, 이거. 이거 영영 둘러가민 일로 솟디꺼 해영 젓어 가는냥  
실이 부트멍 나오는 거라. 경 아녕 이것이 그것이 소곱에서 나비 웨영 나옴 시작허  
민 고망 뜰아져불민 실이 안 부멍 실 못 빼는 거.

106006 @ 게민 실 멍글젠 허민 고치를 솟디 낱 숲아.

106006 # 숲으멍 젓으멍 실 부쳐가멍 영 해가민 실 부트멍 나왕 그것이 고치 세  
개 네 개 거 부트멍 나오민 똑 이디 저 옷 주는 실 즘진 실만은 허게 나와.

106006 @ 게민 그걸 이레 영 걸어?

106006 # 응 게민 이거 영영 둘러가민 막 부트멍.

106006 @ 요렇게 멘들아?

106006 # 응. 요추룩 멘들아. 이거 미녕실 짜는 거나, 이 멍지실 빼는 거나 꼭곺  
아. 영영 들르멍 허민 그거 멍지실 빼영 들렛당 것도 또. 게난 멍지 짜젠 허민 얼마  
나 힘들어. 그거 누에 질황. 또 그거 실 빼영 또 이거 이제 영 가림 지서노민 또 이  
제 틀 멘들앙 영 놔둬서 이제 또 영 감나, 실을. 감앙 동글랑게 감아놔사 저저 시계  
부러기만 허게 이만큼 등글락 허게 감아노민 그것이 열 갠가 허민 또 나 잘몰라 설  
명도. 허민 그걸 또 이제 분날 봉가근에 멍지 놀아사 놀아사 허느 게 그거 이제 ㄱ  
치 심영 질게 또 빼영 빙빙 질게 오민 할망들 그거 그전에는 잊어불지도 안 행. 요  
놈으 실을 빼단 할망이 엄지손가락 영 허곡 영 허영 영 허곡 영 허멍 툫툫툫툫 형  
허민 그거 헛당 또 끼곡 끼곡해네. 그 놈으 걸 내중엔 그거 행 따시 ㅂ디 공쟁이레  
질러 ㅎ나씩이. 요거 고망으로 영영영 빼내멍 찢렁 두으로 강 막맹이 질렁 또 영  
클르레 낱. 이 멍지 허젠허난 멍지나 미녕이나 힘들어. 또 이제 그걸 이젠 또 풀 맥  
이네이, 이제. 조금조끔 이제 저만씩 질게 행 풀 맥영 들황 이추룩 날 존 땀 자기  
해지곡 경 아니믄 비나 왓직 현 날은 들르지못형 게민 이제 뒤에 베클을 요만이 현  
거 낱 그거 대놓멍 또 감앙. 감앙 그걸 베 짜는디.

106006 @ 이런 거?

106006 # 응, 이런 거. 이거 이거 잘 만들어 놔신게. 요추룩 클 걸영 짜는디 우리  
도 짜보긴 ㅎ뽀 짜 봐서. ㅎ뽀 짜 봐신디 그루후제 ㅎ 열 멧 살에 짜 본 냥 원 안  
짜봤어. 이놈으 ㅂ딜 이걸 이추룩 봉을고 영영 해져사 이거 짜는 거라이.

106006 @ 응.

106006 @ 이걸 영 허민 이놈으 보디가 알려레 느려불민 요 중간으로 중간으로 이제 그 비라고. 이 꼬리 감양 찢른 거. 그걸 요레 빼고 올로 찢르고 올로 빼곡 허멍. 이거 비 요레 찢러팅 이 손으로 영 찢러팅 요 손으로 마튼디 이진 앞으로 때려야 돼어. 때리곡 또 경 허곡 허민 손 쟈 사람은 멩지도 흐루 열 대자이, 멩지 흐루 열 대자를 짜보라. 아이고 열대 자, 열여섯 자 경 짜멍 그 옷들을 헨 입어서 옛날에. 이거 베클 잘 만들어놔신게.

106020 @ 이거 먼저 물르레부터예 물르레 이거 흑시.

106020 # 요건 씨 불르는 건게. 이진

106020 @ 씨 불르는 거. 멘네 씨 불르는 거. 멘네 흐꿈 이땅 허고. 이거

106020 # 요거 실 내는 거.

106020 @ 실 내는 건디 요 잡는디 무신 거엔 곶아?

106020 # 요건 잡는 딴 그자 손잡이주.

106020 @ 손잡이 그냥. 요 바퀴는?

106020 # 요건 그자 이거나 이거나 그자 물르레엔만 곶아.

106020 @ 따로 곶는 말 엇수과?

106020 # 요건 실 저 짜는 가락지.

106020 @ 요건 가락지. 요거는?

106020 # 실가락이. 요것도 그냥 이진 딱루 우리 곶아보지 아년.

106020 @ 곶아보지 안 헤연?

106020 # 이런 건 따로 곶는 건 우리가 물어보지 못헨 거라.

106020 @ 뭐 물렛줄, 퀘머리기둥, 퀘머리.

106020 # 퀘머리 기둥엔 헨 거는 이거이, 짜는 것이 퀘머리 지둥이 실 거여. 어디.

106020 @ 아, 거기 퀘머리 지둥이렌 헤수과?

106020 # 어디 이디 퀘머리 지둥이 어느 것산디. 이진 베클.

106020 @ 이거부터 이거부터 또 다른 거 아는 거 아무것도 엇어? 물레바퀴.

106020 # 바퀴도 이거 따로 곶아본 건, 물레 바퀴엔 헨 건 물레 요거 살.

106020 @ 물레살.

106020 # 살이렌 곶앗주. 물레 바퀴엔 헨 말은 아이고 물렛살 요거 비틀어지민 안 된다고 요거 가락지. 요건 실 빼는 거, 실 빼는디 요건 윈 무시거엔 곶는지 윈 들어본디 엇어. 그자

106020 @ 이진 조륙?

106020 # 조륙. 할망들이 요건 무시거 요건 무시거엔 곶양 헤시민 허주만 그자 물레민 물레다, 이진 실 빼는 물레 실 이거 멘네 씨 갈르는 물르레, 윈 그거 두 가지만 곶아나난 우리 몰라.

106020 @ 이진 물레, 이진 물르레?

106020 # 응.

106020 @ 물르레는?  
106020 # 씨 불리는 거.  
106020 @ 뎨네 씨 불리는 거예 요디 이름 요것도 이름 이신가?  
106020 # 이름 몰라. 이거 이름 안 곺아.  
106020 @ 이름 안 곺아.  
106020 # 그저 곺아 앓는 건 판대기 허는 거 뿐.  
106020 @ 가락.  
106020 # 이거ㄴ라, 발로 불러야 뉘잖아 판대기 불러.  
106020 @ 췌기 뉘 이런 말 엇어?  
106020 # 엇어.  
106020 @ 엇어예.  
106020 # 엇날 할망들 딱 흔가지 뿐. 윈, 뉘엔 곤는 걸 못 들어서. 이것어.  
106020 @ 그믐 야이도 물레. 야이도 물레?  
106020 # 어.  
106020 @ 똑ㄴ테?  
106020 # 똑ㄴ트게 불러.  
106020 @ 이름 똑ㄴ치 불러?  
106020 # 씨 갈르는 물레 앓아오라.  
106020 @ 아 씨갈르는 물레, 이견 실 짜는 물르레.  
106020 # 경베피 안 곺아. 뜯 이름이 엇어 요거는 베짜는 베틀.  
106021 @ 베틀, 베틀은 베틀도 이게 이름어.  
106021 # 이름어 이제 이제난 여러 가지 췌지. 엇날엔 여러 가지 지운 게 엇어.  
옛날엔 옛날 할망들 경 그자.  
106021 @ 경해도 바다, 바디집 이런 거 잇잖아예.  
106021 # 응 요거 저.  
106021 @ 이앗대.  
106021 # 바디엔 현 건 바디가 아니고.  
106021 @ ㅼ디, ㅼ디.  
106021 # ㅼ디잇곡 ㅼ디집이엔 현 거 영 거.  
106021 @ 이거, 이거.  
106021 # 요거어. 요거 ㅼ디 아냐. 요건 ㅼ디집 요건 ㅼ디 그거.  
106021 @ 요건?  
106021 # 우린 그것만 요건 비.  
106021 @ 비?  
106021 # 비, 비. 요건 요것이 저 꼬리 ㅼ근에 이레 영 요거 중간으로 요거 올려  
불민 중간으로 ㅼ불민 요거 심영 잡아 등기는 거고 이견.  
106021 @ 그계 비?

106021 # 응, 이거 실 낱 밀력 등격 영영 허는 거. 영영.  
106021 @ 영영 밀력 등격 허는 거예?  
106021 # 꼬리 뉘근에.  
106021 @ 그 다음 뭐 이앗대 이런 거 엇어?  
106021 # 그런 말은 못 들어서 우린.  
106021 @ 그민 이디 앓이는디 허리에 영 차는 거.  
106021 # 허리에 차는 것도 이것이 그자 허리에 차는 거여 뿐이주. 무신. 요거 뉘시다 허는 이름을 안 지운 거라 할망들이.  
106021 @ 아니 발로 무신거 불르라 영 안 해?  
106021 # 아니. 그런 말도 엇어.  
106021 @ 도뚜마리?  
106021 # 도꼬마리, 거 영.  
106021 @ 응, 도꼬마리.  
106021 # 도꼬마리엔 현 건 요디 그 영 천 짤 거 영 감는 거 그거 허나. 베클 그자 그런 말만 들엇주. 도꼬마리 허고 베클 말만 들엇주. 발 등기는 것도 무신거엔 굳는 낱 엇고, 듣지 못 허고,  
106021 @응.  
106021 # 그자 베클 그자 요 뒤에거 현 거 도꼬마리. 그거 그거만 들엇주. 뭐 이 허리에 차는 것도 뉘엔 굳는 걸 우리가 못 들어서 할망들이 굳질 아녀. 이거는.  
106021 @ 이거는 비. 손에 영 잡은 건 비.  
106021 # 비 손에 영영 허는 건 비. 요거는 브디.  
106021 @ 요건 브디.  
106021 # 영영 허는 건 브디.  
106021 @ 다음에 이디 이디 영 텡 낱 이신 거 이앗대엔 헤는 건디.  
106021 # 그건디.  
106021 @ 몰라예.  
106021 # 응, 그런 말은 안 골안. 뭐가 뭔데 저 영영 누리우노렌 허민 그디 영 실이 영 감아진 거 이성, 잉엣대엔 현 말은 이서.  
106021 @ 잉엣대.  
106021 # 그거라 그거. 그거 허나 뿐 잇주.  
106021 @ 나왓서예, 흐꼼씩예.  
106021 # 그루후젠 원 무시거엔 굳는 걸 몰라. 굳지도 아니허고 할망들 들어본 디도 엇고, 나.  
106021 @ 용두머리.  
106021 # 용두머리엔 현 말은 우린 못 들언.  
106021 @ 이디이디 위에 이신 거. 아니. 요기 요기 쪼쪼 나온 거. 눈썹대.  
106021 # 그런 눈썹대여, 용두머리엔 현 말은 어디 육지서 나온 말이주.

106021 @ 이거 욱지말 이건.

106021 # 이디션 그런 말 안 써.

106021 @ 이디션 그런 말 안 썬예.

106021 # 그저 미녕 짜는 거 베클, 저 도꼬마리엔 헌 건 매 또꼬냥 감은 거 감은 거 그거 도꼬마리. 원 그거 짜는 거 그자 그 ㅼ디, ㅼ디집 요 실 영영 허는 거 비. 그거 뿐이주. 허리에 감는 게 뭐인지, 요 베틀에 요 발 등기는 거 뭐인디 그런 말은 안 곺아.

106021 @ 안 곺아예?

106021 # 옛날 할망들 원 그런 말 곺는 걸 못 들언.

106021 @ 게민 이제.

106021 # 이 욱지 분들은 이 베 짜멍 베, 베틀 노래도 다 불른덴 헤여. 헤도 이디 할망덜 그런거 불름이랑마랑. 우리 제주 할망들이 완전 옛날도 어두우난게 그런 거 저런거 원.

106021 @ 힘드난게.

## 명주

106003 @ 멧지는 종류가 어떻게 어떻게 이수과? 멧지실 종류가?

106003 # 멧지실 종류는.

106003 @ 아니 멧지 종류, 실이 아니고 멧지 짠 거.

106003 # 짠 거 종류는 멧 가지 엇어. 실이 줌질민 무신 으둑새 멧지, 일곱새 멧지, 영만 들엇지. 멧지실도 훑게 낸 거 잇고 줌질게 낸 거 이서이. 경허민 줌진 건 아이고 요거 으둑새 헤사 돼켜.

106003 @ 아, 미녕 말고 멧지도 경 곺아나수과?

106003 # 어. 멧지도 경 곺아. 멧지도 실 줌진 건 요건 으둑새, 훑은 건 요거 실 훑어부난 혼 일곱새 헤사켜 그거주. 게난 일곱새가 멧 무신건디 으둑새가 뭔지 그자 멧지 곺은 거 들은 거뿐 나도.

106003 @ 생멧진 무신 거라?

106003 # 생멧지는 짜멍사라 멧지가 바짝 허잖아이. 빠짝허민 그건 생멧지. 이 멧지를 이제 또 짜놓민 바짝헌 멧지를 모랑모랑허게 허젠 허면 저 지금 메밀 잇잖아이. 메밀겹 헤낭 겹데기. 겹데기 불 살좌근에 그것이 막 스는 거라이. 술민 또 그 메밀 겹데기에 불 치를 또 서경 또 슬고 또 슬고 혼 세 불 네 불 불경에다 불을 살좌가민 요놈이 불경 영 물에 놓민 문작허. 손이 문작허여이. 그때는 그 물 카 놉근에 이 멧지를 낱 승는 거라. 승양 놉두민 멧지가 그냥 짠 건 ㅼ짜허는디. 요 멧지가 말랑말랑허는 거라. 그 물에 낱 승으민.

106003 @ 모멸채?

106003 # 모물채에다 놉근에 채를 불에 스는 거라. 채를 불에 슬고 또 불에 슬곡 그 채를 놉근에 또 그 불경에다가 그 모물채 서경 불 부청놉두고 불 부청 놉두고

허민 그 재가 여러 번 불 부떠 가민 물에 카 노민 재 문작 허여이. 멘작 허여. 영영 허민 비눗물 므냥 멘작 허민 멩질 그 물에 낱 솟는 거라. 막 글고루 행 영 물 적지 멩 솟아놓민 멩지가 이제 버작헛던 멩지가 놀작 허는 거라이. 멩지 뇌는 거.

106003 @ 멩지 뇌는 거.

106003 # 경허민 그뻬 이젠 그거 멩지 행 막 두어 번 서 너불 막 깨끗허게 빨아 똥 풀 헤영 막 마께로 두드리멍 예휴 멩지 다듬나 허는 게이 다듬이로 이거

106003 @ 응

106003 # 이거 영영 계속 다듬야. 게민 멩지가 뻥직뻥직허게 다듬아져사 걸로 새 서방들 옛날에 옷헛 거 엇이난 그걸로 큰옷 허고 두루막 허고, 바지 저고리 허곡. 경행 새서방 옷들 허고 또 새각시덜도 시집가젠 허민 그것이 물들영 파란 물들이곡 또 붉은 물들이곡 허영 이불깃 허고, 그거 다듬양 이불 만들고. 새각시 치메, 저고 린 그장 헤영헌 걸로 그냥 허곡. 거민 요거 생멩진는 버작허영 만날 빨아도 버작버 작 허여이. 경허민 이 멩지 뇌영 다듬나 허는 게 그게 제일 힘들어.

106004 @ 게민 멩지로는 주로 새서방 새각시 옷만 멘드는 거과?

106004 # 처암엔 옛날엔 경허는 거라, 완전. 그냥 우리 일반도 행 입는다. 우리 일반ㄱ장 그걸로 다 행 입젠 허민 엇이민 그걸 막 요새 비단 옷 행 입지듯이 새서 방 새각시 걸 행 입지는 거라. 겨민 그 사람네 그거 입어나민 어디 갈 때나 치메 저고리도 어디 갈 때, 나들이 헛 때나 입주. 집이선 안 입주게. 그걸 막 곤 옷으로. 어디 나갈 때 그거 그냥.

## 무명

106007 @ 게민 이번엔 미녕예. 미녕 종류는 어떤 거 어떤 거 이수과?

106007 # 미녕 종류? 멩 가지 엇어. 흰 거뿐이주.

106007 @ 그것도 아까추룩 다섯새 미녕, 옛새미녕 이렇게 헤?

106007 # 그건이 실 내는 사람이 실 짓는 사람이 줌상헌 사람은 실도 줌상허게 내영 ㄱ늘이 곱닥허게 내어. 내민 일곱새 미녕이라고 줌지롱 허고, 그자 어리 손질 형 에이 휘딱휘딱 넘어가주 허는 사람은 실도 훑게 내어이. 영영 허민. 영 내민 실 이 훑어. 훑으민 요건 에에 옛새 미녕베편 안 똤켜. 미녕 짜 노민 둘둘헌 게 두꺼와 그거. 게난 실 훑에 내고 줌질게 내는 거. 그거, 미녕은.

106007 @ 흑시 토목 생목 영 허는 거 이수과?

106007 # 토목 생목 허는 말은 못 들엇어,우리가.

106007 @ 이디 멩지, 육지 멩지.

106007 # 육지 멩지 이디 멩지 허민 이디 멩지가 웨레. 그전에는 멩지도 이디 멩 지나 육지 멩지나 영간히 ㄱ따신디. 토목 무신거 허는 거.

106007 @ 게난 토목.

106007 # 건 베주 베.

106007 @ 그건 베?

106007 # 베가 욱지 베가 고와이. 이디 베보단. 옛날 이디 베도 이디도 삼을 어느 때 비는냐 허민 보리 ㄱ슬광 똑ㄱ따이 허는 거라 이거.

106008 @ 삼은 이땅 할머니, 미녕 해나걸랑. 미녕으로 게민 무신 옷 멘드는 것과?

106008 # 미녕으론 요새 그자 감 들영 입는 옷, 옛날은 이 제주도는 그처럼 감만 들이멍 입어서. 흰 옷 입젠 해도 비누가 이서사 빨아 입을 거 아니.

106008 @ 게난예.

106008 # 비누 옛영 빨지 못허고 허난 그자 감물 물들영 입영 버물민 그냥 물에 강 뜸이나 영영 해왕 그자 입곡. 이 멍지 옷 ㄱ튼거 허민 뭘 물에 뺌느냐 허민 고사 곧듯이 잣물, 그거 카노민 물이 멘지락 허여. 게민 것에 킁 놔두민 돼. 때가 속 빠져. 게민 그걸로 흰 옷 그것에서 때 지왕 입곡 경 헛주. 어디 미녕 옷 흰 거 입어 보질 못해서. 때 지우지 못 해영. 검은 물 들영.

106008 @ 주로 입는 게 같중이?

106008 # 응, 같중이허곡 검은 물 들영.

106008 @ 아, 검은 물

106008 # 검은 몸빼.

106008 @ 아, 검은 몸빼.

106008 # 검은 몸빼 그자. 주로 입는 건 갈몸빼, 같중이 그거. 그거 입엇주. 경

106008 @ 미녕, 광목은 나중에서 난 거파?

106008 # 광목 막 우리 역은 후제 막 역은 후제. 우리 혼 이 십 대 그때 미녕으로 이불안 허고. 혼 이십오 세 거저 혼 삼 십 대 나가난 광목이 널어진 거.

106008 @ 그믐 옛날에는 그냥 미녕 밖에.

106008 # 미녕으로만 쟁 해 놓민 옷을 행 입어가민 헐어가민 미녕을 경 하영 헤쳐? 이녀 밧 엇곡 허민 그 소계를 하영 멘네를 하영 같지 못 허는 거라. 미녕 흐끔만 허민 그거 무시거 수정이나 한 디쯤은 무시거 바지 저고리 행 입곡 무시거 허당 보민 어느 절에 옷 행 입곡 헐 저르가 엇어서.

106011 @ 흥세미녕은 무신 거과?

106011 # 흥세엔 현 건 그 미녕헛당 시집 장계갈 때 흥세 놓는 거. 이제 ㄱ뜨민 거ㄱ라 뉘엔 곧느니 저.

106011 @ 함.

106011 # 함. 함 소곱에 낱 가는 거 요샌 옛날엔 이제도 그거주. 욱지엔 ‘함 사세요. 함 플레 거주만은이 이디 그것이 엇어. 동글랑헌 남하꼬 요 베개보단 흐쉴 크게 헤여근에 미녕 두 필, 두 필 넘어도 안 놔. 두 필이엔 현 건 마흔 자짜리 두 개. 사십 자짜리 두 개이. 그거 두 개 낱 그디 여장 쓴 거 놓곡 형 잔칫날사 아정강 쥐.

106011 @ 뭘 허렌 주는 거라?

106011 # 그 소곱에 여장이 잇거든.

106011 @ 아니 미녕은 무신거 허렌 그거 주는 거?

106011 # 새각시 선물로.

106011 @ 아, 선물로 옷 행 입으렌?

106011 # 옷 행 입으렌 선물로 주는 거. 계민 그것이 여장 써근에 그 미녕 두 필  
현 거 그거 마흔 자가 흔 필이라이. 계난 그거 두 필 농곡 그 여장 쓴 거 그 함에  
담양 잔칫날사 아정가는 거.

106012 @ 그른 이제 그 미녕허젠 허든 멘네 헤삼니께? 멘네는 어떻 행 허는 거  
과?

106012 # 멘네 이제 곧듯이 이것에서.

106012 @ 아니 농사짓는 거.

106012 # 농사짓는 거 이거 씨 뿌령 갈앙.

106012 @ 땃 월에?

106012 # 이것이 흔 음력 3월 달에 갈암실거라.

106012 @ 멘네를?

106012 # 흐쉴 인칙 갈아. 경 나민 여름에 검질 매젠 강보민이 멘네 드레 멘네  
드레 허멍 요만씩 현 거 몽클 몽클 돌아진. 그거 연현 땀 그렇게 맛이 좋아. 계민  
검질 매레 가민 그거 툷아 먹어볼민 어멍헌티 욱 다 듣곡 야, 땃으로 옷 헤 입을거  
넌 허멍. 거 따 먹어볼민 땃으로 옷 헤 입을거넌 허멍 막 욱 듣고 허여. 도랑 도랑  
요만씩 현 땀 막 어릴 때난 똑 허게 까민 경 들현 게 맛이 이서, 그것이. 겨민 따  
먹어빴젠 검질은 안 매곡 것만 따 먹어볼민 땃느넌 허면 욱 듣곡 헤나서.

106012 @ 멘네도 막 하영, 밧디 하영 갈아삽니까?

106012 # 하영 갈아서이. 가는 사람덜은 하영 가는 사름, 부제 칩이 사람들은 천  
평도 갈아이. 흔 오 백 췁, 흔 삼 십 췁 그자 그 정도 갈민 우린 밧 엇이난 흔 삼  
십 췁, 흔 사 십 췁췁 갈암주. 경 허민 그것에서 수정은 으라이곡 그걸로 영 췁 옷  
행 입젠허든 옷이 땃 지나 땃어. 땃지도 안 허지.

106012 @ 미녕은 씨 부령 그냥 밧 갈아볼민 땃어?

106012 # 어, 밧 갈앙 내볼민 땃어.

106012 @ 고랑에 영 허는 건 아니고?

106012 # 고랑에 허는 거 아니고 씨 빼영 내볼면 나민 그자 검질만 매주민 이 팔  
월만 나가민 그 멘네 마라 드레 드레 허주. 드레 모양으로 열앙 드레기 열앗단 딱  
딱 벌어지믄이 체암 타는 건 경 고와 숨이. 박씩헌 게 밧디 강 보민 베릴만 허여.  
날 좋은 때 췁은, 밧이 헤영허난. 겨민 옛날 치메라고 영 허리 든 치메 잇잖아. 그  
거 입영 영 받아근에 소게 막 이레 타 뉼. 요센 잘리 잡앙 허주마는 잘리가 어딘  
나? 그 치메 입영 영영 받아 이레 든 타 뉼, 이레.

106012 @ 그 도레만 영 타 뉼?

106012 # 타 뉼. 그 속에 박씩이 핀 거만.

106012 @ 핀 건만?

106012 # 핀 거 숨만 따 뉼.



106012 @ 아 그 안에 숨만?

106012 # 숨만 쪽쪽 빼명 이레 놔근에 허민 두 번 세 번차7장은 숨이 곱고 네 번차라가민 막 굿어.

106012 @ 아, 그디 숨 툏아불민 그디 또다시 숨이 영 올라오는 거?

106012 # 딱시 숨 박삭허게 피면 그거 툏아불민 그거 아레 밀에 또 드레가 이서 또 연거. 게민 두불7장은 막 곱곡 세 불차 드레 캐는 거는 흐썬 굿어가. 낮이 캐는 건 흐썬 굿어가. 쟁 이제 팔월만 낭 막 낮이 캐는 건 원 곱지 아녀. 병텅이 저부는 거 하곡.

106012 @ 게민 그거.

106012 # 박삭 허질 못헤여.

106012 @ 그믐 그걸 탕 왕 집이 왕 어뎡 험니까?

106012 # 그거 오민이 그걸 영영 보민이 그디 모듈모들헨 소게 트멍에 씨 말고도.

106012 @ 씨 말고도?

106012 # 모듈락 모듈락헨 게 하. 게민 영영 허멍 그거 문 또 빼어비여. 모듈락 모듈락헨 거 빼어동 그거 이젠 영 현디 강 낭 영 들르민 씨가 문 갈라지는 거라이. 아까.

106012 @ 안에 씨 이신 거?

106012 # 앞으레 씨가 갈라 오희 베피디레 소게 나곡 허면 그 소겔 딱시 벳디서 바삭 발헤여근에 태우는 딜 가. 소게 태우는 디. 툏 허는 디 강 이제 소게 툏을 요 새 7트면 기계로 내주마는 발로 불르는 거라이. 발로 불랑 허민 소게가 바삭 퇴왕 나오민.

106012 @ 소게 불르는 디 뤼엔 곶아 속에 태우는 디.

106012 # 소게틀.

106012 @ 소게틀?

106012 # 소게틀, 소게틀 허멍.

106012 @ 소게 툏 이신 집은 소게틀 집?

106012 # 응, 소게틀 집. 소게틀 집이엔 허멍 강 그거 퇴왕 허민 이눔을 이레 낭 바짝, 영현 멘짜 현디 낭 그걸 막 페와 영. 막 페와 노민 대막댕이 요만은 쫄라근 에 툏 놔근에 이눔을 손으로 짹 밀어. 밀민 이것이 동글랑케 밀어져.

106012 @응.

106012 @ 동글랑케 감아지민 그거 쪽 쪽 빼민 그걸로 이젠 영 줍양 실 영 빼는 거라. 영영.

106012 @아.

106012 #게민 요만이 녀영 못 빼여이. 게민 요거 요 가락지더레 영 올려뵤 또 영 빼곡. 경허민 줍상헌 사람은 영 영 소게 요 심영 영영영영허영 요추룩 손 노리멍 영영 허민 줍질게 빠지곡. 어떤 사람은 영영 헤불민.

106012 @ 뚜꺼워져?

106012 # 솔지게 나오민 미녕이 허민 두껍는 거. 경허는 거. 줌상헌 사람은 영 베리멍 일로 영영 들르멍 영 솔허게 빼주게 영. 솔허게 영 빼가민 실이 즐게 나오 는 건 줌질곡.

106012 @ 것도 이런 걸로 허는 거?

106012 # 응, 이것에서. 이것에서 허는 거고. 요건 씨 갈르는 거고.

106012 @ 이건 씨 갈르는 거고, 이건 그냥 실 빼는 거예

106012 # 이건 실 빼는 거, 이건.

106012 @ 응.

106012 # 이건 벨로 무신 하지 안여. 이건 실 빼는 거 허고. 이건 씨 갈르는 거. 두 개.

### 모시

106013 @ 게민 이딘 모신 안 허주예? 모시.

106013 # 모시. 우린 모시 허는 건 못 받. 모시도 허젠 허민 그거 모시도 똑 삼 이나 마찬가지로.

106014 # 겐디 우리 제주선 난 모시 허는 건 안 받.

106014 @ 그민 모시론 어떤 옷 멩들앙 입는 거과?

106014 # 모신 이거 헤영허게 이제 보민 모시 옷, 모시 옷 허멍 상그랑헌 거 잇잖아. 그치록헌 거

106014 @ 여름에?

106014 # 응 여름에 입는 거. 상그랑허게 모시옷 헤근에, 헤영허게 거 짱.

### 삼

106016 @ 게민 이번엔 삼예 삼.

106016 # 삼은 이제 베 옷이엔 헌 건 삼베엔 헌 건이. 이디서도 우리도 삼을 갈 아나서. 우리 어무니네 우리 두릴 때 보면 삼 같면, 그것이 이제 어느 때 가느냐면 이 새해 낭 흔 삼월들에 갈암신가. 갈민 이놈은 삼은 막 좇아야만 돼어이. 드물민 거려볼면 안 돼어.

106016 @ 아.

106016 # 지깅 좇아근에 우터레 ㄱ늘아도 영 ㄱ는ㄱ는 허게 우트레만 올라가사. 경허른 보리 비어 뒤근에 이놈을 막 비어. 비면은 대막텅이 요만씩 질게 헤근에 딱 두 개 영 무꺼노민 요 트멍으로 줌정 짹짹 홀트는 거라. 영 홀텅 영 홀터가민 작작 영 홀트민 요거 상겍죽이 뱃겨지는 거라이.

106016 @ 아.

106016 # 그거 뱃경 그 때 그거 헤근에 들렛다근에 그걸로 삼을 삼젠 허민 이 동 무릅 우리 아니 헤 봤주만은 우리 할머니네, 우리 어머니네 허는 거 보민 겨울에쯤

은 이디가 실렁 짓빨경허여. 요놈으 거 물을 적저사 이 동무릅에 낱 짝허게 밀 거 아니?

106016 @ 응.

106016 # 밀어근에 우리 실 거꺼지민 영 실봉오지 영영 뵈병 잇듯이 이게 잇는 거라. 잇어, 잇어, 이걸. 그 삼 지력을 경 미녕 지력이 짜게 안 돼는 거주. 영 이거 삼 삼아, 삼 삼아 허는 것이 바로 그거, 이디 차롱 하나 놔둬서라. 삼 겁 하나 앓아 내영 영 니곶으로 착. 니 엇인 사람은 안 돼. 니로 심영 영 행 짝 동기민 이것이 두 개 갈라져이. 갈라지민 요 실 앓당 요 영 낱 짝허게 밀민 노 꼬아지는 거라.

106016 @ 아. 이어져근네 길어지는 거.

106016 # 경행 여쨌 이레 농곡, 농곡 해근에 차롱에 하나 크나 족으나 수북허게 놓민 그 차롱에 거 내비뵈 또 판 차롱 해 놓고 경. 실 잇는 거 삼을 잇영 베 짜는 거. 요만은헌 거 무신 삼 그걸 얼마를 해 먹젠. 게난 삼 삼아, 삼 삼아 허는 게, 할 망덜 보민 이 동무릅이 짓빨경헤여이. 엇날에 뭐 요새 ㄱ트면 온돌방이나 잇저. 엇날엔 영헌 마리방에 또 마루 안 논 집이는 검질 끝양 북덕방이라고이, 경 헌 디 앓양 직직 직직 해노민 여기가 열영 서뭇 짓빨경허여. 경헤영 삼 삼 삼은, 삼 삼아 허 영 그거 해 낱 또 그걸로 이제 요런 것에 낱 이런 거보단 흐쫂 크게 헤영 영 둘러 근에 이젠 또 가림을 만들는 거라. 실 가림 모양으로. 가림 만들양 베 허기가 또 힘 들어. 가림 만들양 이제 또 굳사 나 멩지 너엇덴 글앗지. 잿물 행이. 그치룩헌 재 솟디 낱, 큰 가마솟디 낱 이놈으 실을 그디 낱 또 이기는 거라. 이겨근영에 그걸 실 이긴 걸 아정 강 빨젠 허민 이 물에 가근에 널르닥헌 물에 상 양 펜으로 사는 거라. 일로 사곡 일로 사곡허민 실 가름을 영영 해우지도 못허는 거라. 이견 영. 츠레로만 영. 일로 경허민 일로 영허민 또 절로 영허곡 해근에 일로 영영영영 행구멍 행 그 물을 판짜 빠비뵈 곳은 물 빼동 집이 오랑 흐룻밤 켕 울라부는 거라. 잿물. 울라뵈 그게 몰르면 실이라.

106016 @ 응.

106016 # 실이난 또 그것도 이추룩 헌 것에 끼왕 또 영 허멍 감아이.

106016 @ 예.

106016 # 동글레기 감아사. 베 만들젠허민 나 설명허젠 허민 막 오래영 못허켜. 머리 아파 나 그거 생각허민.

106017 @ 베로는 무신 옷 멩그는 거과?

106017 # 여름에 베 옷 잇잖아. 상그랑한 베 옷덜, 엇날에. 요즘은 상복덜토 허곡 그걸로 상복덜 문 베 옷으로. 흐쫂 아이고 아무딘 간 보난 짓빨경허게 문 베 옷으로만 상복헤서라 영 헌 말 듣지. 그런 거. 그런 거 허는 거. 그런 것도 잇곡 그냥 집이서 그자 바지 적삼 그런 거 베 옷으로들 행. 상글상글허게 행 입곡, 그거. 베 옷은 이 미녕 옷 ㄱ치 늘씩허지 안헌 거난. 상그랑허여. 베 옷은. 이거 미녕 실 ㄱ치 늘씩허질 안허 거라부난.

## 도구

106020 @ 게민 요거 이거 다시 한 번 허게에. 요거 무신 거엔 곱은다?

106020 # 씨 불르는 거 이진.

106020 @ 이진 씨 불르는 몰래?

106020 # 요건 실 내는 거.

106020 @ 이거 씨 불르는 건 어떻게 씨 불르는지 혼 번만 더 곱아줍서.

106020 # 씨 불르는 거 이거이. 요 판대기를 영 불량 앓앙 불량 앓으민 우리 멘네 숨 타올 거 아니. 타 오민 이걸 이레 맥여. 맥이멍 영영 둘러가민 숨은 요레 나옴 저 실은 요레 털어지콧 숨은 요 베끼더레 요레 나오는 거.

106020 @ 응. 이게 씨 불르는 몰래.

106020 # 요건 씨 불르는 거 요건 실 내는 거.

106020 @ 실 내는 건 어떻게 허는 거과?

106020 # 실 내는 건 이진 불르지 안 해. 요디 율로 요 새에 둘 하나 지둘봐. 요디.

106020 @ 그디 둘 하나 지둘봐. 경행.

106020 # 경 안 허민 요것이 트글락 트글락 안 웨지. 요것이 튀영 경허난 요레 특 허니 돌맹이 하나 곱닥헌 돌맹이들 요레 특 지둘봐불민 요것에서 영 실 좇는 거. 요거. 가레기에서.

106020 @ 이거 영 돌리멍.

106020 # 응, 돌리멍.

106020 @ 그 다음에.

106020 # 게민 실 좇젠 허민.

106020 @ 실은 어떻게 어디 끼우는 거과?

106020 # 실을 요거 요거 슬진 게 실이여. 요거 슬진 거 요건 가레기고. 게 요거 실 나왔네 요거, 요거. 요거 실이난 요레 영 해 똥 이거 영 돌르멍 영 허민 요 가레기 도는더레 이디 실 감아진 거라. 실 뽀그락헛네이.

106020 @ 예 실 감아진 거.

106020 # 실 감아지는 거. 이추룩.

106020 @ 어디레 실이 감아져. 실이 영 돌앙으네 이레 감아지는 거?

106020 # 아니야. 이거 영영 허민 영영 우리가 영 널 거 아니. 내민 일로 영 허민 그대로, 그대로 이리 강 가민 이레 안 돌려, 이레 그대로 감아지는 거.

106020 @ 이레 그대로 감아지는 거.

106020 # 응, 그대로 감아지는 거. 영 행 나오민 또 그대로 가근에 영 이레 올리는 거.

106020 @ 거른 원래 그 멘네나 그런 것은 어디 이신거과? 고치나 그런 건 어디 봐?

106020 # 뭇 고치가 이서.

106020 @ 아니. 멘네, 목화 소계 가근에 영 폐왕 온 거.

106020 # 아, 그건 아무 것이라도 허멍 구덕에 놓나 뭐 차룽에 놓나 아무 신디 놔도.

106020 @ 어느 짝에 놔?

106020 # 이쪽에 건 아무 짝에 놔도 안 걸려.

106020 @ 그디서 실 뺱 어디 끼와?

106020 # 실 이레 빼멍 끼네 이레 이레.

106020 @ 이레 끼와.

106020 # 영 툄아다 논 건 뭐 구덕에 놓나 아무데나 이딜 놓나 이딜 놓나 건 허 나 앓앙 허나 다 빼지민 또 영 앓아근에 빼는 거난 아무디 놔도 상관엇고. 요거 실 요레 영 빼민 영영 돌르는 거 아니?

106020 @ 예.

106020 # 실을 영 빼오랑 이제 요레 올리젠 허민 요 풀을 영 들러. 들렁 요 발 라만 강 영 낡 솔허게 영 돌르멍 놔 가민 요레 다 감아지는 거.

106020 @ 아

106020 # 영 뽑아갈 땐 요치룩 요영 뽑아당 요 우티레 감젠은 허민 이 풀을 영 들러. 영 들르면 들르멍 요거 솔솔 돌러가민 요레 오랑 감아지는 거. 뽀그랑허게 감 아젓네이.

106020 @ 뽀글랑 허게 감아전.

106020 # 경헝 감아지는 거.

106020 @ 아, 그 다음엔 아까 짜는 거. 이거 짤 땐 어떻헝 짜는 거과?

106020 # 짜는 거 우리 옛날엔이 이 허리에 요런 거 허영 썸이. 요레 썸 친허연 앞에 그 벅디집에 거 감아이. 감앙 허민 저 베클 뒤에 거 그거 무신거엔 허느니, 나 몰르켜. 그것에서 코 저 이 두에 코에 지금 그 즐라멘 거 아니.

106020 @ 예.

106020 # 즐라 메난 요리 오민 신을 영 헤영 신을 영 잡아둥기곡 영 늣추곡 헤영 이 발을 영 노단착 발. 영 늣추와도 이레 비 질르곡, 영 헤도 들러지민 또 일로 비 질르곡, 영 허민 일로 비 질르곡, 또 영 등경 울로 비 질르곡, 때리곡 경 허는 거, 이거. 이거 그거라 이거 노가 보난. 영 놔신게.

106020 @ 예.

106020 # 거난 이제 기계로 헝 기계로 째지. 옛날에는 기계로 안 헝 때는 육지서 도 다 이거. 영 발로 영 영영영영 허멍 발로 비 질르곡 따리곡.

106020 @ 그른 하루 처녁에 이건 얼마나, 얼마이나 헝니까?

106020 # 미녕은 잘 짜는 사름은 서른 자 째덴 허여이.

106020 @ 하루에.

106020 # 응 하루에 서른 자 짜곡. 경 아니헝 사름은 스물 여덟 자, 스물 일곱 자 경 짜이.

106020 @ 미녕은예?

106020 # 어, 멩지는 얼마 못 짜. 열 다섯 자 짜면 막 최고 잘 짜는 거. 멩진 막 즈질아부난.

106020 @ 아, 즈질아부난.

106020 # 실이 즈질아부난 경베끼 못 허는 거여 이거.

106020 @ 이건 집집마다 다 이서나수과?

106020 # 집집마다도 엇언. 놀이 집이 거 빌명 허여. 집집마다도 엇어. 그디 허민 미녕 '야, 베클 흐뎡 빌리라'하면은 우리 어느 때ㄱ장 짜 나사 베뀐 빌릴 수 엇다 허민 그거 짜 놉건 빌리라 허민 미룻부터 또 곶앙 놉뒤사 것도. 경 매 집이 엇어. 베클 맞는 것도. 게민 놀이 거 빌명 다 허주.

106020 @ 갱 이건 밧디 강 일허다근에 일 안 허는 날 쉬는 날 허는 거?

106020 # 응 영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ㄱ튼 때도 허곡. 날 존 때도 놀 누게 짜 도렌 허든 날 좋아도 가긴 가야돼. 짜도렌 현 때. 경허곡 대부분은 비 온 날 그자 집이 든 날에 짜. 밧딧일 허다근에. 트멍 보멍. 이넉 클 잇인 사람은 갱행 트멍 보 고 허곡 놀이 클 빌어 온 사름은 제기 행 쥬불젠 허민 날 존 때도 짜고 부지런히 쟁 쥬불곡. 경허는 거주.

### 바농질

106022 @ 바농질 허는 것은, 바농질 허는 건 뒤에 놉 둥니까? 바농허고 실허고.

106022 # 바농허고 실허고 놓는 건 요자기도 곶앗주만은 쫓그만한 바구니, 저만 은 현 것에 헤영 실도레기도 놓고 실도레기는 아니주. 낭으로 된 납작헌 거 실패, 실패 허멍 그것에 놉근에 허민 그 바농 질르는 거, 저 고냉이포, 고냉이포 허멍 영 귀나게 포 즈아근에 그 안에 뭐 실도레기도 놓고 바농도 놓고 다 행 놉근에 영 감 쥬 놉두는 거 이서. 영 귀나게 헤여근에. 이 고냉이포엔 현 거 영 즈아 영. 영영 요 추룩 행 즈앙으네. 게민 율로 영 행 ㄱ 놉 영 뱅뱅 감앙 바농질허다근에 그레 실도 놓고.

106022 @ 그게 고냉이포?

106022 # 그게 고냉이포. 바농도 놓고.

106022 @ 바농도 놓고예.

106022 # 실도 감은 거 놓고 경행 가냥허는 거. 바농상지엔 현 건.

106022 @ 바농상지?

106022 @ 바농상지엔 현 건 동그랑허게 대로 짠 거 이서. 조그만허게.

106022 @ 대로?

106022 # 어. 옛날 조그만허게 동그랑허게 짜. 요보단 족게 짜. 요만이. 동그랑허 게 짜.

106022 @ 바농상지 안넌 게민 고냉이포 잇고, 바농 잇고.

106022 # 바농 잇고, ㄱ새 놓고, 실 놓고 그자 그추룩 히어뜯헌 거 옷 허단 것도

요만씩 조각지 남은 것도 그레 놓고. 경 허는 거.

106022 @ 바농 찌르지 말렌 손에 영 허는 건 무신거라?

106022 # 손 골메 이서낫주마는 우린 손 골멘 안 찌. 우리가 옛날 손 바농질만 허민 이 손ㄱ레기로 영 바농을 심으민 요 손ㄱ레기 콥으로만 영 밀려나부난. 이 콥이 막 터져나부난 콥이 납작헛네, 지금. 이 콥은 이 베끗디가 뱅신 뵤민 이 안에서 뱅신 뵤 나오는 ㄱ라 윈. 콥이 고와가질 안 헤여, 이거. 납작헛근에. 옛날엔 게나 손 바농질만 헤.

106022 @ 그 바농 종류도 여러 개 잇수과? 두꺼운 거 잇고 조그락헌 거 잇고헤. 바농도?

106022 # 즘진 옷 허는 건 바농 ㄱ는 거. 이 미녕 옷 허는 건 흐뵤 중바농. 그거.

106022 @ 바농 이름이 뭐 큰 바농, 족은 바농.

106022 # 아이, 큰 바농 엇어. 요샌 큰 바농 이서라. 이만씩 진 거.

106022 @ 이불 허는 것은 큰 걸로 허지 안 헤여?

106022 # 큰 걸로 허는디 그자 그 옷 허는 바농이라도 흐쉴 훤은 바농. 그걸로 그걸로.

106022 @ 훤은 바농으로.

106022 # 옷 허는 바농으로 이불도 허곡. 옷도 허곡. 바농질 요즘은 흐쉴 틀리는 쟁이라라. 바농이. 바농 나오는 거 보민.

106022 @ 옛날에 바농 멧 개나 이서나수과?

106022 # 바농 멧 개사 허는디 뭐. 시민 서너 새 실 거. 경 안 허민 두어 개. 바농 여불민 옷 못 허카부덴 어떻 멧심하는지. 바농이 어디서 강 사오는디. 것 몰라. 어디서 강 사와신디. 바농은 일본 덴기는 사름안티 부탁헛 사당 하는 거.

106023 @ 바농질 허는 방법은 어떤 거 잇수과? 영영 허는 건 그냥 호는 거?

106023 # 호는 거 허곡, 저 뒷바농질이엔 헌 건 울로 영 찢렁 울로 빠내민 또 요 콥으로 강 또 찢러. 찢렁 그거 뒷바농질 허는 거. 또 훤는 건 그자 영 심영 영영영 영 바농 흐나 슝박 호와지민 영 등기주만은 뒷바농질 허는 거 흐 바농 흐 바농 베 피 못 헤. 오래여 그건. 뒷바농질 허는 건.

106023 @ 어떻헛 땀 뒷바농질 헤삽니까?

106023 # 돈돈허게 허젠 헛 때.

106023 @ 아, 돈돈허게 허젠 헛 때?

106023 # 응, 돈돈허게 헛 땀 요거 뒷바농질 헤근에 흐 방울, 흐 방울 허곡. 경 안 허영 이 겨울 옷, 슝웃 ㄱ튼 건 흐쉴 입영 버물민 박 뜯어근에 또 빨 거 때문에 경 허는 건 영 호와. 그자 순당순당순당.

106023 @ 끝에 영영영 허는 건? 감치는 거?

106023 # 감치지 안 헛 그자 모작청 실만 ㄱ차붙어.

106023 @ 아니, 천 울 풀리지말렌.

106023 # 아, 울 풀리지말렌 허는 건 그건 감쳐사.

106023 @ 건 감치는 거예.

106023 # 응 건 빙빙허게 시리 감쳐.

106023 @ 감치는 거.

106023 # 건 올 풀어지지 말렌 감치는 거.

106023 @ 그 다음에 또 허는 거 엇수과? 이런 디 단 영 접어근에 허민 이딘 어 명해?

106023 # 그디도 요새난 이거 영 바농을 이제 무시거 요새 허는 바농은 몰라. 영 걸리잖아. 삼각구나게 허주만은. 옛날엔 그냥 그자 외바위 지금 이것처럼 일로 뒷바 농질만 허는 거여. 이거 다.

106023 @ 아 뒷바농질로.

106023 # 응, 손으로 영 뒷바농질허여, 뱅뱅허게. 일로도 거고 일로도 그거고. 요 즘 저 쓰봉 알 ㄱ튼거 영 가르치잖아.

106023 @ 예, 요렇게 허고, 요렇게 허고 세모.

106023 # 손으로 안 허는 거여, 다 기계로 허는 거라부난 몰라.

106023 @ 그 다음 영 두 개 천 두 개 쪼그락헌 거 두 깐디 영 합쳐근에 영 크게 멘들젠 허민.

106023 # 두 개 합쳐 크게 멘들젠 허민.

106023 @ 영영 두 개 접어.

106023 # 건 잇으는 거주.

106023 @ 잇을 땐 무시거 뒷바농질로 이서?

106023 # 뒷바농질로 돈돈허게 허는 것은 뒷바농질, 경 아니헌 건, 대충 헌는 건 호와.

106023 @ 경행 영 행.

106023 # 기민 영 꼬부려, 두 개 딱허게 싹 홀터불어.

106023 @ 영 꼬불령.

106023 # 영 흔 번에 경헤영 싹 홀터불어.

106023 @ 싹 홀터불어. 경행 그 다음엔.

106023 # 경행 잇어.

106023 @ 잇어.

106023 # 응 잇는 거라.

106023 @ 경행?

106023 # 경허민 이서지는 거.

106023 @ 영허민 이서지는 거? 영 허는건 뭐엔 곶아?

106023 # 험벽 세기는 거.

106023 @ 세기는 거?

106023 # 응 옷 세겨근에. 험벽 세경 허라 영 행. 잇영도 허렌 허곡, 세경도 허렌 허곡.



106023 @ 아, 잇으렌 헌 말이 세경허렌 헌 말?  
 106023 # 질게 허는 건 잇으라, 또 쫓꼬만 허게 허는 건 그레 험벅 새끼 혼 방울  
 허영 세겨불라.  
 106023 @ 세겨불라.  
 106023 # 구멍 막으라 허는 거.  
 106023 @ 아, 구멍 막으는 거.  
 106023 # 쫓꼬만 헌 건 행 그레 구멍 뵈여불라, 세겨불라 영 허는 거.  
 106023 @ 이디 양말 터지민.  
 106023 # 건 구멍 막는 거.  
 106023 @ 건 구멍 막는 거. 그민 세기는 건 어떤 거라?  
 106023 # 세기는 건이 험벅 세경 허는 건이 요만씩 요만씩헌 험벅 올로도 부치곡  
 또 올로도 부치곡 크게.  
 106023 @ 아, 이어가지고.  
 106023 # 크게 잇는 거 그거라 세기는 거, 크게 만드는 거  
 106023 @ 쫓골락헌 거.  
 106023 # 쫓골락 헌 거 영 잇어가멍, 잇어가멍 허는 게 그게, 세기는 거.  
 106023 @ 그게 세기는 거.  
 106023 # 그거.

### 옷의 종류

106024 @ 옷의 종류. 남자 옷은 어떤 옷, 어떤 옷 이서마씨? 남자 옷.  
 106024 # 남즈 옷 옛날엔 요즈음 해도 옛날엔 바지, 저고리, 그거. 두루막.  
 106024 @ 바지, 저고리, 두루막 또.  
 106024 # 뺨스엔 허주. 옛날 팬티엔 아녕 뺨스 그것 뿐. 바지, 저고리, 두루막 여  
 림 옷 홉옷으로 만든 건 정벙이.  
 106024 @ 정벙이.  
 106024 # 적삼.  
 106024 @ 적삼.  
 106024 # 그거 여름 옷은.  
 106024 @ 여름 옷은.  
 106024 # 게난 중이 적삼 허는 게 그게 홉옷이라이.  
 106024 @ 중이 적삼.  
 106024 # 여름에 입는 거 그거.  
 106024 @ 아까 정벙이까지.  
 106024 # 응 그거고 바지 저고리 겨울 옷이라이. 바지하고 저고리 그거. 또 중이  
 적삼 허는 건 알아 듣기 쉬우렌 중이허고 적삼이렌 허는 건 정벙이하고 적삼뿐이라  
 요거 두 가지.

106024 @ 정벙이는 중이하고 뭐가 달라?

106024 # 중이나 정벙이나 꼭ㄴ튼 건디 일름만 틀려. 흐쵸 허면 중이 적삼 영 허 꼭 입을 땐 정벙이 아져오라 적삼 아져오라 경 허지.

106024 @ 바지를 중이엔 허지 안 허여?

106024 # 응, 바지. 남저거.

106024 @ 남자 바지를 중이엔 허는디. 정벙이는?

106024 # 정벙이도 중이가 정벙이라. 거 이름이 틀려.

106024 @ 중이가 정벙이?

106024 # 겨울 옷 아니난 여름 거난.

106024 @ 여름 거.

106024 # 중이 적삼 영 행 곤젠 허민 중이 적삼 영 허꼭 입을 때 ‘야, 정벙이 앓아오라, 적삼 앓아오라’ 입을 땐 경해도 혼디 포정 곤젠허민 중이 적삼 경 곤는 거. 벨 다른 거 아니, 이거.

106028 @ 남자 저고리.

106028 # 이거 남자 저고리고.

106028 @ 저고리도 이런 데 다 이름 이수게. 이런 거예 무신 거엔 곱음니까? 이거.

106028 # 이건 여자 옷이나 남자 옷이나.

106028 # 꼭ㄴ타?

106028 # 짓, 동전, 앞섭, 곰, 소미 그거, 그거지.

106028 @ 거뿐?

106028 # 거뿐이지.

106028 @ 이디도 이름 잇텐 헐디 이런 덴 이름 엇어?

106028 # 이름 엇어 이거. 요새에난 이거 이름 지엄지, 옛날엔 이거 저고리 소미, 소미, 요건 짓, 동전, 앞섭, 곰 요거뿐이야.

106028 @ 앞섭 말고 속에 들어가는 건?

106028 # 속에 들어가는 건 안 앞섭, 밧앞섭이라. 안에 건 안 앞섭 베끗디 건 베껏 앞섭 요거 동전, 짓, 앞섭, 곰, 소미 이거주. 벨 다른 거 엇어.

106028 @ 바지는?

106028 # 바지, 허리허고 요거.

106028 @ 허리 허고 그 다음엔?

106028 # 허리 허고 가달 요거.

106028 @ 가달뿐?

106028 # 그거뿐.

106028 @ 이디 야이는데 무신 거엔?

106028 # 이거 요새 거난 복잡허주, 옛날에는 이추룩 복잡 안허게 헤.

106028 @ 바지 허젠 허민 이렇게 영 마루 폭, 이디 작은 사폭, 이딘 이딘 큰 사

폭 영 써져신디 이런 말 안 써?

106028 # 아, 작은 셋북, 큰 셋북 요거.

106028 @ 예, 작은 사폭.

106028 # 요런디.

106028 @ 요건 큰 사폭예.

106028 # 요건 상북. 요건 작은 셋북 요건 큰, 큰셋북이렌 현 거는.

106028 @ 요거 무신거라?

106028 # 상북.

106028 @ 상북?

106028 # 응, 요거 상북, 큰북. 제일 큰것이 상북, 요건 작은셋북.

106028 @ 요건 작은 삭폭 요건 큰 사폭.

106028 # 큰 셋북.

106028 @ 큰 사폭?

106028 # 사폭이 아이고 셋북, 큰 셋북.

106028 @ 큰 셋북.

106028 # 작은 셋북. 요건 상북, 이건 깎작 나가는 거난 상북.

106028 @ 작은 셋북. 이신게게.

106028 # 요거 요거 허리.

106028 @ 허리. 요디 요디 밑에는.

106028 # 밑엔 엇어. 이건 이건 무신거 다넘치는 거나 베끼.

106028 @ 다넘치는 거예. 게민 남자 옷은 아까 요거허고 그 다음엔 우에 입는 건 두루막?

106028 # 두루막. 두루막이엔도 허곡 후루메엔도 허곡.

106028 @ 후루메엔도 허곡예.

106028 # 후루메. 두루막이엔도 곤곡 후루메엔도 곤곡. 꼭ㄴ타. 저고리나 마찬가지로

106028 @ 저고리나 마찬가지로?

106028 # 깃, 동전, 소미, 앞섭, 이거 작은 셋북, 큰 셋북 요거 요거 작은 셋북 뒤에 요건 앞섭.

106028 @ 요거 작은 셋북?

106028 # 응, 셋북 아니 작은 셋북이 아니고 이건 그냥 셋북 두 개 뿐.

106028 @ 그냥 셋북.

106028 # 또 요것도 두 개 뿐.

106028 @ 이거 셋북?

106028 # 응 양펜이 다 이거 부찢거난 알 영 퍼지렌 부찌는 거주. 겨난 이거 큰 북 작은 북이 엇어.

106028 @ 그냥 셋북.

106028 # 양, 셋북 이 이 몸 덩어린 꼭ㄴ트난.

106028 @ 요딘 소미?

106028 # 소미. 보선. 이거 이몸은 꼭ㄴ타. 저고리나 아무거라도 꼭ㄴ트디 요건만 요거 셋북만 요거 틀리주. 요거 요거 우 쪼라지고 요레 퍼지게 헛잖아. 그거

106028 @ 두루막 말고 또 이수계. 남자 입는 거 조끼? 조끼 안 입어?

106028 # 조끼 입어.

106028 @ 조끼 다르게 곤는 말 이수과? 아, 마고자.

106028 # 요새난 마고자지. 옛날엔 마고자 벗어나서. 요새에 마고자지. 옛날엔 마고자 벗어.

106028 @ 조끼.

106028 # 조끼만 잇주.

106028 @ 조끼는 이서난?

106028 # 조끼 뿐이주. 요새 마고자 나건 디 몇 년 안 뤼어. 마고자 허는 말은 이제사 나온 말이고. 옛날은 저고리 입으면 저고리 위에 쥘게에 적삼을 입든 저고릴 입든 쥘게 하나 그거.

106028 @ 응 그 뭐 도폭? 이런 거는.

106028 # 도폭은 큰 거 이서 또.

106028 @ 큰 거 이서예.

106028 # 큰 거는 이 절 혈 때도 입곡, 그거 결혼식 때도 입곡, 요ㄴ장 띠이, 크게. 케민 소미도 이만은 허게 허곡. 소미 이만은 허게 허곡 그거는이 또 후루메보단 틀려이. 이디 또 불림복이라고 요디 굴른복 두 개가 이서. 요레 둘이가.

106028 @ 아.

106028 # 그 남으진 이것과 후루메광 ㄴ트디 요디 뒤에 복 두 개가 불리는 복 이서. 뒤에까지. 겐디 질어. 후루메 닻지 아녕 이건 이 발 봉오지 톱 막아지게, 건 막 걸게.

106028 @ 건 결혼식 혈 때 입으는 거?

106028 # 결혼식 혈 때도 입곡 제스 때도 입곡. 케민 소미도 이만은 허여. 이만은 허곡 질곡. 요디 요거 뒷북 흐나가 요거 불리복이라고 요 두 개가 굴루이 이서이. 그런 건 다 ㄴ타. 그루후제는.

106028 @ 저 뭐 상제들 입는 상복 혈 때 뒤에 저 남자 상제혈 때 그거추록? 뒤에 뒷북은?

106028 # 남자 상제들 헤여도이 저 상제들 뒷북해도 그런 복 벗어. 상제도

106028 @ 틀려?

106028 # 상제들은 이런 불림복이 엇이 그냥 밋밋 허곡, 남자 상제 아들 상제는 소미가 요디 쪼라정 그냥 우린 여상 후리메고이 사위덜 옷은 이디 우머니 들린 옷, 소미 이만은허게 헤여.

106028 @ 틀려?

106028 # 틀려. 왜냐하면 사위덜 옷은 틀리게 현 때문 소미가 이디 등겨. 크게 허곡 또 그냥 상가 상제 옷덜은 남저 상제 본 아덜들 입는 옷은 소미 꼭 두루멧 소미고치 훑타지게 허여. 사위덜 건 이레 영 질게 허곡.

106025 @ 그 다음에 여자 옷, 여자.

106025 # 여자 옷은 꼭ㄴ타. 딸이나 아들이나.

106025 @ 치메하고 저고리.

106025 # 이제난 저고리엔 험주. 옛날엔 치메 뿐.

106025 @ 치메뿐?

106025 # 치메 하나 헤 주민 그자 우엔 아무거라도 입영 뎅겻어, 옛날엔. 근디 요즘은 뭐 상제 옷이라고 우잇옷도 틀리다 무시거다 허는디 우잇옷도 영 보른 이견 허기 쉬운 거라. 기자 질게 행 허리따 무끄게시리 질게 행 소미만 들앙 짓도 엇이. 요즘 옷은 짓이멍 뿔이멍 요레 요만이 영 질게 행 허나 부치민.

106025 @ 아니, 상제옷 말고 그냥 평상시에 입는 거.

106025 # 평상시에 누게가 입어?

106025 @ 여자 아이들 저고리하고 치메.

106025 # 아 평상시에 입는 거 옛날엔 저고리 그자 우리 저고리고. 학생들, 학생들은 요만히 뜨게 입어이, 치메를. 옛날엔 어디 바지가 이서? 몸빠가 엇주. 학생들이. 치메허민 딱 요디 무릎 아래 뜨게 행 입곡 그자 검은 물 들영 검은 치메에 우엔 흰 저고리 그거. 곰 들곡 헤영 그거. 입어난 거.

106025 @ 여자 저고리도 여기 동정하고 짓 잇고.

106025 # 아, 여자 학생덜도 문 이치룩.

106025 @ 학생덜 말고 어른덜도게.

106025 # 어른덜도 문 이치룩.

106025 @ 이견 동정, 이견 짓.

106025 # 짓, 앞섭, 곰.

106025 @ 이견 곰, 요건 앞섭.

106025 # 요건 치메, 어깨마리.

106025 @ 요건 어깨마리.

106025 # 다 경행 입엇지, 옛날엔.

106025 @ 이거는 여기는 폭.

106025 # 건 치멧복이난 뵤.

106025 @ 치메폭.

106025 # 이견 천이 족으민 여러 복 들어가는 거. 경 아녀민 두 복, 세 복 경허민 치메 행 입는 거 이거.

106025 @ 이거 끝에는 치메단?

106025 # 치메알. 단 허는 거.

106025 @ 단이 아니고 알? 치메알?

106025 # 응.

106025 @ 그 다음에는 이거 영 뒤로 영 허민 이레 영 가려집니께.

106025 # 옆치메 이건.

106025 @ 옆치메.

106025 # 옆치메라고이 이건 처녀들이 안 입고 요즘은 처녀고 무시거고 잇당 다  
입어 나사는디 무용혈 뎨 허는디 시집간 사람들베핀 안 입어, 이건. 처녀들은.

106025 @ 처녀들은 어떤 거 입어?

106025 # 그냥 통치메로.

106025 @ 아, 처녀들은 통치메로.

106025 # 어, 부정 이런 진 치메 안 입어. 통치메 그냥 요만이 뜨게. 경 행 입곡.

106025 @ 시집간 사름은?

106025 # 시집간 사름은 영 둘루는 치메, 그거.

106025 @ 둘루는 치메 아까.

106025 # 옆 튼 거.

106025 @ 옆치메?

106025 # 응, 옆치메 그것 입곡, 경 헛지, 옛날에.

106025 @ 여자들은 여름에 입는 거 겨울에 입는 거 트나?

106025 # 트나지 아녀. 옷 얇롭고 두꺼운 건 트나. 겨울엔 저고리 입지만은 여름  
엔 홑옷 입잖아. 여름에. 옛날에이 요새 ㅁ트난 하간거 이치룩 현 옷도 나고 허난  
이 옷 저 옷도 입엄주. 옛날엔 딱 미녕이든 미녕이라이, 적삼이든 적삼 하나, 다른  
거 엇어서. 우리 옛날에 우리 두릴 때 입을 건.

106025 @ 속에 입는 건?

106025 # 적삼허곡 몸빼 하나 그자. 미녕 몸빼에 미녕 적삼 하나 그거 입어서.  
소곱에 여름에 팬티 하나 멘들앙 미녕으로 팬티엔 안 허여. 뺨스.

106025 @ 뺨스, 뺨스 말고 아까 속곳 .

106025 # 속곳은 물질허는 사름덜.

106025 @ 아, 그믄 그거 만들앙 입은 것도 뺨스도 속곳이엔 안 곶아?

106025 # 속곳이엔은 안 곶아. 우린.

106025 @ 그냥 뺨스?

106025 # 어, 그냥 뺨스. 뺨스렌 헛주.

106025 @ 요 안에 요만헌 바지 안 입어? 치메 안에?

106025 # 그거이 옛날에.

106025 @ 속바지 뭐 이런 거.

106025 # 그런 거 안 입영 정벙이, 정벙이엔 헤낫저.

106025 @ 정벙이.

106025 # 소곱에 입는 속 정벙이

106025 @ 속 정벙이.

106025 # 옛날엔이 빠지도 뭐가 었어났져. 그런 거 허젠허민 무시거 서사 행 입 느네. 옛날에 그자 얼영 툃툃툃툃 툃툃이라도 그 미녕으로 행 요만은 뜨게 행 정벵 이 새끼 흐나 행 입으민 눈 팡팡 온 때 게도 그거 입영 땡기곡.

106027 @ 옷 멘들젠 허민 어떻 헤근에 멘드는것과? 옷 본 헤다근에 헤여?

106027 # 아니.

106027 @ 게민.

106027 # 옛날 옷은 본 안 현다.

106027 @ 게른 어떻행?

106027 # 그냥 이녁대로 그자 품만 얼마 지러기, 지러시 얼마 허민 그자 자 놉근에 영 식식허게 자 낱 물르멍 그자 품만 마창, 품 멧 치여 놓라 허민 멧 치 놓고, 지러시 멧치 놓라 허민 그거 허영 삭삭 들으민. 본 허영 하간 거이 옛날 이디 우리 조선 옷 입는 거 본 아니 낱 물라난.

106027 @ 아, 그민 영 ㄱ세로 잘랑?

106027 # 응 ㄱ세로.

106027 @ 그 다음.

106027 # 큰옷이고, 후르메고, 치메고이 멧 자 지러시다, 멧 자에 멧 치 놓라 허민 그걸로 꺾이주. 본 헤당 물라본 적은 었다, 우리. 본 헤당 물라본 적은.

106027 @ 그 천 놉근에.

106027 # 천 놓고, 자 놓곡 헤근에 자로 싹 재어근에

106027 @ 재어근에 기려?

106027 # 길이도 재곡 품도 재곡.

106027 @ 아니 그니까 그리냐고?

106027 # 안 그려.

106027 @ 연필로 영 표시 안 허여?

106027 # 아녀. 안허여. 이거 고비가 영 나는 거난, 천 고비가 나는 거난 멧 자 허민 딱 오그령 영 싹 썰민 고비 나민 그 고비로 그치멍 헛주. 그리고 무시거 안 헤났져. 우리는 나도이 이 도폭이나 이런 옷 그자 손으로 만드는 것은 느랑 헤났어 이. 새각시 옷덜토 강 헤도렌 허민 허곡 허민 그자 자 놉근에 자로 멧 치, 품 얼마 입나허민 그자 자로 낱 멧 치 놓고, 지러시 멧 치 놓고, 치메 지러시도 멧 치, 멧 자 멧이 큰옷 경 허민 그자 치수로만 말헤놓멍 그치멍 헛주. 본 안 헤났져.

106027 @ 그냥 그걸로 헤근에 그 다음엔 손으로.

106027 # 손으로 호와. 아이고 옛날 바농질헤난 거 막 복잡헌 거. 손으로 그거 든 호우젠 허민이 새각시 옷도 강으네 흐루 치메 저고리여 무시거여 허젠 허민 흐루 걸러비어.

106027 @ 흐루민 만들어져?

106027 # 흐루민 멘들아. 흐루민 만들어. 그자 수왕수왕 호는 거니까. 겨고 윤디 들고, 멧지 옷은 허젠 허민 윤디 잇잖아. 윤디 들영 화리에 숯불 살황황 묻엇다근에

뜻뜻허민 그걸로 싹 썰민 실밥이 속허게 밀어져이. 경혜근에 옷허곡 경헌 거.  
106028 @ 보선.  
106028 # 보선은 이거 마찬가지로.  
106028 @ 보선 이디.  
106028 # 보선도 누게 신는 버선 발에 맞은 신 본인이 허든 나가 나 발에 보선  
아정 강 보선 특허게 이치룩 벗엉 특 허게 낡 쪽쪽허게 바놓으로 시꺼, 시꺼. 겨 안  
허민 연필로 쪽쪽쪽 점 찍어. 경 혜근에 보선 물란에 해주,  
106028 @ 응.  
106028 # 본 놓고 무시거 놓고 안 행 보선 바근에 확 물라근에.  
106028 @ 이딘 보선 앞 코?  
106028 # 요건 앞, 요건 뒤.  
106028 @ 뒤치기?  
106028 # 응.  
106028 @ 이딘 목  
106028 # 목, 그거.  
106028 @ 보선목. 이딘 볼  
106028 # 볼, 보선.  
106028 @ 이디 영 웬디 무신거엔 곤는 거 이수과?  
106028 # 엇어.  
106028 @ 이디.  
106028 # 그것도 엇고.  
106028 @ 이디.  
106028 # 요것ㄴ라 예특.  
106028 @ 그것ㄴ라 예특.  
106028 # 응 그거 하나 예특이엔 허주.  
106028 @ 요거 하나뿐?  
106028 # 응 이 보선은 뭐 여러 가지 엇어.  
106028 @ 이디 회목.  
106028 # 그런 거 엇어.  
106028 @ 뒤치기.  
106028 # 거 안 글아봤저. 그저 뒤치기엔 허고 앞볼 현 거 허고.  
106028 @ 뒤치기허고.  
106028 # 앞볼.  
106028 @ 앞볼.  
106028 # 응, 거뿐이주.  
106028 @ 다음에 코.  
106028 # 아이고 코는 그냥 이신거나 그자.



106028 @ 이딘 보선목.  
 106029 @ 단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이수과?  
 106029 # 단추.  
 106029 @ 응.  
 106029 # 우리가이 저 별모작이라고 영 천 혜영 ㄴ는ㄴ는허게 막 바놓으로 놀멍  
 그걸 막 감쳐이. 경행 막 ㄴ늘게 행 모작을 ㄴ쳐. 모작 ㄴ청 드는 것도 별모작.  
 106029 @ 별모작. 그 다음엔 그냥 단추는?  
 106029 # 단추는 이런 거 돌아.  
 106029 @ 그냥 이런 단추는.  
 106029 # 그런 단추 그냥 돌아. 무신거.  
 106029 @ 옛날엔 이런 거 벗어나실 거 아니과?  
 106029 # 옛날엔 이런 단추 이서.  
 106029 @ 아. 이서. 무신 거엔 곶아 이런 거.  
 106029 # 옛날엔 이디 구재기 딱살로 만든 단추가 이서.  
 106029 @ 구재기 딱살로 만든 단추.  
 106029 # 어. 그런 단추 사당 들주. 이 남자 옷에는 문.  
 106029 @ 그 다음에 뭐 이수계? 마고자 같은데 허는 그 큰 거.  
 106029 # 마고자 허는 디도 옛날엔 이디 마고자가 무신 거가 벗어나서, 우리 옛  
 날에. 아이고 이제난 마고지여 무시거여 험주. 옛날엔 마고지가 어디 서시니. 마고  
 지런 현 옷은 우리 역은 후제 이제사 이거 마고자 현 후제 이거 현 몇 년 돼시니?  
 현 이십 삼십 년 안 돼어. 마고지,. 마고자. 현 삼 십 년 돼긴 뽕저. 마고자엔 말 듣  
 건디.

**재단과 염색**

106030 @ 옷감 손질 허는 거. 멩지 손질 허젠 허민.  
 106030 # 건 마께로 막 다듬이질 헤사. 풀 혜영.  
 106030 @ 풀은 무신 풀로?  
 106030 # 밀풀. 밀 곶아근에이 밀 곶아근에 저 물에 킁 놔두민 막 조늘아이 밀.  
 막 줄민 그거. 막 잘리에 낵 영 밀어근에 허민 혜영현 물 나오민 그거 쏘는 거라,  
 풀.  
 106030 @ 밀ㄴ루를?  
 106030 # 밀ㄴ루가 아니고 옛날엔 이디 밀 혜영근에 ㄴ레서 검피는 거네이. 검평  
 그 거핀 밀썰을 물에 크는 거라이. 컷다근에 그걸 잘리에 싸근에 막 영영영영 주물  
 라가민 혜영현 물이 나오는 거라. 게민.  
 106030 @ 청묵허듯이.  
 106030 # 그거 싸근에 청묵허듯이 그거 행 쏘어. 쏘웁 돼민 물 놔근에이 멩지 뽕  
 영 부들부들 시들어 가민 그땐 개여낵 막 두드러. 마께로 막 두드리당 또 이젠 거

자 두드러지민 요 멧지 옷 허기가 쥔 힘들어. 또 이젠 등글렁헌 흥지대엔 현 거 이서. 이만은 진 거이. 이만은 질고 요보단 흐쫄 더 슬 좋아. 것에 뱅뱅 감아근에 막 다듬이로 마주 앞앙 다듬이로 막 두드려. 게민 이 멧지가 뺨직뺨직허게 다듬아져. 이 멧지 옷 헤 입으민 쥔 시끄좌. 다듬젠 허민 마께질 허메. 미녕 옷은 그자 발로 꼭 꼭 불라근에 행 입어도 돼는다. 멧지 옷은 경 안 허민 옷 살앙 바제기 올 살앙 뽀이 엇어. 게난 이거 빈직빈직허게 허젠 허든 다듬이로 게나게나 밤에 앞이민 다듬이 소리가 귀가 터져. 삼 사방이 다듬이 현다고.

106030 @ 발로 불르는 건 어떻 불르는 거?

106030 # 발로 기자 이 미녕 옷은 그자 포에 쌍 저 똑똑 풀 백영 시들어가면 개여 놔근에 무신 저 포대기에 쌍 발로 꼭꼭 불르민 풀이 과작 옷이 반들반들헤지주게.

106030 @ 다듬질 허는 거 대신에?

106030 # 다듬질 안 허영 기냥 반질반질허게 행 물르민 다리웬로 쓱 다리민 싹싹 폐와지민 그냥 입주. 게도이 멧지 옷 고치록 막 입으민 잘도 시끄러웬 원.

106030 @ 빨래는 게민 어떻행 험니까? 비누도 엇곡.

106030 # 에이구 겨난 옛날엔이. 겨난 흰 옷이, 흰 옷 입영 고양 입젠 허민 어디 갈 때나 입영 때가 받은 물어도 그냥 입어. 올 못 빼도록 그냥 입지. 요젠 혼 번 입영 강 오민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안 부떠도 이제 빨아야 입을 거 아니. 게주만은 이 옷이 가물가물허도록 입어 이거. 가물가물허도록 입어, 흰 옷이. 경허민 물에 커이. 물에 경 오래오래 놔두민 물이 혼 이 철엔 물에 경 사흘만 돼민 물이 썩은 물이 북싹허게 올라와. 올라오민 가근에 영 빨민 그 물 북싹한 썩은 물 나올 때 강 빨민 벌써 혼 불 빠지는 거라, 빠져. 경허민 안 골아냐게, 멧지 저 뇌는 거 거시기.

106030 @ 모멸체?

106030 # 모물체 손 거 그걸로 헤근에 그거 카 놔근에 솟디 낱 옷에 낱 숲아. 숲으민 때가 문짝 저, 것도. 경 허멍 입엇주. 어떻 헤근에 비누 엇이 겨난 감옷만 감옷만 행 입는 거라. 거 때 지우지 말젠 그자 버물고 안 버물고 행 입단 보민 감옷이 험어가민 이 무릎에 썩은 때가 늘영 뺨직뺨직허여. 경헤도 물에 적지곡 적지곡 허민 그자 내만 행과지는 거주.

106031 @ 감물은 어떻 들이는 거 마씨?

106031 # 감물 이제 혼 유월들 나민 감 연헌 때 들여사 감물 안 빠져이. 겨문 그 감 뺨아근에 물 짱.

106031 @ 무신거에 빠 뺨아.

106031 # 마께로 막 두드리멍 뺨아는 거.

106031 @ 어디 낱? 도고리에 낱?

106031 # 도고리에 낱 막 뺨아근에.

106031 @ 그 다음

106031 # 경 잘리에 낱 딱 허게 물 짜근에 그 물 옷에 막 낱 놀리는 거라. 놀리

민 그 물 드는 거. 경행 발해사 감물이주. 발허지 안행은 헤영헌 거 물이 아니.

106031 @ 물 들영, 물 헤근에 이디이디 영 어디 빨랫줄에라도.

106031 # 널영.

106031 @ 널어?

106031 # 널영 자꾸 물 적지명 발해사 벌경허주. 경 안 허민 벌경 안 헤여.

106031 @ 그 다음 혼 번 감물헤 나민 그 아무 물이나 물만 적시면 돼어? 감물 또 헤여?

106031 # 무사 감물 또 헤여.

106031 @ 혼 번만 허른 헤여?

106031 # 무사 감물 또 헤여. 혼 번만 헤영 게메 감옷을 막 벗난 때 물 적저근에 짝 폐왕 발레여. 발레강 혼 메틀만 발레가민 감물이 발강게 처음엔 막 고와. 빨강헌 게 고와. 건디 오래 익어가민 뚝 부떠가민 썩어비영이. 게가민 시커명 감옷이. 헐어가민 거멍허곡. 경 허는 거.

106031 @ 저 어디 보면 잔디, 풀밭디 막 천 널어근에 감물 들이는 거.

106031 # 널엇지, 감물 들이는 거. 그거 발레는 거. 벌경게 발라. 막 발강게 바라가민 요색으로 발강게 바라가. 경 현 뎀 처암 헤온 때 무사 감물들인 것도 고와이. 곤디 오래 입어가민 그것이 시커명게 뚝 부떠가고 시커명.

106031 @ 감물 말고 거멍헌 물은 어뎡 들이는 거마씨?

106031 # 거멍헌 물은, 검은 물은 사당 솟디서 옛날에. 요즘은 검은 물 또 나가 아니 헤부난 허주. 우리 두린 때 검은 물 들이는 거 보민 원료가 이서. 저 물장시 왁저, 물장시 왁저 허멍 물레 들이는 사름덜이 ‘물레 들일 거 잇건 들이세요, 들이세요’ 허멍 물장시들이 뎡겨이. 겨민 막 이 몸빼들 행 입젠 허민 검은 물 들이젠 허민 물장시 와 가민 우리 물들이쿠덴 행 막 모집을 헤 오는 거라, 따시. ‘야 검은 물 오늘 들이젠 험저. 니네 물 들일 거 잇건 들이라 들이라’ 영 헤 오민 그 사람이 문 딱 거 원료 놓고 검은 물 놓곡 솟디서 막 숲으멍 물 들여주는 거라. 경행 검은 물 들여근에 검은 몸빼도 행 입곡, 치메도 행 입곡 미녕이난, 경허는 거지. 광목 나건 지도 멧 년 안 뎡고.

106031 @ 그른 거 미녕에 벌경헌 물 뭐 이런 건 어뎡 들이는 거?

106031 # 벌경헌 물도 마찬가지로.

106031 @ 마찬가지로?

106031 # 검은 물 들이는 거나 마찬가지로.

106031 @ 무사 벌경헌 치메에 초록색 저고리 입곡 영 험니께

106031 # 건 멧짓물이 멧지에다가 초록 물도 들여이. 초록 물도 들여도 그 물도 숲아사 돼여. 들이는 사름이 와사 물 색 어느 정도 낡 어느 색으로 헤도라 허민 물 들이는 사름이 색 알아근에 그대로 들여. 그대로 들여줘사주, 우리냥으론 안 들여 받.

106031 @ 우리냥으론 못 허는 거구나예.

106032 @ 신발, 이제 신발. 신발의 종류는 어떤 게 이서마씨?

106032 # 신발 또 무시거.

106032 @ 초신.

106032 # 초신이사 그대도 그냥 초신이주.

106032 @ 초신, 남신.

106032 # 남신도 어디 강 그려놔신게.

106032 @ 초신, 남신 그 다음 가족으로 웬 건?

106032 # 가족으로 웬 신은 우리 그런 건 잘 몰라. 가족신은 잘 몰라. 겐디 남신은 옛날 할망덜 보민 이 남으로 판 거라이. 파근에 아무나 이 남신도 못 신어. 젊은 사름이나베끼.

106032 @ 무사?

106032 # 발이 헉쉴 푸들락허민 발목 거꺼, 이거. 눈 올 때 발목 거꺼. 게난 젊은 사름들이나 이 남신도 신주. 늙은 어른덜은 남신 안 신어. 푸드글락허민 발목 거꺼 건디. 게난 남신 신는 사름 멧 엇어. 이 신은 하영 신어.

106032 @ 초신은 게난.

106032 # 초신은 사름마다 다 신어, 이건.

106035 @ 초신은 어떻게 멘드는 거 마씨?

106035 # 이거. 이것도 굿사도 굴앗주만은 망사리노 허는 거나 이 초신 삼는 노 꼬는 거나 요 깍 내는 거나, 요거 깍이주. 초신깍 요거 허는 거나, 요 놀이나이.

106035 @ 이게 초신깍?

106035 # 이것이 깍 아냐? 베롱베롱헌 요거, 요거.

106035 @ 아 여기가 깍.

106035 # 응.

106035 @ 늘은 어느 거라 늘.

106035 # 늘은 이 소굽에 이거 잇잖아. 요 소굽에 또 요 소굽에 늘이 이서, 이거. 이 안에도 늘 잇고. 이 아래도 늘 잇고 이 소굽에도 이거 늘 이서. 이거.

106035 @ 늘.

106035 # 응 게난 신을 삼으멍 문딱 깍을 요추룩 헤근에 영 과제기 내놓민 요거는 요 구멍으로 따시 고쟁이로 이걸 꿰여, 이 신 깍마다. 썩썩썩 꿰어오랑 지금 요 디완 줄라멧잖아, 이거. 줄라멘 거. 줄라멧 이 저 신골이라고 툽 신본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거 이서.

106035 @ 신골.

106035 # 툽 쫄렁, 툽 쫄렁 독독독 박앙 내놓민 이 신깍이 과짜 사민 그뻬 신이 신기도 좋고 멜라지지 안 허영. 경허는 거 이거. 게난 이걸 뵈으로 허느넨 허민 굿사도 굴앗주마는 산에 가민 미.

106035 @ 미.

106035 # 그거 빠다근에 그거 막 고장괘기 막 고장 괘불민 너무 세어불곡 고장이

메쪽메쪽 나올 때 강 그거 막 빠다근에 집어서 막 물렁 그거 부러지 문 빠비똥 그 거 행 낫당 이걸로 깎 내고, 신 삼곡, 망사리노 행 망사리로 허곡 경 허는 거. 이거 이거. 이것이 쥘 쥘 물에 가도 어느 물에 가도 질기는 거.

106035 @ 미로 현 거?

106035 # 미로 현 거.

106035 @ 미로 현 초신은 이름 다르게 부릅니까?

106035 # 아니야. 그자 초신이라.

106035 @ 그냥 초신.

106035 # 이 미로 해도 요 늘만 미로 간 거주. 요 바닥은 이거 쥘으로 현 거 아냐. 쥘으로.

106035 @ 늘만 미로 현 거?

106035 # 응, 늘만 미로 현 거. 이젠 그자 초신.

106035 @ 초신.

106035 # 그냥 초신.

106036 @ 초신도 종류가 여러 개 이수과?

106036 # 엇어.

106036 @ 깎 내영 허는 초신 잇고 깎 안 내는 초신 잇곡.

106036 # 아니 깎 안 내는 초신이 엇어. 다 깎 내사 이거. 초신이엔 현 거 깎 엇이민 초신 안 돼는 거. 이거 다 깎 내여사.

106036 @ 이것도 막 쥘질게 허는 것도 잇고 그냥 듣성듣성 허는 것도 잇곡.

106036 # 쥘질이 현 건 옛날 어른덜이 이 고무신 안 날 때에 메느리 헤오젠 허민 이것에다가 뭐 물사 들이는데 어떻허는데 막 쥘질게 헤영 곱닥허게 헤영 초신 삼양 아저가. 집어서 신는 건 그자 대충 이녁냥으로덜 행 아저가곡 이 초신 고양허는 사름은 고양 잘헤여. 경허난 새각시 신은 맞춰. 곱닥허게시리 허곡 경 안현 건 집어서 대충 행들 신고. 경 허는 거 이거.

106033 @ 가족신은 이게 가족으로 멘든 신인디.

106033 # 나 가족으로 멘든 신 잘 안 봐판.

106033 @ 안 봐판?

106033 # 잘 안 판. 이거.

106033 @ 그믐 가막창신은 무시거봐?

106033 # 가막창신이엔 현 건 옛날에 우리 오라바니가 장계갈 때 우리 어릴 때 보난 가막창신이엔 현 건 저 그땐 이디서 난 신이 아니라 그때 일본서 난 신인디 우리 아버지가 일본 텅길 때난 그 신을 막 새각시, 그 신 헤가부난 막 소문 나났어. 아무 사름 가막창신 헤왓젠 현 거. 전 님은 거라이 복삭헌 거 전 님은 거.

106033 @ 전이 무신거?

106033 # 전 복삭복산헌 저, 복삭헌 숨 님은 거 잇잖아, 기지에. 그런거 그런 기진데 뚜껌뚜껌헌 거 색 검은 색도 잇고 또 그 무신 색 요런 색이 요런.

106033 @ 보라색.

106033 # 응, 보라색. 그런 걸로 해단에 그런 걸로 해 오난네 신이 잘도 고완게 저 색이 그것이 가막창신이라, 옛날에. 이런 고무신이 아니고.

106033 @ 천으로 헌 거구나예.

106033 # 이 고무신 나온 디 얼마 오래지 안 헐, 이거. 우린 느랑 초신만 신영 살아신디. 이 고무신 나건디가 이 헐방 꺾나가사 고무신이 나온 거야, 이게. 우린 느랑 초신만 신영 살아서. 제국시대 헐쉴 비싸간에 끄끔헐 그 왜정때 헐쉴 꺾나가 난 이 고무신이 나온 거주. 그 전이 우리 고무신 못 신어 받. 어느 하간에 고무신, 우리 일본시대 살명 얼마나 고생허명 살아신디.

### 모자 등

106036 @ 모자는 할머니, 어떤 거 이서마씨? 모자.

106036 # 옛날엔 모저 안 써낫저, 우리. 옛날에 모자가 어디셔?

106036 @ 남자덜.

106036 # 남저 모저도 베랑 엇어. 남저 모저 베랑 엇어근에 기자 모저, 난 모저 쓰는 거 못 봐서. 잇땅 나까오리 저 일본서 잇다근에 어떻 텅기당 주문해 온 사람 덜 나까오리엔 헌 그거 헐나썩 썩 텅것주, 모저.

106038 @ 옛날에 여름에 쓰는 모자 패랭이.

106038 # 패랭이.

106038 @ 여름엔 그자 패랭이.

106038 # 여름엔 죽으나사나 패랭이. 남저 어른덜도 보민 패랭이. 패랭이도 미쳐 그 사지 못허민 우리냥으로 그 밀찍헤근에 짱, 우리 밀찍헐 짜근에 이녁대로 짱 쓰 곡.

106039 @ 겨울에는.

106039 # 겨울엔이 무시거 쓸 거 엇어. 아무것도 우리도. 우리 두린 뎨 뎨대뎨이 겨울에도 살고 헐쉴 역아 가난에 미녕 수건 헤근에 열민 영 헤근에 요디 헐쉴 즐라 메는 거뿐이주.

106039 @ 뭐 털 실로 짜는건 이제사 나중에서 나온 거?

106039 # 아이고 털 실로 짜는 거 요새사 남주, 중간에도 엇어.

106039 @ 가족 같은 걸로 털로 헤근에.

106039 # 가족으로 뭘.

106039 @ 사냥꾼이나 이런 사람덜은.

106039 # 사냥꾼헤도 가족으로 무시거 헌 거, 저 노리 가족 헤근에 영 벧경 마주 접은 거, 영 마주 접으면 이디 귀ㄴ치 영 벌겨지고 요디만 영 마주청.

106039 @ 거 무신거엔 곱아.

106039 # 가족감태. 가족감태 허명

106039 @ 가족감태

106039 # 그 사냥 땡기는 사름들 잇당 그거 행 쓰는 하르방들 잇당 까끔 하나씩 봐. 계난 그거 어떻 만드는 중은 물론디. 영 접아신ㄴ라 영만 접앙 쓴 건ㄴ라 일로도 귀 영 등기곡 영 헤져. 영 쓴 거 보면. 영 헤진 거 써. 그 사냥꾼들 보면.

106042 @ 이딘 안 햇주만은 망건이영 탕건이영 이런 것도 이수게.

106042 # 망건 탕건은 그거는 이제 망건이엔 아녕 탕건입저주. 탕건엔, 망건이엔 말은 엇어.

106042 @ 탕건입제?

106042 # 입저허곡.

106042 @ 입저허곡.

106042 # 탕건이엔 허주, 경 망건이엔 현 건 엇어.

106042 @ 입저 허곡 탕건 허곡예.

106042 # 응 그거라. 입저는 이디 동그락현 거 잇잖여. 영 허곡 탕건이엔 현 건이 소곱에 쓰는 거. 그거 우리 친정에 옛날에 멧 년 전ㄴ장도 그거 써. 절힐 때. 이저 제사때 절힐 때, 그거 써 닳어. 계단 말젠 유건이라고 마주 접은 거 영 유건 하나 썩 절허곡.

106042 @ 이게 탕근?

106042 # 응, 이건 탕근.

106042 @ 이거는?

106042 # 영 동그락현 거 아, 요것이 탕근이고 요것은 입저. 나 안 봐난 거여, 이거. 영 전 돌은 것이.

106042 @ 이렇게 이디만 도령들 무사 영 쓰는 거 이수게.

106042 # 아 그런 건 우리 이디 제주도 안엔 안 봐난. 이것만 봐서, 난 이것만. 이거허곡 전 돌양 큰 거.

106042 @ 아 총모자.

106042 # 그거 두 개만 봐서. 그것만 봤주. 이런 건 안 봐나난 몰라.

106042 @ 계믄 이건 무신 거엔 곱아.

106042 # 입저.

106042 @ 입저?

106042 # 영 동그락현 건 탕건. 입저 탕근만 봤주. 우린 그루후젠 우린 다른 건 안 봐.

106042 @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뵈 거, 패랭이추룩 이렇게 뵈 거 갓?

106042 # 갓 이거.

106042 @ 갓?

106042 # 이거.

106042 @ 건 갓.

106042 # 갓이고.

106042 @ 이것 탕근?

106042 # 요건 탕근이고 입제엔 현 건 영 이추록 전 돋은 거고. 이디선 입저, 입저 헤 나서, 요건 탕근이고.

106042 @ 이런 게 입저?

106042 # 이딘 딱 두 가지만 헤 낫주. 영 여라 가지.

106042 @ 그 다음 유건.

106042 # 유건은 영 마주 접아진 거.

106042 @ 두건추록?

106042 # 응, 두건추록 마주 접아진 거. 유건이엔 해근에 멧 년 전까장 우리 오빠네 산 때는 거 제스 때.

106042 @ 제 지낼 때 하는 거예?

106042 # 응, 거 씨 낫주만은 이젠 것도 어디사 가신디 그런 거 쓰지도 안 허고.

106044 @ 비올 때 입는 거. 비올 때 어디 드르에 췌 보러 가는 사름덜 입는 거 이서낫수게.

106044 # 우장.

106044 @ 우장.

106044 # 저 새로 행 짠 거이.

106044 @ 응 짠 거.

106044 # 그거베핀 이디서 우장베핀 무시거 난 거 엇다. 이전에 난 거는 그거라. 우리 어릴 때 난 건. 그루후제 시국이 바파져 가난 이젠 비웃이여, 뭉여 헛주. 옛날엔.

106044 @ 우장 입을 때 우에 무신 거 씩니까?

106044 # 패랭이.

106044 @ 패랭이 씨? 샷갓 안 쓰고?

106044 # 샷갓 안 쓴다.

106044 @ 패랭이 씨?

106044 # 응, 샷갓이엔 현 거 옛날에 보민 샷갓은 대로 짠 거라이. 대로 짠 거 큰 거 보민 막 잘 사는 사름덜이나 그런 거 허나 여름에도 썩 땡겨주. 소소히 그거 쓴 사름은 베랑 엇어.

106044 @ 정당, 정당벌립?

106044 # 정당벌립이엔 현 거 패랭이. 흐췌 허민 정당벌립, 정당벌립.

106044 @ 그건 밀 낭으로 현 거 아니주예?

106044 # 몰라. 그런 말 들어나긴 들어나도 그런 걸 쓴 건 난 안 봐서.

106044 @ 쓴 건 안 봐판?

106044 # 정당벌립, 정당벌립 해도 우린 그런 거 안 봐난. 쓴 것도 안 보고.

106044 @ 쓴 것도 안 보곡?

106044 # 쓴 것도 안 보고. 만든 것도 안 보고. 정당벌립이엔 헤사 패랭이까지 짠겨주. 무신.



106044 @ 꽤랭이추룩 짠 건디 밀낭으로 현 게 아니고예 어디 산에 잇는 낭으로.  
106044 # 줄로 만든 거.  
106044 @ 줄로 뺏는 걸로  
106044 # 이런 거 우리 그런 건 안 봐난 몰라. 정당벌립, 정당벌립 허어나도.  
106044 @ 계난예

## 7. 식생활

### 밥과 국

107001 @ 식생활, 밥 하고 국 행 먹어난 거 예. 옛날 예, 이제사 말고 옛날 헤난 거라 예. 밥의 종류. 밥은 무신 종류 무신 종류 밥이 이수과?

107001 # 옛날엔 이, 여름 나민 보리밥, 겨울은 나민 그 나 한 번 곶앗지이 영, 조코고리 그 수량수량헌 거 영 나오는 그거. 조코고리이. 그것도 흐린 것가 잇고 모인 것가 이서. 경허난 흐린 좁쌀이엔 허민 밥이 모인 좁쌀만 낱 헤. 겨울엔 그거 여름엔 보리밥. 경허민 부제칩 사람들은 보리밥이나 조팍이나 그리질 안허는디 이 이 녀 토지가, 땅이 엇인 사람들은 밥이 그려. 그리민 톨도 비어다 낱 밥에, 톨밥도 헤 먹곡 썩도 헤다 놔근에 썩에 메밀가루 낱 범벅. 그거. 그거 헤 먹곡. 경해서 봄 나가면. 그거허고 국 끌려 먹나 허는 거는.

107001 @ 그건 흐뎡 잇당. 할무니 아까 밥이 그려 현 말은 무신말?

107001 # 밥이 어렵다. 우리 굶으멍 살았다.

107001 @ 아 그 말이 그린덴 현 말? 밥이 그렵다?

107001 # 응. 밥을 그렵다.

107001 @ 아. 밥이 그렵다?

107001 # 응. 배불게 못 먹으난. 밥을. 그려운 거지.

107001 @ 밥이 그렵덴 허는구나예.

107001 # 녀녀하지 못허난, 밥이 그렵다 허는 거여. 배고프멍 사니까.

107002 @ 계면, 밥 허는 쌀 종류는? 계난 아까 보리쌀 허고

107002 # 좁쌀 허고,

107002 @ 좁쌀 허고,

107002 # 또 제사때 헤 먹는 거 이제 산뿔 쌀 허고.

107002 @ 산뿔 쌀 허고.

107002 # 그계 대중이여.

107002 @ 계민 먼저 보리밥. 보리밥은 어떻헤근에 허는 거 마씨?

107002 # 보리밥은 요번에도 곶앗주만은 이. 보리 비어당 장만헤여근에 뚜드령 장만허잖아.

107002 @ 예.

107002 # 경허민 그거 바삭 물리면 그거 물ㄴ레 잇잖아, 이제 그거 알아질거여. 물ㄴ레이. 그디가근에 그거 물 버물영 곶아. 또시 막 ㄴ레 둥글럼시민 그 혈문데기가 벗어이. 벗으민 그것 또 오랑 물리왕 딱시 두불 가근에 물 버물영 또 두불 곶아사 그 껍데기가 다 벗어이. 게민 바삭 물리민, 그거 알건디. 영 정ㄴ레엔 현 거. 영 들르는 거.

107002 @ 겐디 밥은 허젠허민 어떻허여?

107002 # 또 벌러근에, 또 시쳐. 시저근에 밥 헤영 부꺼가민 바삭 부끄민. 보리체가 박삭 나와. 경해도 그걸 밥 허민 먹어. 그자 경행 밥헤 놓민 보리쌀 수정 세져. 밥이 이. 요새 쓸ㄴ치 부뜨질 안허여. 지만씩 둥글어.

107003 @ 예. 보리밥은 허젠허민 물 하영 들어?

107003 # 응. 물 하영 들어. 물 하영 들어근에 체암이 솟디 낱 바글바글 퀘여근에 솟뚜께 폭 더경 흔참 낱 흔 10분 20분 놔둬사, 흐쌀 물이 들어강 밥이 복삭헤여이. 게민 따시 알로 불 습아근에 이제. 그걸 빨라 물기 잇이 빨라. 옛날 무췌솟이난. 저런 솟이 아니고.

107003 @ 예.

107003 # 옛날 무췌 솟 이 저, 거시기 보민 그 테레비 보민 가마솟 잇잖아. 그런 솟디난.

107003 @ 예.

107003 # 밥 박삭 부끄민 불 탁 꺼근에 솟뚜께 폭 더경 오래오래 놔두면. 쓸에 물이 들영 다 피어나이. 게민 또 알로 불 습아근에 과랑과랑 슬양 오래오래 놔두민 밥이 더운 짐으로 밥이 폭 허게 톨 자민. 밥이 복삭 허는 거라. 흐쌀. 괄괄허지 안행. 물기가 다 빨아먹영. 요새 쓸 밥은 바글바글 퀘민 톨 허게 압력솟 잇주만은. 불 탁 경 고만히 낫당. 시민 밥이 푸들푸들 뉘주만은 옛날엔 그거 아니. 가마솟디 밥헤 놓민, 바글바글 퀘민 불 경 한참 낫다근에, 흔 20분 낫다근에. 딱 불 습양, 거시 빨르는 거라. 밥을. 빨른다는 것은 물기 잇이 브뜨는 거라. 물을 브따부는 거라. 밥이 흐쌀 복삭하민 퍼냥 먹는 거.

107004 @ 음. 예. 게민 반지기 밥이엔 현 것은 무신거 마씨?

107004 # 반지기는 보리쌀에 곤쌀 서끄는 거. 건 손님이나 온 때쯤. 대접하젠 하민 멘 보리밥만 허민 괄괄하잖아. 게실게실현 게. 경허민 그 쌀을 서끄민. 밥이 푸들푸들 허주. 게민 손님은 때. 그거, 그거 반지기.

107004 @ 반지기가이.

107004 # 응. 보리쌀에 곤쌀 서끈 거. 반지기.

107004 @ 반씩 서끈 거 아니면 곤쌀 흐뵂만 놔도 반지기?

107004 # 응. 반지기.

107004 @ 반반 안헤도?

107004 # 응. 반반 아니헤도. 그거헤도. 육지 사름들은 저추록 가마솟디 옛날 보

리밥 허민 식식식식 허멍 막 밥 남죽으로 짓어. 이레 영 데싸냥 식식. 또 요레 데싸냥 식식 허멍. 경허민 밥이 풀나이. 육지 사름들이. 게민 밥이 푸들푸들하게 행 먹는다.

107004 @ 아, 보리밥이라도?

107004 # 응 보리밥이라도. 막 영 헤영 데겨.

107004 @ 아 데겨.

107004 # 응. 남죽 요만헌 너븐 남죽으로. 이리 영 데싸냥 식식식식 허멍 막 우리도 웃어. 밥을 저렇게 안 데기면 못 먹느냐 허난 보리밥은 케실케실하지. 풀 안 부떠가지고, 케실케실허니까. 그 풀 나게 막 데긴 물에 육지 사름덜은. 식식허멍.

107004 @ 흐흐흐흐. 아.

107004 # 막 데겨. 경허민 밥이 풀 냥 푸들푸들 허주게. 경허민 요새난 거주. 육지 사름들도 장남밥이라고이 농촌의 사름들 밥 먹는 건이, 사발이 이만큼 움푹 커.

107004 @ 예.

107004 # 경 허민 그 보리밥을 무룩하게 거러. 경해도 남저들 그 노동일 헤 나민 배고파. 그거 먹어도. 이 보리밥은 기운이 엇어. 먹으면 금방 풀어져비어. 경허는 거라. 이젠 우리도이 이젠 쌀만 냥 밥 헤 먹잖아. 게민 옛날엔 공기로 하나 수북 먹주만은. 반 공기 먹어 이제. 반 공기 먹어도 배가 붕긋허곡. 배고파 뷔질 안 허여. 이 쓸은 진기가 있어. 기운이 엇어 밥에. 옛날엔 케실케실허난 그냥 밥 먹으면 지르룩 지르룩 경헛주.

107004 @ 예.

107005 @ 그민 흰밥은. 곤밥 예, 곤밥은 언제 먹는 거?

107005 # 옛날은 곤밥, 곤밥 허멍 울지 말라. 곤밥 행 널 모리 저녁은 제스 돌아와가든 우리 곤밥 행 먹을 거 아니냐. 제스 때나, 멩질 때나 그거. 경허다근에 마지 못허영 웨방 손님 온 때나. 그런 댐이 헐 수 엇이 그 쓸 낫다근에 멘 보리밥은 허른 잘잘잘잘 허잖아.

107005 @ 예.

107005 # 게민 그거 서꺼근에 그거 손님 대접허는 거라. 옛날엔. 잘 알아 들엄서.

107005 @ 예. 곤밥은 게난 이딘 나룩 쓸 엇이난, 산뒤 쓸로 하는 거지예.

107005 # 응. 산뒤 쓸 헤영, 산뒤 쓸 헤 놓으면 겹데기만 까민 벌경허여. 이 산뒤 쓸이 불근 겹데기가 이성, 그걸 베끼젠 허민 세불 네불을 곱아사 그거 불근 겹데기 베껴. 막 흰 쓸 내어먹기가 힘들어 그계. 경허난.

107005 @ 밥 허는 건 똑ㄹ타? 보리밥이영?

107005 # 응. 꼭 ㄹ트는다. 지금 쓸만이 진디는 엇어. 지금 쓸은 밥허민 포들포들 허는다. 포들포들헌 기운은 엇어.

107005 @ 아, 산뒤 쓸이?

107005 # 케수룩헌 게 밥이 게식허여.

107006 @ 조팝은?

107006 # 조팍은 뭐 진기 엇이 케삭허고. 케실케실허여. 경 해도 케실케실허민  
고구마 잇잖아이.

107006 @ 예. 감저.

107006 # 응. 그거 놔근에 밥 허영 탁탁 밥 자로 영 풀르민 그것이 밥이 흐솔 포  
돌포돌 허여. 고구마 낱 탁탁 풀르민.

107006 @ 어떻 불르는 거짱? 그거는.

107006 # 감저 우리 탁탁 감자 병텅일 풀르는 거. 탁탁 허게시리 수꼬락으로 영  
영 젓어가민.

107006 @ 음.

107006 # 경 허민 풀어져. 경허민 그 쓸에 서꺼지민 그 땀 밥이 흐솔 포돌포돌  
허여. 고구마 낱 헤 놓으민.

107006 @ 아, 응. 게난 보리쓸 엇일 땀?

107006 # 줍쓸만.

107006 @ 줍쓸만 행 조팍. 예.

107006 # 여름엔 보리밥만.

107006 @ 여름엔 보리밥만 예.

107006 # 응.

107007 @ 풋도 놔근에 밥 허지예.

107007 # 아, 풋게.

107007 @ 어떻할 때 풋 낱 밥 험니까?

107007 # 풋 낱 할 때 우리 일 허젠 허면, 풋에 보리쓸에 낱 솥양 놔다근에, 산  
뒤 쓸 그걸 조금 서꺼. 놉들 빌영 일 허젠 허면. 우리 먹는 거는 보리밥 케실케실헌  
거 먹주만은. 놉들은 빌영 일허젠 허민 그 밥을 못 내노난 그 풋에 보리쓸에 솥양  
다근에, 그 산뒤 쓸 그거 곤쓸 곤쓸 허멍 그걸 조금 서꺼.

107007 @ 음.

107007 # 게민 밥에 진기가 이서. 포돌포돌헌 게. 게민 놉 빌영 일 험 때. 경 아  
녀민 큰 일 잔치 때. 그런 때. 그런 때 서꺼 먹는 거, 풋은.

107008 @ 피밥은? 피쓸로도 밥 행 먹어?

107008 # 응 피 쓸도 허민 똑 줍쓸 닦아이. 밥 맛은 복삭헌 게 밥 맛은 잇어 그  
것이. 쓸 내 먹기가 힘들어. 그거.

107008 @ 산뒤보다 더 힘들어?

107008 # 힘들어. 다섯 불이나 썰서사 그게 쓸이 나와. 다섯 불이나 곱아야.

107008 @ 음.

107008 # 젠디 메밀 쓸에 서꺼 밥 허민 그건 진짜 맛이 이서 그거는.

107008 @ 이건 메밀 쓸허고 서꺼근에 밥 허는 거?

107008 # 폭삭 하면서도 초근초근초근 밥을 기자. 배 엇영 못 먹어. 이건 배불러  
도 막 먹고 싶은 거라. 밥 맛이 이서.

107009 @ 아, 기마씨. 감저밥.

107009 # 감저밥이엔 현 건. 우리 그자 좁쌀에 감저 낱 허민 그거 감저밥이라 허는 거주, 또로 무신 감저밥이 또로 엇어. 좁쌀에 그자 고구마 그거 썰어 놓으민 감저밥 감저밥 허는 거.

107010 @ 무도 밥에 낱 먹어났수과? 늬빠?

107010 # 몰라. 무는 우린 그런 거는. 밥에 안 놔.

107010 @ 안 먹어난 예.

107011 @ 톨은?

107011 # 톨은 밥을 행 먹어.

107011 @ 건 어떻 허는 거짜?

107011 # 톨 지금도 현번데 보난 토수토수 육지 사름은 토수엔 곶아. 우리는 톨이엔 곶아도이, 요번에도 테레비에 나오는 거 보난 토수밥 맛있어요 허멍 현디, 쌀에 서꺼근에 고치 낱 밥허여.

107011 @ 아 처음부터?

107011 # 응, 즈질게 썰어근에 쌀에 현디 낱 밥 해근에, 밥 틈 자민 삭삭 서꺼근에 육지 사름들은 고치장 낱 밥 박박 비벼 먹잖아. 그거라.

107011 @ 옛날은 어떻 해 낱수과 게문?

107011 # 옛날 이디서는 이디서도 비벼먹는 사름은 밥 비벼먹어, 웬장 낱. 고추장이 어디 고치장이 이서? 웬장 낱 그자 비벼먹엇지. 거 비벼먹는 거. 또 경 안허민 그냥 베고프난 혈 수 엇이 톨에 요샌 헤영현 저 나룩 쌀 낱 해 먹주만은 옛날엔 좁쌀에 그 톨 낱 밥 허민 사락사락헤여이. 경해도 죽지 말젠 그거 먹는 거 옛날엔. 배고광 죽지말젠.

107011 @ 톨은 무사 놓는 거?

107011 # 톨? 굶어가난 그걸 밥 대신 먹는 거. 굶영 죽지 말젠.

107011 @ 거난 밥에, 밥 양을 늘릴려고?

107011 # 응, 늘릴려고. 밥을 쌀이 쌀만 좁쌀이고 보리쌀이고 현디 낱 먹을 거민 현디 낱 밥을 허면 다섯 식구가 밥을 다섯 사발을 거려야 될 건디, 현 공기 넣으면 밥 다섯사발이 아니면 톨 서끄민 밥이 하거든. 여러 사름 먹젠 허는 거, 배불게 먹젠.

107011 @ 게난, 톨은 원래 톨밥은 좁쌀이영 서끄는 거? 보리쌀이영 서끄는 거 아니고?

107011 # 보리쌀로도 서경 먹고, 좁쌀로도 서끄는 거 경 허는 거.

107011 @ 아.

107011 # 옛날 그 굶을 때야.

107012 @ 거난 예, 패밥은 무신거짜? 패.

107012 # 패는 밥 안행 먹어반.

107012 @ 아, 패는 안해반? 음.

107012 # 패는 우리가 못 숯아먹을 때,

107012 @ 예, 그 못 숯아 먹을 때.

107012 # 못 숯아 먹을 때 그 못에 놓으면 못이 체암 숯앙 물 바싹 부글 때는 막 독행 야가지 아팜 못 먹어이. 게민 초벌 물 막 부파. 알로 불 막 떼영 물 그 숯은 거는 물 막 부파비동 그 물 뜰라동 또시 새 물랑 또 숯아. 세 번차 물 곶아 나아 제 맛이 그때사 나오랑 먹는 거. 그거 그 독헌 물 제허렌 그거 놓는 거.

107012 @ 거난 못을 경 오래 숯아야 돼는 거?

107012 # 못은 못을 세 번을 곶아나야 돼어.

107012 @ 아 세 번을, 경행 이거 세 번 숯아낱 패 낱 숯앙 ㄴ치 밥 행 먹는 거?

107012 # 밥 행 먹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저 보릿개역 해근에 그냥 영 무쳐 먹는 거.

107012 @ 아, 이거 그믐 아까 못 세 번 숯앙, 그 다음에 패 놓곡.

107012 # 패 놓곡 행 숯앙, 패는 패대로 그냥 먹는다, 그 못만 이제 보릿개역에 막 버물영 먹는 거.

107012 @ 아, 패는 ㄴ치 먹는 거 아니고?

107012 # 아니.

107012 @ 그럼 패 따로?

107012 # 응, 팬 그 못에 낱 못 물 들민 그뎨 세 번 차 곶민 패가 막 맛있어. 들 현 게.

107012 @ 못이영 ㄴ치 숯아야 맛있어?

107012 # 응, 경 해사 복삭헌 게 맛있주. 그냥 숯은 건 맛도 엇고, 먹지도 못허곡 게.

107012 @ 그럼 경 해낱 패는 패만 또로 먹곡, 못은 보릿개역 서경 먹고.

107012 # 그거 옛날 아무것도 엇인 때. 어려운 때. 죽지 말젠 그거 먹은 거. 거 죽지 말젠.

107012 @ 게난 예.

107012 # 게난 우리 부모들 자식들 나근에 굶지지 말젠 그거 헨 맥이는 거, 아기 들 죽이진 말젠,

107012 @ 음, 예

107012 # 굶영 죽엿젠 말 듣지 말젠. 그거 맥인 거.

107013 @ 이번엔 국 헐건디예, 국은 무신 국 무신국 옛날에 이서나수과?

107013 # 옛날엔 그저. 무수 철나민 무수국, 배추 철이민 배추국. 배추도 숯앙 끌 리지 야녕 그자 웬장 낱 물 팔팔 끌려가민 배추 시청, 박박 무지려 낱 그냥 끌렁 먹어. 그냥. 육지 사름들은 숯앙 또 웬장 놓고 막 문데경 국 끌리잖아. 경 안허여. 그자 웬장낱 바라하게 웨민 ㄴ물 박박 영 무질여 낱 ㄴ물 익으면 그거 거려 낱 먹 어.

107014 @ 그게 ㄴ물국 예.

107014 # 그게 녹물국이야.

107014 @ 웬장은 찬물에 처음부터 풀영 예?

107014 # 응, 풀어 놓곡. 그게 녹물국이라 그게 녹물국.

107015 @ 콩녹물로도 국 끌렁 먹어 낫수과?

107015 # 콩녹물도 그저 콩녹물국, 콩녹물국 허멍 그건 웬장 안 낱 그자 간장 ㄱ  
튼 거 그자 놔근에 끌리당, 그 콩녹물도 콩녹물국이 베랑 끌려 먹지 아녀. 그자 숲  
아근에 무청 그자 승기로 그냥 접아먹으면 접아먹주 국 끌렁은 베랑 안 먹어봐서.  
이디서.

107015 @ 콩녹물은 콩녹물이엔 곱아? 옛날엔 무신거엔 곱아 낫어?

107015 # 콩지름.

107015 @ 콩지름 예, 응.

107015 # 제삿 때 돌아 아이고 콩지름 놔사 먹겄. 경허여. 콩녹물 나사 한 말은  
이건 중간으로 난 말. 그 전인 콩지름.

107015 @ 이제사 난 말 예.

107015 # 아이구 아무 때 제사해 먹젠 허민 이제 며틀 남으난 콩지름 놔사 그때  
에 키와 먹을 걸 경 허주. 게민 고사리의 그것에 채소 행 먹는 거. 제삿 때 이 방상  
들 오민 그자. 채소 그거.

107017 @ 게민 이제 콩국, 콩국은 어떻게 끌립니까? 나 그거 못 끌렁 맨날 갈갈  
햐서.

107017 # 콩국은 이, 콩ㄱ루 물에 카.

107017 @ 콩ㄱ를 물에 카?

107017 # 언 물에 카근에, 물 팔팔 끌릴 때 소로록 허게 비와이. 비왕 확확 젓어  
불민 콩국 안땀어. 파르륵 헤여 비어.

107017 @ 응.

107017 # 게민, 불 늦인 불 놔근에 그 우트레 이제 소금 솔솔 쪼끔쪼끔 뿌리멍  
간 맛취가멍 부그락하게 퀘듯 젓질 말아. 젓지 말앙 부끔직 허건 불 흐쉴 늦추아  
불곡, 경행 옷 싹허게 퀘 거들라근에, 폭 솟뚜게 더경 놔두면, 낫다근에 쪼끔 잇당  
툼 자건 그때 영 젓으면 콩국이 투박투박투박 헤여이 그땐. 두부국 닳아. 두부 놓앙  
끌린 거 닳아.

107017 @ 응.

107017 # 그추룩 허주 콩 곱낱, 물 쾡 막 영 젓어불민

107017 @ 맛엇어. 비려.

107017 # 응. 그자 파르륵 헤여.

107017 @ 거기 무시거 안놔? 늠빼나 무수나?

107017 # 아, 무순 놔.

107017 @ 아 무수나 녹물.

107017 # 배추 놔도 좋코, 무수 놔도 좋코여 이건.

107017 @ 그거 언제 봐? 누물이나 그건.

107017 # 누물 먼저 봐냥, 그 우트레 비와 놔근에 혼 번 처암이 놀 때랑 휘허게 혼 번 젓어. 젓어냥, ㄱ만히 놓으민 콩이영 북삭하게 올라와이.

107017 @ 응.

107017 # 올라오는 거 자꾸 젓어불민 가르륵 혜근에 영 콩국 닥지 안허여. 기사 우트레 저 간장이든 계난 아씩 ㄱ 맞칭 이 물을 ㄱ 맞추지 말앗당,

107017 @ 예.

107017 # 그 콩국 비와는 후제랑 간장이든 소금이나 북삭하게 부껴붙어 가건 간장이든도 수꼬락으로 영 걸으멍 솔솔 우트레 쪼끔 그 ㄱ에 맞을 만이만 헛다근에 경 헛다근에, 솟뚜게 폭 더경 흐쓸 잇다근에 솟뚜게 열어동 영 젓으민 투북투북투북 허여. 그땐 두부국 닥아.

107017 @ 예,

107017 # 경허는 거지이, 이거 비와냥 창 젓으카부텐. 이디 사름들도 요새 옛날 어른들도 헐 줄 몰르켜 허멍 막 젓어불민 가르륵허여. 그럼 콩국 닥질 안허여. 계난.

107017 @ 맞아.

107017 # 것도 영 젓어불민 갈갈허여.

107017 @ 그럼 한 번도 젓지 말아야 허여?

107017 # 젓지 말앙 그자 북삭하게 올라오랑 부글부글 그 퀘어가민 알로 물 퀘어가민 북삭하게 올라와이.

107017 @ 예.

107017 # 계난 그거 부끄지 못하게, 이놈으 거 쫄물은 가민 와씩 부끄지 안허메.

107017 @ 아.

107017 # 계난 간장이든 소금이든 그자 우트레 쪼끔쪼끔 뿌리멍 알로 늦은 불로 쪼끔 솟다근에, ㄱ 맞을만이 간장이든 소금이든 놔지건 불 톱 꺼뒤근에 폭 뚜게 더경 낫당 흐쓸 잇당 영 젓으민 그 때 투박투박허여 그때.

107018 @ 호박입국?

107018 # 호박입국은 연헌 호박입혜영 박박 밀어불민 풀내 나이. 호박입도.

107018 @ 아, 그른 어떻게?

107018 # 어떤 사름은 퍼렁헌 물 놔비사 좋녕 허멍 막 밀어불민 풀내가 나. 맛이 엇어. 계난 쪼끔 밀어근에 그자 그디 구진 거 밀어질 정도 할할 행구멍 혜동, 그거 줍질이 썰영, 이건 그자 물 팔팔 끌렁 톱 허게 놓으민 얼마 엇영 먹어져. 계민 팔팔 끌려근영에 헤 가건 무신 밀가루든 뭐든 쪼끔 물 카.

107018 @ 예.

107018 # 이건 물 카근에 소로록 허게 비왕 확확 젓으민 돼어 이건. 경 행 호박입국 끌려 먹는 거.

107018 @ 이건 무신 뭐 멜치나 메리치나 이런 거 안봐?



107018 # 메리치도 농곡, 메리치 다시다라도 시민 농곡. 이건 아무거라도. 아무거라도 봐.

107018 @ 그 호박입 그 막 예, 그 가지 줌진 가지들 막 듣아십니까?

107018 # 줌진 가지 돌아도 호박입에 거는 베끼지 못하곡. 호박입 텡가리이. 텡가리 혼 번에 꺼끄질 말앙, 을로 영 꺼경 영 잡아텡기민 요 호박입 이파리에도 요런 것이 이서이. 그것에서 딱 베껴지멍 나와. 게민 호박 요 남댕이를 세 번,,네 번에 갈랑 또 꺼경 영 잡아도 또 꺼경 영 잡아도 흐끔 이디가 그럼 즐거리 다 나와, 그거. 즐거리 나와비어.

107018 @ 응.

107018 # 그 가지 돌은 거 나와비어.

107018 @ 응.

107018 # 경 허민 그거 끌려 먹는 거. 호박입은 아무라도 끌려 먹는 거라. 요새 나는 호박입.

107019 @ 몸국은?

107019 # 몸국은 이. 이젠 이 바당에 우리 옛날에 막 이디도 몸을 경 나나신디. 몸이 흐나도 엇어.

107019 @ 음.

107019 # 몸국이, 웨야지 옛날엔 이 잔칫 때나 대소상 때나, 웨야지 잡앙 숲잖아.

107019 @ 예.

107019 # 숲아난 물에 무수 이파리.

107019 @ 예, 춤늬물?

107019 # 응. 무수 이파리 허곡 그거 반반 허곡, 무수 이파리에 그거에 반반 서경, 그 웨야지 숲아난 국물에 낱 툅 허게 끌리곡. 그루 모플꺾루든 밀꺾루든 쯤끔낱 풀풀허게 끌리민 경 맛있어. 이제도 몸국 끌렁 풀더라고 시에 가민.

107019 @ 예, 이제 몸국할 때 몸허고, 아까 늬뻬 늬물?

107019 # 늬뻬도 농곡.

107019 @ 늬뻬도 농고?

107019 # 늬뻬를 놓으나, 무수 그 등체기 춤나물. 잇잖아. 춤나물 이파리.

107019 @ 예, 이파리.

107019 # 그것에 몸에 서꺼근앵에.

107019 @ 아, 몸에 서경?

107019 # 응, 서경. 경 허민 더 맛있어. 그냥 몸만 놓은 거 보담.

107019 @ 음.

107019 # 그거 줌 서꺼사. 서꺼사 맞이나.

107019 @ 아.

107019 # 영 보난 이, 몸국, 몸국 허멍 저 웨야지 고기 쯤끔 썰어농곡 끌려신디 그것이 그 무수이파리가 들어가야 맛이 잇는다. 낸차 헤 놓으난 혼엇이 등거운 맛

엇어. 나도 사 먹어 봐서. 사 먹어 봐서. 제주시 간 때도. 겐디 아이고 이거 무수 이  
파리 헤근에 숲앗당, 요것에 쪼끔쪼끔 서꺼시민 맛이 더 날건디 경 해도. 그 사름들  
그거 어디 가근에 그 무수이파리 허당 숲으멍 경.

107019 @ 몸보다 싸주 마씨. 아닌가? 요즘 몸이 워낙 비싼난?

107019 # 그것도 해당 풀민. 저 혼번 우리 옛날에 무수허러 갈 때예, 무수 간디  
이 조끔 시민 막 겨울 들어가민 무수들 매잖아. 정월 2월에 강. 막 간 무수 영 허멍  
보난 무수 이파리 좃으레 온 사람이 이서, 마다리 아지곡. 뭐 혈 거엔 허난에. 이거  
시레기 국 끌릴 거.

107019 @ 아.

107019 # 게난 나 생각으로 아이고 저걸 저거 문 베랭이 일곡 현디 저 시레길 헤  
당 누가 다 먹을 건가. 난 시레기 국 먹으레 아이 가켜. 그거 그 버랭이 문 먹어난  
거 버랭이 무수 매멍 보난 버랭이도 다 이신디. 거 영 베리당 보멍 버랭이도 탁탁  
털어볼곡 뭐 허주만은. 그자 보난 마다리레 그자 막 좃으멍 담야. 담양 그것 강 숲  
양 시레기국 허긴 허는디. 예 난 그거보난 시레기국 먹으레 아이 가켜.

107019 @ 거난, 자기 먹젠 하는게 아니곡, 풀 쟈 허는 거라 예.

107019 # 풀젠허난 그거 시레길 막 마다리 아전오란 무수 헤나난 그 무수 다듬아  
난 조름에 막 마다리 차 담으멍 막 시꺼 가는 거라.

107019 @ 식당에 풀젠 예.

107019 # 응 풀젠. 경허난, 이 육지 사름덜 이제 시레기 행 영 허는 건 이디 다  
들아 매잖아이. 들아땡 돌르는디 보민 그거 문 약허곡, 시레기 보민 시레기 느물 또  
로 가는 거지. 건디 그건 말짱하게 고와이.

107019 @ 아.

107019 # 우리 이 저 무수 겨울무수 매어낱 강 담아오는 건 곱지 안허여. 곱지  
안허여.

107020 @ 생선, 바당에서 나는 생선으로도 국 끌립니께. 예?

107020 # 오토미국이엔 헤근에.

107020 @ 오토미국.

107020 # 건, 돛국, 돛국 허멍,

107020 @ 무신국?

107020 # 돛국, 돛국 허멍, 돛국이엔도 곤고, 솔라니국이엔도 곱야.

107020 @ 이디서는 솔라니엔도 허곡, 옥돛이엔도 허여?

107020 # 옥돛이엔도 허곡, 솔라니엔도 허곡.

107020 @ 음.

107020 # 옥돛말은 이제사 난 말. 옛날엔 기자 생성.

107020 @ 그다음?

107020 # 솔레기, 그자 솔레기.

107020 @ 아. 그제 옛날 말?

107020 # 옥돔이엔 안허곡, 옛날엔 솔레기, 생성. 그자 그거. 요 남원이, 그 우리 한마을 앞이 그디 국 끌리는데 그 솔레기 딱 그려전 잇잖아. 그리 안 봐신가? 봐실 건디 그디.

107020 @ 그디, 그려져수과?

107020 # 응 그려져서, 식당 앞이. 이젠 옥돔, 옥돔 허여, 옥돔국.

107020 @ 솔레기국 끌리젠 허민, 어떻게 끌리는 거파?

107020 # 것도, 그자 그건 무술 무수 쪼끔 농곡, 요즘은 이 식당엔 몰라. 두부 들어 감신가?

107020 @ 옛날 해난 거?

107020 # 옛날엔 그자 무수만 냐.

107020 @ 먼저 솔레기 낱 끌려?

107020 # 끌리다근에, 무수 농곡, 흐쨌 오래 끌려사 고깃맛이 우려난텐.

107020 @ 응. 그면 솔레기낱, 흐끔 오래 끌리당,

107020 # 응. 무수낱,

107020 @ 무수낱, 그다음 간 헤?

107020 # 응.

107020 @ 소금간 험니까? 간장?

107020 # 간장.

107020 @ 간장으로 간 허여?

107020 # 옛날 간장은 우리 집에서 현 간장은, 그거 농면은 지금 옥돔국에 끌리민 맛이 잇는데, 요새 푸는 간장은 농민 맛 엇어. 맛이 엇어. 영 행 먹어보민.

107020 @ 거멍해 불크라. 예.

107020 # 우리 집에서 이녀냥으로 콩 삶양 당근 장 간장 빼넨 것은 코시릉헌 맛이 잇는데, 이게 푸는 간장 낱은 맛이 엇어. 차라리 소금 낱 끌린 것만이 맛 없더라고.

107020 @ 그 바닷고기는 무신거? 다 통틀어근에 바릇케기엔 곱아?

107020 # 응, 바닷에서 나는 거 아이고 바릇케기 한 말론 곤젠허민 바릇케기 영 허주만은 고기 일름도 막 하부난 몰라.

107020 @ 국 끌리는 케기는 이거 솔라니 말고는, 솔레기 말고 또 어떤 걸로 국 끌립니까?

107020 # 솔라니 말고 우리 끌여 먹젠 허민 갈치도 사당 갈치국도 끌려 먹고,

107020 @ 예.

107020 # 또 어랭이도 사당 끌려 먹곡.

107020 @ 어랭이국 끌려 먹고.

107020 # 또, 고등에도 사당 즐영도 먹는 사름. 고등에 국 아이 끌려.

107020 @ 대부분 국 안 끌려예

107020 # 대부분 즐임으로 헤 먹주.

107020 @ 국 끌리는 거?  
 107020 # 국 끌리는 거, 갈치.  
 107020 @ 갈치.  
 107020 # 어랭이,  
 107020 @ 어랭이.  
 107020 # 우럭,  
 107020 @ 우럭.  
 107020 # 기자 저 솔라니,  
 107020 @ 솔라니.  
 107020 # 또 그런 것 말아도 고기 일름이 조기도 있고, 뭐 막 여라 가지.  
 107020 @ 조기도 국 끌렁 먹어?  
 107020 # 어, 고기도 국 끌렁 먹어.  
 107020 @ 아, 조기도 국 끌렁 먹어 마씨?  
 107020 # 응 계난, 그런거 다 국 끌렁 먹주만은, 뭐 이 고등엔 국 끌리난 맛 엇어. 줄영 베끼.  
 107020 @ 아까 솔레기, 솔라니?  
 107020 # 솔레기엔 곧고 말도 다 틀려.  
 107020 @ 아, 이디서이디서.  
 107020 # 이디서는 솔레기엔 곧는디이,  
 107020 @ 이디서는 솔레기 예.  
 107020 # 저 서르렌 가민 솔라니,  
 107020 @ 예. 계난.  
 107020 # 말이 두가지라. 옥돔이영 곧고.  
 107020 @ 이디서 옛날에 곱아난 말은 솔레기?  
 107020 # 솔레기, 생성.  
 107020 @ 생성. ㄱ튼 말예?  
 107020 # 응, ㄱ튼 거라도 생성이엔 곧고, 솔레기엔 곧고.  
 107020 @ 똑 ㄱ튼 말인디이.  
 107020 # 켄디 이젠 생성이엔 안허여 옥돔.  
 107020 @ 이젯말은 나도 알곡, 옛날 말 몰르는 거.  
 107020 # 이젯말은 옥돔이라. 옛날말은 솔레기, 생성.  
 107021 @ 메역으로도 메역 낱 국 끌입니께?  
 107021 # 메역도 이것에 낱 국 끌려.  
 107021 @ 아, 이디 이 저 솔레기 국에, 메역도 놔?  
 107021 # 응. 메역 놓으민 더 맛이 잇어. 무수 논 것 보다.  
 107021 @ 무, 늬뻬 논 것 보다?  
 107021 # 응, 맛이 더 나.

107021 @ 메역논 게?

107021 # 메역 참기름에나 쪼끔 낱 흥쓸 뽀끄다근에, 솔레기국에 놓으면은 맛이 더 나.

107021 @ 아, 따로 보까?

107021 # 따로 보까.

107021 @ 따로 보까서 거기 끝인 디다가 봐?

107021 # 옛날은 기냥 담아낱 끌려 먹었주 만은. 맛있게 끌렁 먹젠 허민 그추룩 해.

107022 @ 아.

107022 # 옛날은 그냥 메역 특하게 그냥 빨앙 그냥 봐. 경 행 낱 끌려 먹어난 거.

107021 @ 옛날 해난 거 옛날. 할무니 이제 해난 거 말곡.

107021 # 옛날 해난 거.

107022 @ 이번엔 냉국.

107022 # 냉국, 그 메역 빨앙 냉국 허는 거.

107022 @ 옛날에 메역 아니고, 저 녹물도 해근에 놓곡 허지 안허여? 밧디 일허러 가곡 헐 때.

107022 # 그건 녹물 솥앙 냉국 허는 거.

107022 @ 응, 그건 어떻게 허는 거짜?

107022 # 거 녹물 솥앙 접질앙 강 언 물에 봐 근에 웬장 카 놓고 그자 밧디 가민 뒤 가져가. 요즘은 하간거 이거저거지, 옛날엔 그자 웬장에 강 언 물에 녹물 솥앙 가정 강 썰영 가정 강 그거 낱 툽툽 젓영 그것이 국이지. 냉국이 그거라.

107022 @ 음, 냉국이. 이젠 막 오이도 썰어 놓곡 물웨도 썰어놓곡,

107022 # 막 오이도 썰어 놓고 물웨도 썰어 놓곡 대과, 양과 문 썰어낱 곳곳이 꼬치도 썰어 놓고 헛주만은 옛날엔 그런 거 옛이난. 그자 녹물 솥앙 썰영 갖다근에 요샌 게도 냉장고 산도룩헌 물이나 잊지, 물 파싹파싹 때분 물 그거 낱 웬장 풀어 낱 그자 국허민 그거 냉국으로 먹었지. 옛날에.

107022 @ 녹물 데운 걸 더 하영 놔수과 아니면, 저 물웨를 썰영 논 게 더 하영 먹어나수과? 냉국은.

107022 # 옛날엔 여름엔, 저 물웁 하영 먹었지.

107022 @ 물웨를.

107022 # 응. 물웨 낱 풀아이.

107022 @ 예.

107022 # 막 풀민 옛날엔 돈, 돈이 어려운 때난. 보리 혼 뉘.

107022 @ 예.

107022 # 보리 혼 뉘 아정 가민 물웨 요만헌 헐 거 두 개.

107022 @ 물웨를?

107022 # 응, 물웨를 두 개 아정 상 와. 보리 혼 웨 아정강.

107022 @ 예.

107022 # 이 웨 낱, 밧디서 풀아이. 옛날에 물웨 막 낱 풀앙 허민. 웨 사레 와수 다 헤여근에, 돈 엇인 때난 보릴 혼 웨 앗앙 가민 똑 요만헌 웨, 물웨 두 개베끼 안 쥐.

107022 @ 음.

107022 # 그걸로 승키 현 거. 그걸로 흐뎡 썰어 놔근에 웬장 헤 낱 우리 그튼 건. 그거 놔낱거 웨 나나민 몸만 곱아난 물만 먹엇주,

107022 @ 하하하하, 아니 무사 이디 우영에라도 웨 갈주게, 물웨.

107022 # 아이그. 옛날엔 우영에 갈아봣자, 웨지도 안허곡. 어리석음으로이 우리 집이 아들이 혼번은 어머니. 우린 밧이 엇이난 물웨 싱거 먹을 디가 엇어. 게난 이 낱밧 나가난 이녁대로 오이도 싱그멍 실피 먹엇어이.

107022 @ 응.

107022 # 오이도 싱그곡 물웨도 싱그곡. 경허난. 강 오일 강 저 물웬 강 사오민 아이가 실피 못먹언에, 어머니 허곤데. 무사? 물웨 실피 먹어봣시민 양. 허곤데 아 이고 게메이. 누게 마라 낱밧디,

107022 @ 응.

107022 # 저 낱밧 혼 칸만 드라, 나 물웨 혼 댓 곳만 싱그켜 허난에. 싱경 먹읍 서. 이 낱 싱거 가난.

107022 @ 응.

107022 # 어서 그디 오랑 오이, 물웨 싱것당 먹읍서 허난. 물웨 혼 여남은 거 나 서. 요 물웬 기자 비만 오민 부수 열아.

107022 @ 응.

107022 # 혼 곳 여남은 곳 논 것이 어떤 딴 가민 혼 구덕씩 타 와서, 게난. 아 실피 먹어보라 혼 물웨 두 개도 아이 먹영. 어머니 나 이제 실푸우다.

107022 @ 하하하하. 두 개도 못 먹언.

107022 # 두 개도 못 먹언, 어머니 나 이제 실푸우다. 흐흐흐흐. 이제 먹구적 안허크냐? 이제 먹구적 아니허쿠다 허멍 헤 낱져.

107022 @ 아까 물웨 놀 때 아까 혼 곳 두 곳 이렇게 헤 마씨? 곳 곳?

107022 # 곳, 영 동글랑 허게 통 파이, 동글랑 허게 통 팡 그레 뭐 걸름 담아놔. 걸름 뭐, 소 걸름이든 웨지 걸름이든 담아놔근에 흑 더퍼 낱 그레 웨씨 꼭꼭 찢러 야 웨가 잘 웨주. 그냥 멘 밧디 강 놓으민 웨가 웨지 안허여. 비료가 엇인 때난. 겨 난 이젠 뭐 비료 놔놓난 뭐 기냥, 기냥 멘 밧디 찢렁 낱당 비료만 허민 짹짹 뺨으 명 나와. 이제.

107022 @ 게난 아까 걸름 논 그게 곳, 혼 곳, 두 곳.

107022 # 혼 곳 두 곳 허는 거라.

107022 @ 아.

107022 # 계난, 구덩이를 이만이 널르게 파 뇌근에 그레 걸름 담아냥 흑 더평 그  
우트레 웨씨 정 뇌두민 웨레가 냥 놓으민 냥 뺏어가민 그 걸름물 빨아 먹엉, 작작  
뺏어. 요새 저 수박 놓는다도 경 험시컬.

107022 @ 아.

107022 # 수박 놓는다도 수박 좍 허게 갈아뇌근에이 곁쳐 뇌근앵에 걸름 뿌려뇌  
근앵에 그레만 지금 수박씨 싱검시컬?

107023 @ 예, 다음 성계, 성계는 이디서 뤼엔 곁아낫수과?

107023 # 성계 옛날말은 귀.

107023 @ 귀. 귀로도 국 끌려?

107023 # 응. 귀국이 맛잇주. 메역에냥 끌리민.

107023 @ 건 어떻허영 끌리민 뤼는 거파?

107023 # 건 어떻허명 말명, 그자 메역국에 탁 노민 그자 금방 냥 금방 먹는 거  
거.

107023 @ 귀를 맨 마지막에 뇌야 허여?

107023 # 응, 맨 마지막에 뇌.

107023 @ 아, 메역보다도 더 다음에? 더 나중에?

107023 # 응. 국 다 끌려냥 맨 마지막에 냥 허민 그것이 맛잇어. 요새 큰 일 밧  
디 가민 성계국 끌리잖아이. 맛엇어.

107023 @ 이런 건 옛날에 먹젠 허민 막 특별할 때나 먹는 거 아니?

107023 # 특별, 아니. 요새나 특별헌 때 먹주, 옛날엔 그자 우리대로 잡아당 풀지  
아닐 때난 먹고 싶은.

107023 @ 아, 잡아지민?

107023 # 응. 이녁이 잡아만 오민, 므음대로 먹는 거. 옛날엔. 풀지 아녕. 요새가  
므음대로 못 먹어. 돈 사젠 허민.

107023 @ 비싸, 풀아사주 예.

107023 # 야, 키로에 칠만원, 팔만원 가가민 어떻행 먹을 말이니.

107023 @ 거난예.

107023 # 경허난 딱 바당도 금혜근에 우리 ㄱ튼 사름 귀 하나 못 파오게 허여.  
이젠, 조합원에 안 가입헌 사름덜은.

107023 @ 계난, 예.

107023 # 몰르게 잇당 ㄱ메기 잡으레 갈 때 몰르게 그디서 팡 까먹엉 와.

107023 @ 까먹엉 와.

107023 # 응, 그디서 까먹엉 와.

107023 @ 응.

107023 # 먹어난 추룩도 안허영 하나 팡 까근에 까먹는 건 뤼엔 안허곡. 그디서  
잡앙 막 하영 팡 오지만 못허게 허지.

107023 @ 보말국.

107023 # 보말국은 이. 그건 메역에 놔, 그것도 메역에.  
107023 @ 아.  
107023 # 이 보말국이나 성계국이나 이 메역에 들어가야 테운 거지, 무수 ㄹ튼 거 콩늬물 ㄹ튼 거 테우지 안허여. 어울리질 안허여.  
107023 @ 보말은 계난, 아까 보말인 이디서 뭘엔 ㄹ메기? 고동?  
107023 # 아니 그자, 보말.  
107023 @ 이디선 그냥 보말.  
107023 # 응, 그자 보말. 이디선 보말.  
107023 @ 보말 까근에.  
107023 # 보말 까근에, 그자 쉽게 말허는 건 ㄹ메기엔 곧주.  
107023 @ 예 ㄹ메기. 이디서도 ㄹ메기엔 곶아 낫수과?  
107023 # 응, ㄹ메기. 지금도. ㄹ메기 잡으레 가게.  
107023 @ 응.  
107023 # 우리 ㄹ메기 잡으레 가게, 해영 잡아오는 게 보말이라. 계민  
107023 @ ㄹ메기허고 보말허고 다른거?  
107023 # 아니, 존 것도, 춤 ㄹ메기도 ㄹ메기 수두리도 ㄹ메기, 보말도 ㄹ메기 그자 ㄹ메기 불르는 데로 ㄹ메기라.  
107023 @ ㄹ메기가 더 큰 이름?  
107023 # 응 그거라, 이디 잡아다 낱, 풀 때만 오늘 ㄹ메기 얼마 잡안디? 허민 일 키로, 이키로 허는 거 훑은 건 보말 분별허젠 허민 훑은 건 보말 요만씩 현 건 춤 ㄹ메기, 수두리 뭘 문닫개 그런거 차별허주, 그자 불르는 건 ㄹ메기.  
107023 @ 그냥 불르는 건 ㄹ메기.  
107023 # 응 그냥 불르는 건 수두리도 ㄹ메기, 보말도 ㄹ메기, 춤 ㄹ메기도 ㄹ메기. 그냥 불르는 건 ㄹ메기.  
107023 @ 겐, 이걸로 국 끌리는 거는?  
107023 # 국 끌리는 건 메역.  
107023 @ 메역 낱 예.  
107023 # 또, 그 춤 ㄹ메기엔 현 건 또 지름에 낱 흐쓸 달달 보끄다근에 죽 쭈민저, 맛이 있어. 그 춤 ㄹ메기엔 현 건.  
107023 @ 죽? 국 아니고?  
107023 # 죽.  
107023 @ 아 죽. 아까, 응.  
107023 # 죽 쭈어, 달달 보끄다근에 건 죽 쭈어.  
107023 @ 넵패로도 국 끌려 낫수과?  
107023 # 아 넵패국은 맛있지.  
107023 @ 그건 어떻 행 허는 거짜?  
107023 # 그건이 박박 메여근에이 돌에 쫄 물에서 이 돌 호강에 낱 막 밀어.



107023 @ 예.

107023 # 밀어근에 그 펠물 든 혜와동 오랑 저런 솟디 낡 폭 허게 퀘양 특허게 두께 더경 놔두민. 북삭하게 틈 자이.

107023 @ 예.

107023 # 경허민 이놈의 녁패가 북삭북삭헤여 먹으민. 북삭북삭 허민 그것에 낡 국 끌리멍 ㄱ루 혼 방울 서꺼 놓민 그럼 맛있어.

107023 @ 아.

107023 # 경헌디, 파나 흐쉴 썰어 놓곡 허민. 맛이 좋아 그게. 메역국 보다 그게 맛있어.

107023 @ 메역국보다 더?

107023 # 응 맛이 있어 그게, 겐디 녁패가이 이 바당에 옛날에 녁패 경 낡 게 구 채국 정월만 나민 녁패들 뽑아당 국을 끌러 먹는다, 녁패 하나 안나. 이제 엇어, 엇어. 저 신양리 가난 녁패 이서라.

107023 @ 신양리. 아,

107023 # 그딘 가난 녁패 이선, 우리도 혼 번 구경 갖단에, 물끼에 구경 가져선 게 혼 줘 뽑안오란 국 끌리난 그추록 맛있어. 그거는. 하하하하.

107023 @ 하하하하.

107023 # 그거 ㄱ루 놓곡게, 파나 흐쉴 거러 놓민 맛있어 그거는.

107023 @ 옛날에도 끌렁 먹어났지예?

107023 # 아이구 옛날엔 그것 막 맛있영 그것만 해당 끌러먹지

107023 @ 가시리로도 국 끌립니까? 가시리국.

107023 # 가시리국은 끌리민이, 풀풀헨 게 맛있져, 맛있져 헤도 우린 너미 불탁 허난 맛 엇어베라. 풀 나늬난 풀이 나부난 거.

107023 @ 그니까.

107023 # 그니까 우리는 맛이 벨로.

107023 @ 응, 풀처럼 생기니까?

107023 # 응 풀처럼 생겼 그자 국 끌리난 풀풀 혜놓난. 가시리국 맛있나, 맛있나 헤도 우린 벨로라.

107023 @ 아, 가시리 국엔 무신거 놓는 거봐? 가시리 말고?

107023 # 가시리 말곡 뭐 놓을게 이서게. 그자 쪽파나 해당 흐쉴 썰어 놓으민 기자, 그거지. 겨곡 가시린 금방 폭 들이쳐근에 기냥 거리지 안허민 그냥 흐뎡 시민 풀풀 혜부는 때문에, 막 풀 나.

107023 @ 막 풀 낭예. 응.

107023 # 경혜부난, 난 혼엇이 벨로. 가시리국 가시리국 허여도 벨로.

107023 @ 파래도 낡 국 끌립니까?

107023 # 파래 낡 국 끌러 먹지. 무쳐도 떡곡, 파래. 겐디 이딘 파래가 엇어.

107023 @ 아, 이딘 엇어? 옛날에도 엇어난?

107023 # 젠디 여긴 파래 나는 디가 엇어. 아이고 잇당 혼 번이나 파래 강 어디 강 사오민 그거 국 끌렁 먹젠허민 그자 무청떡주. 이딘 파래 나는 디도 엇곡, 파래 비싸곡,

107023 @ 응.

107023 # 저 서구포 시장에나 가민, 어떻 요만이 헛 거 얼마 얼마 허민 비싸근 에.

107023 @ 물훤.

107023 # 물훤엔 헛 건?

107023 @ 자리물훤, 뭐 예 한치물훤 요즘 막 허지 안헛니까? 냉국 같은 건데.

107023 # 응,

107023 @ 옛날에도 그런거 헤 먹어난?

107023 # 한치물훤, 자리물훤, 우리냥으로도 헤 먹어.

107023 @ 옛날에?

107023 # 응 지금도, 자리 엇어부난 올린 자리 혼 번 못 먹어. 우리가 자리 훤를 그렇게 잘 먹어져이.

107023 @ 아.

107023 # 자리만 나가민 아이구 이놈의 자리 언제랑 냥. 자릴 물훤 먹어볼 건고. 올린 자리흐나 구경을 못해서. 원 자리가 안나신ㄱ라, 자리장시 이디 계속 오는데, 원 올린 자리장시도 혼 번 나타나질 안허여.

107023 @ 자리물훤은 게민 어떻 헛 만들어 먹는 거파?

107023 # 아 자린 막 싱싱헌 때이, 비닐 다 거실여동, 막 즘질이 썰어.

107023 @ 응.

107023 # 썰어 놓민 그것이 문딱 웬장에 문 양념 헤 냥, 국을 만드는 거라.

107023 @ 예.

107023 # 웬장, 막 저 양념 다 헤 놔근엔에, 이제 국을 만들어 냥, 식초는 쥬 내 중에 놔.

107023 @ 아.

107023 # 경 안허민 자리 막 헤여케 익어불민 맛 엇어. 겨는 따문에 웬장에 문딱 뭐 마놓이니 파니 문딱 썰엉, 웬장 문 헤영 양념 무쳐근에, 자리훤 문딱 만들어 놔 이. 물냇.

107023 @ 응.

107023 # 자리훤 문 만들어냇, 그루후젠 식초를 쪼끔 냥 새콤허게 허는 거라. 경 그때 시원허게 떡주, 자리 먼저 식초 놔불민 자리가 헤영 헤비영 맛 엇어.

107023 @ 아,

107023 # 겨난 막 자리훤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라. 멘들 줄 몰르는 사름은 문저 자리에 식초를 놓아부는 거라.

107023 @ 예, 나도 경,

107023 # 식초 놔불민 자리가 헤영허게 밀싹밀싹 맛있어. 겨난 웬장 문딱 마놓이  
고 파고, 다 헤영 저 설탕이고 뭐 양념할 거 다 헤난 간 탁 맞추는 거라. 경허영 자  
리 놓고 휘휘 것엉 그거 간을 맞춰.

107023 @ 응.

107023 # 싱거우냐 짜냐 간 맞춰난 후제에, 초를 새콤허게 초를 낱 그뎨 시원하  
게 먹는 거. 경 안허민 자리가 헤영 헤비영 맛있어.

107023 @ 물훤할 때 뭐 제피나 이런 것도 놔?

107023 # 제핀 놓는다, 우린 제핀 낱 제핀 맞질 안허더라. 제핏넨 놔난.

107023 @ 아.

107023 # 막 제피 좋아 하는,

107023 @ 좋아하는 사람들도 잇던데,

107023 # 어린 뎨 제피를 장에 묻엇당 먹어도 콧송헌 내가 난 맛이 잇었는데, 입  
맛이 틀린 이젠 이 재핏내 못 말츠드라. 이젠 내음새가 구져.

107023 @ 아,

107023 # 흔 번 제피 논 자리훤 먹으난, 아이구 나 이거 안 먹켜. 자리 못 먹켜,  
제핏내가 곱어.

107023 @ 게난, 물훤는 게난 옛날도 행 먹어난 예, 이제사 현 거 아니고예.

107023 # 아이구 이제사 허는 거 아니. 옛날에도 헤 먹어. 게민 옛날에 우리 두  
린 뎨, 저 계핏내가 그렇게 맛이 좋아. 코소릉헌 게 계핏내 맛있엉, 장에도 흐끔 놓  
민 장 맛도 코송허면 입맛이 틀린 거라 그동안에이.

107023 @ 응.

107023 # 이젠 계핏네 나는 건 먹기 싫어. 이것도 이디 계핏낭 이서 이디도 큰  
거.

107023 @ 계피엔 허여, 제피엔 허여?

107023 # 계피.

107023 @ 계피? 응. 옛날에 저 양념들 옛일 때는, 물훤 허젠 허민 어떻힙니까?

107023 # 양념 옛이명 말명 그자 쪽파.

107023 @ 응.

107023 # 그거 그거나 썰어 놓곡, 그자 꿩꼬루나 흐끔 놓고, 그것에 웬장에 헤영  
헤 놔근에 나중에 초 놓으민 그자 그걸로 그거지.

### 죽류

107024 @ 응. 이번에는 죽, 죽은 무신 죽 무신 죽 행 먹어났수과 옛날에?

107024 # 콩죽도 끌렁 먹곡이, 팥죽도 끌려 먹고, 콩죽 팥죽 끌려 먹고 또 그냥  
저 좁쌀 놔근에 건 미음 딸리는 거.

107024 @ 예.

107024 # 미음 아픈 사람들 미음 딸리젠 모인 좁쌀 낱 막 오래 딸리민 물이 풀풀

혜여이,

107024 @ 예.

107024 # 경허민, 싹 걸러 뒤근에 그 미음만 막 아팡 뭐 못 먹는 사람덜이 경허민 그거 미음 걸어놔.

107024 @ 응.

107024 # 그 좁쌀 그 흐린 좁쌀 말고 모인 좁쌀 낱 폭 끌리민 물이 부영 폴폴허민 걸 싹 걸러.

107024 @ 음.

107024 # 걸러동 그거 그 음식 못 먹는 사람덜 그 미음만 혜영 입드레 거려놓는 거. 그거고. 죽 썬 먹는 것도 그것도 고구마 농곡, 좁쌀 낱 죽도 썬, 죽 썬민 가르르허민 이 고구마를 막 데저. 데정허민이 그 죽이 맛이 있어. 고구마낱 죽 썬 거,

107024 @ 감저 낱? 감저허고 무신거 놔?

107024 # 좁쌀 낱 죽 썬.

107024 @ 그로 죽 썬 마씨? 아, 밥이 아니고?

107024 # 응 죽 썬 것도. 경행 그거 죽 썬영 고구마 낱, 고구마 툽툽툽 데저 놓민 죽 맛이 맛이 있어.

107025 @ 음, 흰죽도 썬니께?

107025 # 흰죽은 저 곤쌀 낱근에 흰죽 쓴다, 죽 우린 흰죽 썬 못 먹나.

107025 @ 맛 엇어?

107025 # 난 죽이엔 현 건 질색이라.

107025 @ 안 좋아해?

107025 # 막 흰죽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여. 이 저, 쌀 낱 혜영게 죽 썬 거. 아무것도 안 논 거.

107025 @ 곤죽이엔 허여? 흰죽이엔 허여?

107025 # 흰죽이엔도 허곡, 곤죽이엔도 허곡 허여. 옛날 어른들은 곤죽 썬 곤죽 썬 허멍.

107025 @ 그럼 옛날 어른들은 곤죽?

107025 # 응 곤죽, 요신 흰죽, 흰죽인디,

107025 @ 옛날 말은 곤죽 예,

107025 # 옛날 말은 쌀 낱 죽 썬 거, 곤죽 썬 아이들 주어사주.

107025 @ 그건 이젠 아픈 사람이야 곤죽 먹주만은, 옛날에는 어떻힐 때 곤죽 먹어 낫수과?

107025 # 옛날도 아픈 사람이나,

107026 @ 아,

107026 # 입맛 엇인 사람이나.

107026 @ 아,

107026 # 죽이나 흐끔 영 아팡, 뭐 먹쿠과? 뭐 먹을 거 곱습써. 허민,

107025 @ 아.

107025 # 죽이나 혼직 쑤어 드라, 흰죽이나 혼직 쑤어 드라, 거나 먹어보켜 허민, 그거주 흰죽 경 혼엇이 맛이 엇주게.

107026 @ 예. 게난, 아간 좁쌀 미음 흰 게 조죽이주예? 조죽예?

107026 # 좁쌀 놔근에 아픈 사람 무시거 음식 못 먹을 때에, 야 미음이라도 썩 입드레 놔보라. 헐 때에,

107026 @ 그뎨 좁쌀로?

107026 # 좁쌀 혼 방울 놔근에, 폭 끌리민 물이 뽕영 풀풀헤여. 풀풀허민 이거 걸렁 쫄 걸러비뒤근에 그거만 해당,

107026 @ 아.

107026 # 입드레 미음 딸려수다. 미음 헝쫄 입드레 눅서. 경 아픈 사름. 게영 이 것이 좁쌀 미음이어. 입에 구미 등겨. 곤쫄보다.

107026 @ 아,

107026 # 이게 이게, 입맛일 땡기는 겨야 이게.

107026 @ 좁쌀 미음이?

107026 # 응응, 좁쌀미음이. 겨난 이 미음 헝쫄 먹어봅서. 입맛 등겨사 질 디사, 영헤영 미음을 헝쫄 먹어 가민,

107026 @ 아. 좁쌀 미음이.

107026 # 입맛 등경 밥 헝쫄 드라 허는 사람도 이서.

107026 @ 아.

107026 # 이 좁쌀미음이 입에 입맛을 땡기는 거라 이게.

107026 @ 응.

107026 # 경허민 헝쫄 덜 먹어 그냥 쫄 차 노리는 사람 잇곡, 경 안허는 사름은 쫄 걸러동,

107026 @ 그 국물만.

107026 # 그 미음만 풀풀허게 해근에 강 입들에 강 거러놓곡 경허민, 것이 입맛 또 땡경 미음 헝쫄 쑤어도라 헐 땡 또 쫄 놔근영에 그거 또 끌려 안네곡 경허주.

107027 @ 풋죽은? 어뎡할 때 먹는 거?

107027 # 풋죽은 기냥 이녁 놀당이라도 먹고 싶으면 우리 풋죽 썩 먹게 행, 또 풋 낱 쑤영도 먹곡, 옛날엔 영장밭디,

107027 @ 아.

107027 # 영장나민, 우리가 시집을 갈 거 아니야, 게민 시아바지가 돌아가서이.

107027 @ 응.

107027 # 돌아가민 우리 친정어머니가 나 조름으로 죽을 혼 허벅 쑤어가는 거야.

107027 @ 풋죽으로?

107027 # 풋죽으로. 허벅이엔 허는 거 열 뉘들이 허벅이 잇어. 영 부리 요만이 줄아진 거. 허벅잇지이?

107027 @ 예.

107027 # 박물관에 가면, 그런 것에 담양 지영 가. 이제 경허민, 나 조름에 어떻게 여러 개 이제. 죽은어명도 잇곡, 큰어명도, 셋어명도. 영허면 죽이 네 허벅씩 들어가이.

107027 @ 아, 응.

107027 # 나 조름에. 또 아무도 엇인 사름은 또 죽 혼 허벅 들어가. 옛날엔이 사름이 딱 죽으면 이제는 상복을 다 맞춰 입잖아.

107027 @ 예.

107027 # 상제가, 애기들이 열 오누이민 그 상제 조름에 다 옷을 해사줘여.

107027 @ 응.

107027 # 복옷을.

107027 @ 응.

107027 # 겨민 동네사름들이 다 모여드는 거라. 자, 두루막 해야 허지, 치마 해야 허지 두건 접아야지, 다 허쟁허민 상제가 여라이민 동네 사름이 다 모영 손으로 허쟁허민 하루종일 허쟁허민 상에서 밥을 못해봐. 경허민 죽 들어가는 걸로 다 주는 거라 이제. 먹으렌, 그걸로.

107027 @ 아. 음.

107027 # 옛날엔 경혜영 큰일밭디 초상난디 죽 썰나가는 거. 풋죽 썰.

107027 @ 응. 풋죽,

107027 # 누게 죽엇져 허민 아이고 풋죽 나 오랏구나. 그거. 아무사름 죽엇젠 허민 오라 어따, 풋죽 나와신게. 그거라, 그런디 이젠 풋죽 안 썰.

107027 @ 응.

107027 # 풋죽 먹지도 안허곡, 그자 상에 올릴 거 그날 썩썩허민 식당으로 그 거시기 논 디. 신체 논 덜로 글로 가근앵에 식당으로 강 죽 흐쓸 썰근에, 상에 올리긴 해여. 성복전에.

107027 @ 성복전이?

107027 # 응, 성복전이 밥을 안현다고. 옛날어른들.

107027 @ 요번이 요번에 우리도 누게 죽으난에 식당에서 풋죽 썰 줍디다.

107027 # 게 그거.

107027 @ 아예 그냥 그디 친척들 예, 이신 사름덜.

107027 # 성복전에 풋죽 줘.

107027 @ 계난 풋죽 행 아예 식당에서. 예.

107027 # 밥을 못, 성복 전에 밥을 안 먹으니까, 옛날 어른덜도 어둑운 시절이주. 성복전에 밥, 상에 밥을 아니 올리니까, 우리 사름덜도 밥을 먹지 말라이. 경행 풋죽으로 먹는 거. 성복 전에.

107027 @ 동짓날도 풋죽 썰 먹는 거?

107027 # 응, 동짓날 풋죽 썰 먹는 거.

107027 @ 건 무사 동짓날 혜 먹는 거?

107027 # 몰라, 옛날에 풋죽 썬 먹엇젠 혜도. 요샌이 절간 ㄹ튼 딘 풋죽 썬. 풋죽 썬다? 풋죽 썬 먹겐 허당도 에에에, 옛날 식이여.

107028 @ 호호호호.

107028 # 안 썬 이젠. 계난.

107028 @ 콩죽도 썬 먹어 낫수과?

107028 # 콩죽 썬 먹어.

107028 @ 콩죽은 어떻게 허는 거과?

107028 # 콩도 콩ㄹ루 곶앙 생차 곶앙 맛이나이 그것도.

107028 @ 그 콩국허는 그 ㄹ룬가?

107028 # 응응, 그 ㄹ루, 그 ㄹ루 혜여근엿에 쓸에낭 ㄹ치 낭 서경 썬민이 콩죽도 맛있어. 콩 곶아근에.

107028 @ 응.

107028 # 콩 곶앙 그것도 ㄹ루로 곶아사.

107028 @ ㄹ루로 곶앙예?

107028 # 응 ㄹ루로 곶앙, 경행 콩죽 썬 먹는 거주, 쓸에 콩에 흐디 낭 오래오래 딸리당 보민, 죽이 웨여. 이진 뭐 또루도 아니여. 경행 썬는 거.

107028 @ 그냥 흠치 낭?

107028 # 응, 흠치 낭 그자.

107029 @ 모멸죽?

107029 # 모멸죽은 간단허여 이거. 모멸죽은이 물 바글바글바글 웨여가민 모멸죽엿 접어낭 휘휘 젓어근에 허민, 이진 풀풀 딸려불민 맛이 엿어.

107029 @ 아,

107029 # 쓸 트루 물 트루 허여도 쓸만 쪼끔 풀어지민 기냥 먹주, 이 콩죽ㄹ치 이거 풀풀 딸려불민 맛이 엿어.

107029 @ 아, 모멸죽은?

107029 # 응 모멸죽은.

107029 @ 모멸죽은 언제 먹는 거과?

107029 # 거 아무 때라도 이녁 먹구적 허민 썬 먹곡, 경 아무 때나 먹는 거. 건 무신 날 출령 아이 먹는 거. 이녁 먹구적 허민, 모멸죽 흐쓸 썬 먹을 거. 경 안허민 말거. 모멸죽은 베랑 썬 먹젠들 안허여. 썬 먹젠 안허여.

107030 @ 아, 녹디죽.

107030 # 녹디는 약제라이 이거이. 득 잡아먹을 때도 득 소곱에도 낭 먹곡, 그냥 녹두낭 녹두죽도 그냥 썬엿 먹어 그 득에 낭 그냥 썬엿 먹곡. 이녁이 먹고 싶으면 그건 풋죽ㄹ치 아무 때라도 녹디죽이라도 썬 먹곡, 특히 이거 저 득 소곱이 배에 답아근에 이 득을 제헌텐 헤라. 득에 득을 제헌텐 허엿.

107030 @ 아, 녹디가?

107030 # 응 녹되가. 경행 이 대충 보민이, 통, 저 무시거니. 무신 삼계탕?  
107030 @ 응.  
107030 # 그런 디도 그 녹되가 들어가.  
107030 @ 이디 교레리 가민? 응 녹되죽도 해줘.  
107030 # 그 삼계탕에도 녹되 들어가. 그거 독을 제헌덴 허근에.  
107030 @ 아, 이런 녹되죽 할 때는 녹되영 쫄이영 흠치 놓민 녹되 안 풀어지진 안해? 먼저 삶아야 돼여?  
107030 # 녹되가 흐쫄 먼저 놔. 경헌디 쫄이 ㄱ치 놓나 이 압력솥이난 다 풀어져 이제.  
107030 @ 아니 옛날에, 옛날 압력솥 옛일 때?  
107030 # 압력솥 옛일 때도이, 그냥 녹되 ㄱ치놔 흐디 팔려.  
107030 @ 아 따로 삶지 안허영?  
107030 # 응. 따로 안 삶아,  
107031 @ 게민 아까 닭죽 그 녹되 놔근에 현 닭죽은, 득죽은 예, 옛날에도 썰 먹 어놔주예?  
107031 # 옛날에도 헛주, 옛날엔 죽도 쭈엇 먹곡, 아녀민 옛날에 밀ㄱ루 헤어근 에 수제비 접아놔, 득 삶양 수제비를 접아놔근에 수제비도 득에, 수제비 득 삶아난 물에 수제비도 행 먹곡.  
107031 @ 아, 옛날에도? 오.  
107031 # 옛날은 요즘은 득이 많이 질량 양계장 헛지. 옛날에는 개인으로 득을 질 룬거라이,  
107031 @ 예, 집이서예.  
107031 # 집이서 빙아리 깨와 근에 허민, 득 잘허민 흐 대여섯 사는디 득 두 마리 즈음 잘 잡으민 하영 잡양, 하영 잡앗젠 현디 흐 여섯 사름 사는디 세 개즘 두 개즘 잡아. 겨민 그놈을 토종득이난 오래오래 삶아야 헤여이. 압력솥 아니곡허난, 오래 삶아 놓민, 그 삶아난 물에 수제비 떠다놔근엔에 그 수제비에, 수정 한 디쯤은 득 흐다리도 채여 놓곡, 놀개 흐나도 채어 놓곡 경 허멍 먹엇지 요새추룩, 아이고 어느 절에 통득 사당 먹곡.  
107031 @ 하하하하, 응.  
107031 # 쫄쫄, 일년에 잘 허민 득궤기 흐 번 먹젠 허민 일년에 흐 번이나,  
107031 @ 응.  
107031 # 유월들 유월 스무날 돼면은,  
107031 @ 응, 득 잡아 먹는 날. 응.  
107031 # 음력 유월 스무날 돼면 득 먹는 날이엔 허멍, 그때 허민 득 옛인 사름 은 득 질르지 못헌 사름은 득 흐 머리 쫄끄만헌 득 흐 머리에 검질 흐루 강 메여쫄 그거 흐 머리 빌어오는 거라 옛날에.  
107031 @ 아, 음.



107031 # 경허민, 이틀 강 메사 득 쪼끄만헌 득, 두 개 빌어오민 수끼 한 디쯤은  
그거 부모들 영 허는 거 보민 애기들 한 부모들은이,

107031 @ 응.

107031 # 득케기 흥번 입에 못 놔봐. 문딱.

107031 @ 에이고.

107031 # 이놈도 흥 방울, 저놈도 흥 방울. 영영 갈라주곡, 또 이게 남편네 나신  
이 이녀 신랑 나신 이제 우리 집안이민 대통령이라. 바로.

107031 @ 맞아.

107031 # 그래 각이나 날개나 흥나 똑 ㄹ진 채로 떼영 놔볼민 그자 그거 기자 영  
영영 솔로 떼멍 그자 그 수제비 통드레 흥 빨씩 흥 빨씩 집아놓멍 주주. 그거 득다  
리 흥나.

107031 @ 하하하하하.

107031 # 참여허곡, 그냥 숲아난 울좌난 물.

107031 @ 응.

107031 # 애기 한쉬 옛날 어른들 말이 잇어이. 애기한 디 물그린덴. 요신 애기들  
을 하영 안 날 때난 허곡, 옛날은 생긴대로 다 놔노난 열 오누이, 열흥 오누이, 열  
두 오누이 경 허는디, 어느 절에 먹을 것도 옛인디, 어명은 케기국을 끌려도 국물이  
나 먹주 어느절에 건지 흥번 먹는 걸 못봐서. 수정한다.

107031 @ 아까, 그난 뭐 애기 한디 무신거라?

107031 # 애기 한 쉬에 물그린덴. 옛날 어른들.

107031 @ 애기 한쉬에...

107031 # 물그린다!

107031 @ 그게 무신말이파? 물 그리는게?

107031 # 애기 한쉬엔 물 그린덴 허난, 자식이 하면은 먹을 차 걸 못 먹나 이거  
먹구적 허는 걸 다 못 먹나 허는 거여 이게. 의미를 생각허민 내가 먹구적 흥 걸  
저 아기들 생각허는게 먹구적 흥 걸 못 먹나 이거여. 못 얻어 먹나 이거여.

107031 @ 응.

107031 # 지금 나 곧듯이 득을 수정 한 디, 요신 득 돈만 아정가민 얼마든지 사  
다먹지 만은, 그 땐 돈 들러도 득을 못 사 먹으난, 득 흥 ㄹ리쯤 수정한디 허민 그  
울좌난 물도 흥직 즐바로 못 얻어먹어이.

107031 @ 음.

107031 # 무시거 득 흥머리 잡으민 무시거 흥 빨씩 주멍 요래도 흥 빨, 요래 흥  
빨 열 개 갈라봐. 얼마나 어멍 짝새 고기가 가느냐.

107031 @ 거난 물 한쉬에,

107031 # 물, 애기 한쉬에,

107031 @ 애기 한쉬에 물그린다.

107031 # 물 그린다 이거여.

107031 @ 애기 한 쉬는 뭐라 쉬?

107031 # 애기 한 쉬에 물 그린다 허는 건, 예를 들리민 자식 한 사름이 물을 그린다 이겨여. 먹구적 현 거 못 얻어먹나 이걸로.

107031 @ 응.

107031 # 그 밑에서 애기 한쉬에 물그린다 허는 거라.

107031 @ 애기 한쉬에 물그린다. 응.

107031 # 그 의미를 놔서 이거 곤는 말이야, 이게.

107033 @ 누물 같은 것도 낵은에 국 끝립니까? 국죽?

107033 # 국 죽 쓸 때예, 누물 무지려낵 국죽,

107033 @ 그것도 헤마씨? 국죽?

107033 # 응, 그건 국죽이라.

107033 @ 국죽이라예,

107033 # 누물 안 뜯어낵 그냥 죽 썬근에 먹으면은 답져.

107033 @ 아.

107033 # 죽을 먹으면은 답지니까 누물 폭 담아낵 죽 썬민,

107033 @ 아.

107033 # 그 누물에 그 죽에 먹어놓민 답지질 안허지. 경허난, 죽 쓸 땐 배추 헤다낵 박박 무지려 낵 죽 썬.

107031 @ 아,

107031 # 그 땐 국죽이라 국죽.

107033 @ 국죽예. 이때는 저 흰죽, 쌀로 죽 쓸 때 놓니까? 아니른 뭐 좁쌀로 낵은에 험니까?

107033 # 좁쌀로도 썬곡, 옛날엔 쌀이 어려운 때난 매 좁쌀로만 썬.

107033 @ 그럼, 좁쌀험 죽 썬당, 그레

107033 # 누물 무지려낵 국죽.

107033 @ 아, 그든 국죽.

107033 # 응. 우리 연세에 예 대충 우리보다 우이 할망들 신디 강 국죽이 뭐이 파? 허민 다 곶아 줄 곶.

107033 @ 응.

107033 # 다 곶아주. 그런거.

107033 @ 이건 안 먹어반 국죽은 나는. 들어보기만 허곡.

107033 # 안 먹어 본 말이 맞주. 우리 애기덜토 국죽이든 어머니 국죽이 뭐파?

107033 @ 계난.

107033 # 경 들어, 이제 우리 큰 딸이 이제 오십여섯이주만은. 어머니 국죽이 뭐 파?

107033 @ 그난 안 먹어 봐서, 나도 안 먹어반 크명.

107033 # 계난, 어머니 국죽이 뭐파? 국죽이 뭐파 들어.

107033 @ 하하하하.

107033 # 야 국죽이 뭐이니? 죽 쑤다근에 녹물을 놓은 게 국죽이주. 기짜? 국죽 몰라 요새.

107033 @ 거 말고도 또 죽 쑤 먹어난 거도 이수과? 이거 말고도? 옛날에?

107033 # 그거 먹으나 말안 무시거 기자, 그거 녹물 농곡, 그거 기냥 흰죽이여 뭐 국죽이여 흰 거는 녹물 논 거고 그냥 흰죽 쑤어 먹는 거, 그거. 그자 모물쌀도 죽 쑤 먹주만은 모물쌀은 풀풀허게 쑤질 못헿, 물 발발허게 쑤어가민 쌀 확 서경 발랑발랑 쑤민 거려놓는 거.

107033 @ 그 다음에,

107033 # 이 모물쌀 풀어져불민 맛이 엇이난.

### 범벅과 수제비

107034 @ 응, 범벅.

107034 # 범벅은,

107034 @ 무신 범벅, 무신 범벅 헿 먹어 낫수과?

107034 # 모물 ㄱ루로도 범벅 헿 먹고, 옛날 감저 ㄱ루로도 범벅 헤 먹곡.

107034 @ 모물 범벅, 감저 범벅.

107034 # 보릿 ㄱ루로도 범벅 헤 먹곡. 이녀 먹구적 현 대로.

107034 @ 보리로도 헤 먹고.

107034 # 보리 범벅도 잇곡, 모물 범벅도 헿 먹곡,

107034 @ 응.

107034 # 감저 ㄱ루로 감저 범벅도 허곡, 그거야.

107034 @ 이건 어땡헿 허는 거짜? 범벅은? 만들젠 허민?

107034 # 범벅은이, 감저 ㄱ루에도 감저를 놔서 범벅이 웨어이.

107034 @ 아,

107034 # 감저 ㄱ루 뺏사근에 방에서 뺏상, 채로 막 치민 감저 ㄱ루가 나와이.

107034 @ 뭐, 빼떼기를?

107034 # 응 빼떼길, 경헿 ㄱ루 나오민 또시 그것에 고구마 썰어근에, 솟디 낱 ㄱ루에 흰디 놔근에 감저가 익으민 막 데겨. 데기민 범벅 웨는 거. 막 데겨놓민 그 것이 범벅.

107034 @ 응.

107034 # 모물 쌀도 모물 ㄱ루에 감저 삶아근에 그거 데기민 모물 꺾범벅. 보리범벅 이엔 현 것도 마찬가지로. 보릿 ㄱ루 놔 근에 거 감저에 낱 데기민 보리범벅. 겨난거,

107034 @ 느쟁이, 느쟁이는?

107034 # 느쟁이엔 현 거는, 모물이, 모물은 이 쌀 내어먹젠 허민 흰 땃불 거피는 거라이. 초불 거피고 두불, 세불, 네불, 흰 땃불 거피, 겨민 모물느쟁이엔 현 거 이서. 거피나민, 그디 ㄱ루가 나와이.

107034 @ 응.

107034 # ㄹ루 나오민 이거 겁덕도 더러 곱아지곡, 쓸도 곱아진 거라. 그건이 떡을 허민 거멍 헤여여 이. 경허는 따문에 모믈느쟁이 모믈느쟁이 허멍 그자 그걸 헤떡을 때 떡 헤여근에 헛헛허게 그건, 등절비ㄹ추룩 두건뚜건허게 헤여근에 아이들 가민 ‘마 이거라도 하나씩 먹으라’ 헤근에.

107034 @ 응.

107034 # 건 곤떡이 아니라. 기냥.

107034 @ 등절비?

107034 # 등절비로 베어근앵에, 아이들 그자 하나씩 이거나 먹으라 곤건 줄 거 엇다 허멍 그거 헤여근앵에.

107034 @ 그, 등절비는 무신 걸로 멘드는 거라 계난?

107034 # 등절비도 그자 그거 모믈ㄹ루 그 느쟁이에 두겹게 밀영이,

107034 @ 예.

107034 # 두겹게 밀영, 그 저 사발을 뜨던지 뭐 아무 걸로 뜨던지.

107034 @ 동글랑하게?

107034 # 동글랑하게 멩, 두게 딱 떼민 이거 등절비라.

107034 @ 동글랑하게 짤랑 반으로 짤랑 반달 모양?

107034 # 응 반달로. 그게 등절비라.

107034 @ 아, 반달 모양이고, 모믈가루로 행으네?

107034 # 또 곤 거는 빙도 지지곡.

107034 @ 아, 모믈ㄹ루로?

107034 # 응, 빙도 지지떡곡, 솔편이엔 현 건 이제 ㄹ사 ㄹ추룩.

107034 @ 떡은 흐뭇 잇당예 할머니 예, 근데 등절비는 아까 계민 그럼 쉬는 아무것도 안 묻히고 모믈ㄹ루만?

107034 # 것도 쉬 잇이민, ㅍ트 숲은거 잇이민 미치고, 경 아녀민 아이들 주는 거 기냥 쥐불곡. 경헤여 건.

107034 @ 응.

107034 # 거는 허곡, 이제 저 모믈 솔벤이엔 현 거는 쉬 미쳐. 모믈 솔벤이엔 현 건 영 반달 헤근에 두 개 딱 벌른 것이 모믈솔편이라이.

107034 @ 응.

107034 # 그건 저 ㅍ트 숲아근앵에 ㅍ트아근에 쉬 미쳐. 쉬 미쳐 그건.

107034 @ 응, 떡은 조금 잇당예. 수제비?

107035 # 수제비는 모믈ㄹ루는이 질게 카이, 물 잇게 질게 카는 거라 모믈ㄹ루는. 질게 캥 수꼬락으로 거려 낭 툃툃툃툃.

107035 @ 아.

107035 # 경허민 토랑토랑허게 익어. 이 모믈 수제비는 기냥 팡팡허게시리 영 물 앙 툃아 놓지 못허여. 그자 흘씩허게 물앙 수꼬락으로 툃툃툃 거려놓주.

107035 @ 응.

107035 # 언 물에 몰아근에.

107035 @ 아, 이진 언 물에.

107035 # 모믈ㄹ루는 언물에 캉, 응 언물에 캉 수꼬락으로 똑똑 거려놔.

107035 @ 음.

107035 # 더운 물르레 거려놔. 팔팔 끌리는 물에.

107035 @ 그 애기난 어멍안티도 모믈 수제비 헤 준텐 헨 게만은?

107035 # 응, 그거는 그거는 이게 이 애기난 어멍이, 피 삭으라고 모믈ㄹ루 헤근 에 이진 물 팔팔 끌려근에 더운물 팍 거려놔 휘휘 젖어. 이제.

107035 @ 아,

107035 # 젓어근에, 그거 식지 안힐 때 따시 팔팔 끌리는 물 폭 놓민 모믈ㄹ루가 익어비여.

107035 @ 응.

107035 # 경허민, 그냥 그거 이제 소금 낱 근 맞춰근에 애기어멍 맥이는 거라.

107035 @ 아, 국이나 수제비가 아니고?

107035 # 응, 수제비가 아니꼭 건 모믈ㄹ루, 모믈ㄹ루.

107035 @ 모믈ㄹ루에 그냥 물 카근에, 더운 물에 캉?

107035 # 응, 경행 허민 토복토복허게 저베기 되는 거라이. 수제비 모양으로 터 북터북허민 더운 때 이거 먹으라 허주.

107035 @ 응.

107035 # 배설이 따뜻허게 느껴가민 그 곳인 피가 싹 삭앙 느껴온다 허는 거여.

107035 @ 응.

107035 # 옛날 약 옛인 때. 요즘은 병원에 강 나민 약들 맥여부난 험지. 옛날엔 집이서 아기 나면, 약이 옛인 때라 그거 먹어 불민 곳인 피가 싹 느껴 가분다 이거 여.

107035 @ 응.

107035 # 경혜영 경 모믈ㄹ루 행 맥이는 거. 그거.

107035 @ 건 수제비에는 안끓아?

107035 # 수제비엔은 아이 곤곡, 아이고 모믈ㄹ루 아이고 애기날 때 웨민, 메누 리나 딸이나 애기날 때 웨민 모믈코를 흔 웨만 혜영 놔뒀야 헐건디 애기나민, ㄹ루 캉 맥여살 거. 수제비행 맥일 말은 안허곡.

107035 @ ㄹ루 캉 먹어 살건디?

107035 # ㄹ루 캉 맥연, 게민 팔팔 끌리는 물, 거려놔근에 휘휘 젓영 놔두민 이게 요만씩 요만씩 모들모들 허면 따시 그레 더운물 폭 거려놔 휘허게 젓어근에, 소금 흐출 좁아놔 근 맞춰 주민, 따뜻힐 때 먹으렌 헤여. 더운 때.

107035 @ 수제비엔 험니까? 저베기엔 험니까? 이디선.

107035 # 수제비, 옛날엔 저베기, 저베기 헛주만은.

107035 @ 저베기, 저베기 헛주예? 옛날엔예?  
 107035 # 요즘은 수제비.  
 107035 @ 옛날말이 중요한 거.  
 107035 # 옛날말은 저베기.  
 107035 @ 옛날말이 저베기 예?  
 107035 # 우리 이덧말허곡 또 동잇말허곡 틀려이.  
 107035 @ 예, 동잇말은 즈베기. 맞아.  
 107035 # 우리 이디서 굳는 것은 저베기.  
 107035 @ 응,  
 107035 # 저베기, 저 동잇말은 즈베기.  
 107035 @ 맞아, 즈베기 옛날이.  
 107035 # 즈베기 이디선 저베기.  
 107035 @ 응, 계난 저베기 헤 먹는건 주로 모믈 조베기허고,  
 107035 # 밀ㄱ루.  
 107035 @ 밀ㄱ루 조베기 예.  
 107035 # 응 보릿ㄱ루로도 헤 먹어.  
 107035 @ 아, 보릿ㄱ루로도?  
 107035 # 응 보릿ㄱ루도 끈닥끈닥 달좌근에 툃툃 툃아낭 행 먹어. 끈닥끈닥 달좌야. 보릿ㄱ루.  
 107036 @ 아. 칼 국수도 행 먹어 낫수과?  
 107036 # 칼국수 밀영,  
 107036 @ 밀영 근앵예?  
 107036 # 밀영, 모믈ㄱ루도 밀어근앵예 칼국수 모믈 칼국수가 더 맛있어, 밀ㄱ루 칼국수 보다. 모믈ㄱ루도 밀영 칼국수 칼로 썬는 걸, 이걸 밀영 칼로 썬는 거난 칼국수주게, 경행 썰영 행 먹고, 밀ㄱ루도 경행 먹곡, 보릿ㄱ루로도 짹 짹 밀어근에 허민 것도 칼국수 행 먹곡.  
 107036 @ 음.  
 107036 # 못 행 먹는 거 엇어.  
 107036 @ 예.  
 107036 # 보릿ㄱ루도 칼국수 행 먹곡. 밀ㄱ루도 행 먹곡. 모믈ㄱ루로도 행 먹곡.

### 김치

107037 @ 이번엔 김치. 짐치? 옛날말론 짐치?  
 107037 # 응, 요즘은 김치. 옛날엔 김찌?  
 107037 @ 짐끼?  
 107037 # 응, 김치 톱양 먹어살 걸.  
 107037 @ 그냥 김치 톱양 먹어살 걸예? 김치는 무신김치 무신김치 먹어낫수과?

옛날, 이제 말곡.

107037 # 옛날도 배추김치 무수김치주. 무수김치, 배추김치인데 옛날은이 개인에  
갈민 이추룩 속 앓인 배추가 엇어나서.

107037 @ 응.

107038 # 이거 속 앓인 배추도, 이거 속 안 저근에 우리 속 앓인 배추김치 먹건  
디가 몇 년 안됐서.

107038 @ 음.

107038 # 혼 이십 년. 혼 이십. 그 전인 이 개인으로 갈민 속 앓는 배추가 엇었  
어.

107038 @ 예.

107038 # 당배추엔 현 거 쪽이 영 속 앓인 아녀도 속이 저 노랑게 아랑아랑아랑  
헤여.

107038 @ 응.

107038 # 경허민 그거 당배추 당배추 허멍, 그거 헤여근에 소금에 절엿다근에 허  
민, 그자 옛날은 뭐 양념 엇어. 메리치 딸린 거 허곡,

107038 @ 응.

107038 # 메리치 딸리곡 그자 고춧ㄹ루, 그자 꿬, 마농 그거주. 생강 원 그것만  
냥 행 먹어 놔서. 옛날에.

107038 @ 응.

107038 # 이젠 뭐 새우니 뭐 무시거니, 무시거니 막 양념이 뱃 가지라이.

107038 @ 하하하하, 응.

107038 # 경혜신디 옛날엔 메리치 딸린 거 허나, 그자 고치, 마농, 그자 생강 그  
거. 그거해도 잘만 먹어.

107038 @ 옛날에는 어디 바당에 강 배치도 절엿당 헛덴 헛게 만든, 바당물에도.

107038 # 쫄물에 절엿당도 헛 먹어 놔서. 그리고 우리 역은 후제 흐쫄 그자 헤  
낫주.

107038 @ 응, 소금이 귀해서 그런 거?

107038 # 소금이 귀해서신디 어땡, 소금에 안허영 그자 저 쫄물에 가근에 누께  
통,누께통 허멍 둥글랑하게 조금에 쫄물이 골라이.

107038 @ 응.

107038 # 물 저 들어오지 안허난, 나가도 들어오도 안허난. 그디 강 탁 허게 돌  
지들랑 둥강 놔두민 누물이 늘씩 죽어.

107038 @ 그거 무신거? 누께통?

107038 # 누께통이엔 허멍, 둥글랑행 물 골르는 통이 있어. 쫄물 나가도 들어오  
도 안형 골라잇는 거.

107038 @ 돌멩이에?

107038 # 응, 돌멩이 딱 지들라, 누물 쟁,

107038 @ 아 느껴통은 거난,  
 107038 # 쫄물 굴라 잇는 거.  
 107038 @ 아, 물 빠질 때 빠지지 안허곡?  
 107038 # 느껴가질 안허는 거. 경헌 통에 강 이틀만 놔두민 느껴물이 싹 죽어. 게  
 난 소금 하영 들이지 말젠 강 죽여오는 거. 소금이 어려우니까.  
 107038 @ 아.  
 107038 # 이제나 소금도 혼전헛주, 옛날엔 소금도 어려왔어이.  
 107038 @ 게난예,  
 107038 # 경허난.  
 107039 @ 열무김치.  
 107039 # 열무김치도 이제사 열무김치주. 우리 두린 땀 열무김치 엇어났어. 그자  
 무수 헤영 그자 소금에 버물엇당 그자 고춧가루 그자 마농 그것 놓민 것이 김치라  
 이. 경헿 먹엇주. 이제 하간 양념 이시난. 열무김치여 뭐여 헛주. 열무가 어디서서.  
 옛날에.  
 107040 @ 물김치도 헿 먹어났수과? 옛날에?  
 107040 # 물김치, 무수 짹짹 알뜰게 가까근에.  
 107040 @ 응.  
 107040 # 알뜰게 가장 소금 흐솔 절엇다근에 물낭, 놔두민 흐끔 새코롬 허민 그  
 것이 물김치라.  
 107040 @ 아 건 이제사 먹는 거 아니고 옛날도 헿 먹어난?  
 107040 # 옛날에도 헿 먹언.  
 107040 @ 음.  
 107040 # 옛날에도 헿먹언, 옛날에도 우리 그자 무수 요신 몽글락허게 썰주만은  
 옛날엔 막 얹게 얹게 썰어근엔에.  
 107040 @ 응.  
 107040 # 소금 약간 헤다근에, 물 낭 놔두민, 베끗디 놔뵤 흐 이틀 놔두민 새코  
 롱헤여.  
 107040 @ 응.  
 107040 # 새코롬 허민 그것이 물김치라.  
 107041 @ 아, 동지김치는?  
 107041 # 우리 동지미김치는 안 헤났저. 동지미김치는,  
 107041 @ 동지미 말고 동지. 느껴 동지 산 거.  
 107041 # 아, 느껴동 산 거.  
 107041 @ 응.  
 107041 # 그런 김치 우리 안 헤먹언 난.  
 107041 @ 안헿 먹어난? 응.  
 107041 # 그자 거 느껴동 꺼꺼당 숲아먹는 거 그거 좋아 헛주. 숲앙 그자 웅장에



그자. 견디 이젠 이 느물동도 꺼꺼당 김치허면 경 맛있어.

107041 @ 예예,

107041 # 옛날엔 경 느물동 세우곡 무시거 허곡 헐 느물이 어디서서. 쫓쫓.

107042 @ 하하하. 이번에는, 늪빼김치. 무수김치?

107042 # 무수김치는, 훑게 벌렁 이만씩 이만씩 넓게 벌러이. 배추김치 헐 때에, 이만씩 넓게 두끈두끈허게 벌러근에 딱딱 소금 헛다근엔에 배추김치 헐 때 혼 징 혼 징 놔. 이 무수를.

107042 @ 아,

107042 # 혼 징 혼 징 놔두민 봄 나가민 그놈의 무수가 쿠승허여이.

107042 @ 응.

107042 # 쿠승헌 내 나.

107042 @ 응.

107042 # 엇영 못 먹어, 막 쿠승헌 게 맛좋아.

107042 @ 거난 저 배치김치 허는 사이에다가?

107042 # 응, 배추 혼 징, 혼 도리 이거 무수 소금에 질엇당 양념 엇이 그 놓민 그 배추김치 양념물이 들어.

107042 @ 들어.

107042 # 들엇당, 봄 나가민 먹으민 그렇게 맛이 좋아. 쿠승헌게. 내놓으민 쿠승헌 내가 나. 옛날에. 게민 먹어놋저.

107042 @ 따로 늪빼만 행 김치 안허고?

107042 # 늪빼만도 행 김치 해. 양념 그자 마농허곡 고치 그자 그것만 행, 그자 메리치 국물 흐쓸헤영 버물영 딱 담양 먹어.

107042 @ 깍두기 같이?

107042 # 지금 깍두기 ㄴ치 딱 담아근에, 통에 담앗다근에 봄 나민 그자 익으면 쿠승헌 게 먹어져. 경 행도 먹곡, 배추김치 새새에 낡도 해 먹곡.

107043 @ 파김치는?

107043 # 파김치는 그자 메리치시난, 헤영 먹어. 메리치허곡 그자 옛날에 뭐 양념 엇이 그냥 메리치 딸린 거 허곡, 메리치 딸리당 생 메리치.

107043 @ 응.

107043 # 그것에 그자 고춧 ㄴ루 흐쓸 농곡 마농 농곡 헤영, 그자 그거.

107043 @ 응, 패마농?

107043 # 응, 패마농 김치는 먹어. 또 대신이는 이젠 베랑 대신이 김치 헛자 베랑 먹어지지 안허여도. 옛날엔 대신이 딱 요만씩 쫓라. 짬랑, 간장 깨우멍.

107043 @ 응, 건 마농지 아니?

107043 # 마농지, 경행 먹어져.

107043 @ 김치가 아니고,

107043 # 김치가 아니고, 이젠 그건 먹어지지 안허여 난.

107044 @ 드룻마농도 김치행 먹읍니까?

107044 # 드룻 마농 헤다근에, 짠물에 확 절엿다근에 혼 며틀 놔두민 그냥 시그름 헤여 이놈이 드룻마농이 이, 시그름 허면 양념 엿어 그건.

107044 @ 아,

107044 # 그 시그름 혼 맛으로 기냥 먹주.

107044 @ 음.

107044 # 시큼헌 맛으로.

107044 @ 음.

107044 # 그자 소금에만 특 허게 헤영 절영 흐끔 삭삭 버물영 놔두민 혼 며틀 웨민 이 봄 나가민 드룻마농은 시큼헤여, 어이에 시여. 겨민 그 시큼헌 맛으로 그냥 먹어.

107044 @ 아, 뭐 안 놓꼬? 고춧ㄹ루 거 안 놓곡?

107044 # 응 고추ㄹ루 안놔. 이젠 드룻 마농도 고춧ㄹ루니 뭐 막 양념냥 부병 먹는다 옛날은 경 안허여.

107044 @ 응,

107044 # 고춧ㄹ루가 어디시냐 시크름 허민 그냥 건져근에 물에 그냥 먹엇주.

107045 @ 옛날에도 갓김치 행 먹영 낫수과? 갓늬물?

107045 # 갓늬물 김치 갓김치에 행 옛날에는 그것도이,

107045 @ 예.

107045 # 그 갓김치도, 요신 갓김치에 헨 늬물 죽여근영에 막 양념허잖아. 경 안허여.

107045 @ 예.

107045 # 우리 어릴 때 허는 거 보민 우리 어머니네 허는 거 보민 갓김치, 갓김치 허명 늬물을 캐다근에 똑 요만씩 즈질이 썰어.

107045 @ 예.

107045 # 썰어근에 저 오가리 쪼끄만헌 오가리에다가 그걸 냥 물 팔팔 끌렁 팍 그리 비우는 거라.

107045 @ 물을?

107045 # 응 폴폴 끌인 물 팍 허게 낫다근에, 듯날 아침인 그 물이 식은 듯날아침인 두께 확 열민 매운 내가 확 허민 코가 썩 헤여.

107045 @ 허허허, 예.

107045 # 겨면 우리어머니네 보민 그것에 소금 흐졸 냥 근 맞쳐근에 혼 이틀썩 놔두민 새코롬허민 그냥 그것이 경 맛좋아. 요샌 갓김치.

107045 @ 응, 아무것도 안 놓곡?

107045 # 응 아무것도, 양념 안 놔.

107045 @ 그, 그 뭐,

107045 # 소금만 행 간만 맞춰.

107045 @ 고춧가루 ㄹ튼 것도 안 놓곡?  
 107045 # 안 봐, 요즘은 갓김치 절엿당 온갓 양념 다허영 허잖아이.  
 107045 @ 예예,  
 107045 # 건디 그것이 안 허영 경혜영 그자 물에 그 시그름헌 물에 그것에 헤영 먹으민 시원헌 게 경 맛좋아 나서.  
 107045 @ 음.  
 107045 # 어떤 땀 그걸 흥번 행 먹어보카 허당 실평 못행 먹어, 것도.  
 107046 @ 새우리도 김치행 먹어났수과?  
 107046 # 새우리도 헤연. 새우리두 이제두 절엿다근에 새우리김치 허젠 허민, 절 엿다근에 고춧가루 그자 대충은 이 파김치나 새우리김치나 옛날에 헤 그자 이 저.  
 107046 @ 응.  
 107046 # 멜치 젓, 생메리치 젓 그것 국물 딸라놓곡, 고춧ㄹ루 흥쌀 놓곡 마농 놓곡 허민 그자 경허민 그것이 김치야.  
 107046 @ 응.  
 107046 # 새우리든 파든 윈 벨 양념 엿이 행 먹엇어. 옛날엔.  
 107046 @ 응.  
 107046 # 요새는 하간 것 이거저것 헤도. 그자 늘멜젓 그거 국물 딸라놓곡 고춧 ㄹ루 흥쌀 놓곡,  
 107046 @ 응.  
 107046 # 파나 저 새우리나 소금에 절이지 안허여.  
 107046 @ 응.  
 107046 # 그냥 그자 그 멜젓에 절여근에 기자 고춧ㄹ루 마늘 그자 그거 백사 놓 민 경행 그자그거.

### 젓갈

107048 @ 옛날에 저 자리젓, 멜젓 이런 것 젓도 담강 먹어났지예?  
 107048 # 헨 먹언.  
 107048 @ 주로 자리젓, 멜젓?  
 107048 # 자리젓을 하영 헤여. 자리젓 허민 큰 춘이춘이 허멍 옛날 술춘이 잇어 난거 부리 요만은 헌 것에 우리 어머니네 보민 겨울반찬이 그거라. 흥 두 춘을 잡 는 거라. 자릴 흥 요남은 만씩, 경혜근에 자리젓이 겨울엔 반찬이라.  
 107048 @ 응.  
 107048 # 그거 잇다근에 고기 못 사다근에 고기국 못 끌릴 땀 그 자리젓 일어놔 근에 ㄴ물 이파리난 국 끌리민,  
 107048 @ 건 무신국이엔 곱아?  
 107048 # 자리젓국.  
 107048 @ 아, 자리젓국.

107048 # 젓국, 젓국허멍, 그것냥 국 끌리민 맛이 있어 기영. 또 자리젓에 무수썰 영 소금에 버물엿당 그 자리젓에 서경 딱 허게시리, 또 춘이에 담양 놔두민 그 무수가 또 벌겁게 익으면 맛이 있어, 또.

107048 @ 아!

107048 # 자리젓에 서경 놔두민.

107048 @ 그건 무신거엔 곱아? 케민?

107048 # 건 무시거엔 안 곱아. 그냥 자리젓 그자 무수, 그자 그거주 뭐. 무신 무수 김치엔도 안허곡 그자 자리젓 거리레 가민 자리젓에 그 무수 ㄱ치 거려 냥 먹는 따문에.

107048 @ 아.

107048 # 경헛당 떡곡.

107049 @ 그믐 자리젓은 담그젠 허민 자리에 허고 소금은 열만이나 놓는 거파? 자리 혼 말 허민 소금은 열만이냐?

107049 # 자리 혼 말에 소금 혼 돼 들어가.

107049 @ 혼돼.

107049 # 응. 계난 요새에 사 키로민 소금 일 키로 놓렌 현 게 그거라이.

107049 @ 응,

107049 # 겨난 옛날 어른들도 너 돼민 소금 혼 돼라이.

107049 @ 응.

107049 # 자리 너 돼민 소금 혼돼 넣는 거라. 경 해서 근 맞히주, 경 안허민 짜. 너무 싱거와도 안 돼곡, 짜도 안 돼곡,

107049 @ 이거 영 버물엿 놔뒀왕 혼 메칠이나 지나사 먹어지는 거파? 자리젓은?

107049 # 혼 들 이상 돼야.

107049 @ 아, 혼 들 이상.

107049 # 자리가 혼 들 이상 돼 가민 자리가 벌겁 헤가지. 벌겁헌거 영 두께 열면 코송헌 내가 나. 자리 잘 췌 거.

107049 @ 아.

107049 # 어디 벳디 놔두민 고려비영 안돼곡, 그늘에 놔사.

107049 @ 아. 그늘에.

107049 # 그늘에 놔야 돼.

107049 @ 뚜껍은 딱 더깁 내불어사돼?

107049 # 아이구 더꺼야지. 벌거지따문에.

107049 @ 아.

107049 # 쉬프리가 어떻 이는지 몰라. 아이구 부리 잘 싸지 안허민 어떻 천으로 싸도 냄새 나민 이 우에 오랑 버랭이 싸비어. 쉬프리가.

107049 @ 아.

107049 # 경헌 따문에 버랭이 가냥허기가 어려워.

107050 @ 멜젓도 혀는 거?  
107050 # 멜젓도 마찬가지로. 똑ㄴ타.  
107050 @ 소금도 똑ㄴ트고?  
107050 # 응 똑ㄴ타.  
107050 @ 거난 주로 자리젓 행 먹곡, 멜젓도 허곡?  
107050 # 멜젓도 허곡, 자리젓.  
107050 @ 멜젓은 계난, 자리젓은 반찬으로 먹는 허곡, 멜젓은 김치허젠 혀는 건가?  
107050 # 멜젓도 반찬으로 먹주만은 대충은 김치용으로 다 혀여. 많이 안헌다. 김치용으로 혀여.  
107050 @ 김치용으로 예.  
107050 # 그자 멜젓 딸려근엿에, 허주 멜젓 딸려근에 그 물 서꺼근엿에, 양념 만 들양 허주. 경허난  
107050 @ 혹시, 그.  
107050 # 겨난 멜젓은 하영 안혀여, 그자 김치 혀 먹을 만큼.  
107051 @ 그 바닷고기 아가미, 아가미 젓 헤근에,  
107051 # 아가미젓 혀는 거, 갈치아가미.  
107051 @ 아, 갈치아가미?  
107051 # 갈치아가미젓이주, 다른 건.  
107051 @ 다른 건 안혀여?  
107051 # 아니, 저 고등에 아가미.  
107051 @ 아, 고등어도 합니까?  
107051 # 그거 혀쓸 젓행 먹단이, 이 몸에 좋지 안헌 중 알아가난 별로 안혀여, 맛은 잇는디 안혀여.  
107051 @ 그럼 옛날부터 행 먹은 거는 갈치?  
107051 # 갈치아가미, 그것에 또 준준헌 갈치가 잇어이.  
107051 @ 예,  
107051 # 이건 요멘씩헌 갈치가 올라와. 그런 거 막 즐겨 썰엿,  
107051 @ ㄴ치 썰엿.  
107051 # 응 ㄴ치 썰어놓곡, 갈치 아가미젓  
107051 @ 그건 옛날도 갈치 아가미젓이엔 곶아수과? 다른말로 안 곶아?  
107051 # 아니, 갈치아가미젓.  
107052 @ 아, 쟁이도 젓갈 담가? 젓, 쟁이젓 이런 거 혀? 이제는 막예 게젓.  
107052 # 이제는 쟁이젓이여 뒤여 헛주, 옛날은 쟁이젓 행 먹어 놔지 안혀연.  
107052 @ 아니 쟁이헌 쟁이 간장에 담가근에.  
107052 # 아 잇당 쪼끔 간장에 등갓당 놓는 거, 쪼끔.  
107052 @ 아, 쪼끔?

107052 # 조금조금허주 기영 하영 안허여. 이제도 혼엇이 저, 거시기 훑은 그 뽕  
갱이나 잇주 이디 갱이젓 현 거 맛 엇어라.

107052 @ 아,

107052 # 나도 혼번 먹어봐서. 이디서 그 갱이젓, 갱이젓 허멍 헤영 먹어보난 맛  
엇어.

107052 @ 응.

107052 # 그거는. 그거 그자 늘차 백사근에 죽 썬 먹는 거 잇어이. 갱이도. 잡아  
당.

107052 @ 갱이죽?

107052 # 갱이죽도 썬 먹어 물짜근에, 물 짜냥 죽 썬먹어. 겨울에.

107052 @ 예.

107052 # 국도 끌려 떡곡. 메역좌근에 국도 끌려 떡곡, 죽도 썬떡곡.

107052 @ 아 갱이도,

107052 # 겐디 요 갱이죽은 이, 곤솔엔 맛엇어.

107052 @ 게민?

107052 # 좁솔에 낱 쏜 게 맛엇어.

107052 @ 아, 이것도?

107052 # 요것도 태운 것씩 다 잇어,

107052 @ 게난,

107052 # 좁솔에낱 쏜 건 맛이 잇는디, 곤솔에 낱 쏜 건 맛이 엇어.

107052 @ 갱이죽 혈 뎀 좁솔에예?

107054 @ 출레가 무신거짜? 출레?

107054 # 출렌 그자 장ㄱ라도 출레엔 허곡, 그자 무신 좁아 먹는 거 메리치 ㄱ튼  
것도 출레엔 허곡, 저 짠 것 곁아 출레엔 허곡 출렌 별로 탄 거 아니.

107054 @ 아니 이젓 말로 그냥, 이젓 사람들은 우스개로 반찬이 출레고 출레가  
반찬이주 영 허는디,

107054 # 맞아, 그거, 반찬이 출레고 출레가 반찬 말이 맞추게. 그자 장ㄱ라도 무  
시거 영 야 저 장이라도 흐솔 아져오라. 무시거 윈 이거 무신 출레 엇이 먹어지키  
냐? 영행 저거 윈 저 출레가 잇어사주. 게 장이라도 놓민 그자 그거지.

107054 @ 응,

107054 # 장이 출레고, 출레가 장이주 윈.

107054 @ 아니 이런 젓갈이나 저기 간장 같은 거만 출레엔 안허곡,

107054 # 안허곡.

107054 @ 반찬 다?

107054 # 다 출레, 옆이 논 거면 출레.

107054 @ 아.

107054 # 옛날 말이주, 요신 앳다 반찬도 많다 영허주만 옛날은. 이거 뵈에 밥떡

을 거냐, 출레 엇이 밥 먹을거냐? 영 허주.

107054 @ 아 경 글아?

### 장아찌와 회

107055 @ 게민 이번에는 마농지, 지시 담그는 거는 마농지 말고 다른 것도 해나 수과? 주로 마농지?

107055 # 우린 마농지만 듣가 먹어나난 다른 거 허는 건 몰라.

107056 @ 마농진 어떻 행은에 만드는 거짜?

107056 # 마농지는 영 보민 너미 세어도 맛엇곡, 너미 연해도 맛엇곡 허난, 부럭 사기 전에 해당,

107056 @ 응.

107056 # 요만큼씩 잘라이, 찰라근엥에 장물 꿩와.

107056 @ 응.

107056 # 꿩와근엥에 소금 아니헤근에 장물만 꿩왕 장물 식거들랑에 그거 저 마 농 지시들에 놔,

107056 @ 응.

107056 # 마농 졸른 것들에 놔. 혼 한 오일이나 혼 일주일이나 잇당 또 그 장물 을 또 딸라.

107056 @ 예.

107056 # 이제 차롱착 바타근에, 툇 받으면 그 장물이 딸라져. 게민 장물을 두 번 체암허곡 또 두 번허곡 세 번을 꿩왕 놔사 제라허게 간이 맛앙 맛이 돌아오는 거. 마농지 허는 건.

107056 @ 아, 세 번이나 딸랑 끌렁 또 놓곡, 딸랑 끌렁 또 놓곡.

107056 # 경행 그거 체암이 현 거 딸라근에 또 꿩왕 마농 그 장 식건 또 놓곡.

107056 @ 아 식으면?

107056 # 응 식건 또 혼 오일이나 육일이나 잇당, 또 건저근엥에 그 물 또, 겨민 마농내 나지 말렌게.

107056 @ 응.

107056 # 경혜영 그걸 놓아근에 장물만 놓주 다른 건 안 놔.

107056 @ 아까 그거 대산이?

107056 # 응. 대산이.

107056 @ 대산이 마농?

107056 # 응, 경행 먹젠 허민 양념형 먹젠 허민 고춧루나 쪼끔 서경 떡곡 꿩루 루 흐쉴 서끄곡. 경 안허민 기냥.

107056 @ 마농지가 주로 반찬이엇주예? 옛날에예?

107056 # 응, 예전엔 주로 마농지야.

107056 @ 그 여름에 반찬.

107056 # 요새에 마농지 허는 건이 또, 제기 먹젠 허는 사름은 또 요만씩 쫄라.

107056 @ 아, 짝게?

107056 # 응 요만씩 요만씩 요만씩 쫄라 놔근에, 매실이니 설탕이니 뭐,

107056 @ 식초.

107056 # 식초니 낱 끌려근에 그건 금방 해영 금방 먹어. 오늘 해 놓민 널 먹어 그냥.

107056 @ 널 먹을 수도, 응응.

107056 # 그건 오렌 먹지 못해, 시어.

107056 @ 응, 건 이제 허는 방법이교예?

107056 # 건 쉽게 해영 쉽게 먹는 거꼭 놔둬 새, 여름내 낱 먹젠 허는 건, 딱 요만씩 질게 쫄라근에 간장을 세 번을 깨와 그거. 딸라근엔에 꿩왕 식영 또 놓곡 또 놓곡 허민 여름내 가도 벤허지가 안해. 임시 먹는 건 임시 확허게 행 먹곡.

107056 @ 게 마농지 말고도, 유섭이나 뭐 파초나 몹이나 양에나 이런 것도 지시 행 먹어?

107056 # 양에 지신 우리 안행 먹어봐져. 경헌디 잇당 영 혼번이나 헛 거 먹어보민 양에지신 맛이 엇어. 맛이 엇어난 원 해영 또 요새라도 양에지 헛 먹는 사름도 별로 엇고. 양에진 엇어엇어.

107056 @ 깟입. 깟입도 지시헛 먹는 거 아니?

107057 @ 이번에는 휘, 자리휘 방어휘 이런거 휘. 이제사 휘 행먹는 건가? 옛날엔 휘 안행 먹어나수과?

107057 # 요즘은 이,

107057 @ 응.

107057 # 아니 옛날도 먹긴 먹어도, 이치룩 내어 놔근에 막 영 뭐 어디 식당이여 뭐여 헛 먹어보지도 안허곡, 이 잔칫 때 ㄱ튼 것도 저런 휘 ㄱ튼 거 우린 먹어보진 안헤연이. 이건이 이 큰일 때 헤난건 몇 년 안뵈. 혼 삼년, 경베끼 안 뵈 이디. 경헤신디 그냥 우리 자리휘 ㄱ튼 거 물헤론 우리 가정에서 느랑 행 먹어.

107057 @ 물헤 말고 그냥.

107057 # 그냥 그자 무시거 방어사,

107057 @ 응 방어휘,

107057 # 방언 우리 이디서 안나난, 그런 건 안 먹곡, 그냥 히어뜩헌 고기 사다근에 그냥 휘 떠 먹어. 이녁냥으로.

107057 @ 어렝이라도 휘 떠 먹어?

107057 # 어렝이도 휘 떠 먹곡, 조기도 사다근에

107057 @ 오.

107057 # 겨울에 나는 조기 잇잖아. 이 바당에서 나는.

107057 @ 예예예,

107057 # 그런 거 사다근에. 그런 것도 휘 떠 먹곡. 또, 허품젠 허멍 그 저 무신



거니 아구리 막 큰 거 있어.

107057 @ 응.

107057 # 아구리만 크꼭 베땡이 똥글랑 요만헌 현 거, 그런 것도 혜근에 휘 떠 먹곡, 휘 떠 먹는 건 아무라도 휘 명 먹어. 이녁냥으로 흥명 먹어.

107057 @ 옛날도 행 먹어 낫구나예.

107057 # 옛날엔 그런 거 휘 떠 먹지 안허연. 우리 두린 땡,

107057 @ 아, 그런 건 행 먹진 안허연.

107057 # 이녁냥으로 이제 혜 먹어가난 혜 먹엄주, 옛날엔 그런 거 휘 떠 먹어보지 안허연.

107057 @ 새끼, 새끼돼지 휘?

107057 # 응. 새끼돼지 휘들도 행 먹어,

107057 @ 응,

107057 # 행 먹는다 우린 비우에 맞지 안허영 못먹언.

107057 @ 아,

107057 # 먹는 사름들은 막 잘먹어.

107057 @ 응,

107057 # 그거 허면은 속이 답답헛다근에 그거 가민이 속이 싹 혜친덴 헤여 그건. 이 속병 잇인 사름들이.

107057 @ 응,

107057 # 시원헌 게 그걸 먹으면 현데 혜도, 난 노시 먹질 못허여. 받천에.

107057 @ 계난예,

107057 # 그 핏내 나난에 우트레 받치명 먹질 못헤는 거라.

107057 @ 그건 저 얘기, 새끼 도새기 나기 전이 거지예?

107057 # 새끼, 새끼 낫기 전에, 꺼럭 돋기 전에 거.

107057 @ 아,

107057 # 꺼럭 안 돋은 때에 보민 요만헌 저 새끼.

107057 @ 어멍 뱃 소곱에 이신거?

107057 # 뱃속에 신 거 도새기 잡아 놓민 요만헌 거라, 요만헌. 요축 현 거 해당 먹어도, 난 못 먹어.

107057 @ 나도 못 먹을 거 닻다.

107057 # 못먹어, 그것도 혜 놓은 거 나왕 강 먹으면 모르카, 그거 베령은 또 못 먹어.

107057 @ 계난이, 못 먹을거 닻아.

107057 # 베령은 못 먹어. 요센 잡는 디서 확확 곱아 내어봐부난 몰라도, 양념이 영 다행 내봐, 견디 난 먹어보젠 허난 핏내 나난이 복장이 늪 닻지 안헌그라 못 먹언.

107058 @ 그 뭐 우럭 조림이나, 고사리 무침, 뭐 호박 무침 이런 것도 반찬 행

떡주예?

107058 # 응, 호박도 게 헤어근에 무시거 그자 께ㄴ루여 뭐 마농이여 무시거여  
파여 뇌근에 삭삭허게시리 버물영 양념으로 버물영 제스때엔, 고치 마농을 안 들어.

107058 @ 음.

107058 # 딱 기름허곡, 께ㄴ루는 허쳐도, 고치ㄴ튼 거이 마농ㄴ튼 건 안 아정 텡  
겨.

107058 @ 호박도 게난, 식게 때.

107058 # 호박도 채소로 들어가. 채소에 들어가. 고사리나.

107058 @ 아, 고사리도예?

107058 # 고사리, 콩노물은 요거 채소에 들어가. 무수도 채소에 들어가곡. 경허는  
디 이 마농ㄴ튼 거는 안 아져 텡겨. 마농 ㄴ튼 건.

107058 @ 평상시엔 마농도 놓곡, 식게 때는 안 놓는 거예.

107058 # 식게때는 안 놓곡.

### 장 담그기

107059 @ 이젠 웬장 담글 거예, 웬장은 언제 담급니까?

107059 # 웬장 이제 안직은 콩이 안 나왔어. 여기서이, 이 콩 나오민 이거 저, 양  
력으로 일월월에. 일월월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시월 아니?

107059 @ 응.

107059 # 시월이난에, 시월 십일월 그물어 강, 양력으로 십이월.

107059 @ 응.

107059 # 십이월월에 좀 이 콩이 나와, 나오면 그거 솥아근에.

107059 @ 예.

107059 # 이디서도 그걸 솥양 메줄 만들어야 웨어.

107059 @ 예,

107059 # 메줄 만들양 키우젠 허민 혼 이월들이나 나사 양력으로 이월들이나 나  
사 장 등가.

107059 @ 아, 메주는 이제 콩 나민 그걸로 솥양 메주허곡, 그거 헛다근에

107059 # 솥아근에, 메주허영 티와사 하는 따문에,

107059 @ 장 담그는 건 이월뉘서예?

107059 # 이월 양력으로 이월이주, 음력으로는 선들이라이,

107059 @ 아, 음력 선들예?

107059 # 응. 음력 선들에 그물어 가민 새해 나기 전에 장 됴금이라고 이디 사름  
들은이 아이고 정월 나기 전에,

107059 @ 멩질 나기 전이?

107059 # 응, 정월은 상들이라고 그뉘에 됴지 말앙 묵은혜 담젠 허민 선들 구물  
어 가민 막 장 됴음들이 난리주.

107059 @ 음.

107059 # 그자 소금 글멍 장들 그자 돕가가멍 막 난리여.

107060 @ 웬장 고추장 말꼭, 웬장하고 간장 주로 허는 건 그거잖아예?

107060 # 그것에서 간장 빼는 거, 그것에 물낱 컷다근에 그거 메주 콩 우러나민 그거. 그거 간장 빼뒤근에 그걸 막 또시 또 그 메주 멧 개 냉것당 그거 또시 줌질이 뺏앙 서꺼근에, 딱 문영 놔두민 웬장이 별경헤여.

107060 @ 응,

107060 # 경허민 그거 웬장 만드는 거.

107060 @ 응. 게난, 저 선들 돼기 전이 간장, 웬장을 메주를 꺼내야 뿔 거 아니예? 꺼낸 따로 놔?

107060 # 아니 메준 기냥 꺼내멍 말멍 기냥 영헌디 돌아메영 티우는 거난,

107060 @ 응응,

107060 # 티우는 거난 그자 음력 선들만 나민, 음력 선들이민, 양력으로 1월될 뿔 건가? 1월,

107060 @ 2월.

107060 # 2월 돼지이?

107060 @ 1월 말이나 2월, 예.

107061 # 응, 그때 돼가민이 묵은해도. 음력으로 선들은 정월 내우지 말앙 묵은돌 장 돕젠 막 허주게.

107061 @ 응.

107061 # 저 상들에 장 돕지 안헌덴 허멍 막 그자.

107061 @ 그른 메주 키와나민 그거를 물에 담그는 거?

107061 # 응, 티왕 물에 담그는 거. 시정.

107061 @ 소금은 얼만이 놔야 됩니까?

107061 # 소금 놔사게. 소금이, 요것이 열 뿔에, 아니라. 으답 뿔에, 소금 흔 뿔 들어감서.

107061 @ 콩 으답 뿔에 소금 흔 뿔?

107061 # 물 으답 뿔에,

107061 @ 물 으답 뿔에, 소금 흔 뿔. 음.

107061 # 경 들어가.

107061 @ 쟁 그 소금을,

107061 # 응 소금물 곱아근에, 소금물 곱앙 놔두민이 꺾이 거멍헌 꺾이 곱아 앓아.

107061 @ 아.

107061 # 그럼 오늘 곱앙 널 널 저녁쯤 뿔사 물이 곱닥허게 곱라지민 거 소로로 허게 뿔라근에.

107061 @ 음.

107061 # 장애 돕주, 경 안허민 그 소금에 펄이 있어  
107061 @ 아, 응.  
107061 # 거멍 현 흑 닳은 거.  
107061 @ 응.  
107061 # 그냥 골명싸라 놓민 막 그 펄. 경헌 때문에 골아근에 소금물 골양 놔두민, 영 골양 오래 놔두민 이디 막 그 흑 닳은 물이 거멍현 물이 쪽허게 골라앗아. 겨민 그 물 툐라놔.  
107061 @ 소금물 가는 건 그냥?  
107061 # 그냥 물 낱 영영 휘휘 젓어 놔두민 소금 문 녹주게. 겨민 소금물 문 녹주게, 녹으민 그디 펄이 문 골라앗아. 늣이 골라앗아. 겨민 곱닥헌 물만 소로록 허게 툐랑 메주 들이청 육지 사름들은 막 숯 잇잖아이,  
107061 @ 예예예,  
107061 # 숯이영 고치여 문 들이치지만은 이디는 그런 거 엇어.  
107061 @ 아,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놔?  
107061 # 응, 아무것도 안 놔.  
107061 @ 아, 그냥 소금물 허곡,  
107061 # 소금물 허곡, 메주만 들이청 딱 놔두민, 두께만 더꺼근앵에 놔두민.  
107061 @ 음, 그거 비 들어 가민 안뵈니까예?  
107061 # 게, 군물 들영은 안뵈.  
107061 @ 그른 어뎡 잘 가냥헤야지.  
107061 # 장탱이 더꺼야 헤여. 우에.  
107061 @ 우에? 응  
107061 # 응.  
107061 @ 형겼으로 영 싸?  
107061 # 험벅으로 싸놔근에 또 등글게 말앙 험벅으로 쌍 우트레 저 두께이 더퍼야 뵈여.  
107061 @ 어, 그게 장탱이?  
107061 # 응 장탱일 더꺼야 헤여. 무사 그 테레비 보민 장탱이 안 더끄나? 더꺼야 허지.  
107061 @ 거난, 날 좋으민 열엇당, 예  
107061 # 흐쌀 열어 쥐야 헤여. 짐 나야 뵈여, 벳디 놓민 더운 짐이 뜨끈뜨끈 허민 장이 변헤여.  
107061 @ 아,  
107061 # 게난 짝끔 쫓끔, 들렁 짐 나게.  
107061 @ 아. 날 존 날은 흐끔 열엇당,  
107061 # 흐쌀 열아 주어사 뵈여, 게난이 요즘 장 뚜경 나오는 거 보난이, 똑 영 현 바위에 둔게시리 나왔더라. 챗망 ㄱ치 이젠 고펡 베롱베롱허게 나오게 현에 툐

허게 더퍼 놓는 거 나왔더라.

107061 @ 이젠 안 열여져도 돼게이?

107061 # 이젠 안 열어도 돼게. 글로 공기통허게.

107061 @ 경헝 헤 놓민 언제쯤에 먹어져?

107061 # 아 먹으른 혼 들만 웨어가민 장이 색져가 나와, 장물이 까망헤 가.

107061 @ 음, 거난 웬장 또로 간장 또로 낫뒷당?

107061 # 경허민 요거,

107061 @ 혼 달 정도 지나면?

107061 # 요거 우리가 혼 들 정월 혼 들, 이월, 이월 혼 이십일만 웨민 장 딱 갈라, 혼들 반이 혼쓸 넘어가민. 그땐 갈라. 장 갈라.

107061 @ 장을 갈라? 웬장 허고,

107061 # 웬장 또루, 간장 또루.

107061 @ 갱 갈랑, 그 다음부턴 먹어져?

107061 # 게, 그 다음에사 먹지게.

107061 @ 갈라나민 먹어지는구나예.

107061 # 그 전이도 먹긴 먹는다, 그거 장 자꾸 거려나민 간장 빼기가 어려워, 문 카져.

107061 @ 아,

107061 # 웬장이 개미가 웬장이 카져불민 장물 빼기가 굿이난, 거찌지 안 헛다근에 그때 삭허게 메주 툃툃툃툃 손으로 건져불민 장물만 싹 빼져.

107061 @ 아.

107061 # 경헝 간장 빼도근에, 그거 따시 막 무르껴근에 웬장 개미 그 메주를 문 안 듭강 세 개나 네 개나 넘겨이. 넘겼당 그거 막 뵈앙 따시 그 장물 빠난 것드레 따시 막 서껴,

107061 @ 아,

107061 # 서경 딱 지들랑 혼 들만 시민 장이 별경 웬장이 별경헤여.

107061 @ 음.

107061 # 그땐 먹는 거.

107061 @ 아 거난, 다 장물에 담그는 게 아니고?

107061 # 응 멧 개 넘겨.

107061 @ 아 멧 개 넘겨.

107061 # 멧 개 낫당은에 그 장물 갈라나민 그것에 딱딱 뵈아근에 서껴. 서경 놔두민 별경허게.

107061 @ 그거그거 아까 그거 무신거? 장물개미?

107061 # 웬장.

107061 @ 웬장개미? 그건 웬장개미엔 험니까?

107061 # 응.

107061 @ 장물에 안 들이친 거?

107061 # 장물에 안들인 건 웬장, 장물에 들이쳐진 건, 저 저 장캐미. 장캐미 강 건져오라.

107061 @ 아, 장캐미!

107061 # 웬장캐미가 아니고 장캐미.

107061 @ 장캐미! 이것이 장물에 담갔던 웬장예? 아니 장물에 놔둔 메주?

107061 # 그냥 따시 장물 갈랑 그냥 헛 댐, 웬장 거러오라 영 헛주만은, 그 간장 물에 신 때 강 거러오젠 허민 저 장캐미 강 하나 거러오라.

107061 @ 아, 그건 장캐미.

107061 # 응, 장캐미 강 하나 거러오라. 경헛주 옛날엔.

107061 @ 응 장물에 잇는 메주.

107061 # 응. 그거는 강 웬장 거러 오렌 허젠 허면, 웬장을 만들어 놔야 웬장인 디게 경허난 강 장캐미 강 건정 오라.

107061 @ 게민 아까 저 메주 장물에 안 담근 메주는 뭘엔 굳는 말 이수과?

107061 # 그거는 그자 메주.

107061 @ 그냥 메주 응.

107061 # 그냥 메주. 메주 뺏아근엔에, 그 웬장 장 갈를 댐 그것에 따시 뺏앙 서 경 딱 놀렁 놔둬사.

107061 @ 무신걸로 놀러?

107061 # 그냥 손으로 꼭꼭꼭꼭 눌러근에 그 우트레 소금 싹허게 뿌려. 경 안허 민 버랭이 일카부덴.

107061 @ 아.

107061 # 소금 흐살 뿌려근에 딱 눌러근에 놔두민 헛 들만 놔두민 장이 별경헤 여.

107061 @ 응

107061 # 그추룩 허민 그것이 웬장이주 벨 거 아니. 육지사름덜 허는 거 봐 지금 도, 지금도,

107062 @ 메주는 게난 아까, 콩 나민 이제 헛 12월달 돼민 허는 거예?

107062 # 응, 콩나민 솥아근에 그거 이 옛날엔 막 방에로 찍엇지만은 요즘은 비 니루 까풀 잇어어.

107062 @ 예.

107062 # 비루포, 그거 깨끗허게 싹엇당 그것에 낵 블라.

107062 @ 허허허허허

107062 # 콩콩 블라놓민 이견 뭘 콩 문짜허게시리 카지는 거라.

107062 @ 우리 옛날에도 찰리에 담양 막 블라난 거 답수다.

107062 # 응, 옛날에도.

107062 @ 그냥 이 천으로 웬 찰리에 행 낵은에.

107062 # 그건 허젠허민이 발에다 부떠.

107062 @ 아,

107062 # 부떠, 물 뻘직뻘직 나오멍. 발에 부떠신디. 요즘은 그것이 아니라, 비니루 포. 그 비니루 담아낱 거 비니루 비와불민 곱잖아게.

107062 @ 아.

107062 # 겨민 막 그거 물에 시쳐, 멧 번 시쳐비뒤근엥에 팍삭 영 돌아멧 놔두민 파삭 들리민 그거 낫다근에 그것에 담양 즐라메영 뽁뽁 불르민이 그렇게 잘 블라쳐.

107062 @ 옛날엔 그런 거 옛이난?

107062 # 옛이난 방에서 지곡, 아이고 얼마나 얼마나 못전디게 해나시니. 방에서 쳐사.

107062 @ 아 방에서 전? 아 방에서 전? 음.

107062 # 쳐서. 경허민 방에서 진다 허는 게 잘 지어지지도 안허여. 경해도 그거 지어가민 콩이 문 카져. 경 해도.

107062 @ 겨민 다 지어지민 그 다음에 모양 만드는 거라?

107062 # 경허민 똑똑하게 영영영 허민 네모나게 헤영, 영 돌아매어근에

107062 @ 뭘로 영 돌아매는 건 뭘로 돌아매낫수과? 옛날에?

107062 # 찹 잇잖여, 옛날에도 산뒤찹.

107062 @ 아 산뒤찹으로?

107062 # 응, 산뒤찹으로.

107062 @ 겐 두 개? 세 개?

107062 # 두 개도 돌아 맬 거 잇곡, 산뒤찹으로 헤영 즐게 요거 즐게 찹은 거 세 개도 돌아매곡, 경 안허민 두 개. 경헤영 영 돌아매어근에.

107062 @ 겐 메칠이나 돌아매?

107062 # 그거 돌아매영 트는 거 흔 흔 들이나 걸려, 거 몰르멍 트멍. 우엔 튼 거 담지 안허도 소곱엔 문 트멍 물리젠 허민 흔 들이나 걸려. 영헌디 돌아매어근에

107062 @ 경헿 그거 저 장 담그젠 허민 시쳐삽니께?

107062 # 시져야주, 거물거물헌 거 다 시져야.

107062 @ 예, 그거. 허젠허민 막 추운디 물에 강예.

107062 # 응 물에 덤가냥 솔로 막 밀민 퍼렇게 튼 물이 문 나와.

107062 @ 이제사 솔이주만은 옛날 솔 옛이민?

107062 # 솔 옛이민 저 거시기 새 잇잖아이. 새 코똥케 즐라매근에 딱 무꺼근에 딱 즐라비어.

107062 @ 솔 만드는 거구나.

107062 # 응. 경헤영 새 이파리로 허민 영 속속속속 밍기민 새 등채기로 허민 썸으로 허지 말앙 등채기 딱 즐란 무꺼근에, 똑 끈어불민 요 등채기는 흐썸 세거든.

107062 @ 응.

107062 # 술 대신 썰명 잇는 거 경행 헛주. 옛날에 술이 이서?  
 107062 @ 개난 예  
 107062 # 개난. 경행 우리 시지명,  
 107063 @ 이거 장 담글 때 영 허민 안웬다 허는 거 이수과? 무신거 허지 말라.  
 영 행,  
 107063 # 부정빳디 뎡겨난 사름 뎡기지 말렌 허여, 영장빳디.  
 107063 @ 아, 영장빳디 가난 사름. 음.  
 107063 # 경 몸 부정헌 사름 뎡기지 말렌 허곡,  
 107063 @ 아, 건강 안 허민 장이 잘 안 웬덴 허는 거라?  
 107063 # 응 장이 잘 안 웬덴.  
 107063 @ 응.  
 107063 # 몸 부정헌 사름 뎡기지 말곡, 영장빳디 뎡겨난 사름 뎡기지 말곡. 장  
 담그지 말곡,  
 107063 @ 장담그젠 허민예, 그 장 담글 때 무신날에 담그는 날 봐? 무신날 무신  
 날? 득날 말날 이렇게 뭐,  
 107063 # 옛날에는, 옛날에는 날 보명 등갓젠 현디. 요샌 날 그런거 안봐. 아무  
 때라도, 이녁 등그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등가.  
 107063 @ 옛날에 할머니는 무신날에 담가난지 알아지쿠과?  
 107063 # 옛날에 득날. 어느 날산디 득날 허곡, 개날 좃곡 경헤낫저. 메주 슸는  
 것도 오늘 무신날이니? 개날이나 득날이나?  
 107063 @ 아, 개날이나 득날에 슸는 거?  
 107063 # 개날이나 득날이나 경 좃앙 메주도 슸곡, 장 더끄는 것도 쟈디 요신 그  
 런 거 엇어.  
 107063 @ 예, 요샌 그런거 엇어 예.  
 107063 # 그자 아무 때라도 이녁 트명낭 한글만 허민. 메주도 슸곡, 장도 아무  
 때라도 그자.  
 107063 @ 무신 날에는 장 담그면 안웬덴 허는 거 이수과? 뭐 소날이나 뭐 이런  
 뎡 허민 안웬다 뭐 영허는 거?  
 107063 # 몰라, 그런 말은 안 들어 봐시난, 그 말은 안 들어 봐서.  
 107063 @ 아, 그런 말은 안 들어 받예.  
 107063 # 그자, 오늘 무신날이니? 허민 득날, 개날 그거 좃앙 등그는 것 베끼.  
 107063 @ 그거 두 개 좃앙 예?  
 107063 # 그게 두 개 좃앙 등그는 것만 헛주, 쉼날이여 무신 그런 말은 나 들어  
 본디 엇고.

**떡류**

107064 @ 뭐, 그다음엔 이제 떡 할 거예. 떡 떡 종류는 어떤어떤 떡 이수과?



107064 # 절베, 절벤이엔 현 건이, 영영 보병 두 개 낱 딱 놀리는 거라.  
107064 @ 아,  
107064 # 동글랑 영영영영 동그렁 뇌근에 두 개 마주 부청 팍 놀리는 거라. 이건 절벤.  
107064 @ 응. 그다음,  
107064 # 또 그 다음은 확 허게 밀어놔 요추룩 밀어놔 네모나게 영, 영, 네모나게 칼로 찢른 거 그건 인절미.  
107064 @ 아, 건 인절미. 응.  
107064 # 또, 짹하게 밀어뇌근에 또 솔펜이엔 현건 반들, 반들이 솔편이라이. 이거이.  
107064 @ 예.  
107064 # 영 동글랑허게 낱 딱 찢르민 반들똥잖아 그건 솔펜.  
107064 @ 예,  
107064 # 인절미 허고 절벤은 마주 두 개 마주낱 놀린 게 절벤이고,  
107064 @ 예,  
107064 # 그냥 네모나게 현 거는 인절미고 또 반들은 솔펜이고. 그거,  
107064 @ 그리고 친떡.  
107064 # 친떡은 제펜이엔 허는 건 쉬 안 뇌근에이 쉬 안뇌근에 헤영현 떡이 제펜, 또 그냥 친떡은 쉬나근에 현 것은 문친떡. 그거지.  
107064 @ 문친떡?  
107064 # 옛날에, 이제는 그자 친떡 영허주만은 옛날엔, 쉬낱 풋쉬 뇌근에 친건 문친떡.  
107064 @ 오,  
107064 # 옛날 어른들 곱은 말은 문친떡. 또 쉬 아이뇌근에 헤영게 친 건,  
107064 @ 제펜.  
107064 # 제펜.  
107064 @ 주로 예, 주로 이런 떡 이신 거구나예.  
107064 # 응.  
107065 @ 게민 먼저 친떡을 허젠허민 어떻 해야 똥는 거짜?  
107065 # 친떡이엔 현 건,  
107065 @ 아까 문친떡부터 헤보게 예.  
107065 # 문친떡이엔 현 건 시리에 놓양 친 거, 응.  
107065 @ 시리에?  
107065 # 시리에 놓양 치젠 허민이, 저.  
107065 @ 시리 고양이부터 막아사주예?  
107065 # 고양은 저 무수 똥 동글랑허게 그 시릿 고양은 동글랑 동글랑 허잖아 이,

107065 @ 예.

107065 # 무수 똑똑하게시리 썰어.

107065 @ 예.

107065 # 옛날 췌볼 무수 졸랑헌 거나 그거에나 동글동글 썰엉 그 ㄱ망들에 툽툽 막아 그걸로. 막아 놔근에 그레 ㄱ루 영 놔근에 혼 징 놔냥, 글라근에 펜펜허게 글라냥 또 풋쉬 혼 번 영 뿌려냥 또 그 우트레 ㄱ루 거려놓곡, 경헌 게 문친떡.

107065 @ 게난 이젠 쓸ㄱ루로 허는 거짜?

107065 # 응, 쓸ㄱ루로.

107065 @ 쓸ㄱ루로 예, 겐 풋쉬 놓는 거 예?

107065 # 응, 쓸ㄱ루로 풋쉬 냥 떡치는 거.

107065 @ 게민 그, 경 냥 시리헝 시리뚜경 단아?

107065 # 응, 두경 단아. 두경 험벽으로 딱 더퍼. 다른 걸로 안허곡.

107065 @ 아, 경헝 불뎡 예.

107065 # 불뎡 쳐, 시리 앓져근에. 시리 고망도 막 막곡.

107065 @ 솟디에 앓정,

107065 # 솟디 앓정 옆으로 그 시릿고망으로 짐이 올라 오랑 헛 짐이 다른드레 나지 말게, 시리 영 영 툽허게 영 시리 앓지민 이디 솟광 이 시리 사이에 짐이 놔와비아어이.

107065 @ 예예,

107065 # 경허민 ㄱ루 뱅뱅 달좌근에 ㄱ망 막아. 일로 뱅 돌아가명.

107065 @ 솟허고 시리 사이에?

107065 # 응, 시리사이에 ㄱ망 막아. 짐 어디레 못나가게,

107065 @ 음.

107065 # 경혜사 그 짐이 시리를 영 우트레 올라오멍 떡이 쳐질거라이. 경헝 쳐난거. 옛날 어른들.

107065 @ 아,

107065 # 그 요새엔 기계 강 팡팡 쳐 왁주만은.

107065 @ 게난.

107065 # 옛날에 시리떡 처먹젠 허민 잘도 시끄러와.

107065 @ 겐 다 쳐지민 그뎡 어떻허여?

107065 # 그 들러 네근에 비와.

107065 @ 비왕?

107065 # 비와근에 이젠 칼로 영 비와, 영 혼 빗씩

107065 @ 아 혼 빗씩 영 비어.

107065 # 칼로 영 졸라놔근에 영영 졸랑 혼 징 졸라근에 툽툽허게 그릇드레 문 앓아놔동 또 나온 것 또 혼 징이 즐르고 또 혼 징이 즐르고 경허메 옛날에.

107065 @ 게민 그냥, 그냥 제웬은 어떻헝 치는 거짜? 다 부터불잖아.

107065 # 대접잇잖아.  
107065 @ 아,  
107065 # 대접해다근엥에 이제 요거 흔 징 떠근에,  
107065 @ 쉬 대신에?  
107065 # 응 쉬리 이추록 ㄱ루 놀 거 아니?  
107065 @ 예.  
107065 # ㄱ루 놓민 요 우트레 대접을 또 문딱 ㄱ루 문 막아지게 더퍼.  
107065 @ 아,  
107065 # 츠레츠레츠레츠레 문딱 낱 더퍼낱, 또 그 우트레 ㄱ루 또 거려낱, 거려 낱 굴랑 또 그 우트레 대접 해다근에 또 또 문 막아지게 놓는 거라,  
107065 @ 응응.  
107065 # 경허민 이거 쉬 안 든 거, 혜영허게  
107065 @ 쉬 안 든 거예,  
107065 # 제웬이라 이게, 옛날 어른들은 어뎡 어렵게사 살아신지.  
107066 @ 송편도 행 먹어낱지예? 송편 송편.  
107066 # 송편 거 곧사 곱은 게 송편아니냐. 이게.  
107066 @ 속에 속에 놓는 거? 쉬에!  
107066 # 속에 놓는 건, 저 이건 솔벤이고. 송편이엔 현 건 소곱에 담양 존존허 게 접는 거.  
107066 @ 계난, ㄱ루 굴앙  
107066 # ㄱ루 굴앙. 속에 쉬 놓곡,  
107066 @ 반죽혜영  
107066 # 반죽혜영, 그냥 영영 달황,  
107066 @ 익반죽? 뜨거운물로?  
107066 # 응. 뜨거운물 놉근에 달화근에 그건 쪼끔 혜영 손에 낱 영영영 혜근에 영 곱앙 딸라근에 그레 시 담양 접는 거.  
107066 @ 응 영 접으민,  
107066 # 그거 송편  
107066 @ 송편 예, 송편은 계난 속에 풋쉬 놓는 거예.  
107066 # 풋쉬고 아무거곡 그냥 쉬만 놓는 거, 풋쉬도 놓곡,  
107066 @ 무신 쉬 또 놓니파?  
107066 # 또 설탕도 요즘은 설탕도 담아놉 허고 경헨게.  
107066 @ 옛날에는? 주로?  
107066 # 옛날은 주로 풋.  
107066 @ 응. 계민 그건 동글랑 현 모양이파? 아니면 조개 모양이파?  
107066 # 이건 요거이 동글랑 현 것도 잇곡, 또 동글랑 현 건 송편. 또 영영 반 들 ㄱ추록 접은 건 저 만두.

107066 @ 아, 송편.  
107066 # 그건 만두.  
107066 @ 만두, 만두가 흐끔 크지예?  
107066 # 으 커, 흐쌀 소름 소름하게 영영 혼뱃딜로 영영영영 현 거 소름 현 거.  
건 만두.  
107066 @ 아니 계난 이건 두 개 다 계난 쫄ㄱ루로 허는 거? 만두도 쫄ㄱ루?  
107066 # 만두도 쫄ㄱ루로도 허곡, 메밀ㄱ루로도 허곡  
107066 @ 만두는 쫄로도 허곡 메밀로도 허곡, 송편은 쫄ㄱ루로만예,  
107066 # 메밀ㄱ루로도 허곡.  
107066 @ 송편은 쫄ㄱ루로만예?  
107066 # 응 쫄ㄱ루로만. 모믈ㄱ루로도 허여. 인절미광 송편은 영 두 개 낱 접는  
것만 쫄ㄱ루주. 나 곧듯이 영 헤여근에 인절미허곡 송편이엔 현 건 모믈ㄱ루로도  
허여.  
107066 @ 모믈ㄱ루로?  
107066 # 건 영 밀어근에 침만 허민 웨는 거난.  
107066 @ 아, 음.  
107066 # 건 모믈ㄱ루로도 허곡 곤쫄로도 저 산 나룩쫄로도 허곡 허는 거 그건  
두 가지.  
107066 @ 송편은 경 접어근에 그다음엔 어떻게? 쳐사주예,  
107066 # 쳐사주게.  
107066 @ 어떻게 치는 거짜 그건?  
107066 # 것도, 이 아래 저 무신거 바뵤근에 영 물 올리지 말게 바뵤.  
107066 @ 무신걸로? 이건 뒤에 놓는 거라, 뒤엔 곶아?  
107066 # 옛날 ㄱ트민 그거 무신 바뵤이, 바뵤이 허난 몰라.  
107066 @ 응,  
107066 # 지금도 그 떡 쳐먹는 바뵤이 잇잖아. 그런거 뇌근에.  
107066 @ 그디 뒤 힘벅이라도 곶아?  
107066 # 힘벅 곶아근에 그 우트레 조근조근 놓양 그건 뒤 여라개 놓지 못헿, 그  
자 흐 도리 낱 청 내영 또 치곡. 그건.  
107066 @ 그건 계민 내영근에 지름 블라?  
107066 # 지름 블라야. 부뜨지 안허게 지름 쫄끔쫄끔 거 영 놓민 뒤 부떠부는 따  
문에 그 지름 블르는 거, 부뜨지 못허게 허렌.  
107066 @ 춤지름?  
107066 # 춤지름, 건 춤지름베핀 안 블라.  
107066 @ 응, 그냥 치는 것과? 물에 삶는 건 아니지예?  
107066 # 물에 삶는 거 아니여. 모믈ㄱ루는 물에 삶곡, 곤ㄱ루는 물아 안 삶아.  
107066 @ 아,

107066 # 카져. 물에 삶아불민.  
107066 @ 모플ㄹ루는 물에 삶고?  
107066 # 물에 삶아. 모플ㄹ루는 물에 삶아도 안 카져. 그자 하영 놓지 말앙 쪼끔 놔근에 확 건지곡 확 건지곡 허민, 카지진 안헌디 이 쫄ㄹ루는 카져부네.  
107066 @ 아, 거난 그냥 치는 거예.  
107066 # 응 찌는 거. 쫄ㄹ루 하여튼 찌.  
107067 @ 그다음에는 빙떡.  
107067 # 빙떡은 모플ㄹ루로 허는 거.  
107067 @ 겐 옛날엔 후라이팬도 엇이난, 솟뚜쟁이.  
107067 # 솟뚜쟁이에서. 아이고.  
107067 @ 어떻게 지집니까?  
107067 # 어떻게.  
107067 @ 모플ㄹ루 물부터 카사주.  
107067 # 모플ㄹ루를이, 막 영 들르민 수루루허게 카이.  
107067 @ 응.  
107067 # 막 그놈으 것도이 막 때리멍 막 풀아파. 이놈으 것. 때리젠 허민.  
107067 @ 막 오랫동안 해야돼 마씨?  
107067 # 오래오래 때렁은에 카 주어서 풀풀허주, 경 안허민 키실키실 헤영 떡이 잘 안돼. 겨민 막 뜨려냥 국 끌려 먹는 사구 잇잖아. 우리 국 끌려먹는 영,  
107067 @ 국자.  
107067 # 국자, 그걸로 쪼끔 거려근에 크게 허젠 허민 하영 거리곡, 족게 허젠허민 족게 거리곡 헤영 그거 영 둘러냥, 영영영 허민 멘짜헤져. 불 달면 못헤여 건또. 불 달민 콰지직 허민 고망이 바롱바롱 나비여.  
107067 @ 하하하. 응.  
107067 # 경허난에 그것도 불 은근하게 그자 콰지직 안허게 시리 그자 은근하게 헤 놓민 알룸게 썩 밀영 헤 놓민, 빙 지져 놓민 무사 반들반들 고와.  
107067 @ 안에 무신 거 뇽니까?  
107067 # 안에 무술, 무시나 썰어 놓주 무시거 이, 고구마 ㄹ튼 거 놓민 곱어, 그건. 쥬 무수가 좋아.  
107067 @ 계난, 무수 헤근에 무신거에 ㄹ치?  
107067 # 무수헤여근앵에 파나 흥쫄 서경 확확 서꺼근에. 경헤영 그거 베핀. 더 이상 놓는 거 엇어. 빙엔 그거 윈.  
107067 @ 빙엔 그거 예.  
107067 # 무수가 제일 윈 어디든지 보민 무수라.  
107068 @ 상웨떡은?  
107068 # 상웨떡은 저, 이수 ㄹ트민 쉰다리 헤냥이, 우리 먹잖아 쉰다리. 그거 오늘 쉰다리 행 놔두민 널 모리 웨민 막 시큼허게 쉬어이.

107068 @ 응.

107068 # 경허민 그럼 물 뜰라근앵에 그 밀꺾루에 몰앙 놔두민 상웨떡이 피어 북삭허게.

107068 @ 응.

107068 # 요새는 원료덜 시난 원료 사다냥 상웰 피왓주만은, 옛날엔 집이서 허민, 밥 헤여근에 쉰다리 헤놔.

107068 @ 응.

107068 # 누룩헝 쉰다리 헝 놔두민, 널 모리쫄엔 이놈이 쉰다리가 시그름허게 막 버끔 올라오멍 시그름헤여이.

107068 @ 응.

107068 # 겨민 그 물 뜰라근에 몰앙 밀꺾루에 몰앙 놔두민 북삭허게 올라와. 빵이.

107068 @ 응.

107068 # 올라오민 그땐 빵빵 허멍, 빵이앵 안헛어. 빵떡.

107068 @ 빵떡.

107068 # 옛날엔 빵떡. 에이구 빵떡 피완, 빵떡 피완. 옛날 이디 조선 밀꺾루로.

107068 @ 응.

107068 # 요즘은이 웨 밀꺾루로 헤근에 탁 원료 사다냥, 헝 딱딱허난 허는게 일 아니라신디, 옛날엔 그것도 헝 먹젠 허민 막 밥헤영 쉰다리 멘들어냥 누룩으로.

107068 @ 응.

107068 # 멘들어냥 혼 이틀 시민, 이놈이 쉰다리가 시름헤영 올라와, 버끔이 북삭허게.

107068 @ 예.

107068 # 경허민 그 물 뜰라근앵에 그 꺾를 몰앙 놔두민, 또시 빵이 피는 거라.

107068 @ 갱 요멘씩 멘들양,

107068 # 요만씩 만들멍 솟디 냥 처가민

107068 @ 솟디 냥 치는 거.

107068 # 흐끔 멘들양 놔두민 요놈이 빵이 올라 오는 거라. 흐썰.

107068 @ 아.

107068 # 영영 동글동글허게 헤영 툽툽 듯은 디 놔두민 흐썰 북스락 허게 올라오민 그때 치민 북삭 부겨. 멘들멍 싸라 쳐불민 안웨.

107068 @ 놔뒹당예? 요고 영 길죽허게도 허지 안허여? 그건 무신거엔 글읍니까?

107068 # 그것 빗빵.

107068 @ 빗빵.

107068 # 이제이제 수량헌 빵들 잇잖아이. 그거 빗빵.

107068 @ 아, 상웨떡, 빗상웨?

107068 # 응 빗상웨, 옛날엔 빗상웨.

107068 @ 옛날엔 빗 빗상웨?

107068 # 응. 빗상웨.

107068 @ 겐 이런 상웨떡은 언제 허는 거 마씨?

107068 # 그건 뭐 아무 때라도 이녁 먹구적 현 때, 겨울이고 여름이고 건 이녁.

107068 @ 식게 때도 허고?

107068 # 응, 식게 때라도 빵 피왕 먹구적 허민 허곡, 경 안허민 안 허곡. 건 미신 어느 때 먹을 때 아이 먹을 때 출리지 안허여. 이녁이 제삿때라도 헤영 먹구적 허민 그거 피왕 먹곡, 실프민 말곡 그자 경허는 거 그건.

107069 @ 그른 식게 때는 무신평 무신평 행 올리는 거짜?

107069 # 요즘?

107069 @ 아니 옛날에.

107069 # 옛날엔이, 어려운 때는 목만 우리 막 두린 때 보민 목만헤영 올려이.

107069 @ 아.

107069 # 요즘에나 이거주. 목만 헤영 올려근에, 두린 땀 보민 아이고 목 혼 솓 두쟁이 헤사, 걸 목 혼 솓 두쟁이 엘 무시걸 헐 건고? 우리가 두린 때난.

107069 @ 응.

107069 # 목 혼 솓 두쟁일 뭐허는 거고 허당 보민 제사 지낼 때 그거 혼나만 헤영 올리고,

107069 @ 모물목?

107069 # 응 모물목, 응 그거 허곡 고사린 어뎃튼지 고사린 떨어지지 안허여.

107069 @ 응.

107069 # 고사리 허곡, 모물목허곡 그자 바룻고기. 그자 생성이고 무시거곡 그자 그거 허민, 그걸로 행 그자 밥 행 올리민 제스라, 옛날에.

107069 @ 그거 헝꿈 지나민?

107069 # 그거 지난 헝쓸 살아가난에,

107069 @ 떡을 무신평 헤수과? 식게 때?

107069 # 식게 때 모물 빙 지지는 거라이.

107069 @ 아 빙.

107069 # 응. 빙을 매 집이 마다 보민 빙을 지져, 경허멍 헝쓸 살아가난 그 모물이 비료가 나가난,

107069 @ 응.

107069 # 매 집이 가보민 제스때도 빙, 멩질때도 보민 빙. 경허단 또 헝꿈 살아 쳐가난에 근사 그추룩 솔벤 절벤이 나와가는 거라이.

107069 @ 응, 솔벤. 절벤.

107069 # 경허곡, 이제 빵.

107069 @ 빵.

107069 # 그거허곡. 아이구야 아무집인 강 보민 빵 피웁서라. 허멍.

107069 @ 아.

107069 # 경허명 빵 피왓서라, 빵 피왓서라 허멍, 건 그거 주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이 그때.

107069 @ 솔벤 절벤만 허여? 제펜은 안허여 식게때?

107069 # 식게 땀 그런 거 안허여, 막 대소상 때나 그런 거 허주. 식게때 제펜은 안허.

107069 @ 아, 식게 땀 경 안하고예?

107069 # 응, 친떡은 헤여. 시리떡은.

107069 @ 시리떡은허여?

107069 # 응 시리떡은 헤여.

107069 @ 거난 시리떡은 뭐, 제펜 안허고 문친떡으로?

107069 # 시리떡도, 응 문친떡으로 그자 풋 뺏아놓곡, 그 ㄱ루 헤영 뺏아근에 그 건이 이 중간에 나가난 요만헌 헌 시리가 영 쫄쫄만 헌 것이 나오는 거라이,

107069 @ 응.

107069 # 그거 허민 쫄쫄만 허민 쓸 혼웨만 강 뺏아오민 친떡 치는 거라.

107069 @ 응.

107069 # 경허민 그것들 행 먹곡 경해서.

107070 @ 그럼 대소상 때는?

107070 # 대소상 때는 시리가 커.

107070 @ 무신 떡 무신떡 허여?

107070 # ㄱ사 곧듯이 솔벤, 절벤, 인절미, 또 이제 제펜 친떡 그거. 그거. 그거대로 원.

107070 @ 네 개냐? 솔벤, 절벤, 인절민, 제펜 네 개 뿐?

107070 # 친떡 다섯곳이라.

107070 @ 아, 아 친떡도 또 헤? 제펜도 허멍?

107070 # 제펜허곡 친떡 따루,

107070 @ 아, 친떡 따루?

107070 # 제펜 따루라 그계. 이름이 틀려.

107070 @ 아 경해도 다 시리떡이난 두개 중에

107070 # 경허난이, 옛날에는이 딸 하영나민 솔벤 상제여, 제펜 상제여, 인절미 상제여,

107070 @ 딸이 다 헤오는 거?

107070 # 저 절벤 상제여 딸 각각이 마타가는 거라이. 각각이.

107070 @ 아,

107070 # 난 솔벤 큰딸은 솔벤, 둘째딸은 절벤, 세 번째라가민 인절미 또 네 번째라가민 제펜.

107070 @ 응.



107070 # 요놈이 쥘 하라, 제펜이 제일 하떡이라.

107070 @ 이게 쥘 힘들어?

107070 # 쥘 마지막 떡이라. 쥘 죽은 거라.

107070 @ 무사 이거 제일 죽 은거라?

107070 # 몰라 어떻사, 노나지 안헌덴 쥘 솔펜 상제가 쥘 큰 상제가 솔펜 마타, 큰 딸이,

107070 @ 아 큰 딸이?

107070 # 응. 계난 큰 딸 치암 나민 이건 솔벤 상제, 두 번차 딸 나민 절벤 상제.

107070 @ 하하하하,

107070 # 인절미 상제, 제펜 상제. 옛날에 경 곶아낫어. 딸 하영 나가민. 경 곶아 낫서.

107070 @ 응,

107070 # 경혜놔서. 경허난. 큰일 나민 어머니나 아버지나 돌아가시민.

107070 @ 응.

107070 # 절벤 마탕 헤오는 사름, 솔펜 마탕 헤오는 사름. 다 각각이 마타. 조반 출리는 스름, 정심 출리는 사름, 또 피력 출리는 사름.

107070 @ 피력은 무신거 마씨?

107070 # 피력이엔 현 거는 그디 강 밥 먹어냥 곳에 떡을 태우는 거라. 그게 피력.

107070 @ 응.

107070 # 또 비역부짬이엔 현건, 옛날에 영장 메영 가다근에, 중간에.

107070 @ 예.

107070 # 질레서 쥘 때. 옛날엔 메영 가젠 허민 막 멀리강 산터 보멍 메영 갖지.

107070 @ 예.

107070 # 경허난 사름으로 메영 가당 흐쓸 쥘 때, 이제

107070 @ 예.

107070 # 사름으로 메영 가당 흐쓸 쥘 때, 쥘 때 이제 우리 ㄹ트민 간식 주는 거 라이.

107070 @ 그게 무신거라?

107070 # 비역부짬.

107070 @ 비역부짬? 응.

107070 # 밥 먹어냥 곳에 또 주는 건 피력.

107070 @ 아, 영장밧디서?

107070 # 응, 피력.

107070 @ 영장밧디서 밥 먹어 냥 주는 거?

107070 # 응 밥먹어냥 곳데 또 떡행 강 주메.

107070 @ 응.

107070 # 겨민 그건 피력.

107070 @ 응. 그다음 비역부짬은,

107070 # 비역부짬은 이디서 가당.

107070 @ 영장밭디 가당?

107070 # 가다근에 지치민 영장 멘 사름으로 멘덴허난, 계난 가당 지치민 중간에 서 쉬어. 쉬영 그때 맥이는 건 비역부짬.

107070 @ 아, 그럼 이건 누게가 행 오는 거라?

107070 # 이건 딸들이.

107070 @ 아, 딸들이 다?

107070 # 딸덜토 허곡 딸어성 아기들이 적은디는 방상이서도 허곡, 친척들 모영 낡도 허곡, 경 허는 거.

107070 @ 응.

107070 # 아기들이 하민 그거 마트는 사름 저거 마트는 사름 곳곳이 다 마타가.

107070 @ 음.

107070 # 요즘은 돈 모다낡 혼 딜로 확 조반이고 정심이고 짝 헤여불민 허주만은 저 옛날은 경 안헌 따문네.

107072 @ 그 다음에 계민 인절미 만드는 방법?

107072 # 인절미 만드는 거나, 솔웬 만드는 거나 이거 ㄱ루민 짝 밀거아냐? 마 계로 영영 밀어낡.

107072 @ 예.

107072 # 칼로 영 베는 거야. 이건 베는 거.

107072 @ 베영 그 다음엔?

107072 # 베영 네귀방장 네귀방장 허게 베여근에 썬. 이놈으 것. 인절미도. 솟디 낡 쳐.

107072 @ 아 솟디낡 쳐?

107072 # 응 마드랭이 놓멍 쳐.

107072 @ 아,

107072 # 처사허주, 그냥 놀차 저 몰라근에 모물꺾룬 익여근에 떡은 못 만드난,

107072 @ 아,

107072 # 모물꺾룬 익영 못 만들야. 산뒤ㄱ루는 익영낡 멘들주만은 모물꺾룬 익 영 못 만들야. 경혜부난에, 경혜부난 문 쳐.

107073 @ 그럼 절벤은?

107073 # 절벤은 산뒤ㄱ루로 흐는디 솟디서 숲아 이것 다.

107073 @ 응

107073 # 숲앙 막 익여내영, 두불 막 달화이.

107073 @ 응

107073 # 두불 갈라 놔근에, 또 요만씩 그치멍 동골레기 만들앙 마주 영 놔근에

뚝 눌러는 판이 있어. 뚱글랑헌 판 멘든 거이. 그걸로 기운 냉 짝 밀리민 동글랑허  
게 눌러 지는 거.

107073 @ 아,

107073 # 그게 절벤.

107073 @ 절벤은 게난 혜냥 치는게 아니고?

107073 # 아니, 혜냥 치는게 아니곡, 이진 절벤떡 솥양.

107073 @ 솥아냥 그 다음에,

107073 # 그 다음에 막 꾸어냥,

107073 @ 꾸어냥 눌러는 거?

107073 # 꾸와냐근에 또 요만씩 그치명 동글레기 만들앙 영 혜영 농민 두 개 마  
주허영 요 영 냐근에, 꼭궤치 냐 눌러는 동글랑헌 판이 잇영,

107073 @ 응.

107073 # 그 판으로 냐 짝 눌러. 그런 판이 있어. 푸는 거.

107073 @ 그게 절벤예?

107073 # 응, 그게 절벤.

107074 @ 그 다음에는 솔벤.

107074 # 솔벤은 문 만들어 냐 건 바드랭이 농명 처.

107074 @ 치는 거. 인절미영 비슷한 거예?

107074 # 인절미영 비슷한 거 다. 찌는 거. 절벤만 솥아녕 눌러는 거,

107075 @ 웃기떡. 웃찍은 흑시 뭐짜?

107075 # 웃찍은이, 그건 허는 집이 허곡 안허는 집인 안헌다. 멘 막곳에, 요만씩  
동글여근에 뚝 얼마 크지 안허여.

107075 @ 응.

107075 # 웃찍이엔 헌 건, 뚱글랑허게 만들앙, 손으로 접아근에.

107075 @ 응.

107075 # 요만헌 요만헌, 뚱글랑허게 만든 게 요만이 베끼 안허여.

107075 @ 응응.

107075 # 그거 웃찍이엔 헌 거 상 꾸며냥 매 우에 떡 꾸며냥 매 우에 놓는 거.

107075 @ 응응.

107075 # 그거 몇 개, 그거 웃찍웃찍 허는 거 그계.

107075 @ 응.

107075 # 그거 몇 개 안허여 잘허민, 큰 상에만 올리는 거난 혼 열 개쯤. 행 올  
리는 거, 거 웃찍이엔 헌 건.

107075 @ 음.

107075 # 그 웃찍이엔 헌건. 요만이 접아근에 동글동글혜영 푹푹푹푹 접앙 동글  
랑허게 혜여.

107075 @ 응.

107075 # 겨난 이거 이거 둘렝이는 안돼여. 이거 둘렝이. 요거 둘렝이만 허게 동글랑 허고 때 막곳에 올리는 거.

107076 @ 이번엔, 고사 지내거나 당에 갈 때 그때 가정 가는 떡?

107076 # 당에 가는 떡도 요즘은이 빵 나부난 돈 빵 앓앙가고, 옛날은 만두라고이,

107076 @ 응, 아까 글아난 거예.

107076 # 만두라고 영 접은 거 잇잖아이.

107076 @ 풋쉬냥예,

107076 # 응, 풋쉬냥 영 접은 거 그런 거 혜영가곡, 또 여름냥 갈 때는 밀ㄱ루 글아근에 옛날은 이제는 영 웨밀ㄱ루 낫주만은 옛날은 토종밀 이디서 간 밀이,

107076 @ 응.

107076 # 그거 정ㄱ루에서 글앙 ㄱ루 내아근에 나 인척이 글은것추룩 선다리 혜나 빵 피와.

107076 @ 그게 상웨떡인가?

107076 # 응, 그게 상웨, 상웨허멍. 저 요새는 빵이엔 허주만은 옛날은 상웨나 혼고령 혜영 가사 허주, 허멍. 그자 그거여.

107076 @ 상웨나 무신거 행가? 혼 보리?

107076 # 혼고령!

107076 @ 혼고령!

107076 # 응, 고령 옛날은 상지ㄱ라 고령, 고령 혜서이.

107076 @ 아.

107076 # 경허민 그 빵 영혜 보민 우리어머니네 허는 거 보난 혼 열다섯 개 썸, 열 개 몇 개 안들어.

107076 @ 혼 구덕예?

107076 # 응. 혼 고령예.

107076 @ 혼 고령예.

107076 # 응. 고령이엔 옛날엔 대체롱 스랑허곡 흐쌀 요만헌 스랑허고 너부지 요만은 허여. 지력시 요만이 베끼 안허여. 경헌 것이 혜영 낱 허는 거 보민 혼 그자 열 혼 멧 개 드는 거주.

107076 @ 응.

107076 # 겨민 옛날엔이 저놈이 떡을 강 흐나 반앙 오랑 먹젠 어느 때민 어머니가 옛날은 당에 감젠 아니혜영 믱슬 카는 거 믱슬 카는 거 잇지이?

107076 @ 아, 믱슬 카는 거?

107076 # 믱슬 카쟁허민 영혜여. 경허난 어느 때랑 믱슬 캡오라근에 떡을 받아오랏 건 떡주 혜영 앓앗당 보민, 빵을 혼 수정 세민 아메도 열멧 개 혜영 그 ㄱ령에 낱 가신디 온 거 보민 떡 다섯 개도 안 아정와. 경.

107076 @ 하하하하.

107076 # 어머니, 옛날엔 어머니, 어머니 해놔주. 어머니 떡 다 어디비언? 허민 떡? 떡 아정을 거 잇느냐. 심방덜 문 비와 앓사, 그때.

107076 @ 아.

107076 # 소망 일민 혼 다섯 개쭙.

107076 @ 가정와. 아이들 주젠?

107076 # 가정와. 아이들 여라개 시민 하나씩 주렌 행 심방이 주면은 아정오는 거. 밥두 비와앗곡.

107076 @ 아.

107076 # 밥도 영 보민 저 혼 어디 무신 산신이여, 무신 서낭이여 허멍 영 허는 거 보민 밥을 혼 댓 그릇 행 가이. 허민 옛날엔 곤밥, 곤밥 해놔주.

107076 @ 응.

107076 # 저놈의 곤밥을 어느 때랑 반양 오랑근에 흐쉴 먹으린 허당 보민 온 거 보민, 밥을 혼 사발베끼 안 아저와.

107076 @ 응.

107076 # 어머니 밥 다 어디비언? 허민 밥 우리썩새 오느냐. 심방 다 비왕 가불 주. 심방 다 비왕 가불어. 떡이고 밥이고 다 정 가비어.

107076 @ 응.

107076 # 득도이 옛날은 액맥이 액맥이 허멍 득을 집에서 질나근에 장득을 앗앙 가이. 겨민 정월에 깨운 거 이 유월에 나민 커근에 제법 울어이, 요놈이가. 스나이 구실 행 막 울민 정월에 새끼 느른 거 이건 유월에 므슬 칼 때 아정강 좋으켜. 허멍 형 그걸 앗앙가민 앗앙오느냐 허민, 득도 주어비동 와. 다. 다 심방나시라 앗앙 가는 거 보민.

107076 @ 아. 응.

107076 # 기난 그거 꺾라 므슬 카는 거 므슬 카는 거 허주.

107076 @ 므슬 카는 거예?

107076 # 당에 감젠 요즘은,

107076 @ 경 안 글아예?

107076 # 일로 요드레 강 요드레 강와사 옛날엔 므슬 카와사 므슬 카와사.

107077 @ 굿 혈 때도 떡 험니까?

107077 # 응, 굿 혈 때 돌레떡.

107077 @ 아, 굿 혈 땀 돌레떡.

107077 # 돌레떡.

107077 @ 돌레떡은 어떻 멘드는 거봐?

107077 # 돌레떡은 영영영영 동글랑허게 낱 꺾 눌러근에 영영영 양작 손드레 영영영 허당보민 동글랑허게 늘려져.

107077 @ 아,

107077 # 게민 뱅 동글랑허게 허여, 경혜근에 그거 숲아 숲으멍 건지멍 식인디.

107077 @ 그건, 물에 삶아?

107077 # 응, 경헌디 요즘은이 굿 밧디 간 보난이, 기계 간 헤여근에 떡 짝 기계로 밀어나오난 강 사발로 딱 떠서라.

107077 @ 아,

107077 # 사발로 꼭 눌령 뜬 거, 손으로 안 만들어. 손으로 만든 떡 엇언게. 돌레떡이엔 해도.

107077 @ 손으로 만들어사 돌레떡이주 예.

107077 # 손으로 만들어야 돌레떡인디, 그자 동글랑 허게만 기자 돌레떡이엔 헨, 동글랑허게만 사발로 딱딱 떼 놔선게 나 혼번 굿밧디 강 ㄱ만히 보난에.

107077 @ 응. 솔벤 본 짝듯이이 예, 그자 동글랑헌걸로예?

107077 # 그자 동글랑헌 그자 사발로사 떠신지 보시로사 떠신디. 딱 떼에, 경헨 헨 와선게.

107078 @ 아까, 등절빈 무신거엔 해수과?

107078 # 등절비엔 헌 건이, 보릿ㄱ루로 헤여근에,

107078 @ 응.

107078 # 저 아이들 먹젠 이 체스때나 무신거 먹쟁허민 근떡은 허민 갈라줄 거 엇이난 보릿ㄱ루 헤여근엔에 작작 밀영 두둑허게 밀어근엔에 굿사 ㄱ추룩 동글랑허게 떠놔근엔에 영 그쳐근에 헌 거.

107078 @ 반달모양으로?

107078 # 응, 반달모양으로 그게 등절비.

107078 @ 풋쉬 무치고?

107078 # 풋쉬가 어디이서, 보리개역 헤영 미쳐근에.

107078 @ 아, 보리개역 미쳐근에.

107078 # 경헤영, 아이들 하나씩 주고. 것도 엇영 못먹어. 맛 좋아.

107078 @ 등개떡이영 똑 ㄱ튼 거? 등개떡이영 등절비영 똑 ㄱ튼말?

107078 # 응, 옛날 그거나 그거나 ㄱ튼 말.

107078 @ 아, 이디션 게민 뭇엔 곱아낫수과? 옛날말?

107078 # 옛날말로 등절비곡, 등개떡이엔 헌 건 보릿ㄱ루 또 이서. 그건 보리 곱아난 거.

107078 @ 아, 다른 거?

107078 # 응, 등개떡이엔 헌 건이 보리 거퍼나면 그 ㄱ루 헤여근에 등개떡을 만드는 거고,

107078 @ 응.

107078 # 이 등절비엔 헌 거는 곧 ㄱ루로 만드아근에, 쉬미칭 아이들 그자, 그건 체스에 안쓰는 ㄱ루로 그자 아무 보릿ㄱ루라도 헤여근에 쉬 미치명 아이들 배불게 주어부는 거.

107078 @ 그게 등절비.

107078 # 등절비. 등개ㄹ루엔 현 건 보리 거퍼난 거. 보릿ㄹ루 그건 진짜 맛있인 거. 그건이 든 거 아이 놓민 먹지도 못허여. 등개떡, 등개떡, 육지 사름 개떡,개떡 허잖아.

107078 @ 아, 보리개떡.

107078 # 보리개떡, 보리개떡 안허나?

107078 @ 그게 등개떡이구나.

107078 # 육지 사름들은 개떡, 개떡 허여.

107078 @ 보릿가루예?

107078 # 응. 이덧사름들은 등개떡, 등개떡 허민, 육지사름들은 것ㄹ라 개떡, 개떡 허멍.

### 소와 고물

107079 @ 아, 게민 이거 떡헐 때, 쉬는 주로 무신거 무신거 놓고 험니까?

107079 # 쉬? 무신떡 헐 때?

107079 @ 아무떡이나 헐 때. 보통.

107079 # 보통은이 풋쉬가 하.

107079 @ 풋쉬가 하예? 응.

107079 # 풋쉬가 하영 놓곡, 이 보리떡 ㄹ튼 거, 이런 등개떡 ㄹ튼 건 보릿개역으로 헐 미청 떡곡, 다른 거는 풋쉬가 하영 들어. 풋 그자 풋.

107079 @ 응, 속에 놓는 것도 쉬, 밖에 미치는 것도 쉬?

107079 # 응. 풋쉬 미치라. 풋쉬엔 그 양꼬 담으라 허는게 그거. 그거주 그거.

107080 @ 요즘에는 아까 뭐 설탕에 꿩ㄹ루도 영 서꺼근에도 헤라?

107080 # 저 무시거 그냥 저 요즘은 조개 송편이영 동글랑 허게 헤여근에 옛날 조개 송편이 아니곡, 동글랑 허게 헤근에 허잖아이,

107080 @ 아.

107080 # 게민 소곱에 보민, 어떤 집인 보민 설탕ㄹ루도 흥쓸 놔근에, 소곱에 담양 허곡 경 허여.

107080 @ 음.

107080 # 또 경 안헌 집은 잇다근에 풋 솥은 것도 담양 흥쓸 허곡.

107081 @ 음. 떡 시리떡 칠 때 뭐 어떻 허민 안웁다 허는 거 잇지예?

107081 # 부정헌 사름 뉘면 안웁덴.

107081 @ 뭐 오줌 싸레도 가민 안웁덴 헐 게만은? 그건아니? 하하하.

107081 # 아니, 그건 아니곡 시리떡 칠 때에 옛날 할망들 나 게난 에이고 옛날 할망들 어둑은 시절에 어떻 살아신고?

107081 @ 예예.

107081 # 애기 벤 사름도 들어오지 말라, 또 몸에 거 온 사름도 들어오지 말라.

107081 @ 예,

107081 # 케민 시리떡은 시리 떡 치젠허민 ㄱ루이 다라이에 물을 ㄱ치 ㄴ근에 막 밀어.

107081 @ 응.

107081 # 밀당보민 체압이 막 물 놓민 병탱이지지. 병탱이 지민 오래오래 막 이 추룩 영 막 밀당 보민 ㄱ루가 복삭헤여이.

107081 @ 아.

107081 # 그 ㄱ루가 복삭허도록 막 밀어. 경허민 애기 벤 사름도 ㄱ루 밀지 말라. 아니 경행 문 굴리당 보민 우리추룩 현 사람은 강 허민, 떡이 밀당 보민 풀이 다 빠져. 시리떡 밀당 보민.

107081 @ 시리떡 ㄱ루를 밀어?

107081 # 어, ㄱ루를 막 물낱 민다. 밀어 막 죽건 살건 다라에 낱 이추룩 밀어. 물 버물여 낱 막 밀어근에 경 밀당 보민, ㄱ루가 복삭헤여 또 그거 밀당 또 채로 쳐.

107081 @ 응.

107081 # 복삭허게, 청 또 병탱이 또 그거 풀루젠 막 밀어가민 또 병탱이 풀어지 곡 붙어지곡 허민 채로 치민 복삭헤여이.

107081 @ 음.

107081 # 복삭허민 그거 혼 징 혼 징 풋쉬 혼 징 농곡, 그거 혼 징 농곡 그거 친떡 치는 거.

107081 @ 응.

107081 # 아이고, 그 친떡 밀영 치젠 허민 잘도 경 두루 밀민이 떡이 안돼어. 게 싹게싹 허여.

107081 @ 아.

107081 # 잘 ㄱ루 물맞창 잘 밀어 놓민, 친덕 청 내놓민 친떡이 줄긋줄긋하게 질기곡, 경 안허민 케삭케삭케삭 헤여.

107081 @ 아 헤싸저붙어?

107081 # 헤싸저붙어 잘 안헤 놓민. 경 허는 따문에 ㄱ루 미는 사름도 젊은 사름 헤영 복복허게시리 ㄱ루 두루 밀엇저, 잘 밀엇저 허는 거주게.

### 별식

107082 @ 응, 그 다음에는 잔칫 때 허는 순대. 수웨? 옛날은 수웨? 수웬 어떻행 먹는 거짜?

107082 # 응. 옛날말은 이, 웨야지 잡으민 웨야지 배설. 배설에 모믈ㄱ루 헤영 그 도새기 피 잇잖아. 이제도 그 피로 담은 거는 맛있어이.

107082 @ 예.

107082 # 그거 영 헤근에 피 헤영, 피 막 피 막 데겨. 피도 또 영. 그디 병탱이 진거 막 데겨근에 모믈ㄱ루 농곡 헤근에, 영영 막 밀어근에 허민 그것에 풀풀 그



피에 모플꺠루에 서꺼근에 영 담아근앵에 그거 슣앙 내놓민 이만씩 질어이.

107082 @ 예.

107082 # 그거 흔 점씩 흔 점씩.

107082 @ 음.

107082 # 그것 순대 헤여근에 그거 흔 점씩 놓메. 고깃반에.

107082 @ 음.

107082 # 젠디 이젠 그거이, 그런 거 놓지도 안허곡, 그런거 담젠도 안허곡, 담아도 그자 앓인 자리에서들 먹영 설러비여.

107082 @ 이젠 당면. 당면 놔.

107082 # 아이고, 당면 논 것은 맛엇어.

107083 @ 맛엇어예. 게민, 두부는? 두부도 집이서 만들어놋주, 옛날예?

107083 # 두부 이게이게 지금, 콩 그거 콩꺠루 헤영,

107083 @ 예.

107083 # 콩꺠루 헤여근앵에 물에 서꺼근에 이제 가메에서 끌리는 거라이.

107083 @ 물은 무신 물?

107083 # 아무 물이라도,

107083 @ 소금 안헤도 돼어?

107083 # 안헤도 돼어.

107083 @ 아 그건 나중에 허는 거구나예? 응.

107083 # 물에 팔팔허게 낱 젓으멍 끌러. 큰 가마솥디서 끌러근에 허민 물이 투박투박 헤여이. 허민, 상자 영 물 빠지는 그 테레비도 자꾸 보난 그런 상자 이선게. 상자 네귀반득헌 상자에 천을 툃허게 끌아.

107083 @ 응.

107083 # 끌민 그 콩꺠루 팔팔 끌여근에 막 끌여지민 그거 탁 비우민 물 싹 빠져 불민 그 우트레 포 더경 무시걸로 꼭 놀리민 트랑트랑 얼리민 그거 두부라.

107083 @ 응.

107083 # 두부 만드는 거.

107083 @ 소금물은 왜 필요헤 근디?

107083 # 소금물은 이 그 부끄지 말렌. 부끄지 말렌 우레기 부꺼가민 소금 하영 안 들이쳐. 하영 들이치당 보민 짜불 거난,

107083 @ 응.

107083 # 소금 흐썰 우트레 영 산허게 흐썰 서끄민, 부꺼오던 것이 쏸허게 끌아져이.

107083 @ 응.

107083 # 끌아져근에 허당 또 끌리당 보민 또 흐썰 우트레 또 부그락허게 올라오라가민 또 그거 올라오지 못허게 영 소금 흐썰 치곡, 흔 서너번 쳐가민 또 끌아아지민 경 오래 딸리지도 안허여 요즘, 오래 딸리지도 안허여.

107083 @ 아니 옛날엔 바당물 떠당 헛텐 헛게 만든?  
107083 # 바당물 떠당 거 근물근물 허멍,  
107083 @ 거난.  
107083 # 소금이 어려우난, 그 쫄물 헤다근에 그 쫄물 영 부꺼가민 부끄지 못허  
게 영 치는 거.  
107083 @ 아, 음.  
107083 # 그 쫄물에서 허는 게 아니고,  
107083 @ 아,  
107083 # 소금이 어려우난 쫄물 헤다근에 두부 끌여 먹젠허민 그 끌러가가민 북  
삭허게 부꺼가민 거 못 부끄게 흐뵈 영 헤근에 물 걸영 쫄물 흐쓸 영 치데기민 그  
쫄거가 알로 느려아자 이놈이 콩이 콩ㄴ루가.  
107083 @ 응.  
107083 # 느려 앓앗당, 또 오래 끌러가민 또 북삭허게 올라오라가민, 또 그거 못  
부끄게 또 흐쓸 영 쫄물 흐썩 영 솔르민, 또 흐쓸 깰러앗곡 경허는 거. 그거.  
107083 @ 거난 두부는 잔칫 때나 허주예?  
107083 # 응 잔칫 때나 헤영 먹주.  
107083 @ 대소상 때도, 대소상 때도 허여?  
107083 # 에이구, 대소상 때야 허는 거 난 못 봤저.  
107083 @ 그믐 주로 주로 잔칫날예?  
107083 # 흐쓸허민 옛날 사름들 어떻 허당 부부간이 싸와근에 갈랑을 가나, 두불  
서방을 얻영 오나 헤영 시어명신드렐 데드나 시방아신디렐 데드나 허민, 메께라, 나  
뚝빋물에 손텐 메누리라?  
107083 @ 건 무신말이짜?  
107083 # 뚝비허멍 뚝빋물에 저 데여시냐고?  
107083 @ 응.  
107083 # 메느리광 씹젠허면 두 불차 온 메누리광은 말드툼헤영 메느리가 막 데  
들거 아니야 허민. 가구죽허민 가고 실프건 말라. 나 뚝빋물에 손텐 메누리 아니여.  
107083 @ 첫 번째 메누리 아니라고?  
107083 # 응 첫 번 메누리 아니라고.  
107083 @ 하하하하 아.  
107083 # 뚝비허멍 손 데멍, 그 뚝비 딸리멍 현 메누리 아니라고. 가렌 처음 헤  
온 메누리 아니난. 가렌, 필요엇덴. 경허멍 옛날도 헤난거라, 경허난.  
107083 @ 아 거난, 뚝빋물에 손텐 메누린 첫 번째 현 메누리?  
107083 # 응 첫 번째 현 메누리. 지네가 원 뚝영 메누리 구헤여근에 헤온 메누린  
디,  
107083 @ 응.  
107083 # 따시 두 번차 두 번차 온 메누리는 뭐 지네끼리 좋안 온 거, 나 공들지

안했다 현 거여. 살구적 허믄 살곡 실프건 말라 뭐 영 허멍.

107083 @ 허허허. 음

107083 # 경 허는 거, 옛날 어른들. 경 곱아놔서. 요즘은, 어이구 뚝뚝물에 손 댄 이랑 말앙 지네끼리 종양 헤 와도 삶만 허민 메뉴리야. 요즘은. 안 살아준 게 원이지.

107083 @ 잘 살아주기만 해도 고마운 거주.

107083 # 응, 살아주기만 해도 고마운 거.

107083 @ 싸왕 이훈허곡.

107083 # 아이구아이구, 첨말로 살아주기만해도 고마운 거.

107083 @ 건, 지네만 잘살아도예.

107083 # 응, 지네만 잘 살아도 고마운 거.

107084 @ 계난예, 모믈묵.

107084 # 모믈묵은 막 근 맞춰근에 요정도민 익어가민 어느 정도 웬 거라 헤여근에, 물을 맞춰근에 모믈꺄루를 막 서꺼이. 물에 서경 서꺼근에 솟디낭 쑤어. 불 소마가민 그것이 불착불착 퀘어가민 솟창에 누까부덴 막.

107084 @ 무신걸로 젓어?

107084 # 남죽이엔 현 거 있어.

107084 @ 남죽으로 예.

107084 # 응. 나무로 만든거 이서. 그걸로 행 막 젓어. 젓당 보민 그것이 퀘영 불착불착불착 퀘어가민 부글부글 퀘잖아.

107084 @ 예.

107084 # 경 헤가민, 그땐 그 꺄루가 익으민 그것 이젠 다라드레 퍼근에 쏘쏘하게 펜쩍허게 행 놔두민 그것이 토랑토랑헤여.

107084 @ 계민 칼로 썰어?

107084 # 응 칼로 베는 거라 그계. 그건 쏘 묵이고.

107084 @ 응 그건 쏘 묵이고,

107084 # 지지는 거는 그냥 물 탁탁 빙 지지듯이 지저. 흐쑈 뒤게만 저 흐쑈 두껍게만 지진 거주.

107084 @ 응.

107084 # 그거는 빙 지지는 거라 마찬가지로.

107084 @ 그것 그믄 그것은,

107084 # 흐쑈 두껍게 묵허는 거 그건 흐쑈 두껍게 지저, 묵은

107084 @ 응, 그럼 무신 묵이엔 굳는다고?

107084 # 모믈묵, 쏘묵.

107084 @ 쏘묵? 지진묵?

107084 # 지진묵, 쏘묵 경허느네.

107084 @ 그거 계민 식계 때 썰어근에. 저

107084 # 고쟁이에 끼와.

107084 @ 고쟁이에 끼워?

107084 # 옛날엔 보난 그거 고쟁이에 끼워근에, 화리에 솥불 살판이, 지름장 행영영 묵드레 불르멍 구워라. 이젠 안허여.

107084 @ 솥뚜껑이에 지진 다음에?

107084 # 아니. 그 솥뚜껑이에서 지진 거는 그냥 허곡,

107084 @ 아,

107084 # 솥디서 쏜 거.

107084 @ 아, 솥디서 쏜 거. 코싱허겿네 예.

107084 # 코수롱 지름장 불량 솔솔 불르멍 구워 농민이 가물가물헌게 코시롱헤여. 경행. 옛날 어른들 그처럼 허멍 식게 명질 헤라. 나 두린 때 본 거지.

107084 @ 옛날에예, 화리에.

107084 # 우리 역은 후제는 경 안해서.

107084 @ 응, 화릿불에.

107084 # 응, 화릿불에. 하릿불에 솥불 살좌근에.

107085 @ 예, 청묵은 계민 어떻 허는 거짜?

107085 # 청묵은 접질앙 모물썰 물에 컷당.

107085 @ 모물썰을 물에 컷당.

107085 # 물에 컷당, 잘리 만들앙 막 접질아.

107085 @ 응.

107085 # 접질아 불민 이 겹테기가 주시가 나와비어이. 주시 나와불민 그 아래 물만 헤근에 쏘어 가민 그 저 불탁불탁 쏘어 가민 묵 되는 거. 그루 문 나와근에. 겨난 그것이 청묵이다.

107085 @ 하양헌 거예?

107085 # 응 헤영헌게, 알랑알랑헤여 그건. 그것이 청묵.

107085 @ 겨난 식게 때 청묵은 잘 안허여?

107085 # 청묵 이따 허는 집이 가끔 흥나씩 허주. 공들영 못헌다. 모물썰 물에 컷당 그것 막 잘리에 낱 짜야되는 때문에 거 짜기가 경 힘든다게 경헤농난. 아무나 못헛저.

107086 @ 응, 개역.

107086 # 개역이사, 보리보깡.

107086 @ 콩개역도 이수과?

107086 # 콩도 보리 보까근에 지금도 콩개역 행 풀잖아. 보릿개역이나 콩개역이나.

107086 @ 응.

107086 # 거 보까근에 그자 요새 방에에 강 곶아오민게.

107086 @ 그른 옛날에도 보리개역 콩개역 행,

107086 # 응, 보리개역 콩개역 헤여. 이 저 떡에도 허젠허민 잇당 콩 보깡 콩개역도 헤근에 쉬로 행 쉬로 쭈곡,  
107086 @ 평상시엔 어떻행 먹어? 물에 탕?  
107086 # 평상시엔 물에 탕 먹곡, 콩. 콩 개역만은 물에 안 타. 콩개역은 보리에 서경. 이즘도 개역행 프는 건 콩 서경.  
107086 @ 다 서경예,  
107086 # 서경 폴아. 경허곡. 잇다근에 그자 떡이나 허젠 허민 무시거 쉬 엇인 땀 쫓 엇인 땀 콩 보까근에 곶앙 그걸로 쉬 헤여근에 떡 부치곡 경허는 거.  
107086 @ 저 개역은 그냥 물에도 캥 먹곡, 떡 쉬도 허곡, 아이덜은 그거 그냥 간식으로도 먹고?  
107086 # 간식으로도 물에 캥 먹곡,  
107086 @ 예 물에도 캥 먹곡, 난 저 뭐 종이 봉지에 놔근에 영 접앙.  
107086 # 므른차?  
107086 @ 예, 므른차 접아먹당 막 곡경. 허허허허, 애기 땀 경 헤난 거 닳은디.  
107086 # 우리도 우린 막 역은 후제도, 개역을 므른차 폭허게 입드레 거려놔서 나가이. 게 그거 웃지질 못허는 거라.  
107086 @ 예.  
107086 # 개역을 영 입드레 혼 수꼬락 폭허게 걸연, 모른차 걸연 입드레 영 놓차 올리로 보당, 젼 무산 나 봐지난 정 험시니, 영허명 허난 그게 그자 팍허게 웃으난.  
107086 @ 하하하하하.  
107086 # 일로이레 박삭 부꺼 부런. 이 개역은 이레 문 때 웃지질 못헤. 웃엇당은 팍삭 부꺼비여.  
107086 @ 하하하하,  
107086 # 우린 경행 막 웃쩌나곡 그자 개역 먹어가민, 므른차 먹어가민 막 웃져 불주게.  
107086 @ 응, 밥에도 비병 먹어?  
107086 # 밥에도 비병 먹나. 보리밥에.  
107086 @ 아 보릿밥에?  
107086 # 응, 보리밥에 비비민 쿠수룽헌 맛으로. 보릿개역. 옛날 어른들은 보릿개역 헤영.  
107086 @ 아.  
107086 # 밥에도 비병 먹곡, 물에도 그냥 탕 먹곡, 또 그자 아장 말 곶으멍 므른차도 접아먹곡 보릿개역으로 못헤는 게 이서? 떡도 헤여근에 쉬 무청도 먹곡, 잇당 보리떡 헤놔근에, 야 보리떡이라도 허라 먹게. 간식 먹구적 허민,  
107086 @ 예,  
107086 # 그자 보릿개역에 미쳐근에 경헤났져, 또 그것도 행 먹고. 경헤났져 우리 옛날에.

107087 @ 지짐이도 지정먹언 낫수과? 이제사 뭐 심심허민 지짐이 행 먹주만은.

107087 # 그전인 찌짐이 행 먹젠 기영 수월허게 살지 못헤시네. 어리완.

107087 @ 응.

107087 # 이젠 밀ㄱ루도 나오곡, 온갖 것이 다 풍년이 웨난, 밀ㄱ루 ㄴ근에 잇당 부침개도 헤영 먹곡, 무시거 저 새우리도 헤다 낱 허곡. 과도 썰어 낱 헤영 먹곡, 그런 것들 행 먹주. 옛날엔 그런거 헤영 간식으로 먹을 저르가 어디 이서시니. 옛영 못먹은거.

107087 @ 계난 예.

107087 # 못 숯양 먹지, 톨 헤다낱 그거 그 톨밥행 먹지. 썩 숯양 범벅헤연 먹지. 그 어느 저르에 그거 헤영 간식 먹곡, 무신 부침개 헤 먹을 저르가 어디 이시느니? 때로 사는 것도 부찌근에, 때로도 굶어가는디.

107087 @ 아까 썩도 범벅행 먹어?

107087 # 응 썩 숯양 범벅행 먹어.

107087 @ 어떻 행은에?

107087 # 썩 숯양 게.

107087 @ 무신거 낱? 썩허곡.

107087 # ㄱ루ㄴ근에.

107087 @ 무신 ㄱ루?

107087 # 아무 ㄱ루라도, 썩ㄱ루고, 밀ㄱ루고, 모믈ㄱ루로도.

107087 @ 아, 아무 ㄱ루라도, 썩은 숯으민.

107087 # 계난 요즘은 밀ㄱ루 시난 부침개도 헤영 먹곡, 그자.

107088 @ 술 허는 거 술.

107088 # 술?

107088 @ 응.

107088 # 옛날에 저, 흐린 줍썰 잇지이, 흐린줍 알아지지이?

107088 @ 예,

107088 # 그런 거 헤여근에,

107088 @ 예, 오메기 멘들양,

107088 # 오메기 멘들아근에, 그거 숯아근엔에 그거 막 빼어근에, 그거 막 빼어근에 폴폴허게 물 놓멍 빼어근에 거시 누룩서경 ㄴ두민 혼 며틀 웨민 북삭허게 퀘어.

107088 @ 응.

107088 # 겨민 그것이 옛날엔 요추룩 소주가 아니라. 그자 막걸리 술. 그거.

107088 @ 그거 고소리에 낱은에,

107088 # 그거 경헤영 그걸 멘들양, 막걸리가 술이라 낱어, 옛날에, 우리 두린 뎨 보민.

107088 @ 응.

107088 # 이런 술 빠는 기계도 벗어나곡, 견디 우리 막 역은 후제 고소리가 나온 거라이. 술빠는 고소리.

107088 @ 예.

107088 # 겨민 그뎨 기자 좁쌀 그 ㄱ루 아니라도 밀 쫄이라도 밥 헤어근앵에 누룩 서경 놔두민 술 돼는 거라이. 술 돼민 고수리 놔근에 이젠 요디 솟 앓져근에 앓지곡 또 요편이 헤어근에 두 개라.

107088 @ 응.

107088 # 두 개 놔근에 율로 술 두께 더꺼근에, 불 소마가민 술이 뜨뜻헤근에 그 짐이 나오는 거라이 그 짐이 술이라이.

107088 @ 예예.

107088 # 게민 그 요만헌헌 저 무신거 닳은 걸로 헤어근에 쫄쫄쫄쫄 나와, 겨민 흔 솟 밤이 술 두 돼 나오곡 잘허민 두 돼 반, 경 안허민 두 돼 나왓젠 허멍. 경허멍 술빠는 거 봤주.

107088 @ 할머니 안헤반?

107088 # 응 안헤반. 우리 역은 후제 그거 고소리가 나왔주. 술고소리 술고소리 헤놔서.

107088 @ 예,

107088 # 경허당 중간에 술이 어딜로 나온 시작 허난 자꾸 밀세 들어간 것도 못헨 설러비서. 그 고소리 술도 못 빠게시리 헤난.

107088 @ 응, 거난 할무닌 저 집이서 고소리 술 안헤놔구나?

107088 # 아니. 우린 아니헤난.

107088 @ 그냥 주로 막걸리로?

107088 # 막걸리 술만 기자 헤영 그 집이서 먹젠 흥끔 허는 거주. 받아당 먹주, 이 고소리술 흥치.

107089 @ 음, 쉰다리.

107089 # 쉰다리는 지금도 헤영 먹어 우리.

107089 @ 어떻게 허는 거짜? 밥 쉰 걸로?

107089 # 밥 이시민 기자 밥에 그자 누룩 버물여근에 오늘 아침이 버물영 놔두민 널 아침인 북삭허게 퀘여이. 퀘민 이젠 그거 걸러비여.

107089 @ 응.

107089 # 누룩. 만딱 걸러비도근에 설탕이나 흥끔 삭삭 서경 놔두민 냉장고에 놔두민 시원허민 그건 그건 이제도 행 먹어 쉰다리는.

107090 @ 게민 누룩은 어떻 멘드는 거 마씨?

107090 # 누룩은 우린 옛날에 이디서이, 보리 거퍼나근에 그 보리쫄 줌진 거 헤어으네 물 버물영 끈끈허게 영 이제도 영 불량게 육지서도. 그 보리쫄 줌지릉허게 시리 곶아근에. 물 버물영. 이제도 영 낱 불량게. 잘리에 썬 영.

107090 @ 응.

107090 # 우리도 옛날에 이 동글랑 동글랑허게 요만씩허게 허젠 허민, 손에 낡 영 췌어. 떡 췌듯 끈끈허게 췌여근에 무시것에 낡 똑똑허게 영 현디 칭칭이 올려낡 놔두민 물라가멍 터가멍 헤여.

107090 @ 응.

107090 # 누룩이.

107090 @ 보릿그루로?

107090 # 보리로. 겐 브리썰 줌지릉 현 브리썰 곶아근에 그걸로 누룩 헛다근에 쉰다리 헤연 먹여 옛날엔.

107090 @ 응.

107090 # 견디 이디도 보난 육지선 보난 그추룩 허여, 막 동글렁허게 무신거 차 룡 닦은것에 낡, 막 발로 불란게. 끈끈.

107090 @ 응응.

107090 # 이젠 막 블라췌사 하는 때문에. 끈끈 불르멍 툽툽툽 놔두민 물라가멍 터가멍 허민 그것이 누룩이라.

107090 @ 음.

107090 # 그 틈 거 놓면은 궤여 밥이. 궤민. 옛날엔 설탕이 어디서? 설탕도 엇이 북작북작허게 궤민 쉰다리, 쉰다리 허멍 그자 걸러동 그거 먹엇주.

107090 @ 음.

107090 # 요새 설탕 놓난, 설탕 맛으로 더 잘먹엄주.

107091 @ 옛도 만들엉 먹어 낫지예?

107091 # 옛도 저 차 줍쓸 잇잖아. 흐린 줍쓸. 그것에 곶, 보리, 보리.

107091 @ 응.

107091 # 이건이 까끄지 말아근에 동보리.

107091 @ 껌질 잇는 거?

107091 # 응? 껌덕 잇는 거 껌덕 잇는 거, 물에 컷당 흠백이 즈늘거들랑 싹 건져 근에 놔두면 곶이 보리이 보리가 거 과제기 나 가이.

107091 @ 아.

107091 # 뽳룩뽳룩뽳룩 나민 그것이 곶이라이.

107091 @ 예

107091 # 겨민 그 때 바싹 물리왕. 바싹 물리왕 거퍼근앵에 흐린 줍쓸 낡 밥헤근에. 그것에 서경 놔두민 흐린 줍쓸에 밥이 끈닥끈닥허질 안허영 스프르 밥이 갈라 저이.

107091 @ 예.

107091 # 글라지민 껌질아근앵에 딸리는 거라 그걸. 그 물을 딸리민 오래 딸리당 보민 폴폴 허게 옛 췌어.

107091 @ 응.

107091 # 겨민 다른거 안놔도 돌아 옛 딸리민. 그 보리곶 놓앙 허민. 보리 영 물



에 컷다은에 아이고 골 뇌사 허컬 허민 그 높이 보리가 물에 컷당 어디 뚜뚜하게 뇌두민, 뽀쪽뽀쪽뽀쪽뽀쪽뽀쪽 보리가 나. 보리 나 가민 그땀 싹 널영 물리wai.

107091 @ 경행 같아?

107091 # 응. 글아근엥에 낫다근에 흐린 즈쫄 밥 헤근에, 그것에 삭삭 서경 뇌두민 사르륵 허게시리 이 흐린 조밤이라도 끈작끈작 흰 것도 사르륵 헤어비여. 겨민 그거 이제 농명 집질아근에 딸리민 또 이젠 옛이 끈닥끈닥 옛 되는 거. 옛날 할망 들 득옛 딸린다. 무신.

107091 @ 거기다 답도 뇌?

107091 # 응 득 낱 딸려.

107091 @ 득말고 다른 것도 낱 험니까?

107091 # 다른거이 저,

107091 @ 꿩?

107091 # 꿩도 낱 허곡, 막 보기로 옛날 사름들은 개 잡앙이.

107091 @ 아.

107091 # 개고기도 낱 개옛도 허곡. 거 아무나 안헌다. 그런 건.

107091 @ 어.

107091 # 아무나 허지 안허여.

107091 @ 음.

107091 # 막 죽어가는 사름, 흘 수 옛인 사름 살리젠 개옛행 먹엇주, 개는 막 부정허는 거라.

107091 @ 응. 맞아

107091 # 꿩옛, 득옛 허민, 꿩옛도 옛을 막 딸리다근에, 민 딸려져 가건 득을 민 찌지멍 뇌근에 허주, ㄱ치 낱 딸려볼민 요놈으 것 낭코쟁이 웨영 씹어 먹질 못허여. 득.

107091 @ 무신 코쟁이?

107091 # 낭코쟁이.

107091 @ 아, 낱 닳아 불어.

107091 # 응. 흐디 낱 옛이 흐디 낱 딸려볼민 썰영 이걸 먹지 못허여. 게난 옛 다 딸려진 후제, 딸려진 후제 그 득을 막 고기 찌지멍 뇌근에 기자 흘 모룩 레움만 행 뇌두민 허곡, 경 안허민 막 옛에 낱 딸려 비영은 윈 먹지 못허여. 썰영

107091 @ 게민 감주는 어떻 허는 거라? 감주도 거 비슷허게 허지예?

107091 # 감주두 비슷허여.

107091 @ 보릿골.

107091 # 보릿골 뇌근엥에 흐린 즈쫄 낱 밥 헤여근에 삭삭 서경 뇌두민 스트룩 헤여이.

107091 @ 응.

107091 # 스트룩 허민 그거 영 걸러근에, 발랑발랑 숲으민 설탕 안 뇌도 들헤여

그게. 계란 그것이 골감주, 골감주 헤어.

107091 @ 옛은?

107091 # 제스때도 떡곡, 그자 멩질 때도 그거 상에도 올리고, 감주, 감주 허멍.  
그거헨 떡곡 그제 딸린게 그제 오래 딸리민 옛되는 게.

107091 @ 아, 감주 오래 딸리민 옛?

107091 # 응, 감주를 오래 딸리민 옛되는 거.

107091 @ 응.

107091 # 우리 그자 감주루 먹는 거 발랑발랑발랑 퀘여근앵에 그자 그 거시기 골  
물만 익여불민 들허게 먹는 거곡, 그제 딸리민 옛 되는 거. 옛이 별헌 거 아니.

107091 @ 계란 아 감주 만드는 거영 비슷헌디? 허멍은에 생각으로.

107091 # 응, 비슷한 거 맞다게. 그걸 딸리지 안허영 그자 흐졸만 퀘어와근에 골  
빨만 익이면은 감주가 되는 거고,

107091 @ 음.

107091 # 오래 딸러가민 필필 헤가문 푸들푸들허게 옛이 웨어부는 거.

107091 @ 아.

107091 # 그거, 그건 틀리지 안헌 거.

## 기타

107092 @ 오늘 음식 만드는 다 얘기헤신디, 혹시 빠진 거.

107092 # 간 튼내 보멍, 튼내 보멍 헐 거 잇건 또 와.

107092 @ 다른 거 옛날에 먹어난 것도 이런 것도 먹어났저 허멍 생각나는 거 옛  
수과?

107092 # 지금은 나 원 생각나는 거 옛인디 그거베핀.

107092 @ 알겠습니다.

107092 # 옛날 그거 하간 틀이여 무시여 먹어난 거베핀.

## 제2절 어휘

### 1. 인체

#### 얼굴과 머리

|        |        |             |
|--------|--------|-------------|
| 201001 | 머리     | 대가리         |
| 201002 | 대가리    | 머리뺨, 대맹이    |
| 201003 | 크다[大]  | 크다          |
| 201004 | 숫구멍    | 숨골          |
| 201005 | 제비초리   | 제비출렁이, 생이꽂지 |
| 201006 | 머리털    | 머리털         |
| 201007 | 머리카락   | 머리카락        |
| 201008 | 길다[長]  | 질다          |
| 201009 | 짧다[短]  | 졸르다         |
| 201010 | 빗[梳]   | 얼레기         |
| 201011 | 얼레빗    | 얼레기         |
| 201012 | 참빗     | 챙빗          |
| 201013 | 땡다     | 다우다         |
| 201014 | 비녀     | 빈네          |
| 201015 | 고수머리   | 꼬시락머리       |
| 201016 | 가마[旋毛] | 상감, 상가메     |
| 201017 | 쌍가마    | 쌍가메         |
| 201018 | 가르마    | 앞갈른거, 가름    |
| 201019 | 이마     | 이맹이         |
| 201020 | 넓다[廣]  | 넙다          |
| 201021 | 이마빼기   | 임탱이         |
| 201022 | 숨털     | 간세터럭        |
| 201023 | 얼굴     | 늦, 양지       |
| 201024 | 낯[面]   | 늦           |
| 201025 | 웃다[笑]  | 웃다          |
| 201026 | 그리다[寫] | 기리다         |
| 201027 | 세숫대야   | 세멩기         |
| 201028 | 씻다[洗]  | 시스다         |
| 201029 | 거울     | 멘경          |
| 201030 | 보다[見]  | 베리다         |
| 201031 | 뺨      | 양지          |
| 201032 | 뺨따귀    | 불탁사니        |

|        |         |               |
|--------|---------|---------------|
| 201033 | 때리다[打]  | 딱리다, 두들다      |
| 201034 | 불       | 불             |
| 201035 | 불따구니    | *             |
| 201036 | 불거리     | 귀똥칙           |
| 201037 | 광대뼈     | 불뼈            |
| 201038 | 보조개     | *             |
| 201039 | 주름살     | 주름            |
| 201040 | 눈[目]    | 눈             |
| 201041 | 흰자위[目]  | 흰동자           |
| 201042 | 검은자위    | 검은동자          |
| 201043 | 눈꺼풀     | 눈두꺼           |
| 201044 | 거적눈     | 더께눈           |
| 201045 | 눈썹      | 눈썹            |
| 201046 | 질다[濃]   | 지트다           |
| 201047 | 속눈썹     | 속눈썹           |
| 201048 | 양미간(眉間) | *             |
| 201049 | 수침(垂針)  | 눈투세           |
| 201050 | 거머리     | 꼭줄            |
| 201051 | 폐롭다     | 폐가랍다          |
| 201052 | 눈곱      | 눈꼽재기          |
| 201053 | 눈초리     | *             |
| 201054 | 사팔눈     | 사팔떼기, 눈공쟁이진 눈 |
| 201055 | 눈웃음     | 눈웃음           |
| 201056 | 코       | 코             |
| 201057 | 만지다[撫]  | 문지그다          |
| 201058 | 콧마루     | 콧대            |
| 201059 | 세다[強]   | 높다            |
| 201060 | 콧구멍     | 콧고망           |
| 201061 | 코딱지     | 코페렝이          |
| 201062 | 콧물      | 콧물            |
| 201063 | 닦다[拭]   | 다끄다           |
| 201064 | 콧수염     | 콧시염           |
| 201065 | 인중      | 임준이           |
| 201066 | 입       | 입             |
| 201067 | 쓰다[苦]   | 쓰다            |
| 201068 | 참말      | 참말            |
| 201069 | 거짓말     | 거지갈           |

|        |        |                    |
|--------|--------|--------------------|
| 201070 | 바르다[正] | 바르다                |
| 201071 | 뉘달하다   | 답달허다               |
| 201072 | 입술     | 입바위                |
| 201073 | 헐다[毀]  | 헤싸지다, 구감나다         |
| 201074 | 입놀림    | 군입                 |
| 201075 | 말하다    | 말근다                |
| 201076 | 입방아    | *                  |
| 201077 | 허풍     | 허풍, 자랑봉태(허풍쟁이)     |
| 201078 | 뇌다     | 골악골악허다             |
| 201079 | 침[唾]   | 꿈                  |
| 201080 | 삼키다[吞] | 숨지다                |
| 201081 | 가래침    | 개춤                 |
| 201082 | 뱉다[吐]  | 바끄다                |
| 201083 | 느침     | 니치름                |
| 201084 | 턱받이    | 턱바지                |
| 201085 | 혀      | 세                  |
| 201086 | 핥다     | 할르다                |
| 201087 | 헛바늘    | 셋가시, 구감            |
| 201088 | 이[齒]   | 니                  |
| 201089 | 앞니     | 압니                 |
| 201090 | 송곳니    | 걸니                 |
| 201091 | 덧니     | 덧니                 |
| 201092 | 버드렁니   | *                  |
| 201093 | 어금니    | 어금니                |
| 201094 | 사랑니    | *                  |
| 201095 | 옥니     | 오근니                |
| 201096 | 옥다[曲]  | 오글다                |
| 201097 | 돋다[出]  | 나오다                |
| 201098 | 옥물다    | 양물다                |
| 201099 | 턱      | 아구턱                |
| 201100 | 턱살     | 아구턱살, 휘양드레기(돼지 목살) |
| 201101 | 빨다[稍峽] | 빨아지다               |
| 201102 | 수염     | 시염                 |
| 201103 | 귀      | 귀                  |
| 201104 | 귓바퀴    | *                  |
| 201105 | 귓볼     | 귓자락                |
| 201106 | 귓구멍    | 귓고냥                |

|        |        |      |
|--------|--------|------|
| 201107 | 귀칭(고막) | 귀창   |
| 201108 | 귀지     | 귓밥   |
| 201109 | 귀이개    | *    |
| 201110 | 가는귀    | ㄱ는귀  |
| 201111 | 귀밑     | *    |
| 201112 | 구레나룻   | 녹대시염 |
| 201113 | 목      | 목    |
| 201114 | 굽다[顛]  | 훑다   |
| 201115 | 모가지    | 야가지  |
| 201116 | 먹살     | 모가지  |
| 201117 | 잡다[執]  | 심다   |
| 201118 | 뒤통수    | 뒷대가리 |
| 201119 | 꼭뒤     | *    |
| 201120 | 뒷덜미    | 뒷모감지 |

#### 상체

|        |         |       |
|--------|---------|-------|
| 201121 | 어깨      | duk지  |
| 201122 | 어깨뼈     | duk지짱 |
| 201123 | 어깨죽지    | *     |
| 201124 | 겨드랑이    | 저갱이   |
| 201125 | 팔       | 폴     |
| 201126 | 팔뚝      | 폴뚝    |
| 201127 | 새기다[刻]  | 기리다   |
| 201128 | 팔심      | 폴심    |
| 201129 | 힘줄      | 심줄    |
| 201130 | 답살      | 득술    |
| 201131 | 팔꿈치     | 폴꿈지   |
| 201132 | 팔목(=손목) | 홀목    |
| 201133 | 뼈       | 빼     |
| 201134 | 뼈다귀     | 짱     |
| 201135 | 손       | 손     |
| 201136 | 왼손      | 왼착손   |
| 201137 | 오른손     | 노단착손  |
| 201138 | 왼손잡이    | 왼쟁이   |
| 201139 | 손등      | 손등어리  |
| 201140 | 손바닥     | 손바닥   |
| 201141 | 손톱      | 손콧    |

|        |         |                 |
|--------|---------|-----------------|
| 201142 | 들다[擧]   | 들르다             |
| 201143 | 흔들다[搖]  | 흔들다, 손치다        |
| 201144 | 거스러미    | 거슴              |
| 201145 | 할퀴다     | 할퀴다             |
| 201146 | 손가락     | 손가락             |
| 201147 | 엄지손가락   | 엄지손가락           |
| 201148 | 검지손가락   | 무명지손가락, 안주에기손가락 |
| 201149 | 가운뎃손가락  | 상손가락            |
| 201150 | 약손가락    | 노누에기손가락         |
| 201151 | 새끼손가락   | 새끼손가락           |
| 201152 | 손살      | 손거림             |
| 201153 | 가슴      | 가슴              |
| 201154 | 뛰다[跳]   | 튀다              |
| 201155 | 젓가슴     | 젓가슴             |
| 201156 | 명치      | 멩짱              |
| 201157 | 명자리     | *               |
| 201158 | 젓       | 젓               |
| 201159 | 젓꼭지     | 젓꼭지             |
| 201160 | 젓명울     | 젓명얼             |
| 201161 | 짜다[擻]   | 짜다              |
| 201162 | 울다[鳴]   | 울다              |
| 201163 | 배[腹]    | 배               |
| 201164 | 기다[匍]   | 기다              |
| 201165 | 고프다[餓]  | 고프다             |
| 201166 | 배꼽      | 배또롱             |
| 201167 | 옆구리     | 옆덩이             |
| 201168 | 갈비뼈     | 갈리뼈             |
| 201169 | 등       | 등, 등어리          |
| 201170 | 밀다[推]   | 밀다              |
| 201171 | 굽다[曲]   | 굽다              |
| 201172 | 등매기     | 등따리             |
| 201173 | 가렵다[癢]  | ㄱ랴다             |
| 201174 | 긁다[抓]   | 글다              |
| 201175 | 결리다     | 담부뜨다            |
| 201176 | 등목(=목물) | *               |
| 201177 | 찬물      | 실린물             |
| 201178 | 등마루     | *               |

201179 등뼈 등짱

**하체**

201180 허리 허리  
201181 잔허리 존등이  
201182 가늘다[細] 그늘다  
201183 엉덩이 엉치  
201184 살집 \*  
201185 볼기 볼기짱  
201186 엉덩이뼈 엉치뼈  
201187 궁둥이 궁뎅이  
201188 궁둥이뼈 궁대잉뼈  
201189 살 슬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또꼬망  
201191 더럽다[汚] 추잡허다, 애록허다  
201192 가볍다[輕] 개볍다  
201193 무겁다[重] 메다  
201194 살 샷갱이, 샷툼  
201195 가래툼 멩얼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사다  
201198 허벅다리 허벅다리  
201199 넓적다리 \*  
201200 무릎 동무릅  
201201 무릎뼈 절벵짱  
201202 뼈다[脛] 고무끄다  
201203 정강이 정강이, 성문  
201204 정강뼈 정강이뼈, 성문뎅이  
201205 종아리 주술  
201206 장판지 잠지  
201207 오금 토고마리, 토고막지  
201208 복사뼈 귀마리짱  
201209 발[足] 발  
201210 걸다[步] 걸다  
201211 굵다[凶] 굵다  
201212 헛발질 헛발  
201213 발목 귀마리



|        |       |      |
|--------|-------|------|
| 201214 | 겹질리다  | 고무끄다 |
| 201215 | 발등    | 발등어리 |
| 201216 | 발바닥   | 발창   |
| 201217 | 발부리   | 발봉오지 |
| 201218 | 차다[蹴] | 차다   |
| 201219 | 간지럽다  | 저글롭다 |
| 201220 | 간지럼   | 저금   |
| 201221 | 발가락   | 발가레기 |

|          |        |        |
|----------|--------|--------|
| 201221-1 | 엄지발가락  | 엄지발가레기 |
| 201221-2 | 둘째발가락  | 상발가레기  |
| 201221-3 | 가운뎃발가락 | *      |
| 201221-4 | 넷째발가락  | *      |
| 201221-5 | 새끼발가락  | 새끼발가레기 |

|          |        |          |
|----------|--------|----------|
| 201222   | 발살     | 발거름      |
| 201223   | 까치눈    | 발거름나다    |
| 201224   | 티눈     | 퀴눈, 명쿠쟁이 |
| 201225   | 고린내    | 고랑내      |
| 201226   | 발톱     | 발굽       |
| 201227   | 발뒤축    | 발뒤척이     |
| 201228   | 쓸개[膽]  | 실개       |
| 201229   | 허파     | 북베기      |
| 201230   | 마음     | 므슴       |
| 201231   | 곱다[麗]  | 곱다       |
| 201232   | 창자     | 창지       |
| 201232-1 | 큰창자    | 대창       |
| 201232-2 | 작은창자   | 즌배설      |
| 201233   | 목숨     | 목숨       |
| 201234   | 빼앗다[脫] | 빼앗다      |
| 201235   | 한숨     | 한숨       |

## 2. 육아

### 발달

|        |        |           |
|--------|--------|-----------|
| 202001 | 서다[孕]  | 배다        |
| 202002 | 시다[酸]  | 시다        |
| 202003 | 기쁘다[喜] | 지꺼지다      |
| 202004 | 입덧     | 입덧        |
| 202005 | 낳다[媿]  | 낳다, 몸갈르다  |
| 202006 | 태(胎)   | 애기뿔, 애기방석 |
| 202007 | 땃줄     | 뱃또롱줄      |
| 202008 | 나이     | 나이        |
| 202009 | 어리다[幼] | 두리다       |
| 202010 | 터울     | 묻이        |
| 202011 | 갓난아이   | 갓난애기, 물애기 |
| 202012 | 싸다[包]  | 끼리다       |
| 202013 | 어린아이   | 두린아이      |
| 202014 | 사내아이   | 소나이       |
| 202015 | 계집아이   | 지집아이      |
| 202016 | 아깁다    | 아깁다       |
| 202017 | 아이보개   | 애기엽개      |
| 202018 | 엽저지    | 애기엽개      |
| 201019 | 품다     | 안다        |
| 202020 | 오줌     | 오줌        |
| 202021 | 오줌독    | 오줌항       |
| 202022 | 오줌버캐   | 정쟁이       |
| 202023 | 오줌싸개   | 오줌쌌기      |
| 202024 | 누다[便]  | 싸다        |
| 202025 | 나무라다   | *         |
| 202026 | 지렁내    | 지렁내       |
| 202027 | 마렵다    | 메롭다       |
| 202028 | 꾸지람    | 욕         |
| 202029 | 배냇저고리  | 뽕뽕옷       |
| 202030 | 기저귀    | 지성귀       |
| 202031 | 배두렁이   | 배부레기      |
| 202032 | 포대기    | 포대기       |
| 202033 | 보자기    | 보따리       |
| 202034 | 보따리    | 보따리       |
| 202035 | 풀다[解]  | 클르다       |
| 202036 | 끄르다    | 클르다       |
| 202037 | 처네     | 들름지성귀     |

|        |       |        |
|--------|-------|--------|
| 202038 | 띠     | 걸렁이    |
| 202039 | 개구멍바지 | 강알터진바지 |

**재통과 놀이**

|        |         |        |
|--------|---------|--------|
| 202040 | 죄암죄암    | 좀메좀메   |
| 202041 | 곤지곤지    | 곤지곤지   |
| 202042 | 따로따로    | 섬메     |
| 202043 | 도리도리    | 마니마니   |
| 202044 | 짹짹      | 던데던데   |
| 202045 | 부라부라    | *      |
| 202046 | 걸음마     | 걸음발    |
| 202047 | 걸리다     | 걸리다    |
| 202048 | 곤두박질    | 곤작     |
| 202049 | 곤두서다    | 곤작사다   |
| 202050 | 가동가동    | *      |
| 202051 | 안다[抱]   | 안다     |
| 202052 | 안기다     | 안기다    |
| 202053 | 목말      | 정개고개   |
| 202054 | 흉내      | 승      |
| 202055 | 흉내질하다   | 승털다    |
| 202056 | 엄살      | 엄살     |
| 202057 | 쌈       | 시알, 개심 |
| 202058 | 자라다[成長] | 질다     |
| 202059 | 부아      | 용심     |
| 202060 | 참다[忍]   | 춤다     |
| 202061 | 심술      | 몽니     |
| 202062 | 밋다[憎]   | 밋성바르다  |
| 202063 | 옛말      | 옛말     |
| 202064 | 자치기     | 자치기    |
| 202065 | 구슬치기    | 다마치기   |
| 202066 | 딱지치기    | 빠짱치기   |
| 202067 | 통차기     | *      |
| 202068 | 숨바꼭질    | 굽을락    |
| 202069 | 숨다      | 굽다     |
| 202070 | 소꿉놀이    | 소꿉장난   |
| 202071 | 놀다[遊]   | 놀다     |
| 202072 | 실뜨기     | 실떼기    |



|        |         |       |
|--------|---------|-------|
| 202095 | 이기다[勝]  | 이기다   |
| 202096 | 승강이     | 승강이   |
| 202097 | 싸우다[鬪]  | 드투다   |
| 202098 | 패싸움     | 패싸움   |
| 202099 | 모다기령    | *     |
| 202100 | 편벽하다    | 편들다   |
| 202101 | 팽이치기    | 팽이치기  |
| 202102 | 팽이      | 팽이    |
| 202103 | 돌다[回]   | 돌다    |
| 202104 | 바람개비    | 브름도레기 |
| 202105 | 연       | 연     |
| 202106 | 방패연(쟁연) | 들연    |
| 202107 | 가오리연    | 가오리연  |
| 202108 | 연달      | 살     |

|          |     |                         |   |
|----------|-----|-------------------------|---|
| 202108-1 | 머릿달 | 연의 머리에 붙인 대             | * |
| 202108-2 | 꽂숫달 | 연의 가운데에 길이로 붙인 대        | * |
| 202108-3 | 꺾달  |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붙인 대 | * |
| 202108-4 | 허릿달 | 연의 허리에 붙인 대             | * |

|        |     |     |
|--------|-----|-----|
| 202109 | 방구멍 | *   |
| 202110 | 꼭지  | *   |
| 202111 | 갈개발 | *   |
| 202112 | 벌이줄 | 벌이줄 |

|          |      |   |      |
|----------|------|---|------|
| 202112-1 | 머릿줄  |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벌이줄                                    | 앞벌이줄 |
| 202112-2 |      |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벌이줄                                  | 뒷벌이줄 |
| 202112-3 | 꽂숫줄  | 연의 꽂숫구멍에 꿰어서 꽂숫달에 잡아 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벌이줄 | *    |
| 202112-4 | 활벌이줄 |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 처럼 잡아당기어 맨 벌이줄                   | *    |
| 202112-5 | 가운뎃줄 | 연의 방구멍에 매는 벌이줄  | *    |

|        |       |    |
|--------|-------|----|
| 202113 | 얼레    | *  |
| 202114 | 두모얼레  | *  |
| 202115 | 네모얼레  | *  |
| 202116 | 감다[捲] | 감다 |

|        |         |       |
|--------|---------|-------|
| 202117 | 개미[연놀이] | *     |
| 202118 | 퇴김      | *     |
| 202119 | 그네[鞦韆]  | 그네    |
| 202120 | 밀신개     | *     |
| 202121 | 굴렁쇠     | 도레기   |
| 202122 | 구르다[轉]  | 둥그리다  |
| 202123 | 썰매      | *     |
| 202124 | 자전거     | 즈전거   |
| 202125 | 키[身長]   | 지레    |
| 202126 | 키다리     | క్క다리 |

### 생리와 질병

|        |        |       |
|--------|--------|-------|
| 202127 | 하품     | 하우염   |
| 202128 | 선하품    | *     |
| 202129 | 기지개    | 질트는 거 |
| 202130 | 기지개하다  | 질트다   |
| 202131 | 경기하다   | 정기허다  |
| 202132 | 놀라다[驚] | 노래다   |
| 202133 | 졸음     | 졸음    |
| 202134 | 졸다[眠]  | 졸다    |
| 202135 | 졸리다    | 조랍다   |
| 202136 | 잠      | 즘     |
| 202137 | 귀잠     | *     |
| 202138 | 자다[眠]  | 자다    |
| 202139 | 잠꼬대    | 헛말    |
| 202140 | 잠귀     | 즘귀    |
| 202141 | 잠꾸러기   | 즘꾸레기  |
| 202142 | 몸부림    | 몸질    |
| 202143 | 몸부림하다  | 몸질허다  |
| 202144 | 트림     | 게틀레기  |
| 202145 | 말꼭질    | 툄국지   |
| 202146 | 채채기    | 햇쟁이   |
| 202147 | 개치네췌   | 털쉬    |
| 202148 | 방귀     | 똥     |
| 202149 | 방귀뀌다   | 똥뀌다   |
| 202150 | 방귀장이   | 똥복쟁이  |
| 202151 | 구린내    | 똥내    |

|        |         |       |
|--------|---------|-------|
| 202152 | 노린내     | 그끄렁내  |
| 202153 | 사레들다    | 야게 걸다 |
| 202154 | 감기      | 고뿔    |
| 202155 | 기침      | 지침    |
| 202156 | 홍역      | 마누라   |
| 202157 | 학질      | *     |
| 202158 | 천연두     | 큰한집   |
| 202159 | 곰보      | *     |
| 202160 | 비듬      | 비듬    |
| 202161 | 기계총     | 이발총   |
| 202162 | 독창      | *     |
| 202163 | 두부백선    | 번지    |
| 202164 | 웃       | *     |
| 202165 | 버짐      | 버줌    |
| 202166 | 마른버짐    | 마른버줌  |
| 202167 | 진버짐     | 진버줌   |
| 202168 | 주근깨     | 푼리침   |
| 202169 | 기미      | 지미    |
| 202170 | 사마귀[黑子] | 사막    |
| 202171 | 여드름     | 놋싸움   |
| 202172 | 멍       | 멍     |
| 202173 | 퍼렇다     | 퍼렇허다  |
| 202174 | 굳은살     | 켁이    |
| 202175 | 부스럼     | *     |
| 202176 | 종기      | 종기    |
| 202177 | 습종      | 가시허물  |
| 202178 | 나다[生]   | 나다    |
| 202179 | 붉은발     | 허물발   |
| 202180 | 다대      | 닥지    |
| 202181 | 고름[膿]   | 고름    |
| 202182 | 고장물     | *     |
| 202183 | 낫다[癒]   | 낫다    |
| 202184 | 아물다     | 새슬매다  |
| 202185 | 표적      | 폐적    |
| 202186 | 생인손     | 배접    |
| 202187 | 알다[痛]   | 알리다   |
| 202188 | 두드러기    | 두드레기  |

|          |       |            |
|----------|-------|------------|
| 202189   | 땀띠    | 땀띠기        |
| 202190   | 소경    | 봉서         |
| 202191   | 칭맹과니  | 눈튼봉서       |
| 202192   | 먼산바라기 | *          |
| 202193   | 애꾸눈이  | 웨눈백이       |
| 202194   | 사팔뜨기  | 사팔뜨기       |
| 202195   | 다래끼   | 개썸         |
| 202195-1 |       | 들윗         |
| 202195-2 |       | 개썸         |
| 202196   | 언칭이   | 칭보         |
| 202197   | 외언칭이  | 외얼챙이       |
| 202198   | 쌍언칭이  | 쌍얼챙이       |
| 202199   | 귀떡다   | 귀막다        |
| 202200   | 귀머거리  | 귀막시        |
| 202201   | 병어리   | 말몰레기       |
| 202202   | 말더듬이  | *          |
| 202203   | 혀짤배기  | 세다드레기      |
| 202204   | 입비뚫이  | 입트레기       |
| 202205   | 구안괘사  | 와살퐁        |
| 202206   | 가납사니  | *          |
| 202207   | 곰배팔이  | *          |
| 202208   | 곰사등이  | 곰새         |
| 202209   | 절뚝발이  | 발틀레기, 발절레기 |
| 202210   | 얏은뱅이  | 얏인베기       |
| 202211   | 문둥이   | 문둥이        |

### 3. 친족

|        |      |     |
|--------|------|-----|
| 203001 | 아버지  | 아방  |
| 203002 | 어머니  | 어멍  |
| 203003 | 아비   | 아방  |
| 203004 | 어미   | 어멍  |
| 203005 | 할아버지 | 하르방 |
| 203006 | 할머니  | 할망  |
| 203007 | 남편   | 서방  |
| 203008 | 아내   | 각시  |



203009 부부 두가시, 두부처, 두갯  
 203010 싫다[厭] 싫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          |      |      |
|----------|------|------|
| 203012-1 | 큰아들  | 큰아덜  |
| 203012-2 | 둘째아들 | 셋아덜  |
| 203012-3 | 셋째아들 | 말젯아덜 |
| 203012-4 | 막내아들 | 족은아덜 |

※아들이 다섯인 경우

|          |      |        |
|----------|------|--------|
| 203012-5 | 큰아들  | 큰아덜    |
| 203012-6 | 둘째아들 | 셋아덜    |
| 203012-7 | 셋째아들 | 말젯아덜   |
| 203012-8 | 넷째아들 | 족은말젯아덜 |
| 203012-9 | 막내아들 | 족은아덜   |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203013 친아들 아덜  
 203014 의붓아들 다슴아덜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딸  
 203017 의붓딸 다슴딸  
 203018 자식 자식  
 203019 없다[無] 엇다  
 203020 자손 자손  
 203021 어비딸 애새끼  
 203022 어비아들 애비아덜  
 203023 닳다[相似] 닳다  
 203024 어이딸 에딸  
 203025 어이아들 애새끼  
 203026 말이 못이  
 203027 막내 막둥이  
 203028 형 성  
 203029 누님 누이  
 203030 누이 \*

|          |        |            |
|----------|--------|------------|
| 203031   | 언니     | 성          |
| 203032   | 아우     | 아시         |
| 203033   | 외아들    | 외독즈        |
| 203034   | 외딸     | 단딸         |
| 203035   | 쌍둥이    | 글레기        |
| 203036   | 다르다[異] | 뜨나다        |
| 203037   | 같다[如]  | ㄱ뜨다        |
| 203038   | 양자     | 양제         |
| 203038-1 |        | 주다         |
| 203038-2 |        | 돌아오다       |
| 203039   | 처녀     | 비바리        |
| 203040   | 총각     | 총각         |
| 203041   | 혼인     | 결혼         |
| 203042   | 날[日]   | 날          |
| 203043   | 사주보다   | 스주고남허다     |
| 203044   | 중신     | 중신         |
| 203045   | 권당     | 퀸당         |
| 203045-1 |        | 퀸당의 낮춤말    |
| 203045-2 |        | 퀸당보다 좁은 범위 |
| 203046   | 얏은잔치   | 얏인잔치       |
| 203046-1 | 암창개    | 암창개        |
| 203047   | 사위     | 사위         |
| 203048   | 며느리    | 메누리        |
| 203049   | 시아버지   | 시아버지       |
| 203050   | 시어머니   | 시어머니       |
| 203051   | 장인     | 가시아방       |
| 203052   | 장모     | 가시어명       |
| 203053   | 외할아버지  | 외하르방       |
| 203054   | 외할머니   | 외할망        |
| 203055   | 삼촌     | 삼촌         |
| 203055-1 | 삼촌     | 삼촌         |
| 203056   | 아주버니   | 아지방        |
| 203057   | 아주머니   | 아지방        |
| 203058   | 환갑     | 환갑         |
| 203059   | 늙으신네   | *          |
| 203060   | 꾸정꾸정하다 | *          |
| 203061   | 살다[生]  | 살다         |

|        |       |      |
|--------|-------|------|
| 203062 | 고로롱팔십 | 콜랑팔십 |
| 203063 | 병추기   | 주리벙  |
| 203064 | 거동하다  | 오몽허다 |
| 203065 | 손자    | 손지   |
| 203066 | 손녀    | 손녀   |
| 203067 | 친손자   | 손지   |
| 203068 | 외손자   | 웨손지  |
| 203069 | 친탁    | 성탁   |
| 203070 | 외탁    | 웨탁   |
| 203071 | 내척    | *    |
| 203072 | 외척    | *    |
| 203073 | 종내기   | 종내기  |
| 203074 | 시누이   | 시누이  |
| 203075 | 올케    | 아지망  |
| 203076 | 큰아버지  | 큰아방  |
| 203077 | 큰어머니  | 큰어멍  |
| 203078 | 작은아버지 | 족은아방 |
| 203079 | 작은어머니 | 족은어멍 |
| 203080 | 조카    | 조캐   |
| 203081 | 고모    | 삼춘   |
| 203082 | 고모부   | 삼춘   |
| 203083 | 이모    | 삼춘   |
| 203084 | 이모부   | 삼춘   |
| 203085 | 외삼촌   | 삼춘   |
| 203086 | 넋할아버지 | 넋하르방 |
| 203087 | 넋할머니  | 넋할망  |
| 203088 | 넋손자   | 넋손지  |
| 203089 | 홀아버   | 홀아방  |
| 203090 | 홀어미   | 홀어멍  |
| 203091 | 친아버지  | 아버지  |
| 203092 | 친어머니  | 어머니  |
| 203093 | 의붓아버지 | 다슴아방 |
| 203094 | 의붓어머니 | 다슴어멍 |
| 203095 | 웁딸    | 비린딸  |
| 203096 | 누구    | 누게   |
| 203097 | 남[他]  | 눔    |

#### 4. 의복

##### 옷감과 세탁

|        |        |              |
|--------|--------|--------------|
| 204001 | 옷감     | 옷기지          |
| 204002 | 끓다     | 끈다           |
| 204003 | 명주     | 맹지           |
| 204004 | 명주실    | 맹지실          |
| 204005 | 명주옷    | 맹지옷          |
| 204006 | 줄다[縮]  | 줄다           |
| 204007 | 무명     | 미녕           |
| 204008 | 무명실    | 미녕실          |
| 204009 | 닷새무명   | 닷새미녕         |
| 204010 | 옛새무명   | 옛새미녕         |
| 204011 | 생목     | 지차미녕         |
| 204012 | 광목     | 광목, 짓광목, 옥양목 |
| 204013 | 베      | 베, 토페, 마페    |
| 204014 | 베옷     | 베옷           |
| 204015 | 베치마    | 베치메          |
| 204016 | 숨      | 소계           |
| 204017 | 풀숨     | *            |
| 204018 | 숨틀     | 물우레          |
| 204019 | 숨틀집    | 소계테우는집       |
| 204020 | 목화     | 멘네           |
| 204021 | 목화다래   | 멘네도레, 멘네도레기  |
| 204022 | 누에     | 누에           |
| 204023 | 누에채반   | 차반지          |
| 204024 | 번데기    | 번데기          |
| 204025 | 고치     | 고치           |
| 204026 | 뽕잎     | 뽕입           |
| 204027 | 뽕나무    | 뽕낭, 뽕남       |
| 204028 | 산뽕나무   | 컷남           |
| 204029 | 오디     | 오동, 뽕탈       |
| 204030 | 다듬잇돌   | 홍깃대, 세답돔베    |
| 204031 | 다듬잇방망이 | 다데미마께        |
| 204032 | 펴다     | 폐다           |
| 204033 | 빨다[滌]  | 빨다           |

|        |        |        |
|--------|--------|--------|
| 204034 | 거품     | 버꿈     |
| 204035 | 물거품    | 물버꿈    |
| 204036 | 빨랫돌    | 물광     |
| 204037 | 빨랫방망이  | 물마개    |
| 204038 | 빨랫바구니  | 서답구덕   |
| 204039 | 행구다    | 헤우다    |
| 204040 | 빨랫줄    | 세답줄    |
| 204041 | 마르다[乾] | 들르다    |
| 204042 | 바지랑대   | 거림작대기  |
| 204043 | 널다     | 널다     |
| 204044 | 걷다[收]  | 들이다    |
| 204045 | 바래다[褪] | 발다     |
| 204046 | 헹겔     | 헹벅     |
| 204047 | 찢다[裂]  | 찢다     |
| 204048 | 나부랭이   | 헹벅보시레기 |

#### 복식

|        |       |      |
|--------|-------|------|
| 204049 | 바지    | 바지   |
| 204050 | 바짓가랑이 | *    |
| 204051 | 저고리   | 저고리  |
| 204052 | 치마    | 치메   |
| 204053 | 치맛자락  | 치메자락 |
| 204054 | 풀치마   | 통치메  |
| 204055 | 옷고름   | 곰    |
| 204056 | 옷깃    | 깃    |
| 204057 | 옷섶    | 앞섭   |
| 204058 | 단추    | 단추   |
| 204059 | 매듭단추  | 별모작  |
| 204060 | 동정    | 동전   |
| 204061 | 소매    | 소미   |
| 204062 | 중의    | 중이   |
| 204063 | 갈중의   | 갈중이  |
| 204064 | 적삼    | 적상   |
| 204065 | 도포    | 도폭   |
| 204066 | 두루마기  | 후루메  |
| 204067 | 장옷    | 장옷   |
| 204068 | 고쟁이   | 고장중이 |

|          |       |              |
|----------|-------|--------------|
| 204069   | 토시    | 소대, 한소미(신부옷) |
| 204070   | 누더기   | 헌옷           |
| 204071   | 거지    | 동녕바치         |
| 204072   | 구두쇠   | 뽀쟁이          |
| 204073   | 잠방이   | 정뱅이          |
| 204074   | 허리띠   | 허리띠          |
| 204074-1 |       | *            |
| 204075   | 주머니   | 주맹기          |
| 204076   | 호주머니  | 게와쌈, 보게띠     |
| 204077   | 넙다[入] | 찢르다          |
| 204078   | 버선    | 보선           |

|          |      |              |     |
|----------|------|--------------|-----|
| 204078-1 | 버선목  | 발목이 닿는 부분    | 보선목 |
| 204078-2 | 버선꿈치 | 발꿈치가 닿는 부분   | 뒤척이 |
| 204078-3 | 버선등  | 발등이 닿는 부분    | *   |
| 204078-4 | 버선코  | 앞쪽 끝에 뽀족한 부분 | 앞코지 |

|        |       |          |
|--------|-------|----------|
| 204079 | 길목버선  | 질목       |
| 204080 | 버선발   | 보선발      |
| 204081 | 대님    | 다님       |
| 204082 | 감발    | *        |
| 204083 | 홀옷    | 훗옷       |
| 204084 | 겹옷    | 접옷       |
| 204085 | 숨옷    | 소게옷      |
| 204086 | 얇다    | 얄롭다      |
| 204087 | 입다[着] | 입다       |
| 204088 | 이불    | 이불       |
| 204089 | 이불깃   | 이불깃      |
| 204090 | 이불잇   | 이불호칭     |
| 204091 | 홀이불   | 훗이불      |
| 204092 | 겹이불   | 접이불      |
| 204093 | 사이    | 사이       |
| 204094 | 누비이불  | 플레이불     |
| 204095 | 이불보   | 이불포      |
| 204096 | 보풀    | 푸숨, 모드레기 |
| 204097 | 홀칭    | 호칭       |

|        |        |       |
|--------|--------|-------|
| 204098 | 요      | 요     |
| 204099 | 옷잇     | *     |
| 204100 | 눅다[臥]  | 눅다    |
| 204101 | 누이다    | 눅지다   |
| 204102 | 담요     | 담요    |
| 204103 | 방석     | 요팡석   |
| 204104 | 앉다[座]  | 앗다    |
| 204105 | 베개     | 베개    |
| 204106 | 베갯잇    | 베개호칭  |
| 204107 | 베갯머리   | 마리맛   |
| 204108 | 베갯모    | 모메기   |
| 204109 | 목침     | 목탕    |
| 204110 | 삿갓     | 삿갓    |
| 204111 | 패랭이    | 패랭이   |
| 204112 | 유건     | 유건    |
| 204113 | 병거지    | 병것    |
| 204114 | 밀짚모자   | 밀짚패랭이 |
| 204115 | 미사리    | *     |
| 204116 | 짚신     | 초신    |
| 204117 | 제총박이   | *     |
| 204118 | 판총박이   | *     |
| 204119 | 미투리    | *     |
| 204120 | 삼다[造履] | 삼다    |
| 204121 | 나막신    | 남신    |
| 204122 | 가족신    | 가막창신  |
| 204123 | 부르뜨다   | 붕물다   |
| 204124 | 벗다[脫]  | 멋다    |
| 204125 | 설피     | *     |
| 204126 | 문수     | 몽     |
| 204127 | 부채     | 선재    |
| 204128 | 미선     | *     |
| 204129 | 부치다[扇] | 푸끄다   |

**바느질과 도구**

|        |        |      |
|--------|--------|------|
| 204130 | 반질고리   | 바농상지 |
| 204131 | 가위     | ㄱ새   |
| 204132 | 마르다[裁] | 들르다  |





|           |       |                                      |    |
|-----------|-------|--------------------------------------|----|
| 204154-1  | 괴머리   |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 *  |
| 204154-2  | 괴머리기둥 |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 *  |
| 204154-3  | 설다리   |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 *  |
| 204154-4  | 가로대   |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 *  |
| 204154-5  | 물레바퀴  | 물레의 바퀴                               | 바퀴 |
| 204154-6  | 꼭지마리  | 물레의 손잡이                              | 조록 |
| 204154-7  | 동줄    |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 줄  |
| 204154-8  | 가락고동  |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 *  |
| 204154-9  | 가락(옷) |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 *  |
| 204154-10 | 굴뚝    |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 *  |
| 204154-11 | 물렛줄   |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 *  |

204155 자세 \*

## 5. 음식

### 주식

|        |         |           |
|--------|---------|-----------|
| 205001 | 밥       | 밥         |
| 205002 | 쌀       | 찰         |
| 205003 | 쌀독      | 찰항        |
| 205004 | 담다[入]   | 담다        |
| 205005 | 보리밥     | 보리밥       |
| 205006 | 끓어오르다   | 부끄다       |
| 205007 | 빼다[湯水]  | 뜸재우다, 뺏뜨다 |
| 205008 | 조밥      | 조팍        |
| 205009 | 덜다[減]   | 덜다        |
| 205010 | 흰밥      | 곤밥        |
| 205011 | 팍밥      | 팍밥        |
| 205012 | 반지기     | 반지기       |
| 205013 | 고두밥     | 선밥        |
| 205014 | 먹다[食]   | 먹다        |
| 205015 | 누룽지     | 누렁이       |
| 205016 | 눌은밥     | 누렁이       |
| 205017 | 더운밥     | 더운밥       |
| 205018 | 식은밥(찬밥) | 식은밥       |

|          |        |          |
|----------|--------|----------|
| 205019   | 툇밥     | 툇밥       |
| 205019-1 | 패밥     | 패밥       |
| 205019-2 | 과래밥    | 과래밥      |
| 205020   | 밥보     | 밥푸대      |
| 205021   | 밥술     | *        |
| 205022   | 밥알     | 밥방울      |
| 205023   | 끼니     | 때        |
| 205024   | 늦다[晩]  | 늦다       |
| 205025   | 이르다[早] | 일르다      |
| 205026   | 공밥     | 공짜밥      |
| 205027   | 놀다     | 놀다       |
| 205028   | 승냥     | 승냥       |
| 205029   | 화독내    | 그끄렁내, 칸내 |
| 205030   | 국      | 국        |
| 205031   | 나물국    | 낙물국      |
| 205032   | 콩국     | 콩국       |
| 205033   | 춧국     | *        |
| 205034   | 냉국     | 냉국       |
| 205035   | 건더기    | 건지       |
| 205036   | 국물     | 국물       |
| 205037   | 굶다[飢]  | 굶다       |
| 205038   | 죽      | 죽        |
| 205039   | 덥다[暑]  | 덥다       |
| 205040   | 흰죽     | 곤죽       |
| 205041   | 팥죽     | 팥죽       |
| 205042   | 섞다[混合] | 서끄다      |
| 205043   | 콩죽     | 콩죽       |
| 205044   | 갱죽     | 국죽       |
| 205045   | 깨죽     | 깨죽       |
| 205046   | 녹두죽    | 녹디죽      |

#### 부식

|        |      |      |
|--------|------|------|
| 205047 | 반찬   | 출레   |
| 205048 | 데우다  | 데우다  |
| 205049 | 김치   | 김치   |
| 205050 | 배추김치 | 배추김치 |
| 205051 | 무김치  | 눔뻬김치 |

|        |       |            |
|--------|-------|------------|
| 205052 | 열무김치  | 춌늑물집치, 츠메기 |
| 205053 | 물김치   | 물김치        |
| 205054 | 나박김치  | 나박김치       |
| 205055 | 갓김치   | 갓늑물김치      |
| 205056 | 파김치   | 파김치, 패마농김치 |
| 205057 | 각두기   | 각두기        |
| 205058 | 메주    | 메주         |
| 205059 | 담그다   | 뒸다         |
| 205060 | 간장    | 장물         |
| 205061 | 장물    | 장물         |
| 205062 | 뒸장    | 뒸장         |
| 205063 | 소금    | 소금         |
| 205064 | 소금버캐  | 소금병땡이      |
| 205065 | 소금장수  | 소금장시, 소금바치 |
| 205066 | 간     | 근          |
| 205067 | 맛     | 맛          |
| 205068 | 간하다   | 근허다        |
| 205069 | 콩나물   | 콩지름        |
| 205070 | 숙주나물  | 늑디지름       |
| 205071 | 무나물   | 춌늑물        |
| 205072 | 고사리   | 고사리        |
| 205073 | 고사리나물 | 고사리탕쉬      |
| 205074 | 고사리밥  | 고사리순       |
| 205075 | 꺾다[切] | 거끄다        |
| 205076 | 꺾[場所] | 속          |
| 205077 | 고비    | 허공고사리      |
| 205078 | 미나리   | 미나리        |
| 205079 | 부추    | 새우리        |
| 205080 | 상추    | 부루         |
| 205081 | 시금치   | 시금치        |
| 205082 | 푸성귀   | 승키, 푸십새    |
| 205083 | 오이    | 웨          |
| 205084 | 물외    | 물웨         |
| 205085 | 참외    | 춌웨         |
| 205086 | 수세미외  | *          |
| 205087 | 말물    | 초물         |
| 205088 | 끝물    | 막물         |

|        |       |      |
|--------|-------|------|
| 205089 | 개똥참외  | 갈장기  |
| 205090 | 원두막   | 웻막   |
| 205091 | 깻잎    | 유입   |
| 205092 | 고추    | 고치   |
| 205093 | 풋고추   | 풀고치  |
| 205094 | 고춧가루  | 고치ㄴ루 |
| 205095 | 맵다[辛] | 맵다   |
| 205096 | 작다[小] | 족다   |
| 205097 | 호박    | 호박   |
| 205098 | 청등호박  | 늪은호박 |
| 205099 | 호박잎   | 호박입  |
| 205100 | 시들다   | 시들다  |
| 205101 | 더덕    | 더덕   |
| 205102 | 젓     | 젓갈   |
| 205103 | 자리젓   | 자리젓  |
| 205104 | 멸치젓   | 멜젓   |
| 205105 | 아감젓   | 알개미젓 |
| 205106 | 짜다[鹽] | 짜다   |
| 205107 | 초(식초) | 식초   |

### 별식

|        |        |                 |
|--------|--------|-----------------|
| 205108 | 흰떡     | 곤떡              |
| 205109 | 백설기    | 제펜, 백설기         |
| 205110 | 부스러기   | 보스레기            |
| 205111 | 송편     | 송편              |
| 205112 | 소[떡소]  | 쉬               |
| 205113 | 고물     | 쉬               |
| 205114 | 도래떡    | 돌래떡, 굿떡(묵을 갈 때) |
| 205115 | 설다[未熟] | 설다              |
| 205116 | 만두     | 만디              |
| 205117 | 가루     | ㄴ루              |
| 205118 | 국수     | 우동              |
| 205119 | 칼국수    | 칼국수             |
| 205120 | 삶다[烹]  | 숯다              |
| 205121 | 수제비    | 저베기             |
| 205122 | 물다[淡]  | 얄롭다             |
| 205123 | 범벅     | 범벅              |

|        |        |          |
|--------|--------|----------|
| 205124 | 미숫가루   | 개역       |
| 205125 | 볶다[炒]  | 보끄다      |
| 205126 | 붕지     | 붕지       |
| 205127 | 과줄     | 과질       |
| 205128 | 옛기름    | 골        |
| 205129 | 감주     | 골감주      |
| 205130 | 달다[甘]  | 들다       |
| 205131 | 술      | 술        |
| 205132 | 막걸리    | 막걸리      |
| 205133 | 붓다[注]  | 비우다      |
| 205134 | 기울다[傾] | 자우리다     |
| 205135 | 주다[授]  | 주다       |
| 205136 | 마시다[飲] | 먹다       |
| 205137 | 준(罇)   | 춘, (12되) |
| 205138 | 엎다     | 어프다      |
| 205139 | 술고래    | 술푸대      |
| 205140 | 술독     | 술항       |
| 205141 | 술심부름   | 술부름씨     |
| 205142 | 술장사    | 술장시      |
| 205143 | 숨기다    | 굽지다      |
| 205144 | 찾다[索]  | 춧다       |
| 205145 | 들이켜다   | 들이싸다     |
| 205146 | 갑시다    | 곡끼다      |
| 205147 | 지짐이    | 전        |
| 205148 | 누름적    | *        |
| 205149 | 산적     | 적, 적갈    |

#### 부엌과 그릇

|        |       |       |
|--------|-------|-------|
| 205150 | 부엌    | 정지    |
| 205151 | 부엌문   | 정짓문   |
| 205152 | 불때다   | 불때다   |
| 205153 | 불등걸   | 숫불    |
| 205154 | 불뚝    | 불뚝    |
| 205155 | 부엌비   | 정짓비차락 |
| 205156 | 내[煙氣] | 내     |
| 205157 | 낮다[低] | 늑잡다   |
| 205158 | 높다[高] | 노프다   |

|        |        |                      |
|--------|--------|----------------------|
| 205159 | 그을음    | 그슬멩이                 |
| 205160 | 검댕     | 그슬멩이                 |
| 205161 | 아궁이    | 숫강알                  |
| 205162 | 채      | 불치                   |
| 205163 | 모으다[集] | 모두다                  |
| 205164 | 부뚜막    | *                    |
| 205165 | 봇돌     | 숫덕(숫덕 우이 앓아도 시누이 거동) |
| 205166 | 솔      | 숫                    |
| 205167 | 옹달솔    | 옹졸메기                 |
| 205168 | 무쇠솔    | 무쇠숫                  |
| 205169 | 끓다[沸]  | 끓리다                  |
| 205170 | 솔뚜껑    | 숫뚜께                  |
| 205171 | 솔귀     | *                    |
| 205172 | 솔전     | 숫전                   |
| 205173 | 솔바닥    | 숫바닥                  |
| 205174 | 솔밑     | 숫아래                  |
| 205175 | 솔검정    | 그슬멩이                 |
| 205176 | 부삽     | 갈래죽                  |
| 205177 | 군손     | 군손                   |
| 205178 | 군일     | 헛일                   |
| 205179 | 살강     | 살레                   |
| 205180 | 부지깻이   | 부지땡이                 |
| 205181 | 짚방석    | 방석                   |
| 205182 | 성냥     | 화갑                   |
| 205183 | 성냥개비   | 화갑살                  |
| 205184 | 성냥갑    | 화곽                   |
| 205185 | 부시     | *                    |
| 205186 | 부싷돌    | 부들                   |
| 205187 | 부싷깃    | 불썸                   |
| 205188 | 부시쌈지   | *                    |
| 205189 | 부시통    | 대활통                  |
| 205190 | 등잔     | 각깃불                  |
| 205191 | 관솔     | 슬각불                  |
| 205192 | 호롱     | 호롱                   |
| 205193 | 남포등    | 혜야불                  |
| 205194 | 접깃불    | 접시불                  |
| 205195 | 불켜다    | 불싸다                  |

|          |        |      |
|----------|--------|------|
| 205196   | 숯      | 숯    |
| 205197   | 검다[黑]  | 거명하다 |
| 205198   | 숯가마    | 숯구덩이 |
| 205199   | 뜬숯     | 개심이  |
| 205200   | 숯검정    | 숯검덩이 |
| 205201   | 불타다    | 불카다  |
| 205202   | 탄내     | 칸내   |
| 205203   | 불태우다   | 불케우다 |
| 205204   | 불티     | 불데미  |
| 205205   | 끄다[消火] | 끄다   |
| 205206   | 화로     | 화리   |
| 205207   | 돌화로    | 돌화리  |
| 205208   | 청동화로   | 정동화리 |
| 205209   | 붕당     | 붕덕   |
| 205210   | 화룻불    | 화릿불  |
| 205211   | 불찌다    | 불초다  |
| 205212   | 화상(火傷) | *    |
| 205213   | 부손     | 불수꾸락 |
| 205214   | 부젓가락   | 불하시  |
| 205215   | 다리쇠    | 세발수  |
| 205216   | 석쇠     | 적쇄   |
| 205217   | 물독     | 물항   |
| 205217-1 |        | 츄    |
| 205217-2 |        | 물항   |
| 205218   | 담배     | 담배   |
| 205219   | 피우다    | 피우다  |
| 205220   | 용고뚜리   | 담배초관 |
| 205221   | 담뱃대    | 담뱃대  |
| 205222   | 빨다[吸]  | 빨다   |
| 205223   | 물부리    | 물부리  |
| 205224   | 담배통    | 담배통  |
| 205225   | 담배설대   | 담배대  |
| 205226   | 담배쌈지   | 담배쌈지 |
| 205227   | 재떨이    | 재따리  |
| 205228   | 벼루     | 베리   |
| 205229   | 상      | 상    |
| 205230   | 그릇     | 그릇   |

|        |       |               |
|--------|-------|---------------|
| 205231 | 비다[空] | 비다            |
| 205232 | 주발    | 수박기           |
| 205233 | 사발    | 사발            |
| 205234 | 뚜껍    | 뚜껍이, 가지꺼/가지껍이 |
| 205235 | 접시    | 접시            |
| 205236 | 굽달이   | 팬틀            |
| 205237 | 대접    | 대접            |
| 205238 | 보시기   | 보시            |
| 205239 | 종지    | 종제기           |
| 205240 | 간종지   | 간장종제기         |
| 205241 | 숟가락   | 수꾸락           |
| 205242 | 젓가락   | 저까락           |
| 205243 | 수저통   | 수꾸락통          |
| 205244 | 설거지   | 설거지           |
| 205245 | 구정물   | 구진물           |
| 205246 | 도시락   | 밥차반지, 밥당석     |
| 205247 | 주전자   | 주전지           |
| 205248 | 냄비    | 냄비            |
| 205249 | 바가지   | 콧박세기          |
| 205250 | 박     | 콧박            |
| 205251 | 뒤옹박   | 두렁박           |
| 205252 | 조롱박   | *             |
| 205253 | 쪽박    | 콧박세기          |
| 205254 | 양푼    | 냥푼            |
| 205255 | 조리    | 조리            |
| 205256 | 단지    | 조막단지          |
| 205257 | 뚝배기   | *             |
| 205258 | 시루    | 시리            |
| 205259 | 시룻밀   | 시룻고망          |
| 205260 | 시룻번   | *             |
| 205261 | 경그레   | 다드렝이          |
| 205262 | 함지박   | 도고리           |
| 205263 | 바구니   | 바구리           |
| 205264 | 소쿠리   | 차룽            |
| 205265 | 대[竹]  | 대             |
| 205266 | 이대    | 수리대           |
| 205267 | 왕대    | 왕대            |



|        |        |               |
|--------|--------|---------------|
| 205268 | 숨대(분죽) | *             |
| 205269 | 제주조릿대  | *             |
| 205270 | 굳은대    | *             |
| 205271 | 무른대    | 축신대           |
| 205272 | 항아리    | 항(오가리-단지-양춘이) |
| 205273 | 물동이    | 물허벅           |
| 205274 | 뒤주     | 두지            |
| 205275 | 도마     | 돔베            |
| 205276 | 칼      | 칼             |
| 205277 | 식칼     | *             |
| 205278 | 빼다[拔]  | 빠다            |
| 205279 | 무디다[鈍] | 무끼다           |
| 205280 | 갈다[磨]  | 갈다            |
| 205281 | 숫돌     | 싣돌            |
| 205282 | 날카롭다   | 늑슬다           |
| 205283 | 행주     | 상빼            |
| 205284 | 번철     | 숫뚜껑           |
| 205285 | 국자     | 국자            |
| 205286 | 밥주걱    | 밥자            |
| 205287 | 죽젓광이   | 남죽            |
| 205288 | 수세미    | 수세미           |
| 205289 | 떡살     | 본             |
| 205290 | 밀판     | (돔베)          |
| 205291 | 밀개     | (괘)           |
| 205292 | 소줏고리   | 고소리           |

|          |         |                  |     |
|----------|---------|------------------|-----|
| 205292-1 | (고리 위통) | 소줏고리의 위통         | 우통  |
| 205292-2 | (고리 알통) | 소줏고리의 아래통        | 알통  |
| 205292-3 | 귀때      | 술이 내려오는 부리       | 코   |
| 205292-4 | (받이괘)   |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 이숫괘 |

|        |     |     |
|--------|-----|-----|
| 205293 | 빚다  | 다끄다 |
| 205294 | 풍로  | *   |
| 205295 | 삼발이 | 세발수 |
| 205296 | 달이다 | 딸리다 |

## 6. 가옥

### 형태와 배치

|          |        |           |
|----------|--------|-----------|
| 206001   | 집터     | 집터        |
| 206002   | 초가     | 초집        |
| 206003   | 길[路]   | 길         |
| 206004   | 골목     | 거릿길       |
| 206005   | 좁다[峽]  | 좁다        |
| 206006   | 낯다[古]  | 헐다        |
| 206007   | 기와집    | 기와집       |
| 206008   | 흙집     | 흑집        |
| 206009   | 돌집     | 돌집        |
| 206010   | 오막살이   | 오막살이      |
| 206011   | 외채     | 단채        |
| 206012   | 안채     | 안거리       |
| 206013   | 바깥채    | 밖거리       |
| 206014   | 안팎채    | 안팎거리      |
| 206015   | 문간채    | 이문간       |
| 206016   | 곁채     | 손청거리(손님용) |
| 206017   | 짓다[作]  | 짓다        |
| 206018   | 장독     | 장항        |
| 206019   | 덮다[蓋]  | 더끄다       |
| 206020   | 장독대    | 장항뒤       |
| 206021   | 헛간     | *         |
| 206022   | 외양간    | 쉐막        |
| 206023   | 잃다[失]  | 일르다       |
| 206024   | 마구간    | 물막        |
| 206025   | 변소     | 벤소, 통시    |
| 206026   | 부춘돌    | 지들팡       |
| 206026-1 | 부출     | 지들팡       |
| 206027   | 기척     | 지적        |
| 206028   | 맞서다[拮] | 대들다       |
| 206029   | 냄새     | 내         |
| 206030   | 맡다[臭]  | 마트다       |
| 206031   | 울담     | 울담        |
| 206032   | 울안     | 울왓        |

|          |        |         |
|----------|--------|---------|
| 206033   | 터알     | 우연팻     |
| 206034   | 가리     | 눌       |
| 206035   | 보릿가리   | 보릿눌     |
| 206036   | 짚가리    | *       |
| 206036-1 | 출눌     | 출눌      |
| 206037   | 틈[隙]   | 트멍      |
| 206038   | 가리다[積] | 눌다      |
| 206039   | 사닥다리   | 발판, 산테  |
| 206040   | 이영     | 느람지     |
| 206041   | 주저리    | 주쟁이     |
| 206042   | 엮다[編]  | 짜다, 여끄다 |

#### 내부 구조

|          |       |         |
|----------|-------|---------|
| 206043   | 차양    | 풍채      |
| 206043-1 |       | *       |
| 206043-2 |       | *       |
| 206044   | 디딤돌   | 잇돌      |
| 206045   | 난간    | 난간      |
| 206046   | 마루    | 산방, 마리방 |
| 206047   | 마루문   | 대문, 산방문 |
| 206047-1 | ‘호령창’ | *       |
| 206048   | 마룻널   | 마룻널     |
| 206049   | 구들    | 구들      |
| 206050   | 구들장   | 구들장     |
| 206051   | 종이    | 종이      |
| 206052   | 얹다    | 얹롭다     |
| 206053   | 구들직장  | 구석당장    |
| 206054   | 큰방    | 큰방      |
| 206055   | 들다[入] | 들어오다    |
| 206056   | 윗목    | 밧자리     |
| 206057   | 아랫목   | 안자리     |
| 206058   | 천장    | 처나반     |
| 206059   | 닿다[觸] | 거찌다     |
| 206060   | 웃바람   | 웃풍      |
| 206061   | 안방    | 안방      |
| 206062   | 방문    | 셋문      |
| 206063   | 비[帚]  | 비치락     |

|        |        |          |
|--------|--------|----------|
| 206064 | 빗자루[柄] | 즈룩       |
| 206065 | 쓸다     | 실다       |
| 206066 | 버리다[棄] | 데끼다      |
| 206067 | 바람벽    | 벽브름, 축브름 |
| 206068 | 걸다[掛]  | 걸다       |
| 206069 | 벽장     | 백장       |
| 206070 | 시렁     | 시렁       |
| 206071 | 선반     | 선반       |
| 206072 | 헛대     | *        |
| 206073 | 도배     | 도비       |
| 206074 | 귀알     | *        |
| 206075 | 풀비     | 풀비       |
| 206076 | 찾방     | 골마리      |
| 206077 | 광      | 양광       |
| 206078 | 두다[置]  | 놓다       |
| 206079 | 광문     | 양광문      |
| 206080 | 간수하다   | 가냥허다     |
| 206081 | 안뒤결    | *        |
| 206082 | 지붕     | 지붕       |
| 206083 | 함석     | 도당       |
| 206084 | 지붕물매   | 물매       |
| 206085 | 이다[蓋]  | 일다       |
| 206086 | 평고대    | 거왕       |
| 206087 | 처마     | 집가제      |
| 206088 | 처맞기슭   | 집꿇대기     |
| 206089 | 낙숫물    | 지숫물      |
| 206090 | 땃돌     | *        |
| 206091 | 흙      | 흑/혁      |
| 206092 | 진흙     | 춘혁       |
| 206093 | 찰흙     | 춘혁       |
| 206094 | 흙덩이    | 흑병덩이     |
| 206095 | 새벽     | *        |
| 206096 | 흙질     | 흑질       |
| 206097 | 이기다[沓] | 뀌다       |
| 206098 | 산자(撒子) | 서슬       |
| 206099 | 기둥     | 지둥       |
| 206100 | 상기둥    | *        |

|        |       |      |
|--------|-------|------|
| 206101 | 뿔기둥   | 백선   |
| 206102 | 세우다   | 세우다  |
| 206103 | 주춧돌   | *    |
| 206104 | 서까래   | 서리   |
| 206105 | 용마루   | 상마루  |
| 206106 | 보     | *    |
| 206107 | 대들보   | *    |
| 206108 | 반자틀   | *    |
| 206109 | 귀틀    | 귀클   |
| 206110 | 외(椽)  | 튀기   |
| 206111 | 인방    | *    |
| 206112 | 문설주   | *    |
| 206113 | 문곶도리  | *    |
| 206114 | 문얼굴   | *    |
| 206115 | 문틀    | 문부출  |
| 206116 | 문머리   | 웃대방  |
| 206117 | 문흙    | 문흙베기 |
| 206118 | 문지방   | 문대방  |
| 206119 | 지계문   | 지계문  |
| 206120 | 닫다[閉] | 더끄다  |
| 206121 | 창문    | 창문   |
| 206121 | 잠그다   | 종그다  |
| 206123 | 창호지   | 창호지  |
| 206124 | 뛰창문   | *    |
| 206125 | 구멍    | 고냥   |
| 206126 | 미단이   | 밀문   |
| 206127 | 여단이   | 지계문  |
| 206128 | 살문    | 살문   |
| 206129 | 널문    | 널문   |
| 206130 | 덧문    | *    |
| 206131 | 문틈    | 문트멍  |
| 206132 | 돌쩌귀   | 도절귀  |
| 206133 | 암톨쩌귀  | 암도절귀 |
| 206134 | 수톨쩌귀  | 수도절귀 |
| 206135 | 문고리   | 손잡이  |
| 206136 | 배목    | 걸췌   |
| 206137 | 궤     | 궤    |

|        |        |         |
|--------|--------|---------|
| 206138 | 열다[開]  | 올다      |
| 206139 | 장식     | 장석      |
| 206140 | 자물쇠    | 통쇄      |
| 206141 | 열쇠     | 열쇄      |
| 206142 | 부수다[碎] | 부수다     |
| 206143 | 서랍     | 설랍, 빼닫이 |

### 연장

|          |        |     |
|----------|--------|-----|
| 206144   | 툽      | 툽   |
| 206145   | 양날툽    | *   |
| 206146   | 거도     | 거도  |
| 206147   | 틀툽     | 대툽  |
| 206148   | 툽밥     | 툽밥  |
| 206149   | 자귀     | 자귀  |
| 206150   | 옥자귀    | 곡쇄  |
| 206151   | 노루발장도리 | *   |
| 206152   | 못뽑이    | 못빼기 |
| 206153   | 박다[釘]  | 박다  |
| 206154   | 배척     | *   |
| 206155   | 끌      | 끌   |
| 206156   | 망치     | 망치  |
| 206157   | 방망이    | 마께  |
| 206158   | 대패     | 대패  |
| 206159   | 개탕대패   | *   |
| 206160   | 송곳     | 송곳  |
| 206161   | 뿔다[鑿]  | 뿔르다 |
| 206162   | 굽자     | 굽은자 |
| 206163   | 먹통     | 먹통  |
| 206164   | 먹줄     | 먹술  |
| 206165   | 먹칼     | 먹칼  |
| 206166   | 흑손     | 흑손  |
| 206167   | 쇠흑손    | 쇄손  |
| 206168   | 나무흑손   | 흑손  |
| 206169   | 흑받기    | 바텡이 |
| 206170   | 돌물레    | 호렝이 |
| 206171-1 |        | 호렝이 |

## 7. 생업

### 농업

|        |        |         |
|--------|--------|---------|
| 207001 | 농사     | 농스, 용시  |
| 207002 | 밭      | 밭       |
| 207003 | 밭가     | 밭에엌, 밭엌 |
| 207004 | 밭담     | 밭담      |
| 207005 | 밭빼기    | 토갱이     |
| 207006 | 병작(竝作) | 반작      |
| 207007 | 갈다[耕]  | 갈다      |
| 207008 | 쟁기     | 잡대      |

|          |       |                                |      |
|----------|-------|--------------------------------|------|
| 207008-1 | 양지머리  | 쟁기의 좌우 손잡이                     | 양죽머리 |
| 207008-2 | 쟁깃술   |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 나간 나무        | 몽쿨   |
| 207008-3 | 한마루   |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나무         | 설칫   |
| 207008-4 | 성에    |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뻗은 나무         | 성에   |
| 207008-5 | 좀생이막대 |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      |
| 207008-6 | 보습    |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쇧조각                | 보섭   |
| 207008-7 | 벧     |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쇧조각.            | 벧    |
| 207008-8 | 물추리막대 |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 돌벥이빨 |
| 207008-9 | ‘뚝’   | 좀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      |

|        |     |          |
|--------|-----|----------|
| 207009 | 육보다 | 속다       |
| 207010 | 겨리  | 저리       |
| 207011 | 벧밥  | 흑병에      |
| 207012 | 곰방메 | 곰베       |
| 207013 | 밭머리 | 밭머럭, 밭명에 |
| 207014 | 밭두둑 | 밭두둑      |
| 207015 | 밭고랑 | 고랑       |
| 207016 | 밭이랑 | 이랑       |
| 207017 | 거웃  | 파니       |
| 207018 | 극쟁이 | 극쟁이      |

207019 씨레 씨레

|          |     |                          |   |
|----------|-----|--------------------------|---|
| 207019-1 | 손잡이 | 씨레의 손잡이                  | * |
| 207019-2 | 찍게발 |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 * |
| 207019-3 | 몽둥이 | 씨레발을 박을 수 있는 굵은 막대       | * |
| 207019-4 | 씨레발 | 씨레 몽둥이에 박힌 뽕죽한 살         | * |
| 207019-5 | 나루채 |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 * |

207020 번지 \*

207021 팽이 쨍이

207022 곡팽이 곡쨍이

207023 파다[堀] 파다

207024 쇠스랑 쉼스렁

207025 삽 갈레죽

207026 따비 따비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걸다

207029 씨앗 씨

207030 알씨 알씨

207031 백씨 우씨

207032 뿌리다[撒] 뿌리다

207033 망태기 땀망텅이

207034 콩게 꼬슬퀴

207035 남태 남태

207036 돌번지 \*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매다

207039 애벌매기 초불검질

207040 두벌매기 두불검질

207041 세벌매기 세불검질

207042 가다[去] 가다

207042-1 걸라

207043 호미 굴쟁이

207044 홍아기 아웨기

207045 낚 낚

207046 시키다 시키다



|        |     |     |
|--------|-----|-----|
| 207047 | 폼삿  | 일폼  |
| 207048 | 비싸다 | 비싸다 |
| 207049 | 결두리 | 간식  |
| 207050 | 폼앗이 | 수눔음 |
| 207051 | 삼태기 | 글채  |
| 207052 | 낫   | 호미  |

|          |     |                                     |     |
|----------|-----|-------------------------------------|-----|
| 207052-1 | 낫자루 | 낫의 자루                               | 즈룩  |
| 207052-2 | 슴베  |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족하고 긴 부분               | *   |
| 207052-3 | 낫갱기 |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 *   |
| 207052-4 | 낫놀  |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 *   |
| 207052-5 | 낫공치 |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 등어리 |
| 207052-6 | 날   |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 늘   |

|        |          |     |
|--------|----------|-----|
| 207053 | 베다[채]    | 비다  |
| 207054 | 새 꺾기     | 미   |
| 207055 | 새끼       | 노   |
| 207056 | 꼬다[索]    | 꼬다  |
| 207057 | 매듭       | 막작  |
| 207058 | 노        | 노   |
| 207059 | 끈        | 친   |
| 207060 | 참마(바[索]) | 베   |
| 207061 | 짐마       | *   |
| 207062 | 질빵       | 질빵  |
| 207063 | 잇다[承]    | 이스다 |
| 207064 | 길마       | 질메  |
| 207065 | 소길마      | 쉐질메 |
| 207066 | 말길마      | 물질메 |

|          |       |   |      |
|----------|-------|---|------|
| 207066-1 | 길맞가지  | 길마의 몸을 이루는 말굽 모양의 나뭇가지                                    | 질멧가지 |
| 207066-2 | 앞가지   | 길마의 앞부분이 되는 민등산 모양의 나무                                    | 앞가지  |
| 207066-3 | 뒷가지   | 길마의 뒷부분이 되는 편자 모양의 나무                                     | 뒷가지  |
| 207066-4 | 궁글막대  | 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어 맞춘 나무                                   | *    |
| 207066-5 | 등우리막대 | 궁글막대 아래 댄 나무  | *    |
| 207066-6 | 경거리   |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 | *    |
| 207066-7 | 경거리끈  | 경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                            | *    |
| 207066-8 | 경거리막대 | 경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                                 | 고들개  |
| 207066-9 | 배뎃끈   | 길마를 엮을 때에 배에 걸쳐서 졸라매는 줄                                   | 오랑   |

207067 멩에

멍에

|          |       |   |     |
|----------|-------|---|-----|
| 207067-1 | 목대    | 멍에 양쪽 끝 구멍에 꿰어 소의 목 양쪽에 대는 가는 나무            | 접게  |
| 207067-2 | 붓줄    | 멍에 양 끝에서 비겨미까지 연결된 줄                        | 줄대  |
| 207067-3 | 한태    | 붓줄을 마소의 등 위로 잡아매는 줄                         | *   |
| 207067-4 | (오리목) | 붓줄 끝에 맨 비겨미와 쟁기의 물추리막대를 연결하여 매는 줄           | 오리목 |
| 207067-5 | 비겨미   | 붓줄이 소 뒷다리에 닿지 않도록, 두 끝을 턱이 지게 하여 붓줄에 꿰는 막대기 | 벌레  |

207068 지게

지게

|          |              |                              |       |
|----------|--------------|------------------------------|-------|
| 207068-1 | 지겟다리         | 지게 몸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양쪽 다리      | 지겟가달  |
| 207068-2 | 지겟가지         | 지게 몸에서 뒤쪽으로 갈라져 뺨어 나간 가지     | 지겟가지  |
| 207068-3 | 지게세장         | 지게의 두 다리 사이에 가로 박아 맞추어 놓은 나무 | 세물림   |
| 207068-4 | 지겟등태         | 지게를 질 때 등이 배기지 않게 붙인 등태      | 바탱이   |
| 207068-5 | 지게꼬리<br>(밀삐) | 지게의 짐을 잡아매는 줄                | *     |
| 207068-6 | 지겟작대기        | 지게를 버티어 세우는 긴 막대기            | 지겟작대기 |

|          |       |     |
|----------|-------|-----|
| 207069   | 바지계   | 바지계 |
| 207070   | 밭채    | *   |
| 207071   | 물지계   | 물지계 |
| 207072   | 이삭    | 고고리 |
| 207072-1 |       | *   |
| 207073   | 짚     | 짚   |
| 207074   | 익다[熟] | 익다  |
| 207075   | 개상    | *   |
| 207076   | 벼훑이   | *   |
| 207077   | 그네    | 보리클 |

|          |                |       |
|----------|----------------|-------|
| 207077-1 | 보리 이삭(둥근 살)    | 보리고고리 |
| 207077-2 |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 산뒤고고리 |

|        |       |      |
|--------|-------|------|
| 207078 | 타작하다  | 태작허다 |
| 207079 | 땀     | 땀    |
| 207080 | 진땀    | 더운땀  |
| 207081 | 젖다[濕] | 젖다   |
| 207082 | 죽을힘   | 죽을힘  |
| 207083 | 겨를    | 저르   |
| 207084 | 도리깨   | 도깨   |

|          |       |                                       |      |
|----------|-------|---------------------------------------|------|
| 207084-1 | 도리깨채  |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 도깨어시 |
| 207084-2 | 도리깨열  |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 도깨아덜 |
| 207084-3 | 도리깨꼭지 |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녀 | 도깨틀레 |

|        |       |     |
|--------|-------|-----|
| 207085 | 여물    | *   |
| 207086 | 쭈정이   | 줄레  |
| 207087 | 꼴     | 출   |
| 207088 | 꼴밭    | 출왓  |
| 207089 | 꼴꾼    | 낫꾼  |
| 207090 | 꼴단    | 단   |
| 207091 | 신다[載] | 시끄다 |
| 207092 | 마차    | 바레기 |

|          |          |       |
|----------|----------|-------|
| 207093   | 북두       | 벳줄    |
| 207094   | 명석       | 명석    |
| 207095   | 덕석       | 덕석    |
| 207096   | 거적       | *     |
| 207097   | 체        | 체     |
| 207098   | 가는체(고운체) | ㄱ는체   |
| 207099   | 굽은체      | 거름체   |
| 207100   | 말총체      | 말총체   |
| 207101   | 챗바퀴      | 챗망    |
| 207102   | 챗다리      | *     |
| 207103   | 어래미      | 얼맹이   |
| 207104   | 키[箕]     | 푸는체   |
| 207105   | 키질       | 푸는체질  |
| 207106   | 까불다      | 푸다    |
| 207107   | 드리다      | 불럼질허다 |
| 207108   | ‘솔박’     | 솔박    |
| 207109   | 풍구       | *     |
| 207110   | 흡        | 흡     |
| 207111   | 흡되       | 흡사리   |
| 207112   | 되        | 뒤     |
| 207113   | 관되       | 관뒤    |
| 207114   | 사샷되      | *     |
| 207115   | 말[斗]     | 말     |
| 207115-1 | 통말       | *     |
| 207115-2 | 모말       | *     |
| 207116   | 가웃       | 가웃    |
| 207117   | 끓다[不充滿]  | 골르다   |
| 207118   | 고무래      | 근데    |
| 207119   | 불당그래     | 굴묵근데  |
| 207120   | 떡둥구미     | 멩텅이   |
| 207121   | 가마니      | 가마니   |
| 207122   | 끗다[引]    | 끄스다   |
| 207123   | 곡식       | 곡석    |
| 207124   | 흠다[散]    | 근다    |
| 207125   | 차루[袋]    | 잘리    |
| 207126   | 부대(負袋)   | 푸대    |
| 207127   | 거두다[收]   | ㄱ슬허다  |

|        |          |       |
|--------|----------|-------|
| 207128 | 게으름      | 간세    |
| 207129 | 노라리      | 간세다리  |
| 207130 | 보리       | 보리    |
| 207131 | 보리밭      | 보리밭   |
| 207132 | 누리다[黃]   | 노리롱허다 |
| 207133 | 밟다       | 블르다   |
| 207134 | 까끄라기     | ㄱ스락   |
| 207135 | 보리쌀      | 보릿쌀   |
| 207136 | 보릿겨      | 보리채   |
| 207137 | 겉보리      | 겉보리   |
| 207138 | 쌀보리      | 슬오리   |
| 207139 | 맥주보리     | 맥주보리  |
| 207140 | 보릿짚(보릿대) | 보리낭   |
| 207141 | 매끼       | 깨     |
| 207142 | 깜부기      | *     |
| 207143 | 귀리       | 대우리   |
| 207144 | 조        | 조     |
| 207145 | 조밭       | 조팓    |
| 207146 | 차조       | 모인조   |
| 207147 | 메조       | 흐린조   |
| 207148 | 슌다       | 소끄다   |
| 207149 | 조이삭      | 조코고리  |
| 207150 | 서속(黍粟)   | 서속    |
| 207151 | 비비다      | 보비다   |
| 207152 | 허수아비     | 허재비   |
| 207153 | 좁쌀       | 좁쌀    |
| 207154 | 조짚       | 조칩    |
| 207155 | 벼        | 나룩    |
| 207156 | 벼이삭      | 나룩고고리 |
| 207157 | 볍씨       | *     |
| 207158 | 못자리      | *     |
| 207159 | 밭벼[山稻]   | 산뒤    |
| 207160 | 밭벼 이삭    | 산뒤고고리 |
| 207161 | 밭벼밭      | 산뒤밭   |
| 207162 | 밭벼쌀      | 산뒤쌀   |
| 207163 | 밭벼짚      | 산뒤짚   |
| 207164 | 멧돌       | 정ㄱ레   |

|          |      |                     |      |
|----------|------|---------------------|------|
| 207164-1 | 멧들 짝 | 멧들의 위아래 돌           | ㄴ레착  |
| 207164-2 | 윗돌   | 멧들의 위 짝             | 우착   |
| 207164-3 | 아랫돌  | 멧들의 아래 짝            | 알착   |
| 207164-4 | 매암쇠  | 멧돌 위 짝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 고망   |
| 207164-5 | 멧수쇠  | 멧들의 아래 짝 한가운데 박힌 물건 | ㄴ렛장귀 |
| 207164-6 | 멧손   | 멧들의 손잡이             | ㄴ렛즈룩 |

|          |        |      |
|----------|--------|------|
| 207165   | 멧방석    | ㄴ렛방석 |
| 207166   | 매함지    | 도고리  |
| 207167   | 풀멧돌    | *    |
| 207168   | 풀매     | 풀ㄴ레  |
| 207169   | 썰기     | 새물림  |
| 207170   | 방아     | 방에   |
| 207171   | 쌍방아    | 두쿨방에 |
| 207171-1 |        | 세쿨방에 |
| 207171-2 |        | 네쿨방에 |
| 207171-3 |        | *    |
| 207172   | 방아확    | 방에혹  |
| 207173   | 방앗간    | 방엿간  |
| 207174   | 븨비다    | *    |
| 207175   | 방앗공이   | 방엿귀  |
| 207176   | 남방아    | 남방에  |
| 207177   | 연자매    | 돌ㄴ레  |
| 207178   | 방앗돌    | 멧돌   |
| 207179   | 연자멧간   | 돌ㄴ렛집 |
| 207180   | 절구     | *    |
| 207181   | 절긋공이   | *    |
| 207182   | 뺨다     | 짚다   |
| 207183   | 뉘      | 머흘   |
| 207184   | 고르다[擇] | 일다   |
| 207185   | 씹다[嚙]  | 씹다   |
| 207186   | 겨      | 채    |
| 207187   | 콩      | 콩    |
| 207188   | 콩잎     | 콩입   |
| 207189   | 기름콩    | 장콩   |

|          |        |         |
|----------|--------|---------|
| 207190   | 콩깍지    | 콩깍지     |
| 207191   | 콩짚     | 콩고짚     |
| 207192   | 꼬투리    | 콩깍지     |
| 207193   | 두부     | 둠비      |
| 207194   | 두붓물    | 둠빗물     |
| 207195   | 뜨겁다    | 데불다     |
| 207196   | 비지     | 비제기     |
| 207197   | 찌꺼기    | 주시      |
| 207198   | 완두     | 푸린콩     |
| 207199   | 강낭콩    | 두불콩     |
| 207200   | 동부     | 둠비      |
| 207201   | 팥      | 팻       |
| 207202   | 팥알     | *       |
| 207203   | 팥밥     | 팻밥      |
| 207204   | 녹두     | 녹디      |
| 207205   | 깨(참깨)  | 깨       |
| 207206   | 들깨     | 유       |
| 207207   | 참기름    | 참지름     |
| 207208   | 깻묵     | 기름주시    |
| 207209   | 고소하다   | 코소롱허다   |
| 207210   | 메밀     | 모믈      |
| 207211   | 메밀밭    | 모믈팻     |
| 207212   | 나깨     | 느쟁이     |
| 207213   | 메밀껍질   | 모믈채     |
| 207214   | 메밀국수   | 모믈국수    |
| 207215   | 메밀수제비  | 모믈처베기   |
| 207216   | 메밀칼국수  | 모믈칼국수   |
| 207217   | 메밀떡    | 모믈떡     |
| 207218   | 메밀묵    | 모믈묵     |
| 207219   | 무르다[軟] | 익다      |
| 207220   | 고구마    | 감저      |
| 207221   | 절간고구마  | 절간, 빼떼기 |
| 207222   | 찌다[蒸]  | 치다      |
| 207223   | 썰다     | 썰다      |
| 207224   | 감자     | 지슬      |
| 207225   | 마늘     | 마농      |
| 207225-1 | 마늘대    | 마농대     |

|          |         |       |
|----------|---------|-------|
| 207225-2 | 마늘밀     | 마농    |
| 207225-3 | 마늘종     | 부럭    |
| 207226   | 마늘장아찌   | 마농지   |
| 207227   | 파       | 꽤마농   |
| 207227-1 | 파밀동     | 마농불리  |
| 207228   | 무       | 늪뽀    |
| 207229   | 무청      | 츄늬물   |
| 207230   | 시래기     | 시래기   |
| 207231   | 장다리무    | *     |
| 207232   | 열무      | 츄마기   |
| 207233   | 배추      | 배추    |
| 207234   | 고갱이(배추) | 속     |
| 207235   | 나물      | 늬물    |
| 207236   | 채소      | 송키    |
| 207237   | 길대      | 유우레기  |
| 207238   | 다듬다     | 다듬다   |
| 207239   | 값       | 값     |
| 207240   | 옥수수     | 강낭대죽  |
| 207240-1 | 옥수수     | 대축부레기 |
| 207241   | 수수      | 대죽    |
| 207242   | 쌀수수     | 동골대죽  |
| 207243   | 비목수수    | 지장대죽  |
| 207244   | 사탕수수    | 새당대죽  |
| 207245   | 수수깡     | 대죽낭   |

#### 어업

|          |         |        |
|----------|---------|--------|
| 207246   | 잠녀(潛女)  | 잠수     |
| 207247   | 물길      | 물길     |
| 207248   | 물옷      | 속옷, 물옷 |
| 207249   | 물안경[水鏡] | 눈      |
| 207249-1 |         | 큰눈     |
| 207249-2 |         | 족은눈    |
| 207250   | 테왁      | 테왁     |
| 207251   | 망사리     | 망사리    |
| 207252   | 비창      | 비창     |
| 207253   | 작살      | 소살     |
| 207254   | 어부      | 보제기    |



|          |          |          |
|----------|----------|----------|
| 207255   | 뜰채       | 족사들, 족바디 |
| 207256   | 그물       | 구물       |
| 207257   | 돛단배      | 풍선       |
| 207258   | 이물       | 이물       |
| 207258-1 | 이물간      | 이물코지     |
| 207258-2 | 이물사공     | *        |
| 207259   | 고물       | 고물       |
| 207259-1 | 고물간      | 고물코지     |
| 207259-2 | 고물사공     | *        |
| 207260   | 돛        | 벧돛, 배초석  |
| 207261   | 마룻대(돛대)  | 돛대       |
| 207262   | 마룻줄(용총줄) | 돛줄       |
| 207263   | 활대       | *        |
| 207264   | 외대박이     | *        |
| 207264-1 | 두 대박이    | *        |
| 207264-2 | 세대박이     | 삼동받이     |
| 207265   | 노(櫓)     | 네        |
| 207266   | 결노       | *        |
| 207267   | 상책(노착)   | *        |
| 207268   | 노잎(노깃)   | *        |
| 207269   | 노앞       | *        |
| 207270   | 노뒤       | *        |
| 207271   | 노손       | *        |
| 207272   | 돛구멍      | 넛씹       |
| 207273   | 돛줄       | 넛줄       |
| 207274   | 돛        | 벧돛       |
| 207275   | 돛가지      | 돛가지      |
| 207276   | 돛줄       | 돛줄       |
| 207277   | 돛돌       | 돛돌       |
| 207278   | 돛걸이      | *        |
| 207279   | 키[舵]     | *        |
| 207280   | 킷구멍      | *        |
| 207281   | 키잡이      | *        |
| 207282   | 강다리      | *        |
| 207283   | 상앗대      | 사을죽      |
| 207284   | 떼[浮筏]    | 테위       |

## 기타

|          |         |      |
|----------|---------|------|
| 207285   | 이웃      | *    |
| 207286   | 더불다[與]  | *    |
| 207287   | 마을      | 막을   |
| 207288   | 고을[村]   | 고을   |
| 207289   | 누리[世]   | *    |
| 207290   | 윗마을     | 웃드르  |
| 207291   | 옮다[移]   | 올르다  |
| 207292   | 아랫마을    | 해벤   |
| 207293   | 마을가다    | 모살가다 |
| 207294   | 밤마을     | *    |
| 207295   | 가게      | 점빵   |
| 207296   | 구멍가게    | 족은점빵 |
| 207297   | 다녀오다    | 강오다  |
| 207298   | 심부름     | 심바람  |
| 207298-1 | 부름씨     | 부름씨  |
| 207299   | 잔돈      | 즌돈   |
| 207300   | 남다[餘]   | 남다   |
| 207301   | 거스름돈    | 주리   |
| 207302   | 있다[有]   | 잇다   |
| 207303   | 에누리     | 에누리  |
| 207304   | 우수리     | 우수리  |
| 207305   | 받다[受]   | 받다   |
| 207306   | 나머지     | 나머지  |
| 207307   | 홍정      | 홍성   |
| 207308   | 빚       | 빚    |
| 207309   | 빚지다[負]  | 빚지다  |
| 207310   | 변리[邊利]  | 벨리   |
| 207311   | 늘다[增]   | 늘다   |
| 207312   | 대장간     | 불미칩  |
| 207313   | 풀무      | *    |
| 207314   | 손풀무     | *    |
| 207315   | 모루      | *    |
| 207316   | 모루채     | *    |
| 207317   | 갓양태(양태) | *    |
| 207318   | 망건      | 맹근   |
| 207319   | 망건골     | *    |

|        |       |     |
|--------|-------|-----|
| 207320 | 탕건    | 탕근  |
| 207321 | 견다[編] | *   |
| 207322 | 사냥    | 사농  |
| 207323 | 사냥개   | 사농캐 |
| 207324 | 사냥꾼   | 사냥꾼 |
| 207325 | 쏘다[射] | 쏘다  |
| 207326 | 핑잡이   | *   |
| 207327 | 고     | 코   |
| 207328 | 올가미   | *   |
| 207329 | 덧     | 테기  |
| 207330 | 나누다   | 갈르다 |
| 207331 | 갖다[持] | 아지다 |

##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           |      |    |
|-----------|------|----|
| 208001-1  | (1)  | 하나 |
| 208001-2  | (2)  | 둘  |
| 208001-3  | (3)  | 셋  |
| 208001-4  | (4)  | 넷  |
| 2080015-  | (5)  | 다섯 |
| 208001-6  | (6)  | 요섯 |
| 208001-7  | (7)  | 일곱 |
| 208001-8  | (8)  | 으덱 |
| 208001-9  | (9)  | 아홉 |
| 208001-10 | (10) | 열  |

|        |       |    |
|--------|-------|----|
| 208002 | 세다[數] | 세다 |
| 208003 | 알다[知] | 알다 |
| 208004 | 스물~백  |    |

|          |       |    |
|----------|-------|----|
| 208004-1 | (20)  | 스물 |
| 208004-2 | (30)  | 서른 |
| 208004-3 | (40)  | 마흔 |
| 208004-4 | (50)  | 쉰  |
| 208004-5 | (60)  | 예순 |
| 208004-6 | (70)  | 일흔 |
| 208004-7 | (80)  | 여든 |
| 208004-8 | (90)  | 아흔 |
| 208004-9 | (100) | 백  |

208005 한~엿 ‘되, 말’을 연결하여 말해 보십시오.

|          | 단위       | 되    | 말   |
|----------|----------|------|-----|
| 208005-1 | (1/한)    | 흔 돼  | 흔 말 |
| 208005-2 | (2/두)    | 두 돼  | 두 말 |
| 208005-3 | (3/서, 석) | 석 돼  | 서 말 |
| 208005-4 | (4/너, 녀) | 녀 돼  | 너 말 |
| 208005-5 | (5/닷)    | 닷 돼  | 닷 말 |
| 208005-6 | (6/엿)    | 으숫 돼 | 읏 말 |

208006 한두 ‘개, 되, 말’을 연결하여 두 개씩 세어 보십시오.

|          |             | 개      | 되      | 말      |
|----------|-------------|--------|--------|--------|
| 208006-1 | (1-2/한두)    | 흔두 개   | 흔두 돼   | 흔두 말   |
| 208006-2 | (2-3/두세)    | 두서 개   | 두서 돼   | 두서 말   |
| 208006-3 | (2-3-4/두서너) | 두서너 개  | 두서녀 돼  | 두서너 말  |
| 208006-4 | (3-4/서너)    | 서너네 개  | 서녀 돼   | 서너 말   |
| 208006-5 | (4-5/네댓)    | 너댓 개   | 너다섯 돼  | 너다섯 말  |
| 208006-6 | (5-6/대여섯)   | 대으숫 개  | 대으숫 돼  | 대으숫 말  |
| 208006-7 | (6-7/예닐곱)   | *      | *      | *      |
| 208006-8 | (7-8/일고여덟)  | 일고으답 개 | 일고으답 돼 | 일고으답 말 |
| 208006-9 | (8-9/여덟아홉)  | *      | *      | *      |

208007 여남은                      여남은

208008 서른남은                  설라믄

단위

208009 뽕 뽕  
 208010 집게뽕 조리  
 208011 밭[單位] 밭  
 208012 밟다 밟다  
 208013 필(무명/명주) 필  
 208014-1

|          |    |     |
|----------|----|-----|
| 208014-1 | 무명 | 40자 |
| 208014-2 | 명주 | 40자 |
| 208014-3 | 광목 | 40자 |
| 208014-4 | 베  | 40자 |

208015 마지기(평) 말지기  
 208015-1 150평  
 208016 못 단, 못  
 208017 묶다[束] 무끄다  
 208018 나르다[移] 날르다  
 208019 동 단  
 208019-1 짐  
 208020 조짐 못  
 208021 바리(종류) 바리  
 208021

|          |          |    |
|----------|----------|----|
| 208021-1 | 보리       | 20 |
| 208021-2 | 조(이삭 있음) | 6  |
| 208021-3 | 콩        | 6  |
| 208021-4 | 밭벼       | 20 |
| 208021-5 | 꿀        | 30 |
| 208021-6 | 띠        | 30 |
| 208021-7 | 각단       | 30 |
| 208021-8 | 어욱       | 30 |

208022 모금 직  
 208023 섬 섬  
 208023-1 15말

|          |         |    |
|----------|---------|----|
| 208024   | 덩이      | *  |
| 208025   | 포기      | 폐기 |
| 208026   | 그루      | *  |
| 208027   | 돌이(양태)  | 도리 |
| 208028   | 마리      | 무리 |
| 208028-1 | 두[頭]    | 무리 |
| 208028-2 |         | 무리 |
| 208029   | 축       | 못  |
| 208030   | 궤미      | 못  |
| 208031   | 쌍(돼지)   | 자리 |
| 208032   | 채(집)    | 거리 |
| 208033   | 장(무덤)   | 자리 |
| 208034   | 컬레(신)   | 베  |
| 208035   | 마퀴(운동장) | 마퀴 |
| 208036   | 못       | 못  |
| 208037   | 죽       | 죽  |

## 9. 민속

### 통과의례

|        |        |        |
|--------|--------|--------|
| 209001 | 꿈자리    | 꿈사리    |
| 209002 | 아이서다   | 아이들어사다 |
| 209003 | 삼신할머니  | 삼싱할망   |
| 209004 | 깃저고리   | 봇댓옷    |
| 209005 | 배넛머리   | 배안넛머리  |
| 209006 | 돌      | 돌      |
| 209007 | 새색시    | 새각시    |
| 209008 | 새신랑    | 새서방    |
| 209009 | 가마     | 가마, 뽕께 |
| 209010 | 시집가다   | 시집가다   |
| 209011 | 시집보내다  | 딸풀다    |
| 209012 | 장가가다   | 장게가다   |
| 209013 | 장가보내다  | 아덜풀다   |
| 209014 | 함      | 홍세     |
| 209015 | 위요(우시) | 우시     |
| 209016 | 대반(對盤) | 대반     |

|          |         |      |
|----------|---------|------|
| 209017   | 신부상     | 새각시상 |
| 209018   | 휘다[樣]   | 물러지다 |
| 209019   | 이바지     | 이버지  |
| 209020   | 부조      | 부지   |
| 209021   | 사돈      | 사둔   |
| 209021-1 | 안사돈     | 여저사둔 |
| 209021-2 | 바깥사돈    | 남저사둔 |
| 209022   | 곁사돈     | *    |
| 209023   | 상갓집     | 초상집  |
| 209024   | 수의      | 호상   |
| 209025   | 상복      | 상복   |
| 209026   | 상제      | 상제   |
| 209027   | 상주      | 상제   |
| 209028   | 맡상제     | 큰상제  |
| 209029   | 두건      | 두건   |
| 209030   | 복치마     | 복치메  |
| 209031   | 상장(喪杖)  | 방장대  |
| 209031-1 |         | 왕대   |
| 209031-2 |         | 머귀냥  |
| 209032   | 짚동      | 복심   |
| 209033   | 일포제[祖奠] | 일포제  |
| 209034   | 조문하다    | 고견가다 |
| 209035   | 뒋자리     | 못자리  |
| 209036   | 지관      | 정시   |
| 209037   | 패철      | *    |
| 209038   | 관       | 관    |
| 209039   | 상여      | 생여   |
| 209040   | 보장(寶帳)  | 창대   |
| 209041   | 계(契)    | 접    |
| 209042   | 상두꾼     | 상뒤   |
| 209043   | 장삿날     | 영장날  |
| 209044   | 장지      | 영장팻  |
| 209045   | 광중      | 개광   |
| 209046   | 횡대      | 개관   |
| 209047   | 호층      | *    |
| 209048   | 무덤      | 산    |
| 209049   | 산담      | 산담   |

|          |        |         |
|----------|--------|---------|
| 209050   | 돌장이    | 돌챙이, 석공 |
| 209051   | 토롱     | 토롱      |
| 209052   | 산역     | 봉토      |
| 209053   | 마치다[終] | 못끄다     |
| 209054   | 벌초     | 벌초      |
| 209054-1 | 소분     | 소분      |
| 209055   | 묘위전    | 제월전     |
| 209056   | 고충     | 골충      |
| 209057   | 제사     | 식계      |
| 209058   | 제삿집    | 제스집     |
| 209059   | 편틀     | 펜틀      |
| 209060   | 퇴물     | 튀물      |
| 209061   | 매      | 멧밥      |
| 209062   | 갱(羹)   | 갱국      |
| 209063   | 제육     | 제숙      |
| 209064   | 제편     | 제펜      |
| 209065   | 인절미    | 인절미     |
| 209066   | 절편     | 절벤      |
| 209067   | 웃기떡    | 우지씨     |
| 209068   | 반기     | 반       |
| 209069   | 반기하다   | 반놓다     |
| 209070   | 뭇      | 찍새      |
| 209071   | 면례(緬禮) | 천리      |

#### 세시풍속

|        |       |         |
|--------|-------|---------|
| 209072 | 설날    | 정월명절    |
| 209073 | 세배    | 과세      |
| 209074 | 명절    | 맹질      |
| 209075 | 걸립    | 걸궁      |
| 209076 | 금줄    | 솿       |
| 209077 | 매다[結] | 매다      |
| 209078 | 장구    | 장귀      |
| 209079 | 설장구   | 살장귀     |
| 209080 | 뽕과리   | 깡메기     |
| 209081 | 영등할머니 | 영등하르방   |
| 209082 | 단오    | 단오 오월명절 |
| 209083 | 물맞이   | 물맞이     |



|        |      |      |
|--------|------|------|
| 209084 | 모래찜질 | 몰래뜸  |
| 209085 | 추석   | 팔월명질 |

## 10. 신앙

|        |          |         |
|--------|----------|---------|
| 210001 | 점        | 점       |
| 210002 | 점쟁이      | 점쟁이     |
| 210003 | 안택       | 안택      |
| 210004 | 당        | 당       |
| 210005 | 무격       | 심방      |
| 210006 | 굿        | 굿       |
| 210007 | 굿판       | *       |
| 210008 | 명두       | 산판      |
| 210009 | 추다[躡]    | 추다      |
| 210010 | 소지(燒紙)   | 백소지     |
| 210011 | 사르다[燒]   | 테우다, 슬다 |
| 210012 | 살(煞)     | 살       |
| 210013 | 삼살방(三煞方) | *       |
| 210014 | 도깨비      | 도체비     |
| 210015 | 낮도깨비     | 낮도체비    |
| 210016 | 허깨비      | 허께      |
| 210017 | 어둑서니     | 그신데     |
| 210018 | 무섭다      | 막습다     |
| 210019 | 겹쟁이      | 겹쟁이     |
| 210020 | 고사(告祀)   | 코사      |
| 210021 | 고수레      | *       |
| 210022 | 포제       | 포제      |

## 11. 자연

### 들

|        |        |     |
|--------|--------|-----|
| 211001 | 들      | 드르  |
| 211002 | 풀[草]   | 검질  |
| 211003 | 방화(放火) | 방에  |
| 211004 | 붙다[點火] | 부찌다 |

|          |        |      |
|----------|--------|------|
| 211005   | 내[川]   | 내창   |
| 211006   | 넷가     | 넷바위  |
| 211007   | 물가     | 물옆   |
| 211008   | 따르다[從] | *    |
| 211009   | 건너다[渡] | 넘다   |
| 211010   | 낭떠러지   | *    |
| 211011   | 다리[橋]  | 다리   |
| 211012   | 가깝다[近] | 브디다  |
| 211013   | 멀다[遠]  | 멀다   |
| 211014   | 덤불     | 덤밭   |
| 211014-1 | 가시덤불   | 가시덤밭 |
| 211015   | 돌무더기   | 돌머들  |
| 211016   | 갈림길    | 커림질  |
| 211017   | 묻다[問]  | 듣다   |
| 211018   | 비탈길    | *    |
| 211019   | 벼랑길    | *    |
| 211020   | 내리막길   | 오롯질  |
| 211021   | 오르막길   | 오르막길 |
| 211022   | 길가     | 길에염  |
| 211023   | 큰길     | 한질   |
| 211024   | 분화구    | 굽부리  |
| 211025   | 꼭대기    | 꼭대기  |
| 211026   | 오르다[登] | 올르다  |
| 211027   | 기슭     | *    |
| 211028   | 산바람    | *    |
| 211029   | 산꼬대    | 느룻   |
| 211030   | 상고대    | 상강   |
| 211031   | 구렁     | 굴랭이  |
| 211032   | 고랑창    | 고랑챙이 |
| 211033   | 건너가다   | 넘어가다 |
| 211034   | 넘어지다   | 씨러지다 |
| 211035   | 자빠지다   | 자빠지다 |
| 211036   | 천상수    | 지숫물  |
| 211037   | 숲      | 곶    |
| 211038   | 성(城)   | 성, 잣 |

## 바다

|        |        |      |
|--------|--------|------|
| 211039 | 바다     | 바당   |
| 211040 | 바닷가    | 갯곶   |
| 211041 | 바닷물    | 바당물  |
| 211042 | 바닷바람   | 든브름  |
| 211043 | 깊다[深]  | 지프다  |
| 211044 | 얕다[淺]  | 야프다  |
| 211045 | 물먹다    | 붕물먹다 |
| 211046 | 모래     | 몰래   |
| 211047 | 모래밭    | 몰래밭  |
| 211048 | 자갈     | 자갈   |
| 211049 | 갯가     | 갯곶   |
| 211050 | 펼      | 펼    |
| 211051 | 먼바다    | 먼바당  |
| 211052 | 파도     | 절    |
| 211053 | 파dot소리 | 절소리  |
| 211054 | 듣다[聞]  | 듣다   |
| 211055 | 너울     | *    |
| 211056 | 굼뉘     | *    |
| 211057 | 물결     | *    |
| 211058 | 잔물결    | *    |
| 211059 | 무수기    | 물끼   |

|           | 무수기    | 방언형  | 날짜 |    |
|-----------|--------|------|----|----|
| 211059-1  | 한무날    | 흔물   | 9  | 24 |
| 211059-2  | 두무날    | 두물   | 10 | 25 |
| 211059-3  | 서무날    | 서물   | 11 | 26 |
| 211059-4  | 너무날    | 너물   | 12 | 27 |
| 211059-5  | 다섯무날   | 닷물   | 13 | 28 |
| 211059-6  | 여섯무날   | 으섯물  | 14 | 29 |
| 211059-7  | 일곱무날   | 일곱물  | 15 | 30 |
| 211059-8  | 여덟무날   | 여답물  | 16 | 1  |
| 211059-9  | 아홉무날   | 아홉물  | 17 | 2  |
| 211059-10 | 열무날    | 열물   | 18 | 3  |
| 211059-11 | 열한무날   | 열흔물  | 19 | 4  |
| 211059-12 | 열두무날   | 열두물  | 20 | 5  |
| 211059-13 | (열서무날) |      | 21 | 6  |
| 211059-14 | 아끈쨌기   | 아끈조기 | 22 | 7  |
| 211059-15 | 쨌기     | 조기   |    |    |
| 211059-16 | 한조금    | 한조기  | 23 | 8  |

|        |      |     |
|--------|------|-----|
| 211060 | 여    | 여   |
| 211061 | 곶(串) | 코지  |
| 211062 | 물밀다  | 물들다 |
| 211063 | 밀물   | 들물  |
| 211064 | 물싸다  | 물싸다 |
| 211065 | 쌀물   | 쌀물  |

### 시후

|        |       |      |
|--------|-------|------|
| 211066 | 오늘    | 오널   |
| 211067 | 내일    | 넬    |
| 211068 | 모레    | 모리   |
| 211069 | 내일모레  | 넬모리  |
| 211070 | 글피    | 글피   |
| 211071 | 그글피   | 정날   |
| 211072 | 어제    | 어제   |
| 211073 | 그저께   | 그저께  |
| 211074 | 그끄저께  | 그그저께 |
| 211075 | 새벽[曉] | 세백   |
| 211076 | 꼭두새벽  | *    |

|        |        |       |
|--------|--------|-------|
| 211077 | 해[太陽]  | 해     |
| 211078 | 빛      | 빛     |
| 211079 | 아침     | 아침    |
| 211080 | 낮      | 낮     |
| 211081 | 저녁     | 저녁    |
| 211082 | 저녁거리   | 저녁그슴  |
| 211083 | 초저녁    | 초저녁   |
| 211084 | 밤[夜]   | 밤     |
| 211085 | 한밤중    | 한밤중   |
| 211086 | 하늘     | 하늘    |
| 211087 | 땅      | 땅     |
| 211088 | 구름     | 구름    |
| 211089 | 푸르다    | 푸리다   |
| 211090 | 별      | 벨     |
| 211091 | 은하수    | 미리벨   |
| 211092 | 달      | 들     |
| 211093 | 차다[充滿] | *     |
| 211094 | 달무리    | 들갓    |
| 211095 | 초승달    | 초싱들   |
| 211096 | 보름달    | 보름들   |
| 211097 | 그믐달    | 그믐들   |
| 211098 | 햇무리    | 갓     |
| 211099 | 무지개    | 황고지   |
| 211100 | 쌍무지개   | *     |
| 211101 | 봄      | 봄     |
| 211102 | 여름     | 여름    |
| 211103 | 가을     | 가을    |
| 211104 | 겨울     | 겨울    |
| 211105 | 입춘     | 셋절드느날 |
| 211106 | 동지     | 동지    |
| 211107 | 초하루    | 초하루   |
| 211108 | 보름     | 보름    |
| 211109 | 그믐     | 구믐    |

|           |     |     |
|-----------|-----|-----|
| 211110-1  | 하루  | 흐루  |
| 211110-2  | 이틀  | 이틀  |
| 211110-3  | 사흘  | 사흘  |
| 211110-4  | 나흘  | 나흘  |
| 211110-5  | 닷새  | 닷새  |
| 211110-6  | 엿새  | 웃새  |
| 211110-7  | 이레  | 일레  |
| 211110-8  | 여드레 | 으드레 |
| 211110-9  | 아흐레 | 아흐레 |
| 211110-10 | 열흘  | 열흘  |

|          |          |      |
|----------|----------|------|
| 211111   | 사나흘      | 사나나흘 |
| 211112   | 너더닷새     | 너닷새  |
| 211113   | 대엿새      | 대웃새  |
| 211114   | 지나다[過]   | 구물다  |
| 211115   | 삭망       | 삭망   |
| 211116   | 저물다      | 점루다  |
| 211116-1 | ‘구물다’    | 구물다  |
| 211117   | 지다[落]    | 지다   |
| 211118   | 이월달(영등달) | 영등돌  |
| 211119   | 선달       | 선돌   |
| 211120   | 올해       | 올리   |
| 211121   | 내년       | 맹년   |
| 211122   | 내후년      | 우맹년  |
| 211123   | 작년       | 작년   |
| 211124   | 재작년      | 재작년  |

#### 날씨

|        |      |      |
|--------|------|------|
| 211125 | 별    | 벧    |
| 211126 | 별살   | 벧살   |
| 211127 | 따스하다 | 뜻다   |
| 211128 | 땡별   | *    |
| 211129 | 가을별  | 가을벧  |
| 211130 | 양지받이 | 벧브른디 |
| 211131 | 아지랑이 | 아지랑이 |
| 211132 | 그늘   | 구미   |
| 211133 | 그늘대  | 애기그늘 |

|          |       |       |
|----------|-------|-------|
| 211134   | 나무그늘  | 낭강알   |
| 211135   | 쉬다[休] | 쉬다    |
| 211136   | 그림자   | 굴메    |
| 211137   | 바람    | 브름    |
| 211137-1 | 바람위   | 브름위   |
| 211137-2 | 바람아래  | 브름알   |
| 211138   | 맞바람   | 맞브름   |
| 211139   | 바람받이  | 브름받든디 |
| 211140   | 바람살   | 브름살   |
| 211141   | 회오리바람 | 돛쟁이주제 |
| 211142   | 동풍    | 셋브름   |
| 211143   | 남풍    | 든브름   |
| 211144   | 서풍    | 갈브름   |
| 211145   | 북풍    | 하늬브름  |
| 211146   | 비[雨]  | 비     |
| 211147   | 굳다[堅] | 절다    |
| 211148   | 빗줄기   | 빗방울   |
| 211149   | 장마    | 마     |
| 211149-1 | 봄장마   | 고사리장마 |
| 211149-2 | 가을장마  | 가을마   |
| 211150   | 곰팡이   | 곰팡이   |
| 211151   | 소나기   | 쉐네기주제 |
| 211152   | 여우비   | *     |
| 211153   | 가랑비   | ㄱ랑비   |
| 211154   | 이슬    | 이슬    |
| 211155   | 시원하다  | 건덥다   |
| 211156   | 도롱이   | 우장    |
| 211157   | 가물다   | ㄱ물다   |
| 211158   | 가뭄    | ㄱ뭄    |
| 211159   | 흉년    | 승년    |
| 211160   | 비바람   | 비브름   |
| 211161   | 안개    | 안개    |
| 211162   | 번개    | 편개    |
| 211163   | 천둥    | 청둥    |
| 211164   | 벼락    | 베락    |
| 211165   | 홍수    | 홍수    |
| 211166   | 눈[雪]  | 눈     |

|        |        |       |
|--------|--------|-------|
| 211167 | 함박눈    | 함박눈   |
| 211168 | 오다[來]  | 오다    |
| 211169 | 싸락눈    | 스레기눈  |
| 211170 | 도둑눈    | 아이물른눈 |
| 211171 | 내리다[降] | 느리다   |
| 211172 | 희다     | 헤영허다  |
| 211173 | 춡다     | 얼다    |
| 211174 | 떨다[慄]  | 털다    |
| 211175 | 고드름    | 동곳    |
| 211176 | 녹다[融]  | 녹다    |
| 211177 | 얼음     | 얼음    |
| 211178 | 얼다[氷]  | 얼다    |
| 211179 | 굽다     | 굽다    |
| 211180 | 진눈깨비   | 눈비    |
| 211181 | 우박     | 우박    |

#### 방향

|        |        |      |
|--------|--------|------|
| 211182 | 앞      | 압    |
| 211183 | 뒤      | 뒤    |
| 211184 | 결      | 즈끗디  |
| 211185 | 옆      | 엽    |
| 211186 | 위      | 우    |
| 211187 | 아래     | 알    |
| 211188 | 밝다[明]  | 복다   |
| 211189 | 어둡다[暗] | 어둡다  |
| 211190 | 왼쪽     | 왼착   |
| 211191 | 오른쪽    | 느단착  |
| 211192 | 밑      | 알    |
| 211193 | 흐르다[流] | 홀르다  |
| 211194 | 안[內]   | 안    |
| 211195 | 밖      | 베껏   |
| 211196 | 구석     | 구석   |
| 211197 | 모서리    | 모    |
| 211198 | 가[邊]   | 바위   |
| 211199 | 가장자리   | 가사리  |
| 211200 | 가운데    | 한반치  |
| 211201 | 곧다[直]  | 꼬짜허다 |



## 12. 동물

### 가축

|          |       |         |
|----------|-------|---------|
| 212001   | 소[牛]  | 췌       |
| 212002   | 막다[防] | 막다      |
| 212003   | 암소    | 암췌      |
| 212004   | 수소    | 부랭이     |
| 212005   | 휩소    | *       |
| 212006   | 불까다   | 불베다     |
| 212007   | 불알    | 불       |
| 212008   | 황소    | 밭갈췌     |
| 212009   | 얼룩소   | 어럭췌     |
| 212010   | 부리망   | 망울      |
| 212011   | 쇠고삐   | 녹대      |
| 212012   | 끌다    | 끗다, 이끄다 |
| 212013   | 송아지   | 송애기     |
| 212014   | 배넛소   | 반작췌     |
| 212015-1 | 하름~열름 |         |

|           |           | 소  | 말 |
|-----------|-----------|----|---|
| 212015-1  | 하름(1)     | 금승 | * |
| 212015-2  | 이듭/두슴(2)  | 다간 | * |
| 212105-3  | 사름(3)     | *  | * |
| 212015-4  | 나름(4)     | *  | * |
| 212015-5  | 다슴(5)     | *  | * |
| 212015-6  | 여슴(6)     | *  | * |
| 212015-7  | 이름(7)     | *  | * |
| 212015-8  | 여듭(8)     | *  | * |
| 212015-9  | 아슴/구름(9)  | *  | * |
| 212015-10 | 열름/담불(10) | *  | * |

|        |       |      |
|--------|-------|------|
| 212016 | 작두    | 작도   |
| 212017 | 쇠죽    | *    |
| 212018 | 구유    | 남도고리 |
| 212019 | 말[馬]  | 말    |
| 212020 | 죽다[死] | 죽다   |

|        |         |       |
|--------|---------|-------|
| 212021 | 많다[多]   | 하다    |
| 212022 | 암말      | 즈매    |
| 212023 | 수말      | 웅매    |
| 212024 | 망아지     | 몽생이   |
| 212025 | 가라말     | *     |
| 212026 | 청총마/총이말 | *     |
| 212027 | 절따말/적다마 | *     |
| 212028 | 얼룩말     | *     |
| 212029 | 유마      | *     |
| 212030 | 백마      | *     |
| 212031 | 고라말     | *     |
| 212032 | 곰배말     | *     |
| 212033 | 조랑말     | *     |
| 212034 | 달리다[走]  | 든다    |
| 212035 | 마소      | 쉐므쉬   |
| 212036 | 글경이     | 굽쟁이   |
| 212037 | 털[毛]    | 털     |
| 212038 | 말고삐     | 물늑대   |
| 212039 | 당기다     | 등기다   |
| 212040 | 낙인      | 낙역    |
| 212041 | 개[犬]    | 개     |
| 212042 | 짖다[吠]   | 주끄다   |
| 212043 | 쓰다[用]   | 쓰다    |
| 212044 | 수캐      | 수캐    |
| 212045 | 암캐      | 암캐    |
| 212046 | 강아지     | 강생이   |
| 212047 | 비루      | 비리    |
| 212048 | 비루먹다    | 비리올르다 |
| 212049 | 고양이     | 고냉이   |
| 212050 | 암고양이    | 암코냉이  |
| 212051 | 수고양이    | 수코냉이  |
| 212052 | 도둑고양이   | 도둑고냉이 |
| 212053 | 살쟁이     | 숙     |
| 212054 | 닭       | 득     |
| 212055 | 암탉      | 암득    |
| 212056 | 수탉      | 장득    |
| 212057 | 털떠구니    | *     |

|          |         |       |
|----------|---------|-------|
| 212058   | 산떡      | 산떡    |
| 212059   | 닭의어리    | ㄴ리    |
| 212060   | 닭장      | 독집    |
| 212061   | 달걀      | 독새기   |
| 212061-1 | 노른자위    | 노린자   |
| 212061-2 | 흰자위[卵]  | 흰자    |
| 212062   | 끓다[腐]   | 고리다   |
| 212063   | 병아리     | 비에기   |
| 212064   | 까다[剝]   | 깨우다   |
| 212065   | 돼지      | 도새기   |
| 212066   | 수돼지     | 수토새기  |
| 212067   | 암돼지     | 암토새기  |
| 212068   | 추렴하다    | 추렴허다  |
| 212069   | 가르다[分]  | 갈르다   |
| 212070   | 고기[肉]   | 퀘기    |
| 212071   | 일숨씨     | 일성    |
| 212072   | 생둥이     | 서툰바치  |
| 212073   | 새끼 돼지   | 새끼도야지 |
| 212074   | 돼지우리    | 통시    |
| 212075   | 돼지고기    | 도새기퀘기 |
| 212076   | 적       | 적갈    |
| 212077   | 적꼬치     | 적꼬지   |
| 212078   | 굽다[炙]   | 굽다    |
| 212079   | 무판(푸줏간) | 무판집   |
| 212080   | 기르다     | 질루다   |
| 212081   | 둘치      | 지지랭이  |
| 212081-1 | 둘암소     | 지지랭이  |
| 212081-2 | 둘암말     | 지지랭이  |
| 212081-3 | 둘암돼지    | 지지랭이  |
| 212081-4 | 둘암캐     | 지지랭이  |
| 212082   | 거위      | *     |
| 212083   | 오리      | 올랭이   |

#### 별레와 곤충

|        |    |     |
|--------|----|-----|
| 212084 | 별레 | 베랭이 |
| 212085 | 파리 | 프리  |
| 212086 | 취  | 취   |

|          |        |             |
|----------|--------|-------------|
| 212087   | 쉬슬다    | 쉬싸다         |
| 212088   | 가시     | 장버랭이        |
| 212089   | 구더기    | 벌거지         |
| 212090   | 쉬파리    | 쉬프리         |
| 212091   | 쇠파리    | 쉐프리         |
| 212092   | 똥파리    | 똥프리         |
| 212093   | 모기     | 모기          |
| 212094   | 물다[咬]  | 물다          |
| 212095   | 각다귀    | 극다귀         |
| 212096   | 장구벌레   | 고노리         |
| 212097   | 벼룩     | 베룩          |
| 212098   | 빈데     | 빈데          |
| 212099   | 이[蟲]   | 니           |
| 212099-1 | 서캐     | 쉬           |
| 212100   | 서캐훅이   | 챙빃          |
| 212101   | 지렁이    | 게우리         |
| 212102   | 회충     | 송백충         |
| 212103   | 거머리    | 거덜          |
| 212104   | 바구미    | 남쉐          |
| 212105   | 콩바구미   | *           |
| 212106   | 굼벥이    | 굼벥이         |
| 212107   | 땅강아지   | 하늘강생이, 땅강생이 |
| 212108   | 그리마    | *           |
| 212109   | 쥐며느리   | 쥐메누리        |
| 212110   | 노래기    | 구레기         |
| 212111   | 지네     | 주녕이         |
| 212112   | 진딧물    | 진쉬          |
| 212113   | 진딧물내리다 | 진쉬일다        |
| 212114   | 하루살이   | 흐루살이        |
| 212115   | 눈에놀이   | 눈에눈이        |
| 212116   | 달팽이    | 들벥이         |
| 212117   | 민달팽이   | 옷벗은들벥이      |
| 212118   | 거미     | 거미          |
| 212119   | 개미     | 게염지         |
| 212120   | 왕개미    | 왕게염지        |
| 212121   | 불개미    | *           |
| 212122   | 메뚜기    | 말축          |

|          |          |       |
|----------|----------|-------|
| 212123   | 방아깨비     | 상동말축  |
| 212124   | 여치       | 물말축   |
| 212125   | 사마귀[螳螂]  | 당앵이   |
| 212126   | 귀뚜라미     | 공쟁이말축 |
| 212127   | 풍뎅이      | 두메기   |
| 212128   | 장수풍뎅이    | 밭갈취   |
| 212129   | 무당벌레     | 무당벌레  |
| 212130   | 쇠똥구리     | 두메기   |
| 212131   | 딱정벌레     | 왕두메기  |
| 212132   | 집게벌레     | *     |
| 212133   | 하늘소      | *     |
| 212134   | 노린재      | 노린재   |
| 212135   | 나비       | 나비    |
| 212136   | 호랑나비     | 노랑나비  |
| 212137   | 날다[飛]    | 날다    |
| 212138   | 사슴벌레     | *     |
| 212139   | 잠자리      | 물자리   |
| 212140   | 고추잠자리    | 물자리   |
| 212141   | 장수잠자리    | 왕자리   |
| 212141-1 |          | *     |
| 212142   | 매미       | 재     |
| 212143   | 매미허물     | 흙     |
| 212144   | 말매미(왕매미) | 왕재    |
| 212145   | 쓰르라미     | *     |
| 212145-1 |          | 꽃재    |
| 212146   | 소금쟁이     | 소금장시  |
| 212147   | 방개       | 거멸    |
| 212148   | 반딧불이     | 불란디   |
| 212149   | 벌        | 벌     |
| 212150   | 꿀벌       | 청벌    |
| 212151   | 꿀        | 청     |
| 212152   | 땅벌       | *     |
| 212153   | 말벌       | 사상벌   |
| 212154   | 붓다[腫]    | 붓다    |
| 212155   | 진드기      | 진독    |
| 212155-1 |          | 서미역   |
| 212155-2 |          | 부그리   |

|          |     |       |
|----------|-----|-------|
| 212156   | 송충이 | 송충버랭이 |
| 212157   | 개구리 | 가가비   |
| 212158   | 올챙이 | 올챙이   |
| 212159   | 맹꽁이 | 멕마구리  |
| 212160   | 두꺼비 | *     |
| 212161   | 뱀   | 베염    |
| 212161-1 | 뱀띠  | 베염띠   |
| 212161-2 | 뱀허물 | 베염흠   |
| 212162   | 용   | 용     |
| 212162-1 | 용띠  | 용띠    |
| 212163   | 도마뱀 | 장쿨레비  |
| 212164   | 구렁이 | 구렁이   |
| 212165   | 살무사 | 물폐기   |

#### 들짐승

|          |          |      |
|----------|----------|------|
| 212166   | 여우       | 여우   |
| 212167   | 노루       | 노리   |
| 212168   | 염소       | 염송애기 |
| 212169   | 토끼       | 토끼   |
| 212170   | 족제비      | 족제비  |
| 212171   | 쥐        | 챙이   |
| 212172   | 갸다       | 갸다   |
| 212173   | 쥐구멍      | 쥐구멍  |
| 212174   | 박쥐       | 박쥐   |
| 212175   | 다람쥐      | *    |
| 212176   | 오소리      | *    |
| 212176-1 |          | *    |
| 212177   | 지달(이)    | 지다리  |
| 212178   | 지달피      | *    |
| 212179   | 멧돼지      | 산도새기 |
| 212180   | 원숭이      | 잔나비  |
| 212181   | 원숭이띠     | 잔나비띠 |
| 212182   | 호랑이      | 호랑이  |
| 212183   | 호랑이띠(범띠) | 범띠   |
| 212184   | 꼬리       | 물랭이  |

#### 날짐승

|        |         |      |
|--------|---------|------|
| 212185 | 새[鳥]    | 생이   |
| 212186 | 꿩지      | 꿀랑지  |
| 212187 | 깃[羽]    | 생이털  |
| 212188 | 새총      | 느레기총 |
| 212189 | 새가슴     | *    |
| 212190 | 참새      | 밥주리  |
| 212191 | 비둘기     | 비둘기  |
| 212192 | 제비      | 제비   |
| 212193 | 매       | 매천이  |
| 212194 | 참매      | *    |
| 212195 | 솔개      | 똥소로기 |
| 212196 | 까치      | 까치   |
| 212197 | 까마귀     | 가마귀  |
| 212198 | 딱따구리    | 딱따구리 |
| 212199 | 뼈꾸기     | 뼈꿩새  |
| 212200 | 종달새     | 종달새  |
| 212201 | 올빼미     | 옷밤   |
| 212202 | 꿩       | 꿩    |
| 212203 | 까투리(암꿩) | 암꿩   |
| 212204 | 장끼      | 장꿩   |
| 212205 | 꿩알      | 꿩독새기 |
| 212206 | 꺼병이     | 꿩비에기 |
| 212207 | 두루미     | *    |
| 212208 | 기러기     | 그러기  |
| 212209 | 갈매기     | 갈매기  |

#### 바다 동물

|        |        |         |
|--------|--------|---------|
| 212210 | 고둥     | 고둥, ㄹ매기 |
| 212211 | 개울타리고둥 | *       |
| 212212 | 명주고둥   | *       |
| 212213 | 눈알고둥   | 문단개     |
| 212214 | 밤고둥    | 덕보말     |
| 212215 | 팽이고둥   | 수두리     |
| 212216 | 각시고둥   | *       |
| 212217 | 두드럭고둥  | 메옹기     |
| 212218 | 대수리    | *       |
| 212219 | 타래고둥   | *       |

|          |         |          |
|----------|---------|----------|
| 212220   | 대룡뿔고등   | *        |
| 212221   | 제주개오지   | *        |
| 212222   | 애기삿갓조개  | *        |
| 212223   | 거북손     | 대수알      |
| 212224   | 따개비     | *        |
| 212225   | 군부      | 군벗       |
| 212225-1 |         | 물군벗/ 쇠군벗 |
| 212226   | 진주담치    | *        |
| 212227   | 소라      | 구쟁기      |
| 212227-1 |         | 생쟁이      |
| 212228   | 전복      | 생복       |
| 212228-1 |         | 암참복      |
| 212228-2 |         | 수참복      |
| 212229   | 전복갑     | 생복겹데기    |
| 212230   | 오분자기    | 조개       |
| 212231   | 게       | 쟁이       |
| 212232   | 바위게     | 똥쟁이      |
| 212233   | 부채게     | 여쟁이      |
| 212234   | 엽낭게     | *        |
| 212235   | 참게      | 참게       |
| 212236   | 꽃게      | *        |
| 212237   | 소라게     | 거들메기     |
| 212238   | 그물무늬금게  | *        |
| 212239   | 집게발     | 아강발      |
| 212240   | 갯강구     | 바게       |
| 212241   | 말미잘     | 말미잘      |
| 212242   | 성게      | 성기       |
| 212243   | 말뚝성게    | 숨        |
| 212244   | 군소      | 굴멍이      |
| 212245   | 새우      | 새워       |
| 212246   | 불가사리    | 불가사리     |
| 212247   | 수세미불가사리 | *        |
| 212248   | 해파리     | 해파리      |
| 212249   | 낙지      | 낙지       |
| 212250   | 문어      | 문개       |
| 212251   | 서대      | *        |
| 212252   | 해삼      | 해삼       |



|        |        |      |
|--------|--------|------|
| 212253 | 멍게     | *    |
| 212254 | 바닷물고기  | 바릇궤기 |
| 212255 | 맑다[淸]  | 맑다   |
| 212256 | 흐리다[濁] | 어둑다  |
| 212257 | 잘다[細]  | 졸다   |
| 212258 | 썩다[腐]  | 고리다  |
| 212259 | 비늘     | 비늘   |
| 212260 | 배따다    | 배르쓰다 |
| 212261 | 생선(生鮮) | 바릇궤기 |
| 212262 | 미끼     | 니깍   |
| 212263 | 갯지렁이   | 물지렁이 |
| 212264 | 낙시     | 낙시   |
| 212265 | 낙싯대    | 춤대   |
| 212266 | 만들다[造] | 멘들다  |
| 212267 | 낙싯줄    | 낙시술  |
| 212268 | 붕돌     | 뽕돌   |
| 212269 | 참대     | 차마대  |
| 212270 | 낙다     | 나끄다  |
| 212271 | 주낙     | 주낙   |
| 212272 | 주낙배    | 주낙배  |
| 212273 | 지느러미   | 늘개   |
| 212274 | 아가미    | 아구리  |
| 212275 | 멸치     | 메리치  |
| 212276 | 보리멸    | 징어리  |
| 212277 | 갈치     | 갈치   |
| 212278 | 풀갈치    | *    |
| 212279 | 베도라치   | *    |
| 212280 | 말뚝망둑어  | *    |
| 212281 | 별망둑    | *    |
| 212282 | 매통이    | *    |
| 212283 | 고생놀래기  | *    |
| 212284 | 용치놀래기  | *    |
| 212285 | 어렁놀래기  | 어렁이  |
| 212286 | 실놀래기   | *    |
| 212287 | 옥돔     | 생성   |
| 212288 | 흑돔     | 흑돔   |
| 212289 | 돌돔     | 구릿   |

|          |      |      |
|----------|------|------|
| 212290   | 감성돔  | *    |
| 212291   | 뱅에돔  | *    |
| 212292   | 황돔   | 황돔   |
| 212293   | 자리돔  | 자리   |
| 212293-1 |      | 거리다  |
| 212294   | 고등어  | 고등에  |
| 212295   | 전갱이  | 각제기  |
| 212296   | 조기   | 조기   |
| 212297   | 보구치  | 보근치  |
| 212298   | 가오리  | 가오리  |
| 212299   | 오징어  | 오징어  |
| 212299-1 |      | 부쪼다  |
| 212300   | 붉바리  | 북바리  |
| 212301   | 다금바리 | 다금바리 |
| 212302   | 농어   | *    |
| 212303   | 쥐치   | 괘주리  |
| 212304   | 우럭볼락 | 우럭   |
| 212305   | 볼락   | 볼락   |
| 212306   | 쭈기미  | *    |
| 212307   | 독가시치 | *    |
| 212308   | 방어   | 방어   |
| 212309   | 재방어  | *    |
| 212310   | 상어   | 상어   |
| 212311   | 가래상어 | *    |
| 212312   | 개상어  | *    |
| 212313   | 팽이상어 | *    |
| 212314   | 귀상어  | *    |
| 212315   | 돌묵상어 | *    |
| 212316   | 수염상어 | *    |
| 212317   | 두툽상어 | *    |
| 212318   | 별상어  | *    |
| 212319   | 고래   | 고래   |
| 212320   | 돌고래  | 곰수에기 |
| 212321   | 쥐돔   | *    |
| 212322   | 복어   | 복쟁이  |
| 212323   | 흑산호  | *    |

### 13. 식물

#### 풀

|        |        |          |
|--------|--------|----------|
| 213001 | 가라지    | ㄱ라지      |
| 213002 | 갈대     | 갈대       |
| 213003 | 억새     | 어웁       |
| 213004 | 새풀     | 어웁꽃      |
| 213005 | 화승(火繩) | 화싱       |
| 213006 | 띠[茅]   | 새        |
| 213007 | 띠밭     | 새왓       |
| 213008 | 길차다    | 후차다      |
| 213009 | 빨기     | 뽕이       |
| 213010 | 사초     | *        |
| 213011 | 천일사초   | *        |
| 213012 | 김의털    | 쉐터럭      |
| 213013 | 쇠무릎    | 돌ㄱ작쿨     |
| 213014 | 바랭이    | 제완지      |
| 213015 | 민바랭이   | 츄제완지     |
| 213016 | 조개풀    | *        |
| 213017 | 방동사니   | *        |
| 213018 | 마디풀    | ㄱ작쿨      |
| 213019 | 솔새     | *        |
| 213020 | 개솔새    | *        |
| 213021 | 뚝새풀    | *        |
| 213022 | 괭이밥    | 개자리, 생이풀 |
| 213023 | 원추리    | *        |
| 213024 | 메꽃     | *        |
| 213025 | 갯메꽃    | *        |
| 213026 | 비름     | 비눔       |
| 213027 | 쇠비름    | 쉐비눔      |
| 213028 | 개비름    | 개비눔      |
| 213029 | 참비름    | 츄비눔      |
| 213030 | 땅빈대    | 딸감냥      |
| 213031 | 애기땅빈대  | *        |
| 213032 | 평의밥    | 평밭       |
| 213033 | 여우구슬   | 메누리감냥    |

|        |        |       |
|--------|--------|-------|
| 213034 | 질경이    | 베채기   |
| 213035 | 쭈      | 속     |
| 213036 | 캐다[採]  | 캐다    |
| 213037 | 쭈떡     | 속떡    |
| 213038 | 토끼풀    | 수에풀   |
| 213039 | 개자리    | 개자리풀  |
| 213040 | 냉이     | 난생이   |
| 213041 | 방울새풀   | *     |
| 213042 | 무릇     | 물웃    |
| 213043 | 여뀌     | *     |
| 213044 | 오이풀    | 오나리불리 |
| 213045 | 영경귀    | 소랭이   |
| 213046 | 썰기풀    | 찢남    |
| 213047 | 수크령    | *     |
| 213048 | 망초     | 천상쿨   |
| 213049 | 별꽃     | *     |
| 213050 | 병풀     | 함박쿨   |
| 213051 | 깨풀     | *     |
| 213052 | 박조가리나물 | *     |
| 213053 | 파리     | 하늘푸개  |
| 213054 | 땅파리    | 보리푸개  |
| 213055 | 피막이풀   | 빈네풀   |
| 213056 | 도깨비바늘  | 개바농   |
| 213057 | 도꼬마리   | 개범벅   |
| 213058 | 모시풀    | 모시    |
| 213059 | 왕모시풀   | *     |
| 213060 | 천남성    | 처남상   |
| 213061 | 맥문동    | *     |
| 213062 | 밀나물    | 멜순    |
| 213063 | 살갈퀴    | 꼭깨기   |
| 213064 | 차풀     | 자굴    |
| 213065 | 결명자    | 절명자   |
| 213066 | 까마중    | 물오줌낭  |
| 213067 | 하늘타리   | 두루에기  |
| 213068 | 노랑하늘타리 | 두루에기  |
| 213069 | 부처손    | 푼채순이  |
| 213070 | 방가지뚱   | 수웨풀   |

|        |        |      |
|--------|--------|------|
| 213071 | 닭의장풀   | *    |
| 213072 | 배풍등    | *    |
| 213073 | 취      | 꼭    |
| 213074 | 취덩굴    | 꼭줄   |
| 213075 | 취뿌리    | 꼭불리  |
| 213076 | 댕댕이덩굴  | 정당   |
| 213077 | 노박덩굴   | *    |
| 213078 | 새박덩굴   | *    |
| 213079 | 호자덩굴   | *    |
| 213080 | 한삼덩굴   | 삼수세기 |
| 213081 | 함마기    | *    |
| 213082 | 담쟁이    | 눈벨레기 |
| 213083 | 송악     | 송악   |
| 213084 | 인동     | 운동   |
| 213085 | 멀꿀     | *    |
| 213086 | 천문동    | *    |
| 213087 | 계요등    | *    |
| 213088 | 사위질빵   | *    |
| 213089 | 등대풀    | *    |
| 213090 | 수영(승아) | 개술   |
| 213091 | 애기수영   | *    |
| 213092 | 싸리     | *    |
| 213093 | 땀싸리    | *    |
| 213094 | 명아주    | *    |
| 213095 | 갯      | 갯늪물  |
| 213096 | 달래     | 드룻마농 |
| 213097 | 씀마귀    | 수웨풀  |
| 213098 | 고들빼기   | *    |
| 213099 | 박하     | 박하   |
| 213100 | 비수리    | *    |
| 213101 | 꿀풀     | *    |
| 213102 | 마삭줄    | *    |
| 213103 | 갯기름나물  | 방풍   |
| 213104 | 구릿대    | *    |
| 213105 | 으아리    | *    |
| 213106 | 익모초    | 인모초  |
| 213107 | 피마자    | *    |

|        |       |     |
|--------|-------|-----|
| 213108 | 뉴질랜드삼 | 신사라 |
| 213109 | 양하    | 양에  |
| 213110 | 파초    | 반치  |
| 213111 | 갯강활   | 구렁대 |
| 213112 | 부들    | *   |
| 213113 | 개구리밥  | *   |
| 213114 | 줄     | *   |
| 213115 | 마름    | *   |
| 213116 | 싱경이   | *   |

### 꽃

|        |         |        |
|--------|---------|--------|
| 213117 | 꽃       | 고장     |
| 213118 | 꽃봉오리    | 꽃봉오리   |
| 213119 | 채송화     | *      |
| 213120 | 민들레     | 민들레    |
| 213121 | 봉선화     | 봉선화    |
| 213122 | 흰꽃나도사프란 | *      |
| 213123 | 분꽃      | *      |
| 213124 | 할미꽃     | 광난이풀   |
| 213125 | 붓꽃      | *      |
| 213126 | 참나리     | *      |
| 213127 | 맨드라미    | *      |
| 213128 | 해바라기    | 해바라기   |
| 213129 | 진달래     | 진달래    |
| 213130 | 철쭉      | 철쭉     |
| 213131 | 피다[開]   | 피다     |
| 213132 | 쑥부쟁이    | *      |
| 213133 | 수국      | 사발꽃    |
| 213134 | 산수국     | *      |
| 213135 | 광대나물    | *      |
| 213136 | 제비꽃     | *      |
| 213137 | 복수초     | *      |
| 213138 | 수선화     | 말마농 ㄹ장 |
| 213139 | 선인장     | 선인장    |
| 213140 | 문주란     | 문주란    |

### 나무

|        |       |      |
|--------|-------|------|
| 213141 | 뿌리    | 불리   |
| 213142 | 잔뿌리   | 즌불리  |
| 213143 | 줄기    | 남뎡이  |
| 213144 | 가지    | 가쟁이  |
| 213145 | 잎     | 썸    |
| 213146 | 나무    | 남    |
| 213147 | 하다[爲] | 하다   |
| 213148 | 삭정이   | 삭다리  |
| 213149 | 소나무   | 소낭   |
| 213150 | 솔잎    | 솔썸   |
| 213151 | 솔가리   | 솔썸   |
| 213152 | 솔방울   | 솔똥   |
| 213153 | 떨감    | 지들커  |
| 213154 | 마디다   | 므디다  |
| 213155 | 갈퀴    | 굵갱이  |
| 213156 | 도끼    | 도치   |
| 213157 | 팽나무   | 폭낭   |
| 213158 | 팽     | 폭    |
| 213159 | 동백나무  | 돛박낭  |
| 213160 | 붉다[赤] | 벌경허다 |
| 213161 | 멀구슬나무 | 므구슬낭 |
| 213162 | 버드나무  | 버디낭  |
| 213163 | 녹나무   | 녹낭   |
| 213164 | 아카시아  | 아까시낭 |
| 213165 | 은행나무  | 은행나무 |
| 213166 | 음나무   | 엄남   |
| 213167 | 삼나무   | 숙대낭  |
| 213168 | 심다[植] | 싱그다  |
| 213169 | 벗나무   | 벗낭   |
| 213170 | 왕벗나무  | *    |
| 213171 | 사옥    | *    |
| 213172 | 느티나무  | *    |
| 213173 | 주목    | 노가리낭 |
| 213174 | 종려나무  | 남총낭  |
| 213175 | 윤노리나무 | *    |
| 213176 | 비목나무  | *    |
| 213177 | 구상나무  | 구상낭  |

|        |        |        |
|--------|--------|--------|
| 213178 | 굴거리나무  | *      |
| 213179 | 생달나무   | *      |
| 213180 | 굴나무    | 미깡낭    |
| 213181 | 따다[摘]  | 타다     |
| 213182 | 광굴나무   | 산물낭    |
| 213183 | 유자나무   | 유자낭    |
| 213184 | 비자나무   | 비자낭    |
| 213185 | 치자나무   | 치지낭    |
| 213186 | 비파나무   | 비파낭    |
| 213187 | 오동나무   | *      |
| 213188 | 조롱나무   | 조레기낭   |
| 213189 | 배롱나무   | *      |
| 213190 | 감탕나무   | *      |
| 213191 | 거망웃나무  | *      |
| 213192 | 팡팡나무   | *      |
| 213193 | 노린재나무  | *      |
| 213194 | 때죽나무   | 종낭     |
| 213195 | 마가목    | 마깨낭    |
| 213196 | 말채나무   | 마깨블레낭  |
| 213197 | 느릅나무   | 누룩낭    |
| 213198 | 두릅나무   | 드릅낭    |
| 213199 | 향나무    | 상낭     |
| 213200 | 옷나무    | 칠낭     |
| 213201 | 소리나무   | *      |
| 213202 | 솔비나무   | *      |
| 213203 | 층층나무   | *      |
| 213204 | 닥나무    | *      |
| 213205 | 돈나무    | 가마귀똥낭  |
| 213206 | 무환자나무  | *      |
| 213207 | 쥐똥나무   | *      |
| 213208 | 섬쥐똥나무  | 가스레기낭  |
| 213209 | 이팝나무   | *      |
| 213210 | 가시나무   | 가시낭    |
| 213211 | 개가시나무  | *      |
| 213212 | 중가시나무  | *      |
| 213213 | 호랑가시나무 | 소웁이가시낭 |
| 213214 | 돌가시나무  | *      |



|        |        |      |
|--------|--------|------|
| 213215 | 제주가시나무 | *    |
| 213216 | 꾸지뽕나무  | 꿇가시낭 |
| 213217 | 덜꿍나무   | *    |
| 213218 | 사스레피나무 | 비풍남  |
| 213219 | 머귀나무   | 머귀남  |
| 213220 | 좀머귀나무  | 논독남  |
| 213221 | 자귀나무   | 자귀남  |
| 213222 | 말오줌때   | *    |
| 213223 | 중대가리나무 | *    |
| 213224 | 예덕나무   | 복닥낭  |
| 213225 | 참식나무   | 신낭   |
| 213226 | 까마귀쪽나무 | 구럼비낭 |
| 213227 | 천선과나무  | 빈독낭  |
| 213228 | 실거리나무  | *    |
| 213229 | 굴피나무   | *    |
| 213230 | 후박나무   | *    |
| 213231 | 풍개나무   | *    |
| 213232 | 먼나무    | *    |
| 213233 | 박달나무   | *    |
| 213234 | 떡갈나무   | *    |
| 213235 | 상수리나무  | *    |
| 213236 | 참나무    | 츠낭   |
| 213237 | 산딸나무   | 틀낭   |
| 213238 | 초피나무   | 제피낭  |
| 213239 | 국수나무   | *    |
| 213240 | 사철나무   | *    |
| 213241 | 겨우살이   | 저슬살이 |
| 213242 | 모람     | *    |
| 213243 | 누리장나무  | 개남   |
| 213244 | 아왜나무   | 아왜남  |
| 213245 | 순비기나무  | 숨베기남 |
| 213246 | 불나무    | *    |
| 213247 | 협죽도    | *    |
| 213248 | 담팔수    | *    |

**열매**

|        |    |    |
|--------|----|----|
| 213249 | 과일 | 과일 |
|--------|----|----|

|        |       |       |
|--------|-------|-------|
| 213250 | 껍질    | 껍죽    |
| 213251 | 깎다    | 가끄다   |
| 213252 | 벗기다   | 벳기다   |
| 213253 | 딸기    | 딸기    |
| 213254 | 뱀딸기   | 게염지탈  |
| 213255 | 멍석딸기  | 보리탈   |
| 213256 | 복분자딸기 | *     |
| 213257 | 줄딸기   | 한탈    |
| 213258 | 산딸기   | 탈     |
| 213259 | 가시딸기  | *     |
| 213260 | 검은딸기  | *     |
| 213261 | 장딸기   | *     |
| 213262 | 개암    | 저밤    |
| 213263 | 머루    | 멸위    |
| 213264 | 개머루   | 고냉이멸위 |
| 213265 | 까마귀머루 | *     |
| 213266 | 산머루   | *     |
| 213267 | 상동나무  | 삼동낭   |
| 213268 | 상동    | 삼동    |
| 213269 | 시로미   | *     |
| 213270 | 다래    | 드레    |
| 213271 | 개다래   | 개드레   |
| 213272 | 보리수나무 | 블레남   |
| 213273 | 보리수   | 블레    |
| 213274 | 보리장나무 | 마께블레  |
| 213275 | 앵두나무  | 앵도남   |
| 213276 | 앵두    | 앵도    |
| 213277 | 매실    | 매실    |
| 213278 | 매화나무  | 매화남   |
| 213279 | 밀감    | 미깡    |
| 213280 | 밀감나무  | 미깡낭   |
| 213281 | 탱자    | 탱지    |
| 213282 | 탱자나무  | 탱지남   |
| 213283 | 감     | 감     |
| 213284 | 떨다[柿] | 초랍다   |
| 213285 | 감물    | 감물    |
| 213286 | 홍시    | 홍실    |

|        |        |      |
|--------|--------|------|
| 213287 | 꽃감     | 츄린감  |
| 213288 | 청미래덩굴  | 맹게   |
| 213289 | 맹감     | 맹게   |
| 213290 | 찹레나무   | 도꼬리남 |
| 213291 | 영실     | 고방귀  |
| 213292 | 사과나무   | 사과남  |
| 213293 | 사과     | 사과   |
| 213294 | 배나무    | 배남   |
| 213295 | 배      | 배    |
| 213296 | 돌배     | 꽁배   |
| 213297 | 팔배나무   | *    |
| 213298 | 밤나무    | 밤남   |
| 213299 | 구실잣밤나무 | 저밤남  |
| 213300 | 밤      | 밤    |
| 213301 | 보늬     | *    |
| 213302 | 복숭아나무  | 복숭개남 |
| 213303 | 복숭아    | 복숭개  |
| 213304 | 대추     | 대추   |
| 213305 | 대추나무   | 대추남  |
| 213306 | 으름     | 유름   |
| 213307 | 오미자    | 오미자  |

#### 바다 식물

|        |     |       |
|--------|-----|-------|
| 213308 | 미역  | 메역    |
| 213309 | 넓미역 | 넙메역   |
| 213310 | 미역쇠 | 메역새   |
| 213311 | 김   | 김     |
| 213312 | 파래  | 파래    |
| 213313 | 툇   | 툇     |
| 213314 | 패   | 패     |
| 213315 | 넓패  | 넙패    |
| 213316 | 지층이 | 지층    |
| 213317 | 다시마 | 다시마   |
| 213318 | 듬북  | 듬북    |
| 213319 | 감태  | 감태    |
| 213320 | 모자반 | 뭍, 툇망 |
| 213321 | 청각  | 정각    |

|        |         |      |
|--------|---------|------|
| 213322 | 우뭇가사리   | 우미   |
| 213323 | 우미      | 우미   |
| 213324 | 서슬(까막살) | *    |
| 213325 | 진두밭     | *    |
| 213326 | 도박      | 도박   |
| 213327 | 갈래곰보    | 갈래곰보 |
| 213328 | 풀가사리    | 가사리  |